

中國學

CHINESE STUDIES

第 31 輯

大韓中國學會

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2008. 12. 20

<大韓中國學會>

고 문 : 성파 스님 조남규 여사
명예회장 : 이근효(경성대 명예교수)
회 장 : 김태관(동의대)
부 회 장 : 이철리(경남대) 이인택(울산대) 임수암(경남정보대) 서석홍(부경대)
감 사 : 이재하(경성대) 진광호(부산외대)
연구윤리위원회 :
위원장 : 김용운(동아대)
위 원 : 김희준(부산대) 하영삼(경성대) 김창경(부경대) 서석홍(부경대)
운영이사 : 강식진(부산대) 김남희(부산외대) 김성문(진주보건간호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이상규(영산대) 류영표(경성대) 박경실(울산대) 박추현(경상대) 신석찬(부산여대) 심형철(신라대) 박숙경(동서대) 이철리(경남대) 임효섭(동아대) 정귀화(창원대) 정옥근(동의대) 김명자(동의공업대) 왕옥지(동명대) 박용래(부산경상대) 최성경(경남정보대) 한중호(동주대)
총무이사 : 강경구(동의대)
학술이사 : 김창경(총괄, 고전문학 분과, 부경대) 박노중(현대문학 분과, 동아대) 문병순(중국어학 분과, 경남대) 손성문(사회과학분과, 진주산업대)
편집위원회 :
위원장 : 하영삼(경성대)
위 원 : 문병순(경남대) 이규일(영동대) 김창경(부경대) 김태만(한국해양대) 김명구(명지대) 강경구(동의대) 손성문(진주산업대) 양만기(제주한라대 대학)
섭외이사 : 김태만(한국해양대)
기획이사 : 오창화(경성대)
사 무 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내 (☎614-714)
연 락 처 : 사무실: (051) 890-1252
총무 : (051) 890-1257(연구실), 016-644-4815 kkkang@deu.ac.kr
편집 : (051) 620-4266(연구실), 016-807-6738 ysha@ks.ac.kr

[題字] : 성파스님(通道寺 瑞雲庵 住持)

中國學

第31輯

2008年 12月

目 次

[논 문]

康寔鎭·현대한어 음절 분포 연구	1
河永三·『生生字譜』에 反映된 18世紀 後半 朝鮮時代 文獻用 漢字頻度	41
王 平·201標準部首與HSK2905漢字認知關係研究	73
李雄吉·魏晉시기 陽聲韻 詩韻 分部考	119
黃金城·從漢語吳方言人稱代詞複數後綴談起	137
林英花·고대 漢語 존칭어의 形成要因과 과정	157
이효영·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동사성 동목구조 사용상의 오류분석	191
이수진·“被字句”의 “被”에 대한 품사 범주 고찰	215
張京京·初級對外漢語教材拼音標注、分詞連寫情況研究	237
이규일·〈文賦〉와 《文心雕龍》의 문예이론 비교	251
李在夏·《洙泗考信錄》과 孔子 事蹟 考證	277
高八美·韓愈 시와 불교와의 關係	307
柳瑩杓·蘇頌使遼詩 〈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 校釋	343
吳昶和·中國 古典戲曲에 나타난 바다이미지	361

鄭沃根·중국의 禁書 중 참위서적의 흥쇠 연구	395
姜鯨求·高行健의 문학실험과 선불교적 사유	421
金彦河·영화 《인생(活着)》: 중국현대사에 대한 준엄하고 따뜻한 통찰	449
김자은·“양결합” 창작방법의 민족형식화 과정	469
서창배·중국의 IT산업 발전현황과 성장잠재력 연구	499
이수진·방호열·공희숙·조직문화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유형에 관한 실증연구	537
조윤경·동북공정논쟁 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한 비교연구	565
허종국·1990년대 신장위구르족의 민족분리주의 운동과 중국의 민족정책연구	587
朱星一·중국박사학위 신고 및 인증 시스템 고찰	647

[서 평]

王今暉·中國詩學研究的一部新穎厚重之作	693
附 錄·심사규칙 및 학문윤리위원회 규정	697

CHINESE STUDIES

Volume 31

December 2008

The Study of syllabic distribution in Modern Chinese[普通話] / Kang, Sik-Jin	1
The Frequency of Chinese Characters Used as References in <i>SaengSaengjabo</i> (生生字譜) in Late 18th century Chosun / Ha, Young-Sam	41
Study on the cognitive relationship between 201 radicals and HSK2905 Chinese Characters / Wang, Ping	73
The Study of WeiJin(魏晉) Period Yangsheng Rhyme Separation / Lee, Woong-Gil	119
Plural forms of personal pronouns of Wu dialect and beyond / Huang, Jincheng	137
Factors of Formation and Process of the Honorific in Ancient Chinese / Lin, Yinghua	157
An Analysis of Errors in the Usage of Chinese Verb-object verb made by Korean / Lee, Hyo-Young	191
A Study on category of Bei(被) in Beiziju(被字句) / Lee, Su-Jin	215
Analysis of Pinyin label in primary Chinese teaching materials / Zhang, Jingjing	237
A Comparison between Lu Ji's Theory of Literature Principle and That of Liu Xie / Lee, Kyu-Il	251
A Study on Confucius's Life and Achievement through "Zhusi Kaixinlu" / Lee, Jae-Ha	277
Buddhism in HanYu's Poetry / Ko, Pal-Mi	307

Interpretation of the Poem by SuSong(蘇頌) “Visitation of the Shrine called XinWuDian(信武殿) passing by TanZhou(潭州)” / Ryu, Young-Pyo	343
A View on the Imagery of Sea Described in Chinese Classical Drama / Oh, Chang-Hwa	361
A Study of Augury Language in Ancient China / Jeong, Ok-Geun	395
Gao XingJian's experimental Literature and Zen Budhusm / Kang, Kyong-Koo	421
The movie <i>Life(活着)</i> : The rigorous but sympathetic insight through modern Chinese history / Kim, Un-Ha	449
A Study of Discourses on the Combine revolutionary realism and revolutionary romanticism / Kim, Ja-Eun	469
China's IT Industry: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Capacity of Growth / Seo, Chang-bae	499
Empirical study on the types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s and the middle-manager leadership-Focus on Chinese middle managers- / Lee, Soo-Jin · Bang, Ho-Yeol · Gong, Hee-Sook	537
A comparative study to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the both countries, Korea and China since the Northeastern Project Controversy / Cho, Yoon-Kyoung	565
Separatism of Uyghurs in Xinjiang and China's Policy Towards its Ethnic Minorities in the Ninties / Heo, Jong-Guk	587
A Study on the Rational Report Procedure and Verification System for Doctor's Degrees Issued in China / Joo, Soung-Il	647
Reviews:	
A New and Admirable book-length study of Chinese Poetics / Wang, Jinhui	693
Appendix:	
Editorial Rules of <i>Korean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i> & Rules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697

현대한어 음절 분포 연구*

-각국 사전에 반영된 음절 분포 분석-

康寔鎭**

<목 차>

1. 연구 목적	4. 음절 분포 편차
2. 한어의 음절 구조	4-1 음절의 편차
3. 각종 사전의 음절 분포	4-1-1 기본음절
3-1 공통음절과 개별음절 분포	4-1-2 비기본음절
3-2 각 사전의 음절 분포	4-1-3 경성음절
3-2-1 《現代漢語規範字典》	4-2 분절음절
3-2-2 《現代漢語詞典》	4-2-1 기본분절음절
3-2-3 《新華字典》	4-2-2 특수분절음절
3-2-4 《現代漢語規範詞典》	5. 결론
3-2-5 《中日大辭典》	[참고문헌]
3-2-6 《中韓辭典》(민족문화연 구원)	[論文摘要]
3-2-7 《中韓辭典》(두산동아)	

1. 연구 목적

현대한어¹⁾ 음절의 수량과 분포는 관련 학자들의 가장 기초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1950년대 이래 중국의 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여

* 이 논문은 2007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이 논문에서 “현대한어”라 함은 중국에서 정의된 “普通話”를 지칭한다.

러 가지 견해와 통계를 발표하였지만, 그 수량과 분포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몇 종의 권위 있는 사전에 수록된 음절도 서로 일치하지 않다. 이와 같이 현대 한어 음절의 수량과 분포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음절조직의 규칙에 따라 형성된 “基本音節” 외에 “非基本音節”과 “輕聲音節”에 대한 수용 범위의 편차 때문이다.

음절 분포의 편차는 주로 구어체 어휘, 方言 어휘, 擬聲語, 書面語 등에 나타나는 음절의 수용 여부에 따라 나타나며, “輕聲音節”에서는 주로 다음절 낱말 속에서 경성으로 발음되는 한자음을 독립적인 음절로 수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나타난다.

음절의 수용 범위의 차이로 인해 “분절음절”²⁾ 수량은 적게는 396개, 많게는 432개까지, “음절”수는 적게는 1192개에서 많게는 1443개까지의 편차를 보인다.

한어의 음절을 표기하는 도구는 漢字이고 한자는 이러한 음절 중의 하나로 발음된다. 또한 歎詞, 方言, 口語體 등에 나타나는 말소리가

2) 漢語의 음절은 聲母, 韻母 및 聲調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聲母와 韻母는 분절음에 해당하고 聲調는 초분절소이다. 중국어의 음절 요소 중 성모와 운모만을 지칭하는 용어와 성조를 포함한 음절을 지칭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게 쓰고 있다.

卢偃,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 《语言教学与研究》(2001年第6期)

• 音节形式(聲母와 韻母만을 지칭할 때)

• 音节(聲母와 韻母 및 聲調를 지칭할 때)

苏新春, 林进展, 〈普通话音节数及载字量的统计分析—基于《现代汉语词典》注音材料〉 《中国语文》(2006年第3期)

• 不分声调音节(聲母와 韻母만을 지칭할 때)

• 分声调音节(聲母와 韻母 및 聲調를 지칭할 때)

马显彬 〈汉语同音现象分析〉, 《语文研究》(2005年第2期总第95期)

• 基本音节(聲母와 韻母만을 지칭할 때)

• 带调音节(聲母와 韻母 및 聲調를 지칭할 때)

한어의 “음절[音节]”에는 반드시 聲調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성모와 운모만을 지칭할 때는 “분절음절[音段音节]”이라고 하고 聲母와 韻母 및 聲調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음절[音节]”이라고 한다.

그것을 나타내는 기호인 한자가 없는 경우는 말 속에 있는 음절을 표기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方言 등에 쓰이는 어떤 특정한 한자의 독음이 현대한어의 음절조직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대한어에서 이미 쓰이고 있다면 그 음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음절 구조와 음절의 수량 및 분포가 달라질 것이며, 이로 인해 중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사전을 비롯한 각종 중국어 관련 서적의 편찬이나 한어병음을 활용한 중국어 입력기 개발에도 음절의 수량과 분포 및 빈도수 따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준칙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어 음절 분포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단지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간된 사전을 적당히 참고하여 모방하는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현대한어 辭典이나 字典 및 중국어-외국어 대역어 사전은 汉语拼音方案의 字母順에 따라 음절을 수록하고 각 음절에 귀속된 한자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열하기 때문에 모든 사전은 음절의 전부를 수록하게 된다. 따라서 음절조직에 대한 규칙이 다르거나 수록 범위가 달라지면 사전에 배열된 음절의 순서와 수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에 필자는 중국에서 출판된 《现代汉语词典》 《新华字典》 《现代汉语规范字典》 《现代汉语规范词典》과 한국에서 출판된 《中韓辭典》 두 종, 일본에서 출판된 《中日大辭典》을 상호 비교하고, 관련 논문 등을 참조하여 현대한어의 음절 수량과 분포에 대한 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2. 한어의 음절 구조

음운론적 음절(phonological syllable)은 그 언어의 특징으로 규정 되는데, 한어의 음절은 예외 없이 직접 하나의 낱말 내지는 형태소가 되고, 또 음절의 구조가 아주 고정적이며 모든 음절은 거기에 소속된 漢字로 기록되기 때문에 구태어 單音의 可聽度(혹은 鳴音度)[响度; sonority]에 의해 음절이 나누어짐을 살피는 음성학적 음절(phonetic

syllable)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도 음절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어의 음절은 다음과 같은 단위로 나타낸다.

음절(syllable)=聲母(initial)+韻母(final)[韻頭(medial)+韻腹(principal vowel)+韻尾(ending)]/聲調(tone)

위와 같이 구성된 한어 음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한자는 같은 음절 내의 다른 의미를 시각적으로만 분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하나의 음절이다.³⁾
- ② 하나의 음절은 1개 내지 4개의 음소로 구성된다.
- ③ 하나의 음절은 1개 내지 3개의 모음으로 구성된다. 1개의 모음인 경우는 韻腹이다.
- ④ 성모가 없는 음절이 있으며, 이런 음절을 영성모[零聲母;zero-initial]라고 한다.
- ⑤ 모든 음절은 반드시 하나의 韻腹과 하나의 성조가 있다.
- ⑥ 자음은 單子音 형식으로 聲母나 韻尾의 위치에만 나타나고, 복자음은 존재하지 않는다.⁴⁾
- ⑦ 성모 “b [p]”⁵⁾ “p [p’]” “m” 뒤에는 韻頭 “ü [y]”가 올 수 없다.
- ⑧ 성모 “f” 뒤에는 韻頭 “i” “ü [y]”가 올 수 없다.
- ⑨ “d [t]” “t [t’]” 뒤에는 韻頭 “ü [y]”가 올 수 없다.

3)예외적으로 “儿化韻”은 하나의 음절을 이루지 못하지만 “儿”로 표기하게 된다. 또 빠르게 말할 때 “我們”을 “wǒm”으로, “你們”을 “nǐm”으로, “什麼”를 “shém”과 같이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또 과거 소수의 도량형 단위 중 “吋”을 “yīngcùn”으로, “厘”를 “qiānwǎ”로, “厘”를 “lími”로, “裡”를 “hǎili”로 발음하는 것과 같이 한 글자가 두 개의 음절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1977년 “中國文字改革委員會”와 “國家計量局”이 공동으로 제정한 《部分計量單位名稱統一用字表》에 의해 “英寸” “千瓦” “厘米” “海里”과 같이 두 개의 한자로 표기하게 하여, 1字2音節의 합성글자는 취소되었다.

4)예외적으로 “hm” “hng” “m” “m” “m” “h” “h” “h” “ng” “ng” “ng” 등과 같은 극소수의 감탄사, 의성어 혹은 방언 어휘를 기록하는 鼻音 成節子音(syllabic consonant)은 대부분 사전에서 특수음절로 보고 수록하고 있다. 이런 음절에 대해 어디까지를 “普通話” 어휘 범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논의가 없는 실정이며, 표준화를 위해 제정된 《現代漢語規範詞典》에서는 이런 음절을 모두 수록하지 않았다.

5)漢語拼音方案과 실질음가가 다를 때는 [] 속에 IPA로 표시하였다.

⑩ “g [k] ” “k [k'] ” “h [x] ” “zh [tʂ] ” “ch [tʂ'] ” “sh [ʃ] ”
 “r [ʒ] ” “z [ts] ” “c [ts'] ” “s” 뒤에는 韻頭 “i” “ü [y] ”가
 올 수 없다.

⑪ “j [tɕ] ” “q [tɕ'] ” “x [ç] ” 다음에는 반드시 韻頭 “i” 혹은 “ü
 [y] ”가 와야 한다.

현대한어의 성모는 “b [p] ” “p [p'] ” “m” “f” “d [t] ” “t [t'] ”
 “n” “l” “g [k] ” “k [k'] ” “h [x] ” “j [tɕ] ” “q [tɕ'] ” “x [ç] ”
 “zh [tʂ] ” “ch [tʂ'] ” “sh [ʃ] ” “r [ʒ] ” “z [ts] ” “c [ts'] ” “s”
 의 21개이고, 母音은 모두 10개가 있는데, 이중 “i” “u” “ü [y] ” “a”
 “o” “e [ɛ] ” “ê [ɛ̃] ” “er [ə] ”의 8개는 단독으로 하나의 음절이 될
 수 있지만, “-i [ɿ] ”는 “zh [tʂ] ” “ch [tʂ'] ” “sh [ʃ] ” “r [ʒ] ”와,
 “-i [ɿ] ”는 “z [ts] ” “c [ts'] ” “s [s] ”와만 결합되어 음절을 이루
 는 모음이다. 10개의 모음 중 “i” “u” “ü [y] ”가 韻頭이다. 韻頭는 성
 모와 韻腹[주요 모음;핵모음]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介
 母”라고도 한다. 韻尾의 위치에는 모음 “i” “u” “o [u] ”와 자음 “n”
 “ŋ”이 올 수 있다. 실질 음가에 따른 운모는 모두 35개로 다음과 같다.

단모음 운모(10개):a, o, e, ê, i, u, ü [y] , ɿ, ʅ, ɤ

복모음 운모-이중모음(5개):ia, ie, ua, uo, ye

-삼중모음(4개):iao, iou, uai, uei

비성운모-n(8개):an, ian, uan, ü [y] an, ən, in, uən, ü [y] n

-ŋ(8개):aŋ, iaŋ, uaŋ, əŋ, iŋ, uəŋ, uŋ, ü [y] ŋ

한어의 음절에는 운복과 성조가 절대 빠질 수 없는데, 분절음을 자음
 과 모음의 관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C1+ V1+ V2+ V3/C2

한어의 음절을 계층적인 구조로 보면 성모 “C1”은 Onset(語頭子音
 群)에 해당하고 운모 “V1+ V2+ V3/C2”는 Rhyme(韻)에 해당한다. 또
 Rhyme은 “V1+ V2”의 Nucleus(핵모음)와 “V3/C2”의 Coda(음절후부)

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또 운모를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은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V1--“i” “u” “ü [y] ” “-i [ɿ] ” “-i [ɤ] ” [+HIGH]
 V2--“a” “o” “e [ɤ] ” “ê [ɛ] ” “er [ə] ” [-HIGH]
 V3--“i” “u” “o [u] ”⁶⁾ [+HIGH]

여기에 보이듯 “V1”은 [+HIGH] “V2”는 [-HIGH]이며, “V1”과 “V2”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음절이 형성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6가지의 구조가 있을 수 있다.

V1, V2, V1+V3/C2, V2+V3/C2, V1+V2, V1+V2+V3/C2

“V1”의 [+HIGH]는 Otto Jespersen의 可聽度(sonority)⁷⁾가 6도이고, “V2”의 [-HIGH] 7도 내지 8도이다. 따라서 “V1”이나 “V2”가 단독으로 운모가 되었을 때는 당연히 “V1”이나 “V2”가 음절의 중심인 成節音(syllabic sound)이 된다. “V1+V3/C2”와 “V2+V3/C2”의 경우, “V3”인 “i” “u” “o [u] ”는 非成節母音(non-syllabic vowel)이고, “C2”는 “n”과 “ŋ”이므로 당연히 “V1”이나 “V2”가 成節音이 된다. “V1+V2”와 “V1+V2+V3/C2”에서는 “V2”가 “V1”보다 소노리티 도수가 높으므로 당연히 “V2”가 成節音이 된다. 따라서 현대한어에는 오직 하나의 成節音을 가진 음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성모 “C1”의 음운론적 특징에 따라 결합 가능한 韻頭 “V1”이 결정되며, Coda “V3”와 “C2”는 서로 상보적 관계이다.

분절음절은 자음 22개와 모음 10개의 音素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 4개의 음소결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863,040(32×31×30

6)汉语拼音方案 “ao” “iao”는 실제로 “au” “iau”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V3의 위치에 올 수 있는 모음은 “i”와 “u”뿐이다.

7)Otto Jespersen, Lehrbuch der Phonetik(Berlin 1932 5판) 191쪽에서 음소의 공명도를 8도로 나누었다.

×29)개의 분절음 조합을 만들 수 있으나, 22개의 자음 중 20개는 음절의 성모의 위치에만 올 수 있으며, 나머지 2개도 음절의 처음이나 끝에만 올 수 있고, 10개의 모음 중 3개만 韻頭의 위치에, 2개만 韻尾의 위치에 올 수 있으므로, 한어의 분절음 형식의 가능한 산술적 결합 개수는 4,400개(22×3×10×4+22×3×10+22×10×4+22×10)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소배열제약(phonotactic constraints) 때문에 분절음절은 400 여개, 음절은 1300 여개이다. 하지만 방언 어휘, 의성어, 감탄사 등에 쓰인 음절을 어느 선까지 수용하느냐에 따라 음절의 분포는 많이 달라진다.

3. 각종 사전의 음절 분포

현대한어의 음절수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음 표와 같은 저서나 논문에 언급된 것이 있다.⁸⁾

時間	作者	篇名	不分聲調音節數	分聲調音節數
1957.3	刘泽先	《北京话里究竟有多少音节—一个初步的调查统计》	432	1376(除轻声)
1958.4	公士	《北京音里究竟有多少音节》	397~420	
1979.9	胡裕树	《现代汉语》	398	1192(除轻声)
1982.1	张志公	《现代汉语》	418	1332
1994.2	张普	《现代汉语的独字音节》	400多	1200多
1999.4	杜青	《普通话语音学教程》	401	1219(除轻声)

8) 苏新春, 林进展, 〈普通话音节数及载字量的统计分析—基于《现代汉语词典》注音材料〉(《中国语文》2006年第3期) 275쪽의 통계표 재인용. 胡裕树的《现代汉语》, 杜青의《普通话语音学教程》, 黄伯荣, 廖序东의《现代汉语》에는 음절수에 대해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음. 여기에 기재된 음절수에 관한 숫자는 이 저서들에 있는《声韵调配合总表》를 근거로 苏新春, 林进展이 계산한 것임.

.1	2000	王世友	《现代汉语单音词的范 围、性质和地位》		1443
.6	2001	卢僊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 构成分布》	404	1265
.6	2001	邵敬敏	《现代汉语通论》	405	1200多
.7	2002	黄伯荣, 廖序东	《现代汉语》(增订3版)	398	1242

이 표에 보이듯 현대한어의 음절수에 대한 통계는 학자의 견해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다. 분절음절은 많게는 432개부터 적게는 396개로 36개 정도의 편차가 있고, 음절수는 많게는 1443개부터 적게는 1192개로 251개의 차이가 난다.

卢僊는 현대한어의 음절수와 그 분포에 대해 《现代汉语规范字典》(北京, 语文出版社, 1998年), 《现代汉语词典》(北京, 商务印书馆, 1996年), 《新华字典》(北京, 商务印书馆, 1999年) 등 3종의 사전을 근거로 조사 분석한 논문⁹⁾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卢僊는 한어의 음절 중 성조를 제외한 성모와 운모만의 결합, 즉 음절 중의 분절음만의 결합체를 “音節形式”이라하고, 성모와 운모의 결합규칙에 부합한 분절음의 음절을 “基本音節形式”과 이를 위배한 분절음 음절을 “特殊音節形式”이라 하였는데, 이에는 “ ” “hm” “hng” “m” “n” “ng” “yo”의 7종이 있다고 하였다. 또 성조를 포함한 음절을 “基本音節” “非基本音節” “輕聲音節”의 세 종류로 나누었다. 《现代汉语规范字典》의 음절 중 1265개를 “基本音節”로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 사전의 음절을 “基本音節” “非基本音節” “輕聲音節”로 분리하였다.¹⁰⁾

9) 卢僊,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 《语言教学与研究》(2001年第6期)

10) 이 논문에서 한어의 “음절”은 성조, 성모, 운모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卢僊가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에서 말하는 “音節形式”을 “분절음절”이라하고 “基本音節形式”은 “기본분절음절”, “特殊音節形式”을 “특수분절음절”이라고 하며, “基本音節”은 기본음절, “輕聲音節”은

3종의 사전에 등장하는 모든 특수분절음절과 비기본음절은 다음과 같다.

■ 특수분절음절(7종)

m n hng hm ng yo

■ 비기본음절(36종)¹¹⁾

chuái 隹 dēi 嘍 éi 噍 ēng 鞞 欸 欸 欸 欸 fiào 勹 hm 嗽 hng 哼 kēi 魁
lūě 掠 lǔn 欸 m 姆 m 欸 m 欸 n 欸 ñ 欸 ò 欸 ó 欸 ǎ 欸 ñg 欸 ñg 欸 niā 嗑 nún 靡
ō 噢 ō 噍 piè 噍 ruá 掇 ruán 堦 ruó 掇 sùn 濮 tēi 忒 xín 仝 yō 唷 zùn 掇

이 논문에서는 卢偃가 수행한 위 3종 사전의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에서 좀 더 완벽한 통계를 구하기 위하여 卢偃가 분석한 《现代汉语词典》(北京, 商务印书馆, 1996年)을 《现代汉语词典》(北京, 商务印书馆, 第5版, 2005年)으로 교체하고, 최근의 표준화 사전 《现代汉语规范词典》(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语文出版社, 2004年)을 추가하고, 일본에서 출판한 《中日大辭典》(東京, 大修館書店, 1996년) 및 한국에서 출판된 《中韓辭典》(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년)과 《中韓辭典》(서울, 두산동아, 2008년)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중 《现代汉语词典》은 많은 방언, 구어, 문언 등 다방면에 걸쳐 비교적 많은 표제자를 수록한 권위 있는 중국의 사전이고, 《新华字典》은 전통적인 자전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现代汉语规范字典》과 《现代汉语规范词典》은 현대한어의 표준화를 위해 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의 “八五”规划(8차 5개년 계획:1991~1995년) 重点

節”은 경성음절, “非基本音節”은 비기본음절이라고 한다.

11) 卢偃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에서는 “nié茶” 음절에 대해 《现代汉语规范字典》에서는 기본음절에 귀속시켰음에도 《现代汉语词典》과 《新华字典》에서는 비기본음절로 계산하였다. 이 음절은 7종 사전 모두에 수록되어 있고 음절구성도 기본음절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기본음절에 귀속시킨다. 따라서 卢偃는 3종 사전의 비기본음절을 37종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36종이다.

프로젝트에 의해 제작된 혁신적인 사전이다.

愛知大學 中日大辭典編纂處에서 편찬한 《中日大辭典》은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中韓辭典》과 두산동아의 《中韓辭典》은 한국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전들이다.

《中日大辭典》과 2종의 《中韓辭典》은 《現代漢語詞典》과 같은 계열로 방언, 감탄사, 의성사, 문언 등의 어휘를 광범위하게 표제자로 수록하여 현대한어 음절조직의 범위를 넘어선 음절이 많이 수록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現代漢語詞典》은 《中日大辭典》 및 《中韓辭典》과는 달리 2002년 증보판, 2005년 제5판을 간행하면서 표준화를 위해 음절 분포를 일정 정도 조정하였다. 《新華字典》은 전통적인 聲韻學 이론에 충실한 사전이고, 《現代漢語規範字典》과 《現代漢語規範詞典》은 “普通話”의 표준화를 위해 현대한어 음절조직 규칙을 넘어선 음절을 가능한 한 없애고자 노력한 사전이다.

《中日大辭典》은 표제자 배열 방법이 나머지 사전들과 다르다. 《中日大辭典》을 제외한 다른 사전은 하나의 한자가 둘 이상의 字音を 가지는 多音字인 경우 그 字音의 한어병음 순에 따라 중복 배열되지만, 《中日大辭典》은 통상적인 字音 밑에 모든 字音を 모아서 풀이하고 원래의 字音 順에서는 통상적인 字音으로 가서 검색하도록 표시해 두는 방식이다. 《中日大辭典》식의 배열 방법은 多音字의 字音에 따른 차이점을 한 곳에서 서로 비교·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 사전들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약칭한다.

- 《現代漢語規範字典》 → 《規字》
- 《現代漢語詞典》 → 《現漢》
- 《新華字典》 → 《新華》
- 《現代漢語規範詞典》 → 《規詞》
- 《中日大辭典》 → 《中日》
- 《中韓辭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民文》
- 《中韓辭典》(두산동아) → 《東亞》

3-1 공통음절과 개별음절 분포

분석 대상 사전 7종 모두에 나타나는 음절의 집합을 편의상 “공통음절”이라 하고 어느 하나의 사전이라도 수록되지 않은 음절을 “개별음절”이라고 하기로 한다.

7종 사전에 수록된 음절 총량은 1376개이고, 이 중 공통음절은 1277개이며 개별음절은 99개이다. 공통음절 1277개 중에는 경성음절이 24개이고, 비경성음절이 1253개이다.¹²⁾ 개별음절 99개 중에는 경성음절이 38개, 비경성음절이 61개이다.

모든 사전에 나타나는 분절음절 총수는 422개이며, 이중 404개가 공통분절음절이고, 7개의 특수분절음절을 포함한 18개가 개별분절음절이다. 따라서 공통음절, 공통경성음절, 공통분절음절에 사전별 개별음절, 개별경성음절, 개별분절음 및 특수분절음절을 추가하면 각 사전의 음절 분포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非輕聲	輕聲	합계	분절음절
공통음절	1253	24	1277	404
개별음절	61	38	99 ¹³⁾	18
음절총량	1314	62	1376	422

3-2 각 사전의 음절 분포

3-2-1 《现代汉语规范字典》

12) 경성음절 전체 수량은 64개이지만, 공통음절의 “·shang裳”과 개별음절의 “·shang上”이 중복되어 있고, 각기 개별음절인 “·li里”와 “·li哩”가 중복되어 있다. 따라서 경성음절의 실제 수량은 62개이고, 음절의 총량도 1378개이지만 실제 수량은 1376개이다. 컴퓨터를 활용한 통계의 편의를 위해 경성은 분절음 앞에 “·”을 붙여 표시하였다.

13) “·li哩”“·li里”는 음절 중복, “·shang上”은 공통음절의 “·shang裳”과 중복되므로 2개 차감한 숫자이다.

《規字》에 공통음절 외에 수록된 개별음절은 다음 표와 같다.

음절종류		공통	개별	개별음절	합계
음절	기본	1253	12	cào 宥 cè 輓 diǎo 屮烏 lēng 棱嘮 liē 咧 lōng 隆 óu 瓠 pǎn 垸 rún 鞞 sòng 鞞 tǎi 呔 zui 腩	1265
	비기본	0	8	hng 哼 m 姆 m 姆 m 姆 níng 噎 ñg 噎 ñg 噎 yō 唷	8
	경성	24	16	·bian 边 ·e 呃 ·guo 过 ·jia 家 ·lai 瓠 ·li 哩 ·li 里 ¹⁴⁾ ·lu 魯 ·qu 戍 ·shang 上 ¹⁵⁾ ·te 臑 ·tou 头 ·xia 下 ·yao 哟 ·you 呦 ·zha 渣 ·zhou 礪 ·zi 子	40
음절 합계		1277	36		1313
분절음	기본	404	1	cei	405 16)
	특수	0	4	hng m ng yo	4
분절음절 합계		404	5		409

3-2-2 《现代汉语词典》

《现代汉语词典》에 공통음절 외에 수록된 개별음절은 다음 표와 같다.

음절종류		공통	개별	개별음절	합계
절	기본	1253	12	cào 宥 cè 輓 diǎo 屮烏 lēng 棱嘮 lie 咧 lōng 隆 óu 瓠 ¹⁷⁾ rún 鞞 shuí 谁 sòng 鞞 tǎi 呔 zui 腩 ¹⁸⁾	1265
	비기본	0 ¹⁹⁾	31	chuái 隹 dēi 噤 ēng 鞞 欸 欸 欸 欸 hm 啾 hng 哼 kēi 剋 lǐn 瓠 m 姆 m 姆 m 姆 ń 噎 ñ 噎 ñ 噎 níng 噎 ñg 噎 ñg 噎 nún 磨 ō 噢 ǒ 嘎 piè 爨 ruá 援 ruán 垸 ruó 援 tèi 忒 xǐn 仈 yō 育哟唷 zùn 掇	31 ²⁰⁾

14)·li 哩와 ·li 里 음절은 중복.

15) 卢偃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에서는 분석대상 3중 사전에 모두 “shang 裳” 음절이 있으므로 여기의 “shang 上” 음절은 계산하지 않음.

16) 卢偃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에서는 “me”를 누락시키고 404개라 하였으나 실제 기본분절음절수는 405개이다.

	경성	24	16	·chen 伧 ·e 呃 ·fa 伐 ·huai 划 ·jiu 蹴 ·lai 穰 ·li 哩 ·lie 咧 ·lo 咯 ·lu 櫛 ·luo 囉 ·qu 戍 ·te 臧 ·yo 哟 ·zan 咱 ·zha 渣	40
합계		1277	59		1336
분절 음	기본	404	7	cei eng kei lo nun rua tei	411 21)
	특수	0	7	hm hng m n ng yo	7
	합계	404	14		418

3-2-3 《新华字典》

《新华》에 공통음절 외에 수록된 개별음절은 다음 표와 같다.

음절종류	공통	개별	개별음절	합계	
음절	기본	1253	2	lie 咧 shui 谁	1255
	비기본	0	23	chuai 脍 ēng 鞞 欸 欸 欸 欸 éi 唼 hm 啾 hng 哼 kēi 剋 m 咿 姆 m 唵 n 唵 n 唵 ng 噎 ng 噎 ng 噎 niǎ 嗝 ō 噢 ō 嘎 ruó 援 yō 育 哟 唷	23
	경성	24	17	·chen 伧 ·huai 划 ·li 哩 ·lian 漈 ·lie 咧 ·lo 咯 ·lu 櫛 ·luo 囉 ·mai 莢 ·qi 芥 ·shan 蟾 ·suo 嗦 ·ta 邈 ·te 臧 ·yo 哟 ·za 贖 ·zhou 礲	41
합계	1277	42		1319	
분절 음	기본	404	5	ei eng kei lo nia	409
	특수	0	7	hm hng m n ng yo	7
	합계	404	12		416

- 17) 2005년 제5판에서 추가됨.
- 18) 2002년 增补本에서 추가됨.
- 19) 卢偃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에서 “nié 荼”를 《规字》에서는 기본음절, 《现汉》과 《新华》에서는 비기본음절로 취급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기본음절로 취급한다.
- 20) “fiào 勹”와 “lüě 掠”는 2005년 제5판에서 삭제됨. “sùn 漈”은 2002년 增补本에서 “xùn 噍”의 이체자로 처리함. 따라서 2005년에는 3개의 비기본음절이 축소됨.
- 21) 卢偃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에서는 “·me”를 누락시키고 404개라 하였으나 실제 기본분절음절수는 405개이다.

3-2-4 《现代汉语规范词典》

《规词》에 공통음절 외에 수록된 개별음절은 다음 표와 같다.

음절종류		공통	개별	개별음절	합계
음절	기본	1253	12	cào 禽 cèi 甌 diǎo 屮 lēng 棱 lēng 咧 lōng 隆 óu 瓠 pǎn 埤 rún 潤 sòng 聾 tǎi 汰 zuī 賸	1265
	비기본	0	7	éng 噲 èng 噲 èng 噲 mǔ 姆 ǒ 噢 ruó 掇	7
	경성	24	14	·chen 仝 ·e 呃 ·guo 过 ·jia 家 ·li 哩 ·li 里 ²²⁾ ·qu 戍 ·shang 上 ²³⁾ ·te 臄 ·tou 头 ·xia 下 ·yao 哟 ·you 呦 ·zha 渣 ·zhou 疇 ·zi 子	38
합계		1277	33		1310
분절음	기본	404	2	cei eng	406
	특수	0	0		0
합계		404	2		406

3-2-5 《中日大辭典》

《中日》에 공통음절 외에 수록된 개별음절은 다음 표와 같다.

음절종류		공통	개별	개별음절	합계
음절	기본	1253	12	bén 奔 cǎng 馐 cào 禽 cèi 甌 diǎo 屮 lēng 棱 lēng 咧 rún 潤 shuí 谁 sòng 聾 tǎi 汰 zù 馐 zuī 賸	1265
	비기본	0	33	chuái 隹 dēi 噉 éi 欸 ěi 欸 èi 欸 ēng 鞞 欸 欸 欸 欸 fiào 勹 hm 嗽 hng 哼 kēi 剋 lǔn 聒 m 咿 咿 m 咿 咿 n 噍 n 噍 n 噍 n 噍 ng 噍 ng 噍 nún 磨 ǒ 噢 ǒ 噢 piè 繫 ruán 塿 ruó 掇 tēi 忒 xín 仵 yō 育 哟 哟 zùn 掇	33
	경성	24	19	·chen 仝 ·e 呃 ·fa 戱 ·ge 个 ·huo 和 ·jia 家 ·lao 唠 ·li 哩 ·lian 褌 ·lie 咧 ·lo 咯 ·mai 莢 ·qi 啐 ·qu 戍 ·sha 擎 ·te 臄 ·tou 头 ·yo 哟 ·zi 子	43
합계		1277	64		1341

22)·li 哩와 ·li 里 음절 중복.

23)·shang 上은 공통음절에 있는 ·shang 裳과 중복.

분절 음	기본	404	8	cei ei eng fiao kei lo nun tei	412
	특수	0	7	hm hng m n ng yo	7
합계		404	15		419

3-2-6 《中韓辭典》(민족문화연구원)

《民文》에 공통음절 외에 수록된 개별음절은 다음 표와 같다.

음절종류	공통	개별	개별음절	합계	
음절	기본	1253	13	cāng馮 cào禽 cào cài甌 diǎo屎烏 lēng棱嘍 lie咧 lǒng隆 qiōng芎 rún潤 sòng권悚 tǎi汰 zù馐 zuī賸	1266
	비기본	0	34	chuái隹 dēi嘍 ēng鞞 欸 欸 欸 欸 fiào勹 hm嗽 hng亨 kēi剋 lǔn誇 lǚè掠 m姆 m呀姆 m姆 n嚶 n嚶 n嚶 n嚶 ng嚶 ng嚶 ng嚶 nún靡 o噢 ō嘎 piè繫 ruá按 ruán堰 ruó按 sùn潑 tēi忒 xīn心 yō育 yōng哟 zùn掇	34
	경성	24	21	·chen仓 ·e呃 ·fa哦 ·guo过 ·huai划 ·huang慌 ·huo和 ·jiu齣 ·lai량 ·lao嘹 ·li哩 ·lie咧 ·lo咯 ·lu撻 ·luo囉 ·qu戍 ·shang上 ²⁴⁾ ·si廁 ·yo哟 ·zan咱 ·zha渣	45
합계	1277	68		1345	
분절 음	기본	404	7	cei eng fiao kei lo nun rua	411
	특수	0	7	hm hng m n ng yo	7
합계		404	14		418

3-2-7 《中韓辭典》(두산동아)

《東亞》에 공통음절 외에 수록된 개별음절은 다음 표와 같다.

음절종류	공통	개별	개별음절	합계	
음절	기본	1253	12	cào禽 cài甌 diǎo屎烏 gú骨 lēng棱嘍 lie咧 lǒng隆 piǎ퍼 rún潤 sòng권 tǎi汰 zuī賸	1265

24)공통음절 ·shang裳과 개별음절 ·shang上的 음절 중복.

	비기본	0	34	chuái 隳 dēi 嘍 ēng 鞞 欸 欸 欸 欸 fiào 勹 hm 嗽 hng 哼 kēi 克 剋 lún 犂 lüé 掠 m 姆 m 咿 m 嘍 n 嚔 ñ 嚔 ò 嚔 ñg 嚔 ñg 嚔 ñg 嚔 nún 磨 o 噢 ō 嘎 piè 繫 ruá 掇 ruán 壩 ruó 掇 sùn 濶 tēi 忒 xīn 心 yō 育 唷 哟 zùn 掇	34
	경성	24	22	·bian 边 ·chen 伧 ·e 呃 ·fa 伐 ·guo 过 ·huai 划 ·jia 家 ·jiu 蹴 ·lai 穰 ·li 哩 ·lian 漣 ·lie 咧 ·lo 咯 ·lu 嚙 ·luo 囉 ·qu 戍 ·shang 上 ²⁵⁾ ·si 厠 ·tou 头 ·yo 哟 ·zan 咱 ·zha 渣 ·zi 子	46
합계		1277	68		1345
분절음	기본	404	9	cei eng fiao kei lo nun pia rua tei	413
	특수	0	7	hm hng m n ng yo	7
합계		404	16		420

각 사전의 음절 종류별 음절수는 다음 표와 같다.

음절종류	规字	现汉	新华	规词	中日	民文	東亞
음절	기본	1265	1265	1255	1265	1265	1265
	비기본	8	31	23	6	34	34
	경성	40	40	41	38	43	45
합계		1313	1336	1319	1309	1342	1345
분절음	기본	405	411	409	406	412	411
	특수	4	7	7	0	7	7
합계		409	418	416	406	419	420

사전별 기본음절의 편차는 14(1269-1255)개이지만 《新华》를 제외하면 4개의 차이에 불과하고, 비기본음절의 편차는 비교적 커서 31(34-3)개이지만, 현대한어 음절의 표준화를 실현한 《规字》(8개)와 《规词》(3개) 및 가장 보수적인 음절체계를 가진 《新华》(23개)를 제외하면 그 차이는 5(34-29)개에 불과하다. 경성음절의 편차는 9(47-38)개이며, 전체 음절의 편차는 42(1350-1308)개 음절이다.

기본분절음절의 편차는 8(413-405)개이다. 특수분절음절의 편차는

25)공통음절 ·shang 裳과 개별음절 ·shang 上的 음절 중복.

음절의 표준화를 실현한 《规字》에서 남겨두었던 “hng” “m” “ng” “yo”의 4개 특수분절음절도 《规词》에서는 모두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사전 외에는 7개로 일치한다. 기본분절음절 전체의 편차는 14(420-406)개이다.

현대한어 음절의 표준화를 시도한 《规字》와 《规词》 및 《新华》를 제외하면 사전 간의 음절 편차는 그리 크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편찬된 사전이 중국에서 편찬된 사전보다 음절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4. 음절 분포 편차

4-1 음절의 편차

4-1-1 기본음절

공통음절 1253개 외에 개별음절 간의 편차를 보이는 음절은 모두 24개로 아래 표와 같다.

음절	规字	现汉	新华	规词	中日	民文	東亞
bén奔	×	×	×	×		×	×
cào禽			×			操	
cāng馐	×	×	×	×			×
cèi 甌			×				
diǎo屛鸟			×				
gú骨	×	×	×	×	×	×	
lēng棱哪			×				
liè咧					×		
lóng隆			×		×		
óu광		26)			×	×	×
pǎn垸		×	×		×	×	×
piǎ괴	×	×	×	×	×	×	
qiōng芎	×	×	×	×	×		×
rún 鬮			×				
shuí谁	×			×		×	×

sóng권			×			悚	
tǎi吹			×				
zù馐	×	×	×	×			×
zui腴		27)	×				
개별음절수	12	12	3	12	12	12	12

위 표에 보이 듯 전체적으로는 《中日》《明文》《東亞》가 수록 표제자의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음절 분포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规字》《规词》는 현대한어 음절의 표준화를 도모한 점, 그리고 《现汉》은 최근 개정판에서 비기본음절을 줄여 표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新华》는 기본음절 위주의 음절을 택하였기 때문에 개별음절의 수량이 타 사전에 비해 적은 편이다.

(1) 방언 어휘의 수록

방언 어휘의 수용 범위에 따라 기본음절의 편차를 보인 음절은 “bén 奔” “cèi 甌” “pǎn 泮” “piǎ 𪗇” “tǎi 吹” 등이다. 이 중 “cèi 甌” 와 “tǎi 吹”는 《新华》를 제외한 모든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奔”에 대해서는 여타 사전은 “bēn”과 “bèn”의 두 음절만 수록한데 반해 《中日》에는 북경방언 음절 “bén”을 수록하고 있다.

《新华》에서는 “吹”의 감탄사 음절 “dāi”만 수록하고 방언음인 “tǎi”는 수록하지 않았다. “泮”은 《规字》《规词》에는 “pǎn”과 “bàn”의 多音字로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사전에는 “pǎn”이 수록되지 않았다. “𪗇”는 《東亞》에만 수록된 동북방언 어휘이다.

(2) 多音字의 異音 取捨

多音字나 文言의 경우 과거의 韻書나 字書를 기준으로 字音を 정리하면 그 異音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런 한자의 자음은 적당한 수준에서 取捨할 수밖에 없게 된다. 多音字 字音 취사선택의 문제로 사전 간 기본음절에 편차가 나는 음절은 “cǎng 𪗇” “rún

26)이 음절은 《现汉》 2005년 제5판에서 추가됨.

27)이 음절은 《现汉》 2002년 增补本에서 추가됨.

睪 (《新华》) “shuí谁” “zui脍(《新华》)” “zù馐” 등이 있다.

“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출판한 《现汉》《规字》《新华》《规词》에서는 일률적으로 “zǎng”만 수록한데 반해 《中日》《民文》《東亞》는 모두 “cǎng” “zǎng” “zù”를 수록하였다. 이는 《民文》과 《東亞》가 《中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東亞》에는 “zǎng”에서 異音 “cǎng”과 “zù”가 있음을 명시하고도 실제 이 발음은 수록하지 않았다.

“睪”과 “脍”에 대해서는 《新华》에서만 “shùn” “juān”만 수록하고 “rún”과 “zui”는 수록하지 않았다. 특히 《现汉》에서는 2005년 제5판에서 이 음절을 추가하였다.

“咧”는 “liē”와 “liě”로 발음되는 다음자인데, 타 사전과는 달리 《中日》에서는 “liē”를 수록하지 않았다.

“shuí谁”는 1985년 12월 공포된 《普通话异读词审音表》에 의해 “shéi”로 수정되었지만 《新华》《中日》에서는 “shéi”와 함께 “shuí”를 수록하였고, 《现汉》에서는 성(姓)을 나타낼 때는 “shuí”로 발음하는 것으로 풀이 되어 있다. 특히 《東亞》에서는 “谁”를 “shéi”에서 “shuí”로 찾아가 검색하도록 하였으나 정작 “shuí”가 없어 결국 “谁”를 표제자에서 누락하고 말았다.

(3) 비속어 어휘

비속어의 수용 범위에 따라 편차가 나는 음절은 “cào禽” “dǎo屎鸟” “sóng권” 등이다. 이 세 음절은 《新华》를 제외한 모든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4) 의성어 음절

《新华》에는 “棱”의 자음을 “léng”과 “líng”만 수록하고 의성어 “扑棱”의 “lēng棱”은 수록하지 않았다. 《新华》와 《中日》에는 “隆”의 자음으로 “lóng”만 수록하고 의성어 “轰隆”의 “lōng隆”은 수록하지 않았다.

(5) 감탄사 수록

감탄사 “óu광”는 《普通话三千常用词表》에도 수록된 낱말이다.²⁸⁾ 따

라서 《現漢》《規字》《新華》《規詞》에는 “광”의 자음으로 “ou” “ou” “ou” “ou” 등 4가지 음절을 수록하고 있는데, 특히 《現漢》에서는 2005년 제5판에서 이 음절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中日》에는 “광”가 수록되지 않았으며, 《民文》과 《東亞》에서는 “ou광”만 수록하고 있다.

(6) 우독음(又讀音)의 수록

“骨”는 “gǔ” “gū”로 발음되는 다음자인데 《東亞》에서는 “gǔ”의 우독음 “gū”를 표제 음절로 세웠고, 또 《民文》에서는 “xiōng芎”의 우독음 “qiōng”을 표제 음절로 세웠으며, 《東亞》에서는 “xiōng芎”에서 “qiōng”이 우독음임을 밝혔으나 표제 음절로 세우지는 않았다. 이렇게 우독음을 기술하고도 표제 음절로 수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많은 편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1-2 비기본음절

모든 사전에 반드시 수록된 음절은 기본음절로 간주하였으므로 비기본음절에는 공통음절이 없다. 7종 사전에 수록된 개별음절 총량은 42개로 아래 표와 같다.

음절	規字	現漢	新華	規詞	中日	民文	東亞
chuái 隹	×			×			
dēi 嘍	×		×	×			
éi 嘍欸	×	×	嘍	×	欸	×	×
èi 欸	×	×	×	×		×	×
èi 欸	×	×	×	×		×	×
ēng 鞞	×			×			
éng 噲	×	×	×		×	×	×
ěng 噲	×	×	×		×	×	×

èng 噤	×	×	×		×	×	×
欸	×			×			
欸	×			×			
欸	×			×			
fiào 勑	×	×	×	×			
hm 嗽	×			×			
hng 哼				×			
kēi 剋	×			×			克 剋
lǔn 𠵼	×		×	×			
lǔē 掠	×	×	×	×	×		
m 姆			×	×	×		
m 姆		𠵼 姆	𠵼 姆	×	𠵼 姆	𠵼 姆	𠵼 姆
m 姆				×	姆 唔		
mū 姆	×	×	×		×	×	×
ń 噤	×			×			
ň 噤	×			×			
ṅ 噤	×			×			
ńg 噤				×			
ňg 噤				×			
ṅg 噤				×			
niǎ 噤	×	×		×	×	×	×
nún 磨	×		×	×			
ō 噢	×						
ō 噯	×						
piè 𠵼	×		×	×			
ruá 𠵼	×		×	×	×		
ruán 𠵼	×		×	×			
ruó 𠵼	×						
sùn 𠵼	×	×	×	×	×		
tēi 忒	×		×	×			
xín 化	×		×	×			
yō 𠵼	𠵼	育 𠵼	𠵼 𠵼	×	育 𠵼	育 𠵼	育 𠵼
zùn 接	×		×	×			

개 별 음	8	31	23	7	33	34	34
결수							

위 표에 보이 듯 전체적으로는 《民文》과 《東亞》는 비기본음절일 지라도 최대한 수록한 경향이 있고, 《规字》와 《规词》는 표준화를 모색하였기 때문에 비기본음절은 대폭 축소하였다. 《现汉》은 개정판에서 현대한어의 음절조직에 적합하지 않은 음절은 삭제한 점이 특이한 현상이다. 중국에서 출판된 사전에는 현대한어의 음절 구성에 위배되는 비기본음절을 가능한 축소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에 반해 일본이나 한국에서 출판된 사전들은 비기본음절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다는 점 역시 특기할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기본음절이 각 사전에 수록된 양상은 대략 다음과 같으며, 이런 비기본음절은 《规字》와 《规词》의 표준화로 인해 대거 축소된다.

(1) 감탄사

비기본음절 중 감탄사에 속하는 어휘는 “dēi嘍” “éi嘍” 《新华》 “éi欸” 《中日》 “ěi欸” “èi欸” “éng嗯” “ěng嗯” “èng嗯” “欸” “欸” “欸” “欸” “hm嗽” “hng哼” “m姆” “m姆” “ń嗯” “ň嗯” “h嗯” “ng嗯” “ňg嗯” “ng嗯” “o噢” “o噢” “yō哟” 등 24개이다.

① 成節子音(syllabic consonant)

어떤 언어에서든 響音[乐音]인 鼻音 “m” “n” “ŋ” 및 邊音 “l”은 자음이지만 음절의 중심인 成節音(syllabic sound)이 될 수 있다.²⁹⁾ 현대한어 사전에 수록된 비음이 음절핵인 “hm嗽” “hng哼” “m姆” “m姆” “m姆” “ń嗯” “ň嗯” “h嗯” “ng嗯” “ňg嗯” “ng嗯” 등 11개가 있다. 이 중 “m姆”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는 모두 감탄사이다.

“hm嗽”과 “hng哼”은 《现汉》 《新华》 《中日》 《民文》 《東亞》에

29) 이들 자음은 Otto Jespersen, Lehrbuch der Phonetik(Berlin 1932, 5판) 191쪽에 의하면 4도 높이다.

서는 모두 수록하고 있으나, 《规字》에서는 “hng哼”만 수록하였고, 《规词》에서는 “hm嗽”은 수록하지 않고 “hng哼”은 감탄사의 경우 “hèng哼”으로 수정하였다.

“n”과 “ng”는 “嗯”의 발음을 표기한 분절음인데 사전마다 차이가 심하다. 《新华》《中日》《民文》《東亞》에서는 “ń嗯” “ň嗯” “ṅ嗯”의 우독음 “ńg” “ňg” “ṅg”를 모두 표제 음절로 수록하였으나, 《规字》에서는 “嗯”을 “ńg嗯” “ňg嗯” “ṅg嗯”로 수록하고 우독음으로 “ń” “ň” “ṅ”이 있다고 하였지만 “ń” “ň” “ṅ”을 표제 음절로 수록하지는 않았다. 《规词》에서는 “n” “ng” 분절음절을 모두 없애고 “éng” “ěng” “èng” 음절만 수록하였다.

분절음절 “m”으로 구성된 음절은 “m姆” “m姆” “m姆”이 있는데, 이 중 “m姆”은 방언 어휘이고 나머지는 감탄사이다. “m姆”는 《规字》《现汉》《民文》《東亞》에서는 방언 어휘 “姆姆”에 쓰인 음절로 수록하였고, 《中日》에서는 이 음절은 수록하지 않고 “mũ姆”만 수록하였으며, 《规词》에서는 “m姆”를 “mũ姆”[姆姆]로 수정하여 결국 이전에 없던 “mũ” 음절 하나가 증가하였다. “m姆”와 “m姆” 음절은 《规字》《现汉》《新华》《中日》《民文》《東亞》에 모두 수록되었으나 《规词》에서는 이 음절을 삭제하였다.

② “ ” 분절음절

비기본음절 중 가장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零聲母 분절음절 “ ”이다. 《现汉》《中日》《民文》《東亞》에서는 “ ” 분절음절을 인정하여 “欸” “欸” “欸” “欸”를 수록하고 있으나, 《规字》《规词》에서는 “ ” 분절음절을 아예 수록하지 않고 “欸”를 “āi”(唉와 같음)와 “āi”[欸乃] 음절에만 수록하였다.

《民文》《東亞》에서는 “欸” “欸” “欸”에 우독음으로 “éi” “ěi” “èi”가 있다고 하였지만 “éi” “ěi” “èi”를 표제 음절로 수록하지는 않았으며, 또 “欸”의 이음 “āi”(唉와 같음)와 “āi”[欸乃]를 수록하였다. 《中日》에서는 “āi”(唉와 같음)와 “āi”[欸乃]를 수록하는 외에 “欸” “欸” “欸”의 우독음 “éi” “ěi” “èi”도 표제 음절로 수록하였고, 《现汉》에

서는 “欸” “欸” “欸” “欸”의 우독음으로 “èi” “èi” “èi” “èi”가 있다고 하였지만 표제 음절로 수록하지는 않았다.

③ 감탄사 어휘 수록 범위

“dei欸”는 《现汉》《中日》《民文》《東亞》에만 수록되어 있고, “èi 噠”는 《新华》에만 수록되어 있으며, “o噢”와 “o噢”는 《规字》를 제외한 모든 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편차는 단순히 어휘 수록 범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yo哟” 혹은 “yo育唷”[杭育][哼唷]는 《规词》를 제외한 모든 사전에 수록 되어 있다. 《规词》에서는 “yo” 분절음절을 인정하지 않고, “yo”일 때 “yāo”로, 경성 “yo”일 때 “you”로 수정하였다.

《规词》는 현대한어 음절의 표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³⁰⁾

语音规范标准是比较明确的, 国家通用语言(普通话)是以北京语音为标准音的。但现在通行的一些词典中, “哟、唷”以及“杭育”中的“育”均注为yō音。然而, 北京语音中没有这个音节, 我们规范词典中自然不能出现yō音。怎么办呢? 我们只好向专家请教, 调查普通话中这三个字的实际读音。最后我们本着实事求是和规范的原则, 将三个字的读音注为yāo, 轻读时注为you。这既反映了普通话的实际读音, 也符合北京语音系统。类似的情况如“拆烂污”的“拆”, 是注cā还是注chāi? 我们内部意见开始也不一致。最后还是决定“chāi”, 因为“cā”是方音。方言词进入普通话后应按普通话读音, 我们没有理由给“拆”增加一个cā的读音。

위 설명에 의하면 비록 방언 어휘라 할지라도 “普通话”에 유입되면 “普通话”의 음절규칙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두 “普通话”의 음운 체계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감탄사에 속하는 어휘들은 그들 나름의 특징이 있다.

감탄사는 話者の 기쁨·슬픔·놀람·무서움 등 여러 가지 느낌을 나타내는 소리, 혹은 부르는 소리나 대답하는 소리들로서 문장 속의 다른 낱말과

30) 《现代汉语规范词典》 14쪽

어떤 관계도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어휘이다.

감탄사는 한 언어의 음절구조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소리 덩어리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그 언어의 음소 체계에 속하지 않는 소리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 언어의 음절구조에 맞지 않은 단어들이 많다는 것이 감탄사의 음성, 혹은 음운론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많은 감탄사의 경우 실제 소리와 문자로 표기되는 소리는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감탄사에 속하는 낱말들은 같은 분절음이라도 초분절적 요소를 달리 하여 표현하는 내용을 다르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어에서는 “a啊” “a啊” “a啊”와 같이 동일 분절음에 성조를 달리하여 다른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한어는 단음절적이고 漢字로 표기하기 때문에 감탄을 나타내는 실제 소리가 어떠하든 그 음절을 한어의 음절구조에 맞게 적어야겠지만 실제 표기수단은 漢字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한자로 적게 된다. 따라서 감탄을 나타내는 한자의 독음은 한어병음방안의 자모를 이용하여 다소 음절구조에 어긋나더라도 가능한 한 실제 소리에 가깝게 표기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감탄사는 어차피 실제 소리를 적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음절조직의 규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음문자를 쓰는 한국어의 예를 들면, 혀를 차는 실제 소리는 절대 “쯧쯧”일 수 없지만 음절구조에 적합하도록 “쯧쯧”이라고 표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7종 사전에 나오는 비기본음절의 대부분은 이러한 감탄사의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감탄사의 표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规字》《规词》와 같이 음절구조 규칙을 준수하여 표기하는 경우와 《现汉》《中日》《民文》《東亞》와 같이 음절구조 규칙에는 위배되더라도 실제 소리에 가깝게 표기하는 경우이다. 이는 결국 그 사전이 현대한어의 정의를 충실히 따를 것이냐 아니면 방언이나 감탄사 등의 경우 실제 소리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달려있다.

현대한어의 음절은 비록 성절자음이라 할지라도 자음 단독으로 구성

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规词》에서는 “hm嗽” “hng哼” “m嘬” “m嘬” “ń嗯” “ń嗯” “ń嗯” “ńg嗯” “ńg嗯” “ńg嗯” 등 10개의 감탄사는 현대한어의 음소 체계에 속하는 소리이지만 음절구조에 맞지 않으므로 이런 음절을 모두 삭제하였고 “m姆”는 방언 어휘이므로 “mu姆”로 표준화하였다.

“ ”에 대해서 汉语拼音方案에서는 “韵母‘ㅅ’单用的时候写成‘ ’。”라고 하였다. “e [ɛ]”는 통상적인 현대한어 음절에는 분포되지 않고 “ie” “üe”의 형태로만 출현한다. 하지만 단독으로 “e [ɛ]”음을 표기할 때는 “ ”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规词》에서 이 음절을 모두 삭제하긴 하였지만 “ ” “ ” “ ” “ ” 음절은 현대한어의 음절 분포에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2) 방언 어휘의 수록

방언 어휘의 수록으로 사전 간에 차이가 나는 음절은 “chuái隹” “fiào勑” “kēi剋” “lǔn刮” “lüě掠” “m姆” “niā嘘” “ruá掇” “tēi忒” 등 10개이다. 이러한 방언 어휘들은 중국에서 간행된 사전에서는 삭제하고 있는 경향인데 반해 일본이나 한국에서 간행된 사전에는 최근 출판된 것이거나 수정판일지라도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특징이 있다. “m姆”는 《规字》에는 보류하였고 《规词》에서는 “mū姆”로 통일 한 것 외에는 이러한 방언 어휘들은 모두 수록하지 않았다. 특히 “fiào勑”과 “lüě掠”는 《现汉》에서도 2005년 제5판에서 삭제하였다.

(3) 문언음 음절의 수록

문언 어휘의 수록 때문에 사전 간에 차이가 나는 음절은 “ēng鞞” “núm磨” “piè弊” “ruán坝” “ruó掇” “sùn澗” “xín仸” “zùn掇” 등 8개이다. 이들 역시 《规字》 《规词》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现汉》 《中日》 《明文》 《東亞》에는 모두 수록하고 있다. 특히 “sùn澗”은 《现汉》 2002년 増补本부터는 “xùn巘”의 이체자로 처리하였다. 또 “掇”는 1955년의 《第一批异体字整理表》에서는 “挪”의 이체자로 보아 도태시켰으나, 1985년 12월 공포된 《普通话异读词审音表》에서는 그 발음을 “ruó”로 통일하였었다. 이렇게 몇 글자 되지 않는 현대한어 음

절구조의 형식을 벗어난 문언문 음절을 수용하느냐의 여부는 수록 범위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4-1-3 경성음절

7종 사전에 수록된 경성음절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공통경성음절은 모두 24개이다. 종별 공통경성음절과 개별경성음절은 다음 표와 같다

(1) 조사

① 동태조사

	规字	现汉	新华	规词	中日	民文	東亞
개별	·guo过		×	×		×	
공통	·le了 ·zhe着著						

② 어기조사

	规字	现汉	新华	规词	中日	民文	東亞
개별	·e呃			×			
	·fa哦	×		×	×		
	·lai唠			×	×	×	
	·lao唠	×	×	×	×		×
	·lie咧	×		×	×		
	·lo咯	×		×	×		
	·luo嚅	×			×	×	
	·yao哟		×	×		×	×
	·yo哟	×		×	×		
·you呦		×	×		×	×	
공통	·a阿 ·ma么吗嘛 ·ba吧 la啦 ·li哩 ·ne呢 ·ya呀 ·bai擘 ·bei呗 ·bo噉 ·lei嘍 ·lou喽 ·me嚙 ·na哪 ·wa哇						

③ 구조조사

	规字	现汉	新华	规词	中日	民文	東亞
공통	·de地的底得	·jie价家					

동태조사의 경우 “·le了” “·zhe着著”는 모든 사전에서 경성 표제 음절로 수록하고 있으나 “·guo过”는 《规字》《规词》《民文》《東亞》에서 한 하나의 음절로 수록하였다. 동태조사는 예외 없이 경성으로 발음하게 되므로 “·guo过” 역시 표제 음절로 수록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일 것이다.

어기조사 중 개별음절은 대부분 방언 어기조사로 그 수록 범위의 차이 때문에 생긴 편차이다.

특히 《规字》《规词》에서 분절음절 “yo”를 없애고 이에 소속된 음절 중 “yō育哟唷”는 “yāo”로, “·yo哟”는 “·yao”로 수정하고 “·you呦”를 추가한 것은 “yo”를 현대한어의 분절음절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방위사

		规字	现汉	新华	规词	中日	民文	東亞
개별	·shang上 ³¹⁾		×	×		×		
	·bian边		×	×	×	×	×	
	·li里		×	×		×	×	×
공통	없음							

방위사 중 “·shang上” “·bian边” “·li里”는 경성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든 사전이 표제 음절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规字》에서는 이 셋을 모두 경성음절로 수록하였지만 《规词》에서는 “·shang上” “·li里”만 경성음절로 수록하였다. “·bian边”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다른 방위사 뒤에 붙어 쓰이고, 경성으로 발음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셋을 모두 표제 음절로 수록하여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접미사

31)·shang上은 《规字》《规词》에서 방위사와 보어로 쓰인 동사로 구분하여 표제자로 실고 있음.

		规字	现汉	新华	规词	中日	民文	東亞
개별	·jia家		×	×			×	
	·tou头		×	×			×	
	·zi子		×	×			×	
공통	·me么 ·men们							

명사 접미사 “儿” “头” “子” 중 “儿”은 다른 음절 뒤에서 “儿化”하여 앞 음절에 흡수되므로 하나의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경성과는 무관하지만 “tou头”와 “zi子”는 접미사로 쓰였을 때 일률적으로 경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음절로 수록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家” 역시 사람을 가르치는 명사 뒤에 접미사로 쓰였을 때는 일률적으로 경성이 되므로 “jia家”를 하나의 음절로 수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다음절 낱말에서 경성으로만 발음되는 음절

		规字	现汉	新华	规词	中日	民文	東亞
개별	·de臆[肋臆] ³²⁾	×		×	×			
	·te臆[肋臆]						×	×
공통	·da坳[圪坳] 광[圪 광] 峪[屹峪] 跫[蹦蹦] [蹯蹯] ·la鞞[鞞鞞] ·po梲[楡梲] ·xu蓆[苜蓆]							

다음절 낱말 속에서 경성으로만 발음되고 경성이 아닌 다른 음을 가지지 않은 한자는 위 표와 같이 “·de臆” “·te臆” “·da坳” “·da 광” “·da 峪” “·da 跫” “·la鞞” “·po梲” “·xu蓆” 등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한자도 문언음에 이르면 자기 고유의 성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느 수준까지 문언음을 무시하고 경성으로만 수록하느냐의 문제

32)·de臆[肋臆]에 대해 《民文》 《東亞》에서는 “·de臆”에 우독음으로 “·te”를 표시하고 표제 음절로 세우지는 않음.

가 따른다. 예를 들면, “·po梲[楡梲]”의 경우 “bó梲”(도리깨라는 의미)의 문언 어휘를 수록할 수도 있고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수록하는 경우에도 “·po梲”를 수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록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록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음 항목 (5) 쌍음절 낱말에서 경성으로 성조가 바뀐 경우에 해당된다. 물론 경성 외의 원래 음절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한자는 다른 음절에 귀속될 수 없으므로 그 한자의 경성음절은 반드시 사전에 수록되어야 한다. 《规字》《规词》에서는 이전의 “肋臑”의 “臑”의 자음 “·de”와 “·te”를 “·te”로 통일하였다.

(5) 쌍음절 낱말에서 경성으로 성조가 바뀐 경우

		规字	现汉	新华	规词	中日	民文	東亞
개 별	·chen伧[寒伧]	×						
	·huai划[刮划]	×			×	×		
	·huang慌[得慌]	×	×	×	×	×		×
	·huo和[暖和]	×	×	×	×			×
	·jiu蹴[圪蹴]	×		×	×	×		
	·lian褌[裕褌]	×	×		×		×	
	·lu氈[氈氈]				×	×		
	·mai莢[苜莢菜]	×	×		×		×	×
	·qi芥[苧芥]	×	×		×		×	×
	·qu戍[屈戍儿]			×				
	·sha掌[挖掌]	×	×	×	×		×	×
	·shan螭[蚰螭]	×	×		×	×	×	×
	·si厕[茅厕]	×	×	×	×	×		
	·suo嗦[啰嗦]	×	×		×	×	×	×
	·ta邈[邈邈]	×	×		×	×	×	×
	·za贖[腌贖]	×	×		×	×	×	×
	·zan咱[这咱]	×		×	×	×		
	·zha馐[饒馐]			×		×		
·zhou礲[碌礲] ³³⁾		×			×	×	×	
공통	·bo卜[萝卜] ·bei臂[胳膊] ·da疸[疙疸]瘩[疙瘩]塔[圪塔] ·shang裳[衣裳] ·le饒[饒饒] ·shi匙[钥匙]/殖[骨殖]							

33) 《规字》《规词》《新华》 외의 다른 사전에서는 표제 음절은 “zhóu”로 하고 실제 발음은 경성으로 한 경우도 있음.

원래 자기의 성조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다음절 낱말 속에서 경성으로 발음되는 경우, 그 변한 경성음절을 표제 음절에 수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표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위의 “·lu 隴[隴隴]”에 대해 “·lu 隴”를 수록한 《规字》《现汉》《新华》《明文》《東亞》에서는 “lǔ 隴”를 수록하지 않고 있으며, “lǔ 隴”를 수록한 《规词》에서는 “隴隴 pǔlǔ”로, 《中日》에서는 “隴隴 pǔlǔ”로 拼音하였다. 여기의 경성에 속하는 글자들이 다른 성조로 수록되어 있다면 설사 경성음절을 수록하지 않아도 그 글자에 대한 정보는 검색할 수 있다. 다만 다음절 낱말 속에서 경성이 된 한자의 표제자 수록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복잡할 것이다. 예를 들면 “事情” “云彩” “蘑菇” 등의 “情” “彩” “菇” 등은 경성으로 발음되지만 이 한자들이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였을 때는 본래의 성조로 쓰인다. 이런 경우에 자기 본래의 성조와 경성을 모두 표제자로 수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표제 음절로 수록하는 적절한 범위를 설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기타

		规字	现汉	新华	规词	中日	明文	東亞
개별	·ge 个	×	×	×	×		×	×
	·xia 下		×	×		×	×	
	·shang 上		×	×		×		
공통	없음							

“gè 个”가 양사, 조사, 접미사로 쓰일 때는 “·ge 个”로 발음하게 되는데 중국과 한국에서 출판된 사전 《规字》《现汉》《新华》《规词》《明文》《東亞》은 모두 “·ge 个를 표제 음절로 수록하지 않았으며, 《中日》에서만 “·ge 个”를 표제 음절로 수록하였다. 반면 “·xia 下”와 “·shang 上”이 다른 동사 뒤에서 보어로 쓰일 때는 경성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러한 “·xia 下”와 “·shang 上”은 《规字》《规词》《東亞》에서

표제음절로 수록하였다. 이 셋은 같은 현상을 보이는 낱말이므로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4-2 분절음절

앞 절에서 기본음절, 비기본음절, 경성음절을 공통음절과 개별음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통기본음절 1253개와 공통경성음절 24개는 404개의 분절음절에서 성조를 더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각 사전에 수록된 개별기본음절, 개별비기본음절, 개별경성음절 중에서 성조를 고려하지 않은 개별기본분절음은 모두 11개이며, 특수분별음절은 7개이다. 결국 이 18개의 개별분절음절의 수용 범위에 따라 분절음절 총량이 결정된다.

4-2-1 기본분절음절

공통분절음절 404개 외에 다음 표와 같은 11개의 개별분절음절이 있다. 이들 분절음절에 소속된 음절과 이를 수록한 사전과 한자는 다음 표와 같다.

분절음절	음절	規字	現漢	新華	規詞	中日	民文	東亞
cei	cèi	襪	襪	×	襪	襪	襪	襪
ei	éi	×	×	噫	×	欸	×	×
	ěi	×	×	×	×	欸	×	×
	èi	×	×	×	×	欸	×	×
eng	ēng	×	鞞	鞞	×	鞞	鞞	鞞
	éng	×	×	×	噲	×	×	×
	ěng	×	×	×	噲	×	×	×
	èng	×	×	×	噲	×	×	×
fiào	fiào	×	×	×	×	勦	勦	勦
kei	kēi	×	剋	剋	×	剋	剋	剋剋
lo	·lo	×	咯	咯	×	咯	咯	咯
nia	niā	×	×	嗑	×	×	×	×
nun	nún	×	磨	×	×	磨	磨	磨
pia	piǎ	×	×	×	×	×	×	嗚
rua	ruá	×	掇	×	×	×	掇	掇
tei	tēi	×	忒	×	×	忒	忒	忒

앞에서도 언급하였듯 감탄사의 실제 소리는 음소나 음절조직과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탄사의 소리를 적는 방법은 사전에 따라 달라질 개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감탄사 “éi欸”는 《新华》에만 수록되었고, 감탄사 “éi欸” “èi欸” “èi欸”는 《中日》에서 “欸” “欸” “欸”의 우독음으로 수록하여 《新华》와 《中日》에만 제한적으로 수록된 음절이다. 감탄사 “éng嗯” “èng嗯” “èng嗯”은 《规词》에서 특수분절음 “ń嗯” “ň嗯” “n̄嗯” 혹은 “ńg嗯” “ňg嗯” “nḡ嗯”을 수정한 음절이다.

북경방언의 구어체 “cèi甃”는 《新华》를 제외한 모든 사전에 수록되어 있으며, 동북방언의 구어체 “piǎ퍼”는 《東亞》에만, “niǎ捰”는 《新华》에만 수록되어 있다. 또 “f”는 “i” 혹은 “ü [y]”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fiào甃”는 중국에서 출판된 사전에서는 이미 사라졌으나 일본과 한국에서 출판된 사전에는 여전히 수록하고 있으며, “kēi 췌” “ruǎ뽕” “tēi忒” 등은 여전히 사전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개별분절음절은 현대한어의 음소나 음절조직 및 그 분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规词》에서는 “cei”와 “eng”만 수용하였다.

4-2-2 특수분절음절

분절음 절	소속 음절	规字	现 汉	新 华	规词	中 日	民 文	東 亞
		×	欸	欸	×	欸	欸	欸
		×	欸	欸	×	欸	欸	欸
		×	欸	欸	×	欸	欸	欸
		×	欸	欸	×	欸	欸	欸
hm	hm	×	噉	噉	×	噉	噉	噉
hng	hng	×	哼	哼	×	哼	哼	哼
m	m	姆	姆	×	×	×	姆	姆
	m	哱	哱	哱	×	哱	哱	哱
	m	哱	哱	哱	×	哱	哱	哱
n	ń	×	嗯	嗯	×	嗯	嗯	嗯
	ň	×	嗯	嗯	×	嗯	嗯	嗯

	ḥ	×	噲	噲	×	噲	噲	噲
ng	ḥg	噲	噲	噲	×	噲	噲	噲
	ḥg	噲	噲	噲	×	噲	噲	噲
	ḥg	噲	噲	噲	×	噲	噲	噲
yo	yō	噲	育 啣	育 啣	×	育 啣	育 啣	育 啣
	·yo	×	啣	啣	×	啣	啣	啣

특수분절음절은 7종으로서 여기에 속하는 어휘들은 모두 감탄사 혹은 의성어이다. 따라서 그 실제 소리는 현대한어의 음소나 음절조직 및 그 분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 음가대로 적을 방법이 없으므로 그 언어의 음절구조 내에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어는 한자라는 표의문자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 한자음을 한어병음방안으로 어떻게 표기하느냐의 문제와 결부된다. 이러한 분절음절에 대해 그 동안 각 사전은 漢語拼音方案의 자모를 이용하되 가능한 실제음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 “ ” “hm” “hng” “m” “n” “ng” “yo”와 같은 분절음으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현대한어에는 하나 혹은 두 개의 자음으로만 이루어지는 분절음절과 零聲母인 “io”라는 분절음은 없으므로 현대한어의 기본적인 분절음절이 아닌 특수한 경우로 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规字》에서는 “ ”, “n”, “yo”(“啣”의 “yō”는 수용)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规词》에서는 7종 모두를 수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规词》에서는 “欸”를 “āi欸”로, “欸”를 “āi欸”로 수정하고, “欸”와 “欸”는 음절 자체를 수록하지 않음으로서 분절음절 “ ”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 “hng”은 의성어의 경우에는 “hēng”으로, 감탄사의 경우에는 “hèng”으로 수정하여 분절음절 “hng” 자체를 없었다. 방언 어휘 “m姆” 역시 “姆姆”의 경우에는 “mūmā”로, “保姆”의 경우에는 “bǎomǔ”로 수정하고, 또 방언의 동사인 “m”은 “mú”로 수정하고 “姆”를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분절음절 “m”을 삭제하였다. “ḥ” “ḥ” “ḥ” 및 “ḥg” “ḥg” “ḥg”는 “éng” “éng” “éng”로 수정하여 결국 성절자음 “m” “n” “ng”로 구성된 음절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规字》《规词》에서는

“yo” 음절 중 “yō育哟唷”는 “yāo”로, “·yo哟”는 “·yao”로 수정하고 “·you呦”를 추가하여, 결국 《规词》에서는 현대한어의 음절조직 규칙을 위배한 특수분절음절은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5. 결론

중국·한국·일본에서 출판된 7종의 중요 사전이나 자전에 수록된 현대한어의 음절 총량은 1376개이다. 이중 7종 사전에 모두 수록된 공통음절 총량은 1277개이다. 1277개의 공통음절 중 경성음절은 24개이고 비경성음절은 1253개이다. 7종 전체 사전에 수록되지 않는 것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전에 수록된 개별음절은 모두 99개이며, 이 중 경성음절이 38개이고 비경성음절은 61개이다.

모든 사전에 수록된 분절음절의 총량은 422개이며, 이중 공통분절음절은 404개이고 개별분절음절은 18개이다. 18개 개별분절음절에는 한어의 음절조직의 규칙에 부합하지 않은 7개의 특수분절음절이 포함되어 있다.

수록 음절수가 가장 많은 사전은 《民文》과 《東亞》로 1345개이며, 가장 적은 사전은 《规词》로 1309음절이다. 분절음절이 가장 많이 수록된 사전은 《東亞》로 420음절이며 가장 적은 사전은 《规词》로 406음절이다. 이렇게 편차가 심한 것은 《规字》와 《规词》가 현대한어 음절의 표준화를 위해 음절조직 규칙에 위배되는 음절을 삭제하거나 혹은 수정한데 반해, 《现汉》《中日》《民文》《東亞》 등은 특수음절을 비롯한 방언 어휘, 감탄사, 의성어, 문언 어휘의 음절 등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음절의 개별음절 중 《规词》에서 표준화한 “cào畲” “cèi 鞞” “diǎo 屖鸟” “lēng 棱楞” “liē 咧” “lōng 隆” “óu 瓠” “pǎn 畔” “rún 嗣” “sóng 聒” “tǎi 吹” “zui 腭” 등 12개와 비기본음절 중 《规词》에서 표준화한 개별음절 “éng 噎” “ěng 噎” “èng 噎” “mū 姆” “ruó 掇” “ō 噢” “ō 噢” 등 7개는 당연히 표준 음절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중 “éng 噎” “ěng 噎” “èng 噎” “mū 姆”는 《规词》에서 증가된 음절이고, “ruó 掇”는 1985년 12월 공포된 《普通话异读词审音

表》에서 規範字로 인정된 것이다. 또 “o” “o” “o” “o” “o” 《規字》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사전에 모두 수록되어 있고 “o”는 기본분절음절에 속하므로 표준 음절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비경성음절은 1272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 “hm” “hng” “m” “n” “ng” “yo” 등과 같은 분절음절들은 감탄사나 방언 어휘들의 소리를 적은 것으로 현대한어의 음소나 음절조직이 아니다. 어차피 감탄사 어휘나 방언 어휘의 실제 소리는 현대한어의 음소나 음절조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현대한어에서 이런 어휘들을 수용한다면 음절조직 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한어의 표준화 원칙에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 등에서 이와 같은 감탄사나 방언 어휘의 실제 소리에 더 가까운 특수음절로 표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현대한어의 표준 음절이 아님을 밝혀야 할 것이다.

각 사전에 수록된 경성음절은 《規詞》가 가장 적은 38개이고, 《東亞》가 46개로 가장 많아 그 수적 편차는 심하지 않다. 하지만 경성음절의 한자를 표제자로 수록하는 양상은 규칙적이지 못하고 사전 간의 차이가 심한 편이다. 조사의 경우 동태조사와 어기조사는 폐쇄적 어휘이므로 모두 표제자로 수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기조사 중 특히 방언 어휘는 그 수록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현대한어의 음절조직 규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접미사와 경성으로 발음되는 방위사도 폐쇄적 어휘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모두 표제자로 수록하여야 한다. 다음절 낱말 속에서 경성으로만 발음되는 경성 한자는 경성음절에 수록되지 않으면 수록될 음절이 없으므로 반드시 수록하여야 하지만, 본래의 음절에도 수록되었으면서도 특정한 다음절 낱말에서만 경성으로 발음되는 한자의 경우에는 경성음절에 따로 표제자로 수록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개별분절음절은 7개의 특수음절을 제외하면 11개이다. 이들은 하나의 분절음절이면서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고 있는 한자음이다. 이러한 한자를 수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분절음절과 음절의 총량이 동시에 증감하

게 된다. 《规词》에서는 공통분절음절 404개 외에 기본음절로 편입된 분절음절 “cei”와 “eng”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타 특수음절은 모두 취소되어 결국 표준 음절은 406개로 확정하였다.

비경성음절은 사전의 수록 어휘수와 방언 어휘, 감탄사, 의성사, 문인 음의 이음 등의 수용 범위 및 음절조직 범위 밖의 음절 수록 여부에 따라 사전 간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편차를 일으키는 음절은 제한된 몇 개의 한자에서 야기된 것이므로 이러한 한자를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문제가 그 사전의 음절 분포의 특징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경성음절의 경우에는 경성음절 수록 원칙에 따라 음절 분포가 달라지므로 명확한 수록 원칙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现代汉语词典》(北京:商务印书馆, 1996年 第3版 및 2005年 第5版)
- 《现代汉语规范字典》(北京, 语文出版社, 1998年)
- 《新华字典》(北京, 商务印书馆, 1999年)
- 《现代汉语规范词典》(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语文出版社, 2004年)
- 《中日大辞典》(東京, 大修館書店, 1996年)
- 《中韩辞典》(北京, 商务印书馆, 1999年)
- 《中韩辞典》(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年 전면개정판)
- 《東亞中韓辭典》(서울, 두산동아, 2008年 2쇄판)
- 《普通话三千常用词表》(增订本, 郑林曦编, 语文出版社, 1987年)

- 《第一批异体字整理表》(中华人民共和国文化部, 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 1955년 12월 22일)
- 《汉语拼音方案》(1957年 11月 1日 国务院全体会议 第60次 会议에 통과, 1958年 2月 11日 第一届 全国人民代表大会 第五次 会议에서 비준)
- 《普通话异读词审音表》(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 国家教育委员会, 广播电视部, 1985년 12월 27일)
- 《简化字总表》(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 공포, 1986년 10월 10일)

- 《现代汉语常用字表》(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 国家教育委员会, 1988년 1월 26일)
- 《现代汉语通用字表》(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 中华人民共和国新闻出版署, 1988년 3월 25일)
- 郑林曦 《普通话三千常用词表》(语文出版社, 1987年 增订本)
- 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 汉语水平考试部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北京: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2年)
- 胡裕树 《现代汉语》(上海教育出版社, 1979年)
- 黄伯荣, 廖序东 《现代汉语》(高等教育出版社, 2002年增订3版)
- 张志公, 《现代汉语》(人民教育出版社, 1982年)
- 张 斌, 《简明现代汉语》(复旦大学出版社, 2006年)
- 刘泽先, <北京话里究竟有多少音节——一个初步的调查统计> 《中国语文》第三期, 1957年)
- 公 士, <北京音里究竟有多少音节?> 《中国语文》(第4期, 1958年)
- 苏新春, <关于《现代汉语词典》词汇计量研究的思考>, 《世界汉语教学》2001年第4期)
- 卢偃, <现代汉语音节的数量与构成分布> 《语言教学与研究》(2001年第6期)
- 马显彬, <汉语同音现象分析> 《语文研究》(2005年第2期总第95期)
- 苏新春, 林进展, <普通话音节数及载字量的统计分析—基于《现代汉语词典》注音材料>, 《中国语文》(2006年第3期(总第312期))
- Otto Jespersen, *Lehrbuch der Phonetik*(Berlin 1932년 5판)
- 杜 青, 《普通话语音学教程》(中国广播电视出版社, 1999年)
- 罗常培, 王 均, 《普通语音学纲要》(商务印书馆, 2004年)

[中文摘要]

音位可分为音段音位(segmental phonemes)和超音段音位(suprasegmental phonemes), 音段音位即是区别意义的最小语音单位, 超音段音位通过跨越音段音位的音高、音强、音长来辩义。汉语的音节由音段音位声母、韵母和超音段音位声调构成, 所以本文把由声母、韵母组成的不带声调的音节暂称“音段音节”。

组成汉语音节的规律较为固定简单, 音节的分布也比较单纯。虽然人们对于现

代汉语[普通话]의 음절数量和分布状况一直很关心,但是由于方言词汇、感叹词、拟声词,文言词汇、轻声音节的收录范围不一,各词典的音节和音段音节的数量和分布均不一样。

本文选择在中国出版的《现代汉语词典》《新华字典》《现代汉语规范字典》《现代汉语规范词典》,在日本出版的《中日大辞典》,在韩国出版的《中韩辞典》《东亚中韩辞典》等七种字典或词典,把各词典收录的基本音节、非基本音节、轻声音节和基本音段音节、非基本音段音节、轻声音段音节,分为共同音节和个别音节,分析比较其数量、分布状况和特征。

七种词典全部收录的共同音节为1277个(包括轻声24个),不同词典个别收录的个别音节为99个(包括轻声38个),总量为1376个。共同 为404个,个别音节为18个(包括7个特殊音节),音段音节总量422个。至于轻声音节的收录条件和范围,所有词典都没有明确的根据,因此各词典收录的范围很不一致。

编撰《现代汉语规范词典》的主要目的在现代汉语的规范化,实际上在共同音段音节404个上,加上“cei”和“eng”音段音节,删除7个特殊音段音节。因此我们可以确定音段音节为406个,非轻声基本音节为1272个。

[국문 요약]

말소리는 분절음(segmental phonemes)과 초분절소(suprasegmental phonemes)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절음은 音色으로 分별하는 자음과 모음이며, 초분절소는 소리의 高저, 강약, 장단으로 의미를 分별하는 요소이다.

한어의 음절은 분절음인 성모와 운모 및 초분절소인 성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분절음인 성모와 운모만의 구성을 분절음절이라고 할 수 있다.

한어의 음절을 구성하는 규칙은 매우 고정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음절의 수량과 분포 상태 역시 비교적 단순하다. 비록 그 동안 현대한어의 음절수와 분포 상태에 대해서는 줄곧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방언 어휘, 감탄사, 의성사, 문어 어휘 및 경성음절의 수록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각 사전의 음절과 분절음절의 수량과 분포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출판한 《现代汉语词典》《新华字典》《现代汉语规范字典》《现代汉语规范词典》과 일본에서 출판한 《中日大辞典》 및 한국에서 출판한 《中韩辞典》(고대 민족문화연구원)《中韩辞典》(두산동아) 등 7종의 자

전 혹은 사전을 선택하여 각 사전에 수록된 기본음절, 비기본음절, 경성음절과 기본분절음절, 비기본분절음절, 경성음절을 모든 사전에 수록된 공통음절과 어느 일부의 사전에 수록된 개별음절로 나누어 수량, 분포 상태 및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7종 사전에 수록된 공통음절은 1277개(경성 24개 포함)이고, 개별음절은 99개(경성음절 38개 포함)이어서 음절 총량은 1376개이며, 7종 사전 전부에 수록된 공통분절음절은 404개이고 개별음절은 18개(특수음절 7개 포함)이어서 분절음절 총수는 422개이다.

경성음절의 수록 조건과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사전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각 사전의 수록 범위가 일치하지 않다.

《现代汉语规范词典》을 편찬한 주요 목적은 현대한어의 표준화에 있으며, 실제 공통분절음절 404개 외에 기본음절로 편입된 분절음절 “cei”와 “eng”를 표준으로 인정하고 기타 특수음절은 모두 취소하였으므로 결국 표준 분절음절은 406개이고 비경성기본음절은 1272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주제어: 현대한어 분절음, 현대한어 음절, 현대한어 음절 분포, 현대한어 음절수

투고일: 2008. 10. 30.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生生字譜』에 反映된 18世紀 後半 朝鮮時代 文獻用 漢字頻度*

河 永 三**

〈 목 차 〉

1. 들어가며
2. 『生生字譜』 簡介
3. 『生生字譜』와 18세기 후반 朝鮮時代의 文獻用 漢字頻度
4. 고빈도 상위 50한자의 속성 분석과 빈도 비교
5. 마치면서

1. 들어가며

이 글은 朝鮮 正祖 16年(1792)에 刊行된 『生生字譜』를 對象으로 삼아 이에 反映된 當時의 漢字 빈도 狀況과 그것이 漢字 頻度 研究 史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形·音·義 외에 漢字의 第4要素라 불리는 “글자의 빈도(字頻)”는 해당 글자의 실제 사용 능력을 나타내 준다는 의미에서 漢字의 字頻研究는 漢字 그 자체는 물론 漢字의 應用研究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¹⁾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慶星大學校 中語中文科 教授(ysha@ks.ac.kr)

1) 馮志偉, 『現代漢字和計算機』(北京大學出版社, 1989), p.109, 蘇培成, 『二十世紀的現代漢字研究』(書海出版社 2001), 60쪽에서 재인용.

中國의 경우, 漢字 頻度研究는 1921年 陳鶴琴의 <語體文應用字彙>에서 시작되며²⁾, 이후 컴퓨터의 출현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1977년 『漢字頻度表』(신화인쇄창)과 1988년의 『漢字頻度統計』³⁾, 1986년의 『漢字頻率表』(어문출판사)⁴⁾, 1992년의 『現代漢語字頻統計』(어문출판사)⁵⁾ 등의 성과들이 출판됨으로써 한자 빈도연구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갖게 되었다.⁶⁾ 뿐만 아니라 중국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주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1차례씩 그해의 2500고빈도 한자, 3500고빈도 한자, 7000고빈도 한자 등을 조사해서 『現代漢語常用字表』와 비교표를 제시함으로써 매년 사용된 한자의 빈도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⁷⁾

韓國의 경우, 1972年 公布된 “教育用 基礎 1800漢字”로부터 한자 빈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80-90年代에 들어 다소 활발해져, 한국과학기술원의 『KAIST 漢字頻度調查一覽表』(1981)과 許成道 교수의 『漢字使用頻度調查』(사람과 책, 1997)를 비롯해, 김홍규의 <國語生活의 漢字使用頻度研究>(『새국어생활』 9권 1호, 1999), 남윤진의 <國語辭典 標題語의 漢字頻度>(『새국어생활』 9권 1호, 1999), 한국교육개발원의 『漢文教育用 基礎漢字1800字 調整白書』(1999) 등의 성과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국가차원의 더욱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조사 연구는 물론 다양하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 2) 『千字課』의 편찬을 위해 6종의 언어자료에서 554,478자를 대상으로 4,261개의 자종을 추출하였고 이에 대한 빈도를 통계내었다. 상위 20개의 고빈도 한자를 보면 的, 不, 一, 了, 是, 我, 上, 他, 有, 人, 全, 這, 來, 小, 在, 們, 說, 子, 可, 道 등이다. 蘇培成, 『現代漢字學綱要』(북경대학출판사, 1994), 29쪽.
 - 3) 1973년부터 1975년까지 2,160자에 이르는 자료를 대상으로 6,374개의 자종을 추출하였는데, 이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편집한 것이 『한자빈도통계표』이다.
 - 4) 180여만 자를 대상으로 총 4,574개의 자종을 추출하였다.
 - 5) 1,108만자를 대상으로 총 7,754개의 자종을 추출했다.
 - 6) 蘇培成, 『現代漢字學綱要』(북경대학출판사, 1994), 29-33쪽 참조.
 - 7) 國家語言字源監測與研究中心(編),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2005)(商務印書館, 2006),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2006)(商務印書館, 2007) 참조.

하지만 20世紀 이전 18세기에 이미 朝鮮時代に 漢字頻度研究에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資料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朝鮮時代 때 鑄造된 各種 活字의 숫자를 기록하기 위한 목록으로 만들어진 “字譜”類의 서적들이 바로 그것들인데, 중요한 것으로는 『新訂字藪』(1772), 『奎章字藪』(1777), 『衛夫人鐵木大字藪』·『鑄字目錄』(1909), 『唐鐵字大小』·『韓構字藪』·『生生字譜』(1792), 『實錄字藪』(1677), 『實錄字目錄』(1913-1916) 등이 있다.⁸⁾ 그중에서도 『生生字譜』는 收錄字가 가장 많아, 자종만 해도 총 1만4천9백82개에 이르며⁹⁾, 鑄造된 活字의 숫자도 가장 방대해 총 15만9천31개에 이른다.¹⁰⁾ 따라서 『生生字譜』는 韓國 歷代 “字譜” 중 최고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生生字譜』를 위시한 “字譜”類에 반영된 主조 활자의 수는 朝鮮 당시의 漢字頻度 狀況을 이해하는 유용한 資料가 될 수 있다.¹¹⁾

2. 『生生字譜』 簡介

-
- 8) 刊行年代에 대해서는 주로 金英善, <活字 字譜考>(『文獻情報學論文集』 Vol. 8(2002)), 361-371쪽에 근거했다.
- 9) 收錄 字量으로 볼 때 그 다음은 『奎章字藪』로 총 11,404字를, 『鑄字目錄』는 총 11,074字(大字)(小字 8,679字)를, 『韓構字藪』는 총 10,850字를, 『衛夫人鐵木大字藪』는 총 10,310字(大字)(小字 9434字)를, 『新訂字藪』는 총 10,031字를, 『實錄字藪』는 총 7,562字를, 『唐鐵字大小』는 총 7,226字자를 수록하고 있다.
- 10) 『鑄字目錄』의 총 主조량은 203,921字, 『奎章字藪』는 150,170字, 『新訂字藪』는 142,767字, 『衛夫人鐵木大字藪』는 136,900字, 『實錄字藪』는 78,188字, 『韓構字藪』는 69,023字, 『唐鐵字大小』는 37,186字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11) 이에 대해서는 尹炳泰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生生字譜』에) 어떤 글자가 어느 정도 刻成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흥미 있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국어연구에 있어서, 특히 한문을 중심으로, 한 특정 한자의 사용빈도를 아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통계적 결과가 역대의 활자 疇成이나 造成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두기 위하여도 필요한 일이다.”(42쪽)

(1) 刊行年代와 板本

生生字는 정조 16년(1792) 왕명에 의해 청나라의 四庫全書 聚珍板式을 모방하여 『康熙字典』을 저본으로 하여 만든 목활자이다. 3년 후 정조 19년 『園幸乙卯整理儀軌』를 인출할 목적으로 이 목활자를 저본으로 하여 동활자를 주조하여 “整理字”라 불렀다.

『生生字譜』의 刊行年代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朝鮮 正祖 18年(1794)¹²⁾과 正祖 20年(1796)¹³⁾이라는 두 가지 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研究에 의하면, 正祖 16年(1792) 閏4월에 간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설득력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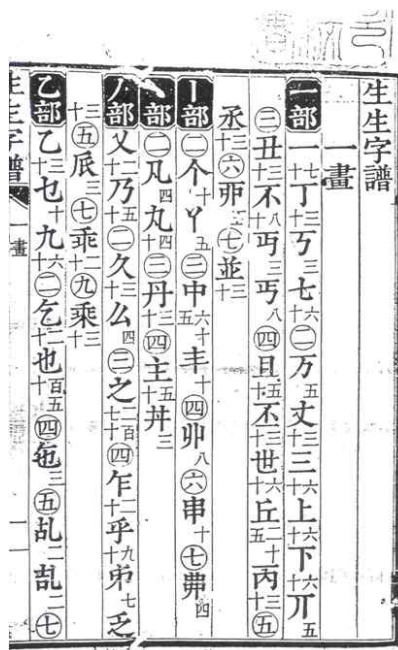
즉 『日省錄』 “正祖 16年 壬子年”조에서 “윤4월 24일, 完編內閣에서 새로 聚珍字譜를 만들어, 箕營으로 내려 보냈다. 또 16만자를 추가로 만들었다.……6월 29일 內閣에 명하여 木字本을 만들도록 했다.(閏四月二十四日, 完編內閣新造聚珍字譜, 下送箕營. 又加造十六萬字.……六月二十九日命內閣造木字本.)”이라 했으며, 또 『王朝實錄』 卷之35의 “正祖 16年 6月 丙申”조에서 “병신일에 內閣에 명하여 木字本을 만들게 하였다. 이 때 御製를 印刊하고자 平安監營으로 하여금 銅으로 字本을 주조하도록 하였다가 곧 나무로 대신하게 하였고, 內閣으로 하여금 관장하여 만들게 하였다(丙申命內閣造木字本. 時欲印御製, 令平安監營鑄銅爲字本, 尋以木代之, 令內閣管造.)”라고 했는데, 尹炳泰는 여기서 말한 『聚珍字譜』가 바로 『生生字譜』라고 했으며¹⁴⁾, 이러한 견해는 학계에 공인되어 “규장각의 해제”나 정옥자의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효형, 2001) 등에서도 『生生字譜』의 간기를 1792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12) 『御定人瑞錄』 卷首 <總敍>에서 “國朝銅字印書冊始於太宗癸未,……歲甲寅倣中國四庫書式, 取字典本, 木用黃楊, 刻成大小三十二萬餘字,……賜名曰生生字譜, 命內閣典守之.”라고 했으며, 또 그 標題紙에서 “字典書體, 甲寅初印”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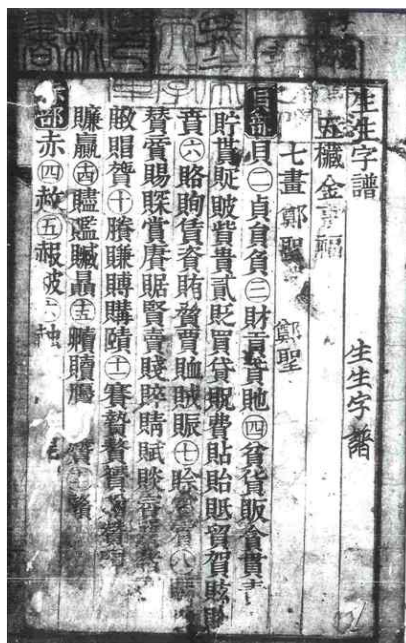
13) 『王朝實錄』 卷之44 “正祖 20年 3月 癸亥”조에서 “壬子命倣中國四庫書聚珍板式, 取字典字本, 木用黃楊, 刻成大小三十二萬餘字, 名曰生生字.”라고 했다.

14) 尹炳泰, <生生字譜와 生生字>, 36-37쪽 참조.

『生生字譜』는 현재 두 가지 板本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서울대학 奎章閣 所藏 1冊 11張本으로 보통 “無註本”(奎7684-5)이라 불리는데¹⁵⁾, 이는 구조된 자종의 목록만 있을 뿐 구조된 숫자는 기록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1冊 82張本으로 보통 “有註本”(奎7072, 4533, 7026, 7073, 7074)이라 불리는데¹⁶⁾, 이는 구조된 자종의 목록 뿐 아니라 구조된 숫자까지 기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18세기 당시 조선의 한자 빈도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본 논문에서는 주로 1冊 82張本(“有註本”)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림7] 『生生字譜』(有註本) 書影



[그림8] 『生生字譜』(無註本) 書影

15) “正祖 16年(1792) 刊行, 1冊(11張)(零本), 四周雙邊, 半葉匡郭: 21.7×

(2) 收錄 字數와 鑄造 總量

『生生字譜』의 收錄 字數와 鑄造 總量에 대해서는 『生生字譜』의 第81張 陰面 第2行부터 第5行에서 “右共二百二十四部. 原字 1萬4千9百86字. 疊字 14萬4千2百60字. 總 15萬9千2百46字(小字稱此)”라고 기록해 두었는데, 이에 근거해 볼 때 原書에서 수록한 글자 수는 1만4천9백86字이며, 大字로 구조된 것이 15만9천2백46字이고, 小字도 이와 同數로 구조되어, 총 31만8천4백92字가 구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하지만 여기의 “二百二十四部”는 “二百一十四部”의 오류로 보이며, 『生生字譜』의 原書에서 말한 收錄 字數와 鑄造 總量은 필자의 統計와 일부 차이를 보인다. 필자의 統計에 의하면 “有註本” 『生生字譜』는 214部首 體系에 근거해 총 1만4천9백82개의 標題字를 수록하였고, 鑄造된 活字의 量은 15만9천31字, 小字도 同數로 제작되었다고 한다면 총량은 31만8천62자에 이른다. 詳細한 情況은 다음과 같다.<表-1>

13.9cm, 10行 20字, 版心: 上黑魚尾 : 26.4×17.2cm.. 表紙書名: 『生生字分
櫛都錄』. 印記: 所藏本: 第5冊(五張) 外缺.”(<http://kyujanggak.snu.ac.kr>)

16) “1冊(82張), 四周雙邊, 半葉匡郭: 21.6×13.9cm, 10行字數不同, 版心: 上黑
魚尾 : 31.2×19.3cm. 印記: 印: 7072: 熙政堂.”(<http://kyujanggak.snu.ac.kr>)

17) 순조 14년(1814)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板堂考』의 “鑄字所應行節目”
에 의하면 “生生木字, 大字十五萬七千二百字, 小字十六萬四千三百字, 甲寅造
成”이라고 하여, 『生生字譜』에 기록된 구조 량에 비해 대자는 2,046자 적고,
소자는 5,054자 많은 등,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http://e-kyujanggak.snu.ac.kr/GMS/GMS_VIEW.jsp?type)

번호	部首	字種	鑄造總量
001	一	22	764
002	丨	7	112
003	丶	5	127
004	ノ	12	574
005	乙	14	439
006	丿	3	140
007	二	13	423
008	亠	14	390
009	人	635	6633
010	儿	25	290
011	入	7	215
012	八	13	635
013	冂	17	241
014	宀	14	222
015	冫	63	661
016	几	8	156
017	凵	8	103
018	刀	150	2001
019	力	75	1095
020	勹	23	253
021	匕	6	100
022	匚	20	232
023	匚	8	128
024	十	17	384
025	卜	10	156
026	冂	23	397
027	厂	34	506
028	厶	6	138
029	又	19	459
030	口	562	6082
031	口	43	770
032	土	250	3168
033	士	13	278

034	攴	1	5
035	攴	8	62
036	夕	13	225
037	大	47	863
038	女	308	2886
039	子	29	579
040	宀	95	1678
041	寸	15	356
042	小	6	150
043	尢	9	90
044	尸	38	549
045	中	3	43
046	山	292	2113
047	巛	6	157
048	工	6	149
049	己	9	145
050	巾	138	1355
051	干	11	245
052	幺	9	106
053	广	107	1133
054	乚	4	105
055	升	11	143
056	弋	6	73
057	弓	50	655
058	彡	6	132
059	彡	16	232
060	彳	68	948
061	心	449	5132
062	戈	28	545
063	戶	18	336
064	手	541	5952
065	支	7	54
066	支	64	1066
067	文	8	134

068	斗	16	219
069	斤	15	287
070	方	38	619
071	无	5	63
072	日	186	2288
073	曰	17	415
074	月	28	520
075	木	725	6309
076	欠	56	726
077	止	16	369
078	歹	54	442
079	爻	26	265
080	毋	7	112
081	比	7	65
082	毛	53	337
083	氏	4	135
084	气	4	81
085	水	795	7162
086	火	234	2696
087	爪	7	204
088	父	5	87
089	爻	6	145
090	冂	9	104
091	片	28	255
092	牙	5	34
093	牛	73	744
094	犬	166	1676
095	玄	5	120
096	玉	203	2081
097	瓜	17	124
098	瓦	62	392
099	甘	6	105
100	生	7	155
101	用	4	105

102	田	68	1129
103	疋	9	171
104	疒	180	1817
105	夂	4	110
106	白	40	442
107	皮	20	102
108	皿	38	548
109	目	226	1760
110	矛	14	115
111	矢	15	359
112	石	190	1554
113	示	101	1576
114	肉	8	159
115	禾	155	1838
116	穴	85	865
117	立	26	376
118	竹	299	3065
119	米	87	791
120	糸	360	4154
121	缶	28	227
122	网	57	619
123	羊	48	513
124	羽	62	805
125	老	8	280
126	而	7	192
127	耒	34	330
128	耳	56	807
129	聿	8	162
130	肉	295	2891
131	臣	4	160
132	自	6	109
133	至	6	160
134	白	15	321
135	舌	17	172

136	舛	4	94
137	舟	66	439
138	艮	3	80
149	色	6	73
140	艸	635	5869
141	虍	27	332
142	虫	309	2698
143	血	17	98
144	行	15	289
145	衣	217	1957
146	西	10	210
147	見	32	457
148	角	44	402
149	言	389	4124
150	谷	20	120
151	豆	17	166
152	豕	44	368
153	豸	43	284
154	貝	95	1567
155	赤	12	128
156	走	50	335
157	足	183	1461
158	身	15	174
159	車	134	1212
160	辛	11	210
161	辰	6	94
162	辵	131	1814
163	邑	140	981
164	酉	98	879
165	禾	2	50
166	里	5	155
167	金	309	2329
168	長	6	50
169	門	72	882
170	阜	118	1320

171	隶	5	21
172	隹	35	533
173	雨	74	832
174	青	8	89
175	非	5	72
176	面	15	70
177	革	98	633
178	韋	28	167
179	韭	4	13
180	音	12	152
181	頁	98	975
182	風	42	261
183	飛	6	56
184	食	128	993
185	首	6	47
186	香	16	78
187	馬	157	1286
188	骨	60	309
189	高	5	41
190	髟	71	452
191	鬥	9	64
192	鬯	5	39
193	鬲	14	65
194	鬼	30	230
195	魚	176	926
196	鳥	243	1732
197	鹵	15	113
198	鹿	39	300
199	麥	27	227
200	麻	8	110
201	黃	10	102
202	黍	6	77
203	黑	51	434
204	黻	6	62
205	黽	20	149

206	鼎	4	45
207	鼓	17	107
208	鼠	26	100
209	鼻	12	58
210	齊	8	81
211	齒	51	248
212	龍	6	95
213	龜	4	40
214	龠	7	58
계		14982	159031

〈表-1〉『生生字譜』收錄 字數

필자의 統計는 原書에 기록된 것보다 수록 자수에서 4자가 적고, 活字의 總量도 175자가 적으며, 小字까지 합치면 350자가 적은 셈이다. 다만 原書의 「祝」字(木部 5劃, 27B10)의 경우, 標題字만 있고 鑄造 數量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原書의 板刻 때 일어난 錯誤로 보인다.

(3) 수록자의 배열

『生生字譜』는 먼저 214부수로 분류한 다음 획수에 의해 부수를 배열하고, 다시 같은 부수 내에서는 획수에 의해 분류하였다. 다만 같은 획수 내의 글자들은 『全韻玉篇』의 순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¹⁸⁾, 대조해 본 결과 전혀 다른 배열 순서를 가진다.

『生生字譜』

[1획] [부수] 一部, 丨部, 丶部, 丿部, 乙部, 丿部,

[一部] 一, 丁, [丂]¹⁹⁾, 七

[2획] 万, 丈, 三, 上, 下, 丌

18) 金英善, <活字 字譜考>(『文獻情報學論文集』Vol. 8(2002)), 369쪽.

19) [] 속의 글자는 서로 수록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 [3획] 丑, 丕, 丐, 丐
- [4획] 且, 丕, 世, 丘, 丙
- [5획] 丞
- [6획] 𠂔
- [7획] 並

『全韻玉篇』

- [1획] [부수] 一 部, 丨 部, 丶 部, 丿 部, 乙 部, 丿 部,
[一 部] 一, 七, 丁
- [2획] 丌, 万, 下, 丈, 上, 三
- [3획] 丐, 丐, 丕, 丑
- [4획] 丕, 且, 世, 丙, 丘
- [5획] 丞
- [6획] 𠂔
- [7획] [𠂔], 並
- [10획] [𠂔]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부수의 동일 획수 내에서의 수록자의 순서는 『生生字譜』와 『全韻玉篇』은 전혀 다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字彙』와도 불일치하며, 『康熙字典』의 배열과 거의 일치한다.²⁰⁾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세밀한 대조에 의한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4) 印出本

『生生字譜』에 의한 인출본으로 『生生字譜』와 『御定人瑞錄』이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金斗鍾의 연구에 의해 5종의 인출본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 尹炳泰의 연구에 의하면, 정리자가 만들어진 정조 20년(1796) 丙辰 3월 17일 이전에 생생자로 인출된 것은 모두 생생자 인출

20) 다만 『강희자전』에서는 [3획]의 丑이 맨 뒤에 위치하나 『生生字譜』에서는 맨 앞에 위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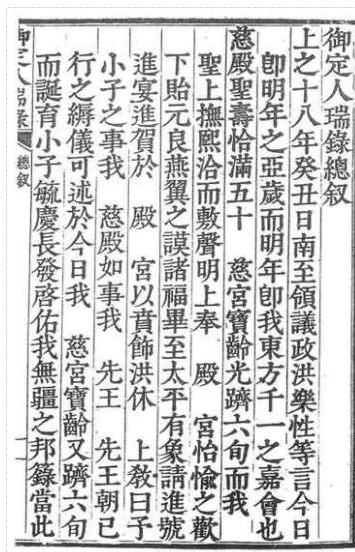
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韓國書誌年表』와 韓國古書年表資料』 중에서 內賜記가 있는 다음의 생생자 인출본을 추가하였다.

1975년(乙卯) 정조 19년:

9월 『華城奉壽堂進饌廣載軸』, 『洗心臺辛亥廣載軸』, 『惹喜廣載軸』
10월 『廣載軸』, 『寶鑑纂輯廳廣載軸』, 『(乙丑)耆社廣載軸』

또 위의 연표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韓國活字本一覽表』에서 추출한 정조 19년(1795) 9월의 『內苑賞花戊申廣載軸』 등 4종, 10월의 『高嶺里祈隱閣廣載軸』 등 11종, 인출년도 미상의 『南殿齋宵廣載軸』 등 14종을 예시했다. 뿐만 아니라 1796년 3월 整理字가 주조된 이후 1857년 鑄字所의 화재로 생생자가 소실될 때까지의 인출된 책들 중에서도 생생자 조판 때의 板式 등에 근거해 정리자와 혼용하여 인출한 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하여 자료로 제시했다. 특히 整理字 조성 후의 『文史咀英』(1829년 8월), 『諸臣廣韻(甲寅)』(1854년 6월), 『諸臣廣韻(丙辰五月)』(1856년 6월) 등은 순전히 생생자에 의해 인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²¹⁾

하지만 生生字를 저본으로 뒤에 鑄成한 “整理字”는 서로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하고 정교하다.²²⁾ 따라서 정리자가 주성된 후 인출된 서적



[그림3] 生生字 引出本 『御定人瑞錄』(1794) 書影

21) 尹炳泰, <『生生字譜』와 生生字>, 44-48쪽.

22) 金斗鐘은 생생자와 정리자에 의한 인출본이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에 대해 관자기 틀의 行字數에 따라 식별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적절한 구분법은 아니다.²³⁾

따라서 生生字에 의한 인출본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曹炯鎭은 생생자와 기영목활자, 정리자에 의한 인출본을 구분하여 생생자에 의한 인출본은 『御定人瑞錄』(1794), 『生生字譜』(1794 경), 『乙卯食年司馬榜目』(1795), 『御制策問』(1795), 『洗心臺辛亥廣載軸』(1795), 『高嶺里祈隱閣廣載軸』(1795), 『華城奉壽堂進饌廣載軸』(1795), 『誠正閣夜對聯韻軸』(1795), 『內苑賞花戊申廣載軸』(1795) 등 9종으로 한정하였다.²⁴⁾

(5) 避諱字

『生生字譜』에는 避諱에 관련된 글자가 다음과 같이 총 6차례 출현한다. 「愴」(莊祖諱, 追尊, 21A2²⁵⁾), 「ㄷ」(太祖諱, 第1代, 25B10), 「椿」(度祖諱, 先系追尊, 28B10), 「焯」(肅宗諱, 第19代, 36A5), 「桴」(元宗諱, 追尊, 39A4), 「鈞」(景宗諱²⁶⁾, 第20代, 69A1). 이러한 避諱字들은 같은 筆劃字의 그룹에서 調整 가능한 경우 해당 行의 첫머리에 갖다 배열함으로써 尊重과 恭待를 표시했다.²⁷⁾

들을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정조 18년부터 고종 35년경까지 약 105년 동안 인출된 53종의 목록을 제시했다. 구체적 목록은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담구당, 1974), 327-329쪽 참조.

23) 千惠鳳, 『韓國木活字本』(범우사, 1993), 94쪽.

24) 曹炯鎭, 『中韓兩國古活字印刷技術之比較研究』(學海出版社, 1986), 290쪽.

25) “21A2”는 21쪽 陽面 第2行을, B는 陰面을 말한다.

26) 景宗의 諱名은 원래 「昞」이었는데, 「昞」과 「鈞」은 동음 관계에 있기에 避諱가 가능했다.

27) 「日」部の 1획에는 단지 「ㄷ」字만 수록되어 調整할 방법이 없었기에 「日」字의 아래에 배열할 수밖에 없었다.

(6) 『生生字譜』의 몇 가지 특징

첫째, 구조 등급의 세밀한 구분을 들 수 있는데, 『生生字譜』에서는 활자의 구조량을 기재하면서 강장 많은 270개로부터 가장 적은 2개까지 무려 63단계에 의한 세밀한 구분하고 있다. 특히 60개 이하 등급을 보면 52 51, 48, 46, 44, 42, 41, 34, 31, 21, 11개만 빠졌을 뿐 나머지 모두를 구분하여 해당 글자를 배치시키고 있다. 이러한 세밀한 구분이 당시 활자 관련 인력들의 정교한 경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자소에 전해지는 비법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1만 5천자에 달하는 방대한 활자를 63개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다양한 형체의 구조를 들 수 있는데, 『生生字譜』에서는 인쇄의 편의를 위해, 사용될 글자의 다양한 서체를 동시에 구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保(25) 이외에도 𠄎(20)를 구조했으며, 更 이외에도 𠄎을 구조하는 등 𠄎의 정체 이외의 고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또 竝(20, 立부수), 並(30, 一부수), 并(25, 干부수); 辭와 辭; 忍과 𠄎, 單과 單 등에서처럼 속자를 동시에 구조하기도 했다. 특히 竝의 경우 정자보다 속자가 많이 구조됨으로써 속자인 並이나 并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추정하게 해 주고 있다.

셋째, 미 수록자와 구조량 미기재 자

『生生字譜』에는 간혹 상용자임에도 미수록된 글자가 보이는데, 표제자는 존재하되 구조량의 표기가 빠진 경우도 보인다.

예컨대, 現은 상당한 상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고대 한어에서 現에 의해 표시되기도 했겠지만, 現이 『全韻玉篇』에도 등장하고, 다른 빈도조사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 빠트린 것으로 의

심된다. 또 廻는 비록 상용자는 아니지만 고대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자로, 이 역시 빠진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그런가 하면 杻(木부수 5획)은 표제자만 표기된 채 이의 구조량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착오로 보인다.

3. 『生生字譜』와 18세기 후반 朝鮮時代의 文獻用 漢字頻度

(1) 收錄字의 頻度

『生生字譜』는 총 63개 等級에 의해 해당 글자의 글자 수를 기록하였는데, 가장 많은 것은 270개로부터 가장 적은 것은 2개에 이른다. 책에 수록된 총 1만4천9백83개의 標題字 중 頻도가 가장 높은 글자는 「之」(270次)이며, 그 다음이 「也」「以」「兮」「而」(150次) 등이고, 그 다음이 「其」「者」(120次), 그 다음이 「于」「人」「壽」(100次) 등의 순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頻度分布는 다음의 표와 같다(<表-2>와 <表-3>).

序號	鑄字量	字種數	編碼	字例
1	270	1	1	之
2	150	4	2-5	也以兮而
3	120	1	6	於
4	110	2	7-8	其者
5	100	3	9-11	于人壽
6	90	1	12	乎
7	85	2	13-14	矣曰
8	80	3	15-17	不則耶
9	78	1	18	焉

10	75	1	19	爲
11	70	8	20-27	一乾事子年所王臣
12	67	1	28	地
13	65	3	29-31	田中心
14	62	1	32	天
15	60	16	33-48	知七三下上世九二五仙八六十山月次
16	59	2	49-50	判哉
17	58	2	51-52	列坤
18	57	2	53-54	國性
19	56	8	55-62	員囚州帝文獄理福
20	55	17	63-79	生仁位修僧卦此無物皇相禮罪義聲職親
21	54	1	80	信
22	53	1	81	侯
23	50	46	82-127	且主乃亂予亦代佛免兩公兵分別史名君四大夫姓 孫將小恨日有服朝氏民水爾疏祖禹罷老聖與興見 語賢軍道
24	49	1	128	刑
25	47	2	129-130	使言
26	45	51	131-182	任先冠利前功厥司問城如宮川平象意教敵數易明 春時書未治然燕營牧班當病破祀祭祿禽私秋秩答 經置羣詔贈身金陽麼
27	43	1	183	周
28	40	101	184-284	丸京亭何倭元兄光入冬出初制動勦卿原去又可吏 哭夜太守官對少恩惠愛成或救新旨星是朔木本欲 歟正歲火父犯獻茲由男畝疆疑痛發盛盡監省石神 禁穀端竹笑篇籍米綱聚聽能自至致臺舉舜色若行 視詩變象負賊體酒里重門陰難雨風麥龍
29	39	1	285	草
30	38	3	286-288	家放災
31	37	12	289-300	及取古后吳律智歷熙異節賦
32	36	5	301-305	在度瑞翌蓄

33	35	209	306-514	伊伐來倫傳傷僚儀儒儲允內富副劉務勞匹叔 受叛唐善噫域堂報士夏夕始嬪宋客寡寺就屯師常 建強形御志思怨悲清惟感愁慶憂憲懇戚戰才拜抵 操擬敢敬旅旋旗昭晝曆曹期李枝東極樓樂止殿母 氣汝法流海清湖湯源漢烈熱燭牲特狀狄狩猷猥獨 獸率玉產用疫疫登看眞督矜社祥禦禪科租稅稔稱 稷穆穡策箕箭箴簿精糧紀納綸編縣織繼署羅翁翰 考耕聞聰肅胎舊舒花英苔莫華萬著葬蓋藝藥藩處 號螽製霸解討誅誠說誰論諫謂講謨識議爾爾赦路 躬輔辟送通進郎郡部都錢鎮長陸非音體鳳黃齊
34	34	12	515-526	伯區府筵管終義苟要調題黨
35	33	2	527-528	癡草
36	32	1	528	近
37	30	472	530-1001	丁丈丑丙丕丞並丹久乏乘乙乳云井亥亨亮宣今 仍令仕他仰仲件伏住佐作侍僮充兕克兒全共典冤 冢冰凡鳳凱刀刻劓力助勃勉勇勝勤勢勳勿匈北匡 升午半卒南占卯卷卽厚厠厭厲單參友段口只右句 召台同各合吾命品咨啓喪喜嚴因固園圖土均坐執 基堯墟塵增壬外多夷奏女奴妃孔字孝孟孰宅安宗 宜室宰宵容宿寄寅寒察審寮寶寸封尉導尙尺尹居 左巳市布幸幽序庚廷弊弓弘弟張役待後徐得從德 必忍忠恣悠悉惡愚慟懷戎我房扉承持排提揚摠擊 擇收攻政毀效敗敕散敦敲斂斗料斛斤斬斯方施旌 族旒旣早昏昔昨易晦更最曾朕望末材欺欽歌歎 步武歸死股殺毛求江漕炎焦煩爭爵爺爻俎牀牛牟 牢犬狂獵甚甫甲申甸界畏畢略畫番畱畿仄疎疾癘 癸白百皆盈益盜盟盤目直矢矩短規碑祐祚祐祝祠 禍禱离禾秀秉秦稼積究空竊立竟章童竭第等範籌 粗粟糶糶系紂約級紬絃網綵綏繇罔罰羌美羞羽翊 翠翼耆耦耳聊聯肆肉育胡背臘臥臧臨舅舞舟良艱 苦蔘虛虜虞蠶蠻術衙衝衡衣卒表衷補裏西覆覈規 覺觀計訓記設詞詳誥諭謹譯護讀豈豪貞財貢貧貨 責貴賀賈賑賓賜賤賞質起趙足車載轉辭辭辰農迎 逆造遊運遠遣邊邑配酬量閑閣闕關陣陵集雄雖 雜離雪雲需霸靈靡韻順願顯飛食養首馬驚高髮魚 鮮鳥鳴鴈鹽麗黍默點龜

38	29	12	1002-1013	吟和商學慕指浩稟舍諸……
39	28	40	1014-1053	儔兼劍劾反叢告呼層崩……
40	27	59	1054-1112	備僉剛加化吹哨哲墓奪……
41	26	31	1113-1143	俊凭函刃嘻圓坡堍姬岐……
42	25	842	1144-1985	丘亞亟交伸似佑佻佳例……
43	24	95	1986-2080	係僻僂儼刎匪吸呵唏噉……
44	23	102	2081-2182	偃傍僂儼凍凍准勒匱咫……
45	22	210	2183-2392	侈傘離剖剝飽嘶噉嚇婷……
46	20	895	2393-3287	慰乂乍乖乞了互互況些……
47	19	16	3288-3303	侄促俚俚僂儼僂儼刈啮……
48	18	100	3304-3403	估侶俚卸吝墻賁夭姪姪……
49	17	218	3404-3621	級俯俯倡倥儻儻儻清……
50	16	185	3622-3806	伴佚俚俚僂儼僂儼冷剃劬……
51	15	596	3807-4402	仄仆仞仞仞仞仞仞仞……
52	14	191	4403-4593	企伎佗佗倏倏倏倏倏……
53	13	161	4594-4755	侑侑倏倏倏倏倏倏倏……
54	12	328	4756-5083	仞侃剔剔剔剔剔剔剔……
55	10	275	5084-5358	个丰串乚亘仔佰俐侖侖……
56	9	20	5359-5378	佻侖俚俚倏倏倏倏倏……
57	8	497	5379-5875	丐卍卍卍卍卍卍卍……
58	7	723	5876-6598	劣佻佻佻佻佻佻佻……
59	6	942	6599-7540	仇侑侑侑侑侑侑侑……
60	5	1417	7541-8957	万丌丌丌丌丌丌丌……
61	4	1848	8948-10795	弗凡么亂仞仞仞仞仞……
62	3	2937	10796-13732	丐丐井辰辰辰辰辰……
63	2	1249	13733-14981	亂役侏侏侏侏侏侏……
64	미상	1	14982	祝
65	0	39 ²⁸⁾	14983-15021	厶彡丨广糸ノ丨丩儿……

〈表-2〉 『生生字譜』 收錄字의 頻度分布 및 字例

28) 이 39자는 부수 표제자로, 부수분류법에 의한 편의를 위해 제시되었을 뿐 주조량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주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조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빈도가 0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收錄字의 累積 計頻度

『生生字譜』에 收錄된 글자들의 累積 頻度는 다음과 같다(<表-4>).

字次	字種數	字種累計	總字數	累計字數	累頻(%)
270	1	1	270	270	0.16952
150	4	5	600	870	0.54623
120	1	6	120	990	0.62158
110	2	8	220	1,210	0.75971
100	3	11	300	1,510	0.94806
90	1	12	90	1,600	1.00457
85	2	14	170	1,770	1.11131
80	3	17	240	2,010	1.26199
78	1	18	78	2,088	1.31097
75	1	19	75	2,163	1.35806
70	8	27	560	2,723	1.70966
67	1	28	67	2,790	1.75173
65	3	31	195	2,985	1.87416
62	1	32	62	3,047	1.91309
60	16	48	960	4,007	2.51583
59	2	50	108	4,115	2.58364
58	2	52	116	4,231	2.65647
57	2	54	114	4,345	2.72805
56	8	62	440	4,785	3.00431
55	17	79	935	5,720	3.59136
54	1	80	54	5,774	3.62526
53	1	81	53	5,827	3.68679
50	46	127	2300	8,127	5.10262
49	1	128	49	8,176	5.13338
47	2	130	94	8,270	5.19240

45	51	181	2295	10,565	6.61082
43	1	182	43	10,608	6.63334
40	101	283	4040	14,648	9.19690
39	1	284	39	14,687	9.22138
38	3	287	114	14,801	9.29296
37	12	299	444	15,245	9.57173
36	5	304	180	15,425	9.68475
35	209	513	7315	22,740	14.27755
34	12	525	408	23,148	14.53371
33	2	527	66	23,214	14.57515
32	1	528	32	23,246	14.59524
30	472	1,000	14160	37,406	23.48575
29	12	1012	348	37,754	23.70425
28	40	1052	1,120	38,874	24.40745
27	59	1,111	1,593	40,467	25.40763
26	31	1142	806	41,273	25.91369
25	842	1984	21,050	62,323	39.13016
24	95	2,079	2,280	64,603	40.56168
23	102	2181	2,346	66,949	42.03464
22	210	2391	4,620	71,569	44.93536
20	895	3286	17,900	89,469	56.17406
19	16	3302	304	89,773	56.36493
18	100	3402	1,800	91,573	57.49508
17	218	3,620	3,706	95,279	59.82193
16	185	3,805	2,960	98,239	61.68040
15	596	4401	8,940	107,179	67.29348
14	191	4592	2,674	109,853	68.97238
13	161	4,753	2,093	111,946	70.28649
12	328	5,081	3,936	115,882	72.75775
10	275	5356	2,750	118,632	74.48436
9	20	5376	180	118,812	74.59738

8	497	5873	3,976	122,788	77.09375
7	723	6,596	5,061	127,849	80.27136
6	942	7538	5,652	133,501	83.82003
5	1417	8955	7,085	140,586	88.26842
4	1848	10,803	7,392	147,978	92.90956
3	2937	13740	8,811	156,789	98.44164
2	1241	14,981	2,482	159,271	100.0000
미상	1	14982	0		
계	14982	14982	159031		

〈表-3〉 『生生字譜』 收錄字의 累積 頻度

(3) 收錄字의 頻度 等級 分類

級別	字種	累計 字數	累計頻度(%)
I	304	304	9.68475
II	696	1000	23.48575
III	1079	2079	40.56168
IV	1541	3620	59.82193
V	1133	4753	70.28649
VI	1843	6596	80.27136
VII	4207	10803	92.90956
VIII	4179	14982	100

〈表-4〉 『生生字譜』 收錄字 等級 分流 統計

4. 고빈도 상위 50한자의 속성 분석과 빈도 비교

여기서는 고빈도 상위 50한자를 대상으로 이의 속성을 분석하고 이들을 역대 한자 빈도와 비교함으로써 이들 『生生字譜』의 한자 빈도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生生字譜』 고빈도 상위 50한자

『生生字譜』 고빈도 상위 50한자는 다음과 같다.

之也以兮而於其者于人壽乎矣曰不則耶焉爲一乾事子年所王臣地田中心
天知七三下上世九二五仙八六十山月次判哉

(2) 고빈도 상위 50한자의 품사

품사 분류에 대해서는 『馬氏文通』에서 9품사로 구분한 이후, 黎錦熙(9품사), 呂叔湘(9품사), 王力(11품사), 丁聲樹 등의 『語法講話』(12품사), 張志公 등의 『中學體系』(12품사), 胡裕樹(13품사), 黃伯榮(14품사), 朱德熙의 『語法講義』(17품사)와 『現代漢語』(15품사), 張斌(13품사) 등 그간 다양한 기준에 의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 일치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대 한어의 교육학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胡裕樹 주편의 『現代漢語』의 명사, 동사, 조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 부사, 대사, 연사, 개사, 조사, 어기사, 탄사 등 13가지 품사에 의해 분류하였으며²⁹⁾, 이의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9) 陸儉明(저), 김현철·박정구·최규발(역), 『중국어 어법 연구 방법론』(차이나 하우스, 2008), 78쪽,

개사(3): 于, 以, 於

대사(1): 其

동사(23): 判, 曰, 知, 爲, 壽, 山, 子, 人, 心, 世, 王, 地, 臣, 年,
田, 乾, 天, 仙, 月, 下, 上, 中, 事,

부사(1): 不

수사(9): 五, 二, 八, 七, 九, 一, 三, 六, 十

양사(1): 次

어기사(7): 矣, 哉, 也, 焉, 耶, 兮, 乎

연사(2): 而, 則

조사(3): 所, 之, 者

이의 출현 숫자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동사>수사>어기사>개사·조사>연사>대사·양사·부사”의 순이 되며, “명사, 조동사, 형용사, 탄사” 등은 출현하지 않고 있다. 물론 중국어가 동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동사가 다른 품사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출현하며, 수사³⁰⁾나 대명사, 부사 등 실사의 다른 품사들에 비해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동사를 제외하면 어기사, 개사, 조사, 연사 등 허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¹⁾

(3) 역대 문헌 자료와의 비교

30)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 4를 빼고는 모두 상위 50빈도 한자에 포함되었다.

31) 물론 여기에는 한 글자가 여러 품사를 겸하는 겹품사(兼類)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爲의 경우 문장 속에서 동사로도 쓰이고 개사로도 쓰일 수 있으며, 乎의 경우 어기사는 물론 비교나 장소를 나타내는 개사로도 쓰일 수 있으며, 事의 경우 명사는 물론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爲의 경우 동사는 물론 개사로도 쓰일 수 있으며, 壽의 경우 동사는 물론 명사로도 쓰일 수 있다. 하지만 『生生字譜』의 경우 이들 경우 주조 량만 기록했기 때문에 실제 문장 속에서의 쓰임은 확인 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해당 글자의 대표적 용법에 근거해 분류 귀속시켰다.

여기서는 고빈도 상위 50자를 추출하여 이를 조선시대 “자보”류 저작 중 연대가 가장 이른 『新訂字藪』(1772)³²⁾와 고대문헌에 쓰인 빈도 조사(경전류/종합류)³³⁾ 및 동한 시대 실물 문자자료의 빈도³⁴⁾, 위진남북조 석각자료의 빈도³⁵⁾ 등을 상호 비교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이들 자료의 고빈도 상위 50한자 표는 다음과 같다.

빈도 순서	生生字譜	新訂字藪	古代文獻(經典類)	古代文獻(綜合類)	東漢實物資料	魏晉南北朝石刻
01	之	之(300) ³⁶⁾	之	之	之	之
02	也	而(250)	子	不	印	軍
03	以	年(174)	不	以	子	子
04	兮	然(173)	曰	也	長	以
05	而	以(170)	也	而	大	將
06	於	也(170)	以	爲	不	年

- 32) 金英善, <活字 字譜考>(『문헌정보학논집』(충남대 문헌정보학과) 제8집, 2002), 386쪽에 근거했다.
- 33) 郭小武, <古代漢語極高頻字探索>(『語言研究』2001年 第3期), 69-84쪽에 근거했으며, 여기서 말하는 “경전류”는 『左傳』, 『論語』, 『詩經』에 출현하는 4,213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이며, “종합류”는 역사류(『금문상서』, 『좌전』, 『국어』, 『전국책』, 『예기』, 『사기』, 『한서』 등 7종), 제자류(『주역』, 『노자』, 『논어』, 『묵자』, 『상군서』, 『손자』, 『장자』, 『맹자』, 『순자』, 『한비자』, 『관자』, 『안자』, 『여씨춘추』, 『논형』 등 14종), 시가류(『시경』, 『초사』 등 2종) 등 23종에 출현하는 8,162자를 대상으로 한 빈도 통계이다.
- 34) 徐莉莉, <東漢實物文字的字集字頻調查>(2008年全球視野下的中國文字研究國際研討會 宣讀論文, 2008.11.1-3, 華東師範大學 中國文字與應用中心), 4-5쪽에 근거했다. 여기서 말하는 동한시기(新莽시기 포함) 실물자료는 석각, 석경, 간독, 동경, 새인, 碑刻, 화폐, 券刻, 瓮書 및 기타 10종의 98,080자에 등장하는 3,560개의 字種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자빈도이다.
- 35) 王平교수가 제공한 DB자료에 근거함. 구체적 자료는 “The Comparison of Seal Characters in Weijin South and North Dynasties Stone Inscriptions and *Shuowen Jiezi*”, *The Study of Chinese Characters*.(華東師範大學 中國文字與應用中心, Vol.10, 2008 출판예정) 참조.

07	其	天(160)	公	子	月	於
08	者	不(160)	而	其	三	大
09	于	一(150)	其	曰	二	州
10	人	曰(149)	人	人	年	人
11	壽	大(147)	有	者	人	不
12	乎	人(143)	于	王	有	王
13	矣	其(143)	晉	有	五	日
14	曰	至(137)	君	於	作	月
15	不	無(137)	於	公	王	三
16	則	此(136)	爲	大	以	中
17	耶	則(135)	侯	則	十	爲
18	焉	下(132)	無	天	君	十
19	爲	行(131)	王	無	石	一
20	一	上(130)	月	下	宜	其
21	乾	二(130)	師	君	孫	有
22	事	三(130)	大	所	日	邑
23	子	可(127)	使	故	四	生
24	年	是(127)	我	國	上	君
25	所	君(125)	齊	是	丞	天
26	王	有(125)	楚	十	竟	公
27	臣	公(125)	如	與	百	而
28	地	名(124)	矣	上	一	史
29	田	事(124)	鄭	夫	天	二
30	中	日(123)	將	可	其	太
31	心	赤(123)	與	三	中	德
32	天	子(123)	可	使	官	世
33	知	于(122)	是	侯	陽	無
34	七	王(120)	夫	臣	爲	道
35	三	地(120)	伯	矣	公	事
36	下	若(120)	國	將	平	陽
37	上	用(120)	何	得	令	故
38	世	左(120)	焉	二	故	平
39	九	矣(119)	諸	言	武	四
40	二	臣(118)	乎	于	下	高
41	五	月(119)	者	事	六	光

42	仙	自(116)	及	一	守	元
43	八	如(114)	伐	行	如	長
44	六	乎(114)	孫	能	建	都
45	十	故(113)	叔	民	方	五
46	山	言(112)	宋	年	侯	文
47	月	者(111)	衛	至	時	侍
48	次	夫(111)	命	中	未	明
49	判	內(110)	十	知	者	刺
50	哉	既(109)	氏	此	章	魏

<表-5> 歷代 文獻 資料의 高頻度 50漢字表

이들 자료에 공동으로 등장하는 빈도 상위 50한자 표는 다음과 같다.

빈도순 서	生生 字譜	新訂 字藪	古代文獻 (經典類)	古代文獻 (綜合類)	東漢 實物資料	魏晉南北 朝石刻
01	之	√	√	√	√	√
02	也	√	√	√		
03	以	√	√	√	√	√
04	兮					
05	而	√	√	√		√
06	於		√	√		√
07	其	√	√	√	√	√
08	者	√	√	√	√	
09	于	√	√	√		
10	人	√	√	√	√	√
11	壽					
12	乎	√	√			
13	矣	√	√	√		
14	曰	√	√	√		
15	不	√	√	√	√	√
16	則	√		√		
17	耶					
18	焉		√			

36) 괄호 속의 숫자는 주조 량을 표시한다.

19	爲		√	√	√	√
20	一	√		√		√
21	乾					
22	事	√		√		√
23	子	√		√	√	√
24	年	√		√	√	√
25	所			√		
26	王	√	√	√	√	√
27	臣	√		√		
28	地	√				
29	田					
30	中			√	√	√
31	心					
32	天	√		√	√	√
33	知			√		
34	七					
35	三	√		√	√	√
36	下	√		√	√	
37	上	√		√	√	
38	世					√
39	九					
40	二	√		√	√	√
41	五				√	√
42	仙					
43	八			√		
44	六				√	
45	十		√	√	√	√
46	山					
47	月	√	√		√	√
48	次					
49	判					
50	哉					
計		26	18	29	20	21
重複律		52%	36%	58%	40%	42%

<表-6> 歷代 文獻 資料의 高頻度 50漢字의 重複 出現 表

이상의 비교를 통해 볼 때 『生生字譜』보다 20년 앞서 간행된 『新訂字藪』의 경우 빈도 상위 50한자 중 중복 출현 글자가 26자(중복률 52%)에 머물러, 유사한 목적의 인쇄용 활자 제작을 위한 것임에도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자이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조선시대 “자보”들이 상당히 독자성을 갖고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左傳』, 『論語』, 『詩經』의 출현 한자 빈도를 조사한 고대문헌 “경전류”의 경우 빈도 상위 50한자 중 중복 출현 글자는 겨우 18자(중복률 36%)에 머물러 비교 대상 자료들 중 가장 낮은 중복률을 보였다. 이는 특히 『좌전』에 자주 등장하는 관직과 관련된 公侯伯이나 晉齊楚鄭宋衛 등 제후국들의 이름, 또 孫叔氏와 같이 제후의 성씨, 또 國이나 伐와 같이 정벌 행위이나 정벌 대상국을 반영한 한자들이 대량으로 출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역사류(『금문상서』 등 7종), 제자류(『주역』 등 14종), 시가류(『시경』 등 2종)의 총 23종에 등장하는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한 고대문헌 “종합류”의 경우 빈도 상위 50한자 중 중복 출현 글자는 29자(중복률 58%)에 이르러 비교 대상 자료들 중 가장 높은 중복률을 보였다.

나머지, 동한시기의 실물자료를 대상으로 한 빈도 분석의 경우 빈도 상위 50한자 중 중복 출현 글자는 20자(중복률 40%), 위진남북조 시기의 석각 실물자료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21자(중복률 42%)에 머물러 매우 낮은 중복률을 보였다. “실물 자료”라는 것이 당시에 쓰였던 문자 현황을 실제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는 하지만 동한 때의 실물 자료와 위진남북조 때의 석각 자료들이 주로 금석문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고대 문헌을 인쇄하기 위한 활자의 기록인 『生生字譜』와는 근원적으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 바람에 중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는 동한 때의 실물자료 중에는 印·長·石·宜·丞·竟·官·陽·武·建·章 등이, 위진남북조 시기의 석

각 자료에는 魏·刺·道·德 등의 글자들도 상위 50한자에 포함되기도 했다.

5. 마치면서

이상에서의 언급처럼 『生生字譜』를 통해 18世紀 朝鮮時代를 전후로 한 韓國에서의 漢字使用 頻度の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자빈도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과 연구가 중국에서도 20세기 이후에 들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의 한자 빈도에 대한 이해를 역추적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朝鮮 때의 漢字 使用頻度라는 것은 一般生活 속의 使用頻도가 아니라 當時에 쓰이던 主要文獻 속의 출현 한자에 대한 漢字頻度の 반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生生字譜』에 기록된 漢字頻도가 어떤 방식에 의해 調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또 이들의 속성 분석을 비롯해, 現代漢字頻도와와의 比較, 韓中日 漢字頻도와의 비교 연구, 그리고 各種 “字譜”들 간의 수록자, 등급현황, 부수분류³⁷⁾ 등의 差別性에 관한 문제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郭小武, <古代漢語極高頻字探索>(『語言研究』2001年 第3期)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國家標準局, 『現代漢語字頻統計表』(北京: 語文

37) 예컨대 『新訂字數』(1772)는 109부수, 『實錄字數』(1677)는 107부수, 『韓構字數』(1792)는 109부수, 『唐鐵字大小』(1792)는 106부수, 『衛夫人鐵木大字數』(1909)는 대자본의 경우 107부수, 소자본의 경우 105부수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出版社, 1992)
-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 漢字處, 『現代漢語常用字字頻統計表』(北京: 語文出版社, 1989)
- 國家語言字源監測與研究中心(編),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2005)(북경: 商務印書館, 2006).
- 國家語言字源監測與研究中心(編), 『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2006)(북경: 商務印書館, 2007)
- 奎章閣圖書館, 『奎章閣圖書解題』(<http://kyujanggak.snu.ac.kr>)
-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探求堂, 1974)
- 金英善, <活字 字譜考>(『文獻情報學論文集』 8집(2002))
- 김홍규, <國語生活의 漢字使用頻度研究>(『새국어생활』 9권 1호, 1999)
- 남윤진, <國語辭典標題語의 漢字頻度>(『새국어생활』 9권 1호, 1999)
- 柳鐸一, 『韓國文獻學研究』(서울: 亞細亞文化社, 1989)
- 民族文化推進會, 『日省錄』(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8)
- 徐莉莉, <東漢實物文字的字集字頻調查>(2008年全球視野下的中國文字研究國際研討會 宣讀論文, 2008.11.1-3, 華東師範大學 中國文字與應用中心)
- 蘇培成, 『二十世紀的現代漢字研究』(書海出版社 2001)
- 蘇培成, 『現代漢字學綱要』(북경대학출판사, 1994)
- 陸儉明(저), 김현철·박정구·최규발(역), 『중국어 어법 연구 방법론』(서울: 차이나 하우스, 2008)
- 尹炳泰, <生生字譜와 生生字>(『남산도서관보』(서울시립남산도서관), 4-5호, 1975)
- 朝鮮王朝實錄CD-ROM刊行委員會, 『(國譯)朝鮮王朝實錄』(서울: 동아일보사·서울시스템 주식회사, 1995)
- 曹炯鎮, 『中韓兩國古活字印刷技術之比較研究』(대북: 學海出版社, 1986)
- 鑄字所, 『生生字譜』(1冊11張本(無註本), 奎章閣所藏本(奎7684-5), 1792)
- 鑄字所, 『生生字譜』(1冊82張本(有註本), 奎章閣所藏本(奎7072, 4533, 7026, 7073, 7074), 1792)

- 千惠鳳, 『韓國木活字本』(서울: 범우사, 1993)
韓國科學技術院, 『KAIST 漢字頻度調査一覽表』(대전: 韓國科學技術院, 198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한글·한자 빈도조사일람표』(서울: 과학기술처, 1980)
한국한문교육학회, 『漢文教育用 基礎漢字1800字 調整에 관한 연구 보고서』(서울: 교육부, 1999)
許成道, 『漢字使用頻度調査』(서울: 사람과 책, 1997)

[國文要約]

본 논문은 朝鮮 正祖 16年(1792)에 刊行된 『生生字譜』를 對象으로 삼아 이에 反映된 當時의 漢字 빈도 狀況과 그것이 漢字 頻度 研究史에서 가지는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形·音·義 외에 漢字의 第4要素라 불리는 “글자의 빈도(字頻)”는 해당 글자의 실제 사용 능력을 나타내 준다는 의미에서 漢字의 字頻研究는 漢字 그 자체는 물론 漢字의 應用研究에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生生字譜』에 수록된 1만4천9백82개의 字種을 대상으로 하여 (1) 한자빈도 연구사에서 가지는 『生生字譜』의 가치, (2) 『生生字譜』에 대한 간단한 소개, (3) 『生生字譜』와 18세기 후반 朝鮮時代의 文獻用 漢字頻度, (4) 고빈도 상위 50한자의 속성 분석과 빈도 비교 등에 논의했다. 특히 (3)에서는 『生生字譜』에 수록된 부수별 자종과 주조 수량, 빈도별 글자례, 收錄字의 累積 計頻度, 收錄字의 頻度 等級 分類 등에 대해 논의했고, (4)에서는 고빈도 상위 50한자를 추출하여 이들의 품사, 선진시대 각종 역대 문헌 자료, 동한시대 실물 자료, 위진남북조 석각문자 등과의 빈도 비교를 통해 『生生字譜』가 가지는 빈도의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生生字譜』에 기록된 주조량이 어떤 방식에 의해 조사되고 63

등급에 의해 분류되었는지, 당시의 다른 “字譜”들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中文提要]

本文從朝鮮正祖十六年(1792)出版的『生生字譜』分析入手, 考察其所反映的當時漢字頻率狀況和其在字頻研究史上的意義.

除了漢字的形音義三個要素之外, 被稱為漢字第四要素的“字頻”實在代表着該字的使用能力. 在這個意義上, 漢字的字頻研究對漢字本身和漢字應用研究都具有重要意義.

本文以『生生字譜』所錄14982個字種作分析對象, 先介紹『生生字譜』, 而後考察了(1)其在漢字字頻研究史上的意義, (2)『生生字譜』所反映的18世紀後半朝鮮時代的文獻用漢字頻率, (3)高頻50漢字的屬性和頻率比較. 尤其在第3節, 提示了『生生字譜』所錄的部首別字種和鑄造量, 頻率別字例, 收錄字的累積計頻率, 收錄字的頻率等級等; 在第4節, 對於高頻50字, 分析了其詞類分布, 和先秦時代各種文獻資料, 東漢時代實物資料, 魏晉南北朝石刻文字所反映的字頻, 以作比較.

주제어: 『生生字譜』, 生生字, 字譜, 漢字, 頻度, 朝鮮, 18世紀

투고일: 2008. 10. 31.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201标准部首与HSK2905汉字认知关系研究*

王 平**

一、对汉字201标准部首的本体研究

1、201标准部首的来历

部首最早叫“部”，首先是由东汉人许慎在《说文解字》（以下简称《说文》）中提出并使用的。许慎根据小篆的形体和意义把含有相同结构成分并且意义有关联的汉字归为一部，每一部的第一个字，也就成了这一部的部首。许慎把9353个汉字归到540个部首之下，并通过《说文》的内容和体例显示了部首的作用和意义。自《说文》540部首产生之后，历代字书在编排汉字时基本都沿用《说文》但又有所改造。改造的主要内容之一，即是对部首数量进行增减。南朝·梁·顾野王编写的中国第一部楷书字典《玉篇》，增部首为542部。明代梅膺祚的《字汇》则将部首省并为214部。其后，清代张玉书、陈廷敬等编纂的《康熙字典》仍沿用《字汇》的214部。1949年以后，中国大陆出版的工具书，在部首的使用方面比较混乱。影响比较大的《新华字典》经历四次调整后于1979年之后统一采用189部首，并沿用至今。部首使用的混乱现象，不仅体现在部首的数量上，还体现在部首的内容上，这就给使用者和学习者带来了很大的不便。1983年，中国文字改革

* 基金项目：中国教育部人文社会科学重点研究基地重大项目《中韩通用汉字研究》

** 庆星大学中文系 教授，华东师范大学 中国文字与应用中心 教授(wpwp22@hotmail.com)

厂瓜黑巾斤金里隶毛矛皮气青氏手彡彳音彳走麻业鹵寸而

(3) 201标准部首最早见于《说文》小篆的有24部

髟儿飞艮骨广丨白耒冫丨口色彡瓦穴牙支、足彡互韭片

统计结果表明, 201部首最早见于甲骨文的有152部; 最早见于金文的有25部; 最早见于《说文》小篆的有24部。如果仅以《说文》小篆为调查对象, 201标准部首有199个与《说文》小篆对应, 只有“彡”和“卓”在《说文》中找不到对应字形。所以, 我们可以说, 201部首绝大多数有着古文字来源。

3、201标准部首的意义归类

汉字的意义比较丰富, 一字多义的现象非常普遍。与其他民族语言文字所不同的是, 汉字的一字多义一般不用形式(如性、数、格之类)的变化来加以区分, 汉字本身的特点增加了认识和记忆汉字的难度。而从另一方面看, 一个汉字的多个意义之间又经常是以逻辑引申关系维系起来的。理解这种逻辑引申关系, 对于提高学生的汉字识记效率和水平是有很大帮助的。对部首进行意义归类, 目的是为了尽快地让学习者掌握汉字之间的逻辑引申关系。根据201部首的字源意义, 我们将其归纳为以下9类。

人体及与人相关类: 身骨首页面目耳自鼻口舌牙齿心手寸足人大儿子女

母父氏尸己尤长老臣鬼示卜立勺比匕又爪井力彡彳止见疒疒^ㄣ欠言音

而髟彡彳冬辵无支彳至走隶鬥文艮赤丨口色乙丨彡彳辛

动物及与动物相关类: 马犬牛龙鸟虍虫羊豕豸龟鼈佳鱼鹿鼠㠯韦皮羽角

采非革肉血毛飞辰贝𠂔

植物及与植物相关类: 艹屮木彳支片竹生

饮食及与饮食相关类: 食禾米麦黍瓜韭麻甘鹵香齐

器物及与器物相关类: 匚几工缶耒白豆斗斤斗皿𠂔刀干弓戈矢车矛舟聿

酉鬲鼎鼓龠方金王(玉)瓦业

服饰及与服饰相关类: 衣巾彡

建筑及与建筑相关类: 冂广门宀户穴里邑高口

天文地理类：日月水火土风雨气夕气山田山厂石谷阜小
 颜色类：白青黄黑
 抽象符号：一十丨八丶亠卓

4、基于造字模式的201标准部首统计

201部首的字源从文字学脱胎而来，因而不可避免地受文字学意义的影响。

造字模式是指象形、指事、会意、形声而言的，根据传统文字学的分类，其中象形、指事为独体字，会意、形声为合体字。根据我们的调查，201个部首有199个从《说文》传承而来。根据许慎的解说，我们对这199个部首的繁体结构作了造字模式的归类统计，其中象形字135个，指事字13个，会意字37个，形声字14个。“亠”和“卓”未见于《说文》，我们把归为记号类。根据以上数据，我们可以看出，201部首中以独体字为多，独体字中又以象形字居多。具体情况可以参考下表。

结构模式	象形	指事	会意	形声	记号
单字	ノ乙儿冂口力几一冂人冂刀 厶厂卜又匕勺彳八干門巾尸 彡山中广馬弓工飛另女宀弋 卅幺子小父口己土彳大凵口 瓜毛片木戶斤火戈氏車牙心 文瓦水歹犬手牛月方日欠止 气貝禾瓜皿矢鳥屮疒田毋疋 矛目臣𠂔羊舟衣夂肉米竹白 羽糸齊缶自虎而耳彡角采酉 龜鹵豆斗身豕豎卓非佳魚雨 首革面高鬲鹿鼎鼠𠂔白辰虫 耒王	夕寸 丨十 血一 乚、 甘音 立韭 至	井辵比見 無父支示 生業艮老 頁色赤走 邑谷里足 辛金青隶 骨鬼影麻 黃黑鼓龠 舌香鬥石 鼻	齒風 龍麥 皮支 食爰 黍韋 穴言 尤聿 長	亠卓
个数	135	13	37	14	2

以上归类,基本是以《说文》的分析为依据的。例如,“长”归形声。《说文》:“长,久远也。从兀从匕。兀者,高远意也。久则变化。亾声。”《说文》中的“省声”字我们将其归入“形声”。例如,《说文》:“龙,鳞虫之长。能幽,能明,能细,能巨,能短,能长;春分而登天,秋分而潜渊。从肉,飞之形,童省声。”《说文》:“皮,剥取兽革者谓之皮。从又,为省声。”《说文》:“黍,禾属而黏者也。以大暑而种,故谓之黍。从禾,雨省声。”《说文》中的“亦声”字,我们将其归入“会意”。《说文》:“黄,地之色也。从田从炗,炗亦声。”《说文》:“鼻,引气自畀也。从自、畀。”按,从畀(bi),“畀”又兼作声符。“自”是“鼻”的本字,作“自己”用后,另造了“鼻”字。“畀”是给予、付与的意思。合起来表示一呼一吸,自相给予。

5、基于今文字的201标准部首研究

汉字进入今文字阶段,由于形体变异很大,构字理据变得模糊甚至丧失,许慎的造字分析已经不能适应今文字。在古文字阶段是整字的某些汉字,因形体演变,变为不能独立成字的抽象符号。

(1) 成字部首与非成字部首

A. 成字部首

成字部首是指那些在今文字阶段仍然可以单独成字的部首。201部首中有164个可以单独成字的部首:一又儿十厂力刀八儿门干小己飞工广山女大马幺口子父片牛户火斤见气毛文支月比长心日水手方风车毋目生立示白业而肉色老页羊自米齐衣言辛角身足里走非鱼雨青食音面首香高黄麻黑鼻鸟卜木巾金鼓矛止至竹羽耳舌革骨石瓜人龙鬼血土牙王欠豆斗无皮寸虫田麦瓦隶氏弓甘谷乙赤齿鹿贝歹尸臣辰禾龟穴舟鼠夕爪犬戈皿韭鬲鹵龟龠匕鼎缶阜艮鬥耒隹矢豕豸黍韦弋邑酉聿彡白。

B. 非成字部首

	甲	乙	丙	丁
部首	一又儿十厂力刀八几门干 小己飞工广山女大马幺口 子父片牛户火斤见气毛文 支月比长心日水手方风车 母目生立示白业而肉色老 页羊自米齐衣言辛角身足 里走非鱼雨青食音面首香 高黄麻黑	鼻鸟卜木巾金 鼓矛止至竹羽 耳舌革骨石瓜 人龙鬼血土牙 王欠豆斗无皮 寸虫田麦	瓦隶氏弓 甘谷乙赤 齿	鹿贝歹 尸臣辰 禾龟穴 舟鼠夕 爪犬戈
数量	81	34	9	15

201个部首中成字且属于等级大纲的有139个，占总部首（201个）的69.15%，占等级字（2905个）的4.78%。201部首在HSK2905汉字中没有字位有62个。

其中25个是成字部首：皿、韭、鬲、鹵、𪔭、龠、匕、鼎、缶、阜、艮、鬥、耒、隹、矢、豕、彡、黍、韦、弋、邑、酉、聿、彡、白。37个是非成字部首：丿、丨、丶、冫、冂、冃、冂、厶、宀、冫、彡、勹、勹、勹、彡、廿、冫、中、井、斗、夕、彡、口、宀、尤、支、疒、𠂇、疒、疒、疒、疒、疒、疒、疒、采、卓、髟、彡。

2、201标准部首在HSK2905汉字中的构字频率

部首的构字频率是指一个部首的使用频率，也就是一个部首的使用次数。在一定数量的文字范围里，被重复使用次数最多的部首，也就是构字频率最高的部首。部首构字频率的统计对于汉字识字教学具有重要意义。比如：HSK2905汉字是否适应与全世界不同语种的学习者？验证效果如何？外国人到底要学习多少字？学习哪些字？按照什么顺序学习这些字？等等，如果得到部首构字频率统计的结果，我们就能掌握解决这些问题的关键。

对201部首构字频率的统计工作艰巨并繁琐。因为某些汉字的归部存在着

一字归属多部首的现象。以第五版《现代汉语词典》为例，其中“差”在“羊、工”中都可以找到；“真”在“十、八”中都可以找到；“唐”在“广、口”中都可以找到；“难”在“又、隹”中都可以找到；“膏”则在“宀、高、月”中都可以找到。《标准汉语字典》中也存在类似情况。所以存在以上问题，是因为目前对部首的定位偏于便于汉字的查检。基于上述情况，我们选择了曹先擢、苏培成主编的《新华多功能字典》（商务印书馆，2005年版），并以此为标准。该字典虽然在“部首检字表”中也存在一字归属多部首的情况，但由于编者在正文中附录了部首和3500个常用字的关系表格，这样就使汉字的归部情况一目了然，并为我们对201部首的构字频率统计提供了标准。另外，该字典在“部首检字表”中还有“部首检字法说明”，其中对取部的一些原则进行了说明，我们依这一原则，将HSK2905汉字中不属于3500常用字的35个字进行了归类：哇（口部）嘛（口部）嗯（口部）桔（木部）埔（土部）亢（宀部）讠（言部）踮（足部）谗（言部）蹯（言部）磋（石部）珑（王部）髦（髟部）馈（食部）瞩（目部）沕（水部）镁（金部）淇（水部）榷（木部）饪（食部）瞥（目部）惟（心部）铀（金部）酶（酉部）咋（口部）瑚（玉部）臼（日部）拽（手部）甬（一部）阂（门部）愣（心部）噢（口部）哦（口部）墟（土部）喽（口部）。根据201部首构字频率的高低，我们编排了《201部首构字频率表》：

部首	字频
手	175
水	150
人	135
口	117
木	111
★艹	86
心	73
言	72
★彡(糸)	65
土	60
★辶	56
月	56
金	51
日	49
★宀	47
一	44
火	43
女	41
刀	36
禾	36
竹	34
阜	33
八	32
石	30
贝	29
★勹	28
广	28

足	28
王	26
犬	26
★ノ	25
★疒	25
★彳	24
目	24
虫	24
尸	22
小	21
山	21
页	21
又	19
马	19
食	19
厂	18
门	18
车	18
米	18
★彳	17
大	17
衣	17
乙	16
十	16
穴	16
★丨	15
力	15
戈	15

★支	14
雨	14
巾	13
田	13
耳	13
酉	13
邑	13
★口	12
羊	12
★厶	11
弓	11
示	11
舟	11
走	11
工	10
★丶	9
★勹	9
★夕	9
子	9
立	9
卜	8
夕	8
歹	8
欠	8
皿	8
辛	8
★冂	7

几	7
★冂	7
止	7
牛	7
斤	7
方	7
户	7
★𠃉	7
白	7
舌	7
★匸	6
★冫	6
★口	6
★彡	6
己	6
爪	6
爻	6
隹	6
革	6
★彡	5
气	5
父	5
鸟	5
★𠃉	5
羽	5
身	5
音	5
儿	4

匕	4
★ㄩ	4
牙	4
比	4
见	4
龙	4
矢	4
★虍	4
非	4
鱼	4
干	3
寸	3
★升	3
弋	3
瓦	3
片	3
毋	3
业	3
★疋	3
皮	3
老	3
而	3
至	3
缶	3
自	3
艮	3
辰	3

禾	3
角	3
鬼	3
高	3
黑	3
★廴	2
★尢	2
彡	2
无	2
支	2
毛	2
长	2
风	2
文	2
斗	2
甘	2
★𠃉	2
耒	2
臣	2
血	2
色	2
齐	2
赤	2
豆	2
里	2
谷	2
青	2

齿	2
飞	1
韦	1
氏	1
生	1
瓜	1
矛	1
肉	1
白	1
聿	1
麦	1
彡	1
龟	1
★卓	1
隶	1
面	1
骨	1

香	1
首	1
彡	1
鬲	1
黄	1
麻	1
鹿	1
鼓	1
鼠	1
鼻	1
★中	0
★彡	0
豕	0
卤	0
龟	0
韭	0
鬥	0
鼎	0
黍	0
龠	0

(加“★”的是非成字部首。)

从上表的数据中我们可看出构字频率居于前10位的部首有：手、水、人、口、木、艹、心、言、彡、土。构字量为零的10个部首是：中、彡、豕、卤、龟、韭、鬥、鼎、黍、龠（详细数据请参见附录二：表1《201部首在HSK2905汉字中的构字情况》）。根据统计结果，我们认为完全可以把前100个部首作为汉字学习最基础的内容。只要学生真正掌握了这些部首，就能扩大汉字识记量，进而为阅读和写作储备词汇。汉字认知研究已经表明，要提高识字教学效益，除了明确字种和字量外，还必须科学安排学习

顺序。字频统计是字种、字量和字序的科学统一。不按字频高低顺序进行学习,字种必然混乱,字量必然增加,识字教学就无法摆脱“无序”带来的混乱和低效。所以,按照字频高低进行识字教学是保证识字教学质量和效益的唯一选择。只有先学高频字后学低频字,才能做到读识同步,音形义兼顾,语文能力全面协调发展。²⁾

3、201标准部首在HSK2905汉字中的位置

部首作为构件组成汉字时相当活跃,其在汉字中的位置也非常灵活。我们对HSK2905汉字做了统计调查,201部首在HSK2905汉字中的位置情况主要有8种:居左、居右、居上、居下、半包围、全包围、被包围、其他类。其中部首位置居左、右、上、下是针对左右结构、上下结构、左中右结构、上中下结构而言的,是比较宽泛的。部首位置半包围、被包围是针对那些存在包围关系的字而言的,例如:辶、走、广、厂、门、尸、穴等一些部首所辖的字多是半包围;部首在半包围结构中处于被包围位置的,则属于被包围,例如:“在”字的部首“土”,“布”字的部首“巾”,“基”字的部首“土”,“春”字的部首“日”等。部首位置全包围是针对“口”、“又”、“工”等部首的,例如“围”、“叉”、“巫”等字。其他类主要指:(1)部首居于汉字的一角。例如:辉(小部)、够(夕部)、舒(人部)、器(口部)等;(2)部首居于汉字之中的。例如:中(丨部)、丰(丨部)、兆(儿部)等。(3)很难描写出部首的确切位置的。例如:内(冂部)、也(乙部)、专(一部)、井(一部)、术(木部)等。具体统计结果如下:

部首位置居左: 共1505个字,占等级字的51.81%
 部首位置居右: 共148个字,占等级字的5.09%
 部首位置居上: 共450个字,占等级字的15.49%
 部首位置居下: 共203个字,占等级字的6.99%

2) 沈烈敏、朱晓平《汉字识别中笔画数与字频效应的研究》,《心理科学》,1994年4期。

部首位置半包围：共314个字，占等级字的10.81%

部首位置全包围：共15个字，占等级字的0.52%

部首位置被包围：共44个字，占等级字的1.51%

部首位置其他类：共88个字，占等级字的3.03%

201位置	甲		乙		丙		丁	
	字数	比例	字数	比例	字数	比例	字数	比例
左	343	11.81%	415	14.29%	346	11.91%	401	13.80%
右	41	1.41%	42	1.45%	31	1.07%	34	1.17%
上	128	4.41%	119	4.10%	86	2.96%	117	4.03%
下	58	2.00%	65	2.24%	39	1.34%	41	1.41%
半包围	84	2.89%	101	3.48%	61	2.10%	68	2.34%
全包围	11	0.38%	3	0.10%	0	0.00%	2	0.07%
被包围	19	0.65%	5	0.17%	14	0.48%	6	0.21%
其他	35	1.20%	21	0.72%	15	0.52%	17	0.59%

从以上统计我们可以看出，在HSK2905汉字中，部首位置居左的最多，部首位置居上的次之（具体情况请参看附录二：表4《201部首位置与功能调查》）。另外，根据笔者的初步研究，部首在构字时所处的位置和部首的构字频率、笔画、意义等都有关系。比如201部首中的前10个高频构字部首：手、水、人、口、木、艹、心、言、彡、土，位置多变。也就是说，它们在汉字中的位置相对灵活。例如“手”，有上有下（看、拿），有左有右（拜、打、掰）。由于部首位置的多变，部首在构字过程中往往发生形体的变化，以与汉字整体相适应。例如“手”的变体有：“扌”、“扌”等。“水”的变体有“氵”、“氷”等。而构字频率越低，部首在汉字中的位置也就越固定。例如201部首中的最后10个低频率构字部首：首、髟、鬣、黄、麻、鹿、鼓、鼠、鼻，其位置比较固定，因而部首也基本没有变体。另外，一些常用部首

的位置也有一定的規律。例如：人(亻)、木、心(忄)、糸(纟)、手(扌)等，示義時一般在漢字的左邊，刀(刂)、鳥、欠等，示義時一般在漢字的右邊。宀、竹、雨等，示義時一般在漢字的上面，火(灺)、皿等，示義時一般在漢字的下面。對於部首位置與部首構字頻率、筆畫、意義等之間的關係，作者擬另做研究。

4、201標準部首在HSK2905漢字中的呈現方式

(1) 部首單獨成字例

甲級：一又儿十厂力刀八儿门干小己飞工广山女大马么口子父片牛户火斤见气毛文支月比长心日水手方风车母目生立示白业而肉色老页羊自米齐衣言辛角身足里走非鱼雨青食音面首香高黄麻黑

乙級：鼻鸟卜木巾金鼓矛止至竹羽耳舌革骨石瓜人龙鬼血土牙王欠豆斗无皮寸虫田麦

丙級：瓦隶氏弓甘谷乙赤齿

丁級：鹿贝歹尸臣辰禾龟穴舟鼠夕爪犬戈

(2) 部首和筆畫的組合例

甲級：太本世四上下七

乙級：未又

丙級：末旦朱

丁級：刃丹亦

(3) 部首加表意符號組合為會意字例

甲級：休件安好男初社信煩

乙級：古闕灾妻采拜臭盜森鮮

丙級：幼尘劣妥牢苗牧涉娶嬰

丁級：仁吉伐戒孝炎躬晶岳

(4) 部首加聲符組合為形聲字例

甲級：花苔葶英草药菜晨蓝零筒需蕉篇整籃

乙級：著萝菌崇符落暑景雾笠管蔬箱箭露筷

丙级：芽苍早岗茅岩荐荒晃菠笼筐筒蓬蒙蒸

丁级：芒芝芹芬芳茄茎

5、201标准部首在HSK2905汉字中的功能调查

(1) 示义功能

部首的示义功能表现在汉字的形声字和会意字中。比如，“扒”“拿”“看”等字中的“扌（手）”都具有提示字义的作用。根据我们的调查，201中的成字部首可以分为两类：与字源义有关；与字源义无关。201部首绝大多数与字源义有关，在构字过程中具有提示汉字意义的功能。基本情况如下表所示（具体情况请参见附录二：表2《201部首在HSK表音字中的示义功能调查》）。

分类	甲	乙	丙	丁
与字源义有关	儿厂力刀门飞工广山女马 口子父片牛户火斤见气毛 文心白日水手风车立示肉 色老页羊自米言身足走鱼 雨食面首香麻黑音	人寸土巾木止 欠斗瓜龙矛田 皮石鸟竹至舌 虫羽耳血麦豆 金骨鬼革鼓鼻	弓瓦谷 赤齿	夕尸爪犬 歹贝穴禾 舟龟鹿鼠
与字源义无关	一又十八几干小己大么支 月比长方母生业而齐辛角 里非青高黄	卜无王牙	乙氏甘 隶	臣辰

(2) 示音功能

部首的示音功能表现在汉字的形声字中。根据我们的调查，“工”用作表音功能的有13个字；“方”用作表音功能的有11个字；“隹”、“干”用作表音功能的各有10个字；“艮”、“羊”、“皮”用作表音功能的各有9个字，“白”、“非”用作表音功能的各有8个字；“青”用作表音功能的有7个字，“卜”、“牙”、“户”、“比”用作表音功能的各有6个字；“龙”、“马”、“殳”、“生”、“舌”、“王”、“谷”用作表音功能的各有5个字，“土”、“十”、“己”、“儿”、

“门”、“子”、“支”、“里”、“辰”、“止”、“高”、“麻”、“立”、“声”用作表音功能的各有4个字；“八”、“刀”、“韦”、“见”、“长”、“文”、“斗”、“毋”、“至”、“齐”、“衣”、“聿”、“鬼”、“斤”、“广”用作表音功能的各有3个字；“匕”、“足”、“贝”“厂”、“寸”、“大”、“力”、“弋”、“广”、“𠂔”、“父”、“月”、“氏”、“欠”、“矢”、“瓜”、“自”、“米”、“豆”、“骨”、“斗”、“毛”用作表音功能的各有2个字；“口”、“人”、“勺”、“彳”、“亼”、“弓”、“无”、“气”、“爪”、“火”、“甘”、“石”、“皿”、“鸟”、“虫”、“酉”、“角”、“鱼”、“金”、“隶”、“黄”、“又”、“彡”、“禾”、“而”、“黑”用作表音功能的各有1个字。

以上归类和统计，有以下情况需要说明。一是部首形体合并。像“己”，实际包括变体的“巳”和“巳”。二是，如果以现代发音为依据，有些字的表音功能已经丧失。三是，有些部首只能按照《说文》的解说归类。例如，“有”字归入“又”中等（该部分的具体分类情况，请参见附录二：表3《201部首在HSK表音字中的示音功能调查》）。

6、201标准部首的功能与位置关系调查

部首在构字过程中所具有的示义示音等功能是否与部首所处的位置有关系？针对这一问题我们以HSK2905汉字为范围也做了调查，调查结果如下。

位置	等级	表音		表义		记号	
		字数	比例	字数	比例	字数	比例
左	甲	2	0.07%	315	10.84%	20	0.69%
	乙	6	0.21%	377	12.98%	32	1.10%
	丙	3	0.10%	323	11.12%	21	0.72%
	丁	11	0.38%	371	12.77%	19	0.65%
右	甲	0	0.00%	33	1.14%	8	0.28%

	乙	0	0.00%	41	1.41%	1	0.03%
	丙	0	0.00%	24	0.83%	7	0.24%
	丁	1	0.03%	30	1.03%	3	0.10%
上	甲	2	0.07%	46	1.58%	80	2.75%
	乙	8	0.28%	48	1.65%	63	2.17%
	丙	4	0.14%	46	1.58%	36	1.24%
	丁	9	0.31%	78	2.69%	30	1.03%
下	甲	3	0.10%	36	1.24%	18	0.62%
	乙	1	0.03%	51	1.76%	13	0.45%
	丙	1	0.03%	30	1.03%	8	0.28%
	丁	1	0.03%	31	1.07%	9	0.31%
半包围	甲	2	0.07%	59	2.03%	23	0.79%
	乙	4	0.14%	76	2.62%	21	0.72%
	丙	3	0.10%	49	1.69%	9	0.31%
	丁	2	0.07%	50	1.72%	16	0.55%
全包围	甲	0	0.00%	9	0.31%	1	0.03%
	乙	0	0.00%	3	0.10%	0	0.00%
	丙	0	0.00%	0	0.00%	0	0.00%
	丁	0	0.00%	2	0.07%	0	0.00%
被包围	甲	1	0.03%	10	0.34%	8	0.28%
	乙	0	0.00%	5	0.17%	0	0.00%
	丙	0	0.00%	10	0.34%	4	0.14%
	丁	0	0.00%	5	0.17%	1	0.03%
其他	甲	0	0.00%	4	0.14%	31	1.07%
	乙	0	0.00%	3	0.10%	18	0.62%
	丙	0	0.00%	3	0.10%	12	0.41%
	丁	0	0.00%	2	0.07%	15	0.52%

可见,部首的功能与部首所处的位置是有关系的。处于汉字左边的部首,以示义功能为主,处于半包围、上、下位置的部首,示义功能也处于相对强势地位,而处于汉字右边的部首,则以示音功能为主,有时兼有示义功能(详细数据请参见附录二:表4《201部首位置与其功能关系调查》)。

三、201标准部首的学习建议

与字母语言相比较,汉字具有自身的特点。而这些特点在汉字部首中又体现得特别突出。部首作为汉字的记忆组块(memory chunk),在学习者的心理词典中是不同汉字之间的联结点。所以,要提高汉字学习的速度和质量,应该充分发挥汉字部首的作用。根据认知心理学的理论,人们在对信息进行认知处理时总是遵循先易后难的认知策略,即人们更愿意处理简单、容易加工的信息,有加工难度的复杂信息在认知处理中常常放在易于加工的信息后面。这种思路其实正是人们经常运用的认知处理策略。从部首开始学习汉字,正体现了这种先易后难的认知策略。

1、汉字部首的认知特点

从认知角度看,汉字有以下特点:

- (1) 汉字既表意又表音,而形声字在汉字中的比例高达90%,所以汉字也被称为意音文字。
- (2) 汉字多由部首组合而成,通过变换部首或部首的位置,能组成新的汉字。
- (3) 部首组合作为一个整体反复认知的经验积累,使它们在被识别时表现出一种整体性。

2、学习汉字部首“四步法”

(1) 部首字源—视觉导入 (形象记忆)

汉字认知的复杂性与特殊性使得汉字与拼音文字在认知处理流程上存在着很大的不同。汉字认知一般是由图像识别开始,以图像的感觉与知觉为基础。感觉器官受文字图像的刺激,由内神经传到大脑进行高级分析,形成感知表象;感知表象与主观意义加工的机制相连接,形成一条由形象识别直接通向意义加工的通道。201部首绝大多数有着古文字来源,古文字的最大特征即象形。201部首中有一半以上是象形字,在汉字教学中我们可以充分利用这些部首的象形特征,结合古文字形体,让学习者熟悉部首的源流,进而更好地理解汉字,记住汉字的形音义。

(2) 部首意义—意象氛围 (联想记忆)

在汉字系统内部,部首是首要的形、义类别领属。部首不仅是汉字的检索标识,而且往往又是系列汉字共同的表意符号。根据部首的这种性质,在汉字学习中应该注重部首的分类与联想记忆,注重部首系联统辖作用的记忆,注重部首区别意义的记忆。这样,可以在举一反三中系统地掌握汉字。

(3) 意象素复位—组合创造 (行动记忆)

部首是组成汉字的基础,我们在认知一个汉字时,常常不是一笔一笔地去记,而是对汉字整体认知后记忆。所以掌握部首与汉字的关系是学习汉字的捷径。部首与汉字的关系大致有如下几种情况:部首与汉字对等,即一个部件是一个汉字;部首加笔画组成一个汉字;相同的部首组成一个汉字;不同的部首组成一个汉字。

如果把汉字的部首记住,再以此推广:或添加笔画扩展认字;或重复部首扩展认字;或异部首组合扩展认字。这不仅能提高汉字认知的速度,而且对于理解汉字的字义、正确使用汉字也是很有帮助的。

(4) 左形右声—循规蹈矩 (逻辑记忆)

形声字是把已有的字素当作表义符号和表音符号组成的,形符提示该字的意义类属,由声符提示该字的读音,有时兼有提示汉字意义的作用。现代汉字中,形声字占90%以上,如此众多的形声字,都是由数量有限的形旁和声旁组合而成的。形旁、声旁互相配合,就构成了汉字的形声字系统。

附录一：相关表格

表1：《201部首在HSK2905汉字中的构字情况》

笔画	部首	字频	对应的四个等级字			
			甲	乙	丙	丁
1	一	44	21	10	7	6
			东平下不五夫万才 再世求更束两来七 表事二一三	丽与井专夹 严丝于丈歪	亏丙丛丁甬 甚丑	束囊屯奉 枣奏
	丨	15	6	2	5	2
			师史丰中且电	由临	串甲申曲暢	帅凸
	ノ	25	6	8	5	6
			久重年乐向九	乏乎乒乓及 升失册	乖丸卵垂丘	乔乌秉州 丹粤
	丶	9	7			2
			为之义举半必永			州叛
	乙	16	6	4	2	4
			买书习也了民	乡承巴司	予乙	乳乞刁乃
2	十	16	8	1	5	2
			南卖直午千十真克	古	华协博索丧	卑兢
	厂	18	6	9	1	2
			历厂原反愿后	厚厘厠厌压 厉厅厨盾	厢	雁厦
	匚	6	1	3		2
			医	巨匹区		匠匪
	卜	8	4	1		3
			卡点上占	卜		贞卓卢
	冂	7	4	2		1
			周同用内	网甩		冈
	八	31	12	8	8	4
			前八公单共矣兴弟 其典总分	并兵具盆剪 普曾尊	兰兼兽兑翁 煎奠贫	冀慈岔舆
	人	135	44	45	24	22
			健住什便化做低个 从你以位博使例俩 亿介全会借停信倒 任休像今舒件假伟	偏偷俱值侵 俗促保修倡 估仰仿伙似 企仍伞伤伸	偶债倚倾俯 仗倦仓侮仇 偿倘伴伊僚 佩侨侧僵俄	侣仆仁俐 仙伪伏伐 侈僻侍佣 伶俘储禽

		候他体倍们何代但 作拿念合	伯佛余供依 众仪傍催傻 人入仅份付 价仔令传伍 优傲命合盒	伺佳俏愈	俭侄侦俊 侯贪
勹	9	2	1	4	2
		包旬	勺	匆勾匀旬	勿匈
儿	4	先儿			兆兜
匕	4	北	疑	匙	旨
几	7	1	1	2	3
		几	凡朵	凭	凯凤凰
亠	28	10	7	8	3
		亮离商夜交六市旁 赢就	毫京享率充 亩商	亭亡哀哀裹 豪氓衷	亢亦烹
冫	17	7	4	3	3
		冷况凉决次净准	减冰冻冲	冶湊凝	凄凌冯
冫	6	农写	冠军	冤	罕
凵	6	2	1	1	2
		出画	击	凶	函凹
冂	7		5	2	
			卷即却印卫	巷卸	
刀	36	9	13	5	9
		剩刀别刚刻切急负 危	免副割制 争判免刷创 刺象召	剖剥删削豫	剑剃劈刨 刹刃刑券 赖
力	15	6	4	3	2
		力办加动助努	势励劲勇	勤勃勉	勘劫
又	19	9	6	2	2
		变发双友又难对观 欢	叔戏又叠艰 劝	圣叙	桑邓
厶	11	5	3		3
		参云么能丢	县允台		叁怠叁
廴	2	建	延		
3	干	3		刊	
	工	10	2	6	2
		左工	巩巧功贡攻		巫汞

			项		
士	60	16	17	13	14
		块增墙坚声幸去坐 喜地场在坏志基城	土壺堵堆塔 填塑境壁埋 土圾址均型 垃坡	坑垮域坟培 堤坝壤坦墟 垫塌壳	袁埃塘堪 嘉堡寺坛 吉壹堕坏 坊埠
++	86	13	13	17	43
		菜草蓝茶蕉苦英药 艺节花萃芳	萝薯获菌范 落藏薄蔬营 惹荣慕	苗蒸苍荒蓬 萄芽存茅蔑 菠若葡蒙葛 慕幕	薯葱艾蔽 芭荔莲姑 薪蕃蒂葵 葫董葬萍 菊萌荷莫 蒜芦荡茫 茧茎加茂 苏蔗芳芬 芹芝芒藤 藨蕴蕾蘑 蒋蔭暮
寸	3	封	寸	寿	
开	3	开	弃		弊
大	17	4	7	4	2
		太大天头	奖央奇奋套 夺牵	奥奔夸奈	爽奢
尤	2	尤元			
弋	3		式武		貳
小	21	7	5	6	3
		当少小省堂掌常	尖党尝辉光	尚尔耀尘劣 赏	肖雀裳
口	117	37	27	23	30
		嗽唱咖呐呢噁喊嘴 啡只器啦喂喝嘛响 虽告吧咱吹听哥呀 啊哈吗右口员可吃 号啤叫哪咳	另呆否吸吊 吓吨喷噪嘿 哲兄哎叶哇 吐哼呼咐味 品哩咬咽吵 嚷吩	吴吼呲叭吻 哆吞鸣叹哟 咙喇唤唉喽 哦噢呵嗦喘 喉嘱哨	吕嚼唯吁 呕哑吟啄 嘲咏君鸣 呈叨叮叮 咋唾噪嗅 喧喻哨唠 啸咨唆哄 啥呻

口	12	10	2		
		图国困围园回因团四圆	固圈		
山	21	2	3	7	9
		岁山	崇岛岸	岩峰崖崱岗 屿峡	嵌幽峻崩 岭岂崔岳 炭
巾	13	5	3	3	2
		帽布带希帮	巾幅币	帜帐幢	帖帆
彳	24	5	6	6	7
		得行很街往	律待德彻征 微	径彼御循徒 衡	衙徐俳徽 役徊衍
彡	6	3	1		2
		须彩影	形		彰彭
夕	8	5	1	1	1
		多外舞够名	梦	囟	夕
夂	9	冬处夏复务各条备			急
丩	4	将	状	壮	妆
广	28	9	8	5	6
		店庭座府广康床度 应	序底庄席庆 庙腐磨	廓廊废库摩	唐庸廉庞 鹰魔
门	18	4	7	2	5
		门间闻问	闪闾闭困闹 阅阔	闾闷	闾闾闾 闾
宀	47	16	11	17	3
		赛富寄寒实宴宿客 室字安完宜定家它	灾蜜宽宾宣 察守宝密官 害	宋宫宵寤塞 寓寞寡宁宇 宅宏牢宗审 宙寂	宰寇寨
辶	56	18	25	7	6
		退遇遍通送适道运 边过进远还连近迎 这迟	逗迷迹逃追 速逐造透途 洗递逼遭遵 邀避逛逢迫 迅迈达述违	遗逝遯遮逮 遥返	迳逆遣迁 巡辽
彳	5	录互	寻灵	归	
尸	22	4	6	2	10

			屋层局展	尺尽尾属居 屈	屁屈	尸屑屑屨 屨屨屨尼 尿尿
	己	6	己已改导	异		忌
	弓	11	1	5	3	2
			张	引强弹弱弯	弓粥疆	弦弥
	子	9	3	2	3	1
			学子孩	存孔	孤孙孟	孕
	中					
	女	41	12	7	14	8
			姑娘妹女姐姓妈她 好始如奶	妻姨姻婚嫂 妙妇	嫁奴姿娶娶 嫩媳妨嫌婶 婆娱姥娃	姆娇媒嫉 妖妄奸妒
	飞	1	飞			
	马	19	4	3	8	4
			驾马骑验	骗骄骂	驼驻驶驴骆 骤骚驮	驳驱驰骡
	么	2			幻幼	
	ㄩ					
4	王	25	6	7	2	10
			玩望理球班主	玻王珠玉璃 弄环	珍琴	珊瑚瑞玖 玲琢瑰瑚 珑玫
	无	2		无既		
	韦	1				韌
	木	111	23	31	26	31
			棵桔椅检查校相桥 杯桌根样板极树杂 橘术机本概楼村	标染柴杀格 株未柿木架 朴梨李棉林 模榜植析案 梁森桶梯松 杆枪构械材 渠	枝末朽桩杈 枉横棍椒柜 棋棒梳梅枕 棚柏柔核桃 枯柄档柳柱 朱	枚桅橡梧 棱棺橢梗 棕梢桐桀 槽椽櫻槐 榆榴榨浆 框桂杏柠 杜杠杨杰 栏栋樅
支	2	支	翅			
犬	26	2	9	9	6	
		猪哭	狮独狼猫犯	猾狡狃狠猎	猖獗狐犬	

			狗猴献猜	猛猿犹狂	狹狸
歹	8	1	2	3	2
		死	殊列	残歼殖	歹殃
车	17	6	3	2	6
		较辅辆轻车输	软转轮	轨辑	轿轰轧辙 辖辐斩
牙	3		牙		鸦雅
戈	15	5	2	6	2
		或我成戴划	戚战	截威威栽载 裁	戒戈
比	4	比	毕		毙皆
瓦	3	瓶		瓦瓷	
止	7	2	4		1
		步正些	此比肯		歧
支	14	8	3	1	2
		教敢散数故整收政	敬救效	敏	敞敷
日	50	17	11	8	14
		日晨晚易晴明星昨 时旧暖是冒春者早 最	晒晓映显替 暂暑量景暗 昏	智旦早晰晃 暴昆晕	晤晾晶昼 晋昧响旺 昂昌日旷 曹
贝	29	2	13	4	10
		责贵	资贴质贸费 贺购赔贯货 赞则败质	赚贱财赠	贷贼赔赌 贝贤贩贬 赂赋
水	150	29	36	36	49
		水汉江汤汽没浅法 河注泳治洗活派济 酒消海流清深湖渴 游满漂演澡	汗污池沙泛 沉汨油沿泥 泼洒洞测洋 浓涂浮浪涨 添渐混液淡 港湿温滑渡 漠源滚滴漏 激	灌浆漫沟溶 渔淹涉漆淋 洁浴润浸汇 涌泌溅淆潮 溉洪泽浇波 沸滩渣泡滥 浑溜沾沈浙 黎	汁汪沃沫 泄泊泻浊 洽洲津泰 涛涝浩淘 渗湾滋滤 滔溪滨潜 汛沛汰沥 泓泣沼涂 涕淫淀滯 渺溃潭潦

					澄瀑沕淇 沪浦淮澳 潘
见	4	3 见觉览	1 规		
牛	7	3 牛特物	2 牺牲	1 牧	1 犁
手	175	33 摆撒拉持抱播操擦 拍抽搞抬报挂提挺 接推掉排拾指挤换 握把技找批物手打 看	68 扩掀授掏括 执控据搭扫 挡插探扛捕 挥按挖捉捆 拼托捡扣扑 挨捧描挑扎 搁损护扮抢 撞投拥抗扶 拆捧拖拐扭 担捺拔抖抄 援扰拒择摸 披撒招撕摇 措折抓扔摘 拦捞拜	33 扒拔摊摧撑 撤抵撮押仰 拢抹拧抛挫 扯搓攀捷捏 揉挽挣拳掩 振拴掠搂揭 搅揪搜	41 捶拵招挪 拽掷揽擅 撵撵揆捣 拇撵碾攢 拓搏携撇 掘抠扳挟 拟攀拄拙 拱抡捍捌 捐掂捻拌 抚拷拘挠 捅
气	5	1 气		2 氛氧	2 氮氢
毛	2	毛	毯		
长	2	长			肆
片	3	片	版牌		
斤	7	3 所斤新	1 断	3 斥斯欣	
爪	6	2 爬爰	2 受采	1 妥	1 爪
父	5	父爸	爷	爹	斧
月	56	12 服朋月期脱脚脏胜 脸腿有育	21 朗脑胆肥胖 脉脆肺胸膈 膊背肠肚脖 肝脾膀腰胡	10 膨腔肋胞股 胀肿胶腾肌	13 腊腮臂膀 肪膝脊肾 腥脂肢腹 膜

			肤		
氏	3	民		氏氓	
欠	8	1	5	1	1
		歌	欠歉歇欺款	欧	欲
风	2	风	飘		
夂	6	1		3	2
		段		毅殿毁	殴股
文	2	文		刘	
方	7	4	2	1	
		方族旅放	旗施	旋	
火	43	9	13	13	8
		照烦烧热然灯炼火熟	煮烂烈烤炮熊烫燥灰煤灭燃烟	焰灸烁燕焊熬炉爆灿烛炒炸煌	熔熄烘炎熏灶炕炊
斗	2		斗斜		
户	7	2	4	1	
		房户	启扇扁肩	雇	
心	73	16	20	20	17
		您忙怎情快怕态忘忽愉想慢懂感心惯	忆忍性怜怪恢恨怒恐恋悟悄悔悠惊愤慌愁慰懒	惜慧愚怙憾愣惨惕慎惭愧患悬悦怨恶忠恰怀怖	恒慨惰恁悼惠恭惧恩惑惋惟愆慷忧怯恼
母	3	母每		毒	
5	示	11	7	1	2
		社礼示福祝神祖视	禁		祸祥
甘	2		某	甘	
石	30	7	7	5	11
		研破确碰碗磁础	矿碎碑石硬砍码	砸碍砖碱磅	碌碧砂硫磔碳磷磋砌硅磕
龙	4		龙	垄袭	聋
业	3	业		亚茵	
目	24	4	3	9	8
		睛眼目睡	瞧盼睁	瞞盯眉眠眯瞪督盲瞎	眨睬眶睹睦瞻瞥瞩

田	13	6	3	1	3	
		男留界果思累	田略胃	畔	畏畜畴	
𠂔	7		1	5	1	
			置	署罩罪罢罚	罗	
皿	8		3	4	1	
			盜益盐	盟盛监盍	盈	
生	1	生				
矢	4	矮短知		矩		
禾	35	6	15	5	9	
		租秋种科利和	秩秒积私称 秘移程秀稳 稻稼稍乘季	税秧稀稿稚	秆禾秒穗 稠秃穆秤 秦	
白	7	3	2		2	
		的百白	皂皇		魄泉	
瓜	1		瓜			
鸟	5		鸟鵝	鵠鴨	鵠	
疒	25	3	2	6	14	
		病疼痛	疲瘦	疗癌疾痕疯 症	疤疫痒疮 疾痰痹痴 痞瘟瘤癰 癩疔	
立	9	4	3	1	1	
		立站亲产	端童竟	竭	竖	
穴	16	6	2	5	3	
		空窀窗穿突容	窄穷	帘窿窟窳窟	穴窝窈	
疋	3	蛋楚			疏	
皮	3		皮	皱	颇	
夂	2		登	覓		
矛	1		矛			
6	未	2		耗耕		
	老	3	老考		孝	
	耳	13	2	4	2	5
			联取	耳聊聪职	聚耽	聘聿耻聿 耿
臣	2		卧	臣		
𠂔	5	西要票			覆栗	

而	3	而	耐	耍	
页	21	7	3	5	6
		题领预页顿顾颜	顺颖顶	额顷顽颂顛	颈颠颁颊 颀颖
至	3	到	至致		
虍	4		虎虚虑		虜
虫	24	0	3	9	12
			蛇虫蜂	蝇蚊蛙蚕蜡 虾蝶蠢蝴	蚂蝗蟬蛛 蜓蜻虹蚁 螺蛾蜘蛛
肉	1	肉			
缶	3		罐缺	缸	
舌	7	3	3	1	
		舍乱刮	舌甜敌	辞	
竹	34	9	10	5	10
		等算筒笔笑篇篮答 第	笨筷符策箭 箱竹管笠筑	筋笼筐籍筒	笋笛筛竿 箬筹箴篪 篴篥
白	1			舅	
自	3	自息	臭		
血	2		血		衅
舟	11	2	2	3	3
		般船	航盘	艘舱舰	舟舵艇
色	2	色		艳	
齐	2	齐			剂
衣	17	5	7	4	1
		袜被装衣初	衫袋裙补袖 衬裤	裕袍袂裂	袄
羊	12	3	6		3
		羊差着	养盖善群羨 美		羞姜翔
米	18	3	10	2	3
		精米糖	糕类粮糟粒 粗粘料粉糊	梁糞	粹籽糠
聿	1		肃		
艮	3		良忌		垦

	羽	5	1	1	1	2
			翻	羽	翹	翼翠
	彡 (糸)	65	18	20	12	15
			绩继续绍织绿紧细 组练结红纸经系纪 给级	绕统绢绝素 绪绳维紫编 繁综纠纤约 纷纺线终缩	纹纯纱纲纵 络绑缚缝缘 缓绣	缠缎絮绸 绅绵绵绞 缔缴纽绒 纳绘缀
7	麦	1		麦		
	走	11	2 走起	6 趟趣超趁越 赶	1 赵	2 赴趋
	赤	2			赤	赫
	豆	2		豆		豌
	酉	13	1	5	2	5
			酸	醒醉醋酱配	酷酬	酶酩酝酌 酿
	辰	3			唇辱	辰
	豕	0				
	鹵	0				
	里	2	里	野		
	足	28	7	7	7	7
			跟践跑跳路踢足	踩蹲跨跌跃 距跪	踏跏蹠蹄蹈 踊蹠	踪踟踟蹰 踯踬踯
	邑	14	4	3		7
			邨那部都	郎郊邻		郑邪郁邦 鄙郭邢
	身	5	2 身躺	2 躲射		1 躬
	采	3		释悉	番	
	谷	2			谷	豁
	彡	1		貌		
	龟	1				龟
	角	3	角解	触		
	言	72	31	10	13	18
			谁识词谢译谊谈 调评课读请话说该	详订诚训讯 证诗警谓议	谣讶讽诬谨 诊谜谋诵诞	谤谴讼谐 诽诚诈讹

			误谅许让诉讨语认 记论设计访言讲		询譬谦	讥论誓谬 誉谎诸诱 谱诱
	辛	8	1 辛	1 辟	4 辣辜辨瓣	2 辨辨
8	青	2	青静			
	卓	1	朝			
	雨	14	4	3	3	4
			雨霏零雪	露雾雷	霜霉震	霍霸霞雹
	非	4	非	靠悲	辈	
	齿	2		龄	齿	
	毳					
	隹	6	1	1	3	1
			集	雄	雕隹焦	雌
	阜	33	6	12	9	6
			除险阳院阴附	际降阿陪陆 队隔防阶阵 限随	陌陵阻陈陷 隐障陡陟	陶隆隙陋 隧隘
金	51	7	12	13	19	
		钟钢钱铅银锻错	金钢铜铺铃 铁钻镜钩键 锐针	锡钥钩铲铸 锁锈钞鉴锣 镇钉铝	锄钳轴链 销镁钮镶 锋镀铍镰 铭锤锦锯 锹钦钙	
鱼	4	鱼	鲜	鲸	鲁	
隶	1			隶		
9	革	6	1	1		4
			鞋	革		勒靴鞭鞞
	面	1	面			
	韭					
	骨	1		骨		
	香	1	香			
	鬼	3		鬼	魂	魏
	食	19	6	3	5	5
饭饱食饺饿馆			饼馒餐	饥饮饲饰饶	馈饪蚀饬 饩	

	音	5	音章意	竟		韵
	首	1	首			
10	髟	1				髦
	鬲	1				融
	鬥					
	高	3	高	敲	膏	
11	黄	1	黄			
	麻	1	麻			
	鹿	1				鹿
12	鼎	0				
	黑	3	黑	默墨		
	黍	0				
13	鼓	1		鼓		
	鼠	1				鼠
14	鼻	1		鼻		
15	龠	0				

表2：《201部首在HSK表音字中的示义功能调查》

功能	部首	等级汉字			
		甲级	乙级	丙级	丁级
示义	贝	责贵	资货资贴费贺赔购	财赚赠贱	赂赋贷赌贬贿贤贩
	冫	冷净凉	冻冲	冶凝凑	凄凌
	艹	苹英苦蓝药草 菜花蕉	薄藏蔬菌萝著落 范	萄菠葡蓬蒙 蒸芽苍茅苻 荒葛	菇藤蘑蕾蒂藨蕴胡 蔗蓄蒜芭蔽葱葵董 菊萌萍荔薯薪艾莲 荷茄茎芝茂芒茫芳 芬荡芹蔣蔘
	车	输轻辆辅较	软轮转	辑轨	辙辐辖轿
	彳	得街很	征律待德微彻	循衡彼径	徘徊徊衍
	虫		蜂蛇	蜡蝇蛙蝶蠢 蝴蚊虾	蚂蚁蝗虹蝉蛾蜘蛛 蛛蜓蚕螺

辶	还这道逼近迎 遇迟适送通边 远进运	逢途透迳迫造逃 迷迹迫逃迳速遵 避迅达邀违迈逛 遭逼迹	遥返遮遗逦 逝逮	逆遣迳逦迂
刀	刻刚	刷判割副剧刺创	剖削	剃剑刹刨劈券
阜	附除险院阳阴	队降限防阿隔际 陆阶陪随	隐障阻陈陌 陵陡陝	隘隧陶隆隙陋
广	庭店府座	底庙序	廓废廊	康庞
禾	秋种租	秘秩积秒稻稼程 稍稳私移	稀税稚稿秧	稂穆稠秤穗秆
火	然照炼热烧熟 灯	烫烤烟烂炮烈燃 煤燥熊煮	煌焰灿焊熬 爆烁灸烛炒 炬炸	熄烘熔炊炕
巾	帽帮常	幅	帐幢帜	帆帖
金	错钢钟银钱铅 锻	钻铁铃铺锐镜锅 键铜钊	锣鉴锡钉铸 锈锁铝镇钥 钩铲钐	铭镶铀镁锌镀锤锦 锯锹链销锄锋钙钎 钮钳镰
口	喊喝听呀吧喂 响哈咳哪咱呢 啦唱啊嘛嘴吗 吃呐咖叫噁嗽 嗝啡	哇咽咬哲嘿喷吨 嗓吩吵吐吸吓哎 哩哼味呼咐嚷	吼喇喘喉嗦 吞叹噢哦喽 叭囁哆哟吻 呵咙哨唉唤 呜咩	啸哈唾哨唆唠噪嘲 咋哑哄喻喧嗅唯啄 呻呕吟吁嚼咨咏叮 叨叨鸣呈
力	助努办动	勇励势劲	勤勃勉	勘
马	骑驾骏	骄骗	驴骚骡驮驼 驻驶骆	骡驱驳驰
糸	续绩绿系纸经 绍织细组练结 给继红级纪	综终线统绕编约 纤繁紫缩绢纠维 绳绪纷纺	缝纵纲纱纯 纹缓缘缚绣 绑络	缀绷缔缠缎绸絮绘 绒绅缴纳纽
宀	宿寄富完客宜 家宴	宾宽害宝宣	宏寓寂寞宅 宇宙宵宵官 宍	
木	板杯极楼概棵 椅桥校树样检 桌根桔橘机	柿标柴格株架榜 模杆材李桶梯梨 械朴棉植松枪枸 案梁	横椒棍棚棒 棋杈朽桩枉 枯柄核桃档 枝枕柔柜柳 柱梳梅柏	柒梗梧桅椽榱梭棺 榭槐榆榴榱浆棕梢 枚柠桂框桐橡櫻槽 栏杏杨栋杜杠
目	睛眼	盼瞧睁	盯督瞞瞎瞪 盲眠眯	眶瞻瞥瞩眨睦眦睬

疒	痛疼病	疲瘦	疔癌疾症疯痕	疤癩瘤癰疾疮疫瘡 瘟痹痲痰痒疙
女	始姓姐妹姑娘 她妈妈	姨嫂婚	嫩嫌嫁妨婶 媳娼姿姥婆 娃	媒嫉妒娇姆妖奸妄
欠	歌	歉歎款欺	欧	欲
犬	猪	狼狗犯独獠猴猓 猫猜	犹狂猜猴狡 狠猛猎	狙狹狸狈狐
人	何体作位住你 低但像傅俩使 停借倒假倍候 例健们伟代任 亿	保促俗侵值俱倡 偷偏盒傲傍催傻 仍仅仅仔传优价 份仿伙似估伸伯 佛含供依	伴僚仗仇僵 俏俄伊伺侮 侨侧佳倦倘 倾俯债倚偶 偿	俘俊俭储侶侈俐僻 仙仆伪侦侄侍伶佣 候
日	时暖晴昨晨晚	晓晒昏映景暑暗 暂	智晰旱晃晕	晤晾昧晌昂旺旷
山		岛崇岸	岗屿峡峰崱 崖岩	崩峻嵌幽岭崔
尸	层展	屈	屁屈	屎屏履屑屡屠屙尼
石	碗碰确研砢破 磁	砍碎碑砗码硬	碱磅砸砖	硅磷磋磁砧砢磔碌 碧砂砣
食	馆饭饺饱饿	饼餐馒	饥蚀饶饣饰	饪饩饱饽
手	抱拍握抽提拉 抬搬搞摆掉换 持拾挂挺挤指 排推接擦操打 物批把技播	措挡括挑拼挖按 挥损捆捉捻捕扑 捞摸扞抖抗抢扮 捧摘抓扭撞拒抗 扶摇撒抄撕扣扩 扛探描掀据掏控 捧捺援担插拖拔 搭拆拥捌拦招披 择	摊扯撤摧撮 抵揭揪押搜 撻拢抹搅揉 搓扒攀挫拧 抑拳振挽捏 挣捏拨掠捷 掩	捍揆揆捌攬招捶捻 掺掷拈捅捣摺攢撞 拽撵搏携撇撮拄拙 拇拓拱挟抡拟捎扳 扳捐抚拌拘挠垮挪
水	清深满游渴湖 汽派活济洗注 泳河法浅治海 消澡江汤演漂	涨浪浮涂洞洒测 泥泼油沿泪浓洋 渡滑温湿港激泛 沙漠源滚滴漏池 污汗添淡渐混液	滥溜滩漆漫 渣溉沟溅淆 溶灌潮泌洪 浇洁浆浴润 浸涌泡沾泽 沸波渔淋淹 浑沈浙	浊涤涕津洽洲淫淀 瀑潦澄潭淇沱滂渺 溃浩涝涛滤滔滨渗 淘湾滋沛溪泰汰沥 泓泣沼潜汛沃泻泊 泄汪沫汁浦淮沪澳 潘
土	墙城基场地在	型埋填壁塑均境	塌坑坝坟堤	墮埠塘堪堡坯全坊

	块坏增	址圾堵堆塔垃坡	坦墟壤垮垫 培域	坛埃
心	惯情愉忘想感 快怕怎恁您忽 懂忙慢	悟悄悔恋恐性恰 怪恨恢忆怒慌横 慰懒愁悠忍惊	愚慎慧愧怀 恬愣憾悦怖 恶恐借悬惭 恰忠惨惕	惋恼愠惟慷惑惧悼 惰慨惩怯恩恭忧
言	谢译评词诉识 误说语话试该 谈谊谁请谅调 读课访计讲认 许论设记让	谓讯议订诗诚详 证警	谨诊谦谣警 讽诬讶诵诞 询谜谋	诱诚谐诤谗讹 谬诸誓誉谎诈谱讥 讹讼
页	领预顿顾颜题	颀顶	颤额顽頔	颀颊颀颀
衣	装袜被	衫衬裙裤补袋袖	裂袷袷袍	袷
酉	酸	配醒酱醋醉	酬酷	酝酌酌酶酿
羽	翻		翹	翠翼
雨	零需	雾露	震霁霜	雹霞
舟	船	航	艘舱舰	舶舵艇
竹	筒篮篇	筷箱箭策管笠符	筐筒籍笼	笆箴篾竿筹笱笛筛 箬笋
足	践跑跳跟路踢	跌踩跨跪跃距蹲	蹬踊蹈躁蹄 踏趴	蹋踏蹂跨踏踪蹯
邑	邮都部那	郊郎邻		鄙郁邳郑邪邢郭
王	玩球理现	玻珠璃环	珍	琢瑚珑瑰瑞玫瑰玲 玖
支	数散故政整	效救	敏	敷敝
门		阅阔	阂	阂阂闾围闾
米	糖精	粉糊糟糕粮粒粗 粘	粱	籽粹糠
穴	窗窀空	窄穷	窳窿窟窟	窳窟
爻	段		毁殿毅	毁
隹		雄	雕	雌
子	学孩	存	孙孤孟	趋赴
走	起	赶趣趟越超趁	赵	
鸟		鹅	鸭鸽	鹄
田	界留	略	畔	畴
口	园围圆团	圈固		
皿			盞盛	

见	觉			
歹		殊	歼殖残	殃
气			氛氩	氮氩
示	福祖	禁		祥祸
耳		聒聒聊	耽	聒聒聒
革	鞋			靴鞣鞭
厂		厅厘仄		
缶		缺罐	缸	
父	爸		爹	
匕		疑	匙	
立	站	端	竭	
矢	矮短		矩	
牛	物特		牺牲	犁
彡	彩影	形		彰
冫		置	罩署	
大			夸	奢
辛			辣辜	
片		版牌		
色			艳	
瓜				
鬼			魂	魏
斤	新所		斯	
皮			皱	
十			博	
角		触		
瓦	瓶		瓷	
小			尔	肖
鲸			鲸	
彡				髦
文			刘	
豆				豌
匚				匪
谷				豁
韦				切
西				覆
血				衅

疋				疏
音				韵
止				歧
弓	张	弯弹		弥弦
户	房	扇		
老	考			
青	静			
身	躺	躲		
爪	爬			
采		释		
齿		龄		
斗		斜		
长				肆
非		靠		
风		飘		
工		巧		
里		野		
毛		毯		
冫		冠		
夕		梦		
羊		群		
又		叔		
月	期	朗		
彡		貌		
勺				匈
八		曾		
冂		却卷		
耒			耕	

表3：《201部首在HSK表音字中的示音功能调查》

	甲	乙	丙	丁	王	往		狂枉	旺汪
十	讠什	针		汁	无				抚
厂				雁	韦	围伟	违		
卜	处	补朴扑		仆赴	支	技	翅	枝	肢
八			叭趴扒		牙	呀		芽讶	邪鸦雅
人	认				比	批	毕	昆屁	皆毙
勺	句				止		址	扯齿	耻
匕				尼旨	贝			坝	狈
几	机		饥肌	讥	见	观现		舰	
冫				冯	气	汽			
刀	到		召	叨	毛			耗	髦
力	历			勒	长	张		胀帐	
又	有			杈	片				
厶		私			斤	近		欣	芹
干		岸肝赶 杆汗	旱刊	竿秆罕	爪		抓		
工	红空 江	功攻巩 贡项扛	缸	杠汞虹	父				斧
土		肚吐	徒	杜	月			钥	
寸	村	衬			氏	纸			
大		达	驮		欠		砍软		
弋	代	式			殳	没	投	股	役疫
口		扣			文			坟纹蚊	
彡		衫			方	房访 放旁	防纺 仿	妨	芳坊 肪
丩	将	状	壮		火		伙		
广		矿扩		旷	斗		抖料		
门	们问 闻		闷		户		护	雇炉	妒芦 沪
己	纪记 起			忌	毋	每			拇姆
弓				躬	甘				钳
子	字	仔李		籽	石				拓
马	吗妈	骂码		蚂	龙			咙笼垄	珑聋
彳		训		巡	皿			孟	
					生	星胜 姓	牲性		

矢		疑	疾		辰	晨		唇振震	
禾	和				里	理	哩狸厘		
白	拍怕	伯迫	柏	舶魄泊	足		促捉		
瓜			孤	狐	谷		俗	浴裕	欲豁
鸟		岛			角	确			
立	拉	粒垃		泣	青	晴精清情晴请			蜻
皮	被破	玻披疲坡	彼波	颇	非	啡排	悲	辈罪	诽匪徘
而		耐			佳	谁推准	堆维		崔淮霍惟唯
至	室	致		侄	鱼			渔	
虍		虑虎虚		虜	金				钦
虫				融	隶			逮	
舌	刮话活适	括			骨		滑	猾	
自	息咱				鬼			愧	瑰槐
齐	挤济			剂	高	搞	敲	膏稿	
衣		依	衰哀		黄			横	
羊	样	详洋养	氧	姜祥翔痒	麻	嘛	磨	摩	魔
米		迷	眯		黑		嘿		
聿		律		津肆					
艮	跟很根银	恨悬	痕狠	垦					
豆	短	逗							
酉	酒								

表4：《201部首位置与其功能关系调查》

4-1. 部首位置居左

功能	甲	乙	丙	丁	字数
表音	放和	功珣项致敲默	欣饰蚀	邪剂鸦耻雅魄融钦颇翔冯	22
表义	亿什化从计认双打叫代们他	扎仍仅忆订引孔队巧扑扔付	仇扒叹仗饥汇奴幼朽杈协轨	仁仆轧叮叨叨仙汁帆伏伐伪	1386

外汉讨让礼记 奶加地物场机 死划吃吗伟休 件任行灯江汤 忙讲许论设访 阳阴如好她妈 红级纪技坏找 批块把报极时 呀听吹吧体何 但作低你住位 饭冷汽没快评 初社识诉词译 改张附纸玩现 抽拍抱拉拾取 杯板到明呢知 物使例往饱净 浅法河注泳治 怕试视话该妹 姑姐姐始练组 细织绍经挂持 城挺拾指挤相 树研轻昨咱响 哈咳哪钟钢种 秋科便俩信很 须饺炼洗活派 济语祖神祝误 说孩除险院结 给换桥校样根 础破较啊钱铅 特租借倒候倍 健般饿凉站烦 烧酒消海流请 读袜被课谁调 谅谈谊娘验继 球理排掉推接 检辅辆眼啦晚 唱银做停假得 船猪馆清深情 惯绩续骑绿提	仪仔犯训议讯 纠扛扣托执圾 扩扫朴此吐吓 吸则传伍优伤 价份仰仿伙似 冲冰汗污池阵 阶防妇纤约扶 扰拒址抄折抓 扮抢均投抗抖 护扭杆材吨吵 吩针私估伸伯 佛彻冻沙泛沉 证补际陆阿妙 纷纷环拔捺担 拐拖拆拥垃拦 招坡披择林析 松枪构矿码转 轮软味咐呼败 购钓供版依征 狗泪油沿泥泼 性怜怪诗诚衬 衫详降限线终 玻挡括挑拼挖 按挥标柿砍耐 盼映咽咬贴拜 牲秒促促俗侵 待律狮独饼炮 烂酒洞测洋浓 恢恨姨姻绕骄 绝统珠捞捕埋 捉捆损捡挨株 格配殊晒晓钻 铁铃缺牺积秩 称秘值俱倡射 航狼粉料烤烟 涂浮浪涨悟悄 悔袖陪绢捧堵 描堆掀授掏控 探据职械梯桶	屿讽孙扯坝抛 坟坑歼盯吼帐 财钉伴狂犹饮 治灿沟怀诊陈 阻妨纯纱纲纵 纹驴抹拢坦押 抵拨枝柜枕卧 鸣帜牧佳侧侨 佩彼径伺炒炉 沾泡沸泽泽怖 诞询孤驶驻驼 珍垮拴挣枯柄 柏柳柱砖残趴 虾啤映贱钞钥 钩缸矩侮狡狱 狠饶炸洁洪浇 浑恰诵陡娃姥 绑络骆耕振捏 挽耽档桃核眠 蚊哨唤唉峰秧 债倚倾倘俯倦 舰舱烛涉浴润 浸涌悦袍陵陷 蜈绣域掩捷掠 培梅梳眯铲偿 偶猎猛湊淋淹 渔惜恹惕惨谋 谜隐岫堤博揭 揪搜撙搅揉棒 棋椒棍棚殖喇 蛙喘喉铸锁锈 稀税御循猾焰 渣溉愧裕谣谦 缓缘撮塌摊勤 酬碍锡锣辞煌 滥溜滩慎谨障 嫌嫁缝摧酷蜡 蛄赚僚辣竭漆 漫嫩撑撤横瞞	奸驰抚坛坊杠 杜杨旷鸣伶佣 役灶汪沃忧妖 驱纳驳纽拘拌 斩旺咏帖蛤贩 秆侍侄偵狐炊 炕沫泄泊泻弦 拷挠挪栋栏砌 殃眨哄哑虹蚊 蚂俭俘俊狭浊 洽洲津恒恼袄 诱娇绒绘绞响 捐框桂桐轿响 贿钳秤躬徐狸 烘涛涝浩诸祥 陶掘勒梢啄唯 衔馆淘渗悼惧 谎祸隆绵绸堪 棕蛛蜓赌链销 锄锋储艇俾湾 滋惰慨隙级瑞 肆搏携塘槐榆 碌睬蛾锤锦锯 稠韵滤滔溪滨 缠撇榴榨酿蜻 蚰锹熄熔谱骡 槽櫻橡踪僻潜 缴鞠螺穗糠鞭 蹦镰嚼讥吁汛 讹讼玖剔扳扳 抡拟呕吟狈沛 汰沥汹许妒玫 坯拓挂拙拇枚 歧呻贬侶侈泣 沼怯弥陋姆绅 玲珊拱挟柠砂 昧钙钮俐徊衍 籽诚捍捌捣捅 梳酌唠唆峻略
--	--	--	--

	握联椅棵确晴 喊践跑喝喂帽 短傅街湖渴游 偷谢摆搬搞楼 概碰碗输晴睡 暖跳路跟错矮 像解满福静墙 酸磁嗽锻精漂 演慢播增鞋踢 躺懂操橘嘴糖 澡擦呐咖啡啤 桔嘛嗯	睁野距跃略蛇 铜甜移偷偏猜 猫粘粗粒添渐 混液淡惊弹随 婚绪绳维搭塔 插援搁植棉硬 喷跌幅赔铺锅 锐稍程傲牌傍 释猴港湿温滑 渡愤慌裤裙隔 嫂编骗摸填摇 碑碎龄暗跨跪 蜂嗓键催傻躲 微触粮煤漠源 滚璃境摘捧模 榜稳貌鲜馒端 滴漏缩撕撒撞 聪醋醉踩稻稼 德糊醒镜糕燃 激懒瞧槽燥蹲 嚷罐哎哩哼措 聊谓综嘿哇	瞎踏蝶蝴嘱镇 稿僵艘潮蹄赠 衡凝蹈骤爆疆 壤躁灌叭伊讶 驮抑吻伺拧枉 呵咙泌陌哆哟 俏俄烁诬挫桩 砸畔铝焊淆怙 袱搓晰溅骚辑 嗦稚猿浴媳缚 碱踊磅幢鲸憾 瞪瞪愣噢哦喽 墟刘沈陕浙	凌凄涕涕讲捶 埠捻招拈掷掺 梗梧酝酗硅眶 唔哨唾啥啸铭 穆衅俳舶舵猖 淫淀惋诺绷缀 琢揍揽撵梭棺 楠疏晾畴喻喧 赋碎掰滯渺溃 谤隘媒缔瑰聘 靴辐瞎睦踪嗅 谬嫉碟碳籍蟬 镀粹慷隧撵疏 磕嘲蝗潭潦澄 遣擅辙噪穆椽 磷蹋瞻瀑攒蹭 镶讠跨谗踏磋 瑚珑馈酶沏镁 淇榷任惟轴瞩 拽咋沪埃埃耿 浦淮赫澳潘	
记号	师次决观欢村 乱利况刮的朋 服胜将班脏准 旅难脚脸脱族 朝腿	刃叶列戏肝肚 肠状肤肺肥艰 胡临修胆胖脉 施敌脆胸膈脑 脖减脾强腰膊 膀旗	幻刊肌壮畅肿 胀股肋胞耗徒 胶旋腔粥腾膨 瓣瓣	川帅肢贼脂斑 腊腥腹膜膝腔 辨辨妆肪腮徽 邓	97
字数	343	415	346	401	1505

4-2. 部首位置居右

功能	甲	乙	丙	丁	字数
表音				彭	1
表义	封切刚别刻我 或所新动助政 故教散数歌彩 影段瓶顾顿预	创判刺制刷刷 副割斜飘战威 规印却即断励 劲鹅效救敬款	删削剖剥截 魂卸斯勃鸭 鸽皱敏艳毁 殿毅顷顽颂	刑剑剃刹刹豁 凯劫勘鹊敞敷 欲彰殿颈颠烦 颊颊邪邪鄙邦	128

	领颜那邨都部 鸡翻期	欺歇歉献形既 群顶顺颖邻 郊郎叔朗雄	额颤雕欧	郁雌魏股邢郭	
记号	北剩戴成收敢 以旧	武	威威栽栽栽 归叙	颖乳贰	19
字数	41	42	31	34	148

4-3. 部首位置居上

功能	甲	乙	丙	丁	字数
表音	员志	毕召悲悬贡攻 虚养	舅聿膏垄	旨秃忌斧姜星 毙聿永	23
表义	艺少分公占号 只冬考早各名 多花步男苦萃 英易草茶药查 是界看笔笑息 菜雪晨章等集 蓝零筒意需算 蕉篇整篮	古兄尖众弄李 秀范奇岸委采 受某品美臭著 萝菌崇笨符悉 竟落森暑景筑 策善羨曾登雷 雾置笠管蔬墨 箱箭薄藏露筷	且尘劣芽苍 早岗若苗茅 昆岩荐荒耍 罚辱晃晕罢 萄菠崖崑笊 葡筐筒筋焦 番蓬蒙蒸罪 罩蔑震霉暴 霜籍署吴孟 葛	吉芒芝贞孝芹 芬芳芦苏杏呈 茂茄茎轰昌昂 罗炎茧茫荡皆 竿莲莫荷栗笋 萌菊萍雀笛葬 董葱葵品饰笋 蒜蓄雹筹蔽笋 翠薯薪霞翼覆 艾芭肖荔笆菇 崩胡蒂嵌蔗藨 蕴蕾霍漓藤藤 簌髦聂萨崔蔣	218
记号	二了三四万上 个之五六去 世节乐市永再 当岁危负交产 矣导买声劳克 更两来条弟表 幸直卖些果念 备夜单录参南 要点省冒星思 虽重急亮亲差 前总真拿爱离 旁容能票堂累 第商蛋喜掌最 答赢	卫乡乏允另乎 令台夺夹光吊 乒乓朵争充并 寻异严丽呆皂 免亩灵奋肯季 免京享承荣歪 牵尝显胃皇盆 帝类壶扶党竞 营盘象毫率盖 剪密惹量童普 叠慕蜜	丁亏亡予丙 兰圣壳尚垂 乖贫哀亨翁 衰兼袞售曾 琴赏羹墓幕 愈煎聚裹豪 凳兑衷鹵奠 甬	乌寺岂乔亦岔 杰贪畏炭泉怠 全桑慈嘉暮裳 霸卓秉叁烹壹 愈亢卢吕袁冀	209

字数	128	119	86	117	450
----	-----	-----	----	-----	-----

4-4. 部首位置居下

功能	甲	乙	丙	丁	字数
表音	育每楚	骂	毒	鲁	6
表义	千天元正百先 合坚告希坐系 忘努贵志忽驾 帮览贵怎复觉 热夏桌紧留常 您然装想感照 熟	币灰否含忍势 妻货昏贯型贸 穹费怒架贺勇 素哲恐烈柴恋 资益烫案梦梨 袋悠益盗梁煮 皙紫尊禁愁酱 塑熊靠慰餐赞 壁繁警	妥忠凭盲垫 怨姿柔盎恶 浆盛悬患婆 辜裂智督鉴 愚盟梁慧蠢 姿娶婴熬譬	妄贤贷盈泰恭 晋恩浆畜犁惠 惑堡惩蛮絮誉 碧誓劈咨柒挚 耸堕熏熬譬 曹	149
记号	么开云互午书 卡主共丢杂兴 其典变哭望舞	丝杀县兵弃良 具背奖染盐渠 替	丑丛亚华索 监奥燕	乞肾竖脊弊臂 卑兜舆	48
字数	58	65	39	41	203

4-5. 部首位置半包围

功能	甲	乙	丙	丁	字数
表音	闻问	虎式虑翅	唇闷雇	虏雁	11
表义	包反后原边过进 远运还连近迎这 迟适送退通遇道 遍太爸店府庭座 房间字安完定宜 实室客家宴寄宿 寒富病疼痛介层 屋展究空突穿窗 建爬起	匀厅厉压仄厘 厚达迈迅违迹 迫选迫逃迹迷 速逗逐造透途 逢递逼遭遵邀 避避套匹爷序 庙底启肩扁扇 网毯冈团罔闲 阅阔冠守灾宝 官宣害宽宾察 疲瘦企尺尾居 屈穷窄延赶越	匀勾勾返逝 逮遗遥遮遑 夸爹庠废廊 廓阔冤宇宅 宏牢宗审宙 宫宪宵寂寓 寞寡疗病症 疾痕癌氧氛 凶屈屁帘窳 窟窿宋赵	辽迂巡逆遣 逊奢匠匪戒 廉庞阏罔阁 围闾宰疮疫 疤痒痰疙疾 痹痴塔瘟瘤 瘫癩氢氮幽 尼尿屑屠屡 屣屣屎履窃 窝羞赴趋匈	234

		趁超趣趨			
记号	句历愿医床应度 康用同周写农它 赛画今全会局着 习处	厕盾厨区巨弱 庄庆席腐磨凡 电闹军伞余命 尽属司	匆厢奔奈摩 宁塞仓帘	勿厦唐庸鹰 魔凤凰冈罕 寇寨凹函禽 刁	69
字数	84	101	61	68	314

4-6. 部首位置全包围

功能	甲	乙	丙	丁	字数
表音					0
表义	因圆团图回园围 困国	又圈固		爽巫	14
记号	四				1
字数	11	3	0	2	15

4-7. 部首位置被包围

功能	甲	乙	丙	丁	字数
表音	友				1
表义	可学基春带左 在右布题	质灰岛存卷	匙蚕灸吞勉 眉拳攀尔翘	券昼君孕秦	30
记号	发义有哥向者 些务		巷寿黎囟	叛	13
字数	19	5	14	6	44

4-8. 其他

功能	甲	乙	丙	丁	字数
表音					0
表义	内办器本	肅未疑	串未朱	疏刃	12
记号	头丰中且电史已 术九久年出舒就 够西七才夫平东 求束事也民尤为	央由乘及升失 册击入土玉辉 于丈与井专巴	豫甲申曲斥 丸丘丧氓耀 甚卵	赖兆凸丹曰 兢屯奉枣奏 囊束乃州粤	76

	半必举				
字数	35	21	15	17	88

[参考资料]

- 王平等：《说文解字》全文检索系统，南方日报出版社，2004年。
- 藏克和、王平：《说文解字新订》，中华书局，2002年。
- 张书言：《标准汉语字典》汉语大词典出版，2000年。
- 曹先擢、苏培成：《新华多功能字典》，商务印书馆，2005年。
- 管益杰、方富熹：《我国汉字识别研究的新进展》，《心理学动态》，2000年，02期。
- 余平：《汉字字形识别的认知途径及其认知心理学意义述评》，《浙江教育学院学报》2001年第04期。
- 韩布新：《汉字识别中部件的频率效应》，《心理科学》1998年，03期。

[中文提要]

本文以汉字201标准部首为研究对象，运用数据库统计分析方法，从201部首的来历、字形源流、构形模式等方面对其进行了全面系统的调查和分析。在此基础上，对201部首与HSK2905个汉字的多重关系，诸如字位、构字频率、构字位置、构字功能等进行了研究，并借助认知心理学的理论，提出了学习汉字部首的方法。

汉字是表意体系的文字。根据汉字的形体结构，取其相同的表意部分归类，每类称为一部，每部的第一个字就叫做部首。部首不仅是查检汉语字典的依据，还是学习汉字的基础。部首在单独使用时，绝大多数是独立的汉字；部首在构字使用时，绝大多数又是高频率构件。通过部首的形音义，学习者可以了解到汉字的许多的信息。因为部首在汉字的构字过程中兼有表义

或表音的功能。以下试图通过对201部首与HSK2905汉字³⁾关系的研究,揭示部首在汉字认知过程中的重要作用。

关键词: 201部首, HSK2905汉字, 认知, 关系

[Abstract]

In this paper, we take the 201 radicals as the object of our study, by way of using statistical and analytical methods of database,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researching and analyzing the origin, evolution, forms of structure of these radicals. Based on this, study on the multiple relationships of the 201 radicals and HSK2905 Chinese Characters just like the frequency, position and function of these radicals when they are used for constructing Chinese Characters.

Key Words: 201 radicals; HSK2905 Chinese Characters; Cognition; Relationship.

투고일: 2008. 10. 31.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3) 《中国汉语水平考试大纲》北京语言大学汉语水平考试中心编制,北京语言大学出版社, 1995。

魏晉시기 陽聲韻 詩韻 分部考

李 雄 吉*

<목 차>

1. 序言
2. 韻部分論
3. 結言

1. 序 言

중국사에서 약 400여년에 걸친 魏晉南北朝시대는 오랜 전란, 이민족의 침입, 잦은 왕조 교체 등으로 인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혼란의 시기였다.

문학사적으로는 대혼란의 역사 속에서도 秦나라와 漢나라때 독립되지 못했던 문학관을 발전시키고 그에 따른 문학적 기교를 발전시켜 이를 隋나라와 唐나라에 넘긴 시대이기도 하다.¹⁾

언어상으로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북방어와 남방어가 융합되는 국면이 형성되었고, 또한 불교의 성행, 운문(韻文)의 발달, 문학 비평의 변형 등으로 인해 언어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초가 마련된 시기이기도 하다.²⁾ 뿐만 아니라 李登의 《聲類》를 위시하여 각종 운서가 편찬되기 시작하여 새로운 학문인 음운학이 출현한 시기이기도

* 동서대학교 외국어계열 중국어학과 부교수(woong@dongseo.ac.kr)

1) 허세욱, 《中國古代文學史》, 法文社, 1986, 169쪽

2)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廣東教育出版社, 中國, 2000年, 86쪽

하다.

漢語史에서 이 시기는 上古音시대부터 中古音시대에 이르기까지 언어 체계의 변천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漢語音韻史에서 魏晉南北朝시대는 여러 학자들의 시기 구분을 종합해보면 上古와 中古의 과도시기라 할 수 있다.³⁾

특히 魏晉시대는 周祖謨가 “魏는 兩漢과 가깝고, 宋은 齊·梁과 가깝다. 짧은 중간시기이다.”⁴⁾라고 하였듯이 兩漢시기와 南北朝시기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⁵⁾에 수록된 魏代 시인 명의 수와 민가 수 및 晉代 시인 명의 수와 민가 수에 사용된 압운자를 통해 陽聲韻은 몇 개의 운부로 나누어지고,⁶⁾ 또 각 운부 속에 어떠한 韻類의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周祖謨가 분류한 魏·晉의 운부 및 劉宋 시기의 운부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韻部分論

1) 東·冬·鍾·江韻

兩漢의 東部에서는 東韻의 일부분과 鍾韻 그리고 江韻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冬部에서는 冬韻과 東韻의 일부분 그리고 江韻의 일부분

3) 시기 구분에 있어서 魏晉南北朝시대는 다시 세분되어지는데, 于海宴과 周祖謨는 魏晉宋과 齊梁陳·隋 두 시기로 나누었고, 王力은 南北朝시기를 제1기, 제2기, 제3기 세 시기로 나누었으며, 何大安은 南北朝시기를 1기와 2기로 나누었는데, 제2기를 다시 南方區와 北方區로 나누었다.

4) 周祖謨, <魏晉宋時期詩文韻部研究>, (《周祖謨學術論著自選集》),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3年, 191쪽

5) 逯欽立 輯校, 《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 木鐸出版社, 1983年, 臺灣

6) 용례가 적어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文의 용례를 참고하였다.

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이들 네 운의 독용과 통압상황을 살펴보겠다.

	東	冬	鍾	江
東	14	1	5	2
冬				
鍾			2	
江				
<표1> 魏				

	東	冬	鍾	江
東	35	2	32	4
冬				
鍾			2	6
江				
<표2> 晉				

<표1>과 <표2>를 보면 魏代와 晉代 모두 冬 江 두 운의 독용의 예는 없고, 鍾韻도 독용의 예보다는 東韻과 통압의 예가 훨씬 많다. 통계상으로 보면 이 네 운은 동일 운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兩漢때 東韻字들은 東部和 冬部 두 운부에 나누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東韻이 兩漢처럼 두부류로 나누어지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용례에서 東韻字를 뽑아보면 ‘宮崇窮終躬中弓雄風戎充隆融冲衷嵩忠穹鬢豐東同通蒙銅工聰蔥桐蓬虹鴻空公洪翁童籠潼隴濛櫳紅’자인데, ‘宮崇窮終躬中弓雄風戎充隆融冲衷嵩忠穹鬢豐’자는 鍾韻과 통압하고 있는 반면 ‘東同通蒙銅工聰蔥桐蓬虹鴻空公洪翁童籠潼隴濛櫳紅’자는 鍾韻과의 통압보다 독용의 비율이 훨씬 높다. 이 글자들에서 ‘宮崇窮終躬中弓雄風戎充隆融冲衷嵩忠穹鬢豐’은 3等韻字이고, ‘東同通蒙銅工聰蔥桐蓬虹鴻空公洪翁童籠潼隴濛櫳紅’은 1等韻字이다. 東韻은 魏晉에서도 兩漢처럼 두 류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아래는 東韻을 1等과 3等으로 나누어 통계를 낸 표이다.

	東3	東1	冬	鍾	江
東3	9	1			
東1		3	1	5	2
冬					
鍾				2	

江					
〈표3〉 魏					
	東3	東1	冬	鍾	江
東3	27	4	2	9	1
東1		4		23	3
冬					
鍾				2	6
江					
〈표4〉 晉					

〈표3〉과 〈표4〉를 보면 東韻 3等は 魏代에 鍾韻과 통압한 예가 없으며, 晉代에서는 東韻 1等과 鍾韻이 통압한 것보다 적어 東韻 1等과 鍾韻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江韻도 東韻 1等과 통압하고 있고, 또 江韻이 東韻 1等·鍾韻과 동시에 통압한 예도 魏代에 4회, 晉代에 6회 있어 같은 운부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冬韻은 魏代에서는 東韻 1等과 통압한 예가 있는 반면 晉代에서는 東韻 3等과 통압한 예가 있어 冬韻이 어느 운부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통계상으로 보면 魏代에서는 東韻 1등과 동용한다고 볼 수 있고, 晉代에서는 東韻 3等과 동용한다고 볼 수 있다. 兩漢의 詩와 文에서는 冬韻은 東韻 3等과 통압한 예가 2회, 鍾韻과 통압한 예가 3회, 東韻 1等·鍾韻과 동시에 통압한 예가 1회 그리고 東韻 1等·東韻 3等·鍾韻과 동시에 통압한 예가 1회 있다. 이로 보면 통계상 兩漢에서 冬韻은 東韻 1等·鍾韻과 동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羅常培·周祖謨는 冬韻을 冬部에 포함시켰다.⁷⁾ 冬韻이 東韻 3등과 동용하느냐 아니면 東韻 1等·鍾韻과 동용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魏代와 晉代의 文에 사용된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魏晉 文의 용례이다.

7) 《兩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科學出版社，1958年，北京，33쪽

- 1) 衛覬 : 宗隆 <西嶽華山亭碑>
- 2) 劉楨 : 宗朋 <魯都賦>
- 3) 夏侯湛 : 仍彤風升 <大暑賦>
- 4) 潘岳 : 宗彤 <魯武公誄>

위의 1)은 東韻 3등과 통압한 예이고, 2)는 蒸韻과 통압한 예이며 3)은 蒸·東韻 3등과 동시에 통압한 예이며 4)는 冬韻 독용의 예이다. 東韻 1등과 통압한 예도 없고, 魏晉시대의 詩와 文에서 蒸韻은 東韻 3등과 통압한 예는 있지만 東韻 1등과 통압한 예가 없어 冬韻은 東韻 3등과 동용한다고 보아진다.

위의 사실로 東·冬·鍾·江 네 韻은 東韻 3등과 冬韻을 포함하는 東部와 東韻의 1등과 鍾韻 그리고 江韻을 포함하는 鍾部 두 운부로 나누어진다.

2) 眞·諄·臻·文·欣·魂·痕韻

兩漢의 眞部는 眞·諄·臻·文·欣·魂·痕韻과 先韻의 일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위의 韻들 중에서 魂韻은 魏代에서 仙韻과의 통압 1회, 여러 운과 동시에 통압한 예만 있으며, <표7>에 나타나듯이 晉代에서 先韻은 이들 운과 통압한 예가 없다. 晉代에서는 魂韻과 先韻은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독용과 다른 운과의 통압 현상이 뚜렷하다.

	魂	痕	仙
魂	7	2	1
<표6> 晉			

	先	元	山	仙
先	5	3	2	6
〈표7〉 魏				

	先	眞	元	魂	山	仙	臻
先	23	4	1	1	6	40	2
〈표8〉 晋							

그러면 眞·諄·臻·文·欣·痕韻은 서로 같은 운부에 속하는지 아니면 나누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眞	諄	臻	文	欣	痕
眞	24	4		7	3	
諄		1			2	
臻						
文				3	2	1
欣						
痕						
〈표9〉 魏						

	眞	諄	臻	文	欣	痕
眞	60	37	5	6	6	
諄		1		5		
臻						
文				15		
欣						3
痕						1
〈표10〉 晋						

〈표9〉와 〈표10〉을 보면 우선 諄韻과 臻韻은 眞韻과의 통압이 뚜렷하여 서로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文韻이 魏代에서는 독용보다

는 眞韻과의 통압이 많은 반면 晉代에서는 독용이 많다. 그래서 文韻은 晉代에서는 하나의 운부로 독립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欣韻은 독용은 없고 眞韻과 통압 6회, 文韻과의 통압이 6회 있어 어느 운부에 포함시켜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선 다른 운과의 통압관계를 보면 元韻과의 통압이 1회, 眞·文韻과 동시에 통압한 예가 3회, 眞·元·仙韻과 동시에 통압한 예가 1회, 文·魂·元·仙韻과 동시에 통압한 예가 1회 있다. 위의 다른 운과의 통압관계를 보아도 구분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으로 운문의 용례를 참고하면 眞韻과의 통압이 9회이고, 文韻과의 통압이 5회 나타난다. 그래서 통계에 의거해서 欣韻은 眞韻과 동용한다고 볼 수 있다.

兩漢의 眞部에 속한 魂韻은 晉代에서는 하나의 운부로 독립하지만 魏代에서는 독용의 예는 없고 仙韻과의 통압 그리고 여러 운과 동시에 통압한 예만 있는데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1) 曹操 : 雲門崙君門神 <陌上桑>
- 2) 曹操 : 阡存恩 <短歌行>
- 3) 曹丕 : 筵存遷連 <短歌行>
- 4) 曹丕 : 難漫言還顏歎寬肝眼間憐存 <燕歌行>
- 5) 曹叡 : 山賢先傳遷存連天翩間 <步出夏門行>
- 6) 曹植 : 仙煩然存天 <桂之樹行>
- 7) 曹植 : 然閑阡間淵田西存山艱燔連 <吁嗟篇>

위의 예에서 魂韻字는 '存門崙'인데, 예1)의 '門崙'자는 眞部에 속한 '雲君神'자와 통압하고 있어 眞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예3)에서 예7)까지의 '存'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元·山·先·仙·寒·桓·刪·煥韻에 속한 글자들이다. 위의 예들로 보아 魂韻은 魏代에 두 류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痕韻은 魏代에 독용과 통압의 예가 없는데, 晉代에서는 <표10>에 나타나듯이 독용 1회, 欣韻과의 통압 3회가 있다. 欣韻은 眞韻과 동용하고 있기 때문에 痕韻도 통계상 및 계련상으로 보면 眞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痕韻의 독용 및 통압의 예가 적어 운부 분류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文에 사용된 예를 참고로 하겠다.

- 1) 棗據 : 根奔 <船賦>
- 2) 潘岳 : 存坤恩門 <西征賦>
- 3) 潘岳 : 存樽恩魂 <悼亡賦>
- 4) 潘岳 : 恩門昆魂 <馬汧督誄>
- 5) 潘岳 : 門昏根存 <金鹿哀辭>
- 6) 摯虞 : 門根魂存 <思游賦>
- 7) 郭璞 : 根魂存 <又無臂國讚>
- 8) 郭元祖 : 溫門存根 <谷春讚>

위의 예들에 사용된 운자들 중 ‘恩’과 ‘根’은 痕韻字이고 나머지는 모두 魂韻字이다. 이로부터 痕韻은 魂韻과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魏代의 眞部는 《廣韻》 眞·諄·臻·文·欣·痕韻과 魂韻의 ‘門崙’자를 포함하고 있고, 晋代에서는 眞·諄韻과 이에 상응하는 上·去聲과 欣韻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晋代에 독립한 文部는 《廣韻》 文韻과 이에 상응하는 去聲을 포함하고 있으며, 魏代의 眞部에서 분화된 魂部는 《廣韻》 魂韻과 痕韻을 포함하고 있다.

3) 元·山·先·仙韻

《廣韻》에서 韻尾가 /-n/인 운 가운데 眞·諄·臻·文·欣·痕·魂韻의 분할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魂韻의 일부분과 元·寒·桓·刪·山·先·仙韻은 몇 개의 운부로 나누어지고 또 각 운은 어느 운부에 속하는지 살펴보겠다. 이들 운의 통압관계는 아주 복잡하다. 그래서 용례가 많은 것부터 보겠다.

先韻과 仙韻의 독용과 통압 상황은 다음과 같다.

	先	仙
先	5	6
仙		4
〈표11〉 魏		

	先	仙
先	23	40
仙		6
〈표12〉 晉		

위의 표를 보면 先韻과 仙韻의 독용 현상이 나타나지만, 상호통압의 비율이 높아 두 운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寒韻과 桓韻의 독용과 통압 상황은 다음과 같다.

	寒	桓
寒	4	3
桓		2
〈표13〉 魏		

	寒	桓
寒	12	26
桓		7
〈표14〉 晉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운은 독용 현상이 나타나지만, 상호통압의 비율이 높아 두 운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先·仙韻과 寒·桓韻의 분합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면 先·仙韻과 寒·桓韻이 두 운부로 나누어지는지 아니면 합쳐져 하나의 운부로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先·仙·寒·桓韻의 네 운의 상호통압이 魏代에 1회, 晉代에 3회 뿐이기 때문에 두 운부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元·山·刪韻과 魂韻의 일부분이 독립하는지 아니면 어느 한 운부에 속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래는 元韻의 독용과 先·仙韻 및 寒·桓韻과의 통압관계를 나타낸 통계표이다. 편의상 先·仙韻을 A라 하고 寒·桓韻을 B라 하겠다.

	元	A	B
元	1	6	3
〈표15〉 魏			

	元	A	B
元	5	15	3
〈표16〉 晉			

위의 표에서 元韻은 先·仙韻과 동용함을 볼 수 있다.
아래는 山韻의 통압관계를 나타낸 통계표이다.

	山	A	B
山		5	
<표17> 魏			

	山	A	B
山	2	8	2
<표18> 晋			

(A는 先·仙·元韻이고, B는 寒·桓韻임)

위의 표를 보면 山韻은 A와의 통압이 B와의 통압보다 뚜렷이 많기 때문에 山韻은 A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魂韻은 앞에서 魏代에 두 류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하나는 ‘門崙’자이고 다른 하나는 ‘存’자이다. ‘門崙’자는 眞部에 속한다. 그러면 ‘存’자는 어느 운부에 속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아래는 ‘存’자의 통압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A	AB
存	4	1
<표19> 魏		

(A는 先·仙韻이고, B는 寒·桓韻임)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存’자는 B와의 통압이 나타나지 없어 A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刪韻의 통압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刪	A	B
刪		3	6
<표20> 魏			

	刪	A	B
刪	2	6	19
<표21> 晋			

(A는 先·仙韻이고, B는 寒·桓韻임)

刪韻은 통계상 B와 통압이 많아 B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실로부터 魂韻의 일부분과 元·寒·桓·刪·山·先·仙韻은 두 개의 운부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魏代의 元部는 《廣韻》 魂韻의 ‘存’자와 元·山·先·仙韻을 포함하고 있고, 晉代에서는 元·先·仙韻과 이에 상응하는 上·去聲 및 山韻과 이에 상응하는 上聲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魏代의 寒部는 《廣韻》 寒·桓·刪韻과 이에 상응하는 去聲을 포함하고 있으며, 晉代에서는 寒·桓·刪韻과 이에 상응하는 去聲을 포함하고 있다.

4) 陽 · 唐韻

《廣韻》 陽·唐 두 운은 魏代와 晉代 모두 독용 예가 있지만 두 운의 통압이 뚜렷하여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庚韻과 唐韻 동시에 속해 있는 ‘行’자는 陽部字와 14회(魏 5회, 晉 9회), 庚部字와 7회(魏 2회, 晉 5회) 압운하고 있어 두 가지의 독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行’자를 陽部와 庚部에 모두 포함시켰다.

陽部는 《廣韻》 陽·唐韻과 이에 상응하는 上·去聲을 포함하고 있다.

5) 庚 · 耕 · 淸 · 靑韻

兩漢의 庚部는 庚·耕·淸·靑 네 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魏晉에서는 변화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庚	耕	淸	靑
庚	1		11	1
耕				
淸			7	9
靑				1
<표22> 魏				

	庚	耕	淸	靑
庚	11	2	38	15
耕			1	
淸			21	38
靑				9
<표23> 晉				

위의 표는 庚·耕·淸·靑 네 운의 독용과 통압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우선

용례가 가장 많은 것은 庚韻과 淸韻의 통압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이 두 운은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晋代에 淸韻과 靑韻의 통압이 庚·淸韻의 통압 횟수와 같고 독용의 예도 있어 庚韻과 靑韻간에 구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운자상에 있어서 東韻처럼 차이도 나타나지 않고 또 庚·耕·靑 세 운의 통압이 魏代에 35회, 晋代에 71회나 있고, 庚·耕·淸·靑 네 운의 통압이 魏代에 4회, 晋代에 6회나 있어 네 운 사이에 구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庚部는 魏代에서는 《廣韻》 庚·淸韻과 이에 상응하는 去聲 및 耕·靑韻을 포함하고 있고, 晋代에서는 庚·淸·靑韻과 이에 상응하는 上·去聲 및 耕韻을 포함하고 있다.

6) 蒸·登韻

蒸韻과 登韻 두 운은 兩漢 때에 같은 운부에 속하였다. 魏代에서는 蒸韻의 독용 예는 3회 있고, 登韻 독용의 예가 1회 뿐이지만 상호 통압의 예가 없어 두 운부로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⁸⁾ 그러나 晋代에서는 蒸韻의 독용이 16회와 登韻의 독용이 1회 있는 반면에 蒸·登韻의 통압이 3회 있어 통계상으로 보면 두 운은 兩漢과 마찬가지로 동용한다고 할 수 있다.

魏代에 蒸部는 《廣韻》 蒸韻을 포함하고 있고, 登部는 《廣韻》 登韻을 포함하고 있다. 晋代의 蒸部는 《廣韻》 蒸·登韻을 포함하고 있다.

7) 侵·覃·談·鹽·添韻

《廣韻》에서 韻尾가 /-m/인 侵·覃·談·鹽·添·咸·銜·嚴·凡韻은 兩漢에서는 侵部와 談部 두 운부로 나누어졌다.⁹⁾ 魏代에서는 侵韻의 독용만 31

8) 文에서도 상호 통압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9) 侵·覃·凡韻과 鹽韻의 ‘潛’자는 侵部에 속하였고, 談·添·咸·銜韻과 鹽韻의 ‘廉檐銛’자 등은 談部에 속하였다.

회 있고, 晋代에서는 侵韻의 독용이 89회, 侵·覃韻의 통합 5회만 있어 侵·覃韻을 합쳐 하나의 운부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侵·覃韻 이외의 운들의 용례를 보면 談韻 독용이 1회, 談·鹽韻 통합이 1회, 鹽·添韻 통합이 1회뿐이지만 서로 계련이 되고 또 侵·覃韻과의 통합도 없어 兩漠처럼 나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侵部는 魏代에서는 《廣韻》 侵韻만이 포함되어 있고, 晋代에서는 覃韻도 포함되어 있다. 魏代의 談部는 談·添韻이 포함되어 있고, 晋代에서는 添韻도 포함되어 있다.

3. 結 言

각 운의 독용과 통합 상황으로 分部한 결과 이 시기의 陽聲韻은 魏代에 11운부, 晋代에 12운부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각 운부와 포함된 운류는 다음과 같다.

1. 東部-《廣韻》 東韻 3등과 冬韻
2. 鍾部-《廣韻》 東韻의 1등과 鍾韻 그리고 江韻
3. 眞部-《廣韻》 眞·諄·臻·文·欣·痕韻과 魂韻의 ‘門崙’자-魏代
《廣韻》 眞·諄韻과 이에 상응하는 上·去聲과 欣韻-晋代
4. 文部-《廣韻》 文韻과 이에 상응하는 去聲-晋代
5. 魂部-《廣韻》 魂韻과 痕韻-晋代
6. 元部-《廣韻》 魂韻의 ‘存’자와 元·山·先·仙韻-魏代
《廣韻》 元·先·仙韻과 이에 상응하는 上·去聲 및 山韻과 이에 상응하는 上聲-晋代
7. 寒部-《廣韻》 寒·桓·刪韻과 이에 상응하는 去聲-魏代
《廣韻》 寒·桓·刪韻과 이에 상응하는 去聲-晋代
8. 陽部-《廣韻》 陽·唐韻과 이에 상응하는 上·去聲
9. 庚部-《廣韻》 庚·清韻과 이에 상응하는 去聲 및 耕·青韻-魏代
《廣韻》 庚·清·青韻과 이에 상응하는 上·去聲 및 耕韻-晋代
10. 蒸部-《廣韻》 蒸韻-魏代

《廣韻》 蒸·登韻-晋代

魏晉-周祖謨		魏晉-본고		劉宋	
1	東(東韻 3等과 冬韻)	1	東(東韻 3等과 冬韻)	1	東(東,鍾,江韻)
2	冬(東韻의 1等과 鍾韻 그리고 江韻)	2	鍾(東韻의 1等과 鍾韻 그리고 江韻)		
3	眞(眞,諄,臻,文,欣,痕,魂韻)-魏 (眞,諄,,臻,文,欣韻)-晋	3	眞(眞,諄,臻,文,欣,痕韻과 魂韻의 '門崙'자)-魏 (眞,諄,欣韻)-晋	2	眞(眞,諄,臻韻)
		4	文(文韻)-晋	3	文(欣,文韻)
4	魂(魂,痕韻)-晋	5	魂(魂,痕韻)-晋		
5	先(元,先,仙,山韻)-晋	6	元(魂韻의 '存'자와 元, 山,先,仙韻)-魏 (元,先,仙,山韻)-晋	4	元(元,魂,痕韻)
				5	先(山,先,仙韻)
6	寒(寒,桓,刪,元,先,仙,山韻)-魏	7	寒(寒,桓,刪韻)	6	寒部(寒,桓,刪韻)
7	陽(陽,唐韻)	8	陽(陽,唐韻)	7	陽(陽,唐韻)
8	庚(庚,清,青,耕韻)	9	庚(庚,清,青,耕韻)	8	庚(庚,耕,清,青韻)
9	蒸(蒸韻)	10	蒸(蒸韻)-魏 (蒸,登韻)-晋	9	蒸(蒸韻)
10	登(登韻)	11	登(登韻)-魏		
11	侵(侵,覃韻)-魏	12	侵(侵韻)-魏代 (侵,覃韻)-晋	10	侵(侵韻)
12	覃(覃韻)-晋	13	談(談,添韻)-魏 (談,添,添韻)-晋	11	覃(覃,凡韻)
13	談(談韻)-晋				
14	鹽(鹽韻)-晋			12	鹽(鹽,添韻)

11. 登部-《廣韻》 登韻-魏代

12. 侵部-《廣韻》 侵韻-魏代

《廣韻》 侵·覃韻-晋代

13. 談部-《廣韻》 談·添韻-魏代

《廣韻》 談·添·添韻-晋代

그리고 周祖謨가 나눈 魏晉의 운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參考文獻]

- 《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逯欽立 輯校，木鐸出版社，1983，臺灣
- 《全漢三國晉南北朝詩》，丁福保，世界書局，1978，臺灣
- 《全上古秦漢魏晉南北朝文》，嚴可均，世界書局，1982，臺灣
- 《互註校本宋本廣韻》，余迺永 校著，聯貫出版社，1980，臺灣
- 《南北朝文學史》，曹道衡 沈玉成，人民大學出版社，1991，北京
- 《魏晉南北朝民族史》，白翠錦，四川民族出版社，1996，中國
- 《魏晉南北朝史》 勞榦，中國文化大學出版部，1980，臺灣
- 《中國古代語言學史》，何九盈，廣東教育出版社，2000，中國
- 《漢語音韻學》，董同龢 著，孔在錫 譯，凡學圖書，1975，서울
- 《方言與中國文化》，周振鶴 游汝杰，上海人民出版社，1986，上海
- 《中國古代文學史》，허세욱，法文社，1986，서울
- 《兩漢魏晉南北朝韻部演變研究》第一分冊，羅常培 周祖謨，科學出版社，1958，北京
- 《魏晉音韻研究》，丁邦新，《中央研究員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六十五》，1975，臺灣
- 《漢魏六朝韻譜》，于安瀾，河南人民出版社，1898，中國
- 《龍蟲並雕齋文集》，王力，中華書局，1980，中國
- 《周祖謨學術論著自選集》，周祖謨，北京師範學院出版社，1993，北京
- 《南北朝韻部演變研究》，何大安，臺灣大學博士學位論文，1981，臺灣
- 〈魏晉詩韻考〉，林炯陽，《師大國文研究所集刊》16期，1972，臺灣
- 〈北魏·北齊詩韻小考〉，李雄吉，《論文集》第7集，2001，東西大學校
- 〈魏晉南北朝之脂支三部及東中二部之演變〉，王越，《國立中山大學文史學研究所月刊》第1卷 2期，中國

[中文提要]

在中國史上, 由于長期的戰爭、頻繁的建國和興衰、異族的中原侵入, 魏晉南北朝是大昏亂期. 在語言方面上, 北方語和南方語互相融合現象出現了. 還有由于佛教的盛行、韻文的發達、文學批評繁榮, 對語言學發展起了很大的影響. 所以這時期是能够糾明上古音到中古音之音韻演變的重要的時代. 在漢語音韻史上, 魏晉南北朝時代是上古和 中古的過渡時期. 特別魏晉時代是兩漢時期和南北朝時期的過渡期.

本稿以《先秦兩漢魏晉南北朝詩》為考察材料, 聯系魏晉時期文人使用的詩的押韻情況 分析來陽聲韻可以類分幾個韻部, 以及每一韻部里面有什么韻類, 進而考察比較周祖謨分類的魏晉的韻部及劉宋時期的韻部起來有什么樣的差異.

結論認為, 魏晉時期的陽聲韻可以類分出魏代11韻部(東部, 鍾部, 真部, 元部, 寒部, 陽部, 庚部, 蒸部, 登部, 侵部, 談部), 晉代12韻部(東部, 鍾部, 真部, 文部, 魂部, 元部, 寒部, 陽部, 庚部, 蒸部, 侵部, 談部).

[국문요약]

중국사에서 약 400여년에 걸친 魏晉南北朝시대는 오랜 전란, 이민족의 침입, 잦은 왕조 교체 등으로 인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혼란의 시기였다. 언어상으로는 대규모의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해 북방어와 남방어가 융합되는 국면이 형성되었고, 또한 불교의 성행, 운문(韻文)의 발달, 문학비평의 변영 등으로 인해 언어학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초가 마련된 시기이기도 하다.

한어사에서 이 시기는 上古音시대부터 中古音시대에 이르기까지 언어체계의 변천 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漢語音韻史에서 魏晉南北朝시대는 上古와 中古의 과도시기라 할 수 있다. 특

히 魏晉시대는 兩漢시기와 南北朝시기의 교량 역할을 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양성운(陽聲韻)은 몇 개의 운부로 나누어지고, 또 각 운부 속에 어떠한 운류(韻類)의 글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周祖謨가 분류한 魏·晉의 운부 및 劉宋시기의 운부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각 운의 독용과 통압 상황으로 分部한 결과 이 시기의 陽聲韻은 魏代에 11운부(東部, 鍾部, 眞部, 元部, 寒部, 陽部, 庚部, 蒸部, 登部, 侵部, 談部), 晉代에 12운부(東部, 鍾部, 眞部, 文部, 魂部, 元部, 寒部, 陽部, 庚部, 蒸部, 侵部, 談部)로 나누어짐을 볼 수 있다.

關鍵詞 : 陽聲5韻, 魏晉韻部, 通押關係, 韻類, 統計

투고일: 2008. 10. 30.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從漢語吳方言人稱代詞複數後綴談起

黃金城*

<目次>

1. 問題的提出
2. 漢語人稱代詞複數後綴
3. 藏緬語人稱代詞複數後綴
4. 关于苗瑶语和壮侗语的讨论
5. 阿爾泰諸語言的人稱代詞複數後綴
6. 一個假設
7. 餘論—人類遺傳學研究新成果的啟示

1. 問題的提出

潘悟雲(2002:302)提出:“许多吳語的複數後綴來自處所詞‘口’(左“土”右“耷”)”。“我耷”經歷了“我這兒”->引申為“我方”->最後引申為“我們”的演變。潘還構擬了這個後綴在吳語各方言點上的種種語音變化過程,即聲母有濁音化或流音化或鼻音化,或與前面的代詞“我”合音;韻尾則有舒聲和帶喉塞音-ʔ的入聲這兩類。最後形成t-/d-、l-以及n-等形式(案聲調略去不標)。我們把這些形式語音特點重新分為三組,即:舌尖塞音t-類,邊音l-類和舌尖鼻音n-類。

潘的假設在吳語區這樣一個“充分小的範圍”內似可自圓其說,但只要把考察範圍放大,就會遇到一系列問題:

* 釜山外國語大學 中文系 交換教授。謹對本文的匿名審閱者致以謝意。

(1) 由於此三類代詞複數後綴 廣泛存在於漢語各大方言，因此要解釋：它們跟吳語相關形式有何關係？如屬同類，那麼它們的歷史演變過程是否一樣？

(2) 由於此三類代詞複數後綴 廣泛存在於藏緬語，因此還要解釋：它們跟藏緬語相關形式的關係如何？

(3) 此三類代詞複數後綴基本上不見於苗瑤、壯侗諸語言。這是什麼原因？

(4) 令人吃驚的是，阿爾泰諸語言人稱代詞複數的典型形式也跟上述幾種後綴相同。這裏是否有什麼特別的含義？

換言之，在整個東北亞地區都存在著這些代詞複數形式，它們之間究竟是否有聯繫？抑或只是純屬巧合？以上問題若不解決，潘的假設就難以接受。

2. 漢語人稱代詞複數後綴

2.1 現代漢語普通話人稱代詞複數標記是一個類似後綴的附加成分 “們”。關於“們”的來源，雖然已有很多人做過研究，作出種種推測，但是實際上並沒有得到解決。本文主要內容不討論這個問題。

2.2 現代漢語方言中，表示人稱代詞複數的手段很多，歸納起來，大致包括三種情況：(1) 變換整個音節，比如蘇州城內第一人稱單數 “我”，複數“侬”；(2) 內部曲折，如陝西商縣話用改變聲調的方法區別人稱代詞的單複數；(3) 後接附加成分。材料顯示，漢語各方言裏複數附加成分的形式相當複雜多樣，遠遠不止一個“們”字。

2.2.1 僅以吳語來說，袁家驊(1960:88)曾列舉過4組10多個後附成分(袁稱為“詞尾”)。我們對吳語中的這些成分重新排列為：

- (1) t類：-to' -the' -de 等。
- (2) l類：-li' -le' -laŋ' -la' -lo 等。
- (3) n類：-na' -ni' -noŋ等。
- (4) 其他類：略。

前三種潘文均已提及，本文正是要集中討論這三類複數附加成分。文中所引的各種方言材料主要出自陳章太、李行健(1996)，袁家驊(1960)，詹伯慧(1980)，張振興(1992)和趙元任(1958)等。

2.2.2 t類成分在漢語方言中分佈甚廣，n類和l類也時有所見。t類成分舉例如下：

	襄恒	西安	南昌	廣州	梅縣
“我們”	我都	我的	我tuŋ	我哋	捱兜
“你們”	你都	你的	你tuŋ	你哋	你兜
“他們”	他都	他的	佢tuŋ	佢哋	佢兜

有三點需要說明：

(1) 以上所舉的各種 t 類成分，只能附在人稱代詞後表示複數，所以普通話“們”與t類成分性質不同。事實上，它們的來源也不同。

其次，客家話中除去上舉“兜”之外，還有“等”，“等人”，“丁”等語音形式。另外，梅縣的“兜”還可獨立用作數詞。這樣看來，“兜”究竟與其他方言t類成分是否性質相同，尚需進一步研究。

第三，t類成分在山西方言（南片）廣泛存在。但它的來源究竟是什麼，還需要討論。（參見下文3.2）

2.2.3 n 類成分舉例如下：

	海南（閩南）	福州
“我們”：	我人	儂家各人
“你們”：	汝人	汝各人
“他們”：	伊人	伊各人

案閩南話常在人稱代詞單數形式後加上-n來構成複數形式。試比較

(只舉第一人稱)：

	<u>廈門</u>	<u>潮州</u>	<u>平陽</u>
“我”：	gua ⁵³	ua ⁵³	gue ⁴⁵³
“我們”：	gu(a)n ⁵³	u(a) ⁵³	gu(a)n ⁴⁵³

邵慧君(2003)認為閩語材料應理解為有合音過程。她的論證基本可信。

2.2.4 再看 -l 類成分。

	<u>南昌</u>	<u>永福(漳平)</u>	<u>上海</u>	<u>天臺</u>
“我們”：	我l-	我l-	阿拉(阿辣)	我拉(個)
“你們”：	你l-	你l-	僚	爾拉(個)
“他們”：	佢l-	伊l-	伊拉	佢拉(個)

l類成分在廣東吳川方言中表現得很特別。吳川方言內部很複雜，其中有閩語系的東話，粵語系的梅錄話以及屬於來源不太明確但可能與閩語有關的海南話和土白話。在這些不同的土語中均分佈有t類成分，且其語音形式十分相似：梅錄話，海話和吳陽土白話均為“禮”(l-)，而東話則為“儂”(l-)。(張振興 1992)

戴昭銘(2003)說，天臺方言的“拉(個)”來源於“兩個”，“拉”即“兩”。這個觀點看起來很有道理，值得進一步深入探討。

2.2.5 關於t類形式，我們認為這是一個非常古老的構形成分。漢語史上一些傳統觀點應據此加以重新認識。比如，高名凱先生(1986:138)曾斷言：“廣州話，客家話(人稱代詞複數成分)是以t為聲母的，這顯然是古語“等”的後身”。高先生的看法頗有代表性。但按我們的看法，事情正好相反，即古漢語的“等”乃是t類成分的一種形式。漢語中t類成分並無實義。

這一觀點還可以擴大開去。王力、呂叔湘、周法高先生等前輩學者差不多都認為古漢語可以表示複數的“儕，屬，曹，輩，屬”等字，和“等”一樣，都有實義，不能算做詞綴或附加成分。我們認為對這個問題應該重新研究。

試以“儕”為例：

根據“東方語言學”網(<http://www.eastling.org/>), “儕”字古音脂部崇母開口二等字。李方桂擬音為*dzrid, 鄭張尚芳和潘悟雲上古擬音為zri:l, 中古音擬為dzei。

現代漢語方言中有這樣一類複數附加成分, 其語音形式往往很特別, 如: 吳語丹陽話的“儕”, 湖北蒲圻話tʂe (寫作“者”), 福建連城新泉話tʂhi (寫作“儕”)等。孤立地看, 難以追尋其語源。但考慮到藏語, 達讓僮語, 土家語(見下文)等材料, 那麼大致可以認為, 它們屬於同一類複數附加成分, 是t類成分中的一種。我們猜測, 其實這些都是很古老的複數附加成分, 後來音變為不同形式。等到要寫的時候, 就只好用分別不同的漢字記音。這樣一來, 也就因為漢字而獲得了種種“實義”。很顯然, 這跟通常所謂的實詞“虛化”、“語法化”過程截然不同。因此, 我們可以說, “儕”的所謂“實義”, 應當是後起的。“等”字也是一樣。

因此, 在追尋語源時, 應該注意排除漢字的干擾。因為漢字常常只是一個記音符號, 即使所謂“本字”, 並不見得就能代表語源。此處的“等”是如此, 後文將要討論的“家”也是如此。

2.2.6 由於漢語方言材料不夠充分, 我們不能準確地說出t類, l類, n類成分的全部分佈範圍, 但僅上面所舉材料就已涉及北方方言, 湘方言, 吳方言, 贛方言, 閩方言, 客家方言和粵方言。實際上漢語各大方言都已包括在內。所以, 這三種複數附加成分實在是不可忽視的。

2.3 關於k類成分

在本小節中, 我們要簡略地討論部分漢語方言地區表示複數的k類附加成分及相關問題。

2.3.1 漢語吳方言區有些地方有一種k類成分, 如ka(武進, 宜興, 栗陽), ka(江陰)。呂叔湘(1985: 89)認為, 這個“表複數的語尾”是從近代漢語(始於唐宋)代詞後附的“家”字發展而來的。此字的用法同“們”, 但二者來源當然不同。呂叔湘又指出, 這個“家”字是從其領格用法擴展為表示非領格的用法(無語法作用, 僅作音綴)然後才變成複數語尾的。

僅從現有漢語文獻資料來看，呂叔湘的觀點是合乎邏輯的。但是如果擴大視野，看看以下漢語其他情況以至漢語周圍藏緬語的一些事實，我們對這個“家”的性質就會有不同認識。

2.3.2 袁家驊（1980：142，303）在記錄南昌話與福州話代詞複數形式時採用了不同做法：

	南昌	福州
“我們”：	我□裏	儂家各人
“你們”：	你□裏	汝各人
“他們”：	佢□裏	伊各人

（“□裏”音koli）

對福州話，他很有把握地注出了“本字”（同音字？），但是對南昌話，他只是用一個方框□表示ko，這說明他不知道這個ko的來歷。

2.3.3 在山西方言裏，主要是山西南部地區，成片地分佈著t類成分，如：萬榮ti，təu，洪洞tiu，臨猗tei、ti等。據喬全生先生在給筆者的信中所說，運城地區十多個縣都都有這個t類成分，其讀音形式有ti—tia—tʃia及合音等。喬先生認為，所有這些都是“家”的一種形式。之所以這麼說，一是因為在那些地區讀音有ti~tʃ尖團變換的現象，二是山西方言中原官話區內，中古音見母字現在仍保留著尖音讀法，比如：見tian，肩tian，經tie，雞ti，叫tiao，撿tian等。萬榮話的“家”至今仍讀為尖音聲母。

不過看來大部分方言學者並未意識到山西方言代詞的t類複數後綴成分與“家”的聯繫，所以他們報導的語言材料中都把此類複數成分寫作“底的，都”等字。

如此看來，山西方言等複數成分究竟是t類還是k類成分，以及其性質還需要繼續研究。

2.3.4 至於粵方言複數後綴的塞音韻尾-k，不少人認為是代詞與“家”的合音。比如，游如傑先生2003年在“第三屆吳方言國際學術研討會”上就發表過這樣的看法。

3. 藏緬語人稱代詞複數後綴

3.1 在藏緬語中，人稱代詞複數的構成也有三種方式：(1) 變換音節，如彝語(南澗)“我—我o²¹”；(2) 內部曲折：白語“我o — 我們a”；(3) 後接一個附加成分。和漢語一樣，藏緬語中最後一種方式是最常見的。

藏緬語中，複數附加成分同樣也很複雜。基本上可以歸納為t類，l類，n類，以及s類和k類。s類例子如歸瓊語zi，藏語夏河話zo等，本文不擬涉及；k類成分放在第三小節討論，現在只討論t，l，n三類。

此外還有唇音m /p類。如彝語彌勒語bo，載瓦語 moʔ 等。

3.2 t類成分分佈很廣。如：

	怒語	阿昌語	倉洛門巴語
“我”：			
“我們”：	我-d	我t-	我t-
“你”：			
“你們”：	你d-	你t-	你t-
“他”：			
“他們”：	他d-	他t-	他t-

這些都是典型的t類成分。除此以外，羌語(桃坪)，呂蘇語，哈尼語(豪白)，景頗語，緬文，現代仰光緬語等，均有分佈。

3.3 n類成分在藏緬語中的分佈也很廣。如：

	西夏文	浪速語
“我”：	遏輕	
“我們”：	遏輕能	我n-
“你”：	寧	

“你們”：	凜能	你n-
“他”：	精	
“他們”：	精能	他n-

此外，藏語德格話，道孚語，卻域語，勒期語，木雅語，傑傑語，爾龔語等中均存在n類成分。（參考馬蒂索夫1987:21）。

3.4 相比之下，l類成分在藏緬語中甚是少見。義都珞巴話中的 lon（博嘎爾作 lu）堪稱典型：

“我們”：	我a ³¹ lon ³⁵
“你們”：	你a ³¹ lon ³⁵
“他們”：	他a ³¹ lon ³⁵

這一類成分在羌語，爾龔語和僜語中有零星分佈。

3.5 藏語，僜語，黎巴語中有 tsho, tɕu 之類的複數形式，藏語，門巴，普米，爾蘇，史興等語言有r為聲母的複數形式（rA, ri等）。

先說後一種。藏緬語中，r-l轉換不是罕見的。比如，藏語安多方言韻尾 r~l 可以自由變讀（金鵬1983:138）。再比如：羌語北方方言r 與南部方言l對應（孫宏開1981:180），白保羅（1972:14）也曾注意到這一點。據此，我們把r類歸入l類。

至於塞擦音那一類，比較複雜。首先有一點是很明顯的，即它與擦音s類是對應的。比如白保羅（同前，p130）所說：“藏緬語中舌尖音後綴 s 與ds歸成一類。”這樣的例子是充分的：藏語夏河話，澤庫語中人稱代詞複數附加成分zo與藏文及拉薩話tsho對應；獨龍語中獨龍河方言dz與怒江方言z對應（孫宏開 1982:192）；納西語與獨龍語情況相同（和即仁等1985:108）。

但是有種種跡象顯示，塞擦音這一類與t類成分可能有關。下面看一組彝語方言例子（注意詞義的相關性）。

喜德（四川） 南澗（雲南） 大方（貴州）

“井”：	-dz-		-d-
“窟窿”：	dz-	-du	du-
“眼”：	-dz		-du ³³

從這些例子可以發現，彝語各方言中塞音d-與塞擦音dz-的對應關係十分清晰。

現在來看阿昌語方言的材料（戴慶廈等1985:73）：

	隴川	潞西	梁河
“水”	ti ⁵⁵	te ²¹	tʂɿ ⁵⁵
“井”	ti ⁵⁵ mo ³⁵	tei ²¹ thom ³⁵	tʂɿ ⁵⁵ luŋ ⁵⁵
“溝”	ti ⁵⁵ khzua ²¹	tei ²¹ loŋ ⁵¹	kou ⁵⁵ tʂ
“筷子”	tam ⁵⁵ tʂ ²¹	tsu ⁵¹	teŋ ²¹
“會”	tat ⁵⁵	tat ²¹	teŋ
“到”	te ³⁵	teɛ ⁵¹	tee
“裂開”	tiak ³⁵	tiak ⁵¹	te

以上顯示了阿昌語方言間 t tets 的對應。

白保羅（同前，p103）也曾提到過“西部藏語中：pus-mo < *puds（膝） < 藏緬語 *put*。

3.6 根據上面的材料，可以確認藏緬語t, l, n三類複數附加成分都是有共同來源的。

李永燧（1985:189）認為，藏緬語各語言人稱代詞複數附加成分不對應，所以“只能說複數人稱代詞的詞根同源（限於第一、二人稱），表示複數的附加成分則不同源”。這是我們不同意的。

3.7 跟漢語方言情況相同，k類成分也出現在藏緬語語言中：

	“我們”	“你們”	“他們”
羌語	tsəχa	kuəi-χa	thəχa
納木義	ŋo ⁵⁵ χo ³³	no ³³ χo ³³	tethiχo ³³
彝（喜德）	ŋo ²¹ yo ⁴⁴	no ²¹ yo ⁴⁴	sho ³³ yo ⁴⁴

(大方)	ŋo ²¹ xu ³³	na ²¹ xu ³³	th ²¹ xu ³³
(南華)	ɣua ³³ ku ³³	ne ²¹	?A ²¹ A ³³
納西 (麗江)	ŋə ³³ ŋɣu ³¹	nu ³³ ŋɣu ³¹	thu ³³ ŋɣu ³¹
拉祜	ŋA ³¹ xu ³³	no ³¹ xu ³³	zo ³¹ xu ³³
白 (碧江)	ŋa ⁵⁵ ɣo ⁵⁵	na ⁵⁵ ɣo ⁵⁵	ba ⁵⁵ ɣo ⁵⁵
珞巴 (蘇龍)	gə ³³ ɣəŋ ³³	nah ³³ ɣəŋ ³³	va ³ ɣəŋ ³³
納木茲	ŋa ⁵⁵ χuo ³¹	nuo ³¹ χuo ³¹	tɛhe ⁵⁵ χuo ³¹

我們還不能肯定藏緬語中這些舌根音類複數附加成分的來源，也沒見過討論這一問題的專門論文，但是我們推測，這些成分很可能有共同來源，並且和漢語方言中k類成分也存在著歷史聯繫。漢語裏用“家”字記錄的複數成分可能已經有相當長久的歷史了，只是它存在於活的口語中，而漢語文獻資料裏並沒有能夠反映出這一事實。因此，不妨認為“家1”是名詞，“家2”是k類成分。

4. 关于苗瑶语和壮侗语的讨论

在苗瑤語和侗台語中，偶然也有t類成分出現，但都零碎不齊。如黎語ta’ 壯語ti 苗語to等。現在要問：這些t類成分與漢語、藏緬語中的t類成分是否同源？

王輔世先生曾告訴筆者，苗語to原是個量詞，義為“些”。nen-to（“他們”）可能是由nen⁵⁵-to-ne⁵⁵（他-些-人）省略而成的。王先生還認為，由於to本身為量詞，所以即使現在已虛化為一種表複數的附加成分，那也是與漢語、藏緬語的t類成分無關的。

王先生的分析很有道理。很明顯，不僅苗語，就是黎語、壯語中的t’也應當做同樣的分析。換言之，苗瑤，侗台語裏的所謂“t類成分”與漢語藏緬語中的t類成分，很可能是偶然的同形現象。當然，也不排除借用的可能性。

同樣的道理，雖然l類成分在苗瑤語壯侗語也有零星的分佈（如：臨高

話lo)，但無法找出其苗瑤語或壯侗語的共同來源。

游如傑(2003)也指出，粵方言t類成分(包括“叻”，ti等)來自量詞。

5. 阿爾泰諸語言的人稱代詞複數後綴

令人驚奇的是，上述漢語藏緬語中t' l' n' s類複數附加成分，在阿爾泰諸語言中竟然廣泛存在。

關於阿爾泰諸語言複數人稱代詞構成方式有不同的意見。W.Kotwicz指出：“人稱代詞的複數形式系由相應的單數代詞詞幹通過增加標誌da(蒙古語)，z(突厥語)的方法組成”。(轉引自蘭司鐵1981:349)。孟達來(2001:126)指出阿爾泰各語言的名詞複數附加成分有-s, -t, -n以及-l等類。從以下材料，可以清楚看到現代各種複數附加成分：

5.1 突厥語族

	西裕語	維吾爾	哈薩克	柯爾克孜	撒拉	烏孜別克
“我”	men	mən	men	men	men	men
“我們”	məsder	biz	biz	biz	piser	biz//bizlær
“你”	sen	ʃən	sen	sen	sen	sen
“你們”	seler	silər	sender	sile	selar	sizlær/sizder(尊稱)
“他”	a	u	ol	al	u	ə
“他們”	alar	ular	olar	alar	ular	əær

5.2 滿洲-通古斯語族

	錫伯	鄂溫克	鄂倫春	赫哲
“我”	bi	bii	bii	bi
“我們”	bo	buu	buu	bu
“咱們”	məs	miti	mitiimmir	bəti

“你”	bəi	ʃii	ʃii	ci
“你們”	bəis	ʃuu	ʃuu	su
“他”	i	əri	nɔganɪn	niani
“他們”	tʂə	tallɔ	nɔgartɪn	gurunti

5.3 蒙古語族

	蒙古	東鄉	達斡爾	保安	土族	東部裕固
“我”	bii	bi	bii	bu	bu	bu
“我們”	bəd	bidziən	baa	bədə	buda	budə
“咱們”		matan	bed	mangə		budas
“你”	tʃi	tʂuu	ʃii	tɛi	tɛə	tʃə
“你們”	tanaar	ta	taa	ta	taɲula	ta
“他”	əd	tərə	tər	ŋgəŋ	rgen	ene / tere
“他們”	tə	təəa	təd	ŋgəŋlə	rgəŋgula	enes / teres

儘管對以上有關成分的性質和來源還有不同的看法，但事實是清楚的：d/t, l, n, s類成分確實存在於阿爾泰語言中。讓我們注意這四類成分的共同特點：舌尖音（在現代語言中有的表現為非舌尖音）。

5.4 實際上，以上各種人稱代詞複數附加成分同名詞的複數附加成分是一致的，根據蘭司鐵的說法（1981:52-4），蒙古語中最古老的複數形式有-t, -d, -s, -n等。而通古斯的-l, -il, -r則可以跟蒙古語的-d相聯繫。（參考孟達來2001:118-128）。¹⁾

1) 韓國語人稱代詞複數後綴 *tuur*，相當整齊，屬於本文所說的 t 類成分。日語“我們”的 *-domo* (*tamaedomo*)，*-tati* (*watasitati*)，*-re* (*wareware*) 也有可能跟 t 類成分具有同樣性質。

6. 一個假設

6.1 既然漢語藏緬語和阿爾泰諸語言中都存在相同的人稱代詞複數附加成分，那麼我們就有理由大膽地提出假設：在人類語系分化形成之前的史前時期，這些成分曾在亞洲的東北部廣大地區出現，是這一廣大地區裏各語言的一種共有成分。至於這種同一性究竟是發生學性質的還是由接觸造成的，目前不必急於下結論。到了後來，在各語言中它們經歷了不同的複雜變化。就漢語而言，這些成分只有部分方言中還有殘留，所以不易察覺。順便說一句，這一事實告訴我們，有些語言現象不能從書面材料中發現，但卻存在於活生生的口語中。潘悟雲先生曾經談到的“口語材料優先”恐怕也就是这个道理。

6.2 對於這個假設，估計有人會表示疑惑，原因有四：其一，本文突破了漢藏和阿爾泰這兩大語系的藩籬，討論的是“跨語系同源成分”；其二，各語言中複數形式十分相似，這跟歷史比較語言學“同形多異源，同源多異形”的經驗顯然不合；其三，把時空跨度如此之大的材料攔在一個平面上作共時的處理，而沒有分析時間層次；第四，一種語法成分在經歷了如此之長的時間之後，其語音面貌竟然仍舊維持基本不變。

在本文開頭所引潘悟雲先生的文章中，有一段精闢的論述：“在充分小的地理範圍，某個虛詞有多種形式，向‘分’的方向處理很簡單，只要給每種形式一個方言字，認為它們各有來源即可，但是並沒有給我們的研究增添什麼新的內容。如果向‘合’的方向處理，設法證明它們有共同的來源，就要花大力氣，但是語言學意義也就大了。”潘把這個觀點叫做“從合不從分原則”。而本文正是做的“從合”工作，其難度和風險之大不言而喻。我們認為，複數附加成分屬形態範疇，在這個領域裏獲得的“同一性”證據的價值遠大於一般“同源詞”。所以，儘管本文提出的只是一種假設，但是這個假設是那麼的具有吸引力，我們還是願意提供給學界，以求證實或證偽。

6.3 關於“突破漢藏和阿爾泰這兩大語系的藩籬”，還要多說幾句。1985

年參加在貴陽召开的民族語言學年會時，筆者第一次提出這個話題，即“應當重視對漢藏語系和阿爾泰語系關係的研究”。當時所憑藉的材料還不多。近年來學術界的新成就提供了一些新的證據，其中值得一提的是潘悟雲先生對漢藏語音節結構類型的研究。

潘悟雲在九十年代就提出上古漢語“次要音節（“一個半音節”，“前冠音”）”的理論。他推測：“東南亞語言大的發展趨勢是從雙音節的語素發展為一個半音節，一個半音節再縮減為一個音節”。²⁾換一個角度來看，“一個半音節”可以理解為避免詞首出現複輔音。這顯然跟阿爾泰語言的特徵相似。一旦接受了他的看法，那麼就不難推斷：

1. 上古漢藏語音節結構類型跟阿爾泰語言相仿。

2. 因此必須深入研究漢藏語系和阿爾泰語系的關係。大而言之，是要研究史前時期東北亞諸語言之間的关系。

6.4 筆者曾經就本文主要觀點跟潘悟雲先生交換過意見。潘先生的意見集中在兩點：首先是為什麼採用遠程比較的（mass comparison）方法；第二，為什麼按聲母分組？這兩點實際上是同一個問題的兩個方面。

潘說“簡單地把它們都統一在聲母 l- 之下比較，那是沒有意義的”。如果僅僅從字面的意思來看，這個觀點當然是正確的。但是其實這句話應該理解為：“應該追溯這些成分的來源，而不能因為聲母相同就放在一起”。

潘試圖在一定範圍（吳語以及漢語其他方言）內證明複數詞尾的共同來源是處所詞。就筆者所知，張惠英先生早有類似看法。她的《漢語方言代詞研究》一書提出，代詞複數詞尾有兩個來源，一個是來自表示“家庭，門戶，宅裏”的實詞，另一個來自領屬助詞（p199-202）。游如傑先生提出過三個“基本類型”（《吳語和閩語的比較研究》，p32），其第三個是單數代詞+量詞“些”。這個意見跟王輔世先生一致。此外，還有一些學者直接使用複數詞尾的本字（未經注明的“本字”）。但是對於這些看法，筆者都沒有

2) 潘的“東南亞語言”指“華澳語系”，其涵蓋範圍很廣，包括漢藏，南島，南亞諸語言。

把握確認，所以就採用一個簡單的辦法，把這些複數形式放在一起按聲母分組。

其實，按照語音形式分組並非筆者的創造。袁家驊先生就曾經部分地使用過這個辦法。

本文確實採用跨語系遠端比較的方法，研究材料涉及範圍相當大。從這些複數成分的語音形式和語法意義來看，相關性顯而易見，然而至今還沒有放在一起系統地开展過什麼研究。潘先生在2002年的文章中提出“從合不從分”的

原則，實在精闢之極。筆者的想法就是先把有關材料羅列出來，希望有人會感興趣，作進一步的深入探討。這個課題比較大，最好有一批不同語言的研究者合作探討。

可以想像，探索的結果可能會出現多種情況，諸如：

1. 因種種原因，無從追溯這些成分的淵源；
2. 能夠找到來源，解釋其演變過程：
 - a 證明全部或部分有共同來源
 - b 證明全部或部分為借用關係
 - c 證明全部或部分純屬聲母偶然相似，其實無關

無論結論是“分”還是“合”，在學術上都是很有意義的。

7. 餘論—人類遺傳學研究新成果的啟示

從科學的角度來說，歷史語言學的研究成果應該能夠得到相關學科的支援，包括考古學、人類學、歷史學乃至民族學、宗教學等。

上文6.2節提到，關於漢藏-阿爾泰這樣的遠端比較總是有點讓人覺得不太可靠。不過，人類遺傳學的新進展給我們的思路提供了強有力的支持。

李輝(2004:165-180) 介紹說：“體質形態的分類主導地位在近二十年

內漸漸被單倍遺傳系統所取代。所謂單倍遺傳系統是指純由父母之中的唯一一方遺傳延續的遺傳分子。包括母系遺傳的線粒體和父系遺傳的Y染色體非重組區。這些單倍分子不受混血影響，其中的無功能區又自由忠實地記錄了群體分離的歷史。以此判定人種和次人種，層次結構相當清晰。”

從李輝的文章我們知道在這個領域裏，有許多非常重要的發現：“問題已經相當清楚了，在遠東替代棕色人種的黃色人種是從外部進入的，入口就是東南亞。”“從最合適的單倍遺傳標記分析看，東亞人群幾乎全部是從南方進入而後向北擴散的。”（李，同前）

具體的過程大致是：“當時的末次冰期不僅僅造成了海平面的下降，大陸邊緣的延伸，另一個效應是當時的一些不高的山都是積雪冰封。所以長江流域和珠江流域之間的南嶺居然成了一個不小的阻隔。這限制了黃種人向北的遷徙。當然，可能還是有一些人進入了北方，這些人可能攜帶了特色Y單倍群P。他們與後來到來的黃種人混合以後形成了黃種人的北亞支，就是阿爾泰語系(Altaic)的祖先。末次冰期結束使黃種人大量北上，這個時間在大約兩萬年到一萬年前。北部的阿爾泰群與當時北上的兩支黃種人廣泛地發生了混血。至今可以明顯地看到，東部混有較多的沿海支成分O1，中部混有較多的內陸支成分O3。”（李，同前）

毫無疑問，遺傳學不能代替歷史語言學，但是完全可以為後者提供相關的旁證。就以本文來講，如果發現漢藏語與阿爾泰語之間存在什麼聯繫，那麼從人類早期遷徙史角度來看是完全沒有什麼可以奇怪的。

[參考文獻]

- 巴斯卡科夫，《阿爾泰語言及其研究》油印漢譯本（1983）
白保羅，《漢藏語概論》（中國社會科學院民族所，1984）
波 普，《阿爾泰語言學引論》油印漢譯本（內蒙古大學蒙語所，1984）
北大中文系語言教研室，《漢語方言辭彙》（文字改革出版社，1984）
陳 康，〈彝語人稱代詞的“數”〉，《民族語文》（1987:3）
陳有恆，〈湖北蒲沂話的人稱代詞〉，《方言》（1990:3）

- 陳章太, 李行健,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匯集》(語文出版社, 1996)
- 戴慶夏等, 《藏緬語十五種》, (北京燕山出版社, 1991)
- 戴昭銘, 《天臺方言的代詞》, 第三屆國際吳方言學術討論會(2003)
- 丁邦新, 〈漢藏語言研究法的檢討〉, 《中國語文》(2002:6)
- 甘於恩, 〈廣東粵方言人稱代詞的單複數形式〉, 《中國語文》(1997:5)
- 高名凱, 《漢語語法論(重印本)》(商務印書館, 1986)
- 侯精一等, 《山西方言志叢書》(語文出版社, 1991)
- 捷尼舍夫, 《突厥語言研究導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2)
- 竟 成, 〈應當重視對漢藏語系和阿爾泰語系關係的研究〉, 《上海教育學院學報》(1985:3)
- 竟 成, 〈古代漢語母音和諧現象〉, 《探索與爭鳴》(1987:增刊)
- 蘭司鐵, 《阿爾泰語言學導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1)
- 李 輝, 〈走向遠東的兩個現代人種〉, 《國立國父紀念館館刊》(2004)
- 李方桂, 《上古音研究》(商務印書館, 1980)
- 李永燧, 〈漢語藏緬語人稱代詞探源〉, 《中國語言學報》(1985:2)
- 梁 敏, 〈臨高話簡介〉, 《民族語文》(1981:1)
- 劉景憲, 趙阿平等, 〈關於滿語名詞複數的研究〉, 《民族語文》(1993:3)
- 呂叔湘, 《近代漢語指代詞》(上海教育出版社, 1985)
- 馬蒂索夫, 〈藏緬語言究對漢語史研究的貢獻〉, 載《語言研究論叢》(四)(南開大學出版社, 1987)
- 馬學良, 《漢藏語概論》(北京大學出版社, 1991)
- 孟達來, 《北方民族的歷史接觸與阿爾泰諸語言共同性的形成》(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 民族出版社, 《中國少數民族語言簡志叢書》(1985)
- 倪大白, 《侗台語概論》, (中央民族學院版社, 1990)
- 潘悟雲, 〈對華澳語系的若干支援材料〉, 《中國語言學報》(1995:專刊)
- 潘悟雲, 《漢語歷史音韻學》(上海教育出版社, 2000)
- 潘悟雲, 〈漢語否定詞考源〉, 《中國語文》(2002:4)
- 錢乃榮, 《當代吳語研究》(上海外語教學出版社, 1992)

- 邵慧君, 《“儂”字稱代演化軌跡探論》, 第三屆國際吳方言學術討論會 (2003)
- 孫宏開, 〈六江流域的民族語言及其系屬分類〉, 《民族學報》(1983:6)
- 孫宏開等, 《門巴, 珞巴, 僜人的語言》(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0)
- 王 力, 《漢語史稿(中)》(中華書局, 1980)
- 宣德五等, 《朝鮮語簡志》(民族出版社, 1985)
- 游汝傑, 〈吳語與粵語人稱代詞比較研究〉, 第三屆國際吳方言學術討論會 (2003)
- 袁家驊, 《漢語方言概要》(文字改革出版社, 1960)
- 詹伯慧, 《現代漢語方言》(湖北人民出版社, 1981)
- 張惠英, 《漢語方言代詞研究》(語文出版社, 2001)
- 張延華, 〈山西臨沂方言人稱代詞〉, 《中國語文》(1980:6)
- 張振興, 《漳平方言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2)
- 張振興, 〈廣東吳川方言紀略〉, 《方言》(1992:3)
- 趙元任, 《現代吳語研究》, (科學出版社, 1958)
- 中央民族學院語言研究所, 《壯侗語族語言辭彙集》(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85)
- 周法高, 《中國古代語法·稱代編》(中央研究所歷史研究所, 1959)

[Abstract]

Pan(2002)suggested that plural suffixes of personalpronouns t/d~l~n in Wu dialect derived from location noun "奪". In this paper, however, we argued that the history of the evolution of these forms looks quite different from what Pan said. As the result of studying the tact that d/t, l, n, s, as a kind of plural forms of personal pronoun, exist widely in Sino-Tibetan and Altaic as well , a hypothesis was raised that this kind of forms had emerged in a remote time and were a common element of

proto languages in Northeast Asia.

Keywords : personal pronoun, plural form, Wu dialect, Sino-Tibetan, Altaic

[국문초록]

"중국 吳方言 인칭대명사 복수 접미사 연구"

潘悟云(2002)는 중국어 오방언의 인칭 대명사 복수 부가성분인 t/d, l와 n은 方位名詞 “耑”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본문은 이 주장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본문은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접미사가 중국어와 티베트버마어, 알타이어계에 속하는 각 언어들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것에 근거하여 중국어-티베트버마어와 알타이어의 인칭대명사 복수 접미사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출현 시기도 매우 빨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원시 언어의 공통적인 부분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런 종류의 동일성이 과연 발생학적인 측면의 성질인지 아니면 교류로 인한 조성 인지는 지금 성급히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본문은 유전학적 연구 성과를 인용하여 이러한 가설을 지지하고자 한다.

주제어: 인칭대명사, 오방언, 漢藏語, 阿爾泰語

투고일: 2008. 10. 30.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고대 漢語 존칭어의 形成要因과 과정

林 英 花*

〈 목 차 〉

- I. 緒論
- II. 존칭어의 형성요인
 - 1. 神에 대한 崇拜
 - 2. 국가 형성에 따른 등급제도
 - 3. 유학의 흥기
- III. 존칭어의 형성과정
 - 1. 夏·商대의 존칭어
 - 2. 西周의 존칭어
 - 3. 東周(춘추전국시대)의 존칭어
 - 4. 秦漢대의 존칭어
- IV. 結論

I. 緒論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사람들의 교제에 있어서 태도, 행동, 언어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중국은 또한 그 역사가 유구한 만큼 중국어에는 풍부한 어휘를 담고 있어 세계에서 어휘가 가장 풍부한 언어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어에는 다양한 존칭어가 사용되고 있다.

중국어의 이러한 존칭어 사용은 상고시대인 夏, 商, 西周 시기부터 敬意를 나타내는 말들을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상고시대의 존칭어는 先民들이 당시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형성하는 과정

* 경북전문대학 한중통상학과 초빙전임강사(huayl@hanmail.net)

에서 우선 天神靈物에 대한 존경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酋長이나 帝王에 대한 존경과 숭배 上下尊卑 관념 및 敬德保民 사상에서 언어에 대한 문명 규범이 존칭어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II. 존칭어의 형성요인

1. 神에 대한 崇拜

原始先民들은 대자연의 객관적인 물질세계와 인류 본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萬物에는 영이 있다고 믿고, 神을 두려워하고 의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히 많은 神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이다.

《史記·夏本紀》에는 “우는 순제의 명으로 치수를 하였는데, 그의 아버지 곤이 치수에 성공하지 못하자 죽게 되고, 우는 13년간 밖에서 치수사업을 하며 집 앞을 세 번이나 지나가면서도 집에 감히 들리지 못했다. 그는 입고 먹는 것을 아끼면서 귀신에게 지성을 다해 효경했다(禹傷先人父鯀功之不成受誅, 乃勞身焦思, 居外十三年, 過家門不敢入. 薄衣食, 致孝于鬼神.)”¹⁾고 기록되어 있다. 즉 夏나라 때에 이미 神에 대해 敬畏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史記·五帝本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인재를 길러 땅을 맡기고, 때를 맞추어 하늘을 살폈다. 귀신을 섬기어 의례를 만들고 기를 다스려 교화하고 정갈히 성실하게 제사하였다... 귀와 神을 밝히어 경건히 섬겼다(養材以任地, 載時以象天, 依鬼神以制義, 治氣以教化, 潔誠以祭祀。.....明鬼神而敬事之).”²⁾ 이것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정

1) 司馬遷 著, 王利器 主역, 《史記註譯》卷二(중국: 三秦出版社, 1988. 11), 21쪽.

2) 司馬遷 著, 王利器 主역, 《史記註譯》卷一(중국: 三秦出版社, 1988. 11), 3쪽.

성을 다해 제사를 모시고 귀신을 알아보고 경의로 모셨음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다. 즉 神에 대한 경의를 행동과 겸손한 언어로 표현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시 시조사회에서 堯, 舜과 같은 部族의 酋長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은 군사통솔과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했다. 《史記》에는 堯·舜 임금의 천지 산천 백신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했다. 물론 제사를 드릴 때 의식과 기도 중 자연히 神에 대한 敬意를 표현했을 것이다. 또한 神에 대한 경배는 주로 자연신과 초자연적인 상제 및 조상신에게 제를 지내는 가운데 행위와 언어로 구분하여 경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에 대한 존칭어로 上帝, 天帝, 上天과 같은 호칭이 등장하게 된다.

2. 국가 형성에 따른 등급제도

(1) 국가형성

존칭어가 神에 대한 경배에서 비롯되었으나 국가형성에 따라 점차 사회등급제도에 따른 下敬上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등급 통치는 본시 봉건사회의 속성이며, 사회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특수한 형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禮制였다.

《禮記·禮運》에서는 “예라는 것은 군주가 나라를 지키는 큰 權柄이다. 또한 예는 미세한 혐의도 밝혀 판별하고, 귀신을 예로써 대해 어긋남이 없게 하며 정사를 다스리고 임금의 몸을 편안케 하는 것(禮者君之大柄也, 所以別嫌明微, 儆鬼神, 考制度, 別仁義, 所以治政安君也.)”³⁾이라고 하였다. 이는 禮란 敬意표현이 原始先民들이 自然神과 超自然神 및 人鬼에 대한 崇拜풍습과 관련된 제사의식이 점차적으로 인간관계와 윤리관계를 調整하는 고정된 일련의 행위기준으로 演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神에 대한 숭배로 제사를 지내는 권한 또한 귀족집단의 興亡

3) 金瑩洙 주역, 《四書五經·禮記·上》(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267쪽.

으로 결정되었다.

《禮記·祭法》에는 “천하를 가진 자는 백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제후는 그 땅 위에 있는 여러 神을 모두 제사지낸다. 그러나 그 땅을 잃었을 때는 제사 지내지 않았다(有天下者祭百神. 諸侯在其地, 則祭之, 亡其地, 則不祭.)”⁴⁾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집단의 흥망이 제사권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倫理와 禮制로 이어짐으로 통치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등급질서와 사회행위규범을 정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部族간의 전쟁이 잦아지면서 점차 약탈의 목적으로 이어지면서 부족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더 큰 범위의 연합체로 발전하게 된다. 전쟁은 군사首長의 권력을 강화했고, 사회조직의 확대에 따라 최고 군사수장이 탄생하게 되고, 이로서 왕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다. 권력과 財富가 讚美와 崇拜와 尊敬을 받게 되면서 사회의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져 피라미드형식의 사회구조가 나타났고, 상단은 소수의 씨족이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하단에는 거의 一無所有한 평민들이 차지했다⁵⁾. 이로서 군이 세워지고 천자를 세움으로 왕권이 萌芽하게 된다.

《呂氏春秋·孟秋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치우가 아직 나타나기 전에는 백성들은 늘 숲의 나무를 깎아서 싸웠고,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우두머리가 있으면 다스려지긴 하지만, 우두머리가 있어도 오히려 다스리기에 부족하므로 임금을 세웠다. 다시 임금으로서도 다스리기에 부족하므로 천자를 세웠다. 그러므로 천자가 세워진 것은 임금으로부터 나왔고, 임금이 세워진 것은 우두머리로부터 나왔으며, 우두머리가 세워진 것은 싸움으로부터 나왔다...귀한 자와 천한 자, 나이 많은 자와 나이 어린 자,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더 불어 마찬가지이며, 단지 큰 투쟁과 작은 투쟁이 있을 따름이었다.”⁶⁾.

4) 金瑩洙 주역, 《四書五經·禮記·上》(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194쪽.

5) 李學勤, 《中國古代文明與國家形成研究》(중국: 雲南人民出版社, 1997. 12), 215쪽 참조..

6) 呂不韋 저, 김근 역주, 《呂氏春秋》제1권(民音社, 1993. 2), 308쪽. 원문: 未有蚩尤之時, 民固剝林木以戰矣, 勝者爲長. .長則猶不足治之, 故立君. 軍又

이는 전쟁을 통해 왕권이 수립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왕권의 수립으로 귀족통치계급은 종족과 동족으로부터 시작된 제사나 占卜 등을 국가의 신앙체계와 사회의 倫理禮制로 삼아 그와 관련된 禮制로 정치 등급질서를 정리하였다. 즉 宗族내부근거와 宗族祖宗의 血緣親疎관계로 각 家族 및 그 家族성원들의 사회정치적인 종교제사에 대한 等次性を 결정했다. 또한 宗族과 宗族간에는 現任 부족의 酋長 즉 통솔직위에 있는 강한 宗族長간의 親疎관계에 따라 主流과 비주류 즉 大小宗 혹은 王族과 一般宗族 간의 等次性이 형성되었다⁷⁾. 이는 곧 等次에 따라 孝行을 推重하여 안으로는 親族을 섬기고 宗族을 존경하며, 위로는 군왕에게 순종하게 함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梁章鉅의 《稱謂錄》에 의하면 “상고시대 천자 庖犧氏(포희씨)와 神農氏는 皇이라 칭하고, 堯舜은 帝라 칭했으며, 夏商周시대에는 왕이라 칭했다...群臣들은 감히 天子를 직접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폐하라 함은 ‘因卑達尊’의 뜻으로 天子는 스스로 자칭하여 朕이라 말하고 臣民들은 천자를 陛下라 칭했다”⁸⁾고 하였다.

여기에서 ‘因卑達尊’이란 고대 삼엄한 계급제도 하에서 직위가 낮은 사람이 직위가 높은 사람과 대화할 때, 그의 名號를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으므로 그의 앞에 있는 신분이 비교적 낮은 시종이나 하급관리를 부르는 방법으로 대신했던 것이다. 특히 君主앞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따라서 陛下라는 ‘陛’자는 제왕궁전의 계단을 指稱했던 것으로 고대제왕의 근위병이 ‘陛’아래 양측에서 경비했기 때문에 ‘陛下’는 臣下가 제왕을 부를 때 사용했던 존칭어이다. 제왕과 신하가 대화를 나눌 때 천

不足以治之，故立天子。天子之立也出於君，軍之立也出於長，長之立也出於爭.....貴賤長幼賢者不肖，相與同，有臣有微而已矣。

7) 李學勤，《中國古代文明與國家形成研究》(중국: 雲南人民出版社, 1997. 12), 45쪽 참조.

8) 梁章鉅(淸), 《稱謂錄》第三本卷九(중국: 天津市古籍書店出版, 1987. 6), 436쪽. 원문: 上古天子庖犧氏神農氏稱皇堯舜稱帝夏商周稱王...謂之陛下者羣臣與天子言不敢指斥天子故呼在陛下者而告之因卑達尊之義天子自稱曰朕臣民稱之曰陛下.

자를 직접적으로 부를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계단아래에 있는 시종을 먼저 불러 고해야 했다. 따라서 ‘陛下’란 뜻은 당신의 계단아래에 있는 신하를 통해 낮은 자의 말을 당신에게 전한다 하여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진언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초기 형성되기 시작되면서 등급에 따른 호칭도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역사상 첫 번째 왕조인 夏나라 시기에는 국가기구가 정식으로 건립되고, 최고 통치자를 “왕(王)”이라 지칭하고 그에 대한 예를 갖추고 그를 보좌하는 관리들은 각기 등급에 따라 호칭을 달리 했다.

《書經·商書》에서는 “이제 왕이 그 덕을 이으심은 처음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을 세우시되 어버이로 하시며 공경을 세우시되 어른으로 하시어 집과 나라에서 비롯하시어 사해에 미치게 하소서.”⁹⁾라고 함으로써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人間의 道로서 가장 重要的 것이며, 그 사랑은 자기 집에서부터 親子兄弟 一家一族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여 그 마음을 넓혀 모든 사람에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商나라에 이르러 국가의 기반이 더욱 다져짐에 따라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 잡고 下敬上으로 이뤄지는 존칭어에 대해 더욱 명백히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등급제도

등급제도는 등급원칙에 따라서 사회직위의 호칭을 정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어사용을 제약하게 된다.

《書經·周書》에는 “탕으로부터 제에 이르기까지...경기 밖의 侯服·甸服·男服·衛服의 諸侯들과 기내의 百官들과 庶尹·亞·服·宗工들과 百姓들까지도 감이 술제 빠지지 않았다.”¹⁰⁾고 기록되어 있다. 所謂 內

9) 白鐵 監수, 《合本-四書三經》(良友堂, 1979. 12), 698-699쪽. 원문:今王嗣厥德罔不在初立愛惟親, 立敬惟長始于家邦, 終于四海鳴呼.

10) 白鐵 監수, 《合本-四書三經》(良友堂, 1979. 12), 750쪽. 원문: 自成湯咸至于帝乙.....越在外服: 侯, 甸, 男, 衛, 邦, 伯; 越在內服: 百僚, 庶尹, 惟亞, 惟服, 宗工, 越百姓, 里居, 罔敢湏于酒.

服과 外服은 商王의 직접 통치구역을 말하며 “內服官”은 상왕조의 관리이며, “外服官”은 分封諸侯로서 주로 京畿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관리를 말한다. 夏商시대에는 王이 이런 分封諸侯들에게 侯, 伯, 子, 男, 任, 田, 亞, 婦의 爵稱¹¹⁾을 책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왕실에 충성하게 했다. 또한 夏商의 禮制로 각 대소제후국들을 制約하여 공존하면서도 등차가 있었다.

또한 《稱謂錄》에는 “옛사람들의 호칭은 각기 달랐으며 이름과 호를 서로 차용할 수 없었다.”¹²⁾고 하여 옛날 사람들의 계급등차에 대한 호칭도 각기 달랐을 뿐더러 서로 차용하지 않았으며 상하계급에 대한 예와 호칭도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즉 관제제도의 체계가 어떠한 상하등급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며 엄격한 관료 등급 관계를 이루어 그에 맞는 호칭과 신분 직위가 주어지며 상하관직 간에 지켜야 하는 예의 법도가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봉건시대군주로 기원전 221년에 六國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해 秦왕조를 건립한 嬴政은 자신의 공적을 三皇에 비하고 德이 五帝를 능가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자신을 “皇帝”로 칭했다. “皇帝”란 《稱謂錄》에서는 “皇帝라는 至尊之稱은 皇은 빛날 황이요 성덕이 빛나서 비추지 않는 것이 없으며, 帝는 살필 帝로서 하늘의 도를 행할 수 있으며 하늘의 뜻을 받들어 두루 살피는 고로 皇帝라 한다... 스스로 황제라 함은 秦시황부터 시작이다... 덕이 하늘의 뜻에 합당하는 자는 皇이라 하고 땅에 합당한 자는 帝라 하며, 사람에게 합당하는 자는 王이라 한다. 하늘은 아버지요 땅은 어머니요 사람을 양육하고 사물을 다스리는 자를 皇帝라 한다.”¹³⁾고 했다. 秦始皇은 이런 “皇帝”

11) 李雪山, 《商代分封制度研究》(중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8), 56쪽 참조.

12) 梁章鉅(清), 《稱謂錄》(중국: 天津市古籍書店出版, 1987. 6), 원문: 稱謂錄序. 古人稱謂各有等差不相假借其名號.

13) 梁章鉅(清), 《稱謂錄》第三本卷九(중국: 天津市古籍書店出版, 1987. 6), 434쪽. 원문: 皇帝至尊之稱皇者煌也盛德煌煌無所不照也帝者諦也能行天道事天審諦故稱皇帝...自號皇帝自秦政始...德合天者謂之皇, 合地者謂之帝, 合人者謂之王, 父天母地, 養人理物謂之皇帝.

의 호칭을 자칭했다. 경의표현이 神에 대한 공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진시황은 자신을 신격화해서 사람들이 예와 경의로 자신을 대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후 “황제”란 호칭은 전후 이천 여년에 걸쳐 군주의 전용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국가 형성과 발전에 따라 등급제도에 따른 존칭어에 대한 규정은 더욱 다양하게 정해짐을 알 수 있다.

《禮記·曲禮下》에 “군대부의 아들은 감히 餘小子라고 스스로 일컫지 못하며, 대부의 아들은 감히 嗣子某라고 스스로 일컫지 못하며, 감히 세자와 이름을 같이 하지 못했다.”¹⁴⁾고 했다. 이는 ‘餘小子’는 황태자가 상중에 스스로 일컫는 말이고, ‘嗣子某’는 세자가 상중에 스스로 일컫는 말로서 君大夫와 大夫, 士의 아들에 대하여 스스로 일컬어 사용할 수 없음은 등급제도에 의한 신분에 따른 엄격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문들은 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래는 《禮記》에 기록된 등급에 따른 존칭어 사용 예문들이다.

- ① 천하에 군림하는 자를 천자라 일컫는다. 천자는 제후의 朝觀을 받고 벼슬을 나눠 주고 나라 일을 맡길 때에는 “나도 한 사람”이라고 일컫는다.[君天下, 曰天子. 朝諸侯, 分職授政任功, 曰余一人.(《禮記·曲禮下》이하 등)]
- ② 천자가 붕하면 “천왕이 붕하였다”하고 초혼할 때에는 “천자복”이라고 한다.[崩, 曰天王崩, 復, 曰天子服矣.]
- ③ 천자의 五官을 사도, 사마, 사마, 사공, 사사, 사구라고 하며 오종을 맡아본다.[天子之五官, 曰使徒, 司馬, 司空, 司士, 司寇, 典司五衆.]
- ④ 천자의 六府는 司土, 司木, 司水, 司草, 司器, 司貨이니 이들이 六物の 稅를 맡아 다스린다.[天子之六府, 曰司土, 司木, 司水, 司草, 司器, 司貨, 典司六職.]
- ⑤ 제후가 천자를 알현할 때에는 “臣某侯某”라고 말하고 그 백성들과

14) 金瑩洙 주역, 《四書五經·禮記·上》(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267쪽.
원문: 君大夫之子, 不敢自稱曰餘小子, 大夫之子, 不敢自稱曰嗣子某, 不敢與世子同名.

말할 때에는 과인이라고 스스로 일컫는다...[諸侯見天子曰“臣某候某”，其與民言自稱曰“寡人”]

- ⑥ 천자의 비를 後라고 하고, 제후는 夫人, 대부는 孺人, 사는 婦人, 庶인은 妻라고 한다.[天子之妃曰“後”, 諸侯曰“夫人”, 大夫曰“孺人”, 士曰“婦人”, 庶人曰“妻”.]
- ⑦ 천자가 죽는 것을 崩이라 하고, 제후는 薨이라하며, 대부는 卒, 사는 不祿, 서인은 사라라고 한다.[天子死曰崩, 諸侯曰薨, 大夫曰卒, 士曰不祿, 庶人曰死.]

①의 ‘朝’는 즉 ‘朝覲’으로 조정에 들어가 임금을 뵈는 것을 지칭했으며 天子는 당연히 임금전용 호칭이었다. 여기에서 ‘余一人’은 군자가 사용한 겸손의 말이 되겠다. 즉 군자의 謙語라 할 수 있다. ②의 崩은 천자가 세상을 떴을 때 사용하는 천자전용 死에 상응하는 敬意표현이다. ③의 五官은 관원과 그에 딸린 벼슬아치들을 다스리는 벼슬의 호칭으로 벼슬에 따라 호칭이 다를 수 있다. ④의 六職 또한 등급에 따른 관직 명칭이다. ⑤에서는 臣下가 천자를 알현할 때 자신을 “臣某”라 하여 자신은 천자의 신하임을 천명하여 천자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고, 천자는 스스로 寡人이라 함으로써 엄격한 신분 차이와 등급을 나타내고 있다. ⑥과 같이 남편의 관직 등급에 따라 부인의 호칭도 달라진다. 이는 또한 국가형성과 등급에 따른 下敬上을 나타내고 있다. ⑦의 崩, 薨, 卒, 祿, 死는 행위에 대한 경의 표현법이라 하겠으며 등급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표현도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이 神에 대한 경의 표현이 나아가 국가형성에 따라 등급제도가 생겨나고, 사람에게 대한 존칭어도 더욱 다양화되며, 언어문자의 발전으로 더욱 자세히 기록되게 된다.

(3) 종법제도

국가의 형성과 발전에 따라 등급제도 뿐만 아니라 종법제도 또한 등차를 나누게 된다. 종법제도는 혈연적 유대 관계를 이용한 씨족 조직의 종족 관계를 발전시킨 것으로, 종법이란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집안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칙을 가리킨다. 1979년, 林澧이 발표한 《무정시대의 몇 가지 “子卜辭”에서 商代의 가족형태를 시론하다(從武丁時代的幾種“子卜辭”試論商代的家族形態)》에 의하면, 그가 분류한 몇 가지 非王卜辭 즉 甲種, 乙種, 丙種의 비왕복사는 대개 통상적으로 말하는 비왕 非王無名組, 午組, 子組, 子組附屬卜辭 중의 “子”는 貴族家族首腦가 通用하는 尊稱이며, 非王貴族家族의 구성원은 弟輩, 子輩, 妻妾, 弟媳, 兒媳, 子侄 혹은 孫輩등으로 나누었으며, 그 외에도 노예가 있었고, 귀족족장은 다른 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으며, 그들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군신관계였다고 했다¹⁵⁾.

商代의 이런 가족제도는 등차가 더욱 세분화되고, 종법제의 시작은 西周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된 종법제로 발전하게 된다. 종법 제도의 기본 원칙은 적장자 계승 제도에 있었으며, 적장자는 혈통을 이어가는 大宗의 지위를 대대로 누릴 수 있었으며, 그 밖의 아들들은 小宗으로 대종을 떠받들어야 했다. 이처럼 사회계급은 봉건 제도와 종법 제도의 실시로 그 선이 더욱 분명하였다. 貴族은 王室·諸侯, 卿, 大夫와 士로서 계급이 분명하고 엄격했으며, 높음과 낮음은 물론 차례가 명확했다. 또한 그것을 유지하고 그 내부의 모순을 제거하는 데는 禮가 반드시 필요했다. 귀족들은 예를 대단히 중시하여 君臣, 上下, 父子, 兄弟간의 衣食住와 冠婚喪祭, 道德과 風俗을 규정하고 尊卑, 貴賤, 長幼의 차별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 귀족 내부의 단결을 튼튼히 했다.

종법제도는 종법원칙을 정했고 종법원칙은 친족칭위를 사용하여 그 호칭에 상당한 敬語를 사용함으로써 존칭어를 표현했다. 이처럼 국가형성에 따른 등급제도와 종법제도로 또한 더욱 많은 존칭어들이 출현하게 된다.

3. 유학의 흥기

15) 宋鎮豪·劉源, 《甲骨學殷商史研究》(福建人民出版社, 2006. 3), 279~280 쪽 참조.

儒學의 출현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春秋時期이전의 역사문화가 축적된 결과이다. 그리고 공자는 춘추전국시대의 周나라 봉건제도와 정치적·사회적 혼란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禮와 樂의 조화로 잘 통치되었던 周代의 문물제도를 되살리는 데서 찾으려 했다. 그중 禮는 고대 等級사회 사람들의 물질과 정신생활 및 모든 禮儀를 포함한 제도의 總名稱이라 할 수 있다. 禮는 “神”의 觀念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최초의 禮는 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데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사회의 발전과 사유제도의 확립으로 통치자들은 그의 專制政權을 공고히 하기 위해 神에 대한 禮를 사회의 모든 측면으로 확대하여 그들이 專制統治의 도구로 삼았다. 즉 소위“禮라는 것은 군주가 나라를 지키는 큰 權柄이다.”¹⁶⁾에서도 알 수 있다. 공자는 禮의 원칙을 恭, 敬, 和, 儉으로 여겼다. 그는 “예의에 가까운 공경이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¹⁷⁾라고 했다. 그는 “爲禮不敬”을 반대했으며 禮는 반드시 恭敬하는 태도로 행해져야 한다고 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禮에는 존칭어가 빠질 수 없는 것이었다. 공자가 자산을 칭찬하며: “그는 군자의 道로써 넷을 실천하였으니, 그의 개인행동은 공손하였으며,윗사람을 섬김이 공경스러웠고, 백성을 양육하고 은혜를 베풀며, 백성을 부리되 도리에 맞도록 하였느니라.”¹⁸⁾라고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恭”을 漢典에서는 “恭, 존경하는 것(恭, 敬也-《爾雅》)”이라고 《爾雅》의 해석을 따서 해석했다. 즉 恭, 敬은 모두 존칭어로 볼 수 있다. 공자의 이런 학설은 等級사회제도를 수호하는 한편 많은 존칭어들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6) 金瑩洙 역, 《四書五經-禮記上·禮運》(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267쪽. 원문: 禮者, 君之大柄也

17) 白鐵 감수, 《合本-四書三經》<論語·學而篇(>(良友堂, 1979. 12), 91쪽. 원문: 恭近于禮, 遠恥辱也)

18) 白鐵 감수, 《合本-四書三經》<論語·公治長篇(>(良友堂, 1979. 12). 111쪽. 원문: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

Ⅲ. 존칭어의 형성과정

1. 夏·商代の 존칭어

夏·商대의 존칭어는 주로 신에 대한 숭배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그 당시 사람들은 “만물에는 영이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두려움과 의존심으로 인해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 신을 숭배했다. 그리고 신에 대한 숭배로 존칭어가 출현하게 된다.

(1) 自然神에 대한 崇拜

자연신에 대한 숭배는 주로 日, 月, 星, 雲과 같은 天象과 山, 川, 土, 石과 같은 地神 등에게 제를 지내는 형식을 취하였다.

《禮記·祭法》에는 두인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나무를 단 위에 쌓고 그 위에 牲玉을 얹어 함께 불을 질러 그 기운이 하늘에 올라가게 한다. 이것은 天神을 제사지내는 법이다. 또한 犧牲과 비단을 함께 묻는 것은 地神을 제사지내는 법이다. 이 때 사용된 牲으로는 붉은 말과 송아지였다. 小牢를 泰昭에 묻어 제사 지내는 것은 사철의 神을 제사지내는 것이다. 坎壇에 추위와 더위를 맞고 보냄은 寒暑의 神을 제사지내는 것이다. 왕궁에서는 해의 神을 제사지내고, 夜明에서는 달의 神을 제사지내고 幽榮에서는 별의 神을 제사지내고, 雩榮에서는 가뭄을 제사지내고 四坎壇에서는 사망의 神을 제사지낸다. 山林·川谷·丘陵으로서 구름과 풍우를 일으키며 괴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모두 神이라고 했다.”¹⁹⁾

19) 金瑩洙 주역, 《四書五經·禮記·下》(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193쪽.
원문: 燔柴於泰壇, 祭天也. 瘞埋於泰折, 祭地也, 用騂犢. 埋少牢於泰昭, 祭時也. 祖迎於坎壇, 祭寒暑也. 王宮, 祭日也. 夜明, 祭日也. 幽榮, 祭星也. 雩榮,

이것은 여러 자연신을 섬겼으며, 神을 섬김으로써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과 정신적 힘을 얻을 수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섬김을 반복하면서 점차 예를 갖추어 공대함으로 恭待하여 상대자에게 존칭어 사용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연신에게 예를 갖추어 제를 지내면 생존과 명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배와 기도가 재앙을 방지하고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2) 祖上神에 대한 敬拜

夏·商시기에는 자연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였는데, 여기에서 귀신은 주로 조상신을 의미한다. 즉 부족에 공헌을 한 영웅이 사망하면 곧 조상신이 된다고 믿었으며, 그에 따라 제를 올렸다.

《書經·尙書·伊訓》에서는 “太甲元年 십이월 乙丑날에 伊尹이 商나라 先王에게 제사를 지내고, 뒤를 이은 왕 太甲으로 하여금 선조의 사당에 나아가서 경건히 예를 올리도록 하였다”²⁰⁾고 하여 자연과 천지에 대한 숭상과 경의가 조상신에 대한 경배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상숭배의 대상은 모든 죽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생전의 업적에 따라 선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商나라 사람들의 조상신은 보통 高祖(先公) 및 그 배우자, 先王 및 그 배우자, 諸祖, 諸妣, 諸父, 諸母, 諸兄 등이 있었다. 그 중 諸祖, 諸妣, 諸父, 諸母, 諸兄 등은 왕실의 사람이었으며, 왕실 이외의 귀족 가족들도 있었다. 또한 조상신에 대한 명칭도 각기 달랐다. 《甲骨文殷商史研究》에서는 “上甲이전에는 高祖 혹은 先公이라 하고, 그 이후는 선왕이라 했다”²¹⁾는 내용이 있다. 이것은 조상신의 명칭이 여러 가지로 불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禮記·祭法》에서는 “대체로 聖王이 제사를 제정하는 데는 올바른

祭水旱也. 四坎壇, 祭四方也. 山林川谷丘陵能出雲, 爲風雨, 見怪物, 皆曰神.

20) 白鐵 감수, 《合本-四書三經》(良友堂, 1979. 12), 689쪽. 원문: 惟元祀十有二月乙丑伊尹祠于先王奉嗣王祇見厥祖.

21) 宋鎮豪, 劉源, 《甲骨文殷商史研究》(중국: 福建人民出版社, 2006. 3), 303쪽. 원문: 上甲之前稱高祖或先公, 之后稱先王.

법으로서 정치하여 백성을 다스린 자를 위해 제사지내고, 나라 일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부지런하게 일한 자를 제사지내고, 國家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자를 제사지냈으며, 큰 재해를 막은 자와 큰 환란을 막은 자를 위해 제사지낸다.”²²⁾고 하였다. 이로서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조상신은 그가 생존했을 때의 품행으로 정해지며, 보통 거물급 인물이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3) 초자연적인 神 上帝에 대한 敬拜

자연신과 조상신에 대한 숭배에서 점차적으로 원래 있는 여러 神보다도 더욱 강한 神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神은 바로 초자연적인 색채를 띤 上帝 숭배였다. 上帝는 또한 皇天上帝, 天帝, 皇天 등으로 칭했다. 《書經·商書·湯誥》에는 “하늘의 상제께서 衷心을 이 땅의 百姓들에게 내리시어 順하여 몇몇한 性稟을 두시니 능히 道에 따르는 이는 오로지 임금이니라. 夏王은 德을 滅하고 위험을 떨침으로써 淫虐을 너희 萬方 百姓에 편즉 너희 萬方 百姓이 그 凶害를 만나 그 쓰라린 害毒을 참지 못하여 그 무고함을 天地鬼神께 告하나니 天道는 善으로 福하시고 淫을 禍하는지라. 재난을 夏에 내리시어 그 罪를 밝히시니라.”²³⁾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上帝는 천지우주를 주재하는 神으로서 위에 계시는 帝王이라는 뜻으로 “天”이라 했다. 위의 원문 “惟皇上帝, 降衷于下民”에서 “上帝”는 위에 계시는 至上的 神으로 땅에 있는 백성을 “下民”으로 지칭함으로써 上帝에 대한 경위를 다시 나타내고 있다. 즉 섬기는 자를 낮추고 섬김을 받는 “上帝”를 높인 것이라 할 수 있다.

22) 金瑩洙 주역, 《四書五經·禮記·下》(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199쪽. 원문: 夫聖王之制祭祀也—法施於民則祀之, 以死勤事則祀之, 以勞定國則祀之, 能禦大菑則祀之, 能捍大患則祀之.

23) 白鐵 감수, 《合本—四書三經》(良友堂, 1979. 12), 696쪽. 원문: 惟皇上帝, 降衷于下民. 若有恒性, 克綏厥猷惟后. 夏王滅德作威, 以敷虐于爾萬方百姓. 爾萬方百姓, 懼其凶害, 弗忍荼毒, 竝告無辜于上下神祇. 天道福善禍淫, 降災于夏, 以彰厥罪. 肆臺小子, 將天命明威, 不敢赦. 敢用玄牡, 敢昭告于上天神后, 請罪有夏.

《漢典》에서는 上帝를 “天帝 즉 하늘에서 모든 것을 主宰하는 神, 최고의 天神, 옛날 사람들이 상상 속의 우주만물의 主宰, 帝, 上帝는 天의 神이다²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上帝, 天帝는 최고의 敬稱이며, 사람들은 敬天함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며, 따라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이다.

《書經》, 《詩經》 등 經典에는 신에 대한 존칭어로 上帝, 天帝, 昊天上帝 등이 기록되어 있다.

《書經·商書·盤庚》에는 “그러나 이는 上帝께서 장차 우리 高祖의 德을 회복시켜 다스림이 우리 집에 미치게 하시니 朕은 행실이 돈독하고 공경한 이로서 百姓의 命을 공손히 이어서 길이 새 都邑에서 살게 하노라.”²⁵⁾고 하여 모든 것은 上帝의 뜻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上帝라는 호칭은 사람들이 최고로 여겨 섬기는 神의 敬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書經》²⁶⁾, 《詩經》, 《禮記》 등에서 “上帝”라는 호칭만 해도 아래와 같이 수십 차례 사용되었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詩經:

- ① 그래도 언젠가 안정되면, 남보다 나을 수도 있으련만. 관대하신 하느님이, 특히 누구를 미워하시리요?[既克有定, 靡人弗勝. 有皇上帝, 伊誰雲憎?.(小雅·祈父之什(節南山之什)-正月²⁷⁾)]
- ② 생각하노니 우리 문왕께서는 매사에 찬찬하고 삼가시고 밝게 하느님을 섬기셨으니 많은 복록을 아니 내리오시리까.[維此文王, 小心

24) 《漢典》: 天帝上帝. 宗教或神話中稱主宰萬物的神. 最高的天神. 古人想像中宇宙萬物的主宰, 帝, 上帝, 天之神也.

25) 白鐵 감수, 《合本-四書三經》(良友堂, 1979. 12), 712쪽. 원문: 肆上帝將復我高祖之德, 亂越我家. 朕及篤敬, 恭承民命, 用永地于新邑.

26) 《合本-四書三經》과 中國國學罔의 原典寶庫-十三經을 대조하여 참조함.

27) 《合本-四書三經》의 詩經에는 “小雅·祈父山之什-正月”로 되어 있고, 中國國學罔-原典寶庫-十三經의 詩經에는 “小雅·節南山之什-正月”로 되어 있으니 《合本-四書三經》의 詩經 내용을 따르고 中國國學罔-原典寶庫-十三經의 詩經內容을 괄호로 표시함. 이하 同.

翼翼。昭事上帝，聿懷多福。(大雅·文王之什-大明)]

위와 같이 詩經에만 해도 上帝가 20여 차례 등장한다.²⁸⁾ 上帝 외에도 天, 昊天(敬天之怒.....昊天曰明, 及爾出王. 昊天曰旦, 及爾游衍(大雅·生民之什-板)), 古帝(古帝命湯王, 正域彼四方(商頌·玄鳥)), 帝(帝命子生商.....帝命不違(商頌·長發))등으로 최고신인 上帝를 지칭했다. 이는 최고 신에 대한 호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상제에 대한 또 다른 경칭의 표현으로 上帝를 섬길 때 밝게 섬긴다는 “昭事”; 상제께선 환히 아래 세계를 비치신다, 즉 높으신 분이 위에서 아래를 비치신다는 “臨下有赫”; 상제는 기꺼이 흠향한다는 “居歆”등 존칭어들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書經

① 이리하여 하늘의 신에게 제사올리고, 육중에 제사하시며, 산천과 모든 신에게 제사 올렸다.[肆類于上帝, 禋于六宗, 望于山川, 徧(遍²⁹⁾)于羣神.(虞書·舜典)]

28) 詩經,: 위의 ①②를 이어서 ③皇矣上帝, 臨下有赫.(大雅·文王之什-皇矣); ④印盛于豆, 于豆于登. 其香始升, 上帝居歆.(大雅·生民之什-生民); ⑤上帝臨女, 無貳爾心.(大雅·文王之什-大明); ⑥上帝甚蹈, 無自暱焉.上帝甚蹈, 無自瘵焉(小雅·魚藻之什(桑扈之什)-苑柳); ⑦其麗不億. 上帝既命, 侯于周服(大雅·文王之什-文王); ⑧ 殷之未喪師, 極配上帝. 宜鑑于殷, 駿命不易!(大雅·文王之什-文王); ⑨上帝耆之, 憎其式廓.(大雅·文王之什-皇矣); ⑩上帝不寧, 不康禋祀, 居然生子.(大雅·生民之什-生民); ⑪上帝板板, 下民卒瘁.(大雅·生民之什-板); ⑫蕩蕩上帝, 下民之辟. 疾威上帝, 其命多辟.(大雅·蕩之什-蕩); ⑬文王曰咨, 咨女殷商. 匪上帝不時, 殷不用舊.(大雅·蕩之什-蕩); ⑭后稷不克, 上帝不臨(大雅·蕩之什-雲漢); ⑮ 昊天上帝, 寧俾我遐(大雅·蕩之什-雲漢); ⑯不顯成康, 上帝是皇.(周頌·清廟之什-執競); ⑰明昭上帝, 迄用康年.(周頌·臣工之什-臣工); ⑱上帝是依, 無災無害. 彌月不遲, 是生后稷(魯頌·駟之什-閟宮); ⑲上帝臨女, 敦商之旅, 克咸厥功(魯頌·駟之什-閟宮); ⑳昭假遲遲, 上帝是祗, 帝命式于九圍(商頌·長發).

29) 《合本-四書三經》의 <書經·舜典>에는 “徧”으로 되어 있고, 中國國學罔-原典寶庫-十三經의 <尙書·舜典>에는 “遍”으로 되어있음으로 《合本-四書三經》의 <書經·舜典>의 내용을 따르고, 中國國學罔-原典寶庫-十三經의 <尙

- ② 내 衆言을 들으니 夏가 罪있으니 내 하늘이 두려운지라 감히 바로 잡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라.[予惟聞汝衆言, 夏氏有罪, 予畏上帝, 不敢不正.(商書·湯誓)]

書經에서는 上帝가 수십 번이나 등장하며³⁰⁾, 上帝 외에도 上天(今商王受弗敬上天, 降災下民.(周書·泰誓上)); 皇天(皇天降災, 假手于我命(商書·伊訓))등으로 지칭하고 있다. 즉, 최고의 호칭이다. 또한 尙書에서는 上帝의 帝가 점차 인간인 임금의 호칭으로 바뀌어 감을 알 수 있다. 《書經·虞書·堯典》 첫 시작이 “옛 帝堯를 상고해 보니 위대한 功勳이 시다, 공경하시며 분명하며, 자연스러우며 분명하며, 자연스러우며 진실로 순하시며, 능히 양보하시어 그 德이 四表에 미치시어 하늘과 땅에까지 이르시니라.”³¹⁾라 하여 堯임금을 帝로 칭했다. 즉 神에 대한 최고의

書·舜典)內容을 괄호로 표시함. 이하 동.

- 30) 《書經》: ③惟皇上帝, 衷于下民.(商書·湯誥); ④罪當朕躬, 弗敢自赦, 惟簡在上帝之心.(商書·湯誥); ⑤惟上帝不常, 作善降之百祥, 作不善降之百殃.(商書·伊訓); ⑥先王懋敬厥德克配上帝(商書·湯誓); ⑦肆上帝將復我高祖德, 亂越我家.(商書·盤庚(盤康)下); ⑧惟受罔有悛心, 乃夷居, 弗事上帝神祇, 遺厥先宗廟弗祀.(周書·泰誓上); ⑨天佑下民, 作之君, 作之師, 惟其克相上帝, 寵綏四方.(周書·泰誓上); ⑩予小子夙夜祇懼, 受命文考, 類于上帝, 宜于冢土, 以爾有衆, 底天之罰.(周書·泰誓上); ⑪上帝弗順, 祝降時喪.(周書·泰誓下); ⑫予小子既獲仁人, 敢祇承上帝, 以遏亂略.(周書·武成); ⑬已予惟小子, 不敢替上帝命.(周書·大誥); ⑭爽邦惟哲, 易惟十人迪知上帝命越天棊忱, 爾時罔敢易法, 矧今天降戾于周邦?(周書·大誥); ⑮上帝時歆, 下民祇協, 庸建爾于上公, 尹茲東夏.(周書·微子之命); ⑯惟時怙冒, 聞于上帝, 帝休, 天乃大命文王.(周書·康誥); ⑰嗚呼! 皇天上帝, 改厥元子茲大國殷之命.(周書·召誥); ⑱王來紹上帝, 自服于土中.(周書·召誥); ⑲我聞曰:上帝引逸有夏不適逸.(周書·多士); ⑳誕罔顯于天, 罔顧于天顯民祇, 惟時上帝不保, 降若茲大喪.(周書·多士); ㉑我亦不敢寧于上帝命, 弗永遠念天威越我民;(周書·君奭); ⑳在太戊, 時則有若伊陟, 臣扈, 格于上帝.(周書·君奭); ㉒公曰:“君奭! 在昔上帝劓勸寧王之德, 其集大命于厥躬.(周書·君奭); ㉓乃惟時昭文王迪見冒, 聞于上帝.(周書·君奭); ㉔古之人迪惟有夏, 乃有室大競, 籟俊尊上帝迪, 知忱恂于九德之行.(周書·立政); ㉕上帝監民罔有馨香德, 刑發聞惟腥.(周書·呂刑);(周書·立政); ㉖以敬上帝,立民長伯.(周書·立政); ㉗用端命于上帝(周書·立政).
- 31) 白鐵 감수, 金善姬 발행, 《合本-四書三經》 663쪽. 원문: 日若稽古帝堯, 日放勳,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 格于上下.

호칭을 국가형성과 사회발전에 따라 최고 지도자에게도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上帝, 皇天, 上天 같은 최고 신에 대한 호칭은 지금까지 하늘의 최고 신에게만 사용되고 있다.

禮記

- ① 차자는 巡狩의 길에 오르면서 上帝에게 제사를 지냈다.[天子將出, 類乎上帝.(禮記·第五王制)]
- ②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 예전의 三代는 밝은 왕이었다. 天地神明을 섬김에 卜筮를 쓰지 않음이 없었으니 사사롭고 더러운 방법으로 上帝를 섬기지 않았다.[子言之: 昔三代明王皆事天地之神明, 無非卜筮之用, 不敢以其私, 褻事上帝.(禮記·表記第三十二)]
- ③ 시경에 말하기를: “文王은 소심하여 밝게 上帝를 섬겨 복을 받았고 그의 덕이 간사하지 않아 四方을 나라가 굴복하여 받아들였다.”[《詩》云: “惟此文王, 小心翼翼, 昭事上帝, 聿懷多福, 厥德不回, 以受方國.”(表記第三十二)]

위의 《예기》에 기록된 “上帝” 호칭을 사용한 예문은 이외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³²⁾. 위①의 “類乎上帝”의 “類”를 <漢典>에서는 “古祭天” 즉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類乎上帝”는 上帝께 제사 지냄을 뜻했다. 제사는 예를 갖추어서 지냄으로 상제에 대한 경의를 표현했다. 위②의 “以共皇天上帝名山大川四方之神”중 “共”을 <漢典>에서 “恭”, “恭敬”, “供”, “供奉”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上帝”에 대한 공경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③의 “昭事上帝, 聿懷多福”에서 밝게 “上帝”를 섬김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은 “上帝”를 공경

32) 《禮記》: 위의 ①②③을 이어서④是月也, 天子乃以元日祈穀于上帝.(月令第六); ⑤令民無不咸出其力, 以共皇天上帝名山大川四方之神.(月令第六); ⑥以養生送死, 以事鬼神上帝, 皆從其朔.(禮運第九); ⑦萬物本乎天, 人本乎祖, 此所以配上帝也.(郊特牲第十一); ⑧孟獻子曰:“正月日至, 可以有事於上帝; 七月日至, 可以有事於祖.”(雜記下第二十一); ⑨湯降不遲, 聖敬日齊. 昭假遲遲, 上帝是祗. 帝命式于九圍.(孔子閑居第二十九); ⑩子言之:……天子親耕, 粢盛秬鬯以事上帝, 故諸侯勤以輔事于天子.(表記第三十二); ⑪《君奭》曰:“昔在上帝, 周田觀文王之德, 其集大命于厥躬.”(緇衣第三十三).

함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上帝”에 대한 극진한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上帝”는 지극히 높으신 “神” 즉 초자연적인 최고 “神”에 대한 존칭임을 알 수 있다.

〈漢典〉 “祭號”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고대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와 관련된 神祇祭品 등에 붙여진 美稱이다. 예를 들면 神을 皇天, 上帝로 존칭하고...(古代祭祀時, 對與祭祀有關的 神祇祭品等所給予的 六種美稱. 如尊稱神爲皇天, 上帝,.....)” 즉 “皇天” “上帝”는 最高神에 대한 존칭으로 上帝에게 제를 지냄을 昭事上帝라 함을 <예기>에서 <시경>의 기록을 다시 인용한 것이다. “昭事”를 <漢典>에서는 “근면하여 모시다. 이 말은 文王이 근면하여 섬기다(勤勉地服事.....此句言文王勤勉侍奉上帝.)”라고 해석되어 있다. 즉 근면하며, 예를 갖추 제를 지냈던 것이다. 이처럼 최고신에 대한 여러 가지 존칭어들이 예로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神의 서열에 따른 존칭어

초자연적인 神인 上帝를 숭배하게 됨으로써 神의 영역에는 영속관계가 형성되어 神에 대한 경배도 각 등급에 따라 달리 지칭하고, 예를 갖추어 제를 지낸 것으로 보인다.

《禮記·祭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제사지내는 법에 有虞氏는 上帝를 圜丘에서 제사지낼 때 黃帝에게 지내고, 남교에 상제를 제사지낼 때 帝嚳에게 지내며, 顓頊을 시조로 모시고 堯를 宗으로 삼는다. 夏后氏 역시 상제를 원구에서 제사지낼 때 황제에게 지내고, 남교에 상제를 제사지낼 때 鮮에게 지내며, 顓頊을 시조로 보시고 禹를 宗으로 삼는다. 殷나라 사람은 상제를 원구에서 제사지낼 때 帝喾에게 지내며, 남교에 상제를 제사지낼 때 禘에게 지내며, 契를 시조로 모시고 湯을 宗으로 삼는다. 周나라 사람은 상제를 원구에서 제사지낼 때 帝喾에게 지내며, 남교에서 상제를 제사지낼 때 稷에게 지내며, 文王을 시조로 모시고 武王을 宗으로 삼는다.”³³⁾

여기에서 “禘”는 昊天上帝에게 제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昊天上帝”는 상제 중 最高帝로서 하늘 전체를 지배하는 神이다. 圓丘는 南郊중에 설치한 圓形의 언덕을 말함인데, 祭天壇을 뜻한다. 그러므로 禘黃帝란 昊天上帝를 제사지낼 때 조상인 황제를 配祭함을 일컫는 말이며, 禘 饗 이하는 모두 이와 같은 句法이라 하겠다. 원구에서 제사지내는 것과 郊祭는 같은 날인데 神位의 高下에 따라 먼저 昊天上帝를 원구에 제사지내고 다음에 상제를 제사지냈다. 祖宗이라고 함은 다같이 五行의 神을 명당에서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祖는 도덕의 始祖를 의미하고, 宗은 德이 있는 이를 존중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祖와 宗은 거의 비슷한 뜻이지만 德이 큰 자를 上位에 두어 둘로 나누어 말한 것이라고 한다. 위 글에서 神의 등급에 따라 명칭이 다르고 경의를 나타내는 예의 격식도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史記·太史公自序》에는 “옛날 황제 軒轅氏는 하늘과 땅의 법칙을 본받았고, 사성은 각기 그 순서에 따라, 황제가 만든 법도를 이루었다. 당요가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었으나, 우순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에 제왕들의 공을 찬미하여 만세에 전하도록 실었다(維昔黃帝, 法天則地, 四聖³⁴遵序, 各成法度; 唐堯遜位, 虞舜不臺; 厥美帝功, 萬歲載之.)”³⁵고 함으로써 黃帝는 ‘五帝’중의 최고신이며 그 다음으로 神의 서열을 정했던 것이다.

《禮記·王制》에는 “천자는 천지에 제사하고 제후는 사직에 제사하며 대부는 五祀에 제사한다(天子祭天地, 諸侯祭社稷, 大夫祭五祀)”³⁶고 하였으니 神의 등급에 따라 섬기는 사람의 신분이 다름을 알 수 있다.

33) 金瑩洙 주역, 《四書五經·禮記·下》(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191쪽.
원문: 祭法, 有虞氏禘黃帝而郊饗, 祖顓頊而堯. 夏后氏亦禘黃帝而郊饗, 祖顓頊而宗禹. 殷人禘饗而郊冥, 祖契而宗湯. 周人禘饗而郊稷, 祖文王而宗武王.

34) 四聖: 顓頊, 帝饗, 唐堯, 虞舜.

35) 司馬遷 저, 王利器 주역, 《史記註譯》券四(중국: 三秦出版社, 1988. 11), 2754쪽. 원문: 乃命義和欽若昊天曆象日月星辰敬授人時.

36) 金瑩洙 주역, 《四書五經·禮記·上》(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188쪽.

《書經·堯典》에서도 “이에 帝堯는 義氏와 和氏에게 命하시어 昊天을 공경하고 운행을 본받아 日月星辰을 曆으로하여 象으로 하고, 人時를 주셨다.”³⁷⁾고 하였으니 그 당시 堯는 일월성신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때에 따라 해야 할 일을 백성들에게 지시했는데 日月星辰을 관찰함에 있어서도 우선 관대한 하늘을 공경하라고 했던 것이다.

또한 《書經·舜典》에서는 “儀禮로서 先堯가 舜에게 양위하려고 하자 舜이 아직 자신의 덕이 부족함을 들어 사양했지만 堯는 正月上日³⁸⁾에 舜을 즉위시켰다. 그 조상의 廟에 올라 受終했다. 舜은 직위하자 璿璣玉衡³⁹⁾를 새로 정비하고 이것으로 齊七政⁴⁰⁾했다. 이리하여 하늘의 神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 다음으로 春夏秋冬 더위 추위에게 제사했다. 그리고 또 山과 川의 神에게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다른 모든 神에게도 제사를 올려 도움 있기를 빌었다.”⁴¹⁾고 하여 국가 대사가 있을 때에는 예를 갖추어 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殷商시기의 갑골복사의 기록에 의하면 神에게 제를 지내고 국가대사를 神에게 점을 쳐서 물었음을 알 수 있다. 殷墟에서 출토된 甲骨卜辭 자료에 의하면 상왕이 국가대사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神에게 점을 쳐서 물었다고 한다. 또한 周原岐山凤雛에서 발견된 卜甲에서도 “상왕이 하늘과 선왕에게 제를 올려 주방백의 일을 고했다고 한다. 복감이 주나라 사람들이 점을 치던 유물임을 고려해 볼 때 상왕이 하늘과 태갑에게 고한 것은 아마도 문왕의 任命에 대한 일을 고했을 것”⁴²⁾이라고 했는

37) 白鐵 감수, 《合本-四書三經》(良友堂, 1979. 12), 660쪽.

38) 正月上日: 舜이 직위한 첫 달의 으뜸 되는 날.

39) 璿璣玉衡: 日月星辰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기계.

40) 齊七政: 七은 天體중의 중요한 일곱 가지 즉 天體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을 말함.

41) 白鐵 감수, 《合本-四書三經》(良友堂, 1979. 12), 663쪽. 원문: 舜讓于德弗嗣正月上日授終于文祖在璿璣玉衡以齊七政肆類于上帝禮于六宗望于山川偏于群臣.

42) 李學勤, 《中國古代文明十講》(중국: 雲南人民出版社, 1997. 12), 117쪽. 원문: ‘...在文武...貞, 王其昭禘X天, X典 冊(上冊下口)周方伯, XX, X(斯)正,

데, 제를 올릴 때는 틀림없이 예를 다해 경의를 표했을 것이다. 禮란 존경하는 마음으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禮記·禮運》에서는 “그러므로 예는 하늘에 근본을 두었으며, 땅의 형세에 높고 낮음을 드러내어 상·하의 등급을 세우고 귀신을 포열하여...”⁴³⁾라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敬意는 본시 자연과 神에 대한 경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료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서 가장 일찍이 출현한 존칭어는 대부분 神에 대한 崇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단계를 거쳐 인류가 야만에서 문명단계로 진입하게 되고 문자가萌芽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의 발달로 씨족사회가 와해되고 국가조직의 계급사회단계에 진입하면서 그들은 이미 문자를 발명하고 문자로 기록을 했다. 즉 사회와 언어문자의 발달로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문자의 발달로 언어를 기록하게 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언어는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며, 문자는 인류사회의 원시단계에서 문명단계로 발전하게 됨을 상징한다. 우리는 또한 이런 문자의 기록으로 옛사람들의 생활상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禮記·表記》에는 “殷나라 사람은 神을 높이고 백성을 거느려 神을 섬겼다(殷人尊神, 率民以事神.).”⁴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神에 대한 제사와 甲骨文占卜 모두가 종족 혹은 동족으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의 발전에 따라 국가신앙으로 발달되고 사회의 윤리와 예제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골문은 중국 최초의 문자이다. 宋鎮豪·劉源은 이 시기의 “갑골문은 또한 갑골문자라 하며, 商周시기 사람들이 卜甲 卜骨 및 기타 동물의

亡左...王受有祐.; 貞, 王其X, 侑太甲, 冊(上冊下口)周方伯, X, (斯)正, 不左于受有祐(商王舉行祀典, 向天和先王上告周方伯之事. 考慮到卜甲是周人卜問的遺物, 商王告于天和太甲的可能是對文王的任命.).

43) 金瑩洙 주역, 《四書五經·禮記·上》(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260쪽. 원문: 是故夫禮, 必本於天, 口於地, 列於鬼神...

44) 金瑩洙 주역, 《四書五經·禮記(下)》(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339쪽.

骨骼에 새기거나 쓴 복사와 기사문을 새긴 것 및 기타 문자이다(甲骨文, 也稱甲骨文字, 是商周時期人們契刻或書寫在卜甲, 卜骨及其他動物骨骼上的卜辭, 記事刻辭和一些別的文字.)⁴⁵⁾라고 갑골문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우리는 갑골문을 통해 그 당시에 이미 경의 표현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갑골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당시 호칭으로 표현된 존칭어를 알 수 있다.

갑골문은 점을 치는 데서부터 비롯된 만큼, 우선 先王들의 묘호에서 서열과 호칭 제사의 서열을 알 수 있다. 殷墟王卜辭⁴⁶⁾ 중에는 武丁의三世祖“祖乙”위로 商王의 묘호는 上甲¹⁴⁷⁾-報乙2-報丙3-報丁4-示壬5-示癸6-大乙7-卜丙10-大丁8-大甲9-大庚11-小甲12-大戊13-雍己14-中丁15-卜壬16-戈甲17이며, “祖乙”아래로는 祖乙18-羌甲20-南庚22-祖辛19-祖丁21-陽甲23-般庚24-小辛25-小乙26-武丁27-祖己28-祖庚29-祖甲30-康丁31-武乙-文武丁-帝乙-帝辛등으로 묘호를 달리하고, 제사를 서열대로 지냈다. 廟號란 임금 사후에 太廟에 입실하여 제사를 모실 때 특별히 지은 名號로서 선왕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 지었을 것으로 이 또한 언어행위의 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廟號중 祖乙은 “下乙”, “中宗祖乙”, “高祖乙”라고도 칭하고 祖丁은 또한 “小丁”, “四祖丁”, “后祖丁”, 般庚은 “父庚”, “祖庚”, “三祖庚”, 小辛은 “父庚”, “二祖辛”, 小乙은 “父乙”, “祖乙”, “小祖乙”, “后祖乙”, “亞祖乙”, 武丁은 “丁”, “父丁”, “祖丁”, 祖己는 “小王”, “兄己”, “父己”, 祖庚은 “兄庚”, “父庚”, 祖甲은 “父甲”, “帝甲”, 康丁은 “父丁”, “康”, “康丁”, “康祖丁”, 武乙은 “武”, “武祖乙”, 文丁은 “父丁”, “文武”, “文武丁”, 帝乙은 “父乙”, “文武帝”라 또한 칭했다. 이와 같이 은상시기의 갑골문을 통해 당시 사용되었던 존칭어가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5) 宋鎮豪·劉源, 《甲骨文殷商史研究》(福建人民出版社, 2006. 3), 6쪽.

46) 宋鎮豪·劉源, 《甲骨文殷商史研究》(福建人民出版社, 2006.3), 158쪽, 159쪽.

47) 1: 묘호 뒤의 숫자는 제사를 지내는 순서이다. 《甲骨文殷商史研究》(注: 先王先妣后的數字表示先王, 先妣在黃組卜辭中的祭祀次序.), 159쪽.

文丁, 帝乙, 帝辛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조상들에 대한 호칭에 “武”, “康”등과 같은 美稱을 더했다. 예를 들면 “康祖丁”, “武祖乙”등인데 이런 호칭은 실제로 묘호에 해당했으며, 특별히 “康丁”, “武乙”등 先王들을 지칭했는데, 이는 이전의 “祖某”, “父某”와 같은 간단한 단독호칭보다 언어가 더욱 尊敬意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西周의 존칭어

西周에 이르러서 周王은 특정한 冊命의 儀式을 통해 諸侯, 卿大夫와 周王과의 臣屬關係를 禮制로 확정지었다. 따라서 西周에는 禮制를 매우 존중했다. 《禮記》에는: “주나라 사람은 禮를 높이고 은혜의 베풀을 숭상하며 귀신을 섬기며 神을 공경하여 멀리하며 사람을 가까이 하여 충성했다.”⁴⁸⁾ 고 했다. 이처럼 西周에는 예를 높이고 禮制를 중요시했다. 소위 禮制란 貴族, 君臣, 父子, 兄弟, 夫婦, 朋友간의 上下 尊卑關係를 규정한 것이었다. 西周 통치자들은 분봉된 제후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연의 典章 制度和 예의를 제정하여 “周禮”라 하고 그 것은 천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禮制를 지키는 것이 바로 “덕을 존경(敬德)”하는 것이며 덕을 존경하는 것이야 말로 백성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周禮》는 유학경전의 하나로 <天官冢宰>, <地官司徒>, <春官宗伯>, <夏官司馬>, <秋官司寇>, <冬官考工>등 6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편에서는 각 관리들이 자기의 관직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또한 관직에 따라 거느리는 아랫사람의 등급과 인원이 정해져 있었다.⁴⁹⁾ 즉 周王은 자신을 보좌할 太師, 太傅, 太保 등三公을 임명하고三公 아래는 三事官, 四方, 卿등을 임명했다. 또한

48) 金瑩洙 역, 《四書五經-禮記下·表記》(韓國協同出版社, 1984. 4), 339쪽. 원문: 周人尊禮尙施, 事鬼敬神而遠之, 近人而忠焉.

49) 中國國學網 (www.guoxue.com), <古籍經部-周禮>원서 참조.

朝廷을 관장할 太宰, 太宗, 太師, 太祝, 人工, 人卜 등 六卿을 임명했다. 이 외에도 관직이 官職 명칭이 등장하나. 관직 명칭은 또한 존칭어로도 사용된다. 즉 상대방을 부를 때 상대방의 성씨나 이름 뒤에 관직명을 붙이는 것 또한 그 사람에게 걸맞은 존칭어가 된다. 예를 들어 西周 관직 명칭에 대해 《漢典》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卿, 제2인칭대명사로 존경 혹은 사랑의 뜻을 나타낸다.....고대 군주가 신하에 대한 호칭.....고대 고급 장관 혹은 작위의 호칭⁵⁰⁾.
 公, 고대 조정의 최고관직의 統稱.....경어, 남자에 대한 존칭.....옛날에 남성의 長者 혹은 노인에 대한 존칭⁵¹⁾.
 師, 수장, 수령.....고대 배우는 자는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 스승이란, 도를 전수하여 제자의 의혹을 풀어주는 자이다⁵²⁾.
 宰, 관대 관직명, 國君을 보좌하여 집행하는 백관의 수장⁵³⁾.
 太, 고대 皇家, 官家와 관련된 것⁵⁴⁾.

이와 같이 관직명이 곧 존칭어임을 말해 주고 있다. 西周에는 또한 교육을 중요시하여 국학, 향학과 궁궐의 교육으로 나누었으며 학교교육은 고급 군관이 담당했다. 그들의 職名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師” 혹은 “師氏”라 불렀다. 《禮記·文王世子》에는 籥師, 籥師丞, 太師 등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회의 진보와 문화교육사업의 발전으로 사회상류 일부 사람들의 직업이 됨으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칭어라 하겠다. 이 외에도 先師라는 호칭도 등장했는데 이는 또한 지난날에 학식과 덕망이 높아 대중의 師表가 될 인물을 가리키는 말로 존칭어로 봐야 할 것이다.

50) 《漢典》(www.zdic.net), 원문: 卿, 古代用为第二人称,表尊敬或爱意.....古代君对臣的称谓。如:爱卿.....古时高级长官或爵位的称谓。
 51) 公, 古代朝廷最高官位的通称.....敬辞, 尊称男子.....旧时对男性的长者或老人的尊称。
 52) 师 :长,首领.....古之学者必有师。师者,所以传道受业解惑也。
 53) 《漢典》, 宰 : 古官名. 辅佐国君执政的百官之长。
 54) 《漢典》, 太 : 与古代皇家、官家有关的

또한 《周禮》, 《周書》⁵⁵⁾에서는 朝覲 會同 則爲上相; 昭德; 而畏高明; 睿作聖; 賓; 肅 등 행위적인 존칭어도 등장하는데 《漢典》에서는 朝覲을 “조현하다. 신하가 入朝하여 임금을 알현하다.”; 上相을 “옛날 재상을 존칭하여 上相이라함”; 高明의 高를 “타인의 사물에 대한 존칭”; 賓을 “존경함”; 肅을 “공경함”; 睿를 “신하가 군주나 후궁에게 사용하는 경어”⁵⁶⁾라고 해석되어있다. 《周禮·司儀》에는 “제공의 신하는 나라의 객이며 散文에서는 客과 賓을 通稱하지만 서로 호칭할 때는 賓이 존귀하고 客이 비천하다. 즉 賓이 크고 客이 작다.”⁵⁷⁾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西周에는 등급제도와 禮制로 많은 존칭어가 등장하게 된다.

3. 東周(춘주전국시대)의 존칭어

東周시대에는 百家爭鳴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상과 저서들이 등장하게 된다.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와 문체의 발전이었다. 또한 그런 발전으로 존칭어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遠古시대의 언어는 의해 분화되고, 씨족의 합병에 따라 융합하게 된다. 《墨子·兼愛篇(下)》에 禹가 苗를 정벌하는 誓詞에서 “여러 민중들이여! 모두 나의 말을 들으시오! 이 소자(小子)가 감히 혼란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苗(苗)족들이 난동을 일으켜 하늘을 대신하여 별을 내리려는 것이오. 나는 그대들 여러 나라의 여러 임금들을 거느리고 苗족을 정벌하려는 것이오.”⁵⁸⁾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는 당시 부족연맹

55) 白鐵 감수, 《合本-四書三經》-〈周書〉와 中國國學罔-經部-《周禮》 참조. (良友堂, 1979. 12),

56) 《漢典》, 朝覲 : 朝見 朝見, 封建時代臣見君; 上相 : 古時尊稱宰相爲上相; 高: 敬稱, 稱別人的事物; 肅 : 恭也; 賓 : 所敬也; 睿 : 古時臣下對君王、后妃等所用的敬詞;

57) 中國國學罔 (www.guoxue.com), <古籍經部-周禮·司儀>을 참조함. 원문 : 諸公之臣相爲國客, 是散文賓客通稱, 對稱則賓尊而客卑, 賓大而客小.

58) 墨子 저, 배중호·김학주·안병주역, 《한비자·묵자·순자》(삼성출판사, 1990. 9) 270쪽. 원문: 濟濟有衆, 咸聽朕言, 非惟小子, 敢行稱亂, 蠢茲有苗,

의 대 주장으로 그가 각 부족을 통솔하고 묘족을 치러가는 데는 공통적인 언어가 필요했다. 이로서 黃帝 부족언어가 夏禹시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씨족공통언어에서 점차 부족연맹의 공통언어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춘추시기에는 “雅語”(夏言)로 稱했으며, 한나라 이후에는 한어의 근원이 되었다.

이처럼 사회의 진보는 언어의 발전을 추진하게 되며, 언어를 매개로 삼아 상호간의 의사를 교류하고, 구성원 간의 조화를 이루어 가게 된다. 또한 언어사용 영역의 확대에 따라 더욱 다양화 되고 풍부하게 된다. 인류의 가장 중요한 교재도구로서 일반적으로 話者는 언어를 통해 자기의 뜻을 나타내고 聽者는 언어를 통해 話者의 뜻을 받아들여 사상을 교류하고 상호이해에 도달한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언어는 또한 사회발전에 의해 존칭어가 더욱 발달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발전에 의한 언어발전에는 존칭어가 빠질 수가 없다. 즉 사회발전은 언어발전을 필요로 했고 언어발전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됨으로써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됨으로써 더욱 많은 존칭어가 출현하게 되었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의 구성요소는 더욱 분화되며, 사회의 유동 정도가 클수록 사회관계는 더욱 복잡해지며, 사회관계의 처리와 협조도 더욱 곤란해진다. 서로 다른 구성요소와 사회 배역의 협조가 없으면 사회는 안정되어 질서 있게 운행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의 成員간에 그리고 사회의 표면에 드러나는 上下尊卑가 각기 서로 대응하는 인간관계에 이르게 된다. 이런 대응관계를 처리하는 데는 언어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上下尊卑의 관계를 처리하는 데는 下敬上的 언어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하여 경의표현 언어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 또한 사회의 발전으로 계급직위(작위 관직), 여러 가지 상황 등 각종 이유로 사람들은 직선적으로 말을 할 수 없었으므로 늘 예의를 갖추어 경의를 표했다. 즉 신하는 군주에게, 백성은 관리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用天之罰，若予既率爾羣對諸羣，以征有苗。

아내는 남편에게 모두 존경해야하며, 경의를 가지고 대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존경을 나타내는 존칭을 사용해야 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문자로 기록하여 규범을 삼아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게 된다.

4. 漢代의 존칭어

은상주 갑골문과 서주의 춘추금문 이후 한자의 발전은 전국시대의 시작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주로 제후국들이 각기 爲政하여 서로 통속되지 않았으며 문자조차도 각자 사용하여 각국의 문자는 형태구조와 풍격이 모두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로 戰國時代 문자 형태는 극히 혼란했으며 동일한 문자가 각기 다르게 쓰여 졌다. 이런 상황에서 秦始皇이 전국을 통일하여 중국 역사상 최초로 통일된 중앙집권제 국가를 세웠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와 중앙집권 정부를 확립하기 위해 그 당시 정치법령 보급과 경제생산발전 및 문화 교육 전파에 장애가 되었던 문자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문자를 통일했다. 그리고 한나라에 이르러서는 문자로 많은 경전들을 기록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식들을 배우고 그대로 지키도록 했다.

漢대는 진나라 시기에 폐지했던 유학을 다시 부활시키면서 많은 저서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된다. 유학은 중국 봉건시대에 주류를 차지했으며, 최고 통치자들은 모두 유가학설에서 治國平天下의 방침을 찾았다. 그리하여 漢대 이후로 역대 왕조들은 모두 유가학설을 治國의 지도사상으로 삼았으며, 유가사상은 사회생활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을 끼쳤다.

송나라의 유학자 朱熹는 이렇게 말했다. “유교는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이미 존재했다. 뿐만 아니라 二帝(堯, 舜), 三王(夏, 商, 周 3대의 聖王)의 治世教民, 厚典庸禮의 道로 되었으며, 또한 후세 성현들이 著書立說하여 법도로 삼은 바 되어, 이처럼 유교가 추앙됨으로써 유교는 ‘道統’ 또는 ‘國教’의 의의를 갖추게 되었다(儒教自開闢以來, 二帝三王述天理, 順人心, 治世教民, 厚典庸禮之道, 後世聖賢遂著書立說, 以示後世)

.”⁵⁹⁾고 하였으며, 유학경전인 《禮記·大學》에서는 “...남의 군주가 돼서는 仁에 머물렀고, 남의 신하가 되어 敬에 머물렀다(爲人君止于仁, 爲人臣止于敬).”고 《詩經》에 문왕을 찬미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는 당시 봉건사회의 상하 계급 직위에 있어 下敬上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고대 중국의 禮에 대한 儒家의 학설을 모은 《禮記·曲禮》에는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행실이 단정하고 엄숙하기가 무엇을 생각 하는 것처럼 하며, 말을 조용하고 침착하게 하면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毋不敬, 儼若思, 安定辭, 安民哉.)”⁶⁰⁾라고 했다. 이는 漢王朝 밑에서 儒학이 正統사상의 地位를 얻어 차차 敎學의 體裁를 갖추어 따라 ‘道統’으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역대의 왕조들은 모두 유가학설을 治國의 지도사상으로 삼았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일이 있다. 천명을 두려워하고 大人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小人은 천명을 알지 못하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大人을 예로써 대우하지 않으며, 聖人の 말씀을 업신여긴다(孔子曰: 君子有三畏: 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 小人不知天命而不畏也, 畏大人, 侮聖人之言.”⁶¹⁾ 여기에서 “畏”란 <漢典>에서는 敬, 敬服으로 해석했다(畏: 敬, 敬服). 즉 존경하고 복종함을 뜻한다. 또한 <漢典>에서는 “大”는 敬辭 “大人”은 높은 직위에 있는 자, 예를 들면 왕공귀족(大: 敬辭; 大人: 指在高位者, 如王公貴族)으로 해석되었으며, 聖人은 유가에서 지칭하는 도덕 및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이상적인 인물(聖人: 指儒家所稱道德智能極高超的理想人物)로 해석되어 있다. 이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존칭어라 하겠다.

이처럼 儒學은 “敬”을 모르면 예의를 모르는 소인이 된다고 함에 있어 “敬”은 존중, 예를 갖추어 대하는 것(敬: 尊重, 有禮貌地對待), 즉 禮를 중시하였다. <漢典>에서 “禮”란 경의를 표하는 것이며, 존경을 뜻하고

59) 朱熹(宋), 中國國學岡 《朱子語類》 卷125.

60) 金瑩洙 역, 《四書五經-禮記上·曲禮》(韓國協同出版社, 1984. 4), 13쪽.

61) 白鐵 감수, 《合本-四書三經》 <論語·季氏篇>(良友堂, 1979. 12), 175쪽.

존경의 태도와 동작을 뜻한다(禮: 表示敬意; 尊敬: 表示尊敬的態度和動作)”라고 해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가의 흥기로 존칭어는 자연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것은 유학이란 곧 사람들에게 규범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학설이기 때문이다. 유학의 기본 규범은 곧 禮와 仁이며, 이는 유학의 최고 원칙이며 근본정신이다. “仁”은 사람의 관계를 뜻하며 “君君, 臣臣, 父父, 子子” 등의 상하와 존비의 관계이기도 하다. “儒學”은 곧 이러한 上下尊卑의 인간관계를 조화시키는 학설이다. 《禮記·曲禮上》에서는 “예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夫禮者, 自卑而尊人).”⁶²⁾고 하였다. 禮의 성립 원리가 차등이라 하여도, 그 실천적 의의는 상호간에 서로 敬意로 자신의 뜻을 표하며, 서로 尊重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존중의 표현으로 존칭어가 사용되었다.

Ⅲ. 結論

최초에 神에 대한 공경으로부터 시작된 경의표현법은 商대에 이르러 이미 사회생활에도 적용되기 시작한다. 周나라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天地鬼神 조상에 제사를 지내 경의를 표하는 단계를 벗어나 전적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영역에 이르게 된다.

즉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위의 환경을 인식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정신적인 활력과 생사를 설명하려고 했으며 이로서 귀신설이 생겨나게 되고, 조상이 죽은 후 영혼은 죽지 않음으로 部落이나 氏族의 守護神이 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도 함께 配享하여 제를 지냈던 것이다. 조상에 대한 제사방법은 종묘를 세우는 것으로 종묘는 국가 형성과 등급제도에 의해 차별화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유학의 흥기로 上下계급, 尊卑長幼 등의 下敬上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卑敬尊, 幼敬長, 下敬

62) 金瑩洙 역, 《四書五經-禮記上》(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20쪽.

上으로 敬意표현이 다양화 되었다. 이처럼 중국 고대사회의 존칭어는 天地信仰, 조상신앙에서 비롯되어 사람이 자연에 대한 의존 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등급관계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런 존칭어들은 傳承과 발전을 거듭하며 중국의 전통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오늘 날에도 소멸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參考文獻]

- 刘超班, <敬語起源的猜想[J]>(武漢教育學院學報, 1999. 4)
 刘超班, <中国上古敬語的形成因素>(北京聯合大學學報, 1999. 4)
 王金芳, <試論中國古代敬語的特點[J]>(武漢教育學院學報, 2000. 4)
 丁海燕, <中國古代敬語的性質與特点[J]>(東岳論叢, 2000. 6)
 玉 珏, <古漢語委婉語的等級色彩[J]>(洛陽大學學報, 1995. 1)
 王建莉, <敬謙副詞與中國古代倫理關係>(中國典籍與文化, 1996. 1)
 강규선, 《國語의敬語法研究》(보고사, 1997. 12)
 金忠烈·孔繁外, 《孔子思想과21세기》(東亞日報社, 1994. 10)
 배종호·김학주·안병주 역, 《한비자·목자·순자》(삼성출판사, 1990. 9)
 夏先培, 《左傳交際稱謂研究》(湖南師範大學校出版社, 1999. 3)
 郭錦桴, 《漢語與中國傳統文化》(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3. 6)
 洪成玉, 《謙詞敬詞婉詞詞典》(商務印書館出版發行, 2002. 10)
 梁章鉅(清), 《稱謂叢》(天津市古籍書店出版, 1987. 6)
 李學勤, 《中國古代文明》(復旦大學出版社, 2003. 8)
 朱熹저, 韓相甲역, 《論語·中庸·四書集註 I》(株式會社三省出版社, 1982. 2)
 金瑩洙 역, 《四書五經·禮記(上,下)》(韓國協同出版公社, 1984. 4)
 白鐵 監수, 《合本-四書三經》(良友堂, 1979. 12)
 李學勤, 《中國古代文明與國家形成研究》(雲南人民出版社, 1997. 12)
 宋鎮豪·劉源, 《甲骨學殷商史研究》(福建人民出版社, 2006. 3)
 陳戍國, 《中國禮制史(秦漢卷)》(湖南教育出版社, 1993. 12)

- 陳戍國, 《中國禮制史(隨唐五代卷)》(湖南教育出版社, 1998. 12)
李雪山, 《商代分封制度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8)
宋鎮豪, 《夏商社會生活史(上下)》(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9)
鄒衡, 《夏商周考古學論文集》(科學出版社, 198. 11)
王利器, 《史記註譯》(三秦出版社, 1988. 11)
呂不韋 著, 김근 역, 《呂氏春秋》제1권 十二紀 ((주)민음사, 1993. 2)
濮之珍, 《中國語言學史》(上海古籍出版社, 2002. 8)
張豈之, 《中國儒學思想史》(西安人民出版社, 1990. 4)

[국문 요약]

중국은 자고로 禮儀의 나라라고 하며, 禮는 즉 존경하는 것, 바로 타인에 대한 공경함을 말하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어에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 존재하지 않은 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중국어에는 존경을 나타내는 많은 언어들 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 또한 유구하다. 물론 존경을 나타내는 언어는 대화 중 경의를 나타내는 언어들 을 말한다. 그중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존칭어이다. 또한 존칭어는 반드시 형성요인과 과정이 존재 한다. 본 논문은 경의를 나타내는 존칭어의 형성요인과 과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존칭어의 형성요인이 주로 신에 대한 경배에서 시작되고 국가의 형성에 따른 등급제도와 언어문자의 발전 및 유학의 흥기로 사람들 간의 관계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존경으로 대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존경하며, 나이가 어린 자가 나이든 자에게 존경으로 대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이런 관계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내재 되어야 함으로 존칭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존칭어들은 夏, 商, 周 및 秦, 漢대의 발전을 통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中文摘要]

中国自古以来就有礼仪之邦的美称。礼即敬也，就是对他人的恭敬。很多人认为汉语中不存在表敬语，但是实际上汉语中不但有很多表敬语，而且其历史源远流长。当然表敬语是指在语言中表示敬意的语言，其中必不可少的就是尊称语，那么这些语言就会存在形成要素和过程。本论文对这些表示敬意的尊称语的形成要素及过程进行了研究，尊称语的形成要素主要是从对神的敬拜中产生的，而这些表示敬意的语言随着国家的形成而产生的等级制度、语言文字的发展及儒学的兴起运用到了人与人之间的关系中，即人与人之间的以下敬上、以卑敬尊、以幼敬长中，这些都需要对对方表示敬意，为此产生了表示敬意的尊称语，并且有很多经过夏商周及秦汉时期的发展及沿袭至今还在使用。

关键词： 敬意、礼、上帝、神、尊卑。

투고일: 2008. 10. 25.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동사성 동목구조 사용상의 오류분석*

이 효 영**

<목 차>

1. 서론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오류유형과 분석
4. 오류의 원인 분석 및 중국어 교수법에서의 적용
5. 결론

1. 서론

외국어 학습에서 오류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오류분석은 언어연구와 언어 교육 연구의 주요방법이다. 제2언어 습득 중에 학습자가

* 본고에서는 “動賓式動詞”를 “동사성 동목구조”라는 용어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이는 중국 문법학계에서 “動賓式動詞”를 동사와 구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일치하지 못하고 있으며 “動賓式動詞”라는 명칭 또한 “述賓式(述賓結構)”, “謂賓式複合詞” 등으로 쓰야한다는 등의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처럼 단어와 구의 분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사”라는 품사(즉 단어) 단위의 확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사성 동목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좋은 의견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 강사(xiaoying99@hanmail.net)

범하는 오류는 학습자의 중간언어 체계를 밝혀 줄 뿐만 아니라, 제 2언어 습득 과정과 그 규칙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오류는 학습자가 목표어(target language)를 어떻게 학습하고 습득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게 해 주며 그것에 대한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최근 들어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對外漢語教學) 연구에서 이런 오류분석 방법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있거나 공통적인 오류 현상을 연구하는 데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 많은 한계점도 보인다. 더욱이 최근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의 증가로 한국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방법 마련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에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오류 분석은 한국학생들의 중국어 습득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학습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 및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오류분석의 일환으로 중국어를 제2언어로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들이 범하는 중국어 동사성 동목구조 학습과 그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어 동사성 동목구조는 중국어 동사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동사류로, 초급 단계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어휘들을 다수포함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이 동사성 동목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범하는 오류는 주로 초급, 중급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자주 보여지는 오류 현상이다. 대부분의 동사성 동목구조들은 일반 동사들과 달리 분리 확장되는 離合 특징과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성 동목구조의 통사론적 특수함에서 비롯된 이런 특징들은 왕왕 중국어 학습의 난점이 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인 학습자가 중국어 동사성 동목구조를 학습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실례를 유형별로 제시하고 분석한 후, 이를 통해 중국어를 학습하고 습득하는 중에 발생하는 현상들을 파악하고 그 오류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분석 대상 선택

본고에서는 우선 현대중국어사전(现代汉语词典)과 HSK사전을 기본 토대로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과 《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을 비롯한 현재 중국에서 가장 활용 범위가 광범위한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학습 교재 등을 대조, 참고하여 총 240개 동사성 동목구조를 선정하였다.¹⁾

이 선정된 동사성 동목구조 중에서 분리, 확장되는 이합 동사는 총 217개이며, 68개의 동사가 《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에서 빈도수가 높은 갑, 을 급 어휘에 속했다. 이렇게 선정된 동사성 동목구조를 토대로 북경언어대학의 ‘HSK동태 작문 말뭉치’²⁾,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 2학년 학생들의 중국어 작문과 2005년부터 10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중국난징대학교(南京大学) 대외한어과 1, 2학년 학생들의 중국어 작문을 기초 자료로 하여 동사성 동목구조를 사용한 문장을 수집하였다. 이에 한국인 학습자들이 작성한 문장 중에 동사성 동목구조를 사용한 문장 277개 중에 오류 문장 200

1) 동사성 동목구조 선정에 기준이 된 교재로는 杨寄洲主编 《汉语教程(第二册)》(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吴叔平主编 《说汉语》(北京语言学院出版社), 邓懿主编 《汉语初级教程(第二、三册)》(北京大学出版社), 杜荣主编 《汉语中级教程(第一册)》(北京大学出版社), 戴桂芙主编 《初级汉语口语(上、下)》(北京大学出版社), 刘德联, 刘晓雨 《中级汉语口语(上)》(北京大学出版社)가 있다. 또한 동사성 동목구조가 단어에 속하는지 구에 속하는지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가 아직도 일치하고 있지 않아 동사성 동목구조 선정에 여지를 두었음을 밝힌다.

2) ‘HSK동태작문 말뭉치(HSK动态作文语料库)’는 북경언어대학교 崔希亮교수 주도 아래 모국어가 중국어가 아닌 외국인들이 참가하는 고등 HSK작문 시험의 답안 말뭉치로 1992-2005년까지의 총10740편의 작문을 포함한다.

개를 주요 분석대상³⁾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에서 정오의 분류는 正1, 正2, 誤로 나눈다. 正1은 정확한 문법을 사용한 문장, 正2은 정확한 문법에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으나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거나 통용 가능한 문법구조를 사용한 경우이며, 誤는 앞에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간주한다.

이상과 같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사성 동명구조를 사용한 문장에서 빈도수가 높은 동명구조 단어는 다음과 같다.

帮忙	毕业	吵架	出口	打架	打针	担心	道歉	放假
放心	关心	见面	结婚	考试	聊天	留学	跑步	起床
请假	请客	入学	散步	上课	生气	睡觉	跳舞	问好
握手	下班	下课	洗澡	游泳	约会	住院	做梦	

이 중에서 특히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로는 ‘见面, 帮忙, 毕业, 散步, 游泳, 生气, 担心, 起床, 请假, 请客, 起床, 下课, 放心, 关心, 问好, 睡觉, 洗澡, 结婚, 跳舞, 上课’ 등이 있다. 위의 단어들은 모두 어휘 요강에서 갑, 을 급에 속하는 어휘들로 활용범위도 매우 높다. 또한 전체 277개 동사성 동명구조 사용 문장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형으로 귀납됨을 볼 수 있었다.

1. V + 了/ 着/ 过 /+ O
2. V + 的 + O
3. V + 结果/趋向/可能补语 + (了) + O
4. V + 了/过 + 数量补语 + O
5. V + 了/过 + 时量补语 + (的) + O
6. V + 数词 + 量词 + O

3) 수집한 277개 문장 가운데 ‘正’으로 분류된 문장은 144개로 전체의 51.98%에 해당되며, ‘誤’로 분류된 문장은 133개로 전체의 48.01%이다. 전체 133개 문장 가운데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유형의 오류로 나타난 경우는 별개의 문장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수집된 오류문장이 총 200개가 된다.

7. V + 代词(人称代词、疑问代词) + O
8. V + 名词/动词/形容词 + O
9. O2(名词、短语) + V01
10. 介词(给、对、跟、为) + O2 + V01
11. V01 + O2
12. V + 不/没 + V + O
13. 程度副词 + V + O
14. VVO重叠

앞선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동사성 동목구조를 학습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자주 범하는 오류 형식을 아래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⁴⁾

- (1) 생략오류(遺漏) : 언어 형식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생략되어 의미상 불완전한 의미나 중의(歧義)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 (2) 첨가오류(添加) : 언어 형식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더해져 의미상의 중복이나 모순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 (3) 대체오류(替代) : 형식상으로는 비슷하나 의미나 용법이 다른 경우와 용법은 같지만 의미는 비슷한 경우를 가리킨다. 비슷한 문장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 적당하지 않아 어색하거나 틀린 문장으로 간주되며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경우이다.
- (4) 어순오류(錯序) : 언어 성분의 표현 순서가 목표어의 규칙에 부합되는 않는 경우이다.
- (5) 기타 : 앞에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적절한 분류를 찾지 못한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분류한 동사성 동목구조의 오류 유형을 토대로 세부적인 분석을 하였다.

4) 오류분석의 형식 유형은 陈昌来的 《对外汉语教学概论》(2005)와 刘珣의 《对外汉语教育学引论》(2000)를 참고하였다.

3. 오류유형과 분석

동사성 동목구조를 쓴 문장을 오류유형으로 분류했을 때 아래의 <표 1>과 같은 분포 양상을 보인다.

<표1> 형식특징으로 분류한 오류유형 분포

	오류유형	수량	백분율(%)	계
1	어순오류	103	51.5	200
2	대체	27	13.5	
3	생략	25	12.5	
4	기타	25	12.5	
5	첨가	20	10.0	

<표1>은 동사성 동목구조 오류문장의 유형 분포의 기본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어순오류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데 전체 오류의 51.5%를 차지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동사성 동목구조의 주 특징인 이합특성의 학습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대체, 생략, 기타, 첨가형으로 오류유형이 나타났다. 그 중 기타부분으로 분류된 오류는 거의 대부분이 동사성 동목구조의 중첩형 사용에서 발생된 오류문장이다. 동사중첩에 관한 내용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부분과 별도로 하나의 특수 구조로 분류하여 학습할 만한 특징을 가진 유형으로 다른 유형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표를 통해 중첩 유형의 오류도 적지 않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어순오류

어순 오류는 전체오류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상당

부분의 동사성 동목구조들은 이합사(離合詞)에 속한다. 바로학생들은 이런 이합사의 기본용법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주로 동목구조 이합사 문장에서 다른 통사 성분들의 위치문제나 분리, 확장 형태에 대한 오류가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3.1.1 동태조사 了, 过, 着에 의한 분리, 확장

동목구조 이합사가 了, 过, 着로 분리, 확장 될 시에는 일반 동사와 달리 술어성분과 목적어 성분, 두 형태소 중간에 쓰게 된다. 이는 학습자들이 동사성 동목구조의 특징을 제대로 숙지하고 못하거나 일반 동사와 동사성 동목구조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이다. 이런 예는 총 41개의 문장이 있다.

- (1) *下课再回了学校了。
⇒ 下了课再回学校了。
- (2) *我没做梦过。
⇒ 我没做过梦。
- (3) *我和她在上海一次见面过。(或) *我和他一次在上海见面过。
⇒ 我和她在上海见过一次面。
- (4) *他正在生气着呢。
⇒ 他正在生着气呢。
- (5) *他们俩握手着说了一会儿话。
⇒ 他们俩握着手说了一会儿话。

3.1.2 보어에 의한 분리, 확장

동사성 동목구조 문장에서 보어에 의한 분리 확장 문장의 오류 문형 또한 비중이 크다. 역시 동사성 동목구조의 이합 특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못해 발생하는 오류 중의 하나이다.

- (6) *他跑起来步快。

⇒ 他跑起步来很快。

(7) *他听了这句话, 才放了心下。

⇒ 他听了这句话, 才放下了心。

(8) *你生气完了吗?

⇒ 你生完气了吗?

수량 보어와 시간보어를 사용할 때 오류율도 비교적 높은데, 많은 학습자들이 수량사와 시간사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동태조사와 같이 쓰일 때 더 혼동하여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

(9) *她两次结过婚。

⇒ 她结过两次婚。

(10) *我请假了一次。

⇒ 我请了一次假。

(11) *昨天我睡觉了八个小时。(或) 昨天我睡了觉八个小时。

⇒ 昨天我睡了八个小时的觉。

3.1.3 수식어에 의한 분리, 확장

동목구조 이합사의 술어성분과 목적어성분 중간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등이 삽입되어 목적어 성분을 수식하는데, 이런 형태의 오류문형은 총 16개의 문장으로 대부분 명사와 대명사의 삽입에 관한 오류문형이었다.

(12) *你做梦什么?

⇒ 你做了什么梦?

(13) *你代我问好父母。

⇒ 你代我问你父母好。

통계에 의하면, 毕业, 起床, 请假, 下课, 照相, 见面 등의 동사들이 어순 오류에서 빈도수도 가장 높고 오류율도 높은 편으로, 이런 동사들의

오류는 초급단계 학습자들에게 가장 빈번히 보인다. 다음은 동사성 동목구조 문형별로 어순오류 유형의 빈도수와 그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문장형식	빈도수	백분율
V + 了 + O	26	25.24%
V + 着 + O	6	5.80%
V + 过 + O	10	9.70%
V + 的 + O	2	1.94%
V + 结果补语 + (了) + O	6	5.80%
V + 趋向补语 + (了) + O	9	8.73%
V + 可能补语 + (了) + O	5	4.85%
V + 了/过 + 数量补语 + O	9	8.73%
V + 了/过 + 时量补语 + (的) + O	18	17.47%
V + 数词 + 量词 + O	2	1.94%
V + 代词 + O	4	3.88%
O2 (名词、短语) + V01	6	5.80%

3.2 대체 오류

3.2.1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성 동목구조에 목적어를 쓴 오류

- (14) *我的汉语不好, 谁帮忙这个作业吧。
 ⇒ 我的汉语不好, 谁帮忙做一下这个作业吧。
 (或) 我的汉语不好, 谁帮我做一下这个作业吧。
- (15) *很多朋友见面我, 常常问我“有男朋友吗?”
 ⇒ 和朋友见面, 常常会有人问我“有男朋友吗?”
- (16) *对不起, 今天我打扰你了, 明天我请客给你。
 ⇒ 对不起, 今天我打扰你了, 明天我请客。
- (17) *他们约会过我, 我没去。
 ⇒ 他们约过我, 我没去。
- (18) *我毕业大学已经三年了。
 ⇒ 我大学毕业已经三年了。

위 예문의 동사성 동목구조들은 모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들로 대부분의 동사성 동목구조들은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 학생들은 위의 동사들과 일반적인 다른 동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의미적으로 비슷한 동사와 혼용하여 쓴다. 예를 들면 ‘见面, 见’, ‘帮忙, 帮助, 帮’, ‘约会, 约’등의 동사들이다.

3.2.2 동사성 동목구조 문형의 전치사 사용의 오류

- (19) *我给朋友生气了。
⇒ 朋友让我生气了。我惹朋友生气了。
(20) *那天, 我先跟张老师拜年了。
⇒ 那天, 我先给张老师拜年了。

중급단계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동사성 동목구조가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목적어 대신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전치사의 정확한 용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전치사로 대체하는 오류를 범한다. 대체 오류 문장의 문형 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문장형식	빈도수	백분율
介词(给、对、跟、为) + O2 + V01	9	33.33%
V + 代词(人称代词、疑问代词) + O	7	25.92%
V + 过 + O	2	7.40%
O2(名词、短语) + V01	5	18.51%

3.3 생략 오류

- (21) *天天我很担心(他)。但他每天很认真的。

- (22) *非常关心(朋友)。
 (23) *他不顾自己的健康, 所以全家人都很担心。(他)

위의 오류문형 중의 동사성 동목구조는 분리, 확장되는 이합의 특징을 가지면서 또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이다. 이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동사성 동목구조들이 목적어를 못 가진다고 여겨 오히려 동목구조의 동사를 사용할 때 목적어를 쓰지 않아 생긴 오류이다. 이런 오류들은 중급이상의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생략오류 문장의 문장형식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문장형식	빈도수	백분율
V01+O2	10	38.46%
介词(给、对、跟、为)+O2+V01	7	26.92%
V+助词(了、着)+O	2	7.69%
V+的+O	5	18.80%
V+补语+(了)+O	2	6.30%

3.4 첨가 오류

3.4.1 동사성 동목구조의 어휘특징 오용

- (24) *明天考英语考试, 你必须参加, 要不不能毕业。
 ⇒ 明天有英语考试, 你必须参加, 要不不能毕业。
 (或) 明天考英语, 你必须参加, 要不不能毕业。

이는 모국어인 한국어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으로 ‘考试’란 어휘를 한국어의 대응되는 동사의 용법과 동일하게 사용한 것이다.

3.4.2 동사성 동목구조문형의 전치사 용법 이해 부족에서 오는 오류

- (25) *你什么时候给我请客?
 ⇒ 你什么时候请我?

문장형식	빈도수	백분율
V+了+O	3	27.30%
介词 (给、对、跟、为) + O2+ V01	3	27.30%
V+不/没 +V+O	1	9.10%
V+的+O	1	9.10%
V01+O2	2	18.20%
其他	1	9.10%

3.5 기타-동사성 동목구조 중첩형식의 오류

- (26) *有空请到我家来聊聊天吧。/有空请到我家来聊聊天吧。
 ⇒ 有空请到我家来聊聊天吧。
 (27) *吃晚饭以后我们去公园散散步吧。
 ⇒ 吃晚饭以后我们去公园散散步吧。

동사성 동목구조는 술어성분과 목적어 성분 사이에 관계가 긴밀한 동사들(예를 들면, ‘关心’, ‘动员’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분리되는 이합사로 이런 동사들의 중첩형식은 일반 동사와 다르다. 이 분류의 동사들은 보통 ‘VVO’, ‘V了VO’, ‘V-VO’의 형태로 중첩을 한다. 이 오류 유형의 빈도수는 높은 편으로 이 동사류의 중첩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오류의 원인 분석 및 중국어 교육에서의 적용

4.1 오류 원인

4.1.1 언어간 전이에서 비롯된 오류

언어간 전이는 오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특히 제2언어 학습의 초급 단계에서는 모국어 간섭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대다수로 학습자들은 학습한 제2언어 체계가 익숙해지기 전까지 모국어의 체계를 대응하려 하는데 여기서 바로 모국어로부터의 부정적인 전이가 발생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28) *昨天我们见面了周老师。
⇒ 昨天我们见了周老师。
- (29) *他帮忙过我。
⇒ 他帮过我。(或) 他帮过我的忙。
- (30) *我三年前毕业了大学。
⇒ 我三年前大学毕业。
- (31) *今年他入学大学。
⇒ 他今年上大学。(或) 他今年上了大学。
- (32) *晚上我们散步校园。
⇒ 晚上我们去校园里散步。
- (33) *我要录音他唱的那首歌儿。
⇒ 我要录他唱的那首歌儿。

이런 오류현상은 일반적으로 초급단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주요원인은 학생들이 한국어와 대응되는 중국어 동사를 표면적으로 보이는 한국어와의 동질감에 근거하여 동일시하는 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예문(28)의 ‘见面’은 동사성 동목구조로 목적어를 가질 수 없으며 ‘A跟B见面’, ‘见B的面’으로 써야 한다. 예문(29) ‘帮忙’ 역시 ‘帮我的忙’로 해야 한다. 이 동사들은 한국어로 번역시에 모두 목적격 조사인 ‘을/를’을 가지는 동사로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만나다’와 ‘돕다’의 용법을 그대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30)–(33)의 ‘入学’, ‘毕业’, ‘散步’, ‘录音’ 같은 동사 역시 목적격조사 ‘을/를’을 가질 수 있다. 이 오류 문장들은 학습자들이 한국어

속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한자어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위의 동사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가 같은 형태(同形)나 혹은 비슷한 형태(近形)의 한국어 동사와 대응하는 경우에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며 그 부정적인 영향의 결과가 오류발생으로 나타난다. 비록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한자어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위의 오류 예문 같은 문장들은 초급단계의 학습자뿐만 아니라 중급 단계의 학습자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어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중국어 한자어와 한국어 한자어의 그 통과 뜻을 이해시켜줄 필요성을 보여준다.

4.1.2 언어내 전이에서 비롯된 오류

언어내 전이는 학습자가 목표어 체계의 습득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미 습득한 목표어에 대한 과잉 일반화에서 발생된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4) *那天, 我先拜年了张老师。
⇒ 那天, 我先给张老师拜了年。
- (35) *我应该去道歉他。
⇒ 我应该去向他道歉。(或) 我应该去给他道歉。
- (36) *这回我请客你吧。
⇒ 这回我请客吧。(或) 这回我请你吧。

위의 예문에서 나타난 동사들은 한국어로 대응될 때, 목적격 조사 ‘을/를’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목적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는 이미 중국어 동사의 일반적인 특징을 학습한 학습자들이 동사성 동목구조들도 일반 동사와 동일한 용법으로 과잉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데서 발생한다. 동사성 동목구조 중첩형에 관한 오류도 이런 과잉 일반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어 일반 동사의 중첩형인 ABAB식을 그대로 적용시켜 ‘洗澡洗澡’, ‘跳舞跳舞’, ‘见面见面’ 과 같은 오류 문장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 외에도 중급 단계 이상의 학습자들에게서 보이는 많은 오류들이 언어내 전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 (37) *我一直关他的心。
 ⇒ 我一直很关心他。

동사성 동목구조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소수의 동사들은 목적어를 가진다. 예를 들면, ‘担心, 关心, 注意, 出口, 动员’ 등은 목적어를 가지는 데도 불구하고 ‘동사성 동목구조들은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는 선행 학습의 경험으로 목적어를 회피하는 문장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동사성 동목구조들이 분리, 확장이 가능한 이합사 류에 속하는데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위의 동사들 중에서 ‘关心, 动员’ 등은 분리, 확장이 불가능한 동사이다. 이렇게 같은 동사성 동목구조라도 개별적인 동사의 특징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므로 학생들의 효과적인 습득을 위해서 동사성 동목구조의 전체적인 특징을 가르치는데 특히 빈도수 높은 동사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징을 간과하지 않도록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1.3 학습 환경에서 비롯된 오류

이 오류는 학습자가 제2언어를 습득하거나 학습하는 교실이나 교재, 교사, 사회적 상황, 교육 요강, 교육순서, 교육 방법 등의 모든 환경적인 요소에서 파생된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생된 오류이다. 동사성 동목구조의 오류 현상에서는 주로 교재와 사전 편찬의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다. 아래의 예를 보자.

- (38) a. *我的妹妹结婚了那个男人。
 b. 我的妹妹和那个男人结婚了。
 c. 내 여동생은 그 남자와 결혼했다.

- (39) a. *他总是吵架小王。

- b. 他总是跟小王吵架。
c. 그는 늘小王과 싸운다.

예(38), (39) 두 문장의 한국어와 중국어 문장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 문장과 중국어 문장은 문법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초급단계에서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국에서 편찬된 중국어 교재들의 동사성 동목구조의 표기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직도 많은 교과서들이 동목구조의 이합사 동사들을 아무런 표기 없이 단순하게 영어로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跳舞-to dance’, ‘结婚-to marry’, ‘睡觉-to sleep’, ‘抽烟-to smoke’등으로 간단하게 대응되는 영어 단어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제2언어 체계 습득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런 오류는 한국인 학습자뿐만 아니라 영어권 학습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오류들이다. 이 오류 현상의 원인이 중국어 자체의 독특함에서 나오는 것⁵⁾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학습 환경, 특히 교재나 교육 요강 등의 그 외적인 부분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된다. ⁶⁾

또한 교재와 사전에서 동목구조 이합사를 표기함에 있어서 그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도 학습자들의 이해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다. 다음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교재에서의 어휘표 표기 예이다.

-
- 5) 신승희,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동사 사용상의 오류분석〉, 《中國言語研究》 第18輯 (2004:315쪽)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이합사 사용상의 오류현상이 영어권 학생들의 오류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서로 다른 언어권에 속한 학습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현상의 원인은 중국어 자체의 독특함에서 기인한다고 하였으며, 바로 이합사의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하였다.
- 6) 오류 문장 말뭉치 분석 결과, 중국 현지에서 번역되지 않은 중국어 교재로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 학생들에게서 이런 오류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다. 이는 모국어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목표어와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목표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교재명	품사 표기 없는 것	품사 표기 있는 것	분리 표기한 것
《汉语教程》	抽烟chōu yān 担心dānxīn 放假fàng jiǎ 放心fàngxīn 吵架chǎo jià 道歉dào qiàn 忍心rěnxīn 伤心shāngxīn	小心 (形、动) 生气(动) 闻名(动) 无心(动)	转(身)(动)
《实用汉语课本》	跳舞 to dance 滑冰 to skate 见面 to meet 睡觉 to go to bed 游泳 to swim	毕业(动) to graduate 考试(动、名)) to test	起床 起(动) 床(名)
《基础汉语课本》	起床 to get up 睡觉 to sleep 跳舞 to dance 毕业 to graduate		下(雨)(动)

몇몇 교재에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동사성 동목구조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품사 표시를 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지 않고 분리해서 구분하는 방식으로 그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각 교재마다 제각기 다른 분류를 하고 있거나 너무 많은 처리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법 요강들을 살펴보면 이 부류의 동사들에 대한 ‘특수함’을 인정하여 하나의 문법항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단어들의 열거에 그칠 뿐 분류 기준이나 설명은 간단하거나 혹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이를 문법 요강에 반영하고 교재 편찬이나 사전편찬에 활용하여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4.2 중국어 교육에서의 적용

4.2.1 동사성 동목구조 문장의 한국어와의 대응관계 응용

제2언어 습득과정에서 모국어의 영향은 크다. 모국어로부터 야기된 부정적인 전이가 오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모국어와 목표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밝혀 각 언어의 특징을 명확히 파악하는 작업은 오히려 목표어 습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동사성 동목구조를 그 의미관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 후, 한국어와 대응하여 그 규칙성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교수와 학습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한, 중 번역 대조	형식표지	
대칭관계류 对称关系类	我和他结婚了。 나는 그와 결혼했다.	跟、和、 同、与 와, 과	吵架、成亲、打架、分手、结婚、离婚、谈话、谈天、握手等
지향관계류 指向关系类	我向他敬了礼。 나는 그에게 경례했다.	向、给、 对 에게, 께	拜年、帮忙、报仇、道歉、告别、鞠躬、请假、生气等
기타류 其它类	我大学毕业了。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毕业、考试、入学、散步、录音等

饶勤은 동사성 동목구조의 의미관계를 대칭관계와 지향관계로 나누었다.⁷⁾ 여기서 대칭관계란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개체가 공동으로 행위 동작을 완성하는 ‘협동성’을 지닌 관계를 뜻하는데 이 때 두 개체가 모두 동작에 참여해야만 한다. 이 부류에 속한 동사들은 전치사 ‘跟, 和, 同, 与’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대응되는 한국어 역시 공동으로 행위를 하는 그 대상을 가지는 격조사를 수반한다. 지향관계류는 지향성을 나타내는 동사성 동목구조들을 뜻하며 한국어로 대응되는 동사도 비슷한 의미관계를 가진다. 이 부류의 동사들은 한 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7) 饶勤, 〈离合词的结构特点和语用分析—兼论中高级对外汉语离合词的教学〉, 《汉语学习》 第1期 (1997), 350쪽.

동작의 방향이 지향되며 행위를 행하는 주체와 대상이 확연히 구분된다. 중국어에서는 ‘向, 给, 对’ 등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수반하게 되며 한국어에서도 여격 조사 ‘에게, 께’로 대상을 표현한다. 이 두 부류의 문장 형식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문장형식과 비슷하며 바로 그 의미관계의 파악을 통해 일련의 규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류에 포함된 동사들은 한국 한자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어휘들이다. 이 어휘들은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간의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학습자들이 헛갈리기 쉬운 한자어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그 용법과 의미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학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4.2.2 통일된 교육설계와 교재의 개선

중국 문법학계에서 동사성 동목구조는 이것을 동사와 구 중 어디로 분류할 건지에 관해 여전히 난점으로 남아있다.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2언어 습득으로서의 중국어교육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통일성 없는 어휘표 구성과 표기법은 학습자들과 교사들을 혼란시키고 일반 동사의 용법과 혼동하게 하여 문법적 오류를 쉽게 범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중국어 교육 문법을 위한 규범화된 표기법을 기준으로 동사성 동목구조를 일관성 있게 분류하고 이를 교재에 반영,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비록 동사성 동목구조가 문법적으로는 동사에 가깝다 하더라도 교재에서는 단어보다는 구에 가깝게 연습하고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동목구조 이합사 용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동사성 동목구조의 동사성 성분과 목적어 성분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면서도, 분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라는 개념으로 어휘의 발음 표기에서 한어병음 사이를 띄어쓰기 하고 원래 동사성 성분을 분리하여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음을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游 yóu (v) to swim 수영하다
- 游泳 yóu yǒng (v+o) to swim , to have a swim 수영을 하다
- 唱 chàng (v) to sing 노래하다
- 唱歌 chàng gē (v+o) to sing, to sing a song 노래를 부르다

그 외에도 교재에서 관련 연습문제를 설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이 어휘들의 특성과 이합특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문형을 아래와 몇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술어 + 동태조사 + 목적어 : 请了假, 请过假
- 술어 + 수식어 + 목적어 : 请什么假
- 술어 + 시량보어 + 목적어 : 请过几天假, 请了几天假

또한 동사성 동목구조와 그 문장에 관한 일관성 있는 용법과 그 문법적 특징의 소개 및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교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동사성 동목구조의 주요 특징과 이합사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분리, 확장 시에 특징을 강조한다. 둘째, 어휘 표기 시에 일반 동사와 구별, 표기하여 인지의 효과를 높인다. 셋째, 비교적 자주 활용되는 이합 문장유형을 소개한다. 예를 들면 ‘了, 过, 着, 的’가 삽입된 문장형식이나 보어가 삽입된 형식 등을 설명하며 그에 따른 연습 항목을 설계하여 학습자들에게 익숙해지도록 한다. 넷째, 일반 동사와 다른 동사성 동목구조의 중첩형식에 대한 항목처럼 일반 동사의 어법 형식과 비교, 지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그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과정을 시행하여 오류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한다.

5. 결론

이상에서 일부 한정된 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동사

성 동목구조 사용상의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해 보았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오류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 어순오류에 대한 오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볼 때 동사성 동목구조의 이합특성과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특징에 관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인다. 또한 그런 오류의 발생 원인으로는 동사성 동목구조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인식부족, 한국어의 간접, 중국어 자체의 특수성 학습의 난점, 교재나 교육 요강의 통일화된 설명 부족 등을 들 수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와의 대응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들이 동사성 동목구조의 용법을 더 잘 이해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안 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오류를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외국어 습득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분석은 제2언어 습득에서의 중국어 교육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학습 내용과 교육방법을 설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 이런 오류 분석의 결과는 더 세분화 된 문법 항목의 제시 및 학습 목적에 맞는 자료 준비, 단계별 학습의 설계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교육학계의 이런 오류 분석 연구는 각 영역별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이 연구에 대한 양적·질적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다양한 범위와 방법을 이용한 오류 분석이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안 및 교수법 개발에 응용되었으면 한다.

[參考文獻]

- 陈昌来主编, 《对外汉语教学概论》, (上海: 复旦大学出版社, 2005)
 李大忠, 《外国人学汉语语法偏误分析》, (北京: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1996)
 李开, 《汉语语言学和对外汉语教学论》,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 刘英林主编,《汉语水平等级标准与语法等级大纲》,(北京:高等教育出版社,1996)
- 刘珣,《对外汉语教育学引论》,(北京: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2000)
- 鲁健骥,《对外汉语教学思考集》,(北京: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1999)
- 陆俭明,《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3)
- 饶勤,〈离合词的结构特点和语用分析—兼论中高级对外汉语离合词的教学〉,《汉语学习》第1期(1997)
- 杨寄洲主编,《对外汉语教学初级阶段教学大纲(1)》,(北京: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1999)
- 杨锡彭,《汉语语素论》,(南京:南京大学出版社,2003)
- 袁毓林,《汉语动词的配价研究》,(南昌:江西教育出版社,1998)
- 中国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办公室汉语水平考试编,《汉语水平词汇与汉字等级大纲》,(北京: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1993)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现代汉语词典(第五版)》,(北京:商务印书馆,2005)
- H. Douglas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ition, Longman, 2000.
- 신승희,〈한국인 학습자의 중국어 동사 사용상의 오류분석〉,《中國言語研究》第18輯(2004)

[中文摘要]

本文着重从韩国学生使用动宾式动词时的偏误和非偏误的综合情况出发,通过语言对比的手段,期望能从这些偏误与非偏误的句子形式中,更全面地了解初级和中级水平韩国学生习得汉语动宾式动词的情况,以便在教学中对学生加强相关训练。动宾式动词是一个比较特殊的动词类,它自身已有宾语,且容易离合,受到汉语语法结构的制约,往往不允许再出现宾语。韩国

학생이 중국어 동사성 동목구조를 학습할 때 동사성 동목구조가 가지는 불완전성 및 결합성, 이는 한국 학생이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법 오류이다.

본문을 통해 한국 학생이 동사성 동목구조를 사용하는 오류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동시에 한중 대조 언어학의 각도에서 번역상의 문제와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인 학습자의 240

关键词：동사성 동목구조, 문법 오류, 중국어 교육, 교육 전략

[한글 요약]

본문은 한국 학생의 동사성 동목구조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 문장과 비(非)오류 문장의 실제 예문을 바탕으로, 언어 대조 방법을 통해 한국인 학습자의 오류 문장 형식을 분석하고 또 이를 통해 초급과 중급 학생들의 동사성 동목구조 습득 상황을 전면적으로 이해하여 중국어 교육에서 더 나은 교육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동사성 동목구조는 비교적 특수한 동사류로 동사 자체에 목적어 성분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특징과 또한 이합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문법 구조상 제약을 받기가 쉽다. 한국 학생들은 바로 이러한 동목구조의 특징을 학습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며, 이는 또한 한국 학생들이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문법 오류 중의 하나이다.

본문은 한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동사성 동목구조 관련 오류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으며,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동시에 한중 대조 언어학의 각도에서 번역상의 문제와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제2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한국인 학습자의 240

개 동사성 동목구조 사용 상황에 대한 고찰과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하여 중국어 교육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한국인 학습자에게 위한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방안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한국인 학습자의 동사성 동목구조 사용과 습득과정을 밝히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동사성 동목구조, 문법 오류,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제2 언어로서의 중국어 교육, 교육 방안

투고일: 2008. 10. 25.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被字句”의 “被”에 대한 품사 범주 고찰

이수진*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被’의 품사 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
3. ‘被’의 품사 범주
 - 3.1 피동문의 제약 조건과 ‘被字句’
 - 3.2 피동의 의미 기능을 하는 경우
 - 3.3 피동 외의 의미 기능을 할 경우
4.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被字句’의 성격을 결정짓는 ‘被’는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들과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그 통사적 범주에 대해 많은 이견을 가지는 단어이다. 일반적인 경우 ‘被’는 피동문을 형성하여 동작의 행위자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되지만 실제로 ‘被’의 활용 형태를 살펴보면 그 양상이 이러한 일반적 설명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被’가 가지는 문법적 활용성에 근거해볼 때 정확한 품사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 현상들은 그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이끌어 내지 못하게 한다. ‘被’의 작용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被’가 피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lsj6061@hanmail.net)

동문에서 행위주를 설명한다는 것인데, 陆俭明(2004:9-10)은 이러한 기존의 설명이 ‘他被那件事情愁死了’와 같은 예에도 과연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심하였다. 왜냐면 ‘被字句’의 ‘被’는 행위주를 이끈다고 설명하지만 여기서 ‘那件事’는 ‘행위주’라기보다 ‘원인’에 훨씬 가까우며, 문장 전체가 동작의 ‘태(voice)’로서 피동의 개념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被字句’의 다양한 활용 형태는 상술한 陆俭明을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被’의 통사적 지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게 하고 있다.

품사의 분류 및 정의는 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품사에 대한 규정이 언어학적으로 어떠한 효용가치가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품사는 개별 언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통계적 자료이므로 모든 단어들이 모두 다 그에 맞게 설명되지 않을 수도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被字句’에서 ‘被’의 품사가 규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被字句’의 활용형태가 다르게 작용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사를 통한 ‘被’의 통사적 지위를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작업이 ‘被字句’ 혹은 피동문 전체의 논항 구조 및 의미역의 설정에 대한 기초적 분석이 되기 때문이다. ‘被字句’에서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문장 내 동사 술어에 주어진다면 ‘被’가 동사나 전치사냐 하는 문제는 그 피동문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被’이냐 아니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被字句’의 ‘被’가 가지는 품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被’의 품사 성격에 대한 기존 연구

단어의 품사적 성격을 규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 단어의 활용 형태와 의미에 근거하여 결정하게 된다. 중국어의 경우 이 활용 형태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굴절이 아닌 문장 내 단어 간의 결합 관계와 같은 통사적 활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被’ 역시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활용 형태에 따라 품사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으며 ‘被’가 나타나는 문장의 통사적 분석을 통한 기존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1) 전치사설

‘被’를 전치사로 보는 견해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한어 사전 및 한어 어법 관련 서적에서 ‘被’는 ‘행위주’를 이끌고 동시에 그 주어의 ‘피행위주’로 지정하는 전치사[介词]로 정의되고 있다.²⁾ 고대한어에서 ‘被’는 ‘입다’의 의미의 동사였으며 현대에 이르러 전치사로 허화(虛化)하였다는 것이 ‘被’ 전치사설의 대략적 견해이다. 이는 ‘被’가 동태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중첩형식 혹은 정반의문문 형식을 취하지 않는 등 동사로서의 특성을 모두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2) 접사(接辭)설/피동표지사설/조사(助辭)설

이는 ‘被’를 영어의 ‘-en’과 같은 굴절 요소로 보는 경우이다. 대부분 ‘被’ 뒤에 명사성 성분이 제시되지 않는 단거리 피동문에서 ‘被’의 성질을 이와 같이 설명한다. 呂叔湘(1980) 또한 논리주어가 출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이 ‘被’를 일종의 피동형태소로 인정, 동사와 함께 피동사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반면 石定栩、胡建华(2005)는 ‘被字句’의 구조에 따라 ‘장거리 被字句(被+NP+VP)’와 ‘단거리 被字句(被+VP)’로 나누고 전자의 구조에서

2) 曹翔(2003;p.56)에 따르면 1955년에 출판된 초중등학교 한어 교재에 해당하는 《汉语知识》에 이미 ‘被’는 피동관계를 표현하는 특수한 전치사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며, 이후 관련 고등 교육 관련 교재에서는 대부분 ‘被’가 전치사라는 견해를 견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외 朱德熙(1982), 黄伯荣·廖序东(1991), 李珊(1994) 등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被’는 전치사로, 후자의 경우 피동을 나타내는 피동표지사설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피동 표지사라고 함은 영어의 ‘-en’와는 다른 것으로 보지만 동사구의 한 일부가 되어 문장을 피동문의 성격으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 해당하는 또 다른 설명은 ‘被’를 조사로 보는 것이다. 중국어의 조사는 문장 내에서 모종의 어법 의의를 표현하지만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被’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상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단거리 피동문의 ‘被’의 성질에 대해서만 제한되는 것으로 동사와 직접 결합하여 피동문을 형성하는 일종의 굴절 조사로 인정한다.³⁾

3) 부사설

曹翔(2003)는 술어 동사가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 ‘被’는 해당 술어 앞에 위치하며, 동사가 표현하는 동작의 행위주를 강조하고자 할 때 그 동작자는 ‘被’ 뒤에 출현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 때 ‘被’는 구체적인 어휘적 의미 없이 어법의의만을 지녀 주체어의 수동성을 표현하는 부사라고 본다.

4) 동사설

‘被’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 부가어의 성격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기본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가지는 견해이다. 이들은 구어체에서 ‘被’가 시태조사와 결합하기도 하며, 정반의문의 형식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동사의 통사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被’에 대한 동사설은 이러한 통사적 특징을 논거로 하는데

3) 실제 일부 ‘被’가 피동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굴절 요소처럼 활용되는 예가 있는데, 이들은 마치 하나의 파생 복합사처럼 활용된다. ‘被捕’, ‘被迫’, ‘被愛’, ‘被逼’ 등이 그 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은 이음절, 때로 다음절의 복합사로서 통사적 피동이 아닌, 어휘적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의 ‘被’를 다른 품사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기에 그 수가 너무 적고 내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쉽게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 더 발전하여 熊仲儒(2003)는 ‘被’를 경동사적 성격을 지녔다는 판단 아래 논의를 진행하며 이지현(2004)은 지배결속이론의 관점에서 장거리 피동문의 ‘被’는 외재논항으로 주어 NP를 갖고 내재논항으로 목적어 IP를 취하는 타동사로 분석하며, 단거리 피동문의 ‘被’는 VP를 목적으로 취하는 양상조동사 혹은 경동사로 간주하여 특수 동사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다.⁴⁾

‘被字句’의 ‘被’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가지는 통사적 결합 형태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被’에 대한 통사적 설명이 쉽게 적용되기도 하고 또 그만큼 쉽게 반론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술한 주장에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 1) 중국어의 전치사는 후치하는 목적어를 생략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이 ‘被’는 통사적, 화용적 조건에 아래 그 목적어의 생략이 비교적 보편적이다. 이것이 ‘被’가 전치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 외 ‘被+NP’는 문두로 이동할 수 없고, 또한 관형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제시되기도 한다.
 - 2) 접사는 다른 단어에 대한 굴절 형태소가 되므로 이 경우 동사와 ‘被’는 서로 분리되지 못하며 따라서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없다. 그러나 ‘张三被狠狠地批评了一顿’에서처럼 ‘被’ 뒤에 부사성 성분이 올 경우 ‘被’는 동사와 직접 결합되지 못하므로 접사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石定栩、胡建华(2005)의 견해에 대해 安丰存(2007)은 만일 해당 피동문의 동사가 단일 동사가 아니라 연동문 등과 같은 복잡한 구조가 될 때 이 피동표지사가 정확히 어떤 동사와 결합하여 의미 구조를 형성하는 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피동표지사라는 것은 해당 단어의 통사적, 의미적 기능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일 뿐 해당 단어의 품사적 성격을 설명해준다고는 할 수 없다.
- 조사로서의 ‘被’ 역시 접사와 그 성격을 같이 하되 명칭만 달리 한 것

4) 그 외 藤凤生(1997), 김광조(2001) 또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으로 보인다. 중국어의 접사가 문장의 문법적 범주에까지 관여하는 예가 없으므로 접사의 성격보다 조사의 성격에 가깝다고 하였을 뿐 이를 영어의 피동형태소 '-en'과 비교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

- 3) 중국어에서 부사는 부가적인 성분으로 문장 전체의 사건 구성이나 성분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요소이다. 반면 '被字句'의 '被'는 사건의 인지 주체를 다르게 설정하며 논항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등 그 자체가 문장의 구조적 결합에 관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문장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 4) '被'는 동사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지 못한다. 단독으로 술어를 구성할 수도 없으며 시대조사와 결합할 수도, 정반 의문의 형식 혹은 중첩 형식으로 활용되지도 못하므로 동사가 아니다.

상술한 관점에 대한 논증과 그에 대한 반증들은 모두 '被'의 통사적 결합 형태에 근거한 분석들이다. 중국어는 형태적 굴절이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단어 간의 통사적 결합 형태에 있어서 그 제약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혹은 예외적인 경우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언어이다. 명사가 형태적 굴절 없이 동사로 활용되고, 형용사 역시 원형 그대로 부사어로 활용되는 등 해당 품사가 가지는 성격과 문장 내의 활용 형태가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被'가 전치사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사라고 본다든지, 동사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본다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통사적 결합은 통사적 범주 규정에 완전한 근거를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의미 범주에 대한 분석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被'의 통사 범주는 그것이 문장 내에서 어떤 의미 기능을 가지는 지 그 의미적 범주 형태에 대한 고찰을 우선으로 하여 살펴보고, 통사적 결합 형태에 대한 보충적 분석을 통해 그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도록 한다.

3. '被'의 품사 범주

한 단어의 품사를 규명하는 데는 그 단어의 특색을 이루는 3가지 본질적인 요인을 근거로 하게 된다. 그 3가지는 단어가 설명하는 범주적 의미, 형태적 특징을 설정하게 되는 성질, 다른 단어와의 통사적 결합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 중에서 품사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단어가 설명하는 범주적 의미에 가장 크게 의지하겠지만 품사의 특성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기준이라는 면에서 이 ‘범주적 의미’는 충분하지는 않다.⁶⁾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 그 언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형태적 활용이나 통사적 결합가치가 부차적으로 작용하여 단어의 성격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어의 경우 어미의 활용이나 조사의 결합 형태에 따라 품사가 구분될 수도 있지만 굴절이나 첨가가 없는 중국어의 경우 의미와 더불어 단어와의 결합 관계에 따라 품사가 구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의미 범주와 통사적 결합관계는 ‘被’의 품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被’가 가지는 범주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것이 통사적 결합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3.1 피동문의 제약 조건과 ‘被字句’

인지적 측면에서 ‘피동’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외부적 힘에 의해 모종의 영향이나 작용을 받는 것’으로 언어적 측면에서는 ‘그 모종의 영향이나 작용을 받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이 사건/상황에 대한 관점의 주체가 되어 서술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피동의 개념을 언어학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피동문은 의미론적, 통사론적 성립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형식 요건, 구성 요건의 제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

5) 陆俭明(1993)은 품사 분류의 근거로 단어의 뜻, 형태, 어법적 기능 이렇게 3가지를 제시하면서도 이 중 단어의 어법적 기능만이 품사 분류의 가장 정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6)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훈(1992)을 참조.

(1) 구성 요건의 제약

- a. 술어는 동작성 동사와 보충 성분을 가진다.

杯子被孩子打碎了。

- b. 동작성 동작을 주재하는 동작자와 그 작용을 받는 대상이 있다.⁷⁾

杯子被孩子打碎了。

(2) 형식 요건의 제약

- c. 동작의 작용을 받는 대상이 문두에서 주어로 실현된다.

杯子被孩子打碎了。

- d. 문장 내 피동 서술어가 있어야 하며 이 피동 서술어는 형태적 혹은 어휘적 요소로 외현되어야 한다.

杯子被孩子打碎了。

피동문은 동작의 이행(移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이행 결과 가지게 되는 변화나 영향이 문두 논항을 의미 지향점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피동문은 그 결과나 영향이 생성될 수 있는 실제적인 ‘동작’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그 동작의 ‘결과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 성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피동문이 가져야 하는 상(相)적 특징인 ‘[○동작성][+상태성]’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다.

또한 이 피동문이 표현하는 사건에는 사건을 유발하는 동작자와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 때 동작의 작용 및 영향을 받는 대상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관점의 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반

7) 여기서 말하는 동작자와 동작의 대상은 논항이 가지는 의미역에 대한 명칭이 아니며, 해당 문장이 표현하는 관념적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 관념적 내용이 문장으로 도출될 때 그 형식이 능동의 형태인지, 피동의 형태인지에 따라 해당 논항은 각기 다른 의미역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사용되는 상기의 용어는 모두 의미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며 의미역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따로 밝히도록 한다.

드시 문두에 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두 논항은 피동 표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구에 대해 동작주로 작용할 수가 없다. 반면 동작자는 실제 동작을 이행(移行)할 수 있는 유정성[+animate]을 조건으로 가지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동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나 도구 또한 이 간접적인 동작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논항 중 동작의 작용을 받는 대상은 문두에서 주어로 실현되어야 하고, 동작자는 피동사 뒤에 위치하여 부가적 성분이 되고 동시에 필수논항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논항의 위치는 피동문의 형성에 중요한 요건이 되지만, 피동 서술어를 가져야 한다는 것 또한 피동문의 형식 요건 중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정택(2004)은 피동 서술어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서술어 자체가 피동을 나타내는 것과 주변 요소에 의해 피동적 양상이 드러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이 때 주변 요소라고 하는 것은 화용적 상관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형태적, 통사적 형식이 뒷받침되는 않는 언어 현상을 피동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다. 중국어의 피동문 역시 상술한 논항의 위치만 갖추고 있는 문장을 ‘의미상 피동문’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피동문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장들은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 과정과 논항의 위치에 근거하는 논리적 해석으로 문장의 내용이 ‘피동’의 개념을 가질 수 있다고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처럼 피동성을 가진 문장과 피동성을 가지지 않은 문장들이 동일한 논항 위치를 가지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 1) 杯子打碎了。
→ 杯子被打碎了。
- 2) 电话已经打了。
→ ?电话已经被打了。

따라서 피동의 개념 여부와 상관없이 성분의 위치만으로 피동문 여부

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문장이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형태적 요소든 어휘적 요소든 통사적인 형식 요건이 반드시 수반되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동문의 제약을 통해 현대 중국어의 ‘被字句’를 살펴보면 일부는 피동의 개념을 나타내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로 이를 살펴보자.

3) 他被这件事愁死了。

(1) 구성 요건의 제약

a. 술어는 동작성 동사와 보충 성분을 가진다.

→ 해당 예문의 술어 ‘愁’는 동작성을 지니지 않는 심리 동사이다. 따라서 문두 논항이 가져야 하는, 사건에 대한 비능동적 태도는 표현되지 않는다.

b. 동작성 동작을 주재하는 동작자와 그 작용을 받는 대상이 있다.

→ 동작의 주재자 대신에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이 ‘这件事’로 제공되지만 그 작용을 받는 대상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작의 작용을 받는 대상 대신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는 경험자 ‘他’가 제시되고 있다.

(2) 형식 요건의 제약

c.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문두에서 주어로 실현된다.

→ 해당 문장에서 주어로 실현되는 의미 요소는 피동 표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구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심리적 상태를 직접 경험하는 경험자이다.

d. 문장 내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는 형태적 혹은 어휘적 요소가 실현된다.

→ 문장 내 피동 표지사 ‘被’가 구현되고 있지만 해당 문장 내에서 이 ‘被’는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비록 피동문의 형식적 특징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제약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피동문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이렇게 문장이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被’는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 통사적 결합과 역시 다를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이는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구분해서 통사적 범주 자체를 달리 설명해야 함을 말한다.

3.2 피동의 의미 기능을 할 경우

상술한 피동문의 제약 요소들은 해당 문장이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는 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래의 예 또한 이러한 제약 조건에 충실한 전형적인 ‘被字句’를 구성함으로써 피동문의 제약 조건을 모두 지키고 있다.

- 4) a. 我被他拉到屋里。
- b. 我被拉到屋里。

4)는 구성요건의 제약으로 술어의 동작성 동사(拉)와 보충성분(到屋里)를 가지며 동작자(他)와 작용을 받는 대상(我)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형식 요건의 제약으로 영향을 받는 ‘我’가 문두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는 ‘被’가 실현되어 피동문의 제약 조건을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조건을 만족하여 피동문을 구성할 때 피동문의 문장 내에서 논항구조를 설명해야 하는 중심 동사를 본고에서는 ‘被’ 뒤의 ‘VP’가 아닌 ‘被’로 인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범주적 의미 요소 즉, ‘被’가 동사로서 실질적인 어휘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자.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는 ‘被字句’에서 ‘被’가 피동사로 역할한다고 가정할 경우, ‘被’가 동사의 범주로서 실질적인 어휘의 의미를 가지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被字句’에서 ‘被’가 가지는 범주적 의미는 ‘피동’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被’가 ‘피동’의 개념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것이 동사가 가지는 단순한 의미 자질의 속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피동’의 개념이 ‘앉다’ ‘먹다’ ‘자다’와 같은 구체적인 동작성, ‘푸르다’ ‘행복하다’ 등과 같은 구체적 묘사성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문장 속에 ‘被’가 작용하게 되는 ‘피동’은 문장의 형식적 패턴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 때 피동사로서 ‘被’는 사건이나 상황을 ‘겪다’, ‘당하다’의 의미, 과정이나 속성을 ‘가지게 되다’를 어휘적 의미로 가지게 된다.

4) a. 我 / 被 / 他拉到屋里。

→ 나는 그가 방안까지 데리고 가는 일을 겪다/당하다.

→ 나는 그에 의해 방안까지 이끌려갔다.

a'. ?我他拉到屋里。

→ ?나는 그가 방안까지 데리고 갔다.

b. 我 / 被 / 拉到屋里。

→ 나는 (누군가) 방안까지 데리고 가는 일을 겪다/당하다.

→ 나는 (누군가에 의해) 방안까지 이끌려갔다.

b'. ?我拉到屋里。

→ ?나는 방안까지 끌고 갔다.

만일 ‘被’가 가지는 이런 피동의 개념이 실사(實辭)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동의 개념을 가지면서 겹어문을 구성하는 ‘叫/使/让’와 비교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들 역시 문장 내에서 구체적인 동작성과 묘사성을 지니지 못하지만, 동시에 ‘被’와 마찬가지로 동사로서의 통사적 특성-중첩을 할 수 없으며 동태조사와 결합할 수 없는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사동의 개념을 표현하는 동사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후치하는 목적어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에서 ‘被’보다 더 전치사적 특징에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여전히 동사로 설명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被’와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陈伟(2006)는 사동의 개념을 나타내는 ‘使’가 ‘명령’의 어휘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그 통사적 결합에 대해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으며 바로 동사와 결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만일 ‘被’가 ‘피동’의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동작의 주체자를 이끄는 전치사라고 한다면 동작 주체자를 나타내는 다른 전치사-이를테면 ‘由’-로 대체하여도 문장의 의미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被+NP’구문을 ‘由+NP’구문으로 바꿀 경우 화자의 의도는 전혀 달라지게 된다.

- 4) c. ?我由他拉到屋里。
→ 나는 그 사람이 방안으로 끌고 갔다.

또한 만일 ‘被’가 동작의 주체자를 설명하는 전치사이며 이와 결합하는 NP가 화용적 배경에 의해, 혹은 통사적 제약에 의해 생략될 수 있다면 문장은 NP만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被+NP’ 전체가 생략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치사는 후치하는 의미 성분에 대해 작용할 뿐, 그 자체로 문장 전체의 의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陈昌来(2002)에 따르면 전치사는 후치하는 통사적 의미 성분과 동사술어의 의미 관계-공구, 근거, 시간, 대상 등-를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⁸⁾ 후치하는 목적어에 문장 내의 의미 역할을 지정해줄 뿐, 문장 전체에는 아무런 의미 역할을 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모종의 의미 성분이 전치사가 가지는 ‘쉬리’의 기능으로 인해 술어와의 의미 관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으로 전치사 뒤의 의미 성분 없이 전치사만 남아 있어도 역시 비적격문을 생성함을 말하게 된다.

- 5) 我在电话里向他求救。

8) 介词的使用是为了满足或明确某些句法语义成分跟句子中谓语动词在句法语义上的联系。

→ *我电话里他求救。

→ *我在向求救。

그럼에도 불구하고 ‘被字句’에서 ‘被’뒤의 성분만 생략하고 ‘被’를 남겨두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동작 주체자 NP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 다른 역할 또한 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문장의 의미 구조 전체에 피동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被’는 단순히 문장 내 술어로 활용되는 동사의 의미 자질을 보충해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미 작용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주적 의미가 통사적 결합관계에 어떻게 상관하는지 살펴보자. ‘被’는 이와 같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면서도 통사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被’가 가지는 개방적 활용성 때문이다. ‘被’는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피동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자가 경험하거나 목격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피동적 개념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한정된 내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개방적 활용성이 통사적인 독립을 방해하여 결국은 의존적 동사가 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被’는 사건이나 상황을 설명하는 동사 혹은 동사구를 보충 성분으로 취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반드시 보충 성분과 결합되어야 활용될 수 있는 요소가 ‘동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의 2장에서 ‘被’의 동사설을 주장하는 내용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김광조(2001)는 ‘被’가 CP를 목적어로 가지는 타동사이고, 이지현(2004)은 장거리 피동문의 경우 이 ‘被’는 외재 논항으로 주어를 취하고 내재논항으로서 목적어 IP를 요구하는 타동사라고 보았다.⁹⁾ 이 때 ‘被’는 예외적 격표지 동사(Exceptional Case-Marking Verb)로서 후행하는 NP에 격을 부여한다고 한다. 단거리 피동문의 경우 이 ‘被’는 VP

9) 이후 이지현(2005)은 장거리 피동문의 ‘被’가 비정형 IP를 보어로 선택하는 것으로 의견을 달리한다.

를 요구하는 양상조동사 혹은 경동사라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의미적 개념을 제외한 통사적 분석에만 근거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被’가 과연 타동사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被’가 CP를 목적어로 가지는 타동사라고 한다면 첫째 타동사로서 ‘被’는 후행하는 CP에 대해 어떤 격과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는가? 둘째, ‘타동사는 어떤 동작이 피동자에게로 전이되는 타동성의 속성이 동사에 존재해야 한다’는 타동성의 의미적 개념에 과연 ‘被’가 충실한가?¹⁰⁾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被’의 타동사성은 좀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被’뒤의 명시적으로 출현하는 NP에 대해 대격을 부여함을 근거로 하여 이 ‘被’를 예외적 격표시 동사라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만일 ‘被’ 뒤에 명시적으로 출현하는 NP가 ‘被’로부터 예외적 격을 받는다면 그 NP의 의미역은 후치하는 VP에 의해 할당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데, 본고에서는 ‘被’에 선행하는 NP, 후치하는 NP는 모두 문장 전체의 상적 특징, 관념적 명제에 근거하여 ‘被+VP’의 논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충성분 VP와 결합된 ‘被+VP’는 문장 내 논항의 수나 의미역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 ‘被+VP’는 피동사로서 하나의 논항을 가지며 그 논항은 주격과 대상(theme)역¹¹⁾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被’ 뒤에

10) Hopper & Thompson(1980:251)는 이러한 전이의 개념에 근거하여 타동사의 의미적 개념을 10개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중 ‘被’의 타동사성 판단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을 추출하자면 아래와 같다.

- ① 참여자(participants):최소한 두 개의 참여자가 있어야 전이가 나타난다.
- ② 동작상(kinesis):동작은 한 참여자에게서 다른 참여자로 전이될 수 있으나 상태는 전이되지 못한다.
- ④ 의지성(volitionality):주어가 의지를 갖는 경우 피행위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뚜렷하다.
- ⑤ 행위자성(agency):행위주성이 높은 참여자가 동작 전이를 더 효과적으로 일으킨다.

11) 이 때 대상(theme)역은 피동주(patient)와 그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피동문이 가지는 상적 특징인 [+state]에 근거하여 주어의 동작의 대상이 아닌, 그 서술 및 묘사의 대상(theme)으로 볼 수 있다.

위치하는 NP는 ‘被+VP’의 논항이 아니라 ‘被’를 제외한 ‘VP’만을 고려한 논항으로 ‘VP’의 행위주이지 피동문의 중심 술어 ‘被+VP’의 논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앞서 ‘被’가 후치하는 동작자를 실현시키지 않고 ‘被字句’를 구성할 경우 기존 견해에서는 해당 문장을 단거리 피동문이라고 하여 ‘被’의 성격을 다르게 인정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몇 가지 통사적 제약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被’ 뒤의 성분은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뿐, 화용적으로 생략되어 그 흔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품사 판단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被’가 구성하는 술어와 목적어의 형태는 ‘被 + VP[(NP)+ VP]’로 ‘被 (+ NP) + VP’의 형태가 아니며, 이로 ‘被’는 NP성분을 반드시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을 허용해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언급한 통사적 제약 역시 문장 전체의 기타 성분 간의 관계에 의한 것이지 ‘被’ 그 자체가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김윤경(2001)은 ‘被’ 뒤의 성분이 가지는 출현 제약에 대해 의미상, 통사상, 화용상의 특징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아래의 문장들은 통사적 제약으로 인해 생략되지 못하는 예에 해당한다.¹²⁾ 이들은 주로 동사가 다른 전치사구나 보어, 연동이나 겹어 등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被’의 후치 성분이 생략될 경우 문장의 전체 구조가 다른 구조로 해석될 수 있는 양상을 띠게 되므로 생략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래 예에서 ‘被’ 뒤의 NP와 통

12) 김윤경(2001)은 아래와 같은 제약 조건을 설명한다.

① 의미상의 제한 :

(施事+动词+受事) + (系事+补语) - 他被那首歌唱得流眼泪。

被+主事/经验/工具+动词 - 他们的讲话被我们听到了。

② 통사상의 제한 :

被+NP+把/在/从/用 등+NP

被+NP+给/所+动词

被+NP+动词+补语

被+NP+状语 (跟NP有关的)

被+NP+连动/兼语

③ 화용상의 제한 : 被+NP(特指) + 动词

사적 제약 사항을 제거하면 문장은 여전히 피동문의 의미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문장의 기본적인 골격은 여전히 피동의 개념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 6) 小王头部被人用石头打了个大包。
→ 小王头部被打了个大包。
- 7) 他被领导在大会上点名批评了。
→ 他被点名批评了。
- 8) 这孩子被他奶奶给惯坏了。
→ 这孩子被惯坏了。
- 9) 他被同学们一起拉住了。
→ 他被拉住了。
- 10) 我被他派人追上了。
→ 我被追上了。

이러한 판단에 따라 ‘被’는 장거리/단거리 피동문 형식에 상관없이 타동사보다는 경동사(light verb) 혹은 형식 동사(dummy verb)에 더 가깝다고 판단된다. 경동사나 형식동사의 경우 후행하는 의미적 보충 성분 그 자체에 대해 아무런 의미역을 할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보충 성분과 결합하여야 다른 성분을 논항으로 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격이 그들로 하여금 어휘적 의미 요소가 강한 다른 일반 동사들처럼 동태조사를 부가하지 못하고, 중첩형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3.3 피동 외의 의미 기능을 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被字句’는 피동 외 다른 의미 기능도 가진다. 이러한 의미 기능은 ‘被’가 피동의 개념을 나타낼 경우와 다른 품사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한다.

11) a. 小伙子被老头儿的精神吓慌了。

a)는 상술한 피동문의 제약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문장이다. 술어가 동작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주어로 실현된 성분이 ‘被’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구에 대해 경험주로 역할하고 있어 문장 전체는 ‘被’가 있어도 피동의 개념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被’는 피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 기능을 한다고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결과 ‘被’가 후치하는 명사구에 원인의 의미역을 제공함으로써 ‘老头儿的精神’은 주어의 ‘吓慌了’라는 경험적 상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被字句’가 피동의 개념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아래 b)처럼 ‘被’ 뒤의 목적어는 생략되지 않는데 의미상 혹은 화용상, 그리고 통사상으로도 생략되지 못한다.

11) b. ?小伙子被吓慌了。

의미상 생략되지 못하는 것은 피동의 개념을 나타내지 못하는 ‘被字句’의 경우 ‘被’ 뒤의 의미 성분이 특정한 동작자, 원인, 도구 등의 내용을 강조 표현하기 때문이며, 통사상 생략되지 못하는 것은 ‘被’가 전치사로서 후치하는 성분에 대한 의미역을 부여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치사는 동사처럼 문장 전체에 의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치하는 명사에 대해서만 의미 작용이 제한되므로 후치하는 명사성 성분이 생략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전치사를 동반하여 함께 생략해야 한다.

11) c. 小伙子吓慌了。

전치사구는 대개 문장 내에서 부가적 성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에서 보듯 그 전체가 생략될 경우 문장의 의미는 변하겠지만 통사적 측면에서 볼 때 문장은 성립할 수 있다. ‘被字句’가 이러한 의미 구조를 형

성하고 있는 예는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모두 위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 12) a. 他被拷打吓怕了。
b. ?他被吓怕了。
c. 他吓怕了。
13) a. 他们被爱情的冲动做下这个错事。
b. ?他们被做下这个错事。
c. 他们做下这个错事。

‘被’ 뒤의 성분이 문장 내 원인으로 작용하는 예는 피동의 개념을 나타내는 ‘被字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동작을 유발한다는 관념적 측면에서 동작의 주체자와 원인 혹은 도구는 공통점을 가진다.

- 14) 衣服被火烧了一大半。
→ 옷이 불에 의해 절반이 넘게 타버렸다.
→ 옷이 불 때문에 절반이 넘게 타버렸다.
15) 他被绳子捆住了双手。
→ 그는 밧줄에 의해 두 손이 묶였다.
→ 그는 밧줄로 두 손이 묶였다.

이는 ‘被’가 후행 요소에 대해 특별히 통사적, 의미적 제약을 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람이나 사물, 사건 등이 동작을 유발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으면 다양한 형태로 ‘被’와 결합할 수 있다. 다만 문장 전체의 형식적, 구성적 요건이 이미 피동의 개념을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 16) a. 他被拷打吓怕了。
→ 문두의 ‘他’가 ‘吓怕’라는 심리적 상태를 겪는 경험하는 경험 주체자.
17) a. 他们被爱情的冲动做下这个错事。

→ 문두의 ‘他們’이 ‘做’ 동작을 실제로 행하게 되는 동작 주체자.

18) 衣服被火烧了一大半。

→ 문두의 ‘衣服’가 ‘烧’라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

19) 他被绳子捆住了双手。

→ 문두의 ‘他’는 ‘捆住’라는 동작을 당하는 대상.

따라서 16), 17)과 같이 피동문을 구성하지 못하는 ‘被字句’에서 ‘被’는 후행하는 성분과 술어와의 의미 관계를 연결시키는 전치사일 뿐이고, 18), 19)에서처럼 ‘피동’이라는 문법적 범주를 표현하게 될 경우 이 ‘被’는 문장 내 중심 동사로 역할하게 된다.

4. 맺는 말

중국어 피동문에서 ‘被字句’를 구성하는 ‘被’는 의미 범주와 통사 범주의 특성 때문에 그 품사에 대한 규정에 있어 많은 이견을 가지지만 이 ‘被’가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그 품사적 성격을 달리함을 본고에서 알 수 있었다.

‘被字句’의 형식은 피동문이 요구하는 제약 조건에 근거하여 크게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이때 ‘被字句’가 피동의 개념을 나타낼 때 ‘被’는 피동동사로서 그 통사적 결합을 유도하며 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하게 되지만 ‘被字句’가 피동의 개념을 표현하지 못하고 원인을 나타낼 때는 해당 성분에 ‘원인’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전치사로 쓰임을 몇 가지 논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參考文獻]

安丰存, 〈再论汉语“被”的句法地位及“被”字句〉 《汉语学习》 01期, (2007)

曹翔, 〈试论“被”的词性〉 《江西教育学院学报》 01期(2003)

- 陈昌来, 《介词与介引功能》(安徽教育出版社, 2002)
- 陈伟, 〈论‘使’字的词性〉《现代语文》03期(2006)
- 黄伯荣·廖序东, 《现代汉语》(高等教育出版社, 1991)
- 李珊, 《现代汉语被字句研究》(北京大学出版社, 1994)
- 陆俭明, 〈중국어 품사 분류에 관하여〉《人文科學》Vol.69-70.(1993)
- 陆俭明, 〈有关被动句的几个问题〉《汉语学报》02期(2004)
- 石定栩·胡建华, 〈“被”的句法地位〉《当代语言学》03期.2005)
- 熊仲儒, 〈汉语被动句句法结构分析〉《当代语言学》03期(2003)
- 朱德熙, 《语法讲义》(商务印书馆, 1982)
- 김광조, 〈북경 중국어의 피동문과 지배-결속 이론〉《中國文學》第V36集(2001)
- 김윤경, 〈‘被’字句中‘被’后NP의隐现〉《中國學論叢》Vol.11.(2001)
- 이정택, 《현대국어 피동연구》(박이정, 2004)
- 이지현, 〈현대중국어 피(被)구문에서 "피(被)"의 통사범주 고찰〉《중국언어연구》Vol.18(2004)
- 이창호·이지현, 〈"被"의 통사범주에 대한 재론〉《중국언어연구》Vol.21(2005)
- 조정훈, 〈독일어의 품사와 품사 분류에 관한 연구〉《論文集》Vol.21(1992)
- Hopper, P.J. & S.A. Thompson,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1980)

[中文摘要]

“被字句”是现代汉语中最典型的被动句式。由于“被字句”里的重要成分“被”在意义上的、句法上的不同特征，因此对它词性的确定也有不同的看法。一般的看法是“被”在被动句里引进动作的施事成分，但是在实际运用中，根据它的意义功能，“被”的词性是有变化的。

按照被动句形式上的要求，以及成分上应具备的条件，“被字句”可以分为

两种情况：一种是表示被动的意义；一种不表示被动意义，只是表示原因。“被字句”表示被动意义时，句子中的“被”靠被动动词把题元赋予主语；“被字句”不表示被动而表示原因时，“被”是介词，它只能把题元角色赋予后置成分。

[국문요약]

“被字句”는 현대 중국어에서 가장 전형적인 피동문 형식이다. “被字句”의 주요 성분 “被”는 의미상, 통사상의 특징으로 인해 그 품사적 성격에 대해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被”는 피동문에서 동작의 행위주를 이끄는 성분으로 인정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 그 의미 기능에 근거하면 “被”의 품사적 성격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피동문의 형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또한 구성 성분의 구비 조건에 따라 “被字句”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이며 또 다른 한자기는 피동의 의미를 표시하지 못하고 원인의 의미만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被字句”가 피동의 의미를 표현할 때 문장 내 “被”는 피동동사로서 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해줄 수 있으며 “被字句”가 피동을 표현하지 못하고 원인을 표시할 경우 “被”는 전치사로 후치하는 성분에만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關鍵詞：被字句, 被, 피동사, 피동 표시사, 통사적 범주,

투고일: 2008. 10. 30.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初级对外汉语教材拼音标注、分词连写情况研究

张 京 京*

— <目 次> —

1. 初级对外汉语教材拼音标注与《规则》的普遍性差异研究
2. 初级对外汉语教材拼音标注与《规则》的个别差异研究
3. 初级对外汉语教材内部拼音标注不一致现象研究
4. 对制定初级对外汉语教材拼音标注原则的建议

《汉语拼音正词法基本规则》起草于1981年，1988年7月由中国国家教育委员会、国家语言文字工作委员会联合公布。1996年由中国国家技术监督局批准，成为中华人民共和国国家标准，成为用《汉语拼音方案》拼写现代汉语的统一规范。作为语言文字出版物，初级对外汉语教材在进行拼音标注时必须参照《汉语拼音正词法基本规则》（下简称《规则》）。

但由于汉语的复杂性、对外汉语教学的特殊性、以及《规则》本身还存在一些不完善之处，初级对外汉语教材究竟应该如何进行拼音标注，还存在很多问题。对同一语言现象或语言结构，不同初级对外汉语教材的拼音标注情况往往有所不同，例如：动词和宾语是分写还是连写、动词和补语是分写还是连写等。甚至在处理同一语言结构时，在同一本教材内部的课文、生词表、练习等不同环节中，拼音的分词连写情况也常常出现不一致。

本文认为，考察初级对外汉语教材中的拼音标注情况，不应该笼统地认为凡不符合《规则》的，都应该按照《规则》改正，而是应该考虑到：对外

* 釜山外國語大學 中国语学部 交換教授(pufs1@hanmail.net)

汉语教材编写的最根本目的是获得最佳的教学效果。教材中无论采用什么样的分词连写原则,无论采取任何一种拼音标注形式,都必须有利于教学。本文将考察初级对外汉语教材拼音标注与《规则》的普遍性差异、个别差异以及教材内部拼音标注不一致情况,探讨初级对外汉语教材中的拼音标注原则。

1. 初级对外汉语教材拼音标注与《规则》的普遍性差异研究

为了便于教学,初级对外汉语教材大都遵循三声连读依然标本调,“一”、“不”等按实际音变情况标变调的原则。对于这些符合实际情况、便于教学而且各教材之间无分歧的原则和方法,本文不做进一步的分析,只重点分析各教材中存在的问题和分歧。

以词为拼写单位是《规则》中明确规定、各套教材公认的总原则。但对这一原则的理解和运用,还在教材编写者中存在着相当程度的分歧。下文将综合分析比较中国2002年后出版的八部教材中的拼音标注情况:《快乐汉语》(下简称《快》)、《博雅汉语 起步篇》(下简称《起步》)、《新概念汉语 (初级本)》(下简称《概念》)、《新实用汉语课本》(下简称《实用》)、《汉语会话301句》(下简称《301》)、《当代中文》(下简称《当代》)、《汉语入门》(下简称《入门》)、《发展汉语》(下简称《发展》)。

1.1 关于“整体概念”

《规则》4.1.2规定:“表示一个整体概念的双音节和三音节结构,连写。”该条目下,《规则》的制订者还列举了包括“对不起”在内的16个例词,因此《规则》所指的“表示一个整体概念的结构”应该包括“对不起”这类从语言结构上可以切分,但是从实际的应用情况看,相当常用,而且总是作为一个整体出现的词语。

“整体概念”是一个外延和内涵都很模糊的概念。即使是“对不起”这样在《规则》中明确举例说明应该连写的词语，各教材的处理尚且做不到完全一致，至于其他常用表示整体概念的词语，尤其是三音节的，各教材之间差异就更大了，现列举如下：

	《快》	《起步》	《概念》	《实用》	《301》	《当代》	《入门》	《发展》
对不起		连	连	连	三分词汇	连	连	三分词汇
不客气		不客气词汇				不客气词汇	不客气词汇	
别客气		别客气词汇			别客气非词汇			
不用谢		三分词汇	三分非词汇	不用谢非词汇				不用谢非词汇
来得及 来不及		连	连		三分词汇			三分词汇
越来越	连	连	连	三分词汇	三分词汇	连	越来越	三分词汇
…极了	分	分词汇	分词汇	连	分词汇	分词汇	分词汇	分
有意思 没意思	连	连	连	有意思	有意思	连	有意思	有意思
不好意思		不好意思词汇	连	不好意思词汇	连			
请问	连	分词汇	分词汇	连	分词汇	连	分词汇	连
为什么	连	为什么词汇	为什么词汇	连	连	连	连	为什么词汇
**人	连	美国人	连	中国人	美国人	中国人	连	连
差不多		分词汇	连			连	连	连 ¹⁾

虽然从语言结构上，上述词汇都还可以进一步切分，但是“对不起”、“不用谢”、“来得及”、“为什么”、“请问”、“越来越”、“…极了”“差不多”这

1) “连”表示连写，“三分”表示三个字分开标注拼音，“不一致”表示在该教材中此词处理不一致，“词汇”表示该词语虽然分写，但是在词汇表中仍然列为一个词汇项。下同。

样十分常用，且总是作为一个整体出现，中间又不能再插入其他成分的话语，并无进一步切分的必要，直接做连写处理更利于学生掌握。而对于“不客气”、“别客气”、“有意思”、“没意思”、“不好意思”、“中国人”等可以插入其他成分的话语，则以分写为宜。

1.2 短横的使用

《规则》4.1.5 规定：“为了便于阅读和理解，在某些场合可以用短横”。

《规则》的这一条目虽然并没有明确说明哪些场合必须用短横，但是该条目下所举例子中有两个词语表示概数，前面的条目4.1.4规定：“重叠并列即AABB结构，当中加短横”，后面的条目4.6.3规定：“表示序数的‘第’与后面的数词中间用短横”。因此可以确定《规则》对这三方面有明确的要求，在此一并考察：

	《快》	《起步》	《概念》	《实用》	《301》	《当代》	《入门》	《发展》
“第”后短横线	未出现	有	无	只标声调	有	有	无	无
概数之间	未出现	有	有	只标声调	有	无	无	无
AABB结构当中	未出现	有	无	只标声调	无	有	未出现	无 ²⁾

短横在“第”之后，概数之间是否出现，AABB结构中间是否加短横，在对外汉语教材中都不会对学生产生影响，因此可有可无，但各种教材之间最好能够统一。

1.3 动词和宾语

动词和宾语在《规则》中的规定比较微妙，条目4.3.2共有两句，一句

2) “未出现”表示该教材中没有出现这一语言点，“有”表示有短横，“无”表示没有短横。

是说“动词和宾语分写”，另一句是说动宾式合成词中间插入其他成分的，分写。那么没有插入其他成分的该如何处理，在《规则》的这一部分里并没有明言。但是《规则》的总原则里有“表示一个整体概念的双音节和三音节结构，连写”，在这一条目下所举的例词中包括“开会”这一动宾结构。

关于动宾式离合词的拼音标注，邢红兵（2003）和刘德联（2004）都从不同角度提出应该连写。邢红兵是将《规则》作为规范，认为各对外汉语教材必须遵守《规则》，做连写处理。刘德联则认为离合词虽然中间可以插入成分，但在初级阶段不会出现“劳您驾”、“毕不了业”这样的结构，因此也完全可以连写。

本文所调查的八部教材中，《新实用汉语课本》和《汉语入门》这两部教材将离合词全部做连写处理。《当代中文》、《新概念汉语》、《发展汉语》则是全部做分写处理。其他三部教材是绝大部分动宾离合词分写，个别词语连写，而且这些连写的“个别词”并不相同，现列举如下：

	连	分
《快》	毕业 发烧 游泳 考试 睡觉 抽烟 结婚	赚钱 喝酒 骑马 爬山
《起步》	毕业 发烧 考试 聊天儿 游泳	睡觉 担心报名 熬夜 劳驾 结婚
《301》	游泳 考试	睡觉 毕业 发烧 报名 住院 聊天儿 结婚

动宾式离合词是对外汉语教学中比较特殊的一类词，对外汉语教材中更应该重视的是“离”的特点，因为这一点学生最难掌握。分写可以帮助学生进一步理解和掌握离合词插入其他成分后的情况，例如：“开了三天会”，“结过一次婚”“睡了好觉”。至于该离合词是否是“一个词”对学生来说并不那么重要。因此，对于离合词的拼音标注方法，应以分写为佳。

刘文提出的在初级阶段，由于暂时还不会出现插入其他成分的复杂的离合词，因此可以连写，这一点似乎值得商榷。学生学习和习得汉语是一个动态的过程，有必要在初级阶段就尽量帮助他们避免一些错误的认识，因此即

使在初级阶段, 也应在一开始就用分写的方式, 针对学生学习的难点给予他们一个有力的提示: 这个词的两个字完全可以分开, 并且有很多东西可以插入其中。

1.4 动词和补语

《规则》4.3.3中规定: “动词和补语都是单音节的连写, 其余的情况, 分写。”但是很多对外教材对此都有不同的做法。《实用》的相关语言点都出现在第二册, 只标声调, 无法考察其分词情况, 因此从略。

	分	连	其他
单音节 动词+ 单音节 补语	《快》 买 到了	《概念》坐错车	《301》不一致 连 打通了 分 写 累了
		《发展》洗完了	《当代》加短横 卖一完了
		《入门》偷去了	《起步》不一致 连 踢完 分 考完了
单音节 动词+ 多音节 补语	《发展》 擦干净了 看起来		《当代》加短横 搬一进去
	《入门》看起来		《起步》 连 看起来 分 踢进去
	《快》跑过来		
	《概念》买 下来		
多音节 动词+ 单音节 补语	其他教材 全部分写	《301》收拾好	无

单音节动词加单音节补语, 尤其是结果补语, 两者结合非常紧密, 因此做连写处理很合适。而对于“进去”“过来”等词语, 各教材的切分方法都是动

词和趋向补语分写，这一点虽然已经符合《规则》中的规定，但是并不完全有利于学生掌握下面这个难点：当动词既带趋向补语又带宾语时，则需要考虑：一般宾语可以放在动词和补语之间，也可以放在补语之后（意义有所不同）。而处所宾语只能放在动词和补语之间。例如“快进电影院去吧”。更重要的是，对于学生来说，后者才是难点。而这种切分方法不仅不能给学生做出有用的提示，反而可能有一定的误导。

另外，“看起来”这样的动补结构中，补语的意义已经虚化，动词和补语结合非常紧密。越是补语意义已经虚化的，结合越紧密的，越不应该将动词与补语分开。

结合以上几点，动词加补语在初级对外汉语教材中的分词原则不必拘泥于《规则》中音节数的要求，应该像《起步》安排的那样，区别对待：如果是单动加单补，连写；如果是“看起来”这样的补语已经虚化、动补结合紧密的词语也连写；如果是“走进去”等，为了提示学生们宾语位置这一难点，直接按字分开为“走 进 去”。

2. 初级对外汉语教材拼音标注与《规则》的个别差异研究

这里所说的个别差异，是指在所考察的八部教材中只有一部或两部与《规则》不同。

2.1 名词和名词后的方位词

《规则》4.2.2规定，名词和后面的方位词，分写。但已经成词的连写。例如：“海外”不等于“海的外面”。

是否已经“成词”又是一个难以寻找标准的概念。《起步》将大多名词与方位词都做了连写处理，对“成词”有泛化的倾向。不但“天上”、“身上”这样的词连写，“山上”和“墙上”也连写。但是“城墙上”，“楼下”又是分写的。

“天上”和“山下”都是《规则》在该条目下首先举出的例词，认为前者已经成词，应当连写，后者没有成词，不能连写。虽然将“墙上”连写不会给教学造成问题，但是如果对“墙上”和“城墙上”执行双重标准，就完全没有必要，反而可能造成学习者的疑惑。

2.2 双音节词重叠

《规则》4.1.4规定单音节词重叠连写，双音节词重叠分写，并举例“研究 研究”、“尝试 尝试”。除了《概念》外，其他七部教材在这一点上都与《规则》保持了一致。例如：《概念》第四十一课（57页）“我 得 回去 商量商量”。

2.3 代词

《规则》4.5.2规定“这”、“那”、“哪”和“些”、“么”、“样”、“般”、“里”、“边”、“会儿”、“个”，连写。《快》、《起步》、《301》中此类词语却全部是分写处理的。这些词汇连写还是分写都不会对学生造成困扰，应与《规则》保持一致。

2.4 对一词多义现象的处理

有的词语在不同的语境下是不同的意义。对于通过拼音标注和分词来提示和帮助学生区分有多个意义和多个属性的词语，各教材重视得还不够。刘德联（2004）就曾举了四个例句加以说明：“我每天晚上都做梦”和“别做梦啦”对比，前者“做梦”完全应该分写，后者则连写更有利于学习者朗读的连贯性和对词语语气的掌握。“入学手续怎么办”和“去颐和园还是圆明园？我也不知道该怎么办”对比，就是将后者看成整体概念似乎更合适。

初级对外汉语教材中类似的例子还很多。例如：（车）该“加油”了和观看体育比赛时候的“加油”，前者应该分写，后者则应该连写。再例如：他一“出门”就摔倒了和“出门”跟在家不一样，麻烦事就是多。这两个句子都出自《301》，但是两个“出门”完全不同，前者的意思就是最直接的“从门口走出去”。后者代表“外出、旅行”，如果都如《301》那样全部分写，不足以

做出提示。

“没关系”一词，凡出现此词的教材全部处理为“没 关系”。但是这样的词语应该根据不同的情况和意义区别对待，和“对不起”对应的“没关系”应该连写，而表示“**和**没关系”的义项时，则“没”与“关系”必须分写。

词性和意义都会发生变化的词就更应该在拼音标注上区分了：“我 想起来 了”，“我 想 起来 了”，前者动词加上意义已经虚化的趋向补语，意思是说忽然记起什么事情；后者是动词，意思是想起床了。不同的分词方法不仅可以提示其意义，更可以帮助学生掌握恰当的重音。

当然，刚才所分析的多个例子，都是在对比之中，才会出现如此强烈的差异，通过分词来进行区分才显得很重要。实际的教材编写中，这样的情况出现在同一课中确实是极少的，但这样的情况毕竟会出现在同一部教材中，那么还是应该注意区别处理。

2.5 结构助词“的”

“的”在初级汉语教学阶段主要有三个方面：一是连接定语和中心语；二是与名词、动词、代词、形容词等组成“的”字词组，其功能相当于一个名词；三是在“是……的”句式中出现。对于“的”之第一种和第三种用法，教材全部与《规则》保持一致，“的”一律单独分写，毫无分歧。

对于“的”字词组的拼音标注方式，《规则》举了这样一个例句：“商店里摆满了吃的、穿的、用的。”其中“吃的、穿的、用的”全部是动词与“的”分写。绝大多数初级对外汉语教材中对此的标注方式也与此相同，只有《起步》例外。《起步》第14课课文中多次出现这种名词性的“的”字词组，其中形容词加“的”全部连写，例如“新的”、“绿的”。而动词加“的”之词组却是分写，更复杂的组合例如“浅颜色的”、“什么颜色的”也都分写。

“的”字词组的属性和功能明确，也不难理解，如果单独来看，只要在同一本教材里的处理方式统一，分写与连写都可以，如果多考虑其特殊性，希望从拼音形式上能提示学习者注意其相当于一个名词的属性，则以连写为宜。如果再根据“的”前面是动词还是形容词再进行细分，就没有必要了。

如果“是……的”句式与“的”字词组同时出现在同一段落里，为了区分，

在拼音标注上则有必要采取不同的处理方法：在“是我昨天买的”这一句中，“买”与“的”应当分写。而在“我买的是一辆旧的”句中，“买”和“的”共同构成名词性词组，则应当连写。

2.6 成语的拼音标注

《规则》4.8中规定：四言成语可以分为两个双音节来念的，中间加短横。例如：céngchū-bùqióng（层出不穷）。不能按两段来念的四言成语、熟语等，全部连写。例如：àimònéngzhù（爱莫能助）。这个划分标准是相当模糊的。王飙（2005）提出：根据四言成语能否读为两个双音节来确定是加连字号还是全部连写，在实践中很难把握。《规则》所举为成语连写例子的“不亦乐乎”、“总而言之”、“爱莫能助”、“一衣带水”，实际都可以读成两两节拍。《规则》没有说清“两两切分”是从结构关系上进行两两切分，还是相对简单的按读音切分。

初级汉语教材中出现成语数量极少，只有个别教材出现了个别词语。本文调查的八部教材中出现的成语极少，其中《当代》只出现了一个成语“糊里糊涂”，做连写处理，这个成语也恰好是《规则》所举的例词，两者完全一致。

《概念》中的“一见钟情”也是连写，它显然能够分成两个双音节来读。但是《规则》的这一标准很模糊。由于汉语自身的特点，几乎任何从意义上不可能两两切分的成语，发音上我们都自然而然地读成两个双音节的节奏，最典型的例子莫过于“一衣带水”。更何况，只要是供母语非汉语的人学习的教材，成语的分词就应该考虑如何切分更有助于学习者理解其意义，如果还能通过词汇切分提示用法或使用上的难点就更好了。

“入乡随俗”一词由于与汉语学习者关系密切，在《发展》和《入门》中都出现了。前者把四个字分写没有使用短横，后者把四个字连写。目前看来，还没有什么最合理的分词和标注方法能够从形式上对复杂的成语做意义上的提示和用法上的帮助。在初级阶段，建议还是先统一将成语连写，让初级阶段的学生明白这是永远作为一个整体来使用的，就可以了。部分成语连写，部分成语分开再加短横，反而会使初级阶段的学生产生困惑的。

3. 初级对外汉语教材内部拼音标注不一致现象研究

教材内部出现分词情况的不一致应该有两种：一是有意为之，二是无意之失。前者是教材编写者苦心安排的结果，目的是适应不同的情况，做出不同的提示，是非常有益的，也将是非常值得研究的。

遗憾的是，本文所考察的这8部教材中，不一致现象非常多见，但除了前面所举的《起步》中动词和趋向补语的例子外，很难再找到任何出于编写者匠心的不一致。更多的是由于教材编写者在分词过程中随意性较大而出现的不一致，在此只举几个例子：

《起步》第2册50课，第146页。同一页课文中，“我 捧在 手里”和“咖啡 放 在 热 杯 子 里。”

《301》中，“散步”在课文和当课的生词表里分写，在书后的词汇总表里是连写。“听说”在课文中连写，在词汇表和书后词汇总表里都是分写。

《301》第210页33课，同一课中，“累死”连写，而“饿死”分写。在第28课中“零下”在同一篇课文的不同行出现时，先连写，后分写。

由于《规则》目前还不可能一一具体指出每一个词语应该如何处理，因此在编写教材时，编者分词的随意性还比较大。才会出现上述这种一个词语或一类词语忽连忽分，甚至在同一篇课文中只相距几行时也没有能统一的情况。如果有的教材编者只依据自身的词感，不查询和研究《规则》，编写过程中出现的不一致就可能更多了。

4. 对制定初级对外汉语教材拼音标注原则的建议

综合以上的比较分析，本文认为，制定初级对外汉语教材的拼音标注原则要考虑以下几点：

1. 拼音怎样标注、怎样分词连写更有助于学习者理解该语言点的意义。

2. 拼音怎样标注、怎样分词连写更能对该语言点的用法有所提示。
3. 充分重视多义词在不同语境中的区分，尤其是在同一本教材中要综合考虑该词语在全书中的不同意义。

在具体的操作上，可以根据《规则》中的规定，并做以下补充，以适用于初级对外汉语教材编写：

- 表示一个整体概念的双音节和三音节结构，连写。但要特别注意同一词语应根据其不同语境下的不同意义进行分词。
- 短横这一添加符号，如在教材中广泛使用，最好有所分类说明，引导学生通过短横获得更多信息。
- 动词和宾语，一律分写。包括动宾式离合词，即使该动宾式离合词在该教材中暂未插入其他成分，也应该分写，以便提示学生注意到动宾式离合词可插入其他成分的特点。
- 动词（或形容词）和补语，两者都是单音节的，连写；其余的情况分写。动词加复合趋向补语能否带宾语的，可全部分写，例如“走进来”。
- 虚词与其他语词分写，但名词性“的”字词组可以连写。
- 四言成语在初级对外汉语教材中出现极少，可全部连写。

[附录：本文所调查的教材]

1. 李晓琪、罗青松、刘晓雨、王淑红、宣雅，《快乐汉语》（人民教育出版社，2003）
2. 李晓琪、任雪梅、徐晶凝，《博雅汉语 起步篇》（北京大学出版社，2004）
3. 刘德联、张园，《新概念汉语（初级本）》，（北京大学出版社，2003）
4. 刘珣、张凯、刘社会、陈曦、左珊丹、施家炜，《新实用汉语课本》（北京语言大学出版社，2003）
5. 康玉华、来思平，《汉语会话301句》（北京语言大学出版社，2002）
6. 吴中伟、吴叔平、高顺全、吴金利，《当代中文》（华语教学出版社，2003）

7. 郭辉春, 《汉语入门》(华语教学出版社, 2003)
8. 陈晨, 《发展汉语》(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04)

[参考文献]

- 苏培成主编, 《信息网络时代的汉语拼音》(语文出版社, 2003)
- 覃盛发, 〈‘汉语拼音正词法基本规则’修订管见〉. 《广西民族学院学报》(2001.11)
- 王 飙, 〈成语拼音书写格式刍议〉, 《辞书研究》(2005.1)
- 王宏宇, 〈中国大陆汉语教材出版的成就和不足〉, 《世界汉语教学》(2003.1)
- 杨德峰, 〈对外汉语教材中的注音和拼写问题〉, 《世界汉语教学》(1996.1)
- 尹斌庸主编, 《新华拼写词典》(商务印书馆, 2002)
- 尹斌庸、李乐毅、金惠淑主要起草, 《汉语拼音正词法基本规则》, 中华人民共和国国家标准, 1996
- 朱志平, 〈对新世纪汉语(第二语言)教材的思考〉, 《北京师范大学学报》(2001.1)

[Abstract]

Chinese Pinyin is absolutely necessary tool in primary teaching of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Its important function had been common cognition in scholars of teaching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 and has been paid more attention to increasingly. Author contrast and analyze the instance of Pinyin label by words in eight primary Chinese teaching materials, and

research the common and individual difference of Pinyin label between the materials and the formula, also include the internal difference of teaching materials. Then advance three points suggestion to whole principle of Pinyin label by words and six points suggestion to concrete rules.

Key words: Pinyin, primary Chinese, label, Basic Rules for Hanyu Pinyin, Orthography

[국문초록]

중국어 병음은 초급 단계의 중국어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 도구로 그 중요성은 이미 중국어 교육학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나날이 높은 관심과 중시를 받고 있다. 초급 중국어 교재에서는 어떻게 병음을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본문에서는 초급 중국어 교재의 병음 표기와 단어를 기준으로 하여 띄어쓰기 하는 分詞連寫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8권의 초급 중국어 교재의 병음 표기 상황을 대비 분석하고 이 교재들의 병음 표기와 《汉语拼音正词法基本规则》의 보편적인 차이와 개별적 차이 및 각 교재 내부의 불일치 현상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초급 중국어 교재의 편찬에서 병음 표기의 총체적인 원칙에 대해 3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또한 구체적인 分詞連寫에 대하여 6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국어 병음 초급교재 표기법 汉语拼音正词法基本规则

투고일: 2008. 10. 30.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文賦〉와 《文心雕龍》의 문예이론 비교

-상상론과 문체론을 중심으로

이 규 일*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육기와 유협의 상상론 비교
3. 문학이론에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이론의 엄밀성과 체계성으로 볼 때 陸機와 劉勰의 이론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문학적 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협의 이론이 직접적으로 육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육기 이전에 《莊子》에서도 상상의 문제에 대해 거론한 바가 있고 유협이 문학적 상상력을 논한 “神思”라는 용어의 어원도 曹植에서 나왔지만 〈文賦〉는 문학의 분야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론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상상 이론의 출발점에 있다고 평가받는다. 본 논문은 문학적 상상력에 대한 육기의 이론이 어떻게 유협으로 이어지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하고자 한다. 육기는 창작자의 입장에서 문학의 문제를 분석

* 영동대학교 중국어중국통상학과 교수(leeky@youngdong.ac.kr)

했기 때문에 유희의 이론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문체론에서 더욱 명확하게 표현된다. 따라서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문체론에 나타난 창작자로서의 시각을 함께 논하고자 한다.

2. 육기와 유희의 상상론 비교

육기는 문학을 파악가능한 영역과 파악불가능한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하는데 불가능의 영역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 상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천기(天機)’, ‘흥(興)’, ‘영광(靈光)’ 등의 용어로 영감을 얻거나 상상력이 발동하는 현상을 설명했는데 <文賦>는 “응감(應感)”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應感이 오는 순간과 통하고 막히는 묘치는,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가는 것을 잡을 수도 없다. 숨어있을 때는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활동할 때는 메아리처럼 떠오른다. 天機의 작용처럼 빈틈없이 펼쳐지니, 어찌 분분히 흩어져 있겠는가. 생각은 바람처럼 가슴에서 일어나고 말은 샘물처럼 입술로 흐른다. 그 무성하던 생각과 말들도 붓과 종이에 적힌다. 글은 아름다워 눈이 부시고, 가락은 낭랑하여 귀에 울린다. 그러나 모든 감정이 가라앉는 그 순간, 마음은 나아가려 해도 생각이 멈춰 선다. 시든 나무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마른 물길처럼 행하다. 내 영혼의 그윽한 곳을 돌아보고, 정신을 추슬러 글을 살펴본다. 정신은 아득하게 더욱 찾아들고, 생각을 억지로 뽑아내듯 한다. 이런 까닭에 정성을 다해 적었지만 더 후회가 많은 경우가 있고, 붓 가는대로 쉽게 적었지만 힘이 적은 경우도 있다. 비록 글을 짓는 것은 나에게 달린 일이지만, 내 힘으로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여 때로는 빈 가슴을 쓸며 혼자 탄식하지만, 영감이 통하고 막히는 이치는 알 수가 없다.¹⁾

1) 若夫應感之會，通塞之紀。來不可遏，去不可止。藏若景滅，行猶響起。方天機之駿利，夫何紛而不理。思風發於胸臆，言泉流於唇齒。紛威蕩以馭鵠，唯毫素之所擬。文徽徽以溢目，音泠泠而盈耳。及其六情底滯，志往神留。兀若枯木，豁若涸

“應感”은 감응(感應)과 같은 의미의 말이다. 즉 작가의 주관적 정신과 감정이 외부의 사물이나 현상과 교감하여 일체됨을 가리킨다. 창작의 영역에서는 위에서 묘사한 바와 같이 내용에 대한 결정, 구성에 대한 계획, 전개에 대한 구상, 단어의 선택 등 모든 세세한 상황에 작용하는 정신활동의 근원이다. 창작에서 핵심적인 작용을 하지만 영감에 대한 욕기는 태도는 피동적이다.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응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외부에 존재하는 신묘한 기운이 자신과 교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상의 원리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文賦>는 객관적 현상과 특징을 서술하면서 묘사의 방식을 선택했다. 상상을 통해 창작에 필요한 영감을 얻기도 하고 영감이 오는 그 순간 무한한 상상력이 발동한다. 이런 점에서 영감은 상상이 작용한 결과이며 창작의 핵심적 조건이다.

(1) 상상의 속성

욕기가 제기한 상상의 속성은 우선 시공과 경험에 대한 초월성이다. 그는 상상이 시작되는 시점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정신은 먼 길을 달리고 마음은 하늘 높이 노닌다. 극치에 이르면 어렵
뜻하던 감정이 뚜렷해지고 만물이 분명하게 떠오른다.²⁾

상상력이 발동하지 않았을 때는 창작에 대한 구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순간을 욕기는 어두운 밤으로 비유했고 상상력이 가동되자

流。攬營魂以探蹟，頓精爽於自求。理翳翳而愈伏，思乙乙其若抽。是以或竭情而多悔，或率意而寡尤。雖茲物之在我，非餘力之所戮。故時撫空懷而自惋，吾未識夫開塞之所由。(〈文賦〉)

2) 精驚八極，心遊萬仞。其致也，情瞳矓而彌鮮，物昭晰而互進。(〈文賦〉)

여명이 밝아오듯 구상이 떠오른다고 묘사한다. 영감의 발동을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다가 메아리처럼 떠오른다는 비유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또 “가라앉은 말들은 떠오르지 못하다가,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버둥거리며 깊은 물속에서 올라온다.”와 같은 구절이나 “한 순간에古今을 모두 살피고 순식간에 온 세상을 섭렵한다.”와 같은 구절은 상상력이 발동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높은 곳에서 땅속 깊은 곳까지 생각이 닿는 현상을 설명한다. 영감과 상상에 대한 유험의 이론은 <神思>편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는데 육기와 유사한 맥락으로 상상력의 특징을 설명했다.

글을 쓰며 사색에 잠길 때는 그 정신이 심원해진다. 고요하게 깊이 집중하면 생각이 천 년까지 이어지고 조용히 얼굴빛이 변하면서 시야가 만 리 밖까지 통한다. 낮게 읊조리는 사이 주옥같은 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눈앞에서는 風雲의 형상이 펼쳐진다. 상상의 이치가 극치에 닿았다. 3)

神思라는 용어는 曹植의 <寶刀賦>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조식이 사용한 개념은 문예이론의 개념이 아니었다. 문예창작의 영역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동진 시기 孫綽의 <遊天台山賦序>로 전한다. 손작은 창작을 할 때 자신의 주관적 상태를 “神을 내달리게 하고 思를 부린다.(馳神運思)”라고 묘사했다. 정신이 자신도 모르게 멀리까지 뻗어나가고 생각이 자유자재로 운용되는 상태에서 창작이 진행된 것이다. 유험이 사용한 신사의 개념은 바로 이렇게 정신과 마음이 자유롭게 노닐며 무한한 상상이 발휘되는 지경을 말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생각이 천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시간적 제약을 벗어났음을 뜻하고 시야가 만 리 밖까지 통하는 것은 공간적 제약을 초월했음을 말한다. 상상력의 작용으로 창작이 순조롭게 진행되니 주옥같은 소리와 풍운의 형상이 자연스럽

3) 故寂然凝慮，思接千載；悄焉動容，視通萬里。吟詠之間，吐納珠玉之聲；眉睫之前，卷舒風雲之色；其思理之致乎。(《文心雕龍·神思》)

게 펼쳐진다. 욕기가 생각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험이 생각하는 상상력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경험적 지식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런데 욕기에 따르면 창작의 과정에서 상상력이 발동되었을 때 작가의 정신과 사물이 결합하여 강렬한 감정이 생겨난다. 위의 인용문에서 “극치에 이르면 어렴풋하던 감정이 뚜렷해지고 만물이 분명하게 떠오른다.”는 묘사는 상상력이 극치에 닿았을 때 작품의 구상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작품 속에 담기는 대상의 형상을 말한다. 욕기가 창작의 과정을 ‘物→意→文’으로 표현한 것처럼 창작 대상은 작가의 의식과 결합하여 글로 표현된다.⁴⁾ 그러므로 작가의 정신과 감정이 대상물에 투여된 시점은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되는 순간이다. 욕기는 이 순간의 결정적 요소로 상상력의 작용을 제시하고 있다. 《文心雕龍》은 더욱 구체적으로 작가의 정신과 사물의 결합을 설명한다.

그러므로 상상의 이치는 오묘한 것이니 정신이 만물과 어울려 노닌다.⁵⁾

이 짧은 단언은 <神思>편의 핵심을 압축하고 있다. <文賦>와 《文心雕龍》이 문학을 이론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하는 근거는 理, 物, 意, 文, 神, 情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체계화했다는 점이다. 추상적인 개념어를 제시하고 보편타당한 원리를 설명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文賦>가 묘사의 방식으로 창작과정을 서술한 반면 <神思>의 이 구절은 思, 理, 神, 物의 용어를 사용하여 상상의 속성을 정의하고 있다. 유험이 여기서 말하는 思는 상상의 작용을 말하는

4) 욕기는 창작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스스로 글을 짓다보면 더욱 그런 상황이 명확해지니, 생각(意)이 사물의 참모습(物)에 부합하지 않을까, 또 글(文)이 생각(意)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까 항상 걱정하게 된다.(每自屬文, 尤見其情, 恒患意不稱物, 文不逮意.)”

5) 故思理爲妙, 神與物遊.(《文心雕龍·神思》)

것이지만 감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만 리 밖의 사물도 눈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神思가 운용되면 머리 속에서 만 갈래 길이 다투듯 일어난다. 허상을 반듯한 모양으로 재단하고 형체가 없는 것을 화려하게 조각한다. 생각이 산에 오르면 감정이 온 산에 가득하고 생각이 바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바다에 넘친다.⁶⁾

이 인용문에서도 상상력의 작용으로 작가의 주관적 정서가 대상과 일체화되는 순간을 설명하고 있다. 산에 오르고 바다를 바라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산과 바다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만으로도 자연과 교감하면서 物我一體의 경지에 몰입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품 속의 산과 바다는 작가의 주관적 감정이 투영된 자연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특히 <物色>편은 작가의 감정과 사물의 교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물색은 주로 자연경물을 가리키는 용어지만 넓게 해석하면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 사회현상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유희은 “감정은 만물로 인해 움직이고 말은 감정에서 생겨난다.(情以物遷, 辭以情發)”고 하여 경물에 의해 감화를 받아 감정이 생겨나고 말로 그 감정을 표현한다고 했다. 감정을 어떻게 적합한 언어로 표현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유희이 강조하는 것은 자연과 감정의 상호작용이다. 자연이 인간의 감성에 자극을 주어 창작욕구가 생겨나며 감성은 자연에 반영되어 표현된다. <神思>편은 이러한 과정을 오묘한 상상의 이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상상력 발휘의 조건과 관건

<文賦>는 창작의 출발을 명상과 학식으로 제시했다.

6) 夫神思方運. 萬塗競萌. 規矩虛位, 刻鏤無形. 登山則情滿於山, 觀海則意溢於海.(《文心雕龍·神思》)

우주의 가운데에 서서 아득한 어둠 속을 바라보며, 수많은 서적들 속에서 마음과 정신을 키운다.⁷⁾

육기가 말하는 玄覽은 고요한 명상의 상태를 가리키며 典墳은 서적을 말한다. 사상적 연원으로 본다면 전자는 도가적이며 후자는 유가적이다. 현람은 노자가 말한 虛靜과 같은 의미이다. 허정이 필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생겨나는 마음의 동요를 막고 내적으로 사색과 관찰에 필요한 집중력을 키우기 때문이다. 독서를 통해 학식을 풍부히 하는 것은 성정을 도야하고 구상에 필요한 생각을 가다듬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기는 창작이 시작되는 순간을 묘사하면서 허정의 상태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작할 때는 눈과 귀를 막고 사색에 빠져 주위를 살핀다.⁸⁾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외부의 간섭을 막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창작대상에 대한 성찰을 하기 위함이다. 역시 허정에 대한 묘사이다. 육기는 이러한 허정의 상태를 통해 정신과 마음이 하늘 높이 노닐며 어렴풋하던 감정이 뚜렷해지고 만물이 분명하게 떠오르는 상상의 극치에 닿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감각기관의 활동을 멈추고 주의력을 내면의 세계로 돌려야만 상상의 기능의 극대화되고 창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상에 필요한 주관적 조건에 대해 유험은 다섯 가지 요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육기가 말한 허정과 독서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구상을 하며 생각을 다듬을 때는 虛靜을 귀하게 여긴다. 오장을 소통시키며 정신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학문을 쌓아 보배로운 생각을 모으고 이치를 헤아려 재능을 풍부하게 한다. 독서와 연구로

7) 佇中區以玄覽, 頤情志於典墳.(<文賦>)

8) 其始也, 皆收視反聽, 耽思傍訊.(<文賦>)

마지막까지 살피고 정취를 다듬어 말을 떠나간다.⁹⁾

허정(虛靜), 학문(積學), 이치(酌理), 독서와 연구(研閱), 정취(馴致). 이 다섯 가지는 상상력이 막히고 통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거론한 순서로 보아 허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했음을 볼 수 있다. 욕기와 마찬가지로 잡념의 방해를 차단하고 관찰력과 주의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상상력의 관건으로 생각한 것이다. 허정의 상태를 작가의 정신적 수양과 관계된 측면으로 본다면 나머지 네 가지 요인은 작가의 인식과 이성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욕기가 말한 “수많은 서적들 속에서 마음과 정신을 키운다.(顧情志於典墳)”는 내용을 더욱 세분화했다. “학문을 쌓아 보배로운 생각을 모으고 이치를 헤아려 재능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은 특히 유가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지식을 쌓고 창작의 재능을 강화할 것을 말한다. “독서와 연구로 마지막까지 살핀다.”는 것은 여러 풍격의 작품을 읽으며 습작에 필요한 기교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다. “정취를 다듬어 말을 떠나간다.”는 것은 창작을 할 때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것을 말한다. 욕기가 말한 독서는 유가 경전을 통한 인격수양과 명작에 대한 학습을 통한 창작기교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는데 유험은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선행되어야 작가의 인격, 사상, 감정이 풍부해져 상상이 발동할 때 외부 사물에 대해 능동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론적 시각으로 창작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람은 욕기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상이나 영감처럼 추상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러 방향의 특징을 제시한 점은 더욱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욕기는 상상과 영감이 발휘되면서 생겨나는 가시적인 현상을 거론했을 뿐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문제, 즉 상상과 영감이 어떻

9) 是以陶鈞文思，貴在虛靜。疏淪五藏，澡雪精神。積學以儲寶，酌理以富才，研閱以窮照，馴致以繹辭。(《文心雕龍·神思》)

게 생겨나고 이들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상상과 영감을 일종의 신비한 현상으로 인식하여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반해 유험는 욕기가 파악불가능으로 인식한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하며 상상력 발휘의 핵심적 요소를 제시한다.¹⁰⁾ 유험의 神思論이 욕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층 더 발전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神이 마음속에 머물면 志氣가 그 관건을 통솔한다. 物이 눈과 귀를 따라 머리 속으로 들어가면 언어는 그 중추를 관리한다. 중추가 바야흐로 통하게 되면 物은 숨김없이 드러나는데 관건이 막히게 되면 神은 마음속에서 숨어버린다.¹¹⁾

物은 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 사물이자 현상이고 志氣는 작가의 내부에 존재하는 심성적 요소이다. 神은 외부 사물과 만나고 작가의 내부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神은 예술적 상상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험는 志氣를 상상력의 관건을 통솔하는 요소라고 했다.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志氣를 제시한 것이다. 욕기가 파악불가능의 영역이라고 간주했던 문제에 대해 유험는 실증적인 태도로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志氣라는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 《맹자·공손추》 상편이다. 맹자는 “대저 志는 氣를 통솔하는 장수이고 氣는 몸에 가득 차있는 것이다.(夫志, 氣之帥也. 氣, 體之充也.)”라고 했다. 志가 이념적 요소라고 한다면 氣는 개인의 내부에 있는 물질적 요소인데 志가 氣보다 상위 개념이다. 즉 유험가 말하는 志氣는 개인의 사상과 이념, 기질과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하고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형성된 신념과

10) 羅宗強은 욕기의 신사론이 도가 사상의 空靈한 색채가 있으며 유험의 신사론은 유가의 이성적 실증론의 흔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魏晉南北朝文學思想史》 324쪽, 中華書局 1996년)

11) 故思理爲妙, 神與物遊. 神居胸臆, 而志氣統其關鍵; 物沿耳目, 而辭令管其樞機. 樞機方通, 則物無隱貌; 關鍵將塞, 則神有遯心.(《文心雕龍·神思》)

인격이 그 사람의 상상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자나 맹자가 말하는 志는 治國平天下와 관계된 보편적 이념에 가깝기 때문에 유가의 가치관으로 志氣를 해석한다면 개인성이 배제된 정치윤리적 측면이 부각된다. 유희이 志를 거론한 구절들을 보면 공맹의 유가사상과는 다르게 情感의 요소를 포함하는 측면이 많다. 예를 들면 <明時>편에서는 “사람은 일곱 가지 감정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물을 접하면 감응하게 되고 사물에 감응하면 志를 노래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음이 없다.(人稟七情, 應物斯感, 感物吟志, 莫非自然.)”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志는 七情의 작용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정감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희이 말한 志氣의 개념에는 사상과 이념, 기질과 성격 외에 정감과 정서적 측면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작가의 개인적 기질과 성향에 따라 사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고 표현되는 감정의 내용도 달라진다. 유희이 지기를 상상력 발휘의 관건으로 본 것은 사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작가가 내적으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주목한 것이다. 감정과 상상력의 관계에 있어서는 육기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언급한 바 있는데 “모든 감정이 가라앉는 그 순간, 마음은 나아가려 해도 생각이 멈춰 선다. 시든 나무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마른 물길처럼 행하다.”라는 구절이다. 위 인용문의 말미에 “관건이 막히게 되면 神은 마음속에서 숨어버린다.”라는 유희의 인식과 동일한 맥락이다.

(3) 상상력과 언어표현의 관계

육기의 창작론은 物→意→文의 과정을 뼈대로 전개된다. 상상의 활동은 구상단계 뿐 아니라 형상화된 글의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책들의 진수를 모아내고, 육예(六藝)의 향기로운 광택을 머금은다. 생각은 별처럼 높은 곳에서 조용히 흐르다가, 물길에 휩쓸려 땅

속 깊이 가라앉는다. 그리하여 가라앉은 말들은 떠오르지 못하다가, 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버둥거리며 깊은 물속에서 올라온다. 아름다운 언어들도 솟구치다가, 마치 화살에 맞은 새처럼 두터운 구름 속으로 떨어진다. 백 년 동안 쓰이지 않은 표현을 모으고, 천 년 동안 버려졌던 운(韻)을 찾아낸다. 누군가 손 댄 아침 꽃은 버리고, 아직 피지 않은 저녁 꽃을 피운다. 한 순간에 고금을 모두 살피고 순식간에 온 세상을 섭렵한다.¹²⁾

외부사물에 감응하여 마음에 얻어진 감정과 생각은 추상이므로 형상이 없다. 하지만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언어나 문자라는 물질적 수단을 빌려야만 한다. 위의 인용문은 생각이 글로 표현될 때 상상력의 작용에 따라 통하고 막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상상력이 발휘되면 마음 속의 형상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들도 샘솟듯 떠오르는데 상상이 막히면 화살에 맞고 구름 속에 떨어진 새처럼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이 단락에서 육기는 상상이 막혔을 때 창작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섬세한 묘사와 비유로 강조하고 있다.

성공적인 언어표현을 위해 육기가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은 독서와 상상력의 발휘이다. 독서는 효과는 가시적인 것이라 더 세부적인 방법을 거론된다. 여기서 육예의 의미에 대해 《周禮》의 禮, 樂, 射, 御, 書, 數라는 해석과 六經의 《易》, 《詩》, 《書》, 《禮》, 《樂》, 《春秋》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지만 폭넓게 전대의 서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즉 독서를 통해 뛰어난 문장의 정수와 핵심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과 운을 찾아내며 평범한 말들을 더 훌륭한 표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육기의 방법론이다. 그러나 상상력의 문제는 육기 스스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가 없다. 상상력과 영감이 발동했을 때에는

12) 傾群言之瀝液, 漱六藝之芳潤. 浮天淵以安流, 灌下泉而潛浸. 於是沈辭拂悅, 若遊魚銜鉤而出重淵之深. 浮藻聯翩, 若翰鳥纓繳而墜曾雲之峻. 收百世之闕文, 採千載之遺韻. 謝朝華於已披, 啓夕秀於未振. 觀古今於須臾, 撫四海於一瞬. (<文賦>)

意를 文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순조롭지만 막혔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원리는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생각이다.

언어표현의 어려움과 그 이유에 대한 유협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육기와 같다. 이는 창작의 과정에 대한 인식이 육기의 이론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막 붓을 잡았을 때의 기세는 글쓰기 전보다 배 이상인데 작품을 완성하고 나면 시작했을 때 생각의 절반에 그친다. 어째서 그러한가? 생각은 허공에서 뒤바뀌며 쉽게 기발할 수 있었지만 말은 실제여야 하므로 교묘하기가 어렵다. 이런 까닭에 意는 思에서 영향을 받고 言은 意에서 영향을 받는다.¹³⁾

육기는 창작의 과정을 物→意→文으로 인식했는데 유협은 思→意→言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意는 실체가 없는 허상이고 言은 실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언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두 사람이 말하는 意는 모두 작가가 사물에 감응하여 감정을 담아 형성한 형상으로 意象과 동일한 개념이다. 文과 言은 문자와 언어를 가리키는데 <文賦>와 《文心雕龍》에서 구분없이 혼용되기도 한다. 다만 창작의 출발을 物과 思로 표현한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육기가 말하는 物은 작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라 작가의 감정이 담긴 사물이다. 유협이 말하는 思는 神思로 “神이 物과 어울려 노닌다.”고 설명했던 개념이다. 그러므로 육기가 말하는 物은 작가의 정감과 결합된 개념이고 유협이 말하는 思는 객관적 物과 결합된 개념이다. 유협의 이론은 육기의 이론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유협은 상상력이 발동하여 “物이 눈과 귀를 따라 머리 속으로 들어가면 언어는 그 중추를 관리한다.”고 했다. 상상력 발휘의 관건이 志氣라면 표현의 중추는 언어라는 것이다. 유협은 그 중추를 辭令이라는 용어

13) 方其搦翰，氣倍辭前，暨乎篇成，半折心始。何則？意翻空而易奇，言徵實而難巧也。是以意授於思，言授於意。(《文心雕龍·神思》)

로 표현했다. 李澤厚는 유험이 상상의 문제를 논하면서 언어를 거론한 것은 형상에 대한 구상과 형상에 대한 전달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⁴⁾ 이 두 과정은 동시에 진행되는 문제이다. 상상력은 눈과 귀로 사물을 감지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언어표현에도 영향을 미친다. 언어적 상상력이 끊임없이 솟아나면 형상에 대한 구상도 순조롭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어전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교와 방법이 요구된다. 《文心雕龍》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작기교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그 중 상상력의 문제와 연계하여 제시된 내용에는 隱秀의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다.

心術의 움직임은 멀고 文情의 변화는 깊다. 水源이 깊으면 많은 흐름이 생기고 뿌리가 성하면 이삭이 높게 자란다. 때문에 문학작품의 훌륭한 것 중에는 드러난 것과 감춰진 것이 있다. 감춰진 것이란 글의 바깥에서 다시 발견되는 내용이며 드러난 것은 작품 속에 유독 뛰어난 구절을 말한다.¹⁵⁾

여기서 말하는 心術의 움직임은 神思, 즉 상상력의 활동을 가리킨다. 상상은 자유분방하고 창작 중의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드러내는 부분과 감추는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춰진 것(隱)은 意象에서의 意를 가리키고 드러난 것(秀)은 象을 가리킨다. 즉 드러낼 부분은 펴진하고 생동감있게 잘 묘사해야 하지만 독자가 연상을 통해 깊은 여운을 음미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감춰진 것이 잘 활용되면 작가의 생각이 글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독자는 작가의 감정을 유추하여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다. 기교의 측

14) 李澤厚, 劉綱紀 공저 《中國美學史 魏晉南北朝編》 672쪽을 참고할 것. (安徽文藝出版社, 1999年)

15) 夫心術之動遠矣, 文情之變深矣. 源奧而派生, 根盛而穎峻. 是以文之英蕤, 有秀有隱. 隱也者, 文外之重旨者也. 秀也者, 篇中之獨拔者也.(《文心雕龍·隱秀》)

면으로 보자면 비유와 암시, 상징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은 육기가 이론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부분으로 유협의 독창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3. 문학이론에 접근하는 시각의 차이

위의 내용을 보면 육기는 문학창작의 상당한 부분을 불가지의 영역으로 인식했는데 유협은 이를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논술한 부분이 많으며 이론의 엄밀성과 체계성에서 명확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는 문학이론이 심화되고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경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문학의 문제에 접근하는 두 사람의 시각과 입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육기가 불가지의 문제로 인식한 부분까지 유협이 세밀하게 분석한 것은 창작자와 이론가의 입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육기는 기본적으로 창작자의 입장에서 문학의 문제에 접근했고 유협은 이론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했다. <文賦>가 뛰어난 文論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묘사에 중점을 둔 한 편의 순수 문학작품이고 서술과 묘사의 대상이 창작의 문제였다. 문학이론에 접근하는 두 사람의 시각의 차이는 문체론에 대한 서술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1) 문체에 대한 인식

서진 시기 유행했던 모의 풍조는 전대 작품의 문체를 익히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서진 작가들 장문의 서문을 적어 모의하는 대상과 제목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대의 명작에는 어떤 작품이 있었는지, 또 그 작품들에 대해 평론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육기의 문체론 역시 이런 시대적 풍조에서 영향을 받아 출발한다.

예전 崔篆이 시를 지어 도를 밝히고 뜻을 말했다. 馮衍이 또 <顯志賦>를 짓고 班固가 <幽通賦>를 지었는데 모두 서로 본뜬 것이었다. 張衡의 <思玄>, 蔡邕의 <玄表>, 張叔의 <哀系>는 평론할 만한 전대

의 작품들이다. 최진의 시는 간략하면서도 감정이 있고 <顯志賦>는 굳세면서도 말이 넘치고 <哀系>는 통속적이면서도 때때로 아름답고 <玄表>는 전아하면서도 다소 소박하다. <思玄>은 잘 다듬어졌으면서도 온화하다. 예전 문인들을 뛰어난 듯 하며 여유와 기품이 있고 깊은 뜻이 감추어져 있다. 반고의 글은 아름다우니 나누어진 듯하나 끊어지지 않았고 슬픈 듯하나 원망하지는 않는다. 崔篆과 蔡邕의 글은 깊으면서도 온유하니 전아한 부류에 속한다. 馮衍의 글은 격앙되고 굴곡이 심해 원망에 찬 부류이다. 어찌 궁달이 다른 일이라 글이 감정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여러 작가들의 말류에서 내 마음을 풀어보고자 한다.¹⁶⁾

이 인용문은 육기의 <遂志賦>의 서문이다. <遂志賦>는 육기가 자신의 운명과 포부에 대해 서술하는 내용으로 言志 계열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일 계열 작품들의 원류를 읊으면서 각각의 풍격이 어떤지 논하는 것은 전통적인 문체를 먼저 연구하여 그 작법을 모범으로 삼는 창작관념 때문이다. 말미에 적은 말은 이러한 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렇게 문체의 연원을 중시하는 관념은 전대 작품에 대한 독서가 상당했음을 의미한다. 많은 양의 독서를 통해 문체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육기에게는 창작의 전제조건이었다. 육기의 <文賦>가 창작의 시작을 명상과 학습으로 설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¹⁷⁾ 육기가

16) 昔崔篆作詩以明道述志，而馮衍又作<顯志賦>，班固作<幽通賦>，皆相依仿焉。張衡<思玄>，蔡邕<玄表>，張叔<哀系>，此前世之可得言者也。崔氏簡而有情，<顯志>壯而汎濫，<哀系>俗而時靡，<玄表>雅而微素，<思玄>精練而和惠。欲麗前人，而優游清典，漏幽通矣。班生彬彬，切而不絞，哀而不怨矣。崔蔡沖虛溫敏，雅人之屬也。衍抑揚頓挫，怨之徒也。豈亦窮達異事，而聲爲情變乎。余備托作者之末，聊復用心焉。(〈遂志賦序〉)

17) 傅玄의 <連珠序> 역시 이런 방식으로 지어졌는데 이 글을 보면 연주체라는 문체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명칭은 어떻게 유래하게 되었고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인지, 또 그들의 작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설명한다. 또 그의 <七謨序>도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글을 보면 부현 역시 서문에서 문체의 특징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전통적인 작법에 부합하는 글을 짓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글은 그 외에도 潘岳의 <馬汧督誄書>，潘尼의 <乘輿箴書>，曹攄의 <圍棋賦序> 등

문체를 중시한 것은 장르로서의 문체라기보다 풍격으로서의 문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희의 문체론은 조비, 육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文筆之辨은 유희 문체론의 출발점인데 그가 풍격보다는 장르의 구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면서 문학과 비문학의 구분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문필지변으로 표현된 것이다. 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된 조짐은 조비와 육기의 시대에 이미 표현되고 있으며 운(韻)의 유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운의 유무로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하려는 생각은 남조 문필지변의 가장 보편적인 관점이며 유희도 이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요즘 일반적으로 文과 筆이 있다고 하는데 韻이 없는 것을 筆이라고 하고 韻이 있는 것을 文이라 한다.¹⁹⁾

여기서의 운은 聲韻이 아니라 脚韻을 말한다. 운이 없는 글을 筆이라고 불렀으니 필은 실용문과 같은 비문학을 가리키고 文은 운이 있는 글로 詩, 賦와 같은 순문학을 가리킨다. 운의 유무로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는 관점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당시 문인들이 생각하는 순문학의 주요 체제가 詩, 賦였기 때문이다. 詩와 賦는 압운을 하는 문체이기 때문에 순문학의 대표 장르였고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었다. 유희 역시 운의 유무를 중요하게 생각한 점에서 조비와 육기의 문학관념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

이 있다.

18) 조비가 문체를 열거하면서 奏議, 書論, 銘誄, 詩賦로 운이 있는 문체와 없는 문체를 구분했던 점도 운의 유무를 의식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이 점은 육기도 마찬가지이다.

19) 今之常言, 有文有筆, 以爲無韻者筆也. 有韻者文也.(《文心雕龍·總述》)

다.²⁰⁾

그런데 유험이 운의 유무를 강조한 것은 순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하는 기준 때문이었다.²¹⁾ 이 점은 顏延之와의 논쟁에서도 표현된다. 안연지는 운 외에 다른 방식으로 문학의 특수성을 탐색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운이 없는 산문 중에도 문학성이 뛰어난 명문들이 있었고 운이 있는 장르 중에도 駢文 같은 경우는 문학이라 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안연지는 筆이라는 문체를 문체가 있는 言이라고 생각하여 經典은 言이지 筆이 아니며 傳記는 筆이지 言이 아니라고 했다.²²⁾

안연지 같은 경우는 言과 筆로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하고자 했다. 그가 예로 든 장르는 경전과 전기이다. 둘 다 詩賦처럼 순수 문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기는 경전에 비해 문학적 구성과 수사가 많아 문학성에서 경전과 구분된다고 본 것이다. 유험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안연지의 관점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易經》의 <文言>이 어찌 문체 있는 言이 아니겠는가. 만약 筆이 문체 있는 言이라면 경전이 筆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²³⁾

20) 《文心雕龍》은 여러 문체에 대해 서술하면서 운이 있는 문체는 앞에 배치하고 운이 없는 문체는 뒤에 배치했다. 그의 문체론 스무 편을 보면 <明詩>에서 <哀弔>까지는 모두 운이 있는 문체이고, <雜文>과 <諧謔> 두 편은 운이 있는 문체와 없는 문체가 함께 있다. 그리고 <史傳>에서 <書記>까지는 모두 운이 없는 문체이다.

21) 文筆之辨의 발생 동기를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하는 시도로 보는 관점에 반대하는 학설도 있다. 王齊洲, <文筆之分與六朝文學觀念>(《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 2002年6月 第2期)을 참고할 것. 그는 날로 복잡해가는 문장 체재를 정리하여 분류, 학습, 평론에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文筆之辨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22) 顏延年以爲筆之爲體, 言之文也. 經典則言而非筆, 傳記則筆而非言. (《文心雕龍總述》)

23) 易之文言, 豈非言文. 若筆爲言文, 不得云經典非筆矣.(上同)

안연지가 제기한 문제들도 충분히 문학의 특수한 영역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 文筆이라는 용어가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詩筆, 辭筆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²⁴⁾ 누구의 관점이 더 타당한지는 본 논문의 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보류한다. 다만 이러한 논쟁을 통해 유희이 운의 유무를 강조한 것이 문체의 차이를 구분하여 분류하려는 의식에서 출발했음을 볼 수 있다. 조비와 육기는 창작에 힘쓴 문인들이었기 때문에 운의 유무는 창작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였지만 유희의 경우 방대한 문체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일차적 기준이었다. 이들에겐 창작자와 이론가의 입장의 차이가 존재했다.

(2) 문체의 분류와 운용에 대한 인식

南齊 시기 臧榮緒의 《晉書》는 “육기는 정리를 정묘하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문체를 식별할 수 있었기에 <文賦>를 지었다.(陸機妙解情理, 心識文體, 故作文賦.)”고 했는데 이러한 평론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문체를 구분하고 식별하는 것이 <文賦>의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문학사는 <文賦>의 의미를 창작 과정에 대한 상세한 묘사에 두고 있지만 《진서》와 같은 인식은 당시의 문학관념이 문체의 문제를 매우 중시했음을 반영한다. 육기가 문체를 분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詩는 감정에서 우러나는 것으로 아름다워야 하며 賦는 사물의 외형을 묘사하는 것으로 맑고 밝아야 한다. 碑는 文彩가 실제 내용을 보조하는 것이며 誄는 애통한 사연으로 애답은 마음을 적는 것이다. 銘은 박식한 내용에 간결한 표현으로 온유하고 돈독하게 적어야 하며 箴은 억

24) 齊梁 시기 다른 경로로 표현된 문학, 비문학 구분의 논쟁은 蕭繹과 蕭統의 관점이 대표적이다. 소통은 沉思(형상사유)와 翰藻(문체)를 구분했고 소역은 문학(감정, 운율, 문체가 담긴 글)과 학술(儒學)을 구분했다.

양이 격앙되어 맑고도 장중해야 한다. 頌은 우아하면서도 격조가 있어야 하며 論은 논리가 치밀하고 어조가 유창해야 한다. 奏는 평이함과 고상함이 있어야 하며 說은 수사가 화려하면서도 교활할 줄 알아야 한다. 비록 문체의 구분은 이러하지만 또한 바르지 않은 것을 금해야 하고 지나치게 자유로운 것도 억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전달되어 내용이 잘 드러나는 것이니 장황함을 취하면 안된다.²⁵⁾

일단 조비의 문체론에 비해 발전한 내용은 문체를 열 가지로 분류한 점이다. 물론 육기 당시의 문체는 열 가지가 넘었지만 육기는 賦體를 사용하여 對仗을 엄격하게 고려하면서 이 열 가지 문체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했다. 문체에 대한 설명도 조비에 비해 확장되었다. 조비의 경우는 비슷한 속성의 두 문체를 묶어 한 마디로 개괄했지만 육기는 하나의 문체마다 먼저 정의를 내린 후 외형적 특징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 순문학 장르인 시와 부를 조비는 맨 마지막에 거론했었는데 육기는 가장 먼저 거론했다. 시와 부에 대한 육기의 논단을 보면 순문학에 대한 육기의 인식이 조비의 시대보다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조비는 시와 부를 합쳐서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개괄했지만 육기는 시에 대해 감정에서 우러나는 글로 정의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문체적 특징을 설명했다. 부에 대해서는 사물의 외형을 묘사하는 글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맑고 밝아야 한다는 문체적 특징을 부가했다. 시의 외형적 특징에서도 조비는 麗라는 용어를 제시했지만 육기는 綺靡라는 시대적 미감을 반영하는 용어를 제시했다. 육기의 문체론은 조비가 제시한 방향을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는데 특히 시와 부에 대한 정의는 새로운 시대의 문학관념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유협의 《文心雕龍》은 문체의 분류에 상당한 공을 쏟았다. 일단 분량에서도 문체론은 《文心雕龍》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총 50편의 본문 중에서 제 6편인 <明詩>부터 제 25편 <書記>까지의 스무 편이

25) 詩緣情而綺靡，賦體物而瀏亮。碑披文以相質，誄纏繇而悽愴。銘博約而溫潤，箴頓挫而清壯。頌優遊以彬蔚，論精微而朗暢。奏平徹以閑雅，說焯曄而譎誑。雖區分之在茲，亦禁邪而制放。要辭達而理舉，故無取乎冗長。(〈文賦〉)

문체론인데 총론에 포함된 제 5편 <辨騷> 역시 문체론으로 보아 무방하므로 실상 문체론은 총 21편인 셈이다. 남조의 가장 엄밀하고 방대한 문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각 문체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序志>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초를 찾아 지금의 문체에 대해 말하고 명칭을 해석하여 뜻을 풀이한다. 역대의 문장을 뽑아 서술의 단락을 정하고 이치를 풀어 문체의 계통을 세운다.²⁶⁾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조비와 육기의 분류 방식은 “이치를 풀어 문체의 계통을 세우는(數理以舉統)” 방식에 가깝고 다른 세 가지 방식은 조비, 육기와는 다른 문체 분류의 계통인 摯虞의 방식에 가깝다.²⁷⁾ 유희협의 문체 분류에서 가장 상위의 기준은 韻의 유무, 즉 文과 筆이다. 또 중요한 문체와 중요하지 않은 문체를 구분하여 배열 순서에 차등을 두었는데 문의 문체를 필의 문체보다 앞에 둔 것도 그렇고 문의 영역에서 시, 악부, 부를 가장 앞에 배치한 점도 그러하다. 중요도에 따라 분류에도 등급을 나눈 셈인데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²⁸⁾ 유희협의

26) 原始以表末, 釋名以章義, 選文以定篇, 數理以舉統.(《文心雕龍·序志》)

27) 지우는 육기와 동시대 사람이지만 문체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육기와 달랐다. 예를 들어 摯虞의 <文章流別論>에서는 시에 대해 “예전의 시는 삼언, 사언, 오언, 육언, 칠언, 구언이 있었다. 고시는 모두 사언을 모체로 삼는데 간혹 한 두 구가 사언의 사이에 끼면서 후세에 그 방식을 이어 한 편을 이루었다.(古之詩有三言,四言,五言,六言,七言,九言. 古詩率以四言爲體, 而時有一句二句雜在四言之間. 世演之, 遂以爲篇.)”고 했는데 시의 기원을 사언, 즉 《詩經》으로 본 것이다.

28) 첫 번째 분류는 文과 筆이며 두 번째 분류에서 文은 詩, 樂府, 賦, 頌讚, 祝盟, 銘箴, 誄碑, 哀弔, 雜文, 諧隱으로 분류되고 筆은 史傳, 諸子, 論說, 詔策, 檄移, 封禪, 章表, 奏啓, 議對, 書記로 분류된다. 세 번째 분류에서 詩는 四言, 五言, 雜言, 離合, 回文, 聯句로, 樂府는 三調, 鼓吹, 饒歌, 挽歌로, 頌讚은 頌, 讚으로, 祝盟은 祝, 盟으로, 銘箴은 銘, 箴으로, 誄碑는 誄, 碑로, 哀弔는 哀, 弔로, 雜文은 對問, 七, 連珠, 典, 誥, 誓, 問, 覽, 略, 篇, 章, 曲, 操, 弄, 引, 吟, 諷, 謠, 詠으로, 諧隱은 諧, 隱으로, 論說은 論, 說로, 詔策은 詔, 策, 戒, 敎, 命으로, 檄移는 檄, 移로, 章表는 章, 表로, 奏啓는 奏, 啓로, 議對

분류를 보면 그가 당시 통용되던 모든 문체를 하나의 큰 체계로 인식했으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세밀하게 문체를 구분했고 조비에서 육기로 이어지는 문체론의 맥락을 한층 더 종합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각 문체에 대한 유험의 서술을 살펴보면 조비, 육기의 문체론 보다 한층 더 세밀하게 발전한 면모를 볼 수 있다.

대저 논이라는 문체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상을 밝혀내고 추상적인 이치를 탐구하며 굳게 막힌 것을 쫓아 통하게 하고 깊이 감춰진 것을 끄집어내어 궁극적인 결론을 얻어낸다. 그러므로 모든 사고의 도구가 되며 모든 일의 기준이 된다.²⁹⁾

위의 인용문은 논체에 대한 설명이다. 앞서 서술한 유험의 문체분류 방식에서 보자면 “敷理以舉統”에 해당되는 서술인 셈이다. “有數”와 “無形”은 논변의 대상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인 사실과 추상적인 현상을 말한다. “義”와 “辭”는 작가가 글 속에서 펼치는 논리와 언어를 가리키는데 글의 내용과 형식이다. 논변의 대상은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이치와 글 모두 빈틈없이 치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비는 논체에 대해 “조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육기는 “논리가 치밀하고 어조가 유창해야 한다.”고 했다. 조비에 비해 육기의 이론이 발전한 점은 논체에 대해 단독으로 서술했을 뿐 아니라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여 서술한 점이고 유험는 한층 더 나아가 논변의 대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구분했다.

문체 분류의 기준, 체계성과 종합성, 문체의 특징에 대한 서술의 상세함 등 모든 면에서 유험의 이론은 완성도가 높다.³⁰⁾ 하지만 육기의 문

는 議, 對, 書, 記로 분류된다. 네 번째 분류에서 論은 陳政, 釋經, 辨史, 詮文으로, 議는 議, 駁議로, 對는 對策, 射策으로, 記는 譜, 籍, 簿, 錄, 方, 術, 占, 式, 律, 令, 法, 制, 符, 契, 券, 疎, 關, 刺, 解, 牒, 狀, 列, 辭, 諺으로 분류된다.

29) 原夫論之爲體, 所以辨正然否. 窮於有數, 究於無形, 迹堅求通, 鉤深取極. 乃百慮之筌蹄, 萬事之權衡也.(《文心雕龍論說》)

체론은 창작자의 입장에서 제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문체를 창조적으로 운용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文賦>의 내용을 보면 문학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논술했다. 내용으로 보면 論에 해당되는데 실제 사용된 문체는 부체이다. 육기는 논체를 “논리가 치밀하고 어조가 유창해야 한다.”고 했고 부체를 “사물의 외형을 묘사하는 것으로 맑고 밝아야 한다.”고 했다. 논체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성의 영역에 있는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야 하고 정확해야 한다. 하지만 창작은 이성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이며 상대적이고 모호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육기가 부체를 선택한 것이다. 말하자면 문학의 문제는 문학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창작대상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은 <文賦>에 표현되어 있다.

體에는 수많은 구분이 있고 物도 하나의 형상이 아니다. 뭉게뭉게 일어나 빠르게 변화하니 그 형체들은 묘사하기가 어렵다.³¹⁾

物은 창작대상이고 體는 작품의 체제와 형식, 즉 외형적 틀이기 때문에 문체(장르)도 포함된다. 육기가 창작의 어려움을 토로한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바로 物이 변화한다는 점인데 창작 대상이 작가의 理性과 智力으로 완벽하게 파악되지 않음을 말한다. <文賦>는 창작을 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30) 물론 유협의 분류에 전혀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明詩>와 <樂府>는 편장이 분리되어 시와 악부가 두 개의 문체인 것으로 구분되었지만 사실 악부는 시의 하부 유형이다. 또 七體나 對問體는 한부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표현수법인데 유협은 이를 부에 넣지 않고 雜文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유협의 문체론이 기존에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문체를 수집하고 분류했다는 점, 또 비록 주관적 오류가 있긴 하지만 각 문체의 귀속을 정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1) 體有萬殊, 物無一量. 紛紜揮霍, 形難爲狀.(<文賦>)

비록 문체의 구분은 이러하지만 또한 바르지 않은 것을 금해야 하고 지나치게 자유로운 것도 억제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언어가 전달되어 내용이 잘 드러나는 것이니 장황함을 취하면 안된다.³²⁾

그는 열 가지 문체를 구분하고 각 문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도 말미에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전달을 통해 작가의 생각과 의도가 잘 전달되는 것이며 경직되게 문체의 구분을 고수하다가 생각지 못한 병폐에 부딪힐 수 있음을 경계했다.

사물이 여러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體도 계속 변한다.³³⁾

이 구절은 사물에 따라 작가가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육기의 본의는 문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하지만 창작대상의 다양한 변화에 따라 문체를 바꾸면서 대상의 참모습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예를 들어 <文賦>가 창작의 문체를 논하다보면 영감의 문제, 상상력의 문제도 언급해야 하는데 논리적 진술로는 이 문제들의 복잡하고 모호한 특성을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육기는 부체의 묘사성, 비유성 등을 운용하여 이 문제들을 설명한 것이다. 문체의 속성을 변별하되 창조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육기의 문체론이 풍부한 창작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창작자의 시각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4. 나오는 말

청대 章學誠은 육기와 유희의 이론적 체계에 대한 계승관계를 명확하게 거론했다.

32) 雖區分之在茲, 亦禁邪而制放. 要辭達而理舉, 故無取乎冗長.(<文賦>)

33) 其爲物也多姿, 其爲體也屢遷.(<文賦>)

옛 사람들이 문장을 논한 것은 오직 글에 대해 논했을 뿐인데 유협이 출현하여 육기의 학설을 바탕으로 文心을 더욱 크게 논했다.³⁴⁾

장학성은 이 글에서 文心, 文氣, 文德을 함께 거론하면서 文心은 육기에서 유협, 文氣는 한유에서 소식으로 이어지는데 文德은 논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文心の 의미에 대해 유협은 “문심은 글을 쓸 때의 마음씀을 말한다.(夫文心者, 言爲文之用心也.)”고 한 바 있다.³⁵⁾ 즉 사유, 형상화, 집필 등 창작과정에서 작가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육기도 <文賦>의 서문에서 “나는 항상 옛 사람들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남몰래 그들의 생각을 느낄 수 있었다.(余每觀才士之所作, 竊有以得其用心.)”고 말하며 창작에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논하겠다고 했다. 장학성이 말한 文心이라는 용어가 육기와 유협의 이론적 체계의 공통점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영감과 상상의 문제는 창작의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론적 계승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상상과 관련된 이론을 상상의 속성, 상상력 발휘의 조건과 관건, 상상력과 언어표현의 관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유협이 <文賦>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음을 볼 수 있다. 창작의 경로를 思→意→言로 인식한 점도 그러하다. 그 중 상상력 발휘의 조건을 허정(虛靜), 학문(積學), 이치(酌理), 독서와 연구(研閱), 정취(馴致)로 세분화한 점이나 상상력의 관건을 통솔하는 요소로 志氣를 제시한 점 등은 육기의 이론을 더욱 발전 시킨 부분이다. 두 사람의 이론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본 논문은 육기가 창작자의 시각으로 문학의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육기는 창작의 고통을 깊이 체험하고 <文賦>에서 상세하게 묘사했다. 유협은 상상의 근본원리에 대해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했지만 육기는 불가지의 영역으로 인식했다. 오히려 상상이

34) 古人論文, 惟論文辭而已矣. 劉勰氏出, 本陸機說而昌論文心. (《文史通義·文德》)

35) 《文心雕龍·序志》

막혔을 때의 고통에 대해 묘사했다. 이런 특징은 문체론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유희가 뚜렷한 기준을 설정하여 문체를 구분하고 각 문체의 특징을 상세하게 서술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육기는 문체운용에서의 임기응변과 창조성을 강조했다. 역시 창작자의 입장이 투영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두 사람의 이론이 문학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張少康集釋, 《文賦集釋》(上海古籍出版社, 1984)
蕭統編, 李善呂延濟劉良張銑呂向李周翰注, 《六臣注文選》(浙江古籍出版社, 1999)
范文瀾, 《文心雕龍註》, 人民文學出版社, 2001)
張少康、劉三富著, 《中國文學理論批評發展史》, 北京大學出版社, 1995)
王運熙、楊明著, 《中國文學批評通史-魏晉南北朝卷》, 上海古籍出版社, 1996)
羅宗強著, 《魏晉南北朝文學思想史》, 中華書局, 1996)
錢志熙, <論《文賦》體制方法之創新及其歷史成因>, 《求索》(1996.1)
趙寅, <《文賦》和《文心雕龍·神思》的主旨傳承關係>, 《貴州社會科學》(2002.4)
袁濟喜, <六朝文體論的人文蘊涵>, 《江海學刊》(2004.5)
李華斌, <論《典論論文》到《文賦》的美學嬗變>, 《黃岡師範學院學報》(2003.4)
王齊洲, <文筆之分與六朝文學觀念>, 《南京師範大學文學院學報》(2002.2)

[中文摘要]

靈感、想像的問題不僅是創作最核心的一部分, 也是中國古代傑出的理

論著作《文賦》與《文心雕龍》的重要內容。同時是它們理論傳承關係上的重點之一。本論文將它們的想像論分爲想像的特點、想像力發揮的條件及關鍵、想像與語言表現的關係而進行論述，從中可見劉勰基於《文賦》的內容展開自己的理論。他對創作過程的看法也是如此。但他不止於此，進一步認爲想像力發揮的條件有虛靜、積學、酌理、研閱、馴致，並將志氣提爲統率想像力發揮的關鍵的因素。這是劉勰的理論比陸機更發展的一面。本論文又注意到陸機從創作者的視角接近文學的問題這一點。此特點在他的文體論的展開方式上表現得更爲明確。他認爲文學創作在很多方面屬於不可知的領域，在文體運用上也需要隨機應變及創造性。這種觀點明確反映着陸機從創作者的視角接近文學理論。

關鍵詞：《文賦》，《文心雕龍》，想象論，文體論

투고일: 2008. 10. 31.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洙泗考信錄》과 孔子 事蹟 考證*

李在夏**

〈목 차〉

1. 緒言
2. 崔述과 《洙泗考信錄》
3. 《洙泗考信錄》의 體例와 功績
 - 1) 《洙泗考信錄》의 體例
 - 2) 典籍의 信賴度
 - 3) 孔子의 纂輯
 - 4) 《論語》의 編定
4. 《洙泗考信錄》의 限界
5. 結語

1. 緒言

중국 역사상 孔子처럼 歪曲이 일반화된 인물도 드물다. 때로는 존경심이 지나쳐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衡學的인 악취미에 빠져 왜곡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 억지를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모두의 주장은 萬世師表로 일컬어지는 공자 事蹟에 대한 심각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중국 고대사에 대한 捏造로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慶星大學校 文科大學 中語中文學科 教授(12228@ks.ac.kr)

곧장 이어지게 된다. 공자 이후 술한 사상가와 학자들, 곧 諸子百家와 司馬遷은 물론이고 孟子나 朱子마저도 이러한 죄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공자의 사적을 바로잡기 위해 힘 쓴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원스러운 성과를 일궈낸 적은 흔치 않았다. 그런 가운데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사람은 단연 청나라 崔述이다. 최술은 《洙泗考信錄》이라는 불후의 명저를 세상에 선보임으로써 공자에게 덧씌워진 갖가지 의혹을 씻어내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때문에 20세기에 들어와 新文化運動을 이끌었던 胡適은 최술과 그의 저술에 대해 ‘中國 新史學의出發點’이라거나 ‘科學的인 古史家’란 평가를 주저하지 않았으며,¹⁾ 新史學의 개척자였던 梁啟超는 ‘古代史 研究의 標準’²⁾이라거나 ‘가장 중요한 參考書’³⁾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顧頡剛이나 錢玄同이 주도한 古史辨派의 ‘疑古’와 ‘辨僞’의 기치는 바로 최술의 자극으로 탄생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골 선비에 불과했던 그의 이력만큼이나 그의 위대한 저술은 자칫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제 술한 우여곡절을 거쳐 세상에 다시 나타난 최술의 저술 가운데 《洙泗考信錄》과 《洙泗考信餘錄》의 역주 작업을 최근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고신록》과 공자 사적 고증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이기도 하다.

2. 崔述과 《洙泗考信錄》

- 1) 호적은 《科學的 古史家 崔述》이란 장편 최술연보를 작성했다. 《崔東壁遺書》(上海古籍出版社, 1983), 952~1015쪽 참조.
- 2) 《國學入門書目·考信錄》, 《崔東壁遺書》附錄 評論, 1085쪽. “此書考證三代史事實最謹嚴, 宜一瀏覽, 以爲治古史之標準”
- 3) 〈要籍解題及其讀法·史記讀法〉, 《崔東壁遺書》附錄 評論, 1084쪽. “崔述考信錄崔重要之參考書”

崔述은 자가 武承, 호는 東壁으로 무명의 시골 선비에 지나지 않았다. 최술은 乾隆 5년(1740) 7월 29일 大名府 魏縣에서 태어나 嘉慶 21년(1816) 2월 6일 일흔일곱을 일기로 죽었다. 그는 서른 살에 이미 《考信錄》을 假題로 삼아 僞書의 건강부회를 바로잡고 이단의 그릇된 妄言을 물리칠 생각을 품었으며, 죽을 때까지 이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최술은 평생에 걸쳐 34종 88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考信錄》은 그를 고증학의 대가로 자리매김한 대단한 책이다.⁴⁾

《고신록》은 중국의 先秦史를 고증한 역작으로 총 36권이며, 그 가운데 압권은 역시 공자의 사적을 변증한 《수사고신록》이다. 《수사고신록》은 30년 가까이 심혈을 기울인 책으로 최술의 학문적인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공자 사적 연구의 집대성이자 막대한 공헌을 한 명쾌한 저술이다. 최술은 수정과 수정을 거듭한 일흔한 살 때 드디어 《수사고신록》의 정본을 완성했는데, 그는 ‘定本自識’에서 이렇게 말한다.

애초에 나는 《수사고신록》을 이미 완성해 놓고도 아직 감히 자신할 수 없었다. 壬子(1792)년 가을에 원고를 지니고 북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石屏 출신의 陳履和를 만났으며, 그는 이것을 보고 베풀었다. 오래지 않아 진리화는 부친을 따라 江西로 갔으며, 나도 관리로 뽑혀 閩南의 羅源縣에 부임했다. 그런데 진리화가 마침내 이 책을 南昌에서 板刻한 뒤 나원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미 많은 부분을 덧붙이거나 고친 상태여서 처음 원고와 사뭇 달랐다. 내가 다시 河北

4) 최술은 《고신록》을 ‘前錄’ ‘正錄’ ‘後錄’으로 구분했다. 전록은 《考信錄提要》 2권과 《補上古考信錄》 2권이며, 정록은 《唐虞考信錄》 4권, 《夏考信錄》 2권, 《商考信錄》 2권, 《豐鎬考信錄》 8권, 《수사고신록》 4권이다. 후록은 《豐鎬考信別錄》 3권, 《수사고신여록》 3권, 《孟子事實錄》 2권, 《考古續說》 2권, 《考信附錄》 2권이다. 그 밖에도 최술은 이른바 ‘考信翼錄’으로 일컬어지는 《王政三代典考》 3권(《三代正朔通考》·《經傳禘祀通考》·《三代經界通考》)과 《讀風偶識》 4권, 《古文尙書辨僞》 2권, 《論語餘說》 1권, 《讀經餘論》 2권, 《五服同異彙考》 3권, 《易卦圖說》 1권, 《無聞集》 4권 등의 저술을 남겼다.

고향으로 돌아와 산간에 머물며 달리 할 일도 없었기에 또다시 빼거나 고치는 작업을 계속했다. 그리하여 이것을 《수사고신록》의 정본으로 삼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미처 판각할 수 없었다. 이에 나는 혹여 독자들이 서로 다른 판본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까 염려스러웠기 때문에 특별히 판각의 진말을 기록하여 이 책의 맨 앞에 덧붙인다.⁵⁾

아울러 최술은 《수사고신록》의宗旨를 이렇게 밝혔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의 시를 읊고 글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지은 사람의 인물됨을 몰라서는 되겠는가!” 그런데 배우는 자들은 날마다 공자의 책을 읽으면서도 공자의 사람됨을 모르며, 앞뒤의 행적을 살펴 그 참됨과 거짓됨을 변증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거짓된 학문이 경전을 어지럽히는데도 알지 못하며, 사악한 이야기로 성인을 무고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또한 성인의 도에 대한 가장 큰 아쉬움이 아니겠는가!……무릇 벼슬하고, 그만두고, 오래 머물고, 빨리 떠나는 것이 모두 공자의 행적에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공자의 발자취야말로 공자의 도가 담겨 있지 않은 적이 없음이니, 어찌하여 살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이러한 까닭에 맹자의 뜻을 바탕으로 공자의 평생에 걸친 사적을 두루 고찰하여 순서를 바로잡았으며, 여기에 변증을 덧붙였다. 그리하여 내 스스로 ‘현명하지 못한 자의 작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에 가름하고자 했다. 후세에 공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출현한다면, 나의 이러한 노력이 조금이나마 그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⁶⁾

5) 初，余爲洙泗考信錄既成，尙未敢以自信。壬子秋，偶攜至京師，遇石屏陳履和，見而鈔之。既而履和隨任江西，余亦選得閩之羅源，履和遂於南昌授梓，寄至羅源。然是時余已多所增易，與初本不同。既歸河北，山居無事，乃復益加刪改，錄爲定本。以貧，未及梓也。恐閱者以兩本互異致疑，故特誌其首尾，弁於簡端。（庚午二月，述自識）

6) 孟子曰：“頌其詩，讀其書，不知其人，可乎！”學者日讀孔子之書而不知其爲人，不能考其先後，辨其真僞，僞學亂經而不知，邪說誣聖而不覺，是亦聖道之一憾也！……夫仕，止，久，速，皆於其行事見之，然則孔子之事蹟未嘗非孔子之道之所在，胡可以不考也！余故本孟子之意，歷考孔子終身之事而次第釐正之，附之以辨，以自附於‘不賢識小’之義。後世有知孔子者出，庶幾有所采擇云爾。

이러한 최술의 정본자지와 중지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수사고신록》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어떠한 목표와 과정으로 이 책을 완성했고, 아울러 어떤 자세를 견지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최술의 저술은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던가. 여기엔 최술의 유일한 제자인 陳履和의 눈물겨운 사연이 서려 있다. 최술의 저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의무처럼 여겼던 진리화는 〈崔東壁先生行略〉에서 이렇게 말한다.

스승님께서서는 僞書를 변증하고 그릇된 이야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옛 帝王과 聖賢의 道를 밝히셨다.……이야말로 불후의 사업이며 천지간에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저술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스승님께서서는 늙도록 과거에 오르지 못하셨고, 벼슬자리도 신통치 않았다. 더구나 그 持論이 실로 科場에는 별로 필요치 않은 까닭으로 사람들은 믿으려 들지 않는다.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考證하고 辨論한 것마저도 오히려 험뜯기 일췌이다. 하지만 천하는 넓으며, 백 년이란 세월이 흐르다 보면 반드시 그 진실을 알게 되리라. 하늘 또한 틀림없이 이런 책을 그대로 두지만은 않으리니 영원토록 전해지게 되리라. 나는 오로지 이 책을 잘 간수했다가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 그만 아니겠는가!⁷⁾

이러한 신념으로 진리화는 최술 사후 8년인 道光 4년(1824)에 최술이 손수 정리한 34종 88권 가운데 19종 54권의 책을 판각했다.⁸⁾ 실로

7) 先生辨僞書，正謬說，以明古帝王聖賢之道者，……真不朽之業，天壤間不可少之書也！老未登第，官又不達，且其持論實不利於場屋科舉，以故人鮮信之；甚有摘其考證最確，辨論最明之事，而反用爲詆諆者。四海之大，百年之久，必有真知，天亦必默相此書，傳之無窮，履和唯其慎守遺編以待其人而已！

8) 진리화는 이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최술의 책을 판각한 적이 있다. 그는 嘉慶 2년(1797) 북경에서 베껴왔던 《수사고신록》 《보상고고신록》 《경전체사통고》 《삼정이동통고》 4종을 판각하여 400부를 찍은 것을 시작으로, 加慶 10년(1805)에는 《삼대경계통고》를, 加慶 13년에는 《당우고신록》을 南昌에서 판각했다. 그리고 최술이 죽은 이듬해인 1817년에 《삼대고신록》을, 2년 뒤에는 《수사고신록》을, 5년 뒤에는 《제요》 《보상고고신록》 《당우고신록》 《맹자사실록》을 각각 太谷과 北京에서 판각했다.

엄청난 책을 한꺼번에 판각했지만, 끝내 나머지 15종 34권은 미처 판각하지 못한 채 예순다섯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⁹⁾

19세기 중반 중국은 서구열강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阿片戰爭과 太平天國의 난을 겪은 중국은 1895년 淸日戰爭에 패했으며, 급기야 1900년 義和團 사건을 계기로 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와중에 가노 나오키(狩野直喜)¹⁰⁾라는 일본인이 북경 서점가에서 진리화가 東陽縣에서 찍은 遺經樓原版 《고신록》을 비롯한 최술의 책을 발견했으며, 그는 이 책을 일본의 軍國主義를 대표하는 역사학자인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에게 건네주었다. 나카 미치요는 《고신록》이야말로 중국고대사를 연구하는 지름길임을 확신하고 2년 가까이 句讀點을 찍었다. 그리고 〈考信錄解題〉를 明治 35년(1902) 日本史學會가 발간하는 《史學雜誌》 제13편 7호에 실었는데, 그 요지는 이러했다.

최술의 《고신록》은 예로부터 전해지는 수많은 사람의 異說과 曲解를 고증함으로써 옛 경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그 논의의 정세하고 명확함은 술한 중국 유학자들의 연구를 초월했다. 하지만 그 당시 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겨우 몇몇 사람들에게만 추앙을 받을 정도였으니, 國學의 획기적인 융성을 이룩한 일본과 비교한다면 청나라 학술계의 퇴폐가 이미 오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¹¹⁾

참으로 중국 학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나카 미치요의 말이다. 아무

9) 당시 진리화는 東陽縣 知縣이였으며, 상당한 재력이었던 그는 최술의 책을 판각한 나머지 장례비조차 남긴 게 없었다고 한다.

10) 가노 나오키는 당시 젊은 학생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淸國 유학을 명령받아 1900년 4월 중국에 머물고 있었다.

11) 《崔東壁遺書》, 1077쪽. “崔述之考信錄亦斥古來百家之異說曲解, 發揮古傳之眞面目. 其議論精確, 超絕支那古今之儒家者流. 但當時不廣傳於學者間, 僅得小數人之景仰, 以之比較日本國學之隆興, 可知淸代學界之頹弊已久矣!” (日本文學博士那珂通世傳의 일절로 北平師範大學 《史學叢刊》 2기에 轉載된 내용이며, 일본의 三宅米吉의 記述을 黃子獻이 中譯한 것임)

튼 그 다음해인 1903년 마침내 《崔東壁先生遺書》가 일본에서 출판되었으며, 나카 미치요는 출판 취지를 이렇게 밝혔다.

중국의 經傳을 비롯하여 사상서나 역사서 및 諸子百家의 책을 읽으려면, 모름지기 전적의 先後와 眞僞를 확실히 알아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일본 사람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최동벽선생유서》에 힘입어 그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책이야말로 일본의 동양사학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책이다.¹²⁾

최술 사후 105년인 중화민국 10년, 곧 1921년에 이 책은 중국으로 역수입되어 대단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¹³⁾ 고희강은 《崔東壁遺書》에 標點을 찍기 시작했으며, 신문화운동을 이끌던 호적은 1923년부터 〈科學的古史家崔述〉이라는 장편의 연보를 썼다. 그리하여 15년 뒤인 1936년 고희강 표점본 《최동벽유서》가 亞東書局에서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3. 《洙泗考信錄》의 體例와 功績

1) 《洙泗考信錄》의 體例

12) 前掲書 같은 쪽. “讀支那之經傳子史百家, 須鑑定其新舊, 甄別其眞僞; 然難以望諸日本國人. 今幸賴此書, 可省其勞, 故此爲日本東洋史學家不可缺之良書也.”

13) 당시 중국은 5·4운동의 열풍이 한창이었다. 5·4운동은 일종의 신문화운동이었으며, 半封建·反帝國主義 운동이었다. 그들이 내세운 기치는 ‘德先生’과 ‘賽先生’, 곧 Democracy와 Science였으며 ‘打倒孔家店’이었다. ‘孔家店’이란 ‘孔子的 가게’를 뜻한다. 따라서 공자의 그늘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儒敎의 사슬을 끊자는 輕蔑의인 용어였다. 그러한 운동의 중심에는 북경대학의 교수였던 陳獨秀와 호적이 있었으며, 전현동과 고희강 등이 전위부대가 되었다. 특히 최술의 고증에 감명을 받은 듯 전현동과 고희강은 ‘疑古’와 ‘辨僞’를 부르짖으며 古史辨派를 이끌었고, 그 가운데 전현동은 공공연히 자신의 성을 ‘의고’로 바꿔 ‘擬古玄同’이라 불렀을 정도였다.

최술은 4권으로 이루어진 《수사고신록》을 12부분, 곧 〈공자의 조상과 출생 및 어린 시절(原始)〉, 〈처음으로 관직을 맡다(初仕)〉, 〈제나라에 머물다(在齊)〉, 〈제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다(自齊反魯)〉, 〈노나라의 사구가 되다(爲魯司寇)〉, 〈위나라에 가다(適衛)〉, 〈송나라를 지나가다(過宋)〉,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다(厄於陳蔡之間)〉, 〈위나라로 되돌아가다(反衛)〉, 〈노나라로 돌아오다(歸魯)〉, 〈고종(考終)〉, 〈사후의 모습(遺型)〉 등으로 나누어 고증을 전개했다.¹⁴⁾ 그리고 적재적소에 총 156개의 변증을 달았는데, 이는 공자 사적에 대한 크고 작은 논문인 셈이다. 이러한 변증이야말로 《수사고신록》의 핵심이며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술은 복합적으로 자료를 배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典籍의 信賴度나 信憑性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따라서 최술은 공자 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것 이외에는 결코 原文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문은 총 49개로 《春秋》 1개, 《春秋左傳》 18개, 《春秋穀梁傳》 1개, 《春秋公羊傳》 2개와 《論語》 18개, 《孟子》 9개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이토록 신중하고 엄격한 자세를 견지한 최술은 원문 이외에 수많은 전적을 ‘備覽’ ‘存疑’ ‘附錄’ ‘附論’ ‘備考’ ‘補’ ‘存參’ ‘附通論’ 등 8개 부분으로 나누었다. 그 가운데 ‘비람’은 총 8개로 《國語·魯語》 1개, 《史記·孔子世家》 6개, 《禮記·雜記》 1개인데,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미심쩍은 구석이 있는 내용이다.¹⁵⁾ ‘존의’는 총 11개로 《論語》 7개, 《左傳》 2개, 《公羊傳》 1개, 《孟子》 1개인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억측이 개재되어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내용이다.¹⁶⁾

14) 이 가운데 〈노나라의 사구가 되다〉와 〈노나라로 돌아오다〉는 上下 편으로 나누어 기술했다.

15) 예컨대 최술은 《國語·魯語》의 正考父가 周나라 太師와 〈商頌〉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내용을 ‘비람’에 싣고 이렇게 말한다. “國語皆後人所撰，往往失實；此雖無害於理，然難竟信，故別之以備覽。後凡稱‘備覽’者並做此。”

‘부록’은 총 42개로 《論語》 33개, 《春秋》 1개, 《左傳》 5개, 《孟子》 3개인데, 신빙성은 있지만 연대가 확실치 않은 내용이다.¹⁷⁾ ‘부론’은 《맹자》의 내용 9개뿐인데, 공자의 사적인 것은 확실하지만 연대가 분명치 않거나 덧붙일 논의가 있을 때 사용했다. ‘비고’는 논증을 이끌어가기 위해 인용한 자료로, 최술은 《춘추》와 《논어》의 編定을 논의하기에 앞서 《漢書·藝文志》를 두 차례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보’는 논증을 위한 보충 자료로, 공자의 아들 伯魚의 죽음에 대한 《사기·공자세가》의 기록 한 번뿐이다. ‘존참’은 일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만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엮여 있는 자료로, 최술은 《禮記·檀弓篇》의 공자 사후 喪服을 논의하는 과정에 한 번 사용했다.¹⁸⁾ ‘부통론’은 공자의 사적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측면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논어》의 내용 15개와 《맹자》의 내용 3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최술의 배려는 자칫 백과전서식 고증으로 인해 지리멸렬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유기적인 體例야말로 당시 어느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었던 독특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다.¹⁹⁾

16) 최술은 宋나라 殤公보다 孔父嘉가 먼저 죽었다는 《공양전》과 《좌전》의 내용을 ‘존의’에 싣고 이렇게 말한다. “公羊傳左氏因爲原夫孔父所以先死之故，正色立朝，其論甚美；卽督之宣言，亦近人情。然竊意其皆出於臆度，恐不足爲據也。故附次於經以俟考焉。”

17) 최술은 공자가 太廟에 들어가 제사를 도운 《논어》의 내용을 원문으로 싣고, 뒤이어 ‘부록’으로 齊나라 景公이 虞人을 旌으로 부른 《맹자》의 내용과 子産이 죽었을 때 공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좌전》의 기록을 싣은 뒤 이렇게 말한다. “此二事皆在昭公二十年；但入廟助祭之年未有明據，則此未知在其前與，抑在其後與。姑附次於此。”

18) 此篇(檀弓篇)後文又云：“孔子之喪，二三子皆經而出。羣居則經；出則否。”按既云“經而出”，又云“出則否”，語殊難解。註以爲“朋友相爲服”，然與上文意不相貫，疑有缺誤。故不錄。大抵檀弓之文紕繆者多，間有當采錄者，亦僅列之存參，志慎也。

19) 최술은 이러한 방법을 《고신록》을 비롯한 그의 저술 전반에 걸쳐서 동원하고 있으며, 기존의 集註·集解·本義·通說·注疏·補注·疏證·正義·按 등의 방법에 비해 한 차원 발전한 변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典籍의 信賴度

‘考信’은 말 그대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다는 의미이다. 최술은 이를 위해 전적의 신뢰도를 무엇보다 중시했다. 때문에 앞쪽에서처럼 원문이나 비람 및 비고에 열거한 책은 겨우 10종에 불과하다.²⁰⁾ 그 밖의 수많은 전적은 변증을 위한 보충자료로 활용했는데, 곧 《孔子家語》·《韓詩外傳》·《荀子》·《周易》·《詩經》·《道德經》·《莊子》·《列子》·《韓非子》·《晏子》·《墨子》·《新序》·《法言》·《孔叢子》·《說苑》·《七略》·《孔庭纂要》·《孝經》·《關里志》·《論語集註》·《史記索隱》·《漢書》·《隋書》·《論衡》·《竹書紀年》·《山海經》·《淮南子》·《孔子集語》·《論語外篇》·《偽古文尚書》 등이 그것들이다.²¹⁾

최술은 이러한 전적들에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변증을 가했다. 그렇다고 이들 전적의 내용을 모두 변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럴 필요까지도 없었다. 최술은 이렇게 말한다.

《사기·공자세가》나 《공자가어》의 내용은 《장자》나 《열자》에서 따온 것이 태반이다. 그런 이야기가 《장자》나 《열자》에 들어 있을 때에는 그나마 한두 사람이라도 이단으로 여겨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공자세가》나 《공자가어》에 들어 있으면, 비록 이름난 학자라도 믿어버리고 만다. 아, 슬프도다. 겉으로는 그들을 이단이라 물리치지만 속내로는 그들의 허튼소리를 따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결코 적지 않음이여!²²⁾

20) 이러한 10종도 때로는 ‘비람’ ‘준의’ ‘준참’에 넣어 의심의 눈초리를 풀지 않았다.

21) 이밖에도 劉向의 《烈女傳》，鄭玄의 《詩譜》，何晏의 《論語集解》，杜預의 《春秋左氏經傳集解》，胡安國의 《春秋傳》，陳澧의 《禮記集說》 및 《孔子集語》와 《論語外篇》까지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에서 최술은 공자의 사적을 왜곡시키는데 가장 영향을 미친 책으로 《사기·공자세가》와 《공자가어》를 지목했으며, 이러한 책을 중심으로 고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최술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기·공자세가》가 모순투성이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마천은 공자의 탄생을 魯襄公 21년으로 기록한 《춘추공양전》이나 《춘추곡량전》과는 달리 22년에 공자가 태어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술은 사마천의 공자와 연관된 연도가 자체적으로 모순인 점을 들어 이를 부정했다.²³⁾ 또 〈공자세가〉에서는 鄭나라 사람의 말을 빌려 공자의 모습을 “이마는 堯임금, 목은 皐陶, 어깨는 子産과 비슷했으며, 허리 아래쪽은 禹王보다 세 치가 작았다”²⁴⁾고 했는데, 최술은 이야말로 천박하고 비루한 말로 매도하며 이렇게 말한다.

무릇 성인 공자의 모습이 요임금·순임금·우왕·탕왕과 엇비슷하다 하여 부질없이 덧칠하는 것조차도 誣告를 벗어날 수 없거늘, 하물며 소나 호랑이를 닮았다고 하니 성인을 모욕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한다는 소리가 너무나 사리에 맞지 않아 점잖은 사람들로써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바이거늘, 후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影幀이나 塑像을 만들곤 한다. 너무하구나, 허망한 사람들의 속임수를 곧잘 받아들임이!²⁵⁾

22) 世家家語之文采之莊列者半，當其在莊列也，猶見有一二人以爲異端而不信者；及其在世家家語也，則雖名儒亦信之矣。嗚乎，陽闢其名而陰襲其說而不之覺者蓋不乏人矣！（3권 〈厄於陳蔡之間〉 부분의 ‘陳蔡之圍爲莊子寓言’）

23) 《춘추》의 기록에 따르면 郕邑과 費邑의 성벽을 허문 것은 정공 12년인데 〈공자세가〉에서는 13년이라고 했으며, 《사기·魯世家》나 〈年表〉에서는 공자가 노나라를 떠난 시기를 모두 정공 12년이라고 했는데 〈공자세가〉에서는 14년이라고 했다.

24) 《韓詩外傳》과 《孔叢子》 및 《孝經僞鈎命訣》에도 엇비슷한 허황된 내용이 실려 있다.

25) 夫擬聖人之形於堯舜禹湯，妄加之，猶不免於誣；況擬之於牛虎，其侮聖人也孰甚焉！其爲說尤不經，薦紳之所難言，而後之人乃本之以爲影，據之以作像，甚矣其樂受人欺也！（1권 〈原始〉 부분의 ‘辨孔子形相之異’）

《사기·공자세가》에서는 “공자의 나이 17세 때 孟僖子가 죽었으며, 孟懿子和 南宮敬叔이 공자에게 禮를 배웠다”고 했다. 하지만 최술은 사마천이 《춘추좌전》 昭公 7년의 기록 때문에 오해한 것이며, 당시 맹의자와 남궁경숙은 태어나지도 않았음을 밝혔다.²⁶⁾ 또한 《사기·공자세가》는 《국어》에서의 季桓子가 우물을 파다가 양이 나왔으며, 이에 대한 공자의 長廣舌을 그대로 옮겨 적은 뒤 定公 5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였다. 이에 최술은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았던 공자의 평소 모습과 어울리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변증했다.

이밖에도 최술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구 실은 《사기·공자세가》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예컨대 공자가 周나라에 가서 老子를 만났다는 이야기, 노나라의 정사를 어지럽힌 大夫 少正卯를 죽였다는 이야기, 公叔戍의 난으로 蒲 고을 사람들과 맹약했다는 이야기, 趙鞅을 만나려 했다는 이야기, 衛靈公 때 네 번 위나라를 떠나갔다는 이야기, 陽虎와 다투었으며 거문고를 타자 무장을 풀었다는 이야기 등등에 대해 철저히 변증하여 그 허구성을 명쾌하게 밝혔다.

최술은 공자 사적에 왜곡의 빌미를 제공한 장본인이 사마천이라면, 《공자가어》야말로 온갖 잡설을 동원하여 공자를 왜곡한 결정적인 책으로 지목했다.

《공자가어》는 후세 사람들이 거짓으로 엮은 책이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다른 책의 이야기를 따다가 덧붙이거나 줄였으며, 또 고치거나 바꾸어 엮은 책이다. 예컨대 〈相魯篇〉은 《춘추좌전》과 《사기》에서 따왔으며, 〈辨物篇〉은 《춘추좌전》과 《국어》에서 따온 것이다. 〈哀公問政〉과 〈儒行〉 편은 〈曲禮〉에서 따왔으며, 〈子貢問篇〉·〈子夏問篇〉·〈公西赤問篇〉 등은 《예기》와 《춘추좌전》에서 따온 것이다. 심지어 《莊子》와 《列子》 및 《說苑》이나

26) 실제로 맹희자는 소공 24년에 죽었으며, 맹의자와 남궁경숙은 소공 12년에 태어났다.

讖緯書 등에서조차도 따오지 않은 것을 정도이다. 그런데 원래의 책과 《공자가어》를 견주어보면, 더하거나 빼고 바꾼 부분의 文辭가 언제나 冗弱하고 천박하여 원래 책보다도 훨씬 못하며, 심지어는 본래의 취지를 잃기 일쑤이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剽竊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잘 살피지 않고 孔氏가문에 전해지는 기록이라 여겼으니, 이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²⁷⁾

《공자가어》에 대한 최술의 지적은 확고하며, 이러한 최술의 말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공자가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려 들지 않는다. 그것은 왜일까. 어쩌면 《공자가어》만큼 공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漢書·藝文志》의 “《孔子家語》 27권”이라는 기록을 믿음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²⁸⁾ 그러나 최술은 《공자가어》야말로 三國時代 魏나라의 王肅이나 그의 문도들이 엮은 것임을 확신하고 이렇게 말한다.

《한서·예문지》에서는 “《공자가어》 27권”이라고 했지만, 顏師古는

27) 家語一書本後人所僞撰，其文皆采之於他書而增損改易以飾之：如相魯篇采之於春秋傳史記，辨物篇采之於春秋傳國語，哀公問政儒行兩篇采之於戴記曲禮，子貢子夏公西赤問等篇采之於戴記春秋傳；以至莊列說苑讖緯之書無不采，未有一篇無所本者。然取所采之書與家語比而觀之，則其所增損改易者文必冗弱，辭必淺陋，遠不如其本書，甚或失其本來之旨，其爲勦襲顯而可按。而世不察，以爲孔氏遺書，亦已感矣！（1권 〈原始〉 부분의 ‘家語世次不可信’）

28) 최근에 발간된 신동준의 《공자와 그의 제자들》(2권)은 중국의 공자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물론 우리나라 丁若鏞의 《論語古今註》 및 일본의 이토 진사이(伊藤仁齋)의 《論語古義》，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論語徵》，기무라 에이이치(木村英一)의 《공자와 논어》，시라카와 시즈카(白川靜)의 《공자전》 뿐만 아니라 미국 크릴(H. G. Creel)의 《공자, 인간과 신화》란 책까지 섭렵하여 엮은 보기 드문 역작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자가어》를 여전히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신동준 저 《공자와 그의 제자들 2, 제자백가 사상을 논하다》(서울: 한길사, 2007), 345쪽 참조.

“지금 전해지는 《공자가어》가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씨 가문의 선조로부터 전해지는 책은 이미 사라졌으며, 오늘날의 《공자가어》는 후세 사람들이 엮은 것임을 확연히 알 수 있으리라. 더구나 《공자가어》가 漢나라 때 이미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 《七略》에 열거되었다면, 鄭玄처럼 박학다식한 사람이 어찌 그것을 보지 못한 채로, 王肅이 《공자가어》에 근거해 자신을 공박하도록 마냥 기다렸겠는가! 이야말로 분명 정현의 학문을 헐뜯으려는 사람이 《공자가어》를 거짓으로 엮어 자신의 증거로 삼으려 했음이다.²⁹⁾

최술은 이처럼 《공자가어》의 꾸며진 이야기를 철저히 부정했다. 따라서 《공자가어》에 등장하는 공자와 공자 부모에 관한 이야기 및 공자와 남궁경숙이 周나라에 갔으며, 老子에게 예를 물었다는 이야기 등에 대해서 날낱이 변증하고 있는데, 조금도 빈틈이 없다. 아울러 최술은 《공자가어》에 대해 이렇게 결론지었다.

《공자가어》란 책은 본래 魏晉시대 사람이 제자백가서와 역사서 가운데에서 공자에 관한 기록을 마구잡이로 끌어 모아 한껏 부풀려서 영성하게 엮은 책이다. 그 당시는 노자나 장자를 숭상하던 때였으므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며, 노담을 빌어 공자를 높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식견도 司馬遷을 도저히 따를 수 없었으며, 글 또한 천박하고 비루하여 애초에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송나라 이후로 유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거의 믿어 의심치 않음으로써, 성인의 실상이 지워질 지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³⁰⁾

29) 漢書藝文志云：“孔子家語二十七卷。”師古曰：“非今所有家語。”則是孔氏先世之書已亡，而此書出於後人所撰，顯然可見。且家語在漢已顯於世，列於七略，以康成之博學，豈容不見，而待肅之據之以駁已耶！此必毀鄭氏之學者僞撰此書以爲己證。（1권 〈原始〉 부분의 ‘家語世次不可信’）

30) 家語一書，本魏晉間人，雜取子史中孔子之事，綴輯增益以成書者。其時方崇老莊，故其爲言如此，若借老聃以爲孔子重者。其識又遠出司馬遷下，而文亦淺陋鄙弱，本不足較。然自宋以來，儒者多信之不疑，以致沒聖人之實。（1권 〈初仕〉 부분의 ‘家語載問禮事尤謬’）

이밖에도 《공자가어》는 先秦 문헌이나 《사기》를 비롯하여 한나라 때 유행한 각종 책을 빌미로 건강부회함으로써 공자를 왜곡시키는데 여념이 없었다. 예컨대 주나라 太廟의 청동 인물상에 관한 이야기, 季平子の 玉殮을 말린 이야기, 아비와 아들을 한 獄舍에 넣었다는 이야기, 宋나라 임금을 만나 문답했다는 이야기, 황하강 다리에서 폭포 속을 헤엄치는 자와 문답했다는 이야기, 齊나라 임금이 商羊에 대해 물었다는 이야기, 楚나라 왕이 萍實에 대해 물었다는 이야기 등등인데, 최술은 이에 대해 그 허구성을 철저히 변증했다.

뿐만 아니라 최술은 《공자가어》를 본 딴 亞流의 등장에 대해서도 통탄해 마지않았다. 곧 당나라 應韶의 《孔庭纂要》, 송나라 薛據의 《孔子集語》, 명나라 陳鎬의 《闕里志》와 潘士達의 《論語外篇》 등이 《공자가어》의 아류에 속한다.

3) 孔子의 纂輯

先秦 문헌들 가운데 공자의 손을 거친 것이 많다고 유학자들은 줄곧 주장했으며, 때로는 그런 주장이 통설처럼 간주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술의 명쾌한 변증으로 이러한 주장은 하나하나 허울을 벗을 수 있었다. 이야말로 최술의 뛰어난 공적 가운데 하나이다. 《사기·공자세가》에서 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시 삼천여 편이 있었다. 그러나 공자에 이르러 중복된 것을 삭제하고 예의에 적합한 것만 취했다. 위로는 契과 后稷의 시를 모으고, 그 다음으로 殷나라와 周나라의 태평성대는 물론 幽王과 厲王의 혼란기에 이르기까지의 시를 서술하여 305편으로 만들었다.³¹⁾

이른바 공자의 刪詩說인데, 이에 대해 鄭玄과 그의 문도 및 당나라

31) 古者詩三千餘篇; 及至孔子, 去其重, 取可施於禮義, 上采契后稷, 中述殷周之盛, 至幽厲之缺, 三百五篇.

孔穎達은 사마천 주장이 틀렸다고 했으며, 송나라 歐陽修와 邵雍은 사마천의 주장이 옳다고 했다. 이처럼 논란거리였던 산시설에 대해 최술은 전면 부정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했다.

《國風》의 〈二南〉과 〈豳〉을 제외하면 대부분 쇠락한 시대의 음악이다. 〈小雅〉도 宣王과 幽王시대에 지어진 것이 태반이며, 夷王 이전은 몇 편에 지나지 않는다. 군왕마다 시가 있었다면 공자는 태평성대의 것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쇠락한 시대의 것만 남겨두지 않았으리라. 공자는 또 어찌하여 은나라 노래는 거의 刪去했다 말인가? 공자는 줄곧 ‘詩三百’이라고 말했으며, 吳나라 季札이 노나라에 왔을 때 연주된 노래도 모두 지금 전해지는 것뿐이다. 뿐만 아니라 〈鄭風〉이나 〈衛風〉은 음란한 시들이는데도 공자는 삭제하지 않았으며, 逸詩들 가운데 뛰어난 것도 많다. 더욱이 《논어》·《맹자》·《춘추좌전》·《예기》 등에 인용된 시 가운데 없어진 것은 열에 하나도 안 된다. 공자는 시의 순서를 바로잡아 문인들을 가르쳤을 뿐 삭제한 적은 없다.

또한 《僞孔傳·書序》와 《書緯》에서는 공자가 옛 기록을 정리하여 《尚書》를 엮었다고 하였으며, 이 말을 믿는 사람 또한 많았다. 그러나 최술은 이를 전면 부인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좌전》에서의 기록처럼 공자는 鄭子에게 예를 묻기도 했다. 그런 공자가 옛 기록을 보았다면 얼마나 소중한 여겼겠는가. 옛날에는 竹簡이나 木牘에 글자를 썼다. 그것은 만들기도 어려웠고 전하기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공자가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이었다면, 공자는 끝내 그것을 취하여 꼼꼼히 살펴보고 가다듬어 문인들에게 전해주었을 뿐이지 마구 버리지는 않았으리라.

사마천이 《사기·공자세가》에서 《周易》의 〈傳〉을 공자가 지었다고 말한 이후로, 班固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줄곧 그렇게 믿어왔다. 그러나 최술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곧 〈전〉의 문체가 《춘추》와 《논어》의 중간쯤은 되어야만 할 터인데 번잡하고 꾸밈이 많아 《좌전》이나 《예기》와 매우 흡사하며, 〈繫辭傳〉과 〈文言傳〉에서는 ‘子曰’을 종잡을 수 없이 사용했는데 공자가 그러했을 리 없다. 뿐만

아니라 맹자는 《춘추》에 대해 누누이 언급했지만, 《역》의 〈전〉을 지었다는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다. 汲冢에서 발견된 《주역》 상하편에도 공자가 지었다는 〈전〉은 보이지 않으며, 《竹書紀年》에도 언급한 바 없다.

이밖에도 공자가 《孝經》을 지었다는 말도 있다. 이는 東漢시대 何休의 〈春秋公羊傳解詁序〉에서의 언급 때문일 터인데,³²⁾ 최술은 이를 전면 부정했다. 곧 《효경》 18편 가운데에는 공자와 증자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지만, 문인을 ‘曾子’라 호칭하고 있다. ‘經’이란 후세에 성인의 책을 높여 부르는 말이며, 겸손한 공자는 자신의 말을 기록한 책을 결코 ‘경’이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효도란 비록 성인에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만, 성인의 마음이란 반드시 스스로 효성을 다한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성인 공자가 곧장 “나의 행동은 《효경》에 들어 있다”고 말했겠는가!

4) 《論語》의 編定

최술은 《사기·공자세가》와 《공자가어》에 대한 철저한 변증으로 공자의 사적을 상당부분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자에 대한 가장 완벽한 기록으로 알려진 《논어》가 문제였다. 《논어》에는 분명 佛盼이나 公山弗擾의 부름에 공자가 응하려 했다는 장이 들어 있으며, 이를 변증하기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최술은 《논어》의 편정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최술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다면 《논어》에도 오류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오늘날의 《논어》는 공자 문인들의 《논어》 原本이 아니며, 한나라 초기의 《魯論語》 舊本도 아니다.³³⁾

32) 하휴는 〈春秋公羊傳解詁序〉에서 “吾志在春秋, 行在孝經”라는 공자의 말을 실고 있다.

이는 최술이 《한서·예문지》와 何晏의 〈論語集解序〉 및 《한서·張禹傳》을 근거로 한 말이다.³⁴⁾ 이를 바탕으로 최술은 여러 판본에 똑같이 들어 있는 것은 틀림없이 당시의 것이겠지만,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 없는 것은 경전을 전수하는 사람이 다른 책에 들어 있는 것을 끼워 넣은 것으로 여겼다. 때문에 〈季氏篇〉 뒤쪽의 여러 편들은 문체가 앞쪽 15편과 같지 않으며, 그 가운데에는 때로 ‘孔子’라 일컫기도 하고 때로 ‘仲尼’라 일컬어 호칭 또한 유별나다. 뿐만 아니라 매 편 끝자락의 한두 장이 편 속의 어투와 맞지 않는 것들도 더러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최술은 《논어》의 여러 판본이 후대로 전해지지 아니함을 통탄하며, 그 원인을 張禹란 인물의 등장에서 찾았다.

《논어》의 여러 판본들이 모두 남아 있었다면, 후세 사람들은 그나마 그 시비와 득실을 고찰할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불행히도 장우란 한 인간을 만나고 말았다. 장우는 《제논어》와 《노논어》 등 여러 판본을 뚫고그려 제멋대로 취사선택한 뒤 하나로 묶어버렸다. 그런데도 당시 《논어》를 배우는 자들은 그의 벼슬과 위세가 높았던 까닭으로 마침내 별다른 생각 없이 휩쓸려 따르고 말았으며, 여러 판본들은 연이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³⁵⁾

최술이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한서·장우전》과 《수서·경적지》에 들어 있다.³⁶⁾ 이를 근거로 최술은 오늘날의 《논어》

33) 曰：然則論語亦有誤乎？曰：有。今之論語非孔門論語之原本，亦非漢初魯論之舊本也。(2권 〈爲魯司寇·下〉 부분의 ‘論語之誤’)

34) 《한서·예문지》에서는 “論語，古二十一篇，出孔子壁中；齊二十二篇，多問王知道；魯二十篇”이라고 했으며, 하안은 〈논어집해서〉에서 “齊論語二十二篇，其二十篇中章句頗多於魯論”이라고 했고, 《한서·장우전》에서는 “始魯扶卿及夏侯勝王陽蕭望之韋元成皆說論語，篇第或異”라고 했다.

35) 然使諸本并存，後人猶可考其是非得失。不幸遇一張禹，彙合齊魯諸本而去取之，定爲一書。當時學者以其官尊宦達，遂靡然而從之，以致諸本陸續皆亡。(2권 〈爲魯司寇·下〉 부분의 ‘論語之誤’)

는 장우가 새로 엮은 것이며, 篇目은 비록 《논어》를 따랐다지만 실제로는 《제논어》의 장구가 뒤섞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통탄했다.

아 슬프도다! 장우가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王莽의 비위나 맞추며 자신의 부귀만 보전하기에 급급했던 인간이다. 漢나라 종묘사직의 존망마저 돌보지 않은 사람이거늘, 하물며 성인의 말씀을 만에 하나 제대로 해야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끝내는 공공연히 《논어》 뭉뚱그려 엮어버리고 말았으니,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은 취한 것도 아마 적지만은 않았으리라! 때문에 그 취치가 때론 성인 공자에 어긋나기도 하고, 자취가 때론 경전과 어긋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公山不擾가 공자를 불렀다거나 佛髒에게 가려 했다는 장이야말로 大道를 해치고 성인을 무고한 것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것이 되고 말았다.³⁷⁾

최술의 지적처럼 장우는 뛰어난 경학으로 박사가 되어 元帝 때 태자에게 《논어》를 가르쳤고, 태자가 成帝로 즉위하자 재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그는 사치와 음악을 즐겼으며, 재물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다. 당시 外戚 王莽이 정치를 독단했으나, 그는 황제인 성제의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귀를 지키기 위해 왕망에게 협조를 아끼지 않은 亂臣賊子였던 것이다. 그런 인물이었기에 자신의 행위를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 개입되었으리란 최술의 지적이다. 따라서 최술은 이렇게 말한다.

무릇 전국시대 유세객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남들이 자신들을 나

36) 《한서·장우전》에서는 “禹先事王陽，後從庸生，采獲所安，最後出而尊貴。諸儒爲之語曰：‘欲爲論，念張文。’由是學者多從張氏，餘家寢微”라고 했고, 《수서·경적지》에서는 “張禹本授魯論，晚講齊論；後遂合而考之，刪其煩惑，除去問王知道二篇，從魯論二十篇爲定，號張侯論”이라고 했다.

37) 嗟夫，張禹何知！知媚王氏以保富貴耳。漢宗社之存亡不問也，況於聖人之言烏能測其萬一。乃竟公然輯而合之，其不當刪而刪，不當采而采者，蓋亦不少矣！是以其義或戾於聖人，其事或悖於經傳，而此章與佛髒章，尤害道誣聖人之大者。(2권 〈爲魯司寇·下〉 부분의 ‘論語之誤’)

무랄까 두려운 나머지, 성인 공자도 그런 적이 있다고 무고함으로써 자신을 변호하곤 했다. 그런데 경전을 전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 부령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 덧붙였으며, 장우 또한 그것을 잘못 끼워 넣고 만 것이다. 이로 미루어 말하건대 《맹자》의 〈外篇〉은 용케도 趙岐란 사람이 있어 삭제할 수 있었고, 《춘추》의 〈續經〉은 다행스럽게도 《공양전》과 《곡량전》이 모두 전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성인 공자의 글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오로지 《논어》만은 조기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도리어 장우 같은 한 인간을 만나 순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엉키게 되었으며, 그 옳고 그름마저 살필 수 없게 되고 말았다.³⁸⁾

최술의 이 말은 옳으며, 장우가 《논어》의 편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노논어》가 됐건 《제논어》가 됐건 그 본모습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의 《논어》를 무작정 믿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최술의 집요한 변증의 결과이다.

4. 《洙泗考信錄》의 限界

공자는 스스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안 사람이 아니다. 다만 옛것을 좋아하고 힘써 그것을 탐구했을 따름이다”라고 말했으며, 子貢은 공자를 일컬어 “문왕과 무왕의 도가 아직 모두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그 가운데 큰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자는 작은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 스승님께서서는

38) 蓋戰國之士，欲自便其私而恐人之譏己，故誣聖人嘗有其事以自解，傳經者不知其僞而誤增之，而禹又誤采之者也。由是言之，孟子之外篇，幸而有趙岐刪之；春秋之續經，幸而公羊穀梁兩家俱在，故人得知其非聖人之筆。惟論語一書，不遇如趙岐者，而反遇一張禹，以致純雜不均，無從考其同異。（2권 〈爲魯司寇·下〉 부분의 ‘論語之誤’）

어디에서인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程子は 공자의 가장 간결한 自敍傳이라 할 수 있는 ‘志學章’을 풀이하여 “공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안 사람이다. 하지만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훗날 배우는 사람들에게 힘쓰도록 북돋우기 위해서이다”³⁹⁾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술은 이렇게 말한다.

《논어》의 다른 장이라면 때로는 자신을 낮춰 남을 깨우치기 위한 말이라 할 만한 것도 있다. 하지만 ‘지학장’이라면 나이는 열다섯 살부터 일흔 살까지이며, 그 덕으로 나아가는 차례는 ‘志’·‘立’·‘不惑’에서 ‘不踰矩’에 이르기까지를 뚜렷하게 지적하고 있다. 만일 공자가 과연 배움에 바탕을 두지 않고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어찌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이러한 차례와 공력의 과정을 엮어 후세 사람들을 속이려 했겠는가!⁴⁰⁾

宰我是 공자를 “요임금이나 순임금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이라고 했고, 자공은 “인류가 살아온 이래 공자와 같은 분은 없다”고 했으며, 有若 또한 “공자보다 성대한 분은 아직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에 대한 推尊에 있어서만은 조금도 말을 아낀 적이 없지만, 어느 누구도 공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알았다고 언급한 적은 없다.

최술 또한 공자 자신과 그 제자들의 말을 근거로 공자를 결코 生而知之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곧 下學上達의 대표적인 인물로 간주한 것이며, 生而知之와 學而知之는 다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에 최술 자신의 상당한 모순이 게재되어 있다. 한사코 공자의 學而知之를 주

39) “孔子，生而知者也；言亦由學而至，所以勉進後人也。”朱子の 《論語集註》〈爲政篇〉의 ‘志學章’ 주 참조.

40) 論語他章或可指爲謙己誨人之語，至志學章，其年自十五至七十，其進德之序自‘志’·‘立’·‘不惑’以至於‘不踰矩’，歷歷可指；若孔子果不由學而至，安能憑空撰此次第功程以欺後人耶！（4권 〈遺型〉 부분의 ‘孔子非生知’）

장했던 최술도 때로는 공자를 지극한 聖人으로 간주한 나머지 지나친 주장을 펼 때도 종종 있다. 이는 《수사고신록》의 한계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최술은 공자의 조상으로 《좌전》에 보이는 弗父何·正考父·孔父嘉를 꼽고 있는데, 이 또한 《좌전》 昭公 7년의 孟僖子の 말을 근거한 것으로 확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이들을 공자의 조상으로 꼽은 것은 성인 공자의 家系와 來歷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일 뿐 명확한 고증의 자세는 아니다.

또한 《좌전》 소공 25년의 “襄公의 묘당에서 禘祭를 지내려고 했는데 萬舞의 춤꾼이 두 명밖에 없었다. 만무의 춤꾼들이 모두 계씨의 제사에 가버렸기 때문이다”⁴¹⁾라는 기록만으로 공자가 ‘어지러운 나라에 머물지 않겠다(亂邦不居)’는 생각을 품고 있었으며, 소공이 망명할 때를 기다리지도 않고 제나라로 갔을 수도 있다며 성인 공자의 明哲함을 거론한 대목은 무리이다.⁴²⁾ 뿐만 아니라 공자가 子路和 함께 季孫氏의 동의로 郈邑과 費邑의 성벽을 허물었던 시기는 정공 12년이며,⁴³⁾ 成邑의 성벽을 헐려다 公斂處父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도 같은 해 12월이다.⁴⁴⁾ 그런데 여기에서 최술은 후읍과 비읍의 성벽을 허문 것을 공자의 공으로 돌리면서도 성읍을 헐지 못한 것은 공자와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공자는 성읍을 포위하기 직전에 노나라를 떠났으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더구나 이기지 못할 줄도 모르고 선불리 포위했으며, 포위해도 함락시키지 못하자 끝내는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이러한 輕舉妄動과 有始

41) “將禘於襄公，萬者二人；其衆萬於季氏。”

42) 已有‘亂邦不居’之心，則孔子之去魯當即在此時，不待於昭公之已出也。此乃聖人見幾之哲。

43) 《공양전·定公 十二年》：“孔子行乎季孫，三月不違，曰：‘家不藏甲，邑無百雉之城。’於是帥師墮郈，帥師墮費。”

44) 《좌전·定公 十二年》：“將墮成，公斂處父謂孟孫：‘墮成，齊人必至於北門。且成，孟氏之保障也；無成，是無孟氏也。子僞不知，我將不墮。’冬十二月，公圍成，弗克。”

無終은 성인 공자의 처사가 아니라는 것쯤은 말할 나위도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⁴⁵⁾

이 또한 지나친 천착이 아닌가 싶다.

《논어·雍也篇》의 “공자가 南子를 만나고 나오자 자료가 언짢아했다”는 장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存疑’에 넣어 이를 변증한 것은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이 장이 성인 공자의 행적에 커다란 瑕疵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옹야편〉의 뒤쪽 세 장을 모두 의심하거나 공자가 남자를 만난 일 자체에 대한 해석의 필요마저 부정한 최술의 행태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⁴⁶⁾ 더욱이 《사기·공자세가》에서의 衛나라 靈公과 그의 부인 南子가 앞쪽 수레에 타고 공자를 뒤쪽 수레에 태운 뒤 거들먹거리며 저잣거리로 나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 “공자와 같은 성인이라면 절대로 부인의 뒤쪽 수레에 태워서 안 된다. 영공이 비록 무도했다고 하나 그래도 공자를 공경할 줄 알았던 사람이다. 그러니 틀림없이 부인의 뒤쪽 수레에 태워 공자를 욕보이지는 않았으리라”⁴⁷⁾는 최술의 지적은 무리가 따른다.

5. 結語

최술은 무명의 시골 선비이며, 《수사고신록》은 그런 최술이 지은 공자에 사적에 대한 고증서이다. 청나라는 考證學의 전성기였고,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대단한 업적을 쌓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先秦시대와 공

45) 且不知其弗克而輒圍之，圍之弗克而遂置之，輕舉妄動，有始無終，皆非聖人所爲，不待辨而明者。(2권 〈爲魯司寇下〉 부분의 ‘圍成在孔子去後’)

46) 錢穆도 그의 《孔子傳》 이에 대한 이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拙稿 〈《洙泗考信錄》에 대한 錢穆의 인식〉 (《中國學》 제22집, 2004.8) 참조.

47) “孔子之聖，必不爲夫人次乘；靈公雖無道，尙知致敬孔子，必不以夫人之次乘辱之。”

자의 사적에 관한 한낱 시골 선비에 불과했던 최술을 능가할 자는 없었다. 최술의 집념과 학구적 태도야말로 그를 고증학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원동력이었으며, 그의 방대한 《고신록》과 그 일부인 《수사고신록》은 중국 고대사와 공자의 사적에 얼룩진 술한 난제들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었다.

최술은 《수사고신록》을 통하여 僞書의 牽強附會로 왜곡되고 날조된 성인 공자의 진면목을 복원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는 典籍의 先後와 信賴度를 중심으로 공자의 사적을 辨證했으며, 有機的인 體例를 활용하여 고증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제 그런 최술의 저술을 바탕으로 중국 고대사와 공자 사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사기·공자세가》와 《공자가어》를 위주로 한 최술의 변증은 綱舉目張을 노린 세심한 배려였으며, 그 결과 汗牛充棟의 전적을 낱알이 거론하지 않고서도 舉一隅三反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기·공자세가》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사기》에서의 공자에 대한 기록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司馬遷이 공자라는 인물을 諸侯들의 역사인 〈世家〉에 편입시킨 것은 공자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자세가〉는 사마천답지 않게 영성한 구석이 많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漢武帝 때의 사상적 조류나 儒學獨尊으로 치닫던 시대적 소명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최술이 공자 사적 왜곡의 결정판으로 지목한 《공자가어》야말로 淺薄한 안목으로 공자를 재단한 책이며, 잡다한 이야기의 결집으로 미루어보건대 魏晉시대 王肅의 무리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런 책을 통해 공자를 엿보려 드는 자들이 여전히 많다. 때문에 《공자가어》에 대한 최술의 질타는 매섭기만 하다. 왕숙은 대단한 가문에 뛰어난 학식을 지녔지만 好勝心이 지나쳤고, 더군다나 晉나라의 國舅인 까닭으로 그 영향력 또한 지대했다. 그는 이러한 힘을 개인적인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사용했으니, 뜻있는 학자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리라.

위진시대는 달리 가치관의 혼돈시대라 말할 수도 있다. 漢武帝 이후 형성된 儒學의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종이의 사용으로 인한 문화의 저변화로 개성에 대한 자각이 형성된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독존적인 유학의 굴레를 벗어나 老莊사상에 심취했으며, 神仙術이나 方藥에 몰두하기도 했다. 특히 문학적으로 많은 변모를 거듭한 가운데 小家珍說이 크게 유행했으며, 志怪와 志人으로 대표되는 神異類가 대부분이었다. 《공자가어》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공자야말로 志人小說의 더없이 좋은 소재였을 것이다.

《수사고신록》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최술의 학문적인 태도이다. 嘉慶 2년 처음으로 판각한 《수사고신록》에서 최술은 《논어》의 編定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 말했을 뿐 張禹에게 嫌疑를 두지 않았다. 그리하여 《춘추》·《사기》·《장자》·《열녀전》 등 여러 책들은 모두 후세 사람들이 덧붙였기 때문에 그 진면목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논어》도 周나라 말이나 秦나라 때의 유학자들이 덧붙였을 것이라는 점을 제기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定本에서는 장우의 존재가 《논어》의 편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신하고 통탄했다. 이야말로 꾸준한 연구와 집요한 학자적 양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처사였으리라.⁴⁸⁾

최술은 季平子の 玉璫에 얽힌 사연을 공자의 미담으로 옮긴 《공자가어》에 대해 이렇게 痛駁했다.

아, 사람들이 제아무리 태양에 밝음을 더하려 한다지만 어찌하여 반 덧붙마저 덧붙이려 든단 말인가! 사람들이 제아무리 岱宗의 높이를 더하려 한다지만 어찌하여 한줌의 흙마저 쌓으려 든단 말인가! 사람들이 제아무리 성인을 훌륭하게 꾸밀 요량으로 다른 사람의 미담을 앗아다가 그 덕을 높이려 한다지만, 이 또한 어찌하여 계손씨 가신의

48) 나카 미치요(那珂通世)도 1903년 《崔東壁先生遺書》를 출판할 때 이 점을 높이 샀다.

웃어넘길 만한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가져다가 유사 이래 아직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그런 공자에게 덧붙일 수 있단 말인가!⁴⁹⁾

또한 맹자는 “《尙書》의 내용을 모두 믿는다면, 아예 《상서》가 없는 것만도 못하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렇다. 깎아내리는 것도 왜곡이지만 도에 넘치는 칭찬도 심각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공자의 진면목을 보고 본받을 점이 있다면 그것을 본받도록 노력해야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솔깃하여 잡다한 내용에 현혹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參考文獻]

- 崔述(著), 陳履和(校刊), 那珂通世(校點), 《崔東壁先生遺書》(東京, 目黑書店, 明治36, 1903)
- 崔述(著), 陳履和(校刊), 《崔東壁遺書》(東陽重刻定本 100週年 紀念本)(中國, 古書流通處, 1924)
- 崔述(撰), 胡適(編), 《崔東壁遺書》(上海, 亞東書局, 1936)
- 崔述, 《考信錄》, “中國學術名著”(第2輯)(臺北, 世界書局, 民國59, 1960)
- 崔述, 《崔東壁先生遺書》(臺北, 世界書局, 1963)
- 崔述, 《考信錄》, “百部叢書集成”(94). “畿輔叢書” 第28函 ~ 第30函(臺北, 藝文印書館, 民國 55, 1966)
- 崔述, 《崔東壁先生遺書》(臺北, 河洛圖書出版社, 1975)
- 崔述, 《考信錄》, “國學基本叢書”本(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8)
- 崔述(撰), 顧詒剛(編訂), 《崔東壁遺書》(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 崔述, 《考信錄》, “叢書集成初編”本, 卷138 ~ 144책(北京, 中華書局, 1985)

49) 嗚呼, 人即欲爲日增其明, 亦何至以如螢之火附之! 人即欲爲岱增其高, 亦何至以一撮之土累之! 人即欲媚聖人而掠他人之美以增其德, 亦何至取季氏家臣小小可喜之事以加於我生民未有之孔子乎! (1권 〈自齊反魯〉 부분의 ‘諫用玉斂爲仲梁懷事’)

- 楊伯峻, 《春秋左傳注》(北京, 中華書局, 1990)
- 劉寶楠, 《論語正義》(北京, 中華書局, 1990)
- 《十三經注疏》(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二十五史》(서울, 景仁文化社)
- 《四部叢刊正編》(서울, 法仁文化社)
- 《四部叢刊廣編》(서울, 法仁文化社)
- 《通志堂經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 《皇清經解》(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 《皇清經解續編》(漢京文化事業有限公司印行)
- 陳 鎬, 《闕里志》(濟南, 濟魯書社, 1995)
- 馬宗霍, 《中國經學史》(上海, 商務印書館, 1937)
-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飲冰室合集》第8冊, 《專集》34(北京, 中華書局, 1989)
- , 《中國近三百年學術史》, 《飲冰室合集》第10冊, 《專集》75(北京, 中華書局, 1989)
- 錢 穆, 《中國近三百年學術史》(北京, 商務印書館, 1997)
- , 《先秦諸子繫年》(臺北, 東大圖書公司, 1986)
- , 《中國學術思想史論叢》(八)(臺灣, 東大圖書公司, 1980)
- , 《孔子傳》(北京, 三聯書店, 2002)
- , 《孔子與論語》(臺灣, 聯經出版事業公司, 1974)
- 吳量愷, 《崔述評傳》(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1)
- 史應勇, 《鄭玄通學及鄭王之爭研究》(成都, 巴蜀書社, 2007)
- 吳懷祺, 《中國史學思想史》(北京, 商務印書館, 2007)
- 申東垞, 《공자와 천하를 논하다》(서울, 한길사, 2007)
- , 《제자백가, 사상을 논하다》(서울, 한길사, 2007)
- 朴俊遠, 〈崔述의 洙泗考信錄 研究-변증체계를 중심으로〉(《中國學》 제22집, 2004)
- 吳昶和, 〈崔述의 文化談論의 考證事例考〉(《中國學》 제30집, 2008)
- 拙稿, 〈崔述과 洙泗考信錄〉(《中國學》 제21집, 2003)

---, 〈《洙泗考信錄》에 대한 錢穆의 認識〉(《中國學》 제22집, 2004)

[中文提要]

崔述鄉村無名之士，其著《洙泗考信錄》孔子事蹟之考證書。清代考證學全盛，功績頗多，但先秦史與孔子考證，不及於崔述之《考信錄》。崔述之執念及學究態度，實為考證巨匠之動力。崔述《考信錄》與其內《洙泗考信錄》，寄與解析中國古代史孔子事蹟之難題。其辨證偽書以論議典籍信賴，提高考證學之位相，乃必要崔述學之時歟！

為主《史記孔子世家》《孔子家語》之崔述辨證，綱舉目張之按配，不舉汗牛充棟典籍，而舉一隅三反之效。〈孔子世家〉多有欠缺，〈世家〉之內孔子記述，一面對孔子之尊崇，然而其文支離，庶幾于武帝獨尊儒學之餘波。甚至《孔子家語》以淺薄鄙陋之目裁斷孔子，可歎可笑之齊東野語，適宜崔述詰難。《孔子家語》成於晉國舅王肅之徒，非孔氏秘傳，然亦有信《孔子家語》者，此甚怪異矣。

《論語》編定實系於張禹，禹舉止奢靡，王莽之走狗，一似奸臣阿諛者，豈知聖人孔子萬分之一矣哉！彼張禹彙編《魯論語》《齊論語》而編定今之《論語》，乃不可採而採，可採而不採，亦有之矣。《論語》之原本不見於世，此乃崔述之嘆，又學者之嘆也。不分真假而陷溺其中，未曉聖人真面，不可不慎哉！崔述於此歎息曰：“嗚呼，人即欲為日增其明，亦何至以如螢之火附之！人即欲為岱增其高，亦何至以一撮之土累之！人即欲媚聖人而掠他人之美以增其德，亦何至取小小可喜之事以加於我生民未有之孔子乎！”孟子又曰：“盡信書則不如無書”於是偽學亂經而不知，邪說誣聖而不覺，是亦學者之迷惑也！

主題語：崔述 《崔東壁遺書》 《考信錄》 《洙泗考信錄》 《史記·孔子世家》 《孔子家語》

[국문요약]

최술은 이름 없는 선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저술 《수사고신록》은 공자 사적 고증의 압권이다. 정확한 고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최술의 집념과 학구적인 태도는 그를 고증학의 대가로 자리매김한 원동력이었으며, 《고신록》과 그 일부인 《수사고신록》은 先秦史와 공자 사적에 얽힌 난제들을 풀어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최술은 공자의 사적을 변증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전적의 신뢰도에 천착했다. 그리하여 《사기·공자세가》와 《공자가어》가 공자의 사적을 왜곡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고증을 진행했기 때문에 汗牛充棟의 전적을 枚擧하지 않고서도 綱舉目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술은 《논어》의 編定에 결정적인 역할은 한 張禹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논어》에도 純雜이 뒤섞일 수밖에 없음을 밝혔으며, 아울러 공자가 纂輯했다고 일컬어지는 《尙書》·《周易》의 일부분 및 《孝經》과 刪詩說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辨證을 진행했다.

《수사고신록》은 僞書의 牽強附會로 왜곡되고 날조된 성인 공자의 진면목을 복원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으며, 有機的인 體例를 활용하여 고증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제 그런 최술의 저술을 바탕으로 중국 고대사와 공자 사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주제어; 崔述 《崔東壁遺書》 《考信錄》 《洙泗考信錄》 《史記·孔子世家》 《孔子家語》

투고일: 2008. 10. 25.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韓愈 시와 불교와의 관계*

고 팔 미**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한유 시의 排佛내용
3. 한유와 승려와의 교유
4. 한유 시의 형식과 불교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당시기 韓愈(768~824)는 그의 제자 李翱(?~844)와 함께 유교의 道統說을 새롭게 제기하고 ‘文以載道’를 주장하며 유교의 이상을 문장에 구현하려 하였다. 그는 孟子이래 유교가 五經의 훈고주석에만 치우쳐 진정한 공맹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자각으로, 자신이 유학의 道統를 이어받아 부흥시키는 것을 소임으로 여겼다. 때문에 六朝이래의 형식과 기교에 넘치는 화려한 문체를 버리고 秦漢시대의 소박한 문체로 복귀하여 그 속에 유교적 이상을 담아내려 했다. 이것이 그의 고문운동이다. 그는 六朝隋唐기간 흥성했던 불교와 도가의 위세에 눌린 유교의 經世정신과 道統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다.¹⁾ 이는 중국에 불

* 이 논문은 2007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07AA006)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pmko@deu.ac.kr)

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중국고유 학문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그는 불교를 비판하고 유교부흥운동을 자처한 排佛論者였다. 때문에 유교의 진가를 현양하고 도가와 불교의 사상적 오류를 논증하기 위해 〈原道〉·〈原人〉·〈原性〉과 같은 일련의 저작들을 남겼다.

사실 당나라 때는 남북조 이후 사원경제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불교가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唐의 통치자는 儒佛道 3教 병행방침을 세워 불교세력을 옹호하였고 승려들은 경제적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 당시 불교는 ‘천하의 재물이 불교사원에 칠팔 할이 몰려있을(十分天下之財而佛有其七八)’ 정도로 비대하여 국가에 큰 영향을 주었고 사회각처에 우민 흑세의 폐단을 초래했다.²⁾ 韓愈는 당시의 사원경제에 대한 시대적 비판을

1) 《韓昌黎全集》(卷18)〈與孟尚書書〉：“한 이후 여러 유학자들은 구구하게 수정하고 보충하여 백 개의 구멍과 천 개의 상처가 생겼으니 수시로 어지럽고 수시로 잃어버렸다. 그 위급함이 마치 하나의 터럭으로 천균(千鈞)을 끄는 것과 같으며, 실낱처럼 겨우 면면히 이어졌으나 점차 없어지고 말았다. 이때에 석가와 노자를 그 사이에서 떠들썩하게 외치어 천하의 대중들을 고무시켜 그것을 좇게 했다. 오호라! 그것은 심히 불인(不仁)한 것이다. 석가와 노자의 해독은 양주와 목적을 넘는다. 나의 현명함은 맹자에 미치지 못한다. 맹자는 아직 없어지기 전에도 그것을 구제할 수 없었으나 나는 이미 무너진 후에 그것을 온전히 하고자 한다. 아아! 그것 역시 자기 힘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또 자신의 위험을 당하매 죽음으로써 그것을 구제하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그 도가 나로 하여금 대략이나마 전하게 하였으니 죽어 없어질지라도 영원히 한이 없다. (漢氏以來，群儒區區修補百孔千瘡隨難隨失，其危如一髮引千鈞懸懸延延，寔以微滅。於是時也而唱釋老於其間鼓天下之衆從之。嗚呼，其亦不仁甚矣。釋老之害過於楊墨。韓愈之賢不及孟子。孟子不能救之於未亡之前，而韓愈乃欲全之於已壞之後。嗚呼！其亦不量其力且見其身之危莫之救以死也。雖然使其道由愈而粗傳，雖滅死萬萬無恨.)”

2) 《新唐書》〈百官志〉에 보면 당시에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坐食階級’인 道士나 스님은 부세와 면역의 특권을 누리게 하였고 전국에 “도관은 1687개, 도사는 776명, 女冠은 988명; 사찰은 7358개, 스님은 75524명, 여승은 50576명(天下觀一千六百八十七，道士七百七十六，女冠九百八十八；寺七千三百五十八，僧七萬五千五百二十四，尼五萬靈五百七十六.)”이 있다고 했다. 또 《長安志》(卷1)에는 “장안성의 108절에서……그중 비구사찰 64개, 비구니사찰 27개, 도관 10개, 페르시아 절 2개, 호족 절 4개(城中一百八坊……其

견지하며 단순히 종교 비판의 선을 넘어서 정치 경제적으로도 강한 의미를 가지고 불교를 비판하였다. 韓愈의 시 약 20여수에는 이에 대한 피해를 지적하며 불교와 도교를 반대하고 있다. 시가의 숫자상으로는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불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으로 볼 때 불교를 배척하는 시를 쓰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고, 이런 제재를 가지고 시를 쓴 경우는 모든 당시를 통틀어도 매우 극소수이다. 그러므로 韓愈는 시를 무기로 삼아 불교를 반대한 가장 돌출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韓愈가 刑部侍郎으로 있던 元和 14년(819년), 憲宗은 鳳翔 法門寺의 佛骨을 궁 안으로 들여와 성대한 예식을 거행하려 했다. 이에 그는 憲宗에게 〈論佛骨表〉를 올려 이를 적극 반대했다. 상소에는 “불교를 받아들인 왕조는 일찍 망했으며 불교를 신앙한 군주는 단명했다”³⁾고 주장하여 마침내 憲宗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고 52세의 나이로 刑部侍郎에서 潮州(廣東省)刺史로 좌천되고 만다. 그 당시 광둥은 콜레라와 말라리아가 만연하는 변방지역이고 문화의 이방지대였다.

그러나 韓愈는 이 좌천생활을 통해서 선불교를 접촉하고 많은 선승들과 교류한다. 당시 그 누구보다도 불교에 비판적이고 반대 입장을 지녔던 그가 후반기에는 오히려 선승들과의 깊은 교유를 가지기도 하고, 서로 시를 酬唱하거나 산사에 놀러 간일을 시가에 읊기도 하며, 시의 창작방법에서도 선종의 영향을 받은 여러 기법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본

中僧寺六十寺, 尼寺二十七, 道士觀十, 波斯寺二, 胡天祠四)”가 있다고 기재돼 있다. 《唐會要》(卷47)에는 諫官 辛替否가 唐 中宗에게 올린 상소에서 전국 사찰의 낭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오늘날 전국의 사찰은 만여 곳에 이릅니다. 사찰 한 채의 크기가 폐하의 궁전보다 배가 크며, 너무 웅장하여, 쓰임새가 지나치며, 전국 재물의 7~8할을 불교가 차지하고 있으니 폐하께서 어찌 그것을 가지겠습니까? 신은 도둑질한 그것이 통탄스럽습니다.(今天下佛寺蓋萬數, 一寺堂殿, 倍陛下一宮, 壯麗甚矣. 用度過矣, 是十天下之財而佛有其七八, 陛下何有之矣, 臣竊痛之!)” 이는 바로 당시에 형성된 무위도식하는 방대한 ‘좌식계급’과 그들의 놀랄만한 낭비를 밝힌 것이다.

3) “自佛法入中國, 帝王事之, 壽不能長”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배불론자인 韓愈가 그의 시가에서 보여준 불교와의 관계를 탐색해 보려 한다.

2. 韓愈 시의 排佛내용

韓愈의 排佛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그가 살았던 중당의 불교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불교는 남북조이후 나날이 발전하면서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당나라 때는 儒佛道 3教 병행방침을 세워 통치자가 불교세력에 의지하고 연합하여 이용하는 정책을 취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부 승려들은 가사를 벗어던지고 고급 관료가 되고자 했으며, 명리 추구하고 사치부패로 점차 종교적 기능을 상실하며 사회적 모순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승려계급에게는 면세와 면역의 특권이 부여되자, 평민들은 과중한 병역과 부세를 피해 사원의 소작인이 되거나 또는 승려가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은 급기야 世族지주와 僧侶지주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안사의 난 이후 승려들은 경제적 세력을 확장하면서 정치적으로 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德宗은 貞元6년(770) 岐州의 풍년과 民安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무하왕사에서 불공을 궁 안으로 들여와 공양했는데⁴⁾ 이것이 풍습으로 굳어졌다. 憲宗은 불법을 광신한 황제였는데 30년마다 열리는 법문이 있는 해에는 풍년이 들고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元和14년(819) 정월에 鳳翔의 法門寺 탑 속에 있는 석가모니의 사리(指骨)를 궁내에 3일 동안 안치하고 공양하면서 공경대신들도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때 韓愈는 刑部侍郎의 신분으로 〈論佛骨表〉를 올려 이를 제지하려 하였다.

불교는 오랑캐의 한 법일 뿐입니다. 후한 때부터 중국에 들어왔고 그

4) 《舊唐書》卷13, 〈德宗記〉

전에는 없었습니다. 옛날 황제는 재위100년, 나이 백세; 少昊는 재위 80년, 나이 백세; ……그때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락하며 수명은 길었으나, 중국에 아직 불교가 없었습니다. …… 한 나라 명제 때부터 불법이 있었는데, 명제의 재위기간은 겨우 18년뿐이었으며, 그 후 난으로 망하기를 계속하여 복운이 길지 않았습니다. 宋齊梁陳元魏로 내려 오면서 불교를 점점 더 정중히 섬겼는데, 재위기간은 더욱 짧아졌습니다. ……불교를 섬기고 복을 구하였으나 결국 더욱 화를 얻었습니다. 이 로보아 불교는 섬기기에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진실로 폐하께서 이렇게 하옵시는 것을 보고서는 장차 폐하가 불도를 섬기심이라 여기고서 모두 천하의 큰 어지심(폐하)도 일심으로 공경하고 믿으시는데 백성이 무엇이라고 신명(身命)을 아낀다는 말인가? 라며 정수리에 향을 불사르고 손에 기름을 부어 불을 붙이는 등의 불교신자의 고행을 행하여 수백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의복을 벗어내고, 돈을 모아 조석으로 시주하고, 서로 본받아 오직 늦을까 걱정하니 백성들의 가업이 파산하고 말 것입니다. ……

석가모니는 오랑캐이므로 중국의 언어와는 통하지 않고, 의복도 다르게 만듭니다. 입으로는 중국고유의 말을 하지 않고, 몸에는 중국전통의 옷을 입지 않으며, 군신의 도리·부자의 정을 알지 못합니다. 5)

〈論佛骨表〉에는 排佛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불교를 신봉한다고 하여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고 경제적 악영향을 끼친다. 둘째, 석가모니는 오랑캐이므로 중국의 고유

5) “佛者，夷狄之一法耳。自後漢時流入中國，上古未嘗有也。昔者黃帝在位百年，年百一十歲；少昊在位八十年，年百歲；……此時天下太平，百姓安樂壽考，然而中國未有佛也。……漢明帝時始有佛法，明帝在位十八年耳。其後亂亡相繼，運祚不長。宋齊梁陳元魏已下，事佛漸謹，年代尤促。……苟見陛下如此，將謂真心事佛。皆云天子大聖，猶一心敬信；百姓何人，豈合更惜身命？焚頂燒指，百十爲群，解衣散錢，自朝至暮，轉相倣效，惟恐後時。老少奔波，棄其業次。……夫佛本夷狄之人，與中國言語不通，衣服殊製；口不言先王之法言，身不服先王之法服，不知君臣之義父子之情。”

사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불교에 대응하여 도통을 내세워 유가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論佛骨表〉를 쓴 韓愈의 입장은 십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인습적이고 무기력한 당시의 불교를 비판하고 유교의 현실우위를 강조하며, 그가 불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비교적 집중적으로 반영해 놓았다. 그러나 불교를 받든 왕조는 곧 망했으며 불교를 신앙한 군주는 단명했다는 주장이 황제의 노여움을 사서 형부시랑으로 있던 韓愈는 潮州자사로 좌천된다. 이때의 비통한 심정을 그는 이렇게 적었다.

한통의 상소 아침에 구중궁궐 올렸더니,
저녁에 조주로 쫓겨나 팔천리 먼 귀향을 떠나네.⁶⁾

韓愈의 시에서 불교를 비판하고 공격한 시는 약 20수 가량 된다. 이는 숫자상으로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니지만, 당시 불교가 차지하는 영향력으로 비춰 볼 때 시를 무기로 불교를 비판하고 반대한 시인은 당대 시인 중 가장 두드러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불교는 당나라 때 武測天이 적극적으로 숭상하고 제창한 후부터 그 세력이 나날이 확대되어 道觀과 佛寺가 京師 각지에 편포되었고,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도사나 스님들에게는 부세와 노역을 면제해주는 특권을 누리게 했다. 이러한 혜택으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위해를 초래하자 한유는 이에 대해 시가에서 비판과 반대의 뜻을 밝히는 용기를 발휘했다. 그는 〈送靈師〉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佛法入中國,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서,
爾來六百年. 근 육백년 되어 가네.
齊民逃賦役, 평민들은 부역을 기피하고,
高師著幽禪. 지식인들은 그윽한 참선을 좋아하였다네.

6) “一封朝奏九重天，夕貶潮州路八千”——〈左遷至藍關示姪孫湘〉 《韓昌黎詩繫年集釋》（臺北，學海出版社，1987）卷11，p.1097

官吏不之制, 관리들은 그런 것을 제압하지 않고,
 紛紛聽其然. 분분하게 그것이 당연한 것 같이 듣고 있네.
 耕桑日失隸, 밭 갈고 뽕 기르는 데는 날마다 일꾼을 잃게 되고,
 朝署時遺賢. 조정의 관서에서는 때때로 똑똑한 사람을 놓치게 되네.

정치와 경제의 관점에서 각각 불교의 危害를 지적하여, 첫째 “평민들은 부역을 기피하고” “밭갈고 뽕기르는 데는 날마다 일꾼을 잃게 된다”는 경제적인 측면과, 둘째 “지식인들은 그윽한 참선을 좋아하고” “조정의 관서에서는 때때로 똑똑한 사람을 놓치게 된다”는 정치적인 측면을 지적했다. 특히 그 당시의 사회 현실은 부세와 노역의 면책특권을 부여 받은 僧徒가 갈수록 많아지고 백성들의 부담도 더욱 가중되며, 국가의 재정수입과 병역내원도 갈수록 궁핍해지기 때문에 한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교를 적극 배척했다. 승려가 많아지는 것은 당시의 돌출한 사회문제가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간과하여 지적한 현실성이 강한 시라고 할 수 있다.

韓愈가 불교를 비판하고 언급한 시의 내용 중에는 사회적인 정치 경제 등의 원인 외에도 불교의 허망과 거짓을 풍자하고 폭로한 시들이 있다. 〈和歸工部送僧約〉에는

早知皆是自拘囚 일찍이 모든 건 다 스스로 구금한다는 것 알아,
 不學因循到白頭 배우지 않고 백발이 되도록 답습만 하네.
 汝既出家還擾擾 그대 이미 출가했으면서도 아직도 바쁘니,
 何人更得死前休 어느 누가 더욱 죽기 전에 쉴 수 있겠나?

출가한 사람이 백발이 되도록 여전히 명리만을 쫓아 안달한다면 세상의 俗人들은 누가 명리를 버릴 수 있겠는가? 韓愈는 僧約이 출가한 스님이면서도 집에 있는 사람보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까닭은 오로지 名利 때문⁷⁾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또 〈廣宣上人頻見過〉시는

7) 王鳴盛은 “偏出家人比在家人更忙, 其所以忙者, 無非爲名爲利而已.”라고 말했다. — 《韓昌黎詩繫年集釋》(臺北, 學海出版社, 1975)卷4, 〈和歸工部送僧約〉

三百六旬長擾擾	삼백육십일 내내 들락날락하지만,
不衝風雨卽塵埃	비바람은 부딪치지 않고 먼지만 부딪치는구나.
久慙朝士無裨補	오랫동안 조정에서 벼슬하나 나라일에 도움 준 것 없고,
空愧高僧數往來	공연히 부끄럽구나, 높은 스님 자주 찾아와 주시니.
學道窮年何所得	한 해가 다 가도록 도를 배웠으나 무엇을 얻었는가?
吟詩竟日未能回	은 종일 시 읊조리니 돌아갈 수 없구나.
天寒古寺游人少	날씨 추워 옛 절에는 놀러 오는 사람 적고,
紅葉窓前有幾堆	붉은 낙엽만 창 앞에 몇 무더기나 쌓였구나.

上人은 和尚의 존칭이다. 廣宣은 촉지방의 승려로서 장안의 안국사에 머물렀는데 시로 이름난 詩僧이었다. 이 시에서 ‘高僧’이라고 호칭하는 말에는 조롱과 풍자의 의미가 있다. 廣宣이 공경대부의 집과 권세가의 무리들을 쫓아 다니는 것을 극히 혐오했기 때문에 제목에 “자주 들려주시는 걸 보고(頻見過)”라고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두 구 “날씨 추워 옛 절에는 오는 사람 적고, 붉은 낙엽 창 앞에 몇 무더기나 쌓여있다”는 말은 권문세도의 무리를 쫓아 다니느라 종일 돌아가지도 않는 모습을 더욱 조롱하여 한 말이다. 그는 僧約과 廣宣上人이 모두 詩僧이지만 명예와 부귀권세를 갈망하는 貪名逐利의 무리라고 여기며 조롱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채주와 기예가 뛰어난 僧侶들에게는 존경을 나타내기도 했으며, 그들을 불교로부터 벗어나도록 환속시키려는 뜻을 시가에다 드러내기도 했다. 〈送惠師〉시를 보면

吾言子當去	나는 말하네, 그대 응당 떠나게나,
子道非吾遵	그대의 길을 나는 따를 수가 없다오.
江魚不池活	강에 사는 고기는 못에서 못살고,
野鳥難籠馴	들에 사는 새는 조롱 속에 넣고 길들이기는 어렵다오.

吾非西方教	나는 서쪽에서 흘러온 불교신자가 아니나,
憐子狂且醇	그대의 미친듯하면서도 순진함을 동정하오.
吾嫉惰遊者	나는 게을리 노는 사람 미워하나,
憐子愚且諄	그대의 어리석으면서도 정성스러움을 동정하오.
去矣各異趣	떠나가시오! 그대와 나는 각각 취향이 다르니,
何爲浪霑巾	무엇 때문에 눈물로 마구 나의 수건을 적실 것인가?

韓愈는 불교를 믿는 불교신자도 아니고 惠師와는 서로가 추구하는 취향도 다르다. 惠師는 한군데 정착하지 않고 온 천지를 주유하며 다니는 행각승이므로 그를 붙잡아둘 방법이 없어 아쉽기만 하다. 더구나 어리석은듯하면서도 순진하고 정성스러운 그를 동정하며, 좌식계급인 승려를 미워하지만 惠師와의 이별은 “눈물로 마구 나의 수건을 적실” 정도로 아쉬워한다. 더욱이 〈送靈師〉 시에서는

材調眞可惜	재주와 지혜 진실로 아까워할만한데,
朱丹在磨研	붉은 먹은 연마하는데만 값어치가 있다네.
方將斂之道	바야흐로 그를 바른 길로 끌어 들여,
且欲冠其顛	장차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싶네.

靈師는 아까워할만한 재주와 지혜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를 유학의 ‘正道’로 끌어들이고자 아예 환속하기를 바라며 “장차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싶다(且欲冠其顛)”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또 〈送僧澄觀〉에는

浮屠西來何施爲	불교가 서역에서 와서, 무엇을 베풀려고 하는가?
擾擾四海爭奔馳	요란하게 온 천지를 다투어 내달리네.
.....	
向風長歎不可見	만날 수 없어 바람 향해 긴 탄식하다가,
我欲收斂加冠巾	나는 그를 거두어 갓과 망건 씌우고 싶네.

澄觀스님은 淸涼國師로 불리며 일찍이 7代 제왕의 스승을 지낸 중당

시기의 무척 유명한 高僧이었다. 이처럼 감히 만나지도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스님에게 “만날 수 없어 바람을 향해 탄식하며, 그를 거두어 갖과 망건을 씌우고 싶다. (向風長歎不可見, 我欲收斂加冠巾)”고 함으로써 환속을 권유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승려를 비방하여 조롱하거나, 승려의 재주나 기예를 아끼며 환속을 권유하는 시가 외에도, 불교가 백성들을 혹세우민하고 기만하는 내용을 폭로한 시도 있다. 그 중 〈華山女〉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벌어지는 佛法과 道法이 서로 다투는 풍속도를 생동하게 묘사하면서 혹세우민에 대한 질책을 가하고 있다. 이 시는 대체로 예술상 성공했다는 작품이므로 佛·道에 대한 질책도 그만큼 힘 있다고 할 수 있다.

街東街西講佛經	거리의 동쪽도 서쪽도 불경 포교하느라,
撞鐘吹螺鬧宮庭	종 치고 나팔 불어 궁정까지 시끄럽네.
廣張罪福資誘脅	죄업과 복덕 널리 과장해 유혹하고 협박하니,
聽衆狎恰排浮萍	청중들 부평초처럼 뻘뻘이 모였네.
黃衣道士亦講說	황색도포 입은 도사 역시 도교경전 강설하나,
座下寥落如明星	청중은 하늘의 명성처럼 드물 뿐.
華山女兒家奉道	화산의 여도사 어려서부터 집에서 도교를 신봉하여,
欲驅異教歸仙靈	다른 종교 버리고 도교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려 한다

洗粧拭面著冠帔	얼굴 씻고 화장하고 분 바른 후 도복과 도관 쓰고는,
白咽紅頰長眉青	흰 목덜미 붉은 두 뺨 긴 눈썹을 까맣게 그렸네.
遂來昇座演真訣	드디어 단상에 올라 도교 교리를 강연하면서,
觀門不許人開扇	관문 닫고 다른 사람들 열지 못하도록 했네.
不知誰人暗相報	누가 몰래 서로 알려줬는지 알 수 없으나,
忽然振動如雷霆	사람들 모여드는 큰 소리 천둥소리처럼 진동하네.
掃除衆寺人跡絕	사찰들은 쓸어낸 듯 인적 끊겼고,
驕驕塞路連輜輶	관 앞에는 준마들 도로를 막고 수레들 연이어 있네.
觀中人滿坐觀外	관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관 밖까지 앉았고,
後至無地無由聽	후에 온 사람 앉을 곳 없어 들을 수 없다네.

抽釵 脫釧解環佩 비녀 뽑고 팔찌 벗고 목걸이와 장식품 풀어
바치니,

堆金疊玉光青燄	금과 옥 높이 쌓여 번쩍 번쩍 푸른빛 발하네.
天門貴人傳詔召	황궁의 귀인은 조서를 보내와,
六宮願識師顏形	육궁의 귀빈들이 도사 얼굴 보기 바란다고 전하네.
玉皇額首許歸去	황제도 황궁에 돌아오는 것을 운허하였으니,
乘龍駕鶴來青冥	그녀는 용과 학 타고 푸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듯했네.
豪家少年豈知道	부잣집의 어린 소년 무슨 도를 알라마는,
來繞百匝脚不停	종일토록 화산녀의 신변 맴도는 발걸음은 멈추질 않 네.
雲窓霧閣事恍惚	구름 안개로 가려진 은밀한 처소엔 황홀한 일 벌어 지니,
重重翠幔深金屏	겹겹이 드리운 녹색 장막 깊은 곳은 금색병풍에 가 려졌네.
仙梯難攀俗緣重	신선 계단 오르기 어렵고 세속 인연 너무 무거우니,
浪憑青鳥通丁寧	헛되이 파랑새에게 재삼 부탁한다네.

시가의 첫 부분에 묘사된 장안 거리에서 북치고 나팔 불며 떠들썩하게 궁정 안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바로 스님들이 하는 俗講 모습이다. 불교도들이 교묘한 언변으로 아첨하는 이야기를 떠들어대자 청중들은 무리를 지어 따라다녀서, 도교도 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도교도는 어찌할 수 없자 마침내 적나라한 화산녀의 자태를 가지고 불교와 충돌 한다. 華山女는 온몸을 치장하고 아름다운 자태와 미소로 관중을 빨아들였다. 이는 기루에서 웃음을 파는 창녀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불교의 위풍당당한 교리와 불교도들의 기발한 언변도 한 도교도 아가씨의 아리따운 자태에는 대적할 수 없었다. 韓愈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흔적 없이 매섭게 풍자하고 있다. 華山女의 요염한 자태는 사람을 현혹시키고 궁정을 뒤흔들어 놓는다. 고관대신이나 부잣집소년 심지어는 황제의 후비에 이르기까지 그녀에게 경도된다. 그녀는 신선처럼 궁궐에 초대되지만, 이 신선은 도리어 부잣집 소년들과 “구름과 안개로 가려진 은밀한 처소에선 황홀한 일 벌어지네(雲窓霧閣事恍惚)”의 한판 극을 연출해 낸다. 이러한 신랄한 비판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용기 있고 강도 높은 고발이라 할 수 있다. 당제국은 太宗부터 憲宗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숭배하지 않은 황제는 하나도 없었고, 또 도교의 노자는 당 황실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祖宗이었다. 이 시가에서 우리는 당나라 대도시 長安의 불교와 도교의 투쟁 풍속을 잘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불교와 관계있는 시에는 〈山石〉·〈謁衡岳廟遂宿岳寺題門樓〉·〈遊青龍寺贈崔大補闕〉·〈題秀禪師房〉·〈遊西林寺題蕭二郎中舊堂〉 등이 있다. 이런 시들은 사찰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다가 날이 저물어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 밤 사찰에서 머문다거나, 혹은 친구가 일찍이 사찰에 은거했기 때문에 다시 놀러왔다가 쓸데없이 슬픔만 더한다는 내용들이다. 이런 시들에서의 사찰은 다만 매개역할을 하여 시인의 감정을 담아내는 장소일 뿐이고, 부처와 불교에 큰 상징적인 의미는 결코 없으므로 찬양할 대상도 아니고 배척할 대상도 아닌 것이다. 때문에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런 시들은 다만 불교와 관계있는 시일 뿐, 결코 불교시라고 할 수는 없다.

3. 韓愈와 僧侶와의 교유

이상에서 보았듯이 한유는 불교를 극력 반대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지만 그의 시문에는 많은 승려들과 교유한 글들이 보인다. 그의 시문 중에 언급한 승려 만해도 元惠·文暢·澄觀·誠盈·廣宣·高閑·大顛·令縱·無本⁸⁾·文約·靈師·穎師·秀禪師 등 십여 명에 이른다. 그는 이런 승려들과 빈번하게 접촉하였으며, 함께 술을 마시며 시문을 논하기도 하고, 행동에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하기도 하였으므로, 불교가 그에게 미친 영향은 일정부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8) 중당 시인 賈島는 원래 無本스님이었는데, 한유의 권유로 환속했다. “賈島浪仙, 范陽人, 初爲浮屠, 名無本, 來東都, 時洛陽令禁僧午後不得出, 島爲詩自傷. 愈憐之, 因教其爲文, 遂去浮屠, 舉進士”- 《新唐書》卷176, 〈韓愈列傳〉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한유가 교유한 승려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가 교유한 승려에는 사회적인 명망으로 권세 있는 유형과, 시문을 주고받으며 교유했던 유형, 또 才華가 뛰어나 교류한 유형이 있으며⁹⁾, 후반 潮州에 폄적된 후에는 大禪師와 깊은 교유를 했다.

僧元惠는 행적이 묘연하고 변화무상하여 어떤 때는 四明山에 있고, 어떤 때는 天台山에 있으며, 어떤 때는 廬山에 가고, 어떤 때는 羅浮山에 가며, 또 九嶷山·衡山·洞庭湖·嶠山·華山 등을 두루 다니며 생각하는 행각승이다. 韓愈는 그의 이러한 행각을 시가에 읊으며 “떠돌아다니는 몸 일정하게 매인 곳이 없으니, 우연히 가는 곳에 곧 나룻터가 통할 것”¹⁰⁾이라며 역시 경력이 대단한 화상임을 말하고 있다. “태수가 맞으려 해도 가지를 앓으니, 여러 관리들이 헛되이 자주 칭하였다”¹¹⁾하니 그의 태도가 어떠한 지 엿볼 수 있다. 韓愈도 그를 여러 번 찾아갔으나 항상 허탕치기일수였다. “어저께 홀연히 보이지 않기에, 나는 그 이웃 사람을 찾아보게 하였네. 분주하게 달려가서 스스로 그를 따라잡고서, 손을 잡고 그 원인을 물었다네. 나를 돌아보면서 도리어 탄식하여 말하네. 그래 어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겠습니까? 흠어지고 만남 옛날부터 자연스러운 것, 작별을 고하는 것 어찌 그리 진기할 게 있겠나이까?”¹²⁾ 비록 그렇긴 하지만 韓愈는 여전히 僧元惠와의 이별이 아쉬워 뜨거운 눈물을 마구 쏟아낸 상황을 “ 떠나가시오! 그대와 나는 각각 취향이 다르니, 무엇 때문에 눈물로 마구 나의 수건을 적실 것인가?”¹³⁾라고 읊고 있다. 그들은 아무런 동병상련의 아픔도 없고 더욱이 불교를 반대하는 입장에

9) 靈師의 縱逸, 惠師의 好山水, 文暢의 喜文章, 高閑의 善草書, 穎師의 善琴, 無本의 好詩 등

10) “浮遊靡定處, 偶往即通津.”-《韓昌黎詩繫年集釋》(臺北, 學海出版社, 1975)卷2, 〈送惠師〉, p.193

11) “太守邀不去, 郡官請徒頻.”-위의 시

12) “昨日忽不見, 我念訪其隣. 奔波自遣及, 把手問所因. 顧我却興歎, 君寧異於民. 離合自古然, 辭別安足珍.”-위의 시

13) “去矣各異趣, 何爲浪霑巾.”-위의 시

있는 그가 승려와의 작별에 눈물을 마구 쏟을 정도로 격앙된단 말인가? 그것은 아마도 僧元惠의 높은 경력과 큰 명망이 그와 교유함으로써 韓愈에게 필요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僧廣宣은 四川사람인데 그는 당시 劍南西川節度使 兼 成都尹인 韋臯와 관계가 아주 좋았고, 元和년에는 長安으로 와 安國寺에서 살았다. 그는 시를 잘 지어 《紅樓集》을 저술하였다.¹⁴⁾ 韓愈와도 관계가 절친하여 韓愈는 위에서 인용한 〈廣宣上人頻見過〉시를 그에게 지어주었다. 또 당시 劉禹錫도 그에게 〈廣宣上人寄在蜀與韋令公唱和詩卷因以令公手札答詩相示〉¹⁵⁾를 지어 주었던 것으로 보아 詩僧인 廣宣은 達官인 韋臯와 서로 시를 주고받은 외에도 韓愈·劉禹錫과도 창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韓愈와 文字交遊를 하는 유형의 승려도 있다.

또 다른 유형에는 靈師처럼 재능과 기예가 출중한 승려가 있다. 靈師 역시 韓愈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승려이다. “영 스님은 본래 속세의 성은 皇甫씨이고, 그 집안에는 자손들이 원래 끊어지지 않았다네. 어릴 적부터 온갖 경서와 역사책을 두루 읽었고, 일찍부터 문장을 지어 책을 엮어냈다네.”¹⁶⁾ 라고 말하고, 그가 “중간에 뜻을 얻지 못하여, 제 발자취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뒷걸음을 치게 되었다”¹⁷⁾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벼슬을 못하자 속세를 버리고 출가한 것 같다. 그러나 皇甫靈은 “바둑을 둘 때에는 흰 것과 검은 것을 다투면서, 죽고 살리는 것을 자기의 꾀에 따라 결정하네. 육박은 한 번 던져 판이 결정되는데, 노와 노를 꾸짖어 회피하기도하고 빨리 나오게 하기도 하네.”¹⁸⁾ 皇甫靈의 바둑 두고

14) 안국사에는 紅樓가 있어 《紅樓集》을 지었다는 기록이 韓文題注에 보인다.

15) 《劉夢得文集》卷7 : “壁雲佳句久傳芳, 曾向成都住草堂, 振錫常過長者宅, 披文猷帶令公香. 一時風景添詩思, 八部人天入道場. 若許相期同結社, 吾家本自有柴桑.”

16) “靈師皇甫姓, 胤胄本蟬聯. 少小涉書史, 早能綴文篇.”- 《韓昌黎詩繫年集釋》(臺北, 學海出版社, 1985)卷2, 〈送靈師〉, p.202

17) “中間不得意, 失跡成延遷”-위의 시

18) “圍棋鬪白黑, 生死隨機權. 六博在一擲, 梟盧叱迴旋”-여기에서 ‘노노(梟盧)’

육박하는 솜씨가 마치 ‘도박꾼’ 처럼 뛰어나며, 또 “서로 싸울 때는 누구와 대적할 것인가? 한없이 자유자재로 큰 창과 작은 창을 휘두르네. 술을 마시면 일백 잔을 다 비우고, 조롱과 해학은 생각이 갈수록 더욱 신선하네.”¹⁹⁾ 橫槊賦詩하며 술과 안주 낭자하도록 마실 때는 마치 ‘好酒家’ 같다고 했다. 그리고 “때때로 꽃과 달에 취하면, 높은 가락 맑고 흥겹게 이어지네. 네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다 고요해지고, 그윽하고도 깊숙하기는 湘水의 여신이 연주하는 거문고소리 같네.”²⁰⁾라고 하면서 박자를 치면서 흥겹게 마음껏 노래하면 모두들 고요해지게 하는 것이 마치 ‘淸客’ 같기도 하다. 또한 “옛스러운 기운은 《周易》의 象辭와 繫辭의 뜻을 띄었고, 내용이 높고 심오하기는 楊雄의 《太玄》을 능가했다네. 배를 메어놓고 태수님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 간알하는데, 그 글을 읽자 태수님은 두통이 다 낫는 것 같다네.”²¹⁾ 또 그의 학문은 《周易》·《太玄》에 정통하여 우주와 인생에 밝았고, 재능이 뛰어나 檄文을 기초한 문장은 아름다운 옥을 늘어놓은듯하여 태수의 머릿속에 가득 찼던 두통을 말끔히 낫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學者’ 같기도 하다. 이와 같은 韓愈의 묘사는 당연히 낭만적인 성분이 가미되었으므로 완벽한 진실로 간주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필하에서의

는 六博놀이에서 가장 나쁜 것과 가장 잘 된 것을 말함. 당시에 五木 이라고 하는 주사위를 사용하였는데, 오목은 다섯 개의 작은 주걱과 같은 나무인데, 양쪽 끝은 뾰족하고 던지면 뱅글뱅글 돈다. 양쪽에는 흰 것과 검은 것을 칠해 두었는데, 검은 쪽은 송아지, 흰 쪽에는 꿩이 그려져있다. 다섯 개를 던져 흰 쪽과 검은 쪽이 나오는 것을 보고 승부를 가린다. 다섯 개가 모두 검은 쪽이 나오면 최고점수 6점인 ‘盧’이고, 점부 흰 것만 나오면 최저점 1점인 ‘梟’로 쳐서 점수를 따지는 놀이이다. ‘叱廻旋’은 오목을 던져 이것이 굴러갈 때 ‘다섯 점 나와라’ ‘여섯 점 나와라’하고 부르는 대로 튀어나오는 것을 말함.-위의 시, 《중국어문학》 22집, p.244, 李章佑 주석 참조.

19) “戰時誰與敵, 浩汗橫戈鋌. 飲酒盡白醜, 嘲諧思遂鮮”-위의 시

20) “有時醉月花, 高唱淸且綿. 四座成寂默, 杳如奏湘絃”-위의 시

21) “古氣參參繫, 高標摧太玄. 維舟事干謁, 披讀頭風痊” 여기에서 ‘參參繫’란 《주역》의 각卦아래 달아둔 설명문인 象辭와 繫辭를 집어넣는다는 말임. 또 《太玄》은 한나라 양웅이 《주역》을 모방하여 우주의 현상을 설명한 저서인데 내용이 어렵기로 유명함.-위의 책, p.249

僧皇甫靈은 바둑과 육박에 능하고, 시와 술을 좋아하며, 노래 잘하고 금을 잘 연주하며 高談縱論하는 소위 ‘高僧’인 셈이다. 혹 失意낙담하여 佛門에 들어간 ‘雅士’일수도 있으나, 그는 상술한 여러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지방 관리에게까지 이름을 날리고 좋아하게 했다. “開州와 忠州 두 고을의 자사들은, 이때에 지은 시 많이 전하고 있었다네. 실직한 뒤부터는 붓을 잡지 않더니, 주옥같은 시편들을 스님위해 엮어놓았네.”²²⁾ 開州와 忠州의 자사도 皇甫靈을 위해 詩稿를 編述하고 刻版이 전한다고 하니 그의 영향력이 대단히 큼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이웃 고을에서 다투어 초청하니, 그 편지 얼마나 아름답게 오고 갔는가? 시월에 桂嶺으로 내려와서, 추운 것을 핑계 삼아 마음껏 구경하는 인연을 맺었네. 마음이 넓고 넓은 王員外여! 다투어 그를 맞이하는데 그 앞장을 차지하였네.”²³⁾ “이웃 고을 韶州의 이태수께서는, 높은 발걸음 구름과 안개를 타넘어 섰네.”²⁴⁾ 賀州·連州·韶州 등의 지방 관리들도 분분히 와서 초청했다는 말에서 皇甫靈이 특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한유는 그를 유학의 ‘正道’로 끌어들이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다. “재주와 지혜는 정말 아까워할만한데, 붉은 먹은 오직 벼루에 갈고 또 가는데만 값어치가 있다네. 바야흐로 그를 바른 길로 끌어들이, 장차 그 머리 위에다 관을 씌우고 싶네.”²⁵⁾ 이 말은 韓愈의 진심이며 바로 이 시를 쓴 목적인 것이다. 淸 錢謙益은 “韓愈(昌黎)가 세상에서는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送皇甫靈〉시에 圍棋六博·飲酒嘲諧·高唱連綿의 극치를 일일이 다 서술하고서, 끝내는 ‘그를 바른 길로 끌

22) “開忠二州牧，賦詩時多傳。失職不把筆，珠璣爲君編。” 여기에서 開州와 忠州의 牧(刺史)은 각각 唐次와 李吉甫(뒤에 재상이 됨)로 추정됨. 당차와 이길 보는 모두 조정의 요직에 있다가 중앙정부와 거리가 먼 이곳 사천성의 개주와 충주에 와서 각각 12년과 6년 동안 장기 근무 하였다고 함. -위의 책, p.246

23) “隣州競招請，書札何翩翩？十月下桂嶺，乘寒恣窺緣。落落王員外，爭迎獲其先。”-위의 시

24) “韶陽李太守，高步陵雲烟”- 위의 시

25) “材調眞可惜，朱丹在磨研。方將斂之道，且欲冠其顛”-위의 시

어 들여, 장차 그 머리위에 관을 씌우고 싶다' 고 하였으니 韓愈가 비록 불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靈스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²⁶⁾고 밝히고 있다. 이는 韓愈가 불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才華가 있는 스님에게는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이 환속하기를 권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韓愈는 기예가 특출한 승려와의 깊은 교유를 자원했다.

또 후세에 많은 의론을 불러일으킨 大顛禪師와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韓愈가 〈論佛骨表〉로 인해 潮州로 좌천된 후, 그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大顛禪師를 영접하면서 “오래전부터 道와 德을 갖추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간절히 뵙기를 원했습니다.”²⁷⁾ “만일 잠시라도 뵙 수 있다면 실로 큰 행복입니다.”²⁸⁾라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광대하고 심회함을 보이시고”²⁹⁾, “말씀이 무척 해박 하십니다”³⁰⁾ 등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韓愈가 大顛禪師에 대해 비교적 숭앙하였고 왕래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일은 금방 韓愈의 친구 孟簡에게 알려졌으며, 孟簡은 매우 불만스러워 편지로 이 일을 물으니, 韓愈는 답장에서 그 말을 얼버무렸다.

보내온 편지에, 내가 요즘 불교를 좀 믿는다고 전해진다는데, 그것은 전한 사람의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大顛이라는 무척 총명하고 도리를 잘 알고 있는 노승 한 분이 계시는데, 먼 곳이라 더불어 말할 사람이 없어서 自召에서부터 州郭까지 가서 십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실로 바깥의 몸뚱이는 이치로써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것이며, 사물이 침입해서 어지럽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말하면서 비록 요점

26) “韓昌黎世之所謂不愛禪者也, 然其送皇甫靈詩篇中, 備述圍棋六博·飲酒嘲諧·高唱連綿之致, 而終之以‘方將斂之道, 且欲冠其顛’韓公雖謂之不愛禪, 不可謂不愛靈也。”- 《縫雲樓題跋》 〈夢禪吟〉

27) “久聞道德, 切思見顏.”- 《韓昌黎全集》(卷18) 〈與孟尚書書〉

28) “倘能暫垂見過, 實爲多幸”- 위의 글

29) “所示廣大深廻”- 위의 글

30) “論甚宏博”- 위의 글

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가슴 속에 막히거나 꺼리는 것이 없어서, 쉽게 얻어 들 수 없는 것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그와 왕래하였습니다. 바다에서 신에게 제사지내려고 그 오두막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 袁州에 와서는 의복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情이지 그 법을 숭상하고 믿어서 복을 구하고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³¹⁾

韓愈가 비록 이처럼 해명했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심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宋代의 周敦頤는 “되지는 자기가 스스로 夫子같다고 하면서, 〈原道〉에서 석가와 노자가 틀렸다고 심히 배척했는데, 大顛이 누구와 비슷하다고 몇 통의 편지를 진중히 여기고 더욱이 의복까지 남겼는지 알 수 없다.”³²⁾고 했고, 歐陽修는 韓愈가 大顛禪師에게 보낸 편지 세 통이 후인의 僞作이 아니라고 여겼으며, 蘇軾은 이를 후인의 假托이라고 여겼다. 이에 대해 朱熹는 〈韓文公與大顛書〉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고증을 하면서 “韓公의 글은 타인이 지을 수 있는 글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僞作이 아니라고 했다.³³⁾ 그러나 明代의 胡應麟은 다시 朱熹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朱子語類》에서 大顛에게 보낸 편지는 昌黎(韓愈) 평생의 목숨을 걸 만한 사건이라고 했다. 슬프다! 晦翁(朱熹)의 말이 어찌 가을의 찬서리와 여름의 강인한 햇살을 억누를 수 있겠는가! 내가 고찰해 보니, 韓愈가 大顛에게 보낸 편지는 靈山禪院에서 돌에다 새길 때, 이에 승

31) “來示云，有傳愈近少信釋氏，此傳之者妄也。有一老僧號大顛，頗聰明，識道理，遠地無可與語者，故自山召至州郭，留十數日，實能外形骸，以理自勝，不爲事物侵亂。與之語，雖不盡解要，自胸中無滯碍，以爲難得，因與往來。及來神海上，遂造其廬。及來袁州，留衣服爲別。乃人之情，非崇新其法，求福口利益也。”- 위의 글

32) “退之自謂如夫子，〈原道〉深排釋老非。不識大顛何似者，數書珍重更留衣。”- 周敦頤，《周濂溪集》卷8，〈按部至潮州題大顛堂壁〉- 《韓愈資料彙編》(臺北：學海出版社，1984.04)卷1, p.614

33) “韓公之文，而非他人之所能作”- 《朱子大全》卷71，〈韓文公與大顛書〉. 위의 책, p.402

려들이 거짓으로 지어, 韓公의 귀중한 이름을 위조하여 그 도를 존귀하게 하려 했다. 마치 懷素가 李白의 노래를 위조했는데, 그 草書가 獨步라고 칭하는 것과 같다. 懷素草書歌는 사람들이 모두 李白의 작품이 아니라고 믿으면서, 유독 大顛의 편지는 韓愈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다. 왜 그런가? 李白이 노래를 지어 懷素에게 줬다 해도 李白의 이름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지만; 그러나 韓公은 유학자라고 자任했는데 大顛禪師에게 편지 한 통을 줬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34)

이상을 종합해보면, 韓愈가 大顛禪師에게 보냈다는 세 통의 편지를 周敦頤·歐陽修·朱熹는 사실이라고 보았으며, 蘇軾·胡應麟은 가짜로 보았다.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근거로 분석해 보면 이 세 통의 편지가 반드시 한유의 손에서 나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편지에 담긴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의 韓愈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처럼 韓愈는 여러 부류의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한편으로는 불교를 반대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 때문에 후세 사람들의 비평을 받았다. 元代의 李治는 다음과 같이 비평했다.

退之가 三子를 논하면서 말하기를; 孟子는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이며, 荀子와 揚子는 크게 순수하나 작은 흠이 있다. 그러나 한유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감정을 추구했으므로, 소위 荀揚의 흠을 자신도 면할 수 없게 됐다. 退之는 평생 특출하게 힘껏 周·孔의 학문을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原道〉 등을 지어 이교도를 배척하였다. 불골 맞아 들이는 일을 간함으로서, 비록 죄를 받고 한 번에 수만 리를 배척당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이 역시 크게 순수하다고 족히 생각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사람됨을 미워하면서 나날이 그와 함께 친하게 지내며, 또 시가를 지어 언어로 그 무리들을 광대하게하고, 게다가 자기가

34) “《朱子語類》謂與大顛書乃昌黎平生死案。嗚呼！晦翁之彥，抑何其秋霜烈日耶！愚考韓與大顛書，刻石于靈山禪院，乃僧徒妄撰，假韓公重名以尊其道。亦猶懷素假李白歌，稱其草書獨步耶。懷素草書歌，人皆深其非白作，而獨以大顛書爲出於韓，何哉？李白作歌贈懷素，不足以損白之名；以韓公以道自任，一與顛書，則所損多矣。”- 《少室山房筆叢》 卷26. 위의 책, p.801

깊이 애모하는 이유를 드러내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언어가 있게 되고, 언어가 그와 같으면 평소 마음에 품은 사람과 더불어 평생을 하는 것인데, 어찌 크게 상반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送惠師〉시에다 “혜사는 불교승려이며, 이에 자유분방한 사람이네.” 라고 말했고, 〈送靈師〉시에서는 “술을 마시면 일백 잔을 다 비우고, 조롱과 해학은 갈수록 더욱 신선하네.”라고 했으며, 〈送文暢〉시에는 “이미 불교의 근원을 끝까지 다 밝혔지만, 사물의 크고 작음은 소홀히 인식하네.”라고 했고, 〈送無本〉시에는 “늪어서는 게을러 투쟁하는 마음이 없고, 오랫동안 문장을 짓지 않았네, 황금과 비단으로 보상하려는 것은, 온 식구의 항상 누런 얼굴색이기 때문이네.”라 했으며, 〈聽穎師彈琴〉시에서는 “아, 나에게 두 귀가 있으나, 생황소리 듣고도 알아보지 못했네. 영사의 거문고 소리 듣고부터, 한쪽 구석에 앉았다 일어나네.”라고 했으며, 〈送澄觀〉에서는 “모두 말하네 澄觀이 비록 중이기는 하지만, 공무를 처리하는 재주 관리로서의 쓸모는 지금 세상에 둘도 없다고.” 라고 했으며, 〈廣宣上人頻見過〉시에서는 “오랫동안 조정에서 벼슬하나 나랏일에 도움 준 것 없고, 공연히 부끄럽구나 높은 스님 자주 찾아와 주시니.”라고 말했다. 또 〈送文暢〉·〈高閑等序〉와 大顛의 세통 편지에서 모두 정분이 끈끈하여, 재삼 부탁을 반복하며, 형제처럼 가까웠다고 자백했다. 또 〈與孟簡書〉에서는 만약 벼슬자리에서 논쟁이 있으면 시비를 밝히지 말고, 스스로 잘 꾸며 지나가라고 했다. 이로서 그 결점을 적출해보니 어찌 荀子·楊子로 그치겠는가? 文公이 만약 이와 같다면 어찌 다시 道가 부족하다고 아니하겠는가? 35)

35) “退之論三子云，孟氏醇乎醇者也。荀與揚大醇而小疵。然則韓之言而求韓之情，所謂荀揚之疵，亦自不免。退之平生挺特，力以周孔之學爲學，故著〈原道〉等篇，抵排異端。至以諫迎佛骨，雖獲戾，一斥幾萬里而不悔，斯亦足以爲大醇矣！奈何惡其爲人而日與之親，又作爲歌詩語言以廣大其徒，且示己所以相愛慕之深。有是心，則有是言，言既如是，則與平生所素蓄者，豈不大相反耶？若〈送惠師〉云，‘惠師浮屠者，乃是不羈人’〈送靈師〉韻‘飲酒盡百盞，嘲諧思逾鮮’〈送文暢〉韻：‘已窮佛根源，粗識事輓軌。’〈送無本〉韻：‘老懶無鬪心，久不事鉛槧，欲以金帛酬，舉室常顛顛。’〈聽穎師彈琴〉韻：‘嗟余有兩耳，未省聽笙簧，自聞靈師彈，起坐在一床。’〈送澄觀〉韻：‘皆言澄觀雖僧徒，公才吏用當今無。’〈別盈上人〉韻：‘山僧愛山無出期，欲士牽俗來何時。’〈廣宣上人頻見過〉韻：‘久爲朝士無補裨，空愧高僧數往來。’又有送文暢，高閑等序，招大顛三書，皆情分綢繆，丁寧反覆，密於弟舅。又其〈與孟簡書〉，則若與人訟于有司，別白是非，過自緣

李治는 많은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韓愈를 비평했다. 그는 韓愈가 〈原道〉를 저술하고 황제에게 諫迎佛骨은 매우 힘 있고 대단히 특출한 행위이므로 이는 ‘大醇’이라 할 만하지만, 승려들과 긴밀히 왕래하여 시가를 주고받으며 감정에 사로잡힌 것으로 본다면 당연히 ‘小疵’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韓愈가 荀揚을 ‘大醇而小疵’라고 말했지만, 李治가 보기에는 韓愈가 이들과 꼭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李治의 위와 같은 비평은 韓愈의 要害를 擊中할 수 있는 비평이다. 이와 유사한 비평은 顏元도 했다.

昌黎는 불교를 죽이는데 여력을 남기지 않고 죽기 살기로 했으니, 진실로 儒家 쪽 전쟁의 장수이다. 애석하게도 潮州로 폄적됐을 때 노승 大顛의 소식을 듣고 毘에서 州郭에 가서 그와 더불어 머뭇거리며 떠나지 않았다. 그 행장에서는 또 의복을 남기고 헤어졌다. 무릇 大顛에게 가르칠 수 있었다면 한두 번 만나서 그를 유가로 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가르칠 수 없었다면 교활한 도적에게 가서 위로하지 않아야 하는데, 또 어찌하여 오랫동안 함께 있으며 의복을 남겨준 것인가? 몇 몇 오랑캐가 결사하여 짓밟은 건 아닌가? 孟簡이 서신으로 그 일을 물으니, 회신 편지에다 또 大顛이 ‘무척 총명하고 도리에 밝다’고 했다. 나는 답서를 보고 크게 놀랐다.³⁶⁾

그는 또

불골을 논하다 폄적을 당했으나, 이 때 군자는 웃음을 머금고 구원으로 들어갔다. 다만 외로움과 가난의 고통을 견딜 수 없다면, 상소문에는 아첨하는 기운이 가득하여, 〈送窮文〉과 서로 표리가 되며 文公

飾。以是而摘其疵，何特荀·揚已乎！文公而猶若是。蓋又不足道矣。”-《敬齋古今注》逸文卷2，《韓愈資料彙編》(臺北：學海出版社，1984.04)卷1, p.614

36) “昌黎誅佛不遺餘力，死生以之，真儒陣戰將也。惜其貶潮州時，聞老僧大顛，召至州郭·留衣相贈乎？不幾夷·蹠結社乎？及孟簡書問其事，貽書致問，又稱大顛‘頗聰明，識道理’，予閱答書至此，大爲驚異。”-〈存人篇〉

이 문인 중의 으뜸이 되는 까닭이지만, 성현의 골격은 아니다.³⁷⁾

전편을 보면 감히 憲宗이라는 한 字를 다시 범하지 못하고, 가서 태산의 封地를 기록하고, 백옥의 첩지를 새기고, 그것을 풍자하여 동으로 泰山을 돌며, 하늘에다 공을 아뢰어 封禪으로서 다시 일어나길 희망하였으니, 이는 속마음으로는 거의 자신의 의지를 속인 것이다.³⁸⁾

顔元이 韓愈에게 가한 비평은 李治보다 더욱 매서웠다. 이처럼 韓愈가 불교를 반대하면서 승려들과 왕래하고 심지어는 통치계급과 妥協했다는 것이 李治顔元 등의 비평을 초래하게 되었지만, 이것이 이상한 일이 되진 않는다. 그러나 韓愈의 이런 모순된 심리와 행위는 물론 그의 인식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로도 그가 당시에 확실히 상당히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일례로 그는 〈重答張籍書〉에다 “요즘 二氏(佛道)를 중조로 섬기는 자가 아래로는 공경재상에 이르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것을 배척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는가?”³⁹⁾ 라 했고, 또 “오늘날 二氏(佛道)가 중국 땅에서 행해진지 무릇 육백 여년이 되었으며, 그 뿌리는 견고하게 심겨있고, 그 물살은 가득 넘쳐흐르므로, 아침에 명하여 저녁에 금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⁴⁰⁾라고 하여 당시에 불교와 도교가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佛道는 당시 이미 공경재상과 최고 통치계급의 지지를 얻었고, 또 육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7) “論佛骨遭貶，此君子含笑入九原時也。只不能堪其孤苦貧窮，表中便盈幅媚氣，與〈送窮文〉相表裏，文公所以爲文人之雄，非聖賢骨力也。” -- 《習齋記余》
〈評潮州謝表〉

38) “看通篇不敢再犯憲宗一字，到紀泰山之封，鏤白玉之牒，諷之東巡泰山，奏功皇天，希以封禪起復，幾乎衷心昧志。”-위의 글

39) “今夫二氏之所宗而事之者，下乃公卿輔相，吾豈敢昌言排之哉!” -- 《韓昌黎全集》卷14, 〈重答張籍書〉

40) “今夫二氏行乎中土也，蓋六百年有餘矣，其植根固，其流波漫，非所以早令而夕禁也。”-위의 글

韓愈가 나와 공개적으로 반대하려니 반드시 심사숙고하여야만 했을 것이다. 때문에 설령 그 속에서 약간의 모순된 심리와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면 그는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고 들어가 그것을 쓰러뜨리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新唐書》〈韓愈傳〉에서는 “옛날 孟子가 楊墨을 배척한 것은 孔子가 가신 지 겨우 이백 년 된 때였다. 韓愈가 二家(佛道)를 배척한 것은 천여 년이 지난 것이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아 정상을 회복하자니, 功은 같으면서도 힘은 배나 들었으므로, 그래서 況·雄을 지나도 적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韓愈가 죽은 후부터 그 큰 행을 언급하게 되었고 학자들은 태산북두같이 우러렀다고 한다.”⁴¹⁾ 고 韓愈를 칭송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韓愈가 승려들과의 교유가 비교적 많았고 밀접했던 원인은 唐代의 통치계급 때문이다. 唐나라 때는 武測天부터 적극적으로 儒佛道 三教의 통합을 추진했는데, 황제마다 각기 편중하는 것이 있었다. 武測天은 불교에 편중했고, 玄宗은 도교에 편중하였으며, 德宗과 憲宗 등은 또 불교에 편중했다. 그들은 편중하지 않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절대 배척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지만 좋아하는 것에는 차등을 두었다. 韓愈는 불교와 도교를 모두 반대했는데 이는 당시 황제가 편호하는 사회분위기로 본다면 상당히 용기 있는 행위라 할 수 있다. 韓愈가 유가의 도통을 이어가겠다는 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지만, 비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승려나 도사들과 교류하여 투쟁에서의 저항을 감소할 시키고 또 어떤 것은 통치계층의 양해를 얻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그가 만년에 大顛禪師와 교류를 맺은 일은 憲宗에게 속죄를 표한다는 의미도 있고, 말하기 어려운 고충을 타협한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당나라 때는 적지 않은 승려나 도사들이 자기 나름의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시를 잘 짓고, 어떤 사람은 거문고를 잘 타고, 어떤 사람은 초서를 잘 쓰고, 심지어 어떤 사람

41) “昔孟軻拒楊墨，去孔子才二百年；韓排二家，乃去千餘歲，拔衰反正，功與齊而力倍之。所以過況雄爲不少矣。自愈歿，其言大行，學者仰之如泰山北斗云”- 《新唐書》〈韓愈傳〉

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는데, 韓愈는 재능을 아낀다는 태도에서 출발하여 그들과 왕래하였으며 더군다나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모종의 영향을 주어 환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4. 韓愈 시의 형식과 불교

韓愈가 여러 시승이나 선사와 서로 교류하고 왕래한 사실은 제3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가 불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그와 불교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그의 시문에는 불교경전 내용을 숙지하여 이를 변용한 예를 볼 수 있다. 먼저 그의 〈醉贈張秘書〉시를 보자.

長安衆富兒, 장안의 많은 부잣집 자제들은 술 마시면서
盤饌羅羶葷. 갖가지 냄새나는 요리들을 즐비하게 늘어놓았다만
不解文字飲, 옛날 문자에 나오는 격식 갖춘 음주법은 하나도 모르면서
惟能醉紅裙. 오직 붉은 치마 입은 계집아이들에게만 취하네.
雖得一餉樂, 비록 하나의 술과 음식에서 즐거움을 얻었지만
有如聚飛蚊. 마치 날아다니는 모기떼가 모여드는 것 같음이 있을 뿐이네

여기에서 말한 ‘聚飛蚊’은 불경 《능엄경》의 “일체중생이 마치 한 그릇에 백 마리의 모기떼가 모여들어 앵앵 어지럽게 울어대며, 사방 한 치에서 미친 듯 소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⁴²⁾는 經文과 꼭 부합되는 말을 교묘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용하였다. 손가는 데로 따다가 詩作에 化入한 솜씨는 소금물 속에 녹아 있는 소금처럼 보이진 않지만 먹어

42) “一切衆生，如一器中聚百蚊蚋，啾啾亂鳴，於方寸中鼓發狂鬧。”——《韓昌黎詩繫年集釋》(臺北，學海出版社，1975)卷4，P.394

보면 짠 맛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韓愈가 불경을 정묘하게 파악하고 穎悟하고 있는 것에 대해 宋代의 대유학자인 司馬光도 크게 稱賞하며, 《書心經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에서는 韓文公이 불교를 좋아하지 않아 그것을 배척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 〈與孟尚書〉에서 大顛에게 ‘이치로서 스스로를 이기면, 사물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한다.’고 논한 말을 보고서, 이에 공이 안 본 책이 없음을 알았다. 무릇 일찍이 불교서적을 두루 보아, 그 정수만을 취하고 찌꺼기를 배척했을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사물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함을 아는 것이 불교를 배운 사람 보다 앞 설 수 있겠는가? 43)

다시 사람들에게 ‘禪悟’라고 인정받는 칠언절구 〈遣興〉시를 보자.

斷送一生惟有酒, 일생을 보내는 데는 오직 술만 있을 뿐일세,
 尋思百計不如閒. 일백 계책 깊이 생각해봐도 한가함만 못하네.
 莫憂世事兼身事, 세상일과 신변 일을 근심하지 말고
 須著人間比夢間. 모름지기 인간 세상을 꿈결에다 비유하라.

黃叔燦은 이 시를 “깨달은 후에 하는 말이다. 이에 공이 불교를 배척한 것은 다만 조정대국을 위해서 견해를 일으킨 것으로, 근본을 바로잡아 그 흐름을 막고 風教를 유지하려 함이었으며, 오로지 그에 빠지는 자가 많을 것을 두려워한 것임을 알았다.”44)고 했다. 이는 확실한 핵심을 찌른 말이며, 그는 한유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유와 佛禪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선현들의 고찰 중 陳寅恪선생의

43) “世稱韓文公不喜佛，嘗批之，〈與孟尚書〉論大顛云：‘能以理自勝，不爲事物侵亂’，乃知公于書無所不觀。蓋嘗遍觀佛書，取其精髓而批其糟粕耳！不然何以知不爲事物侵亂爲學佛者所先耶？”—馬其昶，馬茂元，《韓昌黎文集校注》，上海古籍出版社(上海，1987)，p.213

44) “禪悟後語。乃知公之闢佛，只是爲朝廷大局起見，正本塞流，維持風教，惟恐陷溺者多。”—《韓昌黎詩繫年集釋》(臺北，學海出版社，1985)卷9，p.978

고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그의 글 《論韓愈》⁴⁵⁾는 오늘날까지 발표된 한유연구논문 중에서 가장 저명한 논문이다. 그는 이 논문에서 한유의 사상을 역사적으로 通觀하고 있는데 한유가 반불교적 인사라는 종래의 통설을 부인하고 그의 문학과 사상체계가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정교하게 논증했다.

韓愈의 道統說은 표면적으로는 맹자가 죽은 후로부터 개발된 것이지만, 실제상으로는 禪宗의 敎外別傳說 때문에 조성된 것으로, 禪宗이 退之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⁴⁶⁾

陳寅恪先生은 한유가 불교의 禪宗사상을 유학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그의 학문은 宋代 성리학의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한유의 ‘以文爲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불경은 대체로 長行 즉 산문과 偈頌 즉 시가 두 가지 체제를 겸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체제의 뜻은 또 항상 서로 부응한다. 장행의 유래를 살펴보면 대부분 시를 문으로 바꿔 쓴 것이기 때문에 장행은 시로서 문장이 되는 것(以詩爲文)이며, 계송 역시 문장이 시로 된 것(以文爲詩)이라고 볼 수 있다. …… 동한으로부터 퇴지 이전에는 이러한 이문위시의 곤란한 문제를 아직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퇴지는 비록 불경을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유독 그 천재성을 발휘하여 문장을 가지고 시를 지었으니, 만약 한어를 가지고 견주어서 불교 계송을 번역한다면, 퇴지의 시어는 모두 성운이 조화롭고 알맞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문의 유창함을 갖추게 되어, 운문과 산문이 한 몸이 되고 시와 문이 하나로 합해지니, 비단 이전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45) 《역사연구》, 1954년 제2기. 오늘날은 《金明館叢稿初編》, 生活讀書新知三聯書局(北京, 2001)에 실려 있음

46) “退之道統之設表面上雖由孟子卒章之言所開發, 實際上乃因禪宗教外別傳之說所造成, 禪宗于退之之影響亦大矣哉.”-陳寅恪, 《金明館叢稿初編》, 生活讀書新知三聯書局(北京, 2001), p.321

결코 흉내 내고 본뜨는 무리들이 시도하여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⁴⁷⁾

이와 같은 주장은 韓愈연구에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다. 그 후 1963년 홍콩 중문대학의 饒宗頤 선생이 새롭게 한유와 불경의 문체관계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는 논문 〈韓愈‘南山詩’與曇無讖譯馬鳴的‘佛所行讚’〉⁴⁸⁾에서 한유의 〈南山詩〉와 馬鳴이 붓다의 전기와 생애를 묘사한 장편 서사시 《불소행찬》을 비교연구 하였다. 그는 終南山的 奇峰異壑을 묘사하고 있는 한유의 〈南山詩〉에는 ‘惑’자가 51번이나 사용되고 있으며, 매 一句의 시 첫머리에 ‘惑’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北涼의 曇無讖이 번역한 《불소행찬》의 번역문체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담무참이 번역한 《불소행찬》에도 매 구마다 첫머리에 ‘惑’자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편을 오언계송으로 엮고 있는데, 한유의 〈남산시〉도 五言古體의 장편 시로 이 둘은 형식상으로 매우 일치하고 있다. 《佛所行讚》〈과마품〉의 길고 짧은 계송은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려고 할 때 마왕 파순이 많은 권속을 이끌고 와 방해하는 광경을 묘사한 계송이다. 이때 마귀의 奇踪異狀을 묘사하면서 ‘惑’자를 30여회 사용한다. 이 부분이 바로 한유의 〈南山詩〉句식과 매우 비슷한 부분이다. 수십 번 ‘惑’자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방식으로 詭異險怪한 사물의 형상을 묘사하는 방식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연관이 있다. 때문에 陳寅恪 선생이 제시한 한유시의 불경계송모방설은 결코 억지로 꾸민 주장이 아니라 매우 深廣한 배경을 바탕으로 제출된 탁월한

47) “佛經大抵兼備長行即散文及偈頌即詩歌良種體裁。而兩體辭意又往往相符合。考長行之由來，多是改詩爲文而成者，故長行乃以詩爲文，而偈頌亦可視爲以文爲詩也。……自東漢至退之以前，此種以文爲詩之困難問題迄未有能解決者。退之雖不譯佛經，但獨運其天才，以文爲詩，若持較華譯佛偈，則退之之詩詞皆聲韻無非諧當，既有詩之優美，復具文之流暢，韻散同體，詩文合一，不儘空前，恐亦絕後，決非效顰之輩所能企及者矣。”—陳寅恪，《金明館叢稿初編》，生活讀書新知三聯書局(北京，2001)，p.331

48) 日本京都大學, 〈中國文學報〉第19冊, 1963, 10

견해였던 것이다.⁴⁹⁾

또 江辛眉선생은 〈論韓愈詩的幾個問題〉⁵⁰⁾에서 한유시의 예술적 특징을 논하면서 한유 시에서 ‘何’자를 연속 사용하여 의문을 반복 제기하는 창작법은 한유 시 특유의 구법이며, 한유는 이를 통해 文으로써 詩를 쓰는 ‘以文爲詩’ 주장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陳允吉선생은 이것 역시 불경계송에서 차용해 온 句法이라고 주장했다.⁵¹⁾ 陳允吉선생은 南朝시대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능가경》 4권본은 唐代的 선비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준 불교경전인데,⁵²⁾ 이 《능가경》 앞머리의 장편계송에 ‘何’자가 무수히 연속 사용되고 의문을 반복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五言體 이면서 ‘何’자를 반복 사용하여 의문을 반복 제기하는 경전을 여럿 예문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면 《無所有菩薩經》 1권의 “菩薩有何處, 何者是父母. 住此于何處, 何等爲眷屬(보살은 어느 곳에 계시며, 누가 부모입니까? 어느 곳에 살며 누가 권속이 됩니까?)”. 《大涅槃經》 卷3 〈壽命品〉의 “云何得長壽, 金剛不壞身. 復以何因緣, 得大堅固力(어떻게 장수를 누리며, 금강불괴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어떤 인연으로 대견고력을 얻습니까?)”. 卷9의 〈如來性品〉의 “云何見所作, 云賀得善法. 何處不怖畏, 如王夷坦道(어떻게 지은 바를 보고, 어떻게 善法을 얻습니까? 어느 곳이 두렵지 않아서, 왕이 평평하게 닦아놓은 길과 같습니까?)” 등 이다. 그는 이러한 경전계송과 韓愈 시 〈贈別元十八協律〉⁵³⁾, 〈孟東野失子〉⁵⁴⁾를 비교하여 한유의 시가 불경 계송에서 영향

49) 陳允吉 지음, 一指 옮김, 《중국문학과 선》 〈한유의 시와 불경계송〉, 민족사(서울, 1992), pp214~218

50) 《中華文史論叢》 第1期, 1980.

51) 주49)의 책, p.220

52) 李賀는 그의 시 〈贈陳商〉에서 “《능가경》은 책상머리에 쌓여 있고, 《초사》도 손에서 놓질 못하네(楞伽堆案前, 楚辭繫肘後)”라고 했고, 또한 白居易는 그의 시 〈見元九悼亡詩因以見記〉에서 “인간의 이 병에는 약이 없으니, 오직 4권본 《楞伽經》을 읽게나(人間此病治無藥, 唯有四卷楞伽經).”라고 한 시구들로 보아, 唐代 선비들에게 《楞伽經》의 유전이 광범위했음을 알 수 있다.

53) “그대여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갖에 옥고리 장식을 가득 달도록 하게. 누

을 받은 자취를 분명하게 밝혔다. 특히 〈맹동야실자〉는 맹동야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인간의 운명이 불공평하며 하늘에게 인간의 목숨이 불평등함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이는 《大涅槃經》卷10〈一切大衆小文品〉의 계송⁵⁵⁾과 정신상으로 상호융통하며, 宋代의 黃庭堅은 이를 《涅槃經》속의 佛語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한유가 그의 詩作에서 즐겨 사용한 ‘何’자의 句法은 시의 行文·句式에서 새로운 것이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틀은 불경의 계송에서 배운 것이라고 주장했다.⁵⁶⁾

그밖에도 韓愈 시에 사용된 ‘悉’자와 ‘恒’자의 표현도 불경계송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悉’자는 공간을 개괄하고, ‘恒’자는 시간상의 연장을 표시하는데, 불경경전은 그 教義를 논술함에 있어 시공관념의 분석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불경 번역문에서는 ‘悉’자와 ‘恒’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韓愈의 시 〈憶昨行和張十一〉의 “近者三姦悉破碎, 羽窟無底幽黃能(최근 삼간을 모두 부수었으니, 우굴은 그윽하

구를 따라 배우려는가? 난초의 그윽한 향 가득 채우게. 그 모습을 어떻게 즐기려는가? 세월이 흘러 그대 늙더라도…… 그대여 홀로 어찌 하려는가? 그대 스스로 온순함을 아름답게 하고, 金石과 같은 음성으로 궁실의 빗장을 열어 도, 누가 章甫의 冠을 알아서, 준마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겠는가? (予兮何爲者, 冠珮立憲憲. 何氏之從學, 蘭蕙已滿畹. 於何翫其光, 以至歲向晚. …… 余兮獨如何, 能自媚婉婉? 金石出聲音, 宮室發關鍵. 何人識章甫, 而知駿蹄晚?)”
-- 《韓昌黎詩繫年集釋》(臺北, 學海出版社, 1975), p.1123

54) “자식을 잃었으니 장차 무엇을 탓하리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탓할 뿐이니. 여실주는 사람을 내려 보냈으나, 목숨을 주고 뺏는 것이 어찌 이다지도 고르지 못한가? 여주가 어딘가에 있다면, 목숨의 번성과 오래살기를 청하건만, 지금 그대 홀로 무슨 죄인가? 생사는 순일간이건만.(失子將何尤? 吾將上尤天. 女實主下人, 與脫一何偏? 彼於女何有, 乃令蕃且延? 此獨何罪辜, 生死旬日間.)” -- 위의 책, p.675

55) “어찌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수순하며 존중하였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법을 수행하였는데도,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하십니까? (云何敬父母, 隨順而尊重? 云何修此法, 墜於無間獄)” 이는 부모를 수순공경하며 불법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반대로 아버지옥에 떨어져 고통 받았음을 나타낸다.

56) 陳允吉 지음, 一指 옮김, 《중국문학과 선》 〈한유의 시와 불경계송〉, 민족사(서울, 1992), pp220~222

계 빛나도다.)”와 〈鄭群贈簞〉시의 “倒身甘寢百疾愈，卻願天日恒炎曦(몸을 자리에 누이고 달게 잠드니 백 가지 병이 없어지지만, 도리어 천일이 항상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라나니)”에서 쓰인 ‘悉’자와 ‘恒’자는 모두 七言의 第五字處에 쓰여 시의 표현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모두 불경계송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실차난타 譯 80권본 《華嚴經》에 수록된 계송 가운데 七言의 第五字處에 ‘悉’자와 ‘恒’자를 사용한 빈도가 매우 높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⁵⁷⁾ 韓愈의 시가 불경계송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韓愈 시가 중에 표현방법이 특이하여 “마치 한 폭의 티베트 만다라화를 보는 것 같다”⁵⁸⁾는 평이 있는 〈陸渾山火〉에서도 역시 불교와 관계 있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육혼산화〉에 묘사된 형상은 실로 怪力亂神의 색채가 충만한 환상적 경계이다. 洛陽근처에 있는 陸渾山은 수목

57) 七言의 第五字處에 ‘悉’자를 사용한 예를 들면, 《華嚴經》卷11 〈毘盧遮那品〉：“光明所照咸喜歡，衆生有苦悉際滅。(광명이 비추는 곳마다 기쁨이 있으니, 중생의 고통을 모두 멸한다)”，卷13 〈光明却品〉：“至仁勇猛悉斷除，誓亦當然是其行。(지극한 자비는 용맹하여 모든 고통을 단제하나니, 마땅히 세운 바 서원을 행하기 때문)”，卷25 〈十廻向品〉：“十方所有衆魔怨，菩薩威力悉摧破。(시방의 못 마구니의 원한을, 보살의 위력으로 모두 물리친다)”，卷30 〈十廻向品〉：“彼能如是善廻向，世間疑惑悉除滅。(이와같이 완전히 회향함으로, 세간의 의혹을 모두 제멸하나니)”，卷80 〈立法界品〉：“宮殿山嶽皆空，佛刹莊嚴皆淨。(중전 산하가 모두 동요하더라도, 중생으로 하여금 두렵지 않게 하나니)”，또 七言의 第五字處에 ‘恒’자를 사용한 예를 들면, 卷8 〈華藏世界品〉：“無量光明恒熾然，種種莊嚴清淨海。(영원한 광명은 항상 밝게 빛나서, 여러 청정해를 장엄하나니)”，卷14 〈賢首品〉：“若以智慧爲先導，身語意業恒無失。(만약 지혜로써 길잡이를 삼는다면, 신어의 업에 항상 누실함이 없으리니)”，卷20 〈十行品〉：“予一世界一坐處，其身不動恒寂然。(한 세계 한 좌처마다, 그 몸은 부동하나니, 항상 적연하다)”，卷36 〈十地品〉：“三毒猛火恒熾然，無始以來不休息。(삼독의 맹렬한 불꽃이 항상 치연하여, 무시이래로 꺼지지 않는다)”，卷50 〈如來出現品〉：“眞如離妄恒寂靜，無生無滅普周遍。(망념을 여윈 진여는 항상 적정하여, 무생무멸이건만 온 누리 가득 퍼진다)” 등이며, 이와 같은 구법은 불경 7언체 계송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다.- 위의 책, pp.223~226

58) 沈曾植曰：“作一幀西藏曼荼羅畫看” -- 《集釋》卷6, 學海出版社編(臺北), 〈陸渾山火〉의 集說, p.699

이 무성하여 나무끼리 부딪쳐 산불이 자주 일어났다. 이 시는 맹렬한 육혼산의 산불에 쫓기는 동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虎熊麋猪逮猴猿, 호랑이, 곰, 고라니, 돼지, 잔나비, 원숭이에 이르기
까지

水龍龜龜魚與龜, 수룡, 자라, 거북, 물고기와 큰 자라
鴉鷓鴣鷹雉鵠鷓, 까마귀, 솔개, 수리, 매, 꿩, 따오기, 고니 등속에 이
르기까지

燭魚煨燻孰飛奔, 삶고, 그슬리고, 타고, 통째로 익고 하니, 어느 누가
날아 도망칠 수 있겠는가?

.....

위의 4구는 온갖 동물들이 화염을 피해 내달리는 광경이 一大奇觀을 상상하게 한다. 특히 명사만을 나열한 造句法은 漢代〈栢梁詩〉의 聯句와 흡사하지만, 그러나 그 意象은 불경의 계송에 묘사된 내용과 흡사하다. 불교 계송에서는 神魔가 化現한 각종 괴이한 짐승을 조복하는 불보살의 위신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때 각종 동물의 명칭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陸渾山火〉의 묘사와 흡사함을 볼 수 있다. 《修行本起經》에 보면 “圍繞菩薩三十六由旬, 皆使變成獅子熊羆兇虎, 象龍牛馬犬豚猴猿之形. (삼십육유순의 거리에 걸쳐 보살을 위요하였으니, 모두 사자·곰·큰 곰·사나운 호랑이·코끼리·용·소·말·개·돼지·원숭이의 모습으로 변했다)” 또 《佛說睽子經》에도 “獅子熊羆虎豹毒蛇, 慈心相向無傷毒. (사자·곰·큰 곰·호랑이·표범·독사가,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어울려 해함이 없나니)” 《大寶積經》卷38에도 “獅子虎狼, 熊羆猿猴鹿, 鹿騾驢猪鬼, 象馬拘犬, 牛羊猪類, 聞其聲音可以喜悅. (사자·호랑이·곰·큰 곰·원숭이·노루·사슴·나귀·들여우·돼지·토끼·코끼리·말·개·소·양 등은 모두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와 같이 각종 동물 명칭을 나열하는 造句法이나 묘사법은 충분히 불경의 계송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시에 묘사된 기이한 형상들은 바로 불화예술의 색채가 충만한 환상적 경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 시의 意境도 불교회화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의 〈山石〉 시에 보면 “스님은 낡은 벽의 불화가 좋다면서, 불 가져와 비추니 보인 그림 희한하네.(僧言古壁佛畫好, 以火照來所見稀)” 라고 하여 불화가 ‘희안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불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陸渾山火〉 시에 묘사된 형상은 한 폭의 티벳 만다라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한 沈曾植의 논점⁵⁹⁾을 錢仲聯은 〈佛學與中國古典文學的關係〉⁶⁰⁾에서 더욱 강하게 긍정하고 있다. 그는 한유의 시와 불교회화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陸渾山火〉에 묘사된 각종 繁火·音樂·旗幡·賓從·儀仗·酒肉·飲啖 등은 독자들로 하여금 한 폭의 만다라화를 보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결국 이 시의 예술형상과 언어특징 등으로 볼 때 불교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해진다.

5. 맺는 말

이상에서 한유 시와 불교와의 관계를 시가 내용과 그가 교유한 승려, 그리고 시가형식에서 보이는 불교의 영향 등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한유는 누구보다도 불교에 비판적인 排佛論者였다. 그가 불교를 반대하고 비판한 시는 약 20여 수가 되며, 숫자상으로는 결코 많지 않지만, 당시 불교가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불교를 배척한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까닭은 불교가 백성들의 생산생활에 막대한 파괴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는 시가에서 이런 불교의 危害를 지적하였고, 불교의 허망과 거짓을 풍자했으며, 흑세우민을 폭로했던 것이다.

그는 이처럼 불교를 극력 반대하였지만 도리어 많은 승려들과 교유했

59) 주)58

60) 《江蘇師範學報》1980, 第1期

다. 그의 시문에 언급된 승려 만해도 십여 명에 이른다. 그가 한편으로는 불교를 반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승려들과 왕래하는 모순된 행위는 후세 사람들의 비평을 받았다. 그가 이처럼 모순된 행동을 한 원인은 德宗과 憲宗 등이 불교에 편중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불교를 반대하려니 유가의 도통론을 비롯한 원칙적인 면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지만, 비원칙적인 문제에서는 승려나 도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투쟁에서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또 통치계층의 양해를 얻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당나라 때의 적지 않은 승려들이 자기 나름의 재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능을 아낀다는 태도에서 출발하여 그들과 교류하였고, 또한 그들에게 모종의 영향을 주어 환속시키고자 했다고 여겨진다.

한유는 불교비판에 힘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문학창작방법에서는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 이점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佛經의 문체는 長行과 偈頌으로 이루어지는데, 장행은 산문형식이고 계송은 시에 가깝다. 계송은 일반적으로 5언과 7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압운과 평측의 화해를 요구하지 않는 譯文體制이기 때문에 일종의 산문적 성격을 가진 非詩之詩가 탄생된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以文爲詩의 기풍이 형성된 것이다. 때문에 한유 시의 以文爲詩 작법도 결국 불경 문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진행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불화 역시 한유 시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퇴지는 불교비판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법을 깊이 요달하고 있었다.(退之號毀佛, 實則深明佛法)”고 한 王杼의 말은 그가 일찍이 많은 불경을 접했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한유는 본시 온갖 서적에 통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도 자연히 많은 불경을 섭렵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그가 불법을 깊이 알고 불화에도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할 수 있다. 그 결과 한유의 시가에도 불교의 영향이 깊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參考文獻]

- 錢仲聯 集釋,《韓昌黎詩繫年集釋》(臺北:學海出版社,1985)
馬其昶 校注,《韓昌黎文集校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
———,《韓愈資料彙編》(臺北:學海出版社,1984)
陳沆 撰,《詩比興箋》(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
陳寅恪 著,《金明館總稿初編》(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2001)
陳伯海 著,《唐詩匯評》(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5)
侯外廬 著,《中國思想通史》(北京:人民出版社,1995)
羅宗強 著,《隋唐五代文學思想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
孟二冬 著,《中唐詩歌之開拓與新變》(北京:北京大學出版社,1998)
陳伯海 著,《唐詩學引論》(北京,東方出版中心,1996)
喬惟德·尙永亮 著,《唐代詩學》(湖南人民出版社,2000)
姜書閣 著,《詩學廣論》(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2)
閻琦 著,《韓詩論稿》(西安:陝西人民出版社,1984)
陳克明 著,《韓愈述評》(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5)
孫昌武 選注,《韓愈選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6)
沈炳巽 著, 이장우 譯,《한유시이야기》(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8)
葛兆光 著, 정상홍 譯,《선종과 중국문화》(서울: 동문선, 1991)
陳允吉 지음,一指 옮김,《중국문학과 선》(서울: 민족사, 1992),
고팔미 著,《한유시가론》(부산: 세종출판사, 2005)

[中文摘要]

在此論文考察韓愈的詩與佛教的關係。韓愈以“攘斥佛老”自命,行為却與佛禪有著深刻、蒙昧未彰的糾結,在其“宣言”和“行動”中採取依違兩

间的态度。他撰写〈原道〉，谏迎佛骨，坚决反对佛老，一面却同僧道往来颇密，诗歌唱酬情意缠绵。这种自相矛盾的作法曾受到后人的批评。

韩愈现存的四百多首诗中，涉及到佛教的虽然只有有二十几首，却影响深远。唐代佛教不但政治思想上毒害国家和人民，经济上也成了侵蚀社会的大痛疽。当时形成的庞大的不耕不织的坐食阶级以及他们惊人的靡费是深恶痛绝的。韩愈在诗里指出这些佛教的危害而极力反对佛教。韩愈辟佛是因为佛教对百姓的生产生活造成了极大的破坏。他由于僧道之徒俱善于作蛊惑人心的宣传，而又写到对虚伪佛教的嘲讽与揭露。他与诗僧的真挚交往，这一类诗曾遭到了后人的指责，认为韩愈改变了初衷，皈依了佛门。韩愈与僧侣的交往，或是因为其有经济之才，或是因为其诗文才华出众。在为他们遁入空门叹惋之余，甚至想要将这些人才收回儒家门下，给他们戴上儒冠，而无本师的还俗不能不说是韩愈的一大功劳。

韩愈虽然排佛，却在文学创作方法，仍然受到佛教的影响。这颇让人感兴趣的现象；他不仅熟谙佛典，亦能在诗中化用之；他所创的“以文为诗”亦直接获益于佛经和佛经移译过程；在诗里的有些造句方式亦模仿到佛经偈颂的造句方式。从此可知，韩愈虽然排佛，仍然观看佛书，他博览群书，当然包括佛典。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한유 시와 불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한유는 "불도를 배척한다"고 스스로 자임했지만, 그의 행위는 도리어 불교와 깊고 애매하게 유착되어, 자신의 "선언"과 "행동"이 서로 위배되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원도〉를 찬술하고 불골 맞는 일을 간언하는 등 결연히 불도를 반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승려와 밀접하게 왕래하고 시를 수창하며 정감에 사로잡혔다. 이런 모순적 태도는 후세에 비평을 받았다.

현존하는 한유의 시 사백여수 중 불교와 관련된 시는 겨우 약 20여수 뿐이지만, 그 영향은 대단하다. 당나라 때 불교는 정치사상면에서 국가와 백성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사회를 침식시

키는 큰 병폐였다. 당시에 형성된 방대한 무위도식계급 및 그들의 소비경비는 심히 통절한 것이었다. 그는 시에서 이런 불교의 해악을 지적하고 불교를 적극 반대했다. 한유가 불교를 배척한 것은 불교가 백성들의 생산생활에 막대한 파괴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시에다 불교의 허망과 거짓을 풍자하였으며, 흑세우민을 폭로하였다. 시승과 진지하게 교류한 시들은 후세사람들이 한유가 변심하여 불가에 귀의했다고 여겨 질책을 받았다. 한유와 승려의 교류는 경제적 능력 때문이거나, 시문의 재능이 출중한데 불교에 입문한 것이 통탄스러웠기 때문이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유가의 문하로 끌어들이려 벼슬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무본스님을 환속시킨 것은 한유의 일대공로였다.

韓愈는 불교비판에 힘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문학창작방법에서는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 이점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는 불교경전을 익숙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시에다 화용했고, 그가 시도한 "이문위시" 역시 직접 불경과 불경번역과정에서 얻은 것이며, 시속의 몇몇 조구방법들도 역시 불경계송의 조구방법을 모방했다. 이로 본다면 한유는 비록 불교를 배척했다지만 그는 여전히 불교경전을 열람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온갖 전적을 박람했으니, 불경도 당연한 포함될 것이다.

關鍵詞：韓愈 詩，排佛內容，僧侶交遊，佛經影響，佛經偈頌

투고일: 2008. 10. 29.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蘇頌使遼詩 〈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校釋*

柳瑩杓**

一、敘論

蘇頌(1020-1101)，北宋泉州南安(今屬福建)人，字子容。慶曆進士，歷官三司度支判官、右僕射兼中書侍郎等。蘇頌學識淵博，在曆算、天文、律呂、本草、機械等方面成績斐然，是著名的科學家。他又是個文學家，留有文集72卷。作為外交家，蘇頌曾兩度以國信使的身份出使遼國，在對遼外交方面也有卓越的貢獻。關於蘇頌的業績，學界進行了多方面的研究。其在使遼期間寫的詩，如實地記錄了遼的風俗文化、山川地理等，對於蘇頌的使遼詩，學界也發表了不少研究成果。¹⁾

蘇頌曾四次當過外交使節，執行外交任務。第一次是治平三年至四年(1066-1067)，他以遼使的接伴使與送伴使的身份到過宋、遼邊境一帶。²⁾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 Su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08.

** 慶星大學 中文系 教授 (l2448@ks.ac.kr)

1) 蔣祖怡、張滌云在《全遼詩話》(305頁，岳麓書社，1992)中評價蘇頌的使遼詩道：“以漫長的途程為線索，生動細緻地敘寫了自白溝經燕京赴中京至廣平淀沿途的所見所聞，并輔以精煉傳神的自注，相當廣泛地反映了遼國軍民衣、食、住、行各方面的生活習俗，狩獵、放牧、耕種、漁樵等生產活動，形象地描繪了遼國的山川、草木、沙漠、氈帳、村落及天氣、物候，甚至涉及了遼朝的賦役、祀禮、宗教、文化、民風、民心等社會政治制度和文化心理等方面的情況”。

第二次是熙寧元年(1068)十月，他以副使的身份陪同正使張宗益赴遼賀遼道宗的生辰與正旦。第三次是熙寧十年(1077)十月，他以正使的身份出訪遼國，賀道宗生辰。第四次是元豐四年(1081)十二月，以館伴使的身份接待遼國使臣。其中，熙寧元年和十年，他分別寫下了30首與28首使遼詩，這些收錄於《蘇魏公文集》卷十三，題為〈前使遼詩〉與〈後使遼詩〉。³⁾ 對於這58首使遼詩的註釋，迄今有三種：1992出版的《全遼詩話》收錄了其中的48首；1993年發表的〈蘇頌使遼詩註釋〉，⁴⁾ 對全詩作了全面的註釋；另有1995年出版的《奉使遼金行程錄》，對全詩作了簡略的註釋。⁵⁾

本稿所要討論的〈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是蘇頌的使遼詩58首中的第一首，創作於熙寧元年。蘇頌在出使途中經過北宋境內的澶州，參拜當地信武殿的北宋真宗皇帝的神御，寫了這首詩，回憶真宗景德元年(1004)十二月簽訂的澶淵之盟以及真宗的業績，歌頌了這一和平盟約的成效。這首詩反映了作為政治家、外交家的蘇頌積極支持宋、遼和好的明確的態度，所以近來研究宋、遼外交關係以及宋代士大夫的思想意識的學者在論文中經常述及這首詩。⁶⁾

然而在研究中，這首詩的一部分文字刊刻有誤；對部分詩句或者未能作出任何解釋，或者解釋有誤，而迄今對此未能予以全面的訂正。先看這首詩的

-
- 2) 治平三、四年蘇頌曾任接伴使與送伴使，參看趙永春的〈略論蘇頌使遼〉（《松遼學刊》社會科學版，1991年3期，42頁）。
 - 3) 中華書局刊行的《蘇魏公文集》共收錄58首使遼詩，文淵閣《四庫全書》本《蘇魏公文集》共收錄54首使遼詩。僅見於中華書局本的4首詩是〈和晨發柳河館憩長源郵舍〉、〈契丹帳〉、〈廣平宴會〉、〈契丹紀事〉等。
 - 4) 陳予彬、齊敬之〈蘇頌使遼詩註釋〉載於《承德民族師專學報》（1993年第2期，1至19頁）。
 - 5) 趙永春，《奉使遼金行程錄·前後使遼詩》，69至84頁（《長白叢書》五集，吉林文史出版社，1995年10月。）
 - 6) 引用這首詩說明蘇頌對宋、遼和平友好關係的認識的論文有：趙永春的前引論文〈略論蘇頌使遼〉（44頁）；王水照〈論北宋使遼詩的兩個問題〉（《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19:2，1992年，44至45頁）；曹樹森〈蘇頌與宋遼關係〉（《吉林師範學院學報》1995年第7期，48至49頁）；李慧娟〈蘇頌與北宋的對外關係〉（《長春師範學院學報》20:1，2001年，28至29頁）；楊靜《北宋使遼詩研究》（《南京師大碩士論文》，2003年，13頁及25頁。）

內容：

(一) 中華書局本《蘇魏公文集》

〈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

夷裔陵邊久，文明運算高。三冬馳日禦，一夜隕星旄。
從此通戎路，於今襲戰袍。威靈瞻廟像，列侍寫賢豪。
民獲耕桑利，時無斥堠勞。金繒比千櫓，未損一牛毛。

(二) 文淵閣《四庫全書》本《蘇魏公文集》

〈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

朝著籌邊久，文明運算高。三冬馳日禦，一夜隕星旄。
從此通戎路，於今襲戰袍。威靈瞻廟像，列侍寫賢豪。
民獲耕桑利，時無斥堠勞。金繒比千櫓，未損一牛毛。

依筆者的看法，該詩中的誤字及誤釋的詩句如下：

第一，標題中的“潭州”是“澶州”之訛。現存蘇頌文集即《蘇魏公文集》有兩種版本。其一是文淵閣《四庫全書》版本(以下簡稱“文淵閣本”)，另一種是蘇頌的後裔蘇廷玉根據文淵閣《四庫全書》於道光二十二年(1842)刊印，近來由中華書局加以校訂的版本(以下簡稱“中華書局本”)。⁷⁾ 這兩種版本均作“潭州”。“潭州”指的是湖南省長沙，該地在遙遠的南方，就其地理位置而言，與北宋時代的奉使路線相去甚遠。出使遼國的使節一行不能繞到數百公里之外的南方的長沙到北方的遼國去。再說，“潭州”與“信武殿”沒有任何關係。為了證明“潭州”是“澶州”之訛，就需要了解北宋的奉使路線，特別需要弄清北宋境內的路線。“澶州”是北宋奉使路線上的必經之地，供奉真宗神禦的信武殿就在這裏。由此可見，文淵閣本與中華書局本的“潭州”都是誤記。附言一句，關於該詩標題中的張宗益的經歷，研究蘇頌的使遼詩的學者幾乎都不曾言及。筆者將根據《四庫全書》的有關資料盡量詳細地考察他的事跡。

第二，該詩的第三、四句“三冬馳日禦，一夜隕星旄”，描寫的是真宗親自

7) 關於《蘇魏公文集》的兩種版本及其文字的異同，參看中華書局《蘇魏公文集》的〈前言三〉。

到澶州激勵宋軍，和遼軍的先鋒將軍被宋軍的床子弩擊中陣亡的歷史事實。第五、六句則是描寫了作為該戰役的結果締結的澶淵之盟的成效。以往的註釋因為沒有看出“潭州”是“澶州”之訛，也不明白“澶州”有“信武殿”的事實，所以未能正確地解釋第三、四兩句。

第三，該詩的第七、八句描寫的是信武殿的真宗神禦以及締結澶淵之盟時功臣的英姿。劉敞的〈朝謁信武殿二首〉的第一首歌頌真宗，第二首描寫的是寇準，可以說這為筆者的看法提供了證據。以往的解釋都遺漏了關於這兩個詩句的說明。

第四，該詩的第十一句“金繒比干櫓”，中華書局本作“千櫓”，但“千櫓”與第十句的“時無斥堠勞”的“斥堠”，意思似嫌重複。再者，從與“金繒”二字的意思照應來講，應為“干櫓”。因此筆者以為四庫全書本的“干櫓”是正確的。

明白了這幾點，蘇頌堅決支持澶淵之盟及其以後的宋、遼和平邦交的態度更可以明確地把握。遺憾的是該詩不曾收錄於《全遼詩話》之中。

二、校釋

以下筆者針對上面提出的幾個問題做進一步考辨，並重新解釋全詩：

(一) 詩題校釋

詩題的意思是官居少卿的張宗益出任國信使，赴遼途中經過“潭州”，參拜信武殿時寫下了〈過潭州朝拜信武殿〉詩一首，蘇頌的詩就是和張宗益的這一首詩的。

1、張宗益

史書中沒有張宗益的傳記，行跡不詳，不過《宋史》卷四十一〈神宗本紀〉有“熙寧元年…八月…丁卯，遣張宗益等賀遼主生辰正旦”的記載，蘇頌的〈前使遼詩〉30首中的25首詩題為“和…”，這些詩幾乎都是為和張宗益的詩而寫成的，由此可見，張宗益在此次出使途中至少寫了二十幾首詩，由此又可以窺測張宗益頗有詩才。《全遼詩話》也有“其詩(愚按指〈前使遼詩〉)大部分為和張宗益(原注:字仲巽)少卿之作，則張亦有使遼詩，惜無傳”

的記載，為他的詩未能流傳於世感到惋惜。但是關於張宗益的事跡卻可通過蘇頌的〈前使遼詩〉以及同時代人物的文集略知一二。

蘇頌的〈前使遼詩〉中的第二首詩〈和張少卿過德清憶郎中五弟〉是蘇頌途經澶州所作，第三首詩〈和張仲巽過瀛州感舊〉則是路過河間府時的作品。通過這些詩題及內容可以看出熙寧元年以前張宗益曾在澶州、河間府等河北東路作官。胡宿(996-1067)在張宗益出任赴遼使臣以前曾經上奏朝廷重用張宗益，這是為了防備契丹從靠海的滄州一帶向中原襲擊，他的推薦很可能是和張宗益在澶州、河間府等要地作官有關。⁸⁾

另外，與張宗益同時代的人韓琦(1008-1075)的《安陽集》(卷十五)收錄了〈次韻和張宗益工部初到相臺書事〉、〈再和〉、〈次韻答張宗益工部〉等三首與張宗益相關的詩，文同(1018-1079)的《丹淵集》(卷十八)也收錄了〈送張宗益工部知相州〉詩。韓琦與文同的詩都表明張宗益曾任知相州。《河南通志》(卷五一)〈古蹟上·彰德府〉有“德禮堂在本府舊治內，其西北有自公堂，皆宋韓魏公判相郡時建；其西有面山亭，其東有見山臺，熙寧中知相州張宗益建”的記載，由此也可以確認熙寧年間張宗益曾任知相州的事實。由李之亮的《宋河北河東大郡守臣易替考》可知，張宗益知相州的時期是熙寧三年(1070)至熙寧六年(1073)，⁹⁾ 可惜的是我們所能知道的張宗益的行蹟僅止於此，其餘不詳。

2、潭州與信武殿

文淵閣本與中華書局本均作“潭州”，〈蘇頌使遼詩註釋〉(以下簡稱〈註釋〉)則這樣解釋潭州與信武殿道：“潭州，府名，治所在今湖南長沙市。信武殿，即斬歙廟。斬歙別定江陵，降柱園大司馬以下八人，身得江陵王，至洛陽，因定南郡，為信武侯(《漢書·斬歙傳》)。”但其所以作這種解釋，是

8) 胡宿〈論河北邊備事宜〉(《文恭集》卷八):“... 古者北有盧龍之塞，白檀之險，隔限南北。中國得之，控扼北敵。今此二險，敵反有之。河北地形無險可守，自河南北達於澶淵，平壤二千里。... 自河決商胡，失橫隴故道，中國亡大河之險，虜乘虛擣滄、景，則山東危。願用張宗益、郭中錫，言割濱河，德、博以隸滄，別為一路屯兵，以扼敵衝，備不虞，國之福也。伏望聖慈，特詔大臣，講究速行。”

9) 李之亮《宋河北河東大郡守臣易替考》(巴蜀書社，2001年，166頁)。

由於不了解北宋的奉使路線，也是由於不了解信武殿是什麼樣的殿閣。

筆者按：潭州是澶州之訛，根據如下：

第一，現湖南省長沙即潭州並不位於北宋代的奉使路線上。北宋時代開封至國境即白溝驛這一奉使路線，可通過王安石的送伴詩了解最詳細的情況。嘉祐五年(1060)王安石曾以送伴使的身份將遼國使臣送至白溝驛，從那裏越過國界到涿州，然後踏上歸途。嘉祐五年王安石從開封至白溝驛的奉使路線即如下：¹⁰⁾

開封 → 陳橋 → 滑州(韋城) → 澶州 → 南樂 → 大名 → 館陶 → 永濟 → 臨清 → 宋城(疑即“宗城”之誤) → 貝州(恩州) → 冀州 → 深州(靜安) → 河間 → 莫州 → 雄州 → 白溝驛

派往遼國的宋使必須沿着既定路線前行，因為使節一行人數不少，中途必須為他們提供食宿。蘇頌一行沒有理由遠離這條奉使路線，向與遼國沒有任何關聯的南方的潭州前行。

第二，蘇頌寫〈前使遼詩〉30首的前後順序大體上與他的奉使路程順序一致，¹¹⁾從第一首〈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到第五首〈和王大觀寄張仲巽〉詩，都是在宋國境內寫成的。¹²⁾將其中第一首至第五首及

10) 筆者曾據王安石的送伴詩推測開封至白溝驛的奉使路線，參看拙稿〈王安石使行詩考—在宋國境內寫的詩〉(《中國文學》43輯，2005年，首爾)。北宋的奉使路線曾因元豐四年的黃河水災有所變更，參看拙稿〈王安石奉使詩考辨〉(《中國語文論叢》29輯，2005年，首爾)：“事實上，北宋的奉使路線，到神宗元豐四年(1081)，和王安石走過的路線相比，已經發生了相當大的變化，據聶崇岐的研究，其原因就是由於河水之決，老的路線被阻塞。將聶崇岐所舉的新的路線，再整理一下，即如下：白溝 → 雄州 → 莫州 → 瀛州 → 趙州 → 邢州 → 磁州 → 相州 → 滑州 → 班荊館。”

11) 胡廷榮主張蘇頌的〈前使遼詩〉中的第十八首〈和冬至紫蒙館〉與第十九首〈和就日館〉的順序被顛倒了，他的考證頗為詳實，筆者依從他的見解。參看胡廷榮〈遼中京至廣平甸捺鉢間驛館考略〉(《中國邊疆史地研究》14:1, 2004年)。

12) 〈前使遼詩〉30首中，從第六首〈初過白溝北望燕山〉到第二十九首〈和過打造部落〉都是在遼境內寫成的，第三十首〈新歲五十始覺衰悴因書長句奉呈仲巽少卿〉的寫作地點不詳。

第六首的寫作地名按順序列舉如下：

- 第一首〈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潭州(疑即“澶州”之訛)。
- 第二首〈和張少卿過德清憶郎中五弟〉：德清，即德清軍(位於北宋河北東路澶州北七十里)。¹³⁾
- 第三首〈和張仲巽過瀛州感舊〉：瀛州，即北宋河北東路的河間府。¹⁴⁾
- 第四首〈和安撫王臨驥見寄〉及第五首〈和王大觀寄張仲巽〉：這兩首詩是河北西路順安軍頭領王臨¹⁵⁾造訪蘇頌一行時所作，寫詩的地點想必是河間府下一站莫州。¹⁶⁾
- 第六首〈初過白溝北望燕山〉：越過國界白溝橋，進入遼國境內以後寫的。

上述寫作地點表明，蘇頌一行是從開封啟程，向東北前行，過國境線上的白溝橋進入遼國境內的。其中德清、瀛州、莫州等都是北宋時代奉使路線上的必經之地，由此可見，第一首的“潭州”與第二至六首的路程相背離。

第三，澶州有供奉真宗神禦的殿閣，根據如下：

-
- 13) 參看《太平寰宇記》(卷五七)〈河北道六·德清軍〉：“德清軍理陸家店地，本舊澶州，晉天福三年，移澶州於得勝寨，乃於舊澶州置頓丘鎮，取縣為名；至四年，晉幸天維軍，改鎮為德清軍，開運二年十一月，又移德清軍於陸家店，置在新澶州之北七十里。”以及《明一統志》(卷四)〈大名府·古蹟·德清城〉：“在開州城北七十里陸家店。晉天福中移澶州於德勝寨，而於故澶州置頓丘鎮，尋改鎮為德清軍，開運初移於此”。〈蘇頌使遼詩註釋〉的“德清：地名，在浙江杭州和江蘇吳興之間”這一解釋顯然有誤。
- 14) 參看《太平寰宇記》(卷六六)〈河北道十五·瀛州〉：“瀛州，河間郡，今理河間縣。…天寶元年改為河間郡，乾元元年復為瀛州。”以及《明一統志》(卷二)〈河間府〉：“漢置河間國，東漢並入信都，和帝時復舊。後魏於樂成縣立瀛州，後置河間郡。隋罷郡，置瀛州。大業初，改為河間郡。唐改瀛州，天寶初仍為河間郡，乾元初復為瀛州。五代晉初入遼，周復取之。宋陞為河間府。”
- 15) 參看蘇頌的〈和王大觀寄張仲巽〉詩自註：“大觀自順安守，歲中移邊撫，再遷驥驥。”
- 16) 北宋時代的順安軍隸屬於河北西路，莫州則是隸屬於河北東路的軍事要地，二者相鄰接。參看《元豐九域志》卷二〈河北東路·莫州〉：“自界首至順安軍二十里”，及《河北西路·順安軍》：“自界首至莫州五十五里。”

《宋史·禮十二》：“神禦殿，古原廟也，以奉安先朝之禦容。…真宗神禦之殿十有四：景靈宮奉真殿、玉清昭應宮安聖殿、洪福院、壽寧堂、福聖殿、崇先觀永崇殿、萬壽觀延聖殿、澶州信武殿、西京崇福宮保祥殿、華州雲臺觀集真殿及西院、鴻慶宮、會聖宮、鳳翔太平宮。”

由此可見，“信武殿”是供奉真宗神禦的全國十四處殿閣之一，而它的位置就在澶州。澶州與信武殿在比蘇頌早幾年使遼的劉敞與沈遘的詩中都出現過，至和二年(1055)劉敞以契丹國母生辰使的身份使遼，寫下題為〈朝謁信武殿二首〉的詩¹⁷⁾；嘉祐四年(1059)沈遘以契丹主正旦使的身份使遼，寫了題為〈信武殿〉¹⁸⁾的詩。劉敞與沈遘在詩里都描寫了在黃河之濱進行的澶淵之役以及真宗的親臨，而蘇頌的這一首詩也描繪了澶淵之役的狀況。由此可見，《蘇魏公文集》的“潭州”即是“澶州”之訛。這很可能是在轉錄《蘇魏公文集》時因“澶”、“潭”的字形相類似而出現的誤記。

〈註釋〉將“信武殿”釋為“靳歙廟”是毫無根據的。靳歙是漢高祖劉邦的侍從官，《史記》與《漢書》都有他的傳記。靳歙曾率軍攻打江陵，捕獲江陵王並押送至洛陽，平定南郡，又隨劉邦進擊陳縣，捕獲楚王韓信。劉邦給靳歙授以符節，封為信武侯，並使爵位世代相傳，賜食邑4600戶。¹⁹⁾然而將靳歙封為信武侯的歷史事實與“潭州”相聯繫起來，找不出任何歷史記錄的根據，而且〈註釋〉所謂“靳歙廟”的存在也沒有什麼根據。²⁰⁾由此可以看出〈註釋〉的解釋與歷史事實不相符合。

第四，蘇頌兩次使遼都是為賀道宗生辰，所以必須於十二月七日以前抵達遼國冬捺鉢所在地廣平淀。²¹⁾蘇頌第一次使遼時於熙寧元年十月五日從開

17) 劉敞的〈朝謁信武殿二首〉(七言絕句)並未收錄於《公是集》，而是收錄於文淵閣《四庫全書》的《兩宋名賢小集》(卷五五)中。

18) 參看《西溪集》卷三。

19) 參看《史記·靳歙傳》。

20) 周緜也被漢高祖封為“信武侯”，《史記》卷九八與《漢書》卷四一的〈周緜傳〉都有這一記載。按，封為“信武侯”的並不只是靳歙一個人，不能把“信武侯”與“潭州”聯繫起來。

21) 據傅樂煥的考證，道宗的生日是八月七日，但接收外國使節的生日賀禮都是在

封出發，十一月五日抵達遼中京的下一個驛站就日館。²²⁾ 第二次使遼時於熙寧十年十月三日自開封啟程，十一月十六日抵達遼中京，十二月十日離開廣平淀踏上歸途。²³⁾ 第二次使遼時所作〈後使遼詩〉28首中只有第一首是在文彥博供職的大名府所作，²⁴⁾ 從第二首到第二十八首都是在遼境內寫成的，也就是說，蘇頌第一次與第二次使遼時從開封啟程的日期相差無幾，抵達中京或者就日館的日期也差不多。由此可作如下推測：蘇頌的一、二次使遼的路程是相同的。然而在蘇頌的〈後使遼詩〉也不見描寫潭州等開封以南之地的詩句，這為蘇頌在第一次使遼時與第二次使遼時一樣未曾繞道經由開封以南之地這一事實提供了間接證據。

對於這“潭州”和“信武殿”，趙永春已經這樣注明過：“潭州：應為‘澶州’，今河南濮陽。/ 信武殿：宋真宗趙恒的神御殿，供奉其遺容。”筆者完全同意他的解釋。²⁵⁾

(二) 詩的第一、二句

“夷裔陵邊久”，意思是胡人侵擾邊境已經很久。

十二月七日。參看《遼史叢考》(中華書局, 1984)的〈遼帝后生卒考〉及〈遼帝后生辰改期受賀考〉。熙寧元年蘇頌的出使目的地在〈前使遼詩〉中並不明確，但胡廷榮考證了中京至廣平淀的館驛，主張第二十首〈和檀香板〉“當為廣平甸終點作”(胡廷榮, 前引論文第55頁)，這就是說蘇頌的第一、二次使遼的目的地都是廣平淀。筆者依從他的見解。

22) 參看〈前使遼詩〉的第十九首〈和就日館〉的蘇頌自註：“十月五日出都，迄今四十一日矣”。據胡廷榮考證，就日館就是宋綬的〈使遼行程錄〉及傅樂煥《遼史叢考》的“宋臣使遼所經館驛名稱表”所載殺灘河館，參看胡廷榮前引論文52至53頁。

23) 參看蘇頌的〈後使遼詩〉自註：“熙寧十年八月，自國史院被命假龍圖閣直學士、給事中，充大遼生辰國信使。十月三日進發，明年正月二十八日還闕。”及〈後使遼詩〉的第十二首〈中京紀事〉自註：“十一月十六日到中京，未經苦寒，天氣溫煦，幾類河朔。行人皆知厚幸，紀事書呈同事閣使”。此外亦可參看第二十首〈離廣平〉自註：“十二月十日離廣平。”

24) 第一首詩題為：〈某奉使過北都，奉陪司徒侍中潞國公雅集堂宴會，開懷縱談，形於善謔，因道魏收有逋峭難為之語，人多不知逋峭何謂。宋元憲公云：‘事見《木經》，蓋梁上小柱名，取有折勢之義耳。’文人多用近語，而未及此，輒借斯語抒為短章，以紀一席之事，繕寫獻呈。〉

25) 趙永春, 前引書69頁。

“文明運算高”，意思是宋朝的對策極其高明。

第一句在文淵閣本中作“朝著籌邊久”，中華書局本〈校記〉也曾指出這一點。“朝著籌邊久”，意思是宋朝很久以前就下了籌劃邊境的事務，但以往的研究這首詩的所有論文，都從中華書局本的表記，筆者也從中華書局本來分析這一句。“夷”指胡人，“裔”意為邊遠的地方，或遙遠的邊疆的民族（《漢語大辭典》），“夷裔”在此指契丹族。“陵”是侵犯之意。第二句的“文明”是文采光明或者文德輝耀之意。〈註釋〉中說“指文化較高之邦，此指宋王朝”。“運算”是“運籌計算”之意（《漢語大辭典》）。〈註釋〉將第二句釋為“宋王朝采取了高明的睦鄰政策”，筆者也贊同這一解釋。總之，這兩句贊頌了北宋對契丹的長期的入侵所采取的賢明的外交政策。

（三）詩的第三、四句

“三冬馳日禦”，意思是在寒冷的冬天，天子禦駕親征。

“一夜隕星旄”，意思是一夜之間敵軍的將旗被打掉。

第三句的“三冬”意為冬季三月，即冬季（《漢語大辭典》），“日禦”為帝王的車駕（《漢語大辭典》），這裡指真宗的禦駕。第四句的“隕”是墜落或者死亡之意。“星旄”是繪有星辰的旄，亦泛指旌旗（《漢語大辭典》），在詩中指遼國統帥的旗幟。〈註釋〉將“日禦”釋為“古神話中為太陽駕車的神，此指太陽”，將“星旄”釋為“星毛，《隋書·天文志》：‘天狗星有毛，旁有短慧，主征兵，主討賊。’星旄，即羽旄，旌旗的一種。”但這一解釋不能將第三、四兩句連結起來，解釋不通。

第三、四兩句描繪了景德元年(1004)十一月，真宗親自前往發生澶淵之役的澶州，登上北城門樓激勵了宋軍，而因受宋軍伏弩的攻擊，遼統軍撻覽陣亡之事，相關記錄如下：²⁶⁾

1、《宋史》(卷二八一)〈寇準傳〉：“既而契丹圍瀛州，直犯貝、魏，

26) 與《宋史·寇準傳》有所不同，《續資治通鑑長編》則記錄遼國統軍撻覽之死在真宗登上澶州北城門樓之前。南宋的李壁注王安石〈澶州〉(五言古詩)道：“詩云穹廬矢如蝟，蓋指射殺撻覽時事，然撻覽死實在前，非乘城以後事也。”（《王荊文公詩李壁註》卷七，上海古籍，1993）

中外震駭。… 帝問準，… (準)遂請帝幸澶州，及至南城，… 帝遂渡河，禦北城門樓。遠近望見禦蓋，踴躍歡呼，聲聞數十里。契丹相視驚愕，不能成列。相持十余日，其統軍撻覽出督戰，時威虎軍頭張環守床子弩，弩撼機發，矢中撻覽額，撻覽死，乃密奉書請盟。”

- 2、《續資治通鑒長編》(卷五八) 真宗景德元年十一月：“甲寅 … 契丹既陷德清，是日率衆抵澶州北，直犯大陣，圍合三面，輕騎由西北隅突進。李繼隆等整軍成列以禦之，分伏勁弩，控扼要害。其統軍順國王撻覽，有機勇，所將皆精銳，方爲先鋒，異其旗幟，躬出督戰。威虎軍頭張環守床子弩，弩潛發，撻覽中額隕，其徒數十百輩競前與曳至寨。是夜撻覽死，敵大挫衄，退卻不敢動。但時遣輕騎來覘王師。… 丙子，車駕…次南城，… 寇準固請幸北城，… 上遂幸北城，… 既至，登北城門樓，張黃龍旂，諸軍皆呼萬歲，聲聞數十里，氣勢百倍，敵相視益怖駭。”

真宗親臨澶州及遼統軍撻覽陣亡等歷史事實在早於蘇頌奉使赴遼的劉敞、沈邁及王安石等人的詩中有所描繪：

劉敞〈朝謁信武殿〉二首

其一

旌旗千里自天來，投策黃河餘馬回。聖主緝兵方外服，東巡日觀望蓬萊。

其二

天下安危寄老臣，幄中談笑靜邊塵。丹青未備雲臺像，微管猶悲道路人。²⁷⁾

沈邁〈信武殿〉

匈奴昔南牧，先帝躬濯征。旌旗從天下，龍虎百萬兵。
元臣坐帷幄，大將當鼓鉦。黃蓋臨城樓，城下萬歲聲。
卷起黃河波，飄入單于營。單于膽先破，旗轍亂縱橫。…

27) 該詩第一首歌頌的是真宗親臨澶州，第二首歌頌的則是從容應對遼的攻擊的寇準的功績。關於寇準，參看《宋史·寇準傳》如下記載：“帝盡以軍事委準，準承制專決，號令明肅，士卒喜悅，敵數千騎乘勝薄城下，詔士卒迎擊，斬獲大半，乃引去。上還行宮，留準居城上，徐使人視準何爲，準方與楊億飲博，歌謔歡呼。帝喜曰：‘準如此，吾復何憂？’”

下臣方奉使，過謁慄若驚。威神敢雲測，尚冀通精誠。

王安石〈澶州〉²⁸⁾

去都二百五十里，河流中間兩城峙。南城草草不受兵，北城樓櫓如邊城。

城中老人爲予語，契丹此地經鈔虜。黃屋親乘矢石間，胡馬欲踏河水渡。

天發一矢胡無酋，河水亦破沙水流…

王安石〈澶州〉²⁹⁾

津津河北流，薛薛兩城峙。…邊關一失守，北望皆胡騎。

黃屋親乘城，穹廬矢如蠅。…³⁰⁾

劉敞、沈遘、蘇頌等出使遼國途中經由澶州，並在那裏參拜信武殿，寫出了描寫真宗與寇準等爲締結澶淵之盟做出巨大貢獻的人物的詩，這一事實表明出使遼國的北宋使臣參拜信武殿似乎是普遍的日程。

〈註釋〉將“日禦”釋作“太陽”，將“星旄”只釋作“旌旗的一種”，想必是未能如實地把握詩句的原義。李慧娟在論文中說：“宋真宗審時度勢，遣使與遼議和，訂立澶淵之盟，一夜之間杜絕了遼兵侵擾之患”，³¹⁾這一解釋與中心意思相符合，但“一夜之間杜絕了遼兵侵擾之患”的解釋跟詩句的原意不很符合。

(四) 詩的第五、六句

“從此通戎路”，意思是從此與契丹溝通了財貨交流之路。

“於今襲戰袍”，意思是至今戰袍層疊堆放在府庫裏。

第五句的“從此”應釋爲澶淵之役以後。〈註釋〉解釋“戎路”道：“亦作戎路，卽兵車。《左傳》：‘秋，師及齊師戰於乾時，公長戎路，乘傳而歸。’

28) 王安石《王荊文公詩李壁註》卷七。

29) 王安石《王荊文公詩李壁註》卷二0。

30) 筆者在拙稿《王安石詩歌文學研究》(《首爾大學博士論文》，1992，韓文)及〈王安石的河北民試析〉(《中國文學》44輯，韓國中國語文學會，2005，韓文)中詳細考察了王安石的兩首〈澶州〉詩。

31) 李慧娟，前引論文，29頁。

此指往來使者之車。”但是將‘賂’釋作路或輅的用例還不曾見到。“戎”應指胡、夷，在此指契丹；“賂”應指“財貨”。第六句的“襲”是重複、重疊之意（《漢語大辭典》），而〈註釋〉解釋成“脫下”，這與詩意相通。李慧娟解釋第五、六兩句的大意道：“從此宋履行盟約，每年向遼繳納歲幣，直到現在邊境也相安無事，連戰袍都收藏起來沒有再用”，這一解釋也可以通。

(五) 詩的第七、八句

“威靈瞻廟像”，意思是在廟堂瞻仰洋溢着威嚴與靈氣的禦像。

“列侍寫賢豪”，意思是在禦像周圍，還繪有賢明豪傑之臣排列侍奉的英姿。

〈註釋〉將“廟像”釋為“指斬歙之塑像”，但這樣的解釋，是將詩題中的“潭州”與漢初的斬歙牽強地聯系起來的，顯然是誤釋。李慧娟對此兩句沒作任何說明。

這首詩是五言排律，共十二句，平聲豪韻，韻腳是高、旄、袍、豪、勞、毛。全詩符合平仄格律（只有第十一句是‘平平仄平仄’，屬於拗體詩的平仄，但也被認為合乎格律）。除末二句外，全詩使用對仗手法，第七、八句的“威靈”與“列侍”、“瞻”與“寫”、“廟像”與“豪賢”互相對應。第七句的“廟像”指信武殿的真宗神禦，“威靈”是真宗神禦洋溢着威嚴與靈氣的意思。第八句的“賢豪”指的是締結澶淵之盟時的寇準等功臣。

想必在信武殿供奉着真宗神禦，還掛着締結澶淵之盟時的功臣寇準等人的畫像。劉敞的〈朝謁信武殿二首〉中的第一首描寫真宗，第二首的“天下安危寄老臣，幄中談笑靜邊塵。丹青未備雲臺像，微管猶悲道路人”準是描寫寇準的肖像。因此可以窺見信武殿中還有寇準及其他功臣的畫像。

(六) 詩的第九、十句

“民獲耕桑利”，意思是百姓在安寧的環境中獲得了農耕和織布之利。

“時無斥堠勞”，意思是太平時代免除了偵察敵情的勞苦。

這兩句描繪了澶淵之盟以後的和平景象。“斥堠”，同“斥候”，偵察、候望之意（《漢語大辭典》），〈註釋〉也將“斥堠”釋為“同斥候，即偵察”。按，第九句對老百姓而言的，第十句對居住在邊方的人，包括軍人而言的。李慧娟將第十句釋為“百姓從此得以安心生產，再不用被派到遠方偵查敵情”，這

種解釋也可以通。

(七) 詩的第十一、十二句

“金縢比干櫓” 意思是將所送去的金銀綢緞與邊備支出相比。

“未損一牛毛” 意思是其損失不及九牛一毛。

〈註釋〉將“金縢”釋為“縢，古絲織品總稱，即金銀財物”，即指澶淵之盟以後北宋送給遼國的銀、絹等歲幣。“文淵閣本的“干櫓”，中華書局本作“千櫓”。〈註釋〉依從中華書局本寫作“千櫓”，釋為“櫓，望樓，即邊防哨所。千櫓是指很多的邊防哨所”。盡管〈註釋〉的這一解釋也說得通，但若將“櫓”釋作“望樓”，就有與第十句的“斥堠”相重複之嫌，與全詩的意境不相吻合。《漢語大辭典》將“干櫓”釋作“小盾大盾，亦泛指武器”，這裏指邊備支出，只有將它記作“干櫓”而不是“千櫓”，才與日常的語言表現相一致，使得詩的意境更順利。“一牛毛”應為“九牛一毛”的省稱，在這裏“金縢”與“九牛”、“干櫓”與“一毛”意義上互相對應，強調宋朝損失之極少。李慧娟將這兩句釋為“宋給遼的歲幣占宋朝整個財政收支的比例并不多，還不到九牛一毛，就使宋遼間化干戈為玉帛，消除了遼對宋的侵擾”。³²⁾ 筆者也同意她的解釋。

三、結語

本文校釋內容歸納如下：

(一) 詩題〈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

潭州，文淵閣本與中華書局本的《蘇魏公文集》均作“潭州”，但這是澶州之訛。潭州指的是今湖南省長沙，但潭州偏離北宋元豐三年以前的奉使路線，位於遙遠的南方。澶州有供奉真宗神禦的信武殿，在蘇頌以前使遼的劉敞與沈遘曾寫回首澶淵之役的題為〈朝謁信武殿二首〉與〈信武殿〉的詩篇，這為筆者的推測提供了依據。

張宗益，從蘇頌的〈前使遼詩〉與韓琦、文同的詩可以看出他在熙寧元年

32) 李慧娟，前引論文。

前後供職於澶州、河間府、相州等地，也就是說，他在北宋河北路任職多年，胡宿認為他是足以勝任河北東路防務的朝臣。

(二) 第一、二句：“夷裔陵邊久，文明運算高”

這是贊頌北宋高明的外交政策的詩句，筆者依從既往的解釋。

(三) 第三、四句：“三冬馳日禦，一夜隕星旄”

描寫了真宗親臨澶州以及遼將的陣亡。這可以通過沈遘的〈信武殿〉詩及王安石的題為〈澶州〉的五言古詩與七言古詩得到確認。

(四) 第五、六句：“從此通戎賂，於今襲戰袍”

贊頌了澶淵之盟的結果：與契丹溝通了財貨交流之路，而戰袍也沒處使用的。

(五) 第七、八句：“威靈瞻廟像，列侍寫賢豪”

瞻仰信武殿的真宗及其他大臣的畫像，並贊揚他們。劉敞的〈朝謁信武殿二首〉贊頌真宗與寇準，這為筆者的推測提供了依據。

(六) 第九、十句：“民獲耕桑利，時無斥堠勞”

描寫了時局的和平使百姓的生活得到改善，筆者依從既往的解釋。

(七) 第十一、十二句：“金繒比干櫓，未損一牛毛”

強調向遼供出的歲幣遠遠比不上武器的費用，贊揚了對遼和平外交，筆者贊同既往的解釋。不過中華書局本的“干櫓”應是“干櫓”之訛。〈註釋〉將“櫓”釋作“望樓”，這樣一來與第十句的“斥堠”意思上相重複。所以文淵閣本的“干櫓”是正確的。

筆者的此篇文章，與理解宋之歷史及地理有着密切關聯，但對這些方面，筆者的理解有限，因而這篇文章可能會發生許多錯誤，敬請先進諸賢指教。

[參考文獻]

蘇頌,《蘇魏公文集》(文淵閣四庫全書)

蘇頌,《蘇魏公文集》(北京,中華書局,2004)

王安石,《王荊文公詩李壁註》(上海,上海古籍,1993)

蔣祖怡、張滌云,《全遼詩話》(長沙,岳麓書社,1992)

- 趙永春,《奉使遼金行程錄·前後使遼詩》(吉林,吉林文史出版社,1995)
- 傅樂煥,《遼史叢考》(北京,中華書局,1984)
- 李之亮,《宋河北河東大郡守臣易替考》(成都,巴蜀書社,2001)
- 李燾,《續資治通鑒長編》(北京,中華書局,1986)
- 楊靜,《北宋使遼詩研究》(南京師大碩士論文,2003)
- 趙永春,〈略論蘇頌使遼〉,《松遼學刊》社會科學版,1991年3期。
- 陳予彬、齊敬,〈蘇頌使遼詩註釋〉,《承德民族師專學報》,1993年2期。
- 王水照〈論北宋使遼詩的兩個問題〉,《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19:2(1992)
- 曹樹森,〈蘇頌與宋遼關係〉,《吉林師範學院學報》,1995年7期。
- 李慧娟,〈蘇頌與北宋的對外關係〉,《長春師範學院學報》20:1(2001)
- 胡廷榮,〈遼中京至廣平甸捺鉢間驛館考略〉,《中國邊疆史地研究》14:1(2004)
- 拙稿,《王安石詩歌文學研究》(首爾大學博士論文,1992)
- 拙稿,〈王安石使行詩考—在宋國境內寫的詩〉,《中國文學》43輯(2005)
- 拙稿,〈王安石奉使詩考辨〉,《中國語文論叢》29輯(2005)
- 拙稿,〈王安石的河北民試析〉,《中國文學》44輯,韓國中國語文學會(2005)

[中文提要]

(一) 詩題〈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

潭州:文淵閣本與中華書局本的《蘇魏公文集》均作“潭州”,但這是澶州之訛。潭州是今湖南省長沙,但潭州偏離北宋元豐三年以前的奉使路線,位於遙遠的南方。澶州有供奉真宗神禦的信武殿,在蘇頌以前使遼的劉敞與沈邁曾寫過〈朝謁信武殿二首〉與〈信武殿〉的詩篇。

張宗益:從蘇頌的〈前使遼詩〉與韓琦、文同的詩可以看出他在熙寧元年前後供職於澶州、河間府、相州等地,胡宿認為他是足以勝任河北東路防務的朝臣。

(二) 第一、二句:“夷裔陵邊久,文明運算高”。這是贊頌北宋高明的外

交政策的詩句。

(三) 第三、四句：“三冬馳日禦，一夜隕星旄”。描寫了真宗親臨澶州以及遼將的陣亡。這可以通過沈邁的〈信武殿〉詩及王安石的題爲〈澶州〉的五言古詩與七言古詩得到確認。

(四) 第五、六句：“從此通戎賂，於今襲戰袍”。贊頌了澶淵之盟的結果：與契丹溝通了財貨交流之路，而戰袍也沒處使用的。

(五) 第七、八句：“威靈瞻廟像，列侍寫賢豪”。瞻仰信武殿的真宗及其他大臣的畫像，並贊揚他們。劉敞也曾在〈朝謁信武殿二首〉詩裏贊頌過真宗與寇準。

(六) 第九、十句：“民獲耕桑利，時無斥堠勞”。描寫了時局的和平使百姓的生活得到改善。

(七) 第十一、十二句：“金繒比干櫓，未損一牛毛”。強調向遼供出的歲幣遠遠比不上武器的費用，贊揚了對遼和平外交。中華書局本的“干櫓”應是“干櫓”之訛。

[국문 요약]

① 詩題: 〈和國信張宗益少卿過潭州朝拜信武殿〉

潭州: 文淵閣本과 中華書局本의 《蘇魏公文集》에서의 표기는 모두 “潭州”이지만, 이는 “澶州”의 오키이다. 潭州는 湖南省의 長沙를 가리키는데, 이 潭州는 北宋 元豐3년 이전의 奉使路線과는 동떨어진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澶州에는 眞宗의 神御를 모신 信武殿이 있었고, 蘇頌에 앞서 出使했던 劉敞과 沈邁가 澶州에서 澶淵之役을 회상하며 각각 〈朝謁信武殿二首〉와 〈信武殿〉을 지었다는 점은 필자의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張宗益: 蘇頌의 〈前使遼詩〉와 韓琦·文同 등의 시로부터 그가 熙寧 원년을 전후하여 澶州·河間府 (및 相州) 등지에서 봉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北宋 河北路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胡宿은 그를 河北東路 방어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

② 제1·2구: “夷裔陵邊久, 文明運算高.” 北宋 외교정책의 고명함을 찬양

한 것이다. 필자는 기존의 해설을 따른다.

③ 제3·4구: “三冬馳日御, 一夜隕星旄.” 眞宗의 澶州 親臨과 遼나라 장수의 사망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각각 沈邁의 〈信武殿〉 및 王安石의 五古와 七古의 〈澶州〉 두 수의 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④ 제5·6구: “從此通戎路, 于今襲戰袍.” 澶淵之盟의 결과 遼나라와 교역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종식되었음을 읊고 있다. 필자는 기존의 해설을 따른다.

⑤ 제7·8구: “威靈瞻廟像, 列侍寫賢豪.” 信武殿에 안치된 眞宗과 신하들의 초상화를 보고 그 모습을 찬양한 것이다. 劉敞이 〈朝謁信武殿二首〉에서 각각 眞宗과 寇準의 초상을 찬양한 점은 필자의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한다.

⑥ 제9·10구: “民獲耕桑利, 時無斥堠勞.” 평화의 결과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요나라에서 침공해 올 염려가 없어졌다는 점을 묘사했다. 필자는 기존의 해설을 따른다.

⑦ 제11·12구: “金繒比干櫓, 未損一牛毛.” 遼나라에 보내는 歲幣는 무기의 비용보다 훨씬 작다는 점을 강조하며 遼나라와의 평화관계를 찬양한 것이다. 필자의 의견은 기존의 해설과 같다. 단 “干櫓”를 中華書局本에서는 “千櫓”라 표기했고, 〈蘇頌使遼詩注釋〉에서는 “櫓”를 “望樓”로 풀이했지만, 그럴 경우 “櫓”는 제10구의 “斥堠”와 의미상 중복된다. 文淵閣本의 표기인 “干櫓”가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主題語: 蘇頌, 使遼, 使遼詩, 信武殿, 澶州, 潭州

투고일: 2008. 10. 25.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中國 古典戲曲에 나타난 바다이미지*

吳 昶 和**

— < 목 차 > —

1. 들어가는 말
2. 바다의 원형이미지
3. 色彩美感의 바다
4. 靜中動의 바다
5. 佛敎와 바다
6.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 고전희곡은 기본적으로 歌舞劇의 포맷에 연출을 전제로 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발달하였고, 詩的인 象徴性이 풍부하고 대중적인 언어와 생활, 감정 등이 잘 반영되어 예술적인 우월성과 문학적 친화력이 강한 장르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중국 고전희곡은 텍스트적 표현양상이나 무대연출 양식이 다양하고 복잡하다.¹⁾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성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o1129@ks.ac.kr)

1) 劇本의 효용성에 따라 「場上之戲」, 「案頭劇」으로 나눈다거나 唱腔의 운영방식에 따라 「秦腔」, 「崑腔」, 「梆子腔」 따위로 나누고, 희곡음악의 地緣에 따라 「南曲」, 「北曲」으로 나누고, 창작주체와 음악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雜劇」, 「傳奇」, 「花部戲」로 나누고, 각 지방별로 언어 및 향토적인 특색을 갖춘 「京劇」이나 각종 「地方戲」가 있는 등 고전희곡의 지도를 그리는 일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도 언어 그 자체이다. 한편의 희곡작품을 창출하기 위해서 작가는 다양한 형태의 전통적인 문학언어 및 문화언어를 복합적으로 구사할 줄 알아야 하고, 이것을 다시 연출을 전제로 한 무대언어로 치환하기 위한 고도의 예술적 프로세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언어 속에 작가의 심미의식과 주제사상이 담겨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근 사계에서는 중국 고전희곡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아우르는 심미언어의 키워드를 발굴하고 그 속에 수용된 이미지의 지도를 그리는 시도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

본고 역시 심층적인 텍스트 읽기를 가능케 해주는 심미언어의 성격과 의미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서 중국 고전희곡 가운데 대륙적 기질의 중국인이 역설적으로 동경하고 낭만을 추구했던 바다가 어떻게 수용되고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미대상으로서의 바다에 대한 중국인의 문화의식이나 역사의식이 어느 정도였으며, 이런 바다에 대한 모든 인문의식이 해양-해양문화-해양문학-해양학으로 확대생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없는지 스캔해보는 작업은 일정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중국 고전희곡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가 어떠한 언어와 구조미학을 통해 바다와 인간, 바다를 통한 인간의 삶과 감성이 투영된 문학의 밑그림을 그리는데 기능하는지, 실제 무대연출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심미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시발점을 삼고자 한다.

본고에서 취한 중국 고전희곡은 주로 元·明·清代의 雜劇 및 傳奇 작품 중에서²⁾ 「海語」³⁾를 중심으로 서사배경이나 심미주체의 話語로서의 바

2) 본고는 《六十種曲》을 비롯하여 《孤本元明雜劇》·《元曲選》·《墨憨齋定本傳奇》·《盛明雜劇》·《聊齋志異戲曲集》·《阮大鍼戲曲四種》·《李笠翁喜劇選》·《古柏堂戲曲集》·《蔣士銓戲曲集》 등을 취재의 범주로 삼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質量도 매우 제한적인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취재의 범주가 중국 고전희곡 전반에 미치지 못하여 바다와 관련한 중요한 스토리나 표현을 놓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이하 바다와 직접 연관된 용어를 통틀어 「海語」라는 말로 축약해서 표현하

다가 갖는 이미지를 분류해 보면서 그 의미와 성격을 소략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바다의 원형이미지

2.1. 바다는 넓고 깊다. 굳이 바다를 「大海」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바다는 그 자체로 넓다. 이 넓고 깊은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며, 만물의 귀속이라고 할 수 있다. 바다는 그만큼 풍요롭고 아기자기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공간이고, 인간은 바다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바닷길을 통해 다른 공간으로의 유기적인 교통, 연락이 가능하기에 바다는 끊임 없이 인간에게 접촉과 도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다. 바다는 어부들이 고기를 낚아 생계를 유지하고 해상들의 교역을 통해 물자조달을 하는 산업의 통로였으며, 바닷물을 막아 소금을 만드는 염전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이익을 남겨 주었다. “掘山煮海, 利尽鱼盐(산을 파고 바닷물을 증발시켜 물고기와 소금으로 온갖 이득을 다보았다).”⁴⁾는 말에서 바다의 생산성을 엿볼 수 있다.

2.2. 육지에서 바다로 진출한다는 것은 교통수단이나 여행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인의 의식구조로는 매우 진취적이고 과감한 선택과 의지, 강인한 체력과 행동이 뒤따라야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서 바다로의 「航海」는 어떤 목표의식이나 사명이 뚜렷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은

였고, 본고에서는 범위를 좁혀 「海語」 중에서 특히 「海」자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언어적 표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海語」의 개념유추는 清代 屈大均의 《廣東新語》(歷代史料筆記叢刊本, 中華書局, 1997.12)를 모델로 하였다. 이 책에서는 강이나 바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어를 「水語」·「舟語」·「鱗語」·「介語」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神語」·「宮語」·「禽語」 등에서도 강이나 바다와 연관된 건축물이나 동물, 미신 등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고는 이러한 용어 중 바다와 연관된 용어를 종합적으로 「海語」라는 개념으로 한 군데에 모아 보았고, 明·清代 고증문헌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俗語·成語類의 문학언어 등도 「海語」의 범주에 넣어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4) 《浣紗記》 第四出 <伐越>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연안지역의 어부들이나 외부 세계와의 교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航海」가 생업을 위한 수단이었고, 해안을 방위하는 수군의 「航海」는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짊어진 무거운 책무였다.

2.3. 중국은 예로부터 동북부에서 동남부에 이르는 광범한 해안선을 구축하며 바다와 접해 있었다. 그만큼 중국은 일찍부터 바다와 밀접한 생활공간과 양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륙적인 지리환경의 영향을 받고 형성된 원시문화의 발전단계에서 바다보다는 강이나 산, 평원 지대가 삶의 터전으로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해양문화는 농경문화나 수렵문화보다 항상 뒤처지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은 강하를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한 태생적인 환경과 바다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및 마음대로 바다를 향해할 수 있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오랜 세월 바다를 외경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강이나 산을 중심으로 한 대륙문화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해야 하는 해양문화를 압도한 것이다. 그러나 해양문화는 황하, 장강, 대운하를 통해 일구어 온 하상문화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대륙의 동부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바다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접근이 가속화되면서 바다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바다를 체험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바닷길을 통한 교통, 교역이 확대되어 생활의 터전으로 바뀌고, 바다의 잠재생산성에 주목하여 미지의 세계, 미지의 산업을 개척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2.4. 상상 속의 바다나 직접 체험한 바다는 자연스럽게 문학예술의 話語로 표현되었고, 바다에 대한 심미범주를 확장하면서 수사언어의 의미와 개념이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다양한 표현의 「海語」는 詩文은 물론이고 소설, 희곡 등 속문학적 요소가 강한 문학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小生湖海飄零，數年沒一陌紙錢報俺父母(소생은 강호를 떠돌아다니느라 수년 동안 단 한 푼도 우리 부모에게 보답하지 못했소).”(《南西

廂記》第六齣〈禪關假館〉)

“连年江海空奔走，往事休回首(여러 해 동안 강호를 부질없이 분주히 돌아다니느라 지난일은 돌이켜 보지 못했소).”(《浣紗記》第二十三齣〈迎施〉)

“所谓载华岳而不重，镇河海而不泄，其在兹與(이른바 화산을 짊어져도 무겁지 않고 하해를 눌러도 물 한 방울 새지 않게 한다던데, 그런 자가 여기에 있는가?)”(《邯鄲記》第十四齣 东巡〉)

이상의 예문에서 보듯이 「江湖」와 같이 넓은 세상을 뜻하는 「湖海」·「江海」·「河海」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심리적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다는 접근성과 표현성에 있어서 江河山川·湖水보다 단조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대륙에는 바다를 연상시킬 정도로 규모가 큰 호수와 강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바다에 대한 동경과 감각적 체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심미기제가 강과 바다, 호수와 바다의 자연스런 연결을 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黄河·长江·钱塘江·洞庭湖·西湖 등이 문학작품 속에서 바다의 대체된 심미 공간으로 등장하는 것도 그런 배경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5. 문자 그대로 넓고 깊은 바다이미지의 본색을 잘 나타내는 海語로서 중국 고전희곡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역시 「海洋」·「大海」·「深海」등이다.

- ① “今日就在此江心渡口上船，明日侵早开港出洋(오늘은 이곳 강 가운데 나루터에서 배에 오르고, 내일 이른 새벽에 항구를 떠나 넓은 바다로 나아가리라).”(《荆钗记》第二十五齣〈发水〉)
- ② “明日动船，开洋过浅，願一阵好风，急去登福建(내일 배를 움직여 넓은 바다로 나아가 물길을 가를 터인데, 순풍을 만나서 하루 속히 복건 땅에 상륙하기를 바라노라).”(위와 같음, 第二十六齣〈投江〉)
- ③ “凭君挽尽海洋波，难洗奸名千载愧(그대가 넓은 바다의 파도를 다 거두어들인다 한들 천추의 부끄러운 간신배의 이름을 씻기는 어려울 것이오).”(《鸣凤记》第三十七齣〈雪里归舟〉)

- ④ “撐駕小舟归大海(조각배를 몰고 대해로 나아간다).”(①과 같음)
 ⑤ “一葉浮萍归大海, 人生何处不相逢(낙엽 하나 물위에 떠다니는 마
 림도 큰 바다로 흘러드는데, 인생이 어느 곳에서인들 서로 만나지
 못하리)”⁵⁾(《寻亲记》 第三十二齣 <相逢>)

①의 「開港出洋」, ②의 「開洋過淺」, ③의 「海洋波」에서 「洋」이나 「海
 洋」은 동일한 의미로 넓은 바다를 가리키고 있다. 「海洋」에서 「海」는
 깊이를, 「洋」은 넓이를 뜻한다. 따라서 「海洋」이란 깊고 넓은 바다를 가
 리키는 말이 되는 것이다. 「海」자를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삼 水邊에 어
 미 母가 결합되고, 그 위에 사람 人이 떠있는 형상, 즉 어머니란 물의
 품속에 사람이 안겨있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⁶⁾는 해석이 가능하다.
 ①의 바다는 강에서 준비를 마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치밀한 준
 비성을 보여주는데, 미구에 바다에서 당할 사건에서 구사일생 살아남는
 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 ②의 바다는 순풍을 만나 소기의 목적지에 한
 시 빨리 도착하고 싶은 주인공의 심정이 담겨 있다. 바다는 항상 인간
 에게 순응할 것을 요구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의지대로 바다를
 지배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법인데, 이 극에서는 주인공이 철
 저히 바다에 순응하는 지혜로움과 자기절제를 보여준다. ③의 바다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엄청난 과오를 범한 간신배의 입장에서 과거를 불식
 하고 싶더라도 그것이 바닷물을 다 쓸어담을 정도의 정성을 들이고 뉘
 우쳐도 쉽사리 명예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 주는 내
 용이다. 이는 바다의 형체논리를 비유수법에 잘 적용한 사례이다. ④의
 「大海」는 「小舟」와 대비되어 작은 배를 타고 큰 바다로 무모한 항해에
 나서는 주인공의 담담한 심정이 기탁되어 있다. 인간세상에서 때로는 「

5) 이 시구는 《寻亲记》 이외에도 《千金记》 第十六齣 <思汉>, 《鸣凤记》
 第十二齣 <桑林奇遇>, 《南西厢记》 第三十二齣 <泥金报捷>, 《三元记》
 第十三齣 <秉操> 등에서 문자의 출입은 있으나 대동소이한 표현으로 구사
 되고 있는데, 너무 자주 인용되어 상투적인 감이 없지 않으나 당시 유행하던
 시구로서 인구에 회자되는 인상 깊은 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6) 이상, 황을문, 《해양문학소요》(도서출판 전망, 2001.8), p.143에서 참고.

滄海一粟」의 미물과 같은 존재로서 「大海撈針」, 「大海尋針」의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의 심정은 두렵고 떨리게 마련이다. 이 대목은 그런 심정을 紙背에 칠하고 있는 것이다. ⑤의 「歸大海」는 ④의 「歸大海」와 심미경계가 다르다. ④의 바다가 무모함을 보여주는 행위로 연결되는 것과는 달리 ⑤의 바다는 모든 만물이 바다로 회귀한다는 뜻에서 바다의 공간적 의미를 인간 세상에 비유하여 세상을 떠돌다가 보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낸 말이다. 육지나 강을 통해 흘러드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바다의 모성애적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적인 동경을 하도록 만들고, 바다의 항구적이고 긍정적인 포용력은 인간에게 항상 歸巢感을 갖게 만든다.

중국 고전희곡에서는 이러한 海語가 바다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주로 話者의 수사어로 사용되어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2.6. “一任我雲海逍遙(나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구름바다를 슬슬 거닐며 다닌다).”⁷⁾, “咱兩個, 是雲海浮沉, 烟峦笑傲(우리 두 사람은 구름 바다에서 떠올랐다 잠겼다 했고, 안개 낀 산에서 세상을 비웃으면서 농질을 하였지).”⁸⁾에서 「雲海」는 인간세상과 동떨어진 오염되지 않은 자연세계를 견준 말이다. 다시 말해서 「雲海」의 字面的인 이미지를 한 차원 높여서 비유어로 사용한 것이다. 「雲海」의 심미대상이 구름이 주체인가, 바다가 주체인가, 또는 양자의 交融인가에 따라 詩的 情感이 달라진다. 전자는 높은 곳에 올라 아래로 바다처럼 넓고 아득하게 깔린 구름을 내려다보는 경치를 연상해볼 수 있다. ‘바라보다’라는 행위가 시각의 동선과 심미대상과의 거리감을 상쇄하고, 행위의 장소가 육지에서가 아니라 창공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경우보다 입체적인 관조의미를 느낄 수 있다. 후자는 바다나 호수의 수면이 구름에 닿아 보이는

7) 《明珠记》 第九齣 <拒奸>

8) 《明珠记》 第三十二齣 <賣藥>

경치를 형용하거나 먹구름에 싸인 바다, 몽게구름이 등실 떠가는 바다를 그려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바다가 멋지게 보이기도 하고, 구름이 멋지게 보이기도 한다. 구름과 바다의 풍치가 어우러져서 어느 경관이 더 멋있다고 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雲海」는 그만큼 시적 여운을 많이 남기는 海語인 셈이다.

2.7. “徘徊醉踏花满阶，夜深秉烛春如海(얼큰하게 취하여 배회하다가 계단에 수북이 쌓인 낙화를 밟으니, 야심한 시간에 촛불을 들고 보는 봄이 바다와 같구나).”⁹⁾에서 바다처럼 봄이 만연되어 있다는 뜻의 「春如海」나 “幾多心事，拈香拜天都诉與，海月空驚人两处(마음이 심란하여 향불을 집어 들고 하늘에 절을 하며 하소연하였더니, 바다위에 뜬 달은 공연히 놀라 내 님 곁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구나).”¹⁰⁾가 그리고 있는 「海月」은 바다의 자연적인 이미지에 의인화의 수사기법으로 회화적인 덧칠을 한 시적인 표현이다.

2.8. 상술한 바다의 일반적인 공간이미지에 사회적, 인문적인 이미지가 가미되면서 이미지의 심도는 더욱 깊어지고 채도도 더욱 선명해진다. 중국 文史자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四海」는 원래 동서남북 사방의 바다라는 뜻이지만 사회적 이미지가 가미되어 중원의 외곽을 감싸고 있는 사방의 바다 안팎, 곧 광역화된 천하를 나타내는 말로 고전희곡 가운데에서도 자주 사용된다. 《琵琶記》에서 황제의 조서 중에 천하 백성을 상대로 표현한 「四海」가 바로 그런 보기이다.

“(외)황상의 교지가 도착하여 선독을 할 터이니 예를 갖추고 들으시오.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은 풍속을 교화의 기틀로 삼고, 효도를 풍속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 성현의 말씀으로부터 날이 갈수록 멀어져서 좋은 풍속이 날이 갈수록 이반되고, 패륜이 자심하니 짐의 마음이 매우 안타깝도다. 여기에 효도와 의리를 다하고 교화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장려하여 천하 사방에 권면하지 않을

9) 《琴心记》 第七齣 <挑动琴心>

10) 《红拂记》 第二十九齣 <拜月同祈>

수 있겠는가. ……천하 사망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이 사람을 모범으로 삼게 하고, 두고두고 기리도록 하라.”

“[外]聖旨已到, 跪聽宣讀. 皇帝詔曰: 朕惟風俗爲教化之基, 孝弟爲風俗之本. 去聖逾遠, 淳風日漓, 彝倫攸斁, 朕甚憫焉. 其有克盡孝義, 敦尚風化者, 可不獎勵, 以勉四海. ……使四海億兆, 皆當儀刑斯人, 垂範將來.”(《琵琶記》 第四十二齣 <一門旌獎>)

여기서 「四海」는 황제의 권위와 교화가 미치는 통치지역인 이른바 中原을 가리킨다. 사실 바다와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海語의 개념상 범주가 넓다는 이미지가 강한 표현이다. 이에 반해서 《蜃中樓》의 “四海無家不說貧, 飢來誰敢飯王孫(집도 없는 빈털터리라도 가난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 배가 주린들 누가 감히 나에게 밥을 주리오)?”¹¹⁾에서의 「四海無家」는 앞서의 「四海」보다 스케일이 좁은 이미지의 성어적인 표현이다. 여기서 「四海」는 내가 사는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정된 이미지로 기능한다. 「어디를 가도 빌붙을 곳이 없다」는 빈털터리 신세를 가리키는 말로 떠돌아다니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四海爲家」와 의미상으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四海爲家」는 의미의 轉喻의인 확대해석이 되어 온 천하를 자기의 집으로 삼다는 뜻에서 제업이 크고 풍부한 것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다.

2.9. 「海上」이란 원래 ‘바닷가’와 ‘바다 위’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말인데, 흔히 동적인 공간지향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가령, “东归燕从海上來, 南來雁向沙頭落(동녘에서는 바다로부터 제비가 돌아오고, 남

11) 《蜃中樓》 第二齣 <耳卜> 이 대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王孫」이 언급된 고사를 알아야 한다. 《史記淮陰侯列傳》에 보면, 劉邦의 천하통일을 도운 韓信이 젊었을 때 생활이 너무 곤궁하여 세탁을 하는 이웃집 늙은 아낙에게 끼니를 때울 밥을 달라고 하면서 그 은혜는 잊지 않고 훗날 후사하겠다고 다짐한다. 늙은 아낙은 “내가 왕손을 측은하게 여겨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인데, 어찌 보답을 바라겠습니까(吾哀王孫而進食, 豈望報乎)?”라고 말한다. 李漁는 이 고사를 원용하되 막상 이 극의 주인공 柳毅의 말에서는 柳毅 자신은 비록 가난하지만 선비로서 궁지가 있기 때문에 왕손인 한신이 밥을 얻어먹은 것처럼 빌어먹지는 않을 것이니 아무도 감히 자기를 깔보지 못할 거라고 자긍심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돌려대는 제치를 발휘하였다.

넋에서 날아오는 기러기는 모래톱에 내려앉네).”¹²⁾에서는 「海上」이 「沙頭」와 對를 형성하여 회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축·정)대감마님, 무슨 분부신지? (생)배에서 내려 호수를 가로질러 바다로 가야겠다. (축·정)대감마님, 해상에서 어느 쪽으로 가시려는지요? 만약 바다로 나가시면, 북풍은 광둥으로 불고, 서풍은 일본으로 불며, 남풍은 제나라로 불 것입니다. 오늘은 마침 남풍이 부는군요. (생)남풍이 분다면 제나라로 가야겠구나. (축·정)마님, 배에 오르시지요.”

[丑·淨]相公有何分付? [生]我要下船, 过湖中往海上去. [丑、淨]不知相公海上要到那一方? 若出了海, 北风往广东, 西风往日本, 南风往齐国. 今日恰是南风. [生]既是南风, 就往齐国去罢. [丑·淨]请相公夫人登舟.”(《浣纱记》 第四十五齣 <泛湖>)

《浣纱记》의 이 대목에서 「海上」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등장인물의 동적인 움직임과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호수를 지나 바다로 나아가야 하지만 바람에 의지해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말 속에서 막막한 바다의 이미지가 연상되며, 등장인물의 무기력한 처지의 상황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

「海上」과 유사하지만 天上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는 「海頭」는 시적인 맛이 더 강하게 풍긴다. “风潇潇, 雨漠漠, 魂飞障海头, 骨冷蠻山角(소슬하게 부는 바람, 부슬부슬 내리는 비, 혼은 날다가 바다 끝에서 가로막히고, 뼈는 차가워져 산모퉁이에 널부러지네).”¹³⁾이나 “愁雲障海头, 月冷空闺裡(시름에 겨운 구름 저 바다 끝에서 막히고, 텅 빈 규방에 달빛만 차갑구나).”¹⁴⁾에서 그러한 심미경계를 읽을 수 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끝없이 펼쳐진 모습은 바다의 장관을 이룬다. “趁风帆海天無际(돛단배가 바람을 타고 하늘과 맞닿아 가없는 바다를 달린다)

12) 《浣纱记》 第三十四齣 <思忆>

13) 《寻亲记》 第十七齣 <遥奠>

14) 《寻亲记》 第二十五齣 <训子>

.”¹⁵⁾의 「海天」이 그런 경계를 표현한 것이다.

2.10. 「海底」, 「海中」, 「海內」, 「海外」, 「海邊」, 「海山」, 「海濱」, 「海岸」 등 바다의 방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말들도 중국 고전희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다. 다음 《紅拂記》에서 「海中」은 단순한 공간적 개념으로서 「바다 가운데」라는 일차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심미공간으로서의 함축적인 이미지가 부여된 표현이다.

“(생)단이 퇴장 한다. (외)형님, 이제 저와 헤어지면 어디로 가실 참이 십니까? (정)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구먼. 내가 자네를 따라 다니면서 대업을 함께 이루고자 기대했었는데, 나 홀로 바다로 나가 한 걸음 물러날 길을 찾으려하네. 자네 일마저도 그르칠 줄 뉘 알았겠나. 이제 하는 수 없이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자네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밖에 없게 되었네. (외)형님, 형님은 과연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바다 가운데 부여라는 나라가 있소. 그 나라 임금의 어리석어 민심이 떠난 지 오래되었답니다. 내가 줄곧 이곳에 마음을 두고 그 산천민속을 탐문하여 모두 익혀놓았소.”

“[生]旦下, [外]道兄, 你如今別我往那裡去? [淨]事到其間, 不得不說了. 我一向與你相從, 指望共成大業, 我自向海中尋個退步. 誰想連你的事也不成了, 如今只得把我的退步, 讓與你做個進步罷. [外]道兄, 你果是有心人, 只不知你所說是何處? [淨]海中有一國, 名曰扶餘. 其主昏亂, 民心久離. 我一向留意在此, 故其山川土俗, 訪問頗悉.”(《紅拂記》 第十六齣 <俊杰知時>)

주인공은 「진보」와 「퇴보」의 갈림길에서 「바다」를 진보적 개념이 아닌 퇴보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진보」, 즉 의동생의 성공을 위해 「퇴보」, 즉 의형으로서 양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의형인 虬髯客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동생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바다 너머 아주 멀리 외딴 곳으로 본거지를 옮기고자 한다. 한편 ‘바다 가운데 부여국이 있다’고 한 것은 夫餘國을

15) 《浣紗記》 第四十五齣 <泛湖>

島國, 즉 일본과 혼동한 것으로 보이며, 역사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다음 《千金記》에서의 「海山」은 「青山」과 달리 「바다가 바라보이는 산」이라는 표현으로서 아름다운 바닷가 밤풍경을 배경으로 배를 타고 가는 주인공의 신세타령과 연계되고 있다.

“(외)선생, 멋진 야경입니다. (생)마침 밤은 고요하고 깊어 가는데, 푸르른 산수를 마주하니 어슴푸레한 하늘에 구름만 한가롭군요. 둥그런 은두꺼비 바다가 바라보이는 산너머 떠오르고, 찬란하게 빛나는 옥도끼는 관문 위의 하늘을 비치네. 아아, 노를 저어 배를 몰고, 돛을 올려라. 노를 저어 배를 몰고, 돛을 올려라. 나는 세상에서 온갖 고초 다 겪었고, 푸른 창과에 의지하여 겨우 먹고 살았다. 나는 준마를 타고 산에 오르고, 외롭게 배를 몰며 차가운 바람에 떨었다. 나는 비단도포 구하였으나 홀옷에 떨었고, 풀잎 도롱이 옷은 마를 날이 없었네. 나는 하는 일없이 세월만 보내 귀밑머리 희끗희끗해졌고, 파수일만 보고 있노라니 파도만 잔잔하구나. 나는 화려한 비단옷은 꿈도 꾸지 못하고, 부질없이 낚싯대만 잡고 있노라. 나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했으니, 아, 이곳은 세속에서 벗어난 곳이라 명예와 잇속을 차리기 어렵네.”

“[外]先生, 好夜景. [生]恰夜静更阑, 对绿水青山, 正天淡雲闲. 明滴溜银蟾出海山, 光灿烂玉兔照天关. 呀, 撑开船, 挂起帆. 撑开船, 挂起帆. 俺红尘中受涂炭, 恁绿波中觅衣饭. 俺乘骏马去登山, 恁驾孤舟怯风寒. 俺锦征袍怯衣单, 恁绿蓑衣不能干. 俺空熬得两鬓斑, 一恁把守定水潺潺. 俺不能勾紫罗襴, 恁空执定钓鱼竿. 俺都不到这其间, 呀, 这是烟波名利大家难.”(《千金記》 第二十二齣 <北追>)

여기서 바다의 이미지는 상술한 「부여로 통하는 바다」와 같은 퇴영적인 색깔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11. 중국 고전회곡에서는 깊은 바다의 원형이미지를 살린 비유적인 표현도 자주 발견할 수 있다. “春闷好难捱, 毕竟情深似海(봄날의 답답한 심정을 견디기 어려운 것은 결국 바다처럼 정이 깊어진 탓입니다).”¹⁶⁾의 「情深似海」, “要思量窃玉偷香, 恨杀那侯门似海(남몰래 정을 통하고자 하지만 바다와 같은 저 고관대작의 집이 드나들기 어려워 때

우 원망스럽네).”¹⁷⁾에서 「侯門似海」¹⁸⁾가 그런 보기이다. “黃扉紫閣, 潭潭如海(누런 사립문에 자주색 칠을 한 누각, 바다처럼 깊은 연못).”¹⁹⁾에서의 바다 역시 누각과 연못이 어우러진 풍경을 표현하면서 연못의 중심이 아주 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견준 말로 사용된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고전희곡에서 바다의 원형이미지가 등장 인물의 심리상태를 부각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기 위해 다소 천편일률적인 수사방식이라는 인상을 주는 흠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작품에서 시적인 심미기제를 그대로 원용하거나 변용하는 수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色彩美感의 바다

3.1. 바다는 주위환경이나 시간, 날씨 등의 변화에 따라 미적 감각을 달리하는 색채의 가변성이 뛰어나다. 드넓은 공간에서 하늘과 바다는 조화의미를 선사한다. 「海天一色」의 경계미가 바로 그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하루의 기상에 따라 바다는 변화무쌍한 패션쇼를 한다. 탁트인 푸른 하늘에 드넓은 푸른 바다는 언제 보아도 보는 이의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 그 푸른 기상은 세상의 오염된 탁한 기운을 떨쳐버리고 카타르시스의 심미공간으로 몰입하고 싶은 심적 동요를 가져오기도 한다. 새벽에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를 때의 바다, 저녁에 해가 수평선 너머로 저물 때의 바다는 어느 누구도 그려낼 수 없는 한 폭의 거대한 풍

16) 《南西廂記》 第十三齣 <許婚借援>

17) 《玉簪記》 第十三齣 <求配>

18) 「侯門似海」는 고관대작의 집에는 드나들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내는데, 고관대작의 집이 바다처럼 넓어서 드나들기 어렵다는 것인지 고관대작의 집이 바다가 접근하기 어려운 것처럼 드나들기 어렵다는 점을 견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19) 《鳴鳳記》 第三十一齣 <陸姑救易>

경화를 그려낸다. 구름에 싸인 바다, 바람에 넘실거리는 바다, 폭풍우에 요동치는 바다는 동적인 미감을 동반한 특이한 색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바다의 색감은 때론 우아하기도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장엄한 기상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며, 지상에서는 좀체 경험하기 어려운 기이한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기도 한다. 바다의 색감은 그만큼 감각적이고 선명하다.

3.2. 우리가 흔히 보는 바다는 푸른 바다이다. 바다가 푸르다는 말은 심미적으로 신선하고 희망적이며 생산적이고 평안하다는 의식의 표출이라 하겠다. 반대로 바다가 푸르게 보이지 않고 검고 칙칙하게 보인다는 것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가지적인 공간이미지를 연출한다.

- ① “璇台虚敞，青天碧海开秋爽(호젓하게 탁 트인 누대, 푸른 하늘 푸른 바다에 상쾌한 가을바람이 부네).”(《红拂记》第五齣 <越府宵游>)
- ② “嗟，真自悔长生，靈药虽偷，碧海心空另(아이고, 정말로 오래 사는 것이 후회스럽다. 불로장생의 영약을 훔치긴 했지만 저 푸른 바다마냥 마음은 텅 빈 상태로구나).”(《琴心记》第二十三齣 <空闺永叹>)
- ③ “嘯蓬萊日月长，滄海任教枯，我的容颜长长如故(봉래에서 장구한 세월, 저 바다가 다 마르도록 노래를 불렀건만 나의 얼굴은 예전처럼 싱싱하구나).”(《玉镜台记》第二十齣 <郭璞仙术>)

이상의 보기에서 「碧海」, 「滄海」는 「바다」의 원형적 이미지인 푸른 바다가 철리적인 미감과 연계되어 의미의 승화를 이루고 있다. ①에서의 바다는 자연풍경과 건축물이 혼연일체가 되고, 상쾌한 가을바람은 물아일체의 경계에 처한 시인의 생기가 넘치고 여유로운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에서의 바다는 達人의 「空心」의 경계와 연결되어 있다. 불사약을 훔쳐 먹고 장생불로하는 신선이라도 마음만큼은 푸른 바다처럼 공허하다는 탄식은 보람이나 희망이 없이 마냥 나이만 먹는 것은 무의미한 것임을 깨달은 소치이다. 푸른 바다가 심오한 철리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것이다. ③에서의 바다는 세월의 무상을 대비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비유로 바다가 말라서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은 장구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당하더라도 선인의 경지에 든 주인공은 예나 변함없는 얼굴을 하며 유유자적할 것이라고 토로한다.

3.3. 「碧海」, 「滄海」의 바다 자체의 원형이미지만을 부각하는 표현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가령, “他有金滄海、銀泰山, 良田美屋千千萬(그는 금은보화가 바다처럼 널렸고, 태산처럼 많으며, 비옥한 문전옥답과 멋진 집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²⁰⁾의 「金滄海」라든지 “大王乃滄海之量(대왕은 바다와 같은 넓은 도량을 지니고 있다)”²¹⁾의 「滄海之量」, “量如滄海人難并(바다와 같은 도량을 지닌 사람과는 아우르기 어렵다)”의 「量如滄海」²²⁾, “從來兩眼空滄海, 慣看王母神仙仗(이제껏 두 눈은 바다처럼 아무런 욕심이 없이 서왕모의 신선지팡이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네)”²³⁾에서의 「空滄海」는 바다의 미색과는 상관이 없고, 넓은 바다라는 바다의 원형이미지만을 가져다가 단지 물량이 많다거나 기량이 뛰어난 것, 공허한 것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瓊舟銀海, 翻動酒鱗紅, 一飲盡教空(금직한 은쟁반에 은술병, 출렁이는 별건 술을 단숨에 몽땅 다 마셔버리네).”²⁴⁾의 「銀海」는 원래 은색의 해양이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한 되 이상의 술이나 물을 담을 수 있는 은으로 만든 용기를 그런 넓은 바다에 빗댄 것이다. 「瓊舟銀海」는 일견 정적인 이미지이지만 술병을 흔들며 비늘처럼 술표면이 출렁이게 한다는 「翻動酒鱗」의 동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져서 멋진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색채미감에

20) 《投梭記》 第八齣 <折齒>

21) 《千金記》 第十三齣 <會宴>

22) 《三元記》 第二十三齣 <格天>

23) 《明珠記》 第四十三齣 <榮封>

24) 《琵琶記》 第十齣 <杏園春宴> 「瓊舟」는 원래 문자적으로 옥으로 장식한 조각배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은으로 만든 쟁반이나 술을 담는 그릇을 나타내는 말로 차용된 것이다.

있어서도 「은색」의 은은하면서도 밝고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이 「홍색」의 자극적이고 탁하며 소박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술을 마시는 공간과 사람들의 위상이나 처지 등을 감지할 수 있다.

3.4. 《玉鏡台記》에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의 활약을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신화적인 비유로 표현한 대목들은 허황되게 생각되리만치 과장된 감이 없지 않지만 현실적인 구속과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와 호쾌한 기상을 느끼게 해준다. 가령, 第九齣 <石勒起兵>의 “氣崢嶸跨海噬長鯨, 喧吓吓飛騎過葱嶺(기세등등하게 바다를 건너며 긴 고래를 씹어먹고, 의젓하게 비마를 타고 총령을 넘어간다).”이나 第二十齣 <郭璞仙術>의 “一龍跨海, 江東定見中興(용이 일단 바다를 건너면 강동지역은 반드시 중흥되리라).”에서의 「跨海」가 바로 그것이다. 第十四齣 <石勒稱王>의 “挾太山而超海, 只作尋常; 舉九鼎而拔山, 豈足為異(태산을 끼고 바다를 건너는 것이 예사로운 일에 불과한데, 아홉 개의 큰 술을 들고 산을 들어 올리는 일쯤이야 어찌 기막힌 솜씨라고 하겠는가).”에서 바다를 건너간다는 「超海」의 경지는 바로 초인적인 힘의 상징적 표현이라 하겠다.

3.5. 「滄海」와는 달리 「黑海」, 「瘴海」, 「海冥」, 「愁海」 등은 바다의 부정적이고 암울한 면을 심미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黑海」는 어둠이 깔린 바다나 먹구름이 잔뜩 끼어 우중충한 기색을 보이는 바다를 나타낸다. “海黑山昏劍氣沉(바다는 칠흑 같고 산은 어두컴컴하여 검의 기운이 빠졌다)”²⁵⁾의 「海黑」이나 “昏鄧鄧黑海來深(어두컴컴한 것이 흑해처럼 깊구나)”²⁶⁾에서 「黑海」는 칠흑같이 컴컴한 바다를 형용한 말이다. 칠흑같이 컴컴한 바다는 모든 사물의 정기를 흡수해 버릴 기세이고,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막막하여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견주는 말로 곧잘 사용된다. “瘴海風濤險, 愁城煙霧深(나쁜 기운이 만연한 바다에서는 풍랑이 험하고, 시름에 빠진 성에서는 안개가

25) 《浣紗記》 第三十一齣 <定計>

26) 《北西廂記》 第七齣 <夫人停婚>

자욱이 끼었네).”²⁷⁾에서의 「瘴海」는 습하고 무더운 기운이 만연된 바다를 가리키고, “看聳翼翱翔到海冥(큰 날개를 펴리면서 넓은 바다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라).”²⁸⁾에서의 「海冥」은 막막하여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의 바다를 가리킨다. 「愁海」는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차있는 상태를 바다에 견준 것이다.

4. 靜中動의 바다

4.1. “稟大王娘娘, 出海了.”²⁹⁾의 「出海」나 “下海征高丽国”³⁰⁾의 「下海」는 바다로의 출항을 뜻하는 말이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행위 모색에서 이 양자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출진을 하는 모습이다. 배의 동적인 움직임은 정적을 깨고 파괴와 살상을 예고한다. 이와 반대로 「순풍에 돛단 배」는 파도가 잔잔한 바다에서 순항하는 배를 두고 한 말이다. 《天風引》 第三齣 <颶變>에서 “行船遇順風, 好個彩頭兒, 包管諸位客人一本萬利(배가 순풍을 만나 항해를 하니 좋은 징조군요. 틀림없이 손님 모두 이윤을 톡톡히 남기게 될 것입니다).”라고 한 대목에서 순항의 긍정과 희망을 읽을 수 있다.

“烽火城西百尺樓, 黃昏獨坐海風秋(봉화성 서쪽 높은 누각에 올라, 홀로 앉아서 해 저무는 저 바다의 가을바람을 맞이하네)”(《千金記》 第三十六齣 <解散>)

“登舴艋, 涉滄溟, 且放眼蓬壺妙境. 拓詩懷, 開畫幃, 高語蒼冥. 詠奇句, 教魚龍聽(작은 배를 타고, 망망한 바다를 건너가는데, 신묘한 경치가 눈에 차누나. 시심을 펼치고, 그림을 그리며, 흥겨워서 말소리가 높아

27) 《明珠記》 第二十八齣 <訪俠>

28) 《浣紗記》 第三十七齣 <同盟>

29) 《還魂記》 第四十五出 <寇問>

30) 《紅拂記》 第二十七齣 <奉征高麗>

지네. 기막힌 시구를 읊어 바다 속의 어룡에게 들려주고파.”(《神山引》 第二齣 <舟引>)

이상의 보기는 바다의 평화스럽고 고요한 가운데 다소곳한 움직임을 느끼게 해준다. 이른바 「靜中動」의 경계를 표현한 셈이다. 살랑살랑 부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백사장을 산책하거나 높은 누각에서 바다를 굽어 보며 풍경을 감상하는 낭만과 여유는 시적 감흥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4.2. 다음은 바다의 動的 경계가 더욱 강하게 표현된 것들이다.

- ① “金鼓动龙蛟, 海翻山倒(쇠북 소리에 교룡이 꿈틀하자 바닷물이 뒤집어지고 산이 넘어간다).”(《鸣凤记》 第三十二齣 <易生避难>)
- ② “一拳打破天边月, 翻身踢退海中潮(한 주먹으로 하늘에 뜬 달을 깨트리고, 다리 돌려차기를 하여 바다의 조수를 물러가게 한다).”(《南西厢记》 第十一齣 <乱倡绿林>)
- ③ “睽一睽海波翻, 混一混索琅琅振山岩(바다의 파도가 뒤집히면서 출렁출렁 산더미 같은 바위를 진동하는 것을 보라).”(위와 같음, 第十三齣 <许婚借援>)

①의 「海翻山倒」는 강과 바다를 뒤엎는다는 뜻의 「翻江倒海」와 마찬가지로 산을 가리고 바다를 막을 듯한 기세당당함을 비유한 성어이다. 여기서는 蛟龍의 동적인 위세를 과장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②의 「海中潮」는 「天边月」과 對句를 형성하고 있는데, 힘찬 무대동작을 펼치는 극중 배우의 動線을 역시 과장수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③의 바다는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서 바위에 부딪치는 형국을 통해 무자비하고 영악한 세력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간섭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동적인 바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격동의 바다가 되면 상황은 심각해지기 마련이다. 평탄한 바다에 격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아무리 튼튼한 배에 타고 있더라도 이보다 더 위태롭고 긴장되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배에 탄 사람들에게 공포와 근심을 안겨준다. 바다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배를 타고 이런 바다의 돌변성과 파괴성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충격과 공포를 잊을 수 없게 된다. 《明珠記》에서 “天般禍，海樣災(하늘과 같은 환란, 바다와 같은 재난).”³¹⁾라고 토로한 것은 이런 바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선형적으로 일러준다. 중국 속담에 “天下至計，莫于食；天下至險，莫于海(천하의 지극한 계책은 먹는 문제만한 것이 없고, 천하의 지극한 위험은 바다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이다.

4.3. 다음은 《神山引》에서 주인공이 탄 배가 순항을 하다가 폭풍우의 악천후 속에서 좌초되어 침몰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장면인데, 바다의 가변적 이미지와 위험에 처한 인간의 심리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 ① “眼看看浩蕩寰瀛，水連天，天接水，平原如鏡。霎時間浪急風鳴，踢翻身洪濤沸鼎(저 보세나, 가없이 넓은 바다 세상, 물은 하늘에 닿고, 하늘은 물에 접하여 거울처럼 평탄하더니, 삽시간에 풍랑이 거세지고 바람소리 요란해지며, 재주를 넘는 듯이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이, 술단지 속의 물이 끓어오르는 듯하네).”
- ② “風濤愈緊，船已傾仄。我們不要在艙裡，還是船頭上去。萬一不救，抱根大木，也可聽其浮沈(풍랑이 더욱 거세져서 배는 이미 기울었소. 우린 선실에 있지 말고 뱃머리로 올라갑시다. 만일 배가 침몰해도 큰 나뭇조각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물 위에 떠있을 수 있소).”
- ③ “我們全靠這些貨物，便是性命；貨物丟了，我們活也是死(우리는 이 화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목숨과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화물을 잃어버리면 우린 살아있어도 죽은 목숨이요).”
- ④ “撫胸臆神昏氣屏，念朋儔有死無生。破輿竈難完釜甌，腥皮囊定飽鯢鯨。憫體魄漂流湯漾，痛骸骨瑣碎零星(가슴을 쓸어내리며 정신이 혼미하고 기운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을 돌아보니 다 죽고 살아 남은 사람이 없네. 부엌이 부서지면 술이나 시루도 완전할 수 없는 법이고, 비린내가 나는 것은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의 밥이 되기

31) 《明珠記》 第二十二齣 <荻蔭>

마련이던가. 내 몸과 영혼이 정처없이 표류하고 있어 불쌍한 신세가 되었고, 죽은 이의 해골이 산산이 부서져서 나뒹굴게 되어 마음이 아프네.”(《神山引》 第二齣 <舟引>)

①~④는 바다에서의 조난사고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과정의 스케치라고 할 수 있다. 거울처럼 평탄하던 바다가 졸지에 솔 속의 물이 끓어오르듯 출렁이기 시작하자 충격을 받은 배가 급기야 침몰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다른 것은 모두 포기하고 단순히 목숨만을 부지하려는 사람과 재물을 잃을까봐 겁이 나서 차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대비시킨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주인공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재물에 연연하다가 배와 함께 빠져죽고 만다. 단신으로 목숨을 부지한 주인공은 신세가 처량해진 것을 인식하게 되지만 살아있는 자기보다는 오히려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는 죽은 사람들의 넋을 애통해 하며 살길을 찾아 나선다. 이 극에서 바다의 동적 이미지는 사뭇 부정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은 상생관계에 있다는 사실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극은 인간이 정적인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자연의 가변성과 역동성은 인간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주인공은 이런 악조건의 바다를 통해 이상세계를 찾아 가는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다. 결국 동적인 바다는 다시 정적인 바다, 화해의 바다가 되어 해피엔딩의 막을 내리게 된다.

4.5. 다음 《天風引》의 바다는 怒한 바다의 격동성이 잘 드러나 있고, 滅의 바다, 즉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배와 배에 실린 모든 재물마저 삼키고 파괴해 버리는 바다의 무자비성과 비타협성이 짙막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표현되었다.

“(안에서 바람소리를 낸다. 생)뇌성벽력이 난무하고 파도가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 좀 보시오, (웃는 시늉을 한다) 정말 장풍을 타고 끝없이

파도가 몰아치는구나, 멋지구나, 멋져; (손뼉을 치며 꺾꺾 웃는 시늉을 한다. 무대 안에서)폭풍이 부는구나, 어서 회항합시다, 어서 회항해! (생)엄청나게 큰 파도, 해도 가리고 하늘마저 몽땅 가릴 정도로구나! [나포가]집채만 한 파도가 출렁거리고 바람이 거세져서 파도도 더욱 거칠어지고, 파도는 바람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하네. (먼 곳을 바라보다가 놀란 시늉을 하며) 아! 저 앞의 배들은 파도를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자취마저 사라져버리는구나! 저 크나큰 배가 이미 난파되었으니, (탄식하는 시늉을 하며) 우리네 이 범선이 어찌 무사할 수 있겠소? (안에서 엄불을 외는 소리를 내고, 바다신에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생이 넘어지는 시늉을 하며) 이 내 몸이 배에 기대고자해도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렵구나. 물위에 나뭇가지 떠있는 것 같은 배가 되었으니 제멋대로 요동치게 놔두고, 운수소관에 맡기는 수밖에 없구나. (배가 전복된다. 여객 상인 뱃사람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비명을 지르고 물위에 떠다니는 사람들은 퇴장한다. 소생이 수졸들을 이끌고 나와 생을 껴안고 무대를 도는 장면을 연출하고 함께 퇴장한다)”

“(內作風聲. 生)你看激電奔雷飛花滾雪, (笑介)真是乘長風破萬里浪了, 快哉, 快哉; (鼓掌大笑介, 內)颶風起了, 快收港呵! 快些收港呵! (生)好大浪頭, 連日影天光都遮住了! **[羅袍歌]湧起洪濤萬丈, 更風添浪猛, 浪助風狂.** (遠望驚介)呀! 全面那些船隻, 先前還隨波起落, 此刻竟被浪打的影兒沒有了! **長舸大舶已殘傷,** (嘆介)俺這布帆怎必安無恙? (內齊聲念佛, 喊天妃娘娘³²)救命. 生跌介)身憑舟寄, 自難主張. 舟如梗

32) 「天妃娘娘」은 중국 남방, 특히 연해지방에서 여신으로 추앙하는 媽祖를 가리킨다. 마조는 송대 실존했던 林默이라는 여성을 신격화해서 부르는 이름이다. 그녀의 생졸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宋太祖 建隆元年(960년)에 태어나 宋太宗 雍熙四年(987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어려서부터神通한 능력을 보였고, 특히 해난사고를 당한 사람과 배를 구하는데 기적과 같은 일을 많이 해내어 생전에 神女, 龍女라고 불렸으나 불행하게도 나이 서른이 되기도 전에 태풍에 휩쓸려 죽고 말았다. 그녀의 선행과神通력을 기리던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升化」했다고 여기고 여신으로 추앙하게 되었다. 「媽祖」란 福建방언으로서 북방의 「奶奶」나 「娘娘」과 같은 의미이다. 「媽祖」가 「天妃」로 불리게 된 것은 《元史祭祀志五》의 “惟南海女神靈惠夫人, 至元中, 以護海運有奇應, 加封天妃神號……直沽·周涇·泉·福·興化等處皆有廟(남해의 여신 영혜부인이 해운을 지키는데 기적적인 일을 한 것을

泛, 任他簸揚些兒, 望吉人或者邀天相. (舟覆, 扮客商舟子上, 呼號
浮泛下. 小生領水卒擁生繞場同下)”(《天風引》 第三齣 <颶變>)

실제 무대에서 바다의 정황을 그려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무대배경을 거의 설치하지 않았던 고전극의 연출방식 때문에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대 위에서 언어와 동작만 가지고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활성화하고 음향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이 대목의 구성은 대사와 창사, 동작과 음향을 긴박한 스피드로 이어나가는 수법을 취하고 있다.

순항하던 배가 갑자기 폭풍우에 휩싸이면서 난파되는 과정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장면이 오버랩 되면서 보는 이의 숨을 죽이게 만들고 안타까운 마음에 동정심을 유발할 정도이다. 그러나 바다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익숙하지 않은 주인공은 일견 넘실거리는 풍랑을 보고 장관으로 여기고 웃고 박수를 치는 여유를 보이나 그것이 미구에 재앙을 가져오는 비극적인 파국의 시작임을 알고서 기겁을 한다. 「바람소리」와 「파도소리」, 「웃음소리」와 「탄식소리」의 대비되는 잠재적 비극성은 「염불소리」와 「구명소리」를 통해 구원과 생존을 희구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미신적 기원마저 철저히 외면하는 양상을 더욱 처절하게 여기게 만든다. 작자는 감정표현과 상황처리를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소리」의 효과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 바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소리」를 통해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강한 여운을 남긴다. 엄청난 폭풍과 격랑이 몰아치는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아우성치는 소리, 살기위해 염불을 외우고 천신에게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물에 빠져 떠다니다가 익사하는 모습은 바다의 부정적인 이미지인 **怒한 바다, 滅의 바다**에 대한 경각심과 공포심과 인간의 무력한 한계를 보여준다. 나

기려 지원 연간에 천비라는 신호를 더해 책봉하였다.”의 기록에서 보듯이 황제로부터 여신의 봉호를 책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무려 7, 800년동안 40여 차례에 걸쳐 역대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아 봉호만도 5,60자에 달한다. 林姑娘에서 시작하여 夫人, 妃, 天妃, 聖妃를 거쳐 天后로까지 승격되었다.

아가서 「破船」과 「沒殺」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제시는 바다에 대한 무언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4.6. 「下海」는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八仙過海》·《柳毅傳書》·《張生煮海》·《蜃中樓》나 《天風引》·《神山引》·《鄭和下西洋》 등의 극작에서 극적인 파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설정한 공통된 행위모식 중의 하나이다. 다음은 李漁의 《蜃中樓》에서 이름을 둘러싸고 대화를 주고받는 대목은 中國語의 「諧音」현상을 극중 스토리와 절묘하게 연결한 것이다.

“(생)이름이 뭔데, 어서 아뢰라. (중)저희들이 어제 ‘채홍중이 낙양교를 수축하다’라는 연극을 보니, 이 극에 하득해라는 사람이 등장하던데, 이 사람이 일찍이 용궁에 편지를 전했다고 하데요. 나으리께서는 그 자를 심부름 보내시도록 하시죠. (생)그 자는 연극을 하는 사람인데, 진짜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중)그거야 저희들도 연극을 하는 사람들인데, 진짜로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생)허튼 소리!”

“[生]什麼名字? 快報來. [衆]小的們昨日看戲, 做一本蔡興宗造洛陽橋. 裡面有一個人叫做下得海, 他曾投過龍宮的書, 求老爺差他去罷. [生]那是做戲的, 哪裡當真會下海? [衆]這等小的們也是做戲的, 哪裡當真會下海? [生]胡說!”(《蜃中樓》 第十八齣 <傳書>)

연극에서의 언어동작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 李漁 자신의 이론에 걸맞게 언어적인 표현기교가 신선하게 느껴진다. 이 대목에서 거론된 이름은 「蔡興宗」과 「下得海」인데, 이 두 사람은 明代 傳奇로서 무명씨의 작품인 《四美記》와 清代 傳奇인 李玉의 《洛陽橋》³³⁾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소위 「洛陽橋下夏得海」 고사를 극화한 것이다. 이 고사는 明나라 때 泉州태수였던 蔡錫이 洛陽橋를 수축한 데서 유래하였

33) 李玉의 《洛陽橋》는 애석하게도 <神儀>·<戲女>·<下海> 등의 세 척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하지 않는다. <下海>齣은 일명 <下海投文> 또는 <夏得海>로 부르기도 한다. 許見山の 《洛陽橋》傳奇 역시 같은 이야기를 소재로 다른 작품으로 보이는데, 亡佚되어 전하지 않는다.

다. 전설에 따르면, 蔡錫이 泉州태수로 부임한 후 낙양교를 수축하려고 했으나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蔡錫은 제문을 써가지고 海神에게 도움을 청하는 궁여지책을 생각해 내었으나 누가 바다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중얼거렸는데, 이 때 술이 얼큰하게 취한 하인 하나가 와서 자기가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실 이 하인의 이름이 「夏得海」였는데, 술김에 자기를 부른 줄 알고 태수에게 나아가서는 자기가 「夏得海」라고 이름을 밝혔는데, 태수는 그가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下得海”로 응답할 줄로 알아듣고 그에게 제문을 갖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다. 하인은 영겁결에 제문을 들고 바다에 투신하였다가 잠시 후에 수면으로 떠올랐는데, 그가 쥐고 있던 종이에 “醋”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海神이 그에게 써준 글자라고 여긴 태수는 그 글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시작하였다. 결국 태수는 이것이 「八月二十一日酉時」에 공사를 하라는 海神의 계시임을 깨닫게 되었다. 태수가 이 날짜에 공사를 재개하자 바람이 자고 풍량이 잠잠해지면서 10여일 동안 潮水가 차지도 않아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극본에서는 명대 蔡錫의 고사를 宋代 蔡襄(《四美記》) 또는 蔡祥(《洛陽橋》)의 고사로 각색하였는데, 이는 흔히 當代의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전 시대에 빗대어 우회적으로 표현하던 경향을 따른 소치이다. 《四美記》와 《洛陽橋》의 극화된 스토리는 도입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四美記》에서는 태수의 어머니가 천주의 낙양나루터를 지날 때 풍량이 너무 거세어 죽을 고생을 하였는데, 아들이 태수로 부임한 후 어머니의 명을 받아 낙양나루터에 다리를 놓게 된다고 다리를 놓게 된 동기를 어머니에 대한 효도에 두고 있다. 《洛陽橋》에서는 福建省 泉州의 洛陽河에 있는 萬安나루터가 풍량이 너무 거세어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태위태하여 왕래하는 나그네나 상인들의 목숨을 위협하였다. 蔡祥은 태수가 된 후 백성들의 안전한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洛陽河에 다리를 놓기로 결심하였다. 못 신들은 그의 정성을 높이 사서 神女를 보내 다리 건설을 도우도록 한다고 다리를 놓게 된 동기를 백성을 위한

배려에 두고 있다. 전자는 어머니에 대한 효도라는 사적인 덕목에서 출발하였으나 후자는 공공의 안전과 복지라는 공의를 위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下」는 「夏」의 諧音이라 「바닷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행위를 빗대기 위해 전용한 것이다.

이처럼 바다의 절대성과 불가항력성에 압도당한 인간의 무력함과 종교적 歸依性은 역설적으로 바다를 신비화하고 이상세계로 포장하는 각종 신화와 전설을 양산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다름 아니라 龍王이나 龍女설화, 바다를 건넌 八仙이야기, 신기루이야기, 徐市(徐福)의 東渡이야기 등이 각종 소설·희곡의 소재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상상력과 낭만적인 색채가 어우러진 이런 이야기에 나타난 바다이미지를 통해 그 속에 반영된 해양생활의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험이나 사회적 기초와 근원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해양문화의 핵심적 구성인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해양신앙과 지역풍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⁴⁾

5. 佛敎와 바다

5.1. 「海」가 佛智의 심도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고전희곡 속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불교고사를 극화한 작품에서 사용빈도수가 매우 높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这狂徒那曾把官军败, 单打破俺鸳鸯会, 搅乱情山欲海(이 미친 무리가 일찍이 관군을 패배시키고, 우리 원앙회를 부숴버리고, 산과 바다와 같이 엄청난 정욕만 흔들어서 어지럽히네).”³⁵⁾의 「欲海」는 「慾海」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 세속의 애욕이 넓고 깊음을 바다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慈航度, 法海澄, 悠然还学渡杯僧(자비로운 마음으로 제도하고, 불법의 세계는

34) 편폭의 제한으로 바다와 관련한 각종 신화전설의 극적 수용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고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한다.

35) 《明珠记》 第十二齣 <驚破>

명징하나니, 유연하게 아직도 잔을 타고 강을 건너는 고승을 본받는다.)”³⁶⁾의 「慈航」은 부처가 慈悲心으로 衆生을 濟度함을 배에 비유한 말이고, 「法海」는 바다처럼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나 불법을 이르는 말이다. 「法海」는 「法船」이라고도 한다. 「渡杯」의 「杯」는 스님이 세상을 雲遊할 때 몸에 지니고 다니는 나무로 만든 작은 잔을 가리킨다. 「渡杯」는 이런 잔을 타고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기이한 능력이자 행동이라 할 수 있는데, 득도한 스님의 行踪을 비유한 말이다.³⁷⁾ 이 구절은 공교롭게도 「慈航」 「法海」 「渡杯」 등이 모두 바다이미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法語라는 점에서 작자의 의도적인 이미지 발현을 위한 수사적 설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준다. “你偏恋那火宅煎熬, 幻海沧胥, 忘却来生路(당신은 한사코 저 불타는 집과 같은 괴로운 세상에서 시달리고, 허망한 바다와 같은 무의미한 세상에서 몰락을 자초하며 연연해하다가 내세의 길을 망각하였소).”³⁸⁾의 「幻海」는 「허망한 바다」, 「허깨비 바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세상에 견주어서 한 말이다. 「火宅」, 「幻海」의 부정적 이미지를 통해 「煎熬(시달리다)」, 「淪胥(차레로 몰락하다)」의 과정을 거쳐 삶의 본질을 「忘却」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인생을 경계하고 있다.

36) 《琴心记》 第四十二齣 <锦江晓发>

37) 南朝 梁慧皎의 《高僧傳·神異·杯度》에 보면, 晉宋 때 스님 杯度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木杯를 타고 강을 건너는神通력이 있어 호를 「杯度」 또는 「杯渡」라 하였는데, 여기서 유래하여 「渡杯」는 스님이 雲遊할 때 지니고 다니는 물건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고 한다. 《法苑珠林》에서도 “西晉杯度, 嘗寄宿一家, 家有金像, 杯度晨興, 輒持而去, 主人策馬追之, 度自徐行, 而騎走不及, 及河乘一小杯以渡孟津, 因號曰渡杯(서진의 배도가 일찍이 어떤 집에 기숙하였는데, 그 집에 금상이 있어 새벽에 일어나 그것을 들고 나섰다. 주인은 말을 몰고 그의 뒤를 쫓았으나 배도는 천천히 가는데도 말을 몰고 그 뒤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배도는 강가에 이르러 작은 나무잔을 타고 맹진 나무터를 건너갔다. 그래서 호를 도배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渡杯」라는 말이 杯度가 小杯를 타고 강을 건넌 데서 유래한 것으로 기술하였다.

38) 《玉簪记》 第八齣 <谈经> 「火宅」이란 불교에서 번뇌가 많은 이 세상을 불이 타고 있는 집에 비유한 말이다.

5.2. 「苦海」는 항해를 하기 위해서 온갖 고초를 감수해야 하는 괴로운 바다라는 뜻에서 불교에서 「괴로움이 많은 인간세계」를 비유하는 말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 ① “再不回头苦海向莲池，将来堕落知何地(더 이상 고훈과 같은 세상에서 고개를 돌리고 극락정토를 향하지 않고 있으니 장차 어디까지 타락할지 모르겠구나).”(《贈书记》 第十一出 <假尼入寺>)
- ② “苦海茫茫不尽流，欲登彼岸在回头(고해는 망망하여 끝이 없나니 고개를 돌려 피안에 오르코자 한다).”(《獅吼记》 第二十四出 <谢师>)
- ③ “苦海茫茫深千丈，今古皆沦丧，英雄没主张(고해는 망망하고 깊이가 천 길이라, 고금의 인물들이 떠돌다가 모두 죽었고, 영웅은 내세울 게 없더라).”(《曇花记》 第八出 <雲游遇师>)
- ④ “打破了幾座愁城，跳出那無边苦海(시름의 성들을 무수히 깨트려 버리고, 저 끝없는 고훈에서 뛰쳐나왔다).”(《节侠记》 第十四出 <订访>)
- ⑤ “试看那苦海底，波涛恶，争似咱碧天边雲月好(저 고훈의 바다, 흥흥한 파도를 보시오, 어찌 우리네 푸른 하늘 구름에 두둥실 떠가는 달만큼 좋을 리 있겠소).”(《明珠记》 第三十二出 <买药>)
- ⑥ “你浮苦海，涉大川，千重浪里得回船(자네는 고훈을 건너고 큰 강을 건너면서 마구 몰아치는 풍랑을 건디고 배를 몰아 돌아왔구먼).”(《浣纱记》 第十九齣 <放归>)

①~④의 「苦海」는 종교적 의미를 반영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된 표현이고, ⑤⑥의 「苦海」는 문자 그대로 적용하거나 극복하기가 힘들고 괴로운 바다라는 점을 의식한 표현으로서 자연의 不可抗力性を 잘 반영하고 있다. ①②의 경우 「苦海」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回頭」해야 함을 문제해결의 관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깨달으면 극락이요, 개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回頭是岸」의 종교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③의 「苦海」는 떠도는 인생의 절망과 죽음을 시사하면서 아무리 영웅호걸이라도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앞서 종교적 귀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지나친 허무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苦海」는 좌절과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야망을 품고 출세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자아성찰의 장이 되어야 하며, 「苦海」를 단순하게 엄세적인 사유공간으로 보도록 유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苦海」의 심미경계는 「墮落」과 「淪喪」의 절명적인 어둠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의지와 명철을 요구한다. ④~⑥은 바로 이와 같은 「苦海」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④의 「愁城」타과와 「苦海」탈출은 의지의 소산이고, 행동하는 지성의 생산적인 선택이다. ⑤의 「碧天雲月」은 「苦海」의 어두운 색채와는 달리 명랑하고 낭만적인 경계를 보여준다. ⑥의 「回船」은 험한 풍랑을 헤치고 목적지까지 배를 온전히 몰고 살아서 돌아왔다는 점에서 자아의 안도감을 넘어선 성취감과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며, 타자의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고 진정성을 인정받게 해주는 생산적인 결과인 셈이다. 여기서 「苦海」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면서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환경임을 상징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5.3. “乱红衣暗泣莲腮, 似黑月重抛业海(붉은 옷은 형클어지고 가름한 뺨에서는 남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이지러져 캄캄해지는 달이 다시금 바다와 같은 업보의 세계에 내던져진 것 같구나).”³⁹⁾의 「业海」는 바다 같이 넓고 큰 업보의 세계라는 뜻으로 선악의 행업으로 말미암은 자업자득의 처지에 빗대어 상심하여 남몰래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를 형용하고 있다. “來時只識菩提路, 去時還聽海潮音.”⁴⁰⁾에서 「菩提路」와 「海潮音」은 범어로 대구를 형성하고 있다. 「菩提(Bodhi)」는 보리, 즉 正覺을 가리키고, 「海潮」는 시간에 맞추어 해안으로 밀려들거나 빠져나가는 조류, 즉 밀물·썰물의 조류를 가리킨다. 「潮音」이란 밀물이나

39) 《还魂记》 第三十七出 <骇变> 여기서 「黑月」은 문자 그대로 「이지러져서 캄캄해지는 달」의 뜻으로 쓰인 것이지만, 이런 「黑月」의 성격을 감안하여 범어로 한 달을 둘로 나누어 戒命을 설법하는 기간 가운데 뒤의 보름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40) 《金蓮記》 第十二齣 <媒合>

떨물이 흐를 때 나는 큰 소리 또는 파도소리를 가리킨다. 「菩提路」란 불타 정각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닦는 도, 즉 佛果에 이르는 길을 뜻하고, 「海潮音」이란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하여 應時適機로 크고 우렁차게 설법하는 부처나 관세음보살의 소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올 때와 달리 떠나갈 때에 망외의 정신적 소득이 있다는 말에는 깊은 종교 심으로 이루어진 득도의 열린 마음과 정신적인 여유로움이 기탁되어 있다.

6. 맺는 말

이상으로 바다와 관련한 각종 「海語」가 극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심미기제로 연결되었나를 천착해 보았다. 대체로 전통적인 山水詩에서 구현된 바 있는 다양한 심미의식을 海語 속에 재생산하여 희곡언어의 話語로 접목시켜 표현의 심도와 감정전달의 감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일정한 의미창출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부족 및 자료미비, 바다에 대한 작가적 체험의 부족, 해양 소재의 문학언어 개발의 부진 등등 현실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서구의 해양문학에서 보는 것과 같은 스케일이 크고 독창적이고 인상적인 바다이미지 창출에까지는 그 수준이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중국 고전희곡에 나타난 바다이미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 이미지와 인간이 자연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외경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바다의 원형적인 이미지에 심미적인 이미지가 결합된 색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바다의 모성애적 포용성과 구원의 이미지, 생존과 파괴가 반복되는 생명의 이미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고전희곡 속에는 첫째, 바다라는 문자가 직접 들어간 어휘를 문장 중에 사용하여 표현의 방편을 삼은 사례가 많은데, 비유어 또는 대상어

로서의 기능을 하며 심미적인 효과와 상징성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작품 전체의 내용 및 주제와 바다가 연결되어 바다가 내용의 핵심 서사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작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다에 대한 선형적 인상과 의식범주를 넘어 매우 감각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을 전달하고자하는 작가의 고심의 흔적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셋째, 바다의 형상적 이미지만 취해 표현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 바다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범주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바다에 대한 작가의 체험적 바탕이 없이 강이나 호수 정도로 인식하는 협의의 개념에 그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중국문화의 대륙지향의 지배적인 문화흐름에 영향을 받은 영향을 받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중국 고전희곡에 나타난 바다이미지는 다른 문학장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다이미지의 양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자연과의 조화와 공존을 미덕으로 여기던 동양적인 심미의식이 중국 고전희곡에도 여실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서 살펴본 바다이미지는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문학적, 예술적 필터링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로 창출되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기도 하였다. 인간에게 생존과 구원을 약속하는 바다의 이미지는 인류에게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생산적인 문화를 이루는데 기대치를 제고할 수 있으나 죽음과 파괴의 바다, 재난의 바다를 경험하고 위협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화해라는 과제가 주어지고,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바다, 모성애적 포용력과 귀소적 본능을 자극하는 거대한 현상과 흐름에 대한 선택적 적응과 반응을 요구한다.

[參考文獻]

- 明 毛晉 編, 《六十種曲》(北京: 中華書局, 1990.5)
 楊家駱 主編, 《全元雜劇》(臺北: 世界書局, 1974)
 --, 《盛明雜劇》(臺北: 文光出版社, 1963)

- , 《孤本元明雜劇》(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7)
- 王學奇 主編, 《元曲選校注》(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994.6)
- 馮夢龍 編著, 俞爲民 校點, 《墨憨齋定本傳奇》上下(江蘇, 江蘇古籍出版社, 1993.7)
- , 《湯顯祖戲曲集》上下合刊本(臺北, 里仁書局, 1981)
- 馬如飛·黃圖珖 等編, 《白蛇傳合編》(臺北, 古亭書屋, 1975)
- 清 蔣士銓 撰, 周妙中 點校, 《蔣士銓戲曲集》(北京: 中華書局, 1993.2)
- 清 唐英 撰, 周育德 校點, 《古柏堂戲曲集》(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10)
- 關德棟·車錫倫 編, 《聊齋志異戲曲集》上下(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10)
- 明 阮大鍼 撰, 徐凌雲·胡金望 點校, 《阮大鍼戲曲四種》(合肥: 黃麓書社, 1993.11)
- 黃天驥·歐陽光選注, 《李笠翁喜劇選》(長沙: 岳麓書社, 1984.12)
- 金夢華, 《汲古閣六十種曲敍錄》(臺北: 嘉新水泥公司文化基金會, 1969)
- 曲金良 편저, 김태만·안승웅·최낙민 역, 《바다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가》(부산: 산지니, 2008.9)
- 黃乙文 著, 《海洋文學逍遙》(부산: 도서출판 진망, 2001.8)
- 黃順力 著, 《海洋迷思》(南昌: 江西高校出版社, 1999.12)
- 王榮國 著, 《海洋神靈》(南昌: 江西高校出版社, 2003.8)
- 徐鴻儒 主編, 《中國海洋學史》(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4.12)
- 陳幼韓 著, 《戲曲表演美學探索》(北京: 中國戲劇出版社, 1985.8)
- 張 庚 著, 《戲曲藝術論》(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1987)
- 蘇國榮 著, 《中國劇詩美學風格》(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1987)
- 張 庚·蓋叫天 著, 《戲曲美學論文集》(臺北: 丹青圖書有限公司, 1987)
- 本社 編, 《戲劇美學論集》(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83.6)
- 姚文放 著, 《中國戲劇美學的文化闡釋》(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7.1)
- 隗 芾·吳毓華 編, 《古典戲曲美學資料集》(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2.10)

陳 多 著,《戲曲美學》(成都:四川人民出版社,2001.9)

胡金望 著,《人生喜劇與喜劇人生--阮大鍼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4.6)

馬書田 著,《華夏諸神》(北京:北京燕山出版社,1999.4)

[中文提要]

爲了文本精讀起見,本稿就通過戲曲語言的審美結構,尤其是有關海洋的詞彙來考察中國文化當中海洋意識的意義所在,着眼于人文地理環境下的海洋和文化藝術當中的海洋到底有甚麼樣的差異,更進一步研究海洋語言的特色,戲曲當中的各種海語所象徵的審美空間和審美色彩,中國古典戲曲裡所表現的海洋形象就勾劃出海洋與人生,人生與海洋的有機的關係,海洋的基本形象怎樣被受容到戲曲當中,如何襯托出本色力量等等。

中國古典戲曲所用的「海語」,多半表現出高度節制的審美機制,刻畫海的原形本色,配合故事情節和場景氣氛,由此我們可以發現海的母性愛的包容性,不但錯綜勾劃救援和生存,生產的肯定的形象,而且也并發出海洋的否定的形象,海洋有時無情地呼嘯毀壞和死亡邊上的災難的場面,生者不能救回死者,死者不能安慰生者,站在海上的人們不得不承認海洋的絕對力量,神聖的品德,人對海洋的畏敬心理由此誕生了。從來人的力量有所限制的,無法抗拒大自然,海洋也是如此,海洋根本存在着恒遠性和不可抗力的絕對力量。中國古典戲曲當中的海語所含的審美境界就有如下幾個方面的內容性格:

第一,中國古典戲曲當中的海語多用于比喻和象徵語來追求擴大其審美效果,提高故事情節的點香迷人,襯托出人物角色的個性明暗。

第二,海語就輔助戲曲作品的敘事空間的層次來豐富很有感情色彩的影像,可以傳達作家的苦心按排,但大部分的海語有點單純淺薄,缺乏立體的多重的詩的意象和審美形象。

第三,中國古典戲曲作家大部分不夠徹底體驗而領會到海洋文化,只不

過在腦海裡素描出通俗的一般化的海洋形象而已，因此他們對海洋的認識範疇不能超過固定的常規性，使得其性情表露難免有踏襲之嫌，導致障礙劇的高潮的審美衝擊，影響到情節的流麗發展。

總而言之，中國古典戲曲當中的海洋形象，就隨從中國傳統文化的意識形態，以調和與共存為美德的美好傳統，儘在其中寫意而不虛。如傳統的山水詩一樣，方好強烈反映出中國戲曲言語的話語本色，能夠提高表現的深度和感情傳達的感度，由此我們可以肯定中國古典戲曲的海洋形象富有哲理性，仍然決不可以輕易看待。

附帶說一句，爲了對海洋語言文化更進一步的了解和運用，如何把握靖海英雄形象和海神故事的審美結構等問題，本稿臨時置之不論，待要研究。

[한글요약]

본고는 바다와 관련한 각종 「海語」를 중심으로 바다의 원형이미지, 色彩美感的 바다, 靜中動的 바다, 佛敎와 바다 등의 소절로 나누어 극중에서 어떤 심미기제의 이미지로 표현되었나를 소략하게 천착하였다. 전통적인 山水詩에서 구현된 바 있는 다양한 심미의식을 海語 속에 재생산하여 희곡언어의 話語로 접목시켜 표현의 심도와 감정전달의 감도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전희곡에 나타난 바다이미지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 이미지와 인간이 자연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외경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심미적인 이미지의 결합적인 색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바다의 모성애적 포용성과 구원의 이미지, 생존과 파괴가 반복되는 생멸의 이미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고전희곡 속에는 바다라는 문자가 직접 들어간 어휘를 문장 중에 사용하여 표현의 방편을 삼은 사례가 많은데, 비유어 또는 대상어로서의 기능을 하며 심미적인 효과와 상징성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전체의 내용 및 주제와 바다가 연결되어 바다가 내용의 핵심 서사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된 작품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다

에 대한 선험적 인상과 의식범주를 넘어 매우 감각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을 전달하고자하는 작가의 고심의 흔적을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바다의 형상적 이미지만 취해 표현보조수단으로 사용하여 바다에 대한 통상적인 인식범주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바다에 대한 작가의 체험적 바탕이 없이 강이나 호수 정도로 인식하는 협의의 개념에 그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중국문화의 대륙지향의 지배적인 문화흐름에 영향을 받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주제어: 海語 바다이미지 原形 靜中動 色彩美感 佛敎

투고일: 2008. 10. 31.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중국의 禁書 중 참위서적의 흥쇠 연구*

정 옥 근**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 1) 참위 서적의 연원
 - 2) 참위 서적의 흥성
 - 3) 魏晉 이후 분단시기의 참위서적의 이용과 금지
 - 4) 전국 통일 시기의 참위서적에 대한 금지
- III. 결론

1.서론

중국의 금서는 상양의 변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詩》, 《書》를 불태워 버리는 중국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의 금서 사건에서 시작하여 진시황 시대의 분서갱유로 이어지다가 한동안 뜸하다가 漢나라 惠帝에서 부터 삼국 시기는 금서라는 것이 없었다. 西晉에 와서 讖緯書籍과 천문 서적을 금하게 되었다.

중국의 금서를 대략 종류별로 살펴보면 유학서적, 노장서적, 도교서적, 제자백가서적, 불교서적, 참위서적, 개인문집과 창작집, 역사서적, 야사, 소설, 논문, 천문 우주서적, 책력, 별자리 점에 관련된 서적, 병서, 문학비평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참위서적 에 국한되어

* 이 논문은 동의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과제번호: 2006AA003)

**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부교수(ogjeong@deu.ac.kr)

토론하기로 한다.

讖이라는 것은 祥瑞讖告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잘하는 일에 대하여는 하늘에서 상스러운 조짐을 보여 주어 칭찬하고, 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미리 재앙의 조짐을 보여 꾸짖고 견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상은 기원전 공자의 사상 중에 이미 싹이 났다. 그런데 한나라의 董仲舒에서부터 그 이론이 더욱 심화 되었다. 즉 天地人이 서로 통일 되는 우주 구성 원리의 체계 속에서 논리적인 논증이 나오게 된 것이다. 즉 그의 천인 감응이라는 사상에서 상서로움과 재앙이 인간에 혹은 그 인간을 다스리는 왕조에 나타나기 전에 그 조짐이 하늘이나 땅 혹은 물에 먼저 나타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과 재앙은 사람의 행위 혹은 정치적인 득실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위정자의 잘함과 잘못함이 직접 상서로움과 재앙의 조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한 말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여 동한에서 줄 곧 흥성했던 참위는 동중서의 감응 재앙지설에 고대의 종합적인 각 종의 방술이 총망라 혼합되어 들어가서 결국은 통치 지위에 있는 관방의 의식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緯라는 것은 經에 대치되는 것으로 경을 신의 뜻으로 재해석한 것을 말한다. 동한에 이르면 신의 해석이라고 가탁하여 경전을 해석한 서적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緯"라는 것으로 "經"이 씨줄이라면 "緯"는 날줄이라는 것이다. 각 하나의 경서에 여러 수종의 각양각색의 신비한 요소를 띤 "위서"가 나오게 되었다. 예를 들면 余治平의 《董仲舒의祥瑞災異之說與讖緯流變》이라는 논문에서 《尙書緯》《春秋緯》《易緯》《禮緯》《樂緯》《論語緯》《孝經緯》《河圖緯》《洛書緯》등 모두 130여종이나 된다고 한다.

위진 이후 참위의 주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그 하나는 도교, 불교가 소화 흡수하여 일정한 종교형식에 의탁하여 존재, 발전하였고, 혹은 가능한 각종 방식으로 민간 신앙 속에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산 되었다. 그 후에도 비록 금서로 되어 태워지곤 하였지만 대대로

선호하는 자가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것이 비기의 방식으로 발전하기까지 하였다.

본 논문은 고대 중국왕조의 변천에 따른 참위의 興衰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참위 서적의 연원

공자가 말하기를 봉새가 오지 않고, 강에서 그림이 나오지 않으니 나는 이미 끝났다." 2)라고 했고, 또 안연이 죽으니, 공자가 말하길: "아 이구,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하늘이 나를 망치는구나" 3)라고 했다 하는데 그 속에 이미 상서견고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공자 당시의 유가 서적 중에는 祥瑞讖告에 대한 내용은 일종의 감정적인 애 탄에 그쳤다. 그러나 동중서에 와서는 이미 천-지-인이 서로 통일 되는 우주 구조 체제적인 이론으로 구체화 시켰다.

동중서가 말하길,

좋은 일은 좋은 조짐을 보이고, 나쁜 일은 나쁜 조짐을 보이니, 같은 것끼리 상응해서 일어나는 것이다.....제왕이 장차 흥하게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좋은 상서로운 일이 먼저 나타나고, 제왕이 장차 망함에는 요상하고 이상한 조짐이 먼저 보이는 것이니, 어떤 사물로서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상서》에 전하길: '주가 장차 흥할 때 큰 붉은 새가 나타나 곡식의 종자를 물고와, 王屋 위에 모아 놓았다. 무왕이 기뻐하고 모든 대부가 기뻐하였다. 주공은 말하길: 무성할 지어다! 무성할 지어다! 하늘이 이것을 보이며 권고하는 것이로다.' 두려워하며 믿어야 한다.4)

2) 孔子曰: 鳳鳥不至, 河不出圖, 吾已矣夫!(《論語·子罕》)

3) 顏淵死, 子曰 天喪予! 天喪予!(《論語·先進》)

4) 董仲舒說: "美事召美類, 惡事召惡類, 類之相應而起也。……帝王之將興也, 其

고 했다. 또 《한서·동중서전》에 보면,

하늘이 크게 쓰려고 하는 왕은 인력으로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오는데 이것은 곧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천하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하니, 그런고로 하늘의 서기가 정성에 응해서 이룬다는 것이다. 5)

라고 했다. 또 공자가 말하길,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는데 대개 선덕이 쌓여진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후대에 이르면 음란하고 쇠미하게 되어 군생을 바르게 통치할 수 없고 제후가 배반하고, 잔적 양민이 땅을 다투면 덕교를 폐하고 형벌에 임하게 되는데, 형벌이 맞지 않아서 邪氣가 아래로 쌓이고 원망과 악함이 위로 축적 되면, 상하가 불화하고 음양이 어긋나서 요상하고 이상한 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일어나는 연유가 된다. 6)

고 했다. 그래서 상서와 재앙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그 조짐은 모두 그런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난다는 점.
2. 모두가 특정한 표시물로 나타난다는 점. 예를 들면 하늘의 瑞氣와 妖孽 등으로 하늘은 말로서 나타내지 않고 사물로서 뜻을 나타낸다는 점.

美祥亦先见；其将亡也，妖孽亦先见。物故以类相召也。……《尚书》传言：‘周将兴之时，有大赤鸟衔谷之种，而集王屋之上者。武王喜，诸大夫皆喜。周公曰：茂哉！茂哉！天之见此以劝之也。’恐恃之。”（《春秋繁露·同类相动》）

- 5) 天之所大奉使之王者，必有非人力所能致而自至者，此受命之符也。天下之人同心归之，若归父母，故天瑞应诚而至。
- 6) 孔子曰：“德不孤，必有邻。皆积善累德之效也。及至后世，淫佚衰微，不能统理群生，诸侯背畔，残贼良民以争壤土，废德教而任刑罚。刑罚不中，则生邪气。邪气积于下，怨恶畜于上。上下不和，则阴阳缪戾而妖孽生矣。此灾异所缘而起也。”（《汉书·董仲舒传》）

3. 표시물의 출현은 반드시 하늘의 뜻을 대표한다는 점. 그래서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부적과 같은 것이어서 절대로 어떠한 인위적인 인소로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상 참위서의 연원을 더욱 더 따져 올라가면 춘추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그런데 한 초에 동중서의 학문 이외에도, 京方易學, 齊詩學 중에 모두 후세 緯書의 원조가 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중서에 의하여 더욱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2) 참위 서적의 흥성

① 秦나라 때의 참위 관련사건

진시황이 중국을 통치할 때, 최초의 서책 형식으로 참위 사건이 출현했다. 그 내용은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胡라는 것이다.⁷⁾ 진시황의 아들인 二世 胡亥 때 진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것인데, 진시황은 이때부터 흉노를 치고 흉노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니 우리로 하여금 아이러니를 느끼게 한다. 진나라 말기에는 陳勝, 吳廣이라는 자가 大澤鄉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오광이 여우로 변장하여 수풀 속에서 “대초가 흥하고 진승이 왕이 된다(大楚興, 陳勝王)”고 한 적도 있었다.⁸⁾

② 西漢 때의 참위의 흥성

漢 召帝 때는 전국 각지에서 이상하고 기괴한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말라서 죽어 땅에 넘어진 나무에서 다시 일어나서 계속 성장하는 일이 이어 났고, 벌레가 나무 잎을 먹어 “公孫病已立” 이란 다섯 글자를 새겼는데 사실 아무도 공손병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7) 전설에 의하면 공자가 친히 각 중 위서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秦帝國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 중에 대표되는 것이 “亡秦者胡也”인데 그것은 《洛書·提亡闢》이라는 위서에 그 내용이 적혀있다고 하는데 후세의 유생들이 공자를 가탁하여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8) 黃曉峯, 中國神仙排行榜, 上海教育出版社

한다. 그런데 동중서의 제자인 睦弘이란 자가 천인감응이란 것에 매우 심취 되어 漢 昭帝에게 상소하여 말하길:

우리 동중서선생이 말하길 황제를 하는 것도 천명을 중시해야하는데, 천명이 없는 사람은 황위를 계승했다고 치더라도, 보좌에 앉기가 온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고로, 아마도 평민 백성이 황제가 될 모양입니다. 당신의 보위는 비록 합법적으로 계승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상한 현상에 근거해 보면,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의 하건데 천하에 영을 내려 당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서, 황위를 그에게 넘겨주고 당신은 작은 지방에 가서 여생을 잘 지켜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⁹⁾

라고 하였다가 그는 목이 달아나고 말았다. 이것을 보면 일반 백성이 보위를 놓고 황제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당시로 보아서는 어불성설이고 마땅히 사형감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위가 당시 얼마나 성행했으면 이런 현상 까지 나타나게 되었나 하는 것이다. 민간이 감히 황권에 도전하게 된 것이다. 이후로는 민간이 나쁜 징조를 가지고 정부에 도전할 기미를 보이면 정부는 황제의 암시아래 봉황이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잘된 곡식이라든지, 온 산하에 두루 핀 꽃이라든지 하는 길상한 것으로 백성들의 의식 상태를 무마하곤 하였지만, 서한 정권은 이후로 점점 부패하여 가면서 참위가 점점 성하게 된다.

③ 王莽의 참위의 이용

이 때 참위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王莽이었다. 그는 황실의 외척이긴 하지만 가짜 황제였던 것을 진짜 황제가

9) 我的老师董仲舒说了, 做皇帝也要讲究天命的, 没天命的人, 就算继承皇位, 也是坐不稳的. 现在到处是神奇的景象, 看样子是有平民百姓要做皇帝, 您的位子虽然是合法继承的, 但根据异象的显示, 看起来也该交给别人了. 建议您号令天下, 寻找一个适合替代您的人, 把皇位让给他, 您呢, 就找块小地方养老, 不是很好吗? 黄晓峯, 「中國神仙排行榜」, 上海教育出版社》에서 재인용

되기 위해서 참위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여론을 조작하였다. 그래서 大臣 劉京이 上書하여 말하길

“제군에 작은 정장이 있는데, 하루 저녁에 연속으로 몇 차례 상제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길: ‘상제가 너에게 은밀하게 말해 주라 했는데, 가짜 황제가 진짜 황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믿기지 않으면, 다음날 너의 정에 새로운 우물이 하나 생길 것이라 하였다.’ 그 다음날 정장이 일어나 보니, 과연 새 우물이 생겨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황제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¹⁰⁾이렇게 하여 황제가 되려 하다가 이것으로만은 부족하다 싶어, 문자의 기록을 날조하여 하고조 유방이 왕망에게 진짜 황제가 되어라 했다고 하였다.¹¹⁾ 이렇게 되니 각처에서 비슷한 예언들이 빗발치듯 올라와, 할 수 없다는 듯이,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군자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명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하나는 대인을 두려워해야 하고, 세 번째는 성인의 뜻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으니, 내가 만약 등극을 하지 않으면,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여, 정정 당당히 찬위를 하였다. 물론 왕망이 찬위를 한 것은 단지 참위로서 만든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참위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더욱 많아 되었다.

그래서 왕망도 “즉위 이후에 그 일을 신비롭게 여기는 것을 선천적으로 끊으려고 했다.”¹²⁾그리고 나서 왕망은 그러한 것들을 관방의 통제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법제를 바꾸어 “천하에 한 가지 술에 정통한

10) 齐郡有个小亭长, 有一天晚上连续几次梦见有天公使者对他说: ‘天公让我悄悄话给你, 假皇帝要做真皇帝了, 你要不信, 第二天你的亭里会有口新井’, 这不是摆明了要您做皇帝吗?

11) 참위의 유행은 서한 후기부터 시작하여 동한 중엽에 이르러 극성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內學이라고 했는데, 王莽은 정권 탈취 시 高帝廟에서 나왔다고 하는 《金櫃圖》와 《金策書》의 내용으로 왕망 자신이 천자가 된다고 하는 내용을 이용하였는데 당시 장안에서 글 읽던 사람 선비인 廣漢郡 사람 哀章이 위조한 것이다. 《上下五千年》, 少年 兒童 出版社, 2002년 9월, 권2, 350p 참조

12) 卽位之後, 慾絕其原以神其書: 《漢書 楊雄傳》

교수 11인을 모집한다 하여 《禮》, 古《書》, 《毛詩》, 《周官》, 《爾雅》, 天文, 圖讖, 鍾律, 月令, 兵法, 史篇, 文字 ” 등에 박통한 자를 모아 공직에 앉힌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응모한 자가 수천이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道士화된 유생이 많이 출현하였고, 대량의 흩어져 있던 經讖, 圖讖, 讖語, 符讖, 靈篇 등이 모여져서 집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참위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인적인 토대를 만들고,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한 자료가 완비된 셈이다.

④后漢 光武帝의 참위의 이용

그러나 곧 이어 이러한 참위서를 모방한 정권 탈취가 있었다. 당시 천하가 대란하였고 光武帝 劉秀는 南陽에서 양식을 팔고 있었는데, 李通이란 자가 그에게 거병하라고 유세를 하였다. 그 내용은 도참서에 이르기를 "漢나라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李氏가 보좌를 하게 된다고 했으니"¹³⁾, 이것이 바로 우리 둘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야, 현재 천하가 크게 어지러우니 하늘의 예언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얻게 되어 있다고 하니 광무제가 듣고서 옳다고 여기고 한 무리의 대오를 조직하여 최후에는 전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그가 등극할 때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유수가 發兵하니 체포하지 못하고, 사방 오랑캐가 운집해서 들에서 다투는데 28일 만에 火가 주인이 된다."¹⁴⁾는 날조된 참위를 이용하기도 했다. 또 당시에 참위를 이용하려는 자는 그 한 사람 만이 아니었다. 사천에서 公孫述이 황제를 칭하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진짜의 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니, 광무제는 공손술의 참위는 가짜라고 하면서 가짜가 진짜를 이기지 못하니 항복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참위가 날조되어 나와서 반란을 획책하는 자가 있었다.

동한의 첫 번째 황제인 유수가 등극할 때 나온 《赤伏符》에 劉秀라

13) 漢當復興, 李氏爲輔 《后漢紀 捲一》

14) 劉秀發兵捕不道, 四夷云集龍斗野, 四七之際火爲主.(《赤伏符》)

는 광무제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참위의 글을 이용하였는데 그것은 그의 同學인 彊華가 關中에서 가져온 것이라 한다. 즉위 후에 그는 참위서를 믿고 참위서를 중요한 정사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참고 자료로 삼았다. 그로 그럴 것이 그는 참위서 하나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황제가 된 썸이니 참위서의 덕택을 단단히 입은 썸이다. 참위의 위력을 단단히 경험한 그는 대신 남들이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中元 元年(서기 56년)에 도참을 정식으로 천하에 선포했다.¹⁵⁾

이렇게 하여 도참서적의 기본적인 경전인 《河圖》《洛書》를 합한 45편과 七經의 위 36편을 합하여 총 81편이 정식으로 體制를 갖추게 되었고, 관방이 참위에 대한 해석 권한을 가지게 하여 참위를 함부로 만들거나, 그 뜻을 왜곡하여 부풀리게 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다. 이 이후로 참위서를 만들어 내는 행위를 불법으로 금지시켜 주살 죄로 삼았다. 그래서 참위서는 당시 정치상에 있어 관방의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漢 章帝 建初 4년의 白虎觀 회의를 거쳐 참위는 금문학과와 결합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학술상에서도 통치적인 지위를 점거하게 되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참위는 그 이전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었는데 이 선포로 참위를 함부로 날조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다 보니 후한 시기에 참위에 대한 연구가 하나의 큰 유행을 이루었다. 그래서 동한 왕조에서는 이것을 비경으로 추존하였고 內學으로 불려서 추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민간이 함부로 참위를 지어서 정권에 도전하는 것을 방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후한 정권의 정통성을 살리는데 참위를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대신들 중에 도참을 잘하는 자는 중용되었고 도참에 반대하는 자는 죄를 얻어 유배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니 후한의 시대는 참위에 대한 학문적 체계를 이루려고 노력한 시기로 볼 수 있다.

15) 宣布圖讖於天下(《后漢書·光武帝紀》)

그러나 이렇게 까지 동한이 시작 될 때부터 참위의 위력이 대단 하였으니 관방이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시도했지만 동한 때에 참위가 민간에서도 신속하게 발전 되어 만연하였다. 그래서 우주 천문을 연구한 대 과학자 張衡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 가짜 참위서가 만연하여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니 이러한 것에 엄중한 制裁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후 위진 남북조의 宋·齊·梁이 연이어서 도참을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하였다.¹⁶⁾

3) 魏晉 이후 분단시기의 참위서적의 이용과 금지

① 魏晉의 참위서적의 이용과 금지

그러나 한말에 고문 경학이 들어오고 위진 현풍의 흥성으로 참위는 점점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다른 한편으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참위서의 불길이 되 살아나서. 반란을 획책하거나 왕권을 탈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래서 천명을 받았단든지 하여 정쟁을 일으키고, 민심을 유혹하는 선전도구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위나라가 한을 취하고자 할 때 참위를 날조하여 “漢을 代身하는 자는 途高이다”¹⁷⁾ 라고 하였는데, 途高는 고대 궁전의 兩闕인데 “象魏”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나라 후에 위나라가 필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曹魏의 정권은 그 후에 “내학, 병서를 엄히 금한다.”¹⁸⁾ 하였고, 그리고 司馬昭 부자는 얼마 후에 똑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복제하여 曹操의 魏나라를 선양받아 西晉으로 되었다. 참위의 효용을 잘 알고 있는 西晉의 개국 황제 사마염은 왕권을 빼앗은 후에 또 그와 같은 왕권의 탈취를 두려워하여 황급히 참위라는 것에 대하여 금지령을

16) 《宋書·武帝紀》, 《南齊書·高帝紀》, 《梁書·處士傳》 참조

17) 代漢者當途高 《後漢書·袁術》

18) 科禁內學, 兵書: 《三國誌·魏書·常林》

내렸다. 泰始는 서진 개국 황제 사마염의 연호이다. 이 태시 3년(기원 267년) 12월 달에 "천문과 참위서적을 금한다" 19)는 금서령이 내린다.

태시 삼년에 처음으로 참위서적을 금지할 때 점성술에 관련된 책도 함께 금지 되었는데, 점성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참위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된 고대 천문학과 아주 관련이 깊은 학술이었는데, 그것이 주요하게 별들의 기운과 구름 모양 같은 것을 보고 인간의 재난과 길상 즉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런 내용들이 거의 참위서적과 같은 작용을 실제 생활에서 하였기에 晉武帝는 그것을 함께 금지해 버렸다.

태시 3년에 금서령을 발표한지 일 개월 후, 즉 태시 4년(서기 268년)의 정월에 20편에 달하는 晉代의 법령(泰始律)이 천하에 반포되었는데, 이 한 대의 법령을 원격 계승한 법령 중에 태시 3년의 금서 조항이 정식으로 관련 있는 법률 조항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무릇 私的으로 천문, 참위의 서적을 소장하는 사람은 유기 징역 2년에 처한다.²⁰⁾

위의 문항에서 주의해 볼 만한 것은 그것은 당초의 금지령에 별의 움직임에 관한 서적을 금지 하던 항목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천문 서적에 대하여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중국 고대 천문학의 독특성과 관련이 있다. 고대 중국의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래의 순수한 천문학에 한 층의 신비한 베일을 쓰게 된 것이다. 이런 신비스런 천문학에서 하늘 모양의 변화로 인간의 화복을 예언하는 점성술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점술가의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책을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왕조에 가져오는 위협은 별모양에 관한 서적이거나 참위 서적이던 약간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차별이 별로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불과

19) 禁星氣，讖緯之學

20) 凡私自收藏天文、圖讖之書的，均判有期徒刑兩年。

일 개 월 사이에 西晉 당국은 천문서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그들의 법률 속에 포함시켜 소장하는 자는 엄격한 죄로 다스리게 되었다.

② 後趙의 참위서적의 이용과 금지

사마사가 비록 정권을 잡은 초기에 참위서적을 강력히 금지시켰지만 永和 5년(서기 311년)에 사막 북쪽의 흉맹한 匈奴族이 그들의 수도 洛陽을 짓밟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북방을 차지한 서기 336년, 북방에서도 똑같이 별의 기운으로 예언을 하는 서적이거나 참위 서적이 對象인 금서 사건이 발생하였다. 금서 명령을 내린 자는 鄴에 도읍을 정한 靺鞨 왕조의 제 2대 황제였던 石虎이었다.

서기 336년 그 때는 後趙의 建武 2년에 해당되는데, 이 해에 石虎는 襄國에 太武殿을 세웠고 鄴都에 동궁과 서궁을 건립하여 토목공사가 아주 성하였고, 욕심이 많은 석호는 여인을 아주 좋아하였는데, 그 호화스러운 궁전에 일시에 만여 명의 궁녀를 배치시켰다. 그는 이 방대한 낭자군에게 점성학, 천문학과 보병사격과 기병사격의 전문 교수를 배치시켰을 뿐 아니라, 女太史라는 관직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재난과 길상을 관측하게 하였다. 그는 이 해에 국내에서 사사로이 별의 기운으로 예언을 하는 서적과 참위서적을 공부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금지령을 내렸다.

建武 2년에 별점, 참위서적에 대한 금서 조치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西晉의 泰始 때에 처음으로 그것을 금지하던 이유와 같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西晉시기에는 금령을 어기면 2년 징역에 처한다고 했는데 後趙에서는 사형으로 강화되었다.

③ 前秦의 참위서적의 이용과 금지

西晉에서 시작하여 後趙로 이어졌다가, 또 前秦으로 이어졌다. 전진왕 符堅은 서기 375년 참위 서적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금지 명령을 내린다.

유교를 숭상하고 노장의 학문과 도참을 금하는데 어긴 자는 저자에

버린다.²¹⁾

새로운 왕조를 건설할 욕심인 전진 왕 부견이 유교로서 국가의 기초를 다지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노장지학을 물리치고 참위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해 겨울 상서랑 王珣가 참위서적을 읽다가 들켜서 사형을 당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도참을 아주 싫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즉위 초의 행동으로 보면 도참을 아주 신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즉위 초에 新平 지방의 王彫라는 자가 와서 도참을 이야기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북방 오랑캐의 말년에 중주가 크게 혼란스러운데, 홍수가 크게 일어 건이 서쪽으로 흐르니 오직 웅자만이 팔주를 평정한다는 내용이었다.(古月之末亂中州, 洪水大起健西流, 維有雄子定八州)²²⁾ 그 뜻은 부견의 조부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버지를 거쳐 부견에 이르러서 중원을 평정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洪, 健은 부견의 조부와 부친의 이름이니 雄자는 바로 본인이 되는 셈이다. 그래서 부견은 아주 기뻐하면서 그를 太史令에 봉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王彫는 부견이 일어난 지역의 저씨족을 장안에 이주 시키고, 장안에 있는 전진 의 3대에 걸친 호족들을 변방으로 내 쫓아야 된다²³⁾는 말로 도참을 올렸으나, 좌도 난정이란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다. 그러고도 부견은 이런 도참 종류의 예언 같은 것을 많이 신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진국의 동요 중에 황화의 물이 푸른데 다시 푸르니. 부씨는 새 성에서 죽는다.²⁴⁾ 라는 것이 있는데 부견은 이 가사를 듣고서 아주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래서 출정할

21) 其增崇儒教, 禁《老》, 《莊》, 圖讖之學, 犯者棄市! (《中國禁書大觀》, 安平秋, 章培恒主編, 上海文化出版社, 1992년 4월 . p 17)

22) 《中國禁書大觀》, 安平秋, 章培恒主編, 上海文化出版社, 1992년 4월 . p 19)

23) 《中國禁書大觀》, 安平秋, 章培恒主編, 上海文化出版社, 1992년 4월 . p 19)

24) 河水清復清, 符詔死新城: 《晉書·前秦符堅載記》

적에 그의 수하에게 新字가 들어가는 지명은 모두 피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④ 劉宋의 참위서적의 이용과 금지

유송의 경우는 내막은 확실하지 않지만 왕조가 바뀔 때 당시의 전형적인 참위를 써서 정권을 탈취하는 사건의 표준이다. 그들이 나라를 얻을 때를 보면

송의 유유가 진을 대신하여 제위에 오를 때 태사령 낙달이 천문과 상서로운 징조 수 십 조를 진열해 놓았다, 진 공제 사마덕문이 선위하는 옥쇄를 서명하면서 말하기를 도참이 상서롭고 확연하다. 25)

또 劉宋이 불리할 때는 참위를 금하게 되는데 《隋书·经籍志》记载에 의하면 유송이 처음으로 참위를 금할 때는 孝武帝 劉駿의 대명 년간인데, 이 이전에 원가 37년 유송과 북위 사이에 강회에서 일 장의 평평한 줄 달리기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북위는 이때부터 유송의 위에 서게 되었으니, 大明 년간의 참위 사건을 금하는 것은 아마도 남북 간의 군사적 형세 변화가 있어 유송정권이 상황이 갈수록 불리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26)

그것은 마치 《汉书·扬雄传》에서 말하길 왕망이 부적의 이름으로 자립하더니, 즉위 후에는 그 신적인 것의 원천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왕망 이후의 역대 야심가 제왕들의 노련한 기술이다. 27)

25) 宋刘裕代晋即帝位, 大史令骆达陈天文符瑞数十条。晋恭帝司马德文禅位玺书就说:“图讖祲瑞,皎然斯在”。《宋書·武帝紀》

26) 据《隋书·经籍志》记载, 刘宋始禁讖纬是在孝武帝刘骏大明年间(公元457-464年), 自此之前元嘉三十七年(公元450年)刘宋与北魏在江淮间进行了一场锯战——瓜步之役, 北魏由此占了刘宋的上风, 大明年间的禁讖纬事件, 或许南北间军事形势变化、刘宋政权每况愈下有关。

27) 正如《汉书·扬雄传》说王莽以符命自立,“即位之后,欲绝其原以神其事”。

⑤ 蕭梁의 참위서적에 대한 금지

그 뒤에도 참위 서적의 금지는 그 뒤에도 劉宋 大明 년 간, 蕭梁이 다스리던 시기에, 소양왕의 첫 번째 황제인 蕭衍의 시기에 참위서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당시의 대학자 阮孝緒라는 隱士가 그런 책들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양무제가 그러한 금지령을 포고하게 되자, 어떤 이는 그것을 숨겨놓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는 숨겨 놓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불에 다 태워 버렸다는 것으로 보아, 양무제 때의 금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北魏의 참위서적에 대한 금지

비교해 보면 북방의 여러 왕조는 똑 같이 참위서를 금지하였지만, 남방의 왕조에 비해 법령이 비교적 엄격했다. 또한 선비족 拓跋 부족이 통솔하는 北魏에서 拓跋燾의 자손들은 참위서라든지 참위서 연관된 천문도서에 대해 공격할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태화 9년(서기 485년) 개혁가로 이름이 높은 효문제 拓跋宏의 참위서적에 대한 금서 사건이 그것의 전형적인 예이다. 다음과 같은 포고문이 붙어 있었다.

도참서적의 유행이 일어난 것은 夏·商·周의 말년에 생긴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헛된 요사스러움에 기인한 것이다. 지금부터 圖讖 秘緯와 《孔子閉房記》는 모두 불 태운다. 가지고 있으면 큰 벌으로 다스린다(死刑). 또 모든 무술적인 가짜로 귀신을 칭하는 것과 허망하게 길흉을 말하는 것과 또 경전에서 기재된 것이 아닌 시중에 돌아다니는 占卜에 대하여 엄격히 금지한다.²⁸⁾

이러한 금서는 서진 태시에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후조 진진 송 량 그

28) 圖讖之興，起于三季。既非經國之典，徒為妖邪所凭。自今圖讖、秘緯及名為《孔子閉房記》者，一皆焚之。留者以大辟論。又諸巫覡假稱神鬼，妄說吉凶，及委巷諸卜非墳典所載者，嚴加禁斷。(《全後魏文》卷三)

리고 북위에 이르기 까지 계속해서 참위서적에 대한 공격이 있었는데 법이 더욱 엄중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참위서적에 대한 관방의 금지 이유를 밝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헛된 요사스러움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뒤 북위 용평 4년(서기 511년)과 북위 회평 2년(서기 517년)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금지를 당하면서 참위서적은 더 이상 크게 그 위세를 떨치지 못했다.

4) 전국 통일 시기의 참위서에 대한 금지

①隋의 참위서적에 대한 금지

수나라를 개국한 隋文帝가 명령을 내려 사가에서 위서 도참서를 소장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고(私家不得藏纬候图讖)²⁹⁾ 隋煬帝 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곳으로 사자를 파견하여 참위서적을 찾아내어 불태워 버려서 수 왕조 도서관에도 참위서를 잘 찾아 볼 수 없었다. 隋煬帝는 즉위 후 곧 사자를 사방에 보내어 천하의 서적을 수집하여 참위와 관계된 것은 모두 태우라고 하였다.³⁰⁾ 이로부터 참위서적은 점점 소멸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唐初에 《隋書·經籍誌》를 편찬할 때 참위서적은 단지 13부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

②唐 五대의 참위서적에 대한 금지

당 고종 永徽 4년(서기653년)에

모든 현상기물(천문에 관계된 기구)이나 천문도서나 참위서, 병서, 달력, 점복은 사가에서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니 위반하는 자는 2년 징역에 처한다.(천문을 사사로이 배우는 자도 마찬가지로.) 緯書나

29) 《隋書·經籍誌》上

30) 煬帝即位，乃發使四出，搜天下書籍，與讖緯書籍相涉者皆焚之：(《隋書·經籍誌》)

《論語讖》은 그 범위에 넣지 않는다. 31)

하였고, 唐 代宗 大歷 2년에는 ‘참위가 불경하고 대중들을 의혹에 빠뜨리기가 심하여, 나라에서 금한 바가 있어 사가에서 소장치 못하게 하였다.’ 하여 천하의 各 州府에 조사하여 금하기를 명령하니 ‘칙명이 내려 온지 10일 안에 관에 보내어 그 곳의 수장이 증인을 모아 놓고 불 질러 없애라’고 하였다.³²⁾

五代의 後周 태조 때 즉 廣順 3년에 네 가지 방면의 금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첫 째 조가 아래와 같다.

금 후 모든 현상기물과 천문, 도서, 참서, 칠요력, 《태일》, 《뇌공식》은 사가에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사적으로 배우고 전하는 것을 금한다. 만약 가지고 있으면 모두 태워야 한다.³³⁾

이것은 당 고종시의 참위서적에 관한 내용과 거의 같다. 이렇게 하여 서기 3세기부터 서기 10세기 중엽의 750년 동안 참위서가 열 차례 금지되었다.

③宋의 참위서적에 대한 금지

서기 960년 조광윤이 송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된 후 제 4년째가 되는 서기 963년 그는 《唐律》과 《大周刑統》을 참고하여 《宋刑統》을 전국에 반포하였는데 《당률》중에 天文、圖書、讖書、七曜曆、《太一》、《雷公式》를 금한다는 조항을 남겨 두었는데, 그 집행은 그리

31) 諸玄象器物、天文圖書、讖書、兵書、七曜曆、《太一》、《雷公式》, 私家不得有, 違者徒二年(私習天文者亦同)。其緯候及《論語讖》不在禁限。(《唐律疏義》)

32) 讖緯不經, 蠱深于疑眾, 蓋有國之禁, 非私家所藏。命令天下各州府查禁, “敕到十日內送官, 本处长吏集眾焚毀。”(《舊唐書·代宗紀》)

33) 今後所有玄象器物、天文、圖書、讖書、七曜曆、《太一》、《雷公式》, 私家不得有及衷私傳習, 如有者, 并須焚毀。《五代會義》卷十一

심하게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송초에 참위를 금한다고 했을 때 대신 趙普가 開封 府民이 《推背圖》³⁴⁾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 없애려도 해도 다 없앨 수가 없다고 태조에게 上奏하자, 태조가 듣고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하길, "심하게 금할 필요 없고 그것의 순서를 혼란스럽게 바꾸어 놓으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관련 부분이 그 순서를 앞뒤로 전부 바꾸어서 민간에 유포시키니 그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 민간에서 소장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태조 만년 서기972년에 또 한 차례 참위서적에 대한 금지가 있었다.

현상기물(천문에 관계된 기구)이나 천문도서나 참위서, 달력, 점복은 사가에서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니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 관청에 보내도록 하라.³⁵⁾

또 宋 眞宗 景德 元年(서기1004년) 정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민간의 천상기물이나 참후금서를 전부 관청에서 받아들여 불태우라. 만약 은닉한자는 죽인다.³⁶⁾

그리고 송나라 제 3대 황제인 진종 때인 1004년에는 다음과 같은 또 한 번의 참위서적에 대한 禁書습이 있었다.

도참, 천문역법의 서적과 그전에 금했던 것을 사적으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으니 지금 다시 엄금한다. 지금부터 민간에 천상기물이나 참위의 서적이 있으면 모두 바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불태운다. 숨겨 놓고 말하지 않는 자는 사형으로 논하고, 그것을 만약 관에 고하는 자는

34) 《推背圖》是一部讖書，相傳為唐代李淳風所作。

35) 禁玄象器物、天文、圖書、讖書、七曜曆、《太一》、《雷公式》、《六任遁甲》等，不得藏于私家，有者并送官 《宋刑統》

36) 民間天象器物，讖候禁書，併納所司焚之，匿不言者死 《宋史·眞宗紀》”

10만 냥의 상을 준다.³⁷⁾

라고 하였으니 송 때에는 참위서적에 대한 법령이 점점 엄격하여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元の 참위서적에 대한 금서

元나라 世祖 至元 10년(1273년)에 “陰陽圖讖等書”를 금한다 하였고, 至元 21년(1284년)에 다시 禁令을 내려 “사적으로 배우거나 숨겨 놓은 자는 죄를 준다³⁸⁾ 하였다.

원대는 몽고족이 중원을 통치하던 시기이다. 서기1276년 元 世祖 忽必烈 남송의 도성 임안을 침략하여 남송의 멸망시켰다. 그는 그의 윗대와는 반대로 農桑을 중시하고 儒生을 중용하고 정주이학을 숭배하여 원대에서 유일하게 문화 건설 방면으로 노력한 황제라, 상당 부분 사대부의 호감을 얻었던 인물이다. 그러한 것은 그가 "以夏變夷"의 기도가 여실하게 엮 보인다고, 그러던 그가 서기 1266년부터 1286년 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금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이 당나라 때의 도참, 음양, 점복, 요서를 금한다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한 책을 이용하여 모반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샤마니즘에 강하여 도참 같은 것이 생기면 꼭 그대로 시행된다고 믿는 의식이 강하였으므로 그렇게 여러 차례 참위서적을 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宋代가 그랬던 것과 같은 관방의 의사와 서로 맞지 않은 개인 문집, 야사, 학술저작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그후 40년이 지난 泰定帝 참위서적에 대한 금서를 시행하였다. 원대는 중원의 우수한 문화를 숭배하여 그들의 문화와 융합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원체 민족 전체가 무력을 숭상하고 문화에 대하여 몽매했던 터라, 그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였다.

37) 圖讖、推步之書、舊章所禁，私習尙多，其申嚴之。自今民間應有天象器物、讖候禁書，并令首納，所在焚毀。匿而不言者論以死，募告者賞錢十萬。

38) 有私習收匿者罪之(《元史·世祖紀》)

⑤明 淸의 참위서적에 대한 금지

명대의 금서는 성격적으로 전조와 많이 다른 면이 있지만 참위 서적이나 천문서적을 민간이 소장하거나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 시켰다. 洪武 6년(서기 1373)에 제정한 《大明律》에 아주 확실히 규정하기를

무릇 사가에서 현상기물이나 천문 도참서적과 역대대왕의 도상이나 금옥으로 된 옥쇄들을 사가에서 소장하는 자는 장 100대를 치고, 만약 사사로이 천문을 배우는 자도 똑같이 한다. 어울러 범인 이름에 은 10량을 걸고, 알려주는 사람에 상으로 준다.³⁹⁾
무릇 참위, 요서, 요언을 만드는 자나 그것을 전파하여 여러 사람을 혹하게 하는 자는 모두 참한다..... 무릇 사적으로 요서를 숨기고서 관에 바치지 않는 자는 장 100대에 징역 3년에 처한다.⁴⁰⁾

하여 참위서를 엄격히 금하였다. 도참의 왕조 정치에 대한 위해성은 누누이 강조되어, 거듭 거듭 금서에 처해졌다. 관에서 엄격히 금해져서 명대 당시에 유행했던 사교와 연관이 있는 소위 ‘요서’와 합류하게 되었다.

청대에 이르러서는 한족과 만주족 사이의 민족적인 모순이 아주 격렬했던 시기이다. 그 전기인 명대에 문자옥이 발생하여 허다한 무고한 사람이 죽임에 처해졌고 심지어 그 가솔들 까지도 살해됨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文字獄은 모두가 통치자가 일벌백계의 시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조작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것과 상응하여 《四庫全書》를 修補함에 있어서도 당시에 전해지던 모든 도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어떤 것을 유통시키고 어떤 것을 유통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결정하여 수많은 서적을 추려내어 버렸으니 어찌 참위서적이 거기에 끼어들어갈 수가 있었겠는가?

39) 凡私家收藏玄象器物、天文图讖、应禁之书及历代帝王图像、金玉符玺等物者, 杖一百;若私习天文者,罪亦如之,并于犯人名下追银一十两,给付告人充赏。
40) 凡造讖纬、妖书、妖言,及传惑众者,皆斩.....私有妖书,隐藏不送官者,杖一百, 徒三年。

Ⅲ. 결론

한나라 이후로 많은 환란과 전란을 거치면서 참위서는 위진 이래로 역대로 여러 차례 금지와 훼손을 거치면서 아주 많이 상실 되었다. 東晉 元帝시에 散騎常侍 戴邈이 표를 올려 말하기를 도참은 더 이상 세상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 南北朝와 隋朝의 금지와 훼손을 거치면서 《隋書·經籍誌》에 실린 것에 의하면 겨우 12부 29권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당조에도 도참 서적을 금령으로 나타내었고 법률로서 명시했기에 당 고종 때에 만들어진 《唐律疏義》에 의하면 사가가 도참 서적 등을 소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했으나 緯書나 《論語讖》은 그 범위에 넣지 않는다 했는데, 해석에 의하면 “圖書라는 것은 하에서 그림이 나오고 洛에서 서적이 나온 것이고, 緯書라는 것은 선대의 성현이 기록한 바로 미래의 상서로움을 증험한 책이다.” 라고 되어 있어 河洛圖讖만이 금지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율에 규정하기를 “緯候나 《論語讖》은 그 범위에 넣지 않는다.”고 했는데 위후가 가리키는 것은 《칠경위》와 《尙書·中候》로 하락도서의 미신적인 색채와 성현이 기록한 것이라는 차이 때문에 經緯나 《論語讖》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보존 될 수가 있었다.

宋나라 眞宗때에도 민간의 천상기물이나 참후금서를 전부 관청에서 받아들여 불태우라. 만약 은닉한자는 죽인다고 했고, 歐陽脩가 《乞校正九經札子》에서 간하여 말하길: “九經의 모든 注疎에서, 讖緯의 문장을 모두 없애버리소서. (悉取九經之疎, 刪去讖緯之文)” 라고 했으나, 그것이 비록 실천 되지는 않았으나 그 뒤에 魏了翁이 撰한 《九經要義》에서는 참위의 문을 모두 제거해 버렸다.

元나라 世祖 至元 10년(1273년)에 “陰陽圖讖等書”를 금한다 하였고,

至元 21년(1284년)에 다시 私藏天文圖讖의 禁令을 내려 “사적으로 배우거나 숨겨 놓은 자는 죄를 준다 하였다.

명 홍무 6년(1373년)에는 趙倅이 “《十三經》을 천하에 반포하여 바르게 정하고, 《전국책》과 陰陽, 讖蔔書와 같은 책을 물리치소서.” 洪武六年(1373年)趙倅"請頒正定《十三經》于天下,屏《戰國策》及陰陽讖卜諸書"(《明史·趙倅傳》)。라고 하였다.

이것이 魏晉에서 부터 元 明에 이르기 까지 일천여년의 참위를 금절한 개략적인 상황이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수양제가 사자를 사방으로 보내어 참위서를 찾아 바치게 한 이후로 참위서는 대량으로 산실되었다. 당 이후에 요행으로 남아 있던 것은 대부분이 잔질에 불과 했다. 그런데 참위서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게 된 연유는 첫째로 《唐律》이 명확하게 《七經緯》와 《論語讖》은 거두어들이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고 하여, 그 나머지는 모두 없어졌지만, 이러한 것은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것이 그 이후의 참위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五經定義》《文選注》《開元占經》나 각종의 이라한 책속에 보존되어 있던 참위가 요행이 보존 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역대 참위의 금지는 대부분이 민간에 사장하던 것을 금절한 것으로, 황가의 밀서는 금질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부분적인 참위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청나라가 《四庫全書》를 수리할 때 명대의 《永樂大典》중에서 《易緯》를 편집해 넣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황가의 도서관의 장서도 전란과 천재, 인재 등으로 朝代가 바뀔 때마다 크게 손실을 입어 얼마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참위의 학문은 동한의 정치와 사회생활 그리고 학술사상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가 동한 말년에 쇠퇴해졌다. 원래 참위 서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의해서 조대가 바뀌는데 이용되었다. 그런데 통치자는 그 것의 위험을 점점 의식하게 되었고 위진 이후에는 수 차례 금지되다가, 수양제가 정식으로 금지한 후에는 참위의 서적은 대량으로 손실되었다. 참위라는 것은 신학적이고 미신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에 아예 유가 경전과는 장기적으로 병행 되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비교적 빨리 유가 경전과 분리되어 나갔다.

그러나 참위의 서적은 전부다가 완전히 황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 속에는 또한 허다한 천문, 역수, 지리학 등의 방면의 고대 자연과학 지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妻綱”과 같은 수천 년 중국 군주 전제 사회의 최고의 윤리 규범이었던 삼강도 《白虎通義》라고 하는 것에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禮緯 《畝文嘉》 중에서 인용해 나온 것이다.

참위는 처음에는 인간과 천지 혹은 자연과의 교류의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으로 시작하여 유가 경전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해석하고 학문의 폭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역대 제왕들이 그것을 정권 탈취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왜냐하면 도참을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한 자에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오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것의 위력을 아는 자는 그것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중국의 금서사상 참위는 후대로 갈수록 배척되어 왔음에도 아직도 우리의 뇌리 속에 신비스러운 잔영으로 남아 있다.

[參考文獻]

- 《中國禁書大觀》,安平秋·章培恒主編,上海文化出版社,1992년4월.
 《禁書詳解》,古亦冬編,天津社會科學院出版社,1993년5월.
 《中外禁毀小說100部》,李文,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1993년11월.
 《中國禁毀小說百話》,李夢生著,上海古籍出版社,1994년12월.
 《世界發行禁止圖書100選》,安春根編著,瑞文堂,1975년4월.
 《上下五千年》,少年兒童出版社,2002년9월.
 其他:《論語·子罕》,《論語·先進》,《春秋繁露·同類相動》,《漢書·董仲舒傳》,《漢書·楊雄傳》,《後漢紀·卷一》,《後漢書·光武帝紀》,《宋書·武帝紀》,《南齊書·高帝紀》,《梁書·處士傳》,《後漢書·袁術》,《三國志·魏書·常林》,《晉書·前秦苻堅載記》,《宋書·武帝紀》,

《汉书·扬雄传》

《五代會義》卷十一,《全后魏文》卷三,《唐律疏義》,《舊唐書·代宗紀》,
《宋刑統》,《宋史·眞宗紀》,《元史·世祖紀》

[中文摘要]

讖纬学说在东汉时期,在政治和社会生活以及学术思想等领域产生了巨大的影响,而在东汉末年,日渐衰落。讖纬之说原是人为所做,所以也就被某些人利用来进行改朝换代。但是,政治家渐渐意识到它的危险性,于魏晋以后屡次被禁止,隋炀帝时期,被正式禁止后,讖纬之书大量损失。因讖纬具有神学及迷信色彩,所以无法与儒家经传正式并行,也就较快地与儒家经传分离了。

但是,讖纬之书,并不是全部都是荒诞之说。那里面还是包含着许多天文,易数,地理学等方面古代科学知识,除此之外,如“君为臣纲”,“父为子纲”,“夫为妻纲”数千年以来中国全体社会的最高伦理规范,这‘三纲’确切地记载《白虎通义》中。那是从礼纬 《含文嘉》中引用出来的。

图讖最初是从人与天地或是与自然的交流层次出发而进行论述,在儒家经传的更高层次进行解释并扩展学问范围的,历代帝王开始以它作为夺取政权为目的,就开始走向衰落之路。因为,对利用图讖夺取政权的人来说,图讖极易又变成飞镖飞向自己,因此,知道其威力的人对它是深感恐惧的。在历代的禁书史上,讖纬后来几乎都是被排斥,但它在我们的脑海中,依然留有神秘的影子。

[국문 초록]

참위의 학문은 동한이 정치와 사회생활 그리고 학술사상 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가 동한 말년에 쇠미해졌다. 원래 참위 서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의해서 조대가 바뀌는데 이용되었다. 그

런데 통치자는 그 중의 위험을 점점 의식하게 되었고 위진 이후에는 수 차례 금지되다가, 수양제가 정식으로 금지한 후에는 참위의 서적은 대량으로 손실되었다. 참위라는 것은 신학적이고 미신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에 아예 유가 경전과는 장기적으로 병행 되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비교적 빨리 유가 경전과 분리되어 나갔다.

그러나 참위의 서적은 전부다가 완전히 황당한 것은 아니었다. 그 속에는 또한 허다한 천문, 역수, 지리학 등의 방면의 고대 자연과학 지식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처강”과 같은 수천 년 중국 군주 전제 사회의 최고의 윤리 규범이었던 삼강도 《白虎通義》라고 하는 것에 확실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禮緯 《畝文嘉》 중에서 인용해 나온 것이다.

도참은 처음에는 인간과 천지 혹은 자연과의 교류의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으로 시작하여 유가 경전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해석하고 학문의 폭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 역대 제왕들이 그것을 정권 탈취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부터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 왜냐하면 도참을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한 자에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스스로에게 다시 돌아오기 일쑤이기 때문에 그것의 위력을 아는 자는 그것을 두려워 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중국의 금서사상 참위는 후대로 갈수록 배척되어 왔음에도 아직도 우리의 뇌리 속에 신비스러운 잔영으로 남아 있다.

关键词：孔子 董仲舒 祥瑞 灾异 讖纬 图讖

투고일: 2008. 10. 31.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高行健의 문학실험과 선불교적 사유*

강 경 구**

— <목 차> —

1. 서론
2. 語言流적 글쓰기와 無住無相적 사유
3. 《靈山》의 병렬구조와 對法적 사유
4. 《靈山》의 공간배치와 卽非否定法
5. 《靈山》의 시간설정과 相卽別成의 시간
6. 이야기하기의 존재성과 禪門의 眞如 화법
7. 결론

1. 서론

2000년 노벨상 수상자인 高行健의 글쓰기는 끝없는 문학실험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가 중국 문예계의 주목을 받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되는 《現代小說技巧初探》¹⁾은 보기에 따라 일종의 문학실험계획서로 규정될 수도 있다. 또 그의 문학활동의 본무대라 할 수 있는 희극창작에 있어서 高行健은 같은 경향의 작품을 반복하여 창작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도한 문학실험은 자칫 새로움에 대한 강박관념의 표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진부함이 될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21-A00846)

**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kkkang@deu.ac.kr)

1) 高行健, 《現代小說技巧初探》(北京: 花城出版社, 1981)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실험은 자기의 삶을 시료로 하는 인생 실험, 영혼의 실험과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요구되는 끝없는 자기부정과 신생이야말로 진정한 문학실험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다.

문학창작기교에 대한 모색과 학습²⁾에서 시작된 高行健의 문학생애는 작품 《靈山》에서 그 내용성에 대한 진정한 실험에 도달한다.

사실 《靈山》의 특징으로 얘기되는 것들, 예컨대 인칭의 전환, 언어의 흐름 혹은 의식의 흐름, 공간과 시간의 전도된 배치, 스토리의 인과성 배제 등은 이미 그의 희극창작에서 부분적으로 실험된 바 있는 것들이다. 특히 그것은 《現代小說技巧初探》에서 이론적으로 정리되고 추구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문학적 실험들은 《靈山》의 창작에서 집중되고 심화된다.

그런데 스토리와 플롯, 인물형상, 시간의 흐름, 공간의 변화 등에 있어서의 연계성, 내지 인과성을 배제한 글쓰기가 장편소설이 될 수 있을까?

高行健은 이러한 기교들이 바로 불교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사유방식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그의 《靈山》은 형식과 내용의 통일이라는 문학의 영원한 숙제를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말한 바 《靈山》의 기교적 특징들이 불교적 사유와 어떻게 결합하고 이로 인해 내용적 깊이를 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語言流적 글쓰기와 無住無相적 사유

2) 《現代小說技巧初探》에서 쉽게 발견되는 바와 같이 고행건의 기교에 대한 모색은 광범위한 서양 배우기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필기소설과 장회소설 등의 비소설적 기교의 발견으로 귀결된다. 그는 서양의 지극히 전위적인 형식과 기교들이 이미 중국에 있었던 것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작품창작에 적용하는 모델로 삼고자 하였다.

《靈山》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물과 사건에 있어서 전후맥락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로 구체적으로 사건의 전개와 스토리가 없고, 주제의식이 없으며, 인물의 성격형성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작가는 왜 이러한 구성방식을 취했던 것일까? 작가의 문학적 탐색과 그 여정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구성방식은 중국어의 특징에 대한 그의 발견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나는 중국어가 본질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와 목적어를 마음대로 뒤바꿀 수 있고, 동사에 인칭이 없으며, 시태가 없고,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인칭이 없는 문장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중국어 구조의 여러 가지 기제는 더욱 자유로운 표현방법을 끌어낼 수 있다. 내 스스로 語言流라 명명한 글쓰기는 바로 여기에서 발단한 것이다.³⁾

그의 자칭 語言流적 글쓰기는 조이스(James Augustine Aloysius Joyce, 1882~1941) 등이 시도한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에 견준 말이다. 의식의 흐름을 구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의식은 언어작용과 별도로 존재한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심층적 차원의 의식을 표현하고자 할 때 문법의 파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高行健의 개별적 문장들은 정연하고 섬세하며⁴⁾ 맥락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언어의 흐름에 충실한 語言流는 시간, 공간, 인물, 스토리의 연계성과 그에

3) 我進而發現漢語的詞性無定形, 主語賓語可自由顛倒, 動詞無人稱, 無時態的形態, 主語可以省略, 以及無人稱句的普遍使用, 凡此種種, 《馬氏文通》以來套用西方語法的漢語語法應該重寫. 從漢語結構的許多機制可以引發更爲自由的表述方法, 我自己稱爲語言流的寫法便從中發端. 高行健, 《沒有主義》(臺北: 聯經出版社, 2001), 6쪽

4) 劉再復은 이와 관련하여 그의 문장이 완전한 전체를 이루고 있으며, 과편적이지 않고, 심지어 음악성이 넘치며, 이미지나 소리의 아름다움까지 갖추었다고 평하면서 이것이 의식의 흐름을 지향하는 작품들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는 劉再復, <閱讀《靈山》與《一個人的聖經》> 《高行健論》(臺北: 聯經出版社, 2004), 122쪽 참조.

기반한 주제의식의 형성에 대해서는 극히 비협조적이다. 이러한 중국어의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 글쓰기에 대한 高行健의 구상은 선적 사유의 발견에 의해 그 내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중국어의 특징에서 소설의 형식에 대한 영감을 얻고 그 내용을 선적 사유로 채웠다고나 할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개인의 인생사나 민족 혹은 국가의 역사에 있어서 과연 무엇인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있거나 한 것일까? 혹 거기에는 그저 무수한 인물과 사건들이 정해진 방향없이 흩어져 있을 뿐인 것은 아닐까? 그 중 특정한 인물과 사건을 선택하여 전후관계로 배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훨씬 이후에 일어나는 관념적 작업일 뿐인 것은 아닐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쯤에서 다음과 같은 六祖 慧能의 말을 보자.

사람의 본성은 생각, 생각에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이다. 앞의 생각, 지금의 생각, 뒤의 생각이 생각, 생각 이어져 끊어짐이 없게 되는데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형상가진 이 몸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생각 생각이 모든 현상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만약 한 생각이 고정되면 생각 생각이 고정되는데 이를 엮매임이라 한다. 모든 현상에 고정되지 않으면 엮매이지 않게 되니 그러므로 고정되지 않음을 근본으로 하는 것이다.⁵⁾

소위 無住無相이라 하는 것이 이것으로 사람의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의 작용이 바로 본질이라는 것이다. 혜능이 보기에 그것들은 앞의 생각, 지금의 생각, 뒤의 생각으로 존재할 뿐 상호 연결되어 어떤 의미나 관념을 생성하지 않는 것이었다. 혜능은 이것이 삶의 본질이므로, 우리는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때 생각과 생각이 일어나는 생동감 넘치는 현장

5) 無住者，爲人本性，念念不住，前念今念後念，念念相讀，無有斷絕。若一念斷絕，法身即是離色身。念念時中，於一切法上無住，一念若住，念念即住，名繫縛。於一切法上，念念不住，即無縛也，是以無住爲本。慧能，《六祖壇經》

을 알아차리는 일⁶⁾이 중요하게 된다. 모든 생각은 평등하여 우열이 없고, 중요성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혜능은 이것이 無住無相無念의 진정한 뜻이라 보았다. 또한 만약 그 중에 어떤 한 생각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고정되면 그것은 곧 관념에 묶여 삶을 소외시키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高行健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즉 삶의 단편들, 혹은 에피소드들은 상호 평등하며 그 상호간에 우열이나 경중의 차이가 없다. 그에게 있어 삶의 모든 것은 우연일 뿐이며 알 수 없는 것⁷⁾이다. 그러므로 이 단편들과 에피소드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 되고, 인지되면 그 뿐--이것이 語言流, 즉 언어의 흐름에 충실한 글쓰기의 핵심이 되겠다--, 그 중 어떤 것에 특별한 것에 방점이 찍혀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그 단편들이나 에피소드들이 상호 결합되어 무엇인가 궁극적인 것을 생성해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高行健이 진저리치도록 체험한 바 정치와 권력에 의한 폭력⁸⁾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語言流, 즉 언어의 흐름에 기반한 글쓰기가 어떻게 소설을 구성하고 독자에게 체험될 수 있는가? 高行健에 의하면 그것은 작품창작에 있어서의 언어의 기능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 언어의 배후에는 진실이 있고, 진실은 느끼고 알아차리는 자리에서 출발하며 객

6) 지금 현재의 이것을 관찰하고 알아차린다는 뜻에서 그것은 現觀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며, 그 관찰의 작용에 차별적 등급이나 떨어진 간격이 없다는 점에서 無等間이라 표현되기도 한다. 現觀의 개념과 실질적 구현형태에 대해서는 월암 저, 《돈오선》(서울: 클리어마인드, 2008), 22~35쪽에 자세하다.

7) 由种种机缘造成的这偶然, 不妨称之为命运. 上帝之有无且不去说, 面对这不可知, 我总心怀敬畏. 《靈山》, 533쪽.

8) 작가는 니체 이후 초인, 영도자, 원수, 지도자 등을 자처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폭력을 회상한다. 그것은 작가 개인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체험적 개인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 참고. 尼采之后的那一个世纪, 人为的灾难在人类历史上留下了最黑暗的纪录. 形形色色的超人, 号称人民的领袖、国家的元首、民族的统帅, 不惜动用一切暴力手段造成的罪行, 绝非是一个极端自恋的哲学家那一番疯话可以比拟的……. 《靈山》, 533쪽.

관적인 것이라 보았다.

여기에서 高行健이 지향한 바, 語言流적 글쓰기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며 어떤 효과를 갖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제9장을 예로 들어 보자. 이 9장은 다른 홀수의 장과 마찬가지로 당신과 그녀의 대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녀에게 들려주는 당신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들은 도시에서 왔다가 당서기에게 강간당하고 물에 뛰어내려 죽은 젊은 처녀 얘기→ 위뚜의 원귀벼랑으로 불리는 자살터→ 靑島 얘기→ 자살한 시골처녀 얘기 등이 별 연관성없이 배치되어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여성의 자살과 관련된 이 얘기들을 통해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당신이 하는 이 얘기들은 이러한 주제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부차적 요소가 아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걷고, 멈추고, 앉고, 눕는 일상행위처럼 목적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제 9장의 구성에서 보자면 그 이야기들은 ‘그녀’와의 공존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행위들, 예컨대 당신의 손짓, 발짓, 포옹, 성애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이야기꾼인 당신은 가수가 노래하듯, 무희가 춤을 추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3. 《靈山》의 병렬구조와 對法적 사유

《靈山》은 장의 배치, 그리고 시간과 공간, 인물과 사건의 배치에 있어서 독특한 병렬구조를 취하고 있다. 전체 81개의 장의 배치에 있어서나, 서로 인접한 장의 배치에 있어서, 그리고 인칭, 공간, 시간, 사건의 배치에 있어서 각각은 연계성없이⁹⁾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9) 이와 관련하여 성민엽은 그 파편화되어 있는 장들에 어떤 의미적 경향성이 발견됨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의 일관성 내지 경향이 잠재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다.(설사 작가가 그것을 의도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관성 내지 경향의 잠재조차 전혀 없는 파편화가 가능할까?)’ 성민엽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상해

서는 주로 전체적 장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소설은 전체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道德經》(81장)에서 보여준 바, 본질(道)의 수렴작용과 현상(德)의 확산작용 간에 펼쳐지는 역동적 운동에 대한 메타포어¹⁰⁾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고 명확한 경로를 택해 제1장과 제81장의 배치와 상호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제1장은 말할 것도 없이 《靈山》을 찾는 여행이 시작된다. 당신은 장거리 버스를 타고 남방의 한 조그만 마을에 도착한다. 기차의 한 승객에게서 들은 靈山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한 후 첫번째 방문지이다. 그는 靈山을 찾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

烏伊라는 작은 鎮까지는 차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는 배를 타고 尤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¹¹⁾

중국어의 발음으로 보면 烏伊는 없음(無一)의 쌍관어이고, 尤강은 있음(有)의 쌍관어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본질(烏伊)과 현상(尤)에 대한 비유이다. 본질과 현상의 관계에 대한 천착은 또 산(靈山, 본질)을 거슬러 찾고 강(長江, 현상)을 따라 흘러가며 노니는 체험을 통해 표현되어 있기도 하다.¹²⁾ 제1장에서는 ‘당신’의 여행이 이러한

옮김, 《영혼의 산·2》(서울: 현대문학북스, 2001), 300쪽 참조.

10)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살펴본 바 있다. ‘그것은 $9 \times 9 = 81$ 의 숫자이고, 《道德經》(81장)의 숫자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로 보거나 그 숫자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최대수인 9의 반복이라는 점에서 이 소설이 끝없는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으며, 《道德經》의 숫자라는 점을 통해 도가의 무위자연적 지향을 읽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경구, 《高行健과 중국당대소설》(부산: 세종출판사, 2005), 10~11쪽 참조.

11) 可以坐車先到烏伊那個小鎮, 再沿尤水坐小船逆水而上. 高行健, 《靈山》(臺北: 聯經出版社, 1990)(이후 《靈山》), 3쪽.

12) 본질과 현상을 산과 물로 상징하는 것은 정신적 추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던 언어관행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儒家의 仁者樂山, 智者樂水의 구절이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다. 그렇지만 가장 극적인 표현은 陶淵明의 《桃

철학적, 종교적 진리탐구를 목표로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장인 제81장을 살펴보자. 제81장에서 ‘나’는 방에 앉아--그것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머물던 북경의 자기 방으로 이해된다--조그만 개구리를 보며 그것이 신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행은 끝난 것인가? ‘나’가 질문한다.

그렇다면 아직도 추구할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묻는다.
주위는 고요하고 눈이 소리 없이 내린다. 나는 그 평정이 조금 의아스럽다. 천당이 이렇게 안정되고 고요하리라. 기쁨도 없으리라. 기쁨은 근심에 상대되는 말이니까.¹³⁾

제1장과 제81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상호 대조적이며 병렬적이다. 먼저 ‘당신’과 ‘나’라는 화자가 대조적이며, 상호 연계되어 있지도 않고, 또 어느 쪽으로도 중심이 기울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렬적이다. 여행을 시작한 것은 ‘당신’이고, 여행을 끝낸 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은 ‘나’이다. 작가의 설명¹⁴⁾에 의하자면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이며, 나의 그림자이다. 형식적으로 보자면 나는 본질적 자기에 가깝고, ‘당신’은 형상적으로 드러난 존재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림자이기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자신인 ‘당신’에서 진리를 찾는 여행을 시작하여 결국 진정한 자기에게 돌아가는 여정을 취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결론이

《花源記》의 물을 거슬러 올라가 산 속의 동굴로 들어가는 이야기에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을 《靈山》 제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 ‘你找尋去靈山的路的同時, 我正沿長江漫遊, 就找尋這種真實.’ 《靈山》, 12쪽.

13) 那麼,還有什麼可追求的? 我問他. 周圍靜悄悄的, 雪落下來沒有聲音. 我有點詫異這種平靜. 天堂裡就這麼安靜. 也沒有喜悅. 喜悅是對憂慮而言. 《靈山》, 526쪽.

14) 高行健은 제51장과 제52장에서 비교적 논리적으로 나와 당신, 그와 그녀 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52장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자. 在這漫長的獨白中, 你是我講述的對象, 一個傾聽我的自己, 你不過是我的影子. 當我傾聽我自己你的時候, 我讓你創造出個他, 因為你同我一樣也受不了寂寞, 也要找尋個談話的對手. 《靈山》, 318쪽.

‘나’로 끝난다고 하여 ‘당신’의 이야기들은 비본질적이고 부차적인 것이라 이해하여도 되는 것일까?

여기에서 나와 당신은 상호 부정하면서 상호 긍정하는 모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1장, 당신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제81장에서 당신으로 끝난다면 결과적으로 당신을 실체화시키게 된다. 마찬가지로 나로 끝나는 이 이야기가 제1장에서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은 나를 실체화시키는 일이 된다. 그런데 《靈山》의 당신은 나에 의해서 부정되고, 나는 당신에 의해 부정되어 그 실체를 상실하고 만다. 단적으로 여행을 출발하는 시점에 분명히 살아 움직이던 당신은 여행이 끝난 지금 어디에도 없다. 또 여행을 끝내고 고요히 앉아 있는 나는 도대체 언제 여행을 출발하였는가?¹⁵⁾ 결국 나와 당신은 상호 부정되어 고정된 실체가 없는 흐릿한 유령처럼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만 다시 살펴보자. 나와 당신의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여 아예 그 존재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1장의 여행 출발지의 어수선한 모습을 그리는데 있어서 당신이 하는 역할은 거의 없지만 당신의 개입 없이 관찰의 시선은 움직일 수 없다. 예컨대 여관에서 쉬려던 당신이 옆방에서 떠드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항의를 하러 달려가 문을 두드리는 경우를 보자. 문을 두드리나 마나 마찬가지로, 방안은 계속 소란스럽고 아무도 당신에게 응답하지 않는다.¹⁶⁾ 결국 당신은 여관방에서 노름을 하는 이 사내들의 소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당신이 개입된 사건이다.

15) 항상 본질은 떠난 적 없고 현상은 生住壞滅의 흔적을 남긴다. 예컨대 붓다의 생애는 生住壞滅의 흔적이지만 본질로서의 붓다는 지금 이 자리의 도량을 떠난 적이 없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冶父의 충격적이면서도 통쾌한 노래에 잘 나타나 있다. 巍巍堂堂萬法王, 三十二相百千光. 莫謂慈容難得見, 不離祇園大道場. 《金剛經五家解·法會因由分》

16) 敲與不敲都一個樣, 裏面照樣哈噶, 並沒有人答理. 你乾脆推門進去, 圍坐在當中的一塊鋪板上的四條漢子都轉身望你, 吃驚的並不是他們, 恰恰是你自己. 四個人四張怪相, 臉上都貼的紙條, 有橫貼在眉頭上的, 也有貼在嘴唇鼻子和面頰上的, 看上去又可惡又可笑. 可他們沒有笑, 只望著你. 《靈山》, 9쪽.

마찬가지로 제81장 역시 작은 개구리가 눈을 깜박이며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한 일은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나의 관찰과 인식이 분명하게 개입되어 있다.

결국 당신의 움직임(1장)은 나의 관찰과 인식(81장)에 의해 그 존재성이 드러나고, 나의 조용한 관찰은 당신의 움직임에 의해 그 실재성이 드러나는 상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을 禪門에서는 對法이라 부른다. 慧能의 말을 보자.

혹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법을 묻거든 항상 말을 쌍으로 하여서 모두 상대적 현상을 취하여 오고감이 서로 원인이 되도록 하되 마침내 두 현상을 다 제거하여 다시 갈 곳이 없게 하라.¹⁷⁾

말을 쌍으로 하고 상대적 현상을 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육조 혜능은 이와 관련하여 36가지 구체적 예를 들고 있다. 예컨대 '어떤 것을 어두움이라 하는가?' 하고 묻는 이가 있으면, '밝음이 사라진 것이 곧 어두운 것이라' 대답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밝음으로써 어두움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내서 오고 감이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¹⁸⁾ 여기에 왜 對法으로 사유하고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와 있다. 그것은 바로 중도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중도는 對法식으로 말하자면 양극단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高行健은 자신의 작품활동을 통해서 관념에 묶이지 않는 살아있는 인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高行健이 보기에 진정한 살아있는 인간의 삶은 어떤 객관적 주의주장에 묶이지 않는 것인 동시에 개인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17) 忽有人問汝法，出語盡雙，皆取對法，來去相因，究竟二法盡除，更無去處。《六祖壇經》〈法門對示 第九〉

18) 設有人問，何名爲暗。答云，明是因暗是緣，明沒即暗，以明顯暗，以暗顯明。來去相因，成中道義。《六祖壇經》〈法門對示 第九〉

아무런 주의주장이 없는 사람이 더 사람답다. 어떠한 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더욱더 인간의 본성에 부합된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르치 않는다. 더구나 이 호오·시비·선악이라는 것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에 의해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이라는 것도 각자의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의주장이 없다는 것이 개인주의는 아니며, 개인의 판단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도 아니다.¹⁹⁾

高行健은 이처럼 주의주장이 없는 살아있는 삶을 드러내는 일을 자신의 문학적 추구로 삼았는데 말하자면 이것이 그가 추구하는 바 중도이다. 위에서 살펴본 제1장과 제81장의 구성은 바로 이러한 對法의 사유를 적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나로 인해 생겨난 것이며, 나는 당신으로 인해 그 존재를 확인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구도여행의 출발은 그 귀환에 의해 설명되며, 귀환 역시 출발이 있으므로 의미를 확보하게 된다. 거기에는 언제나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對法적 어투를 빌려 출발과 귀환을 설명해보자. 우선 귀환은 여행을 멈춘 상태라는 점에서 출발에 대한 부정이다. 특히 그동안의 구도여행을 통한 추구가 어떤 구체적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부정은 보다 철저하다. ‘아직도 추구해야 할 만한 뭔가가 있는가(還有什麼可追求的)’ 하는 질문은 그 간의 추구를 통해 필요한 것을 찾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결과 추구 그 자체가 불필요함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나’가 경험하는 이 ‘천당의 안정과 고요(天堂裡就這麼安靜)’는 출발이 없었다면 얻을 없는 것이었다는 점에

19) 一個沒有主義的個人倒更像一個人，不成其為某種主義者的個人看來倒更符合人性，且不管好與壞，是與非，善與惡，況且這好壞是非善惡也都是他人根據他人的標準下的判斷，這判斷又由於標準不一而各不相同。沒有主義，也非個人主義，不全以個人判斷為唯一的座標。高行健，《沒有主義·自序》(臺北：聯經出版社，2001)，3쪽.

서 출발에 대한 긍정이 된다. 이러한 순환구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출발과 귀환이 특별히 서로 다를 게 없다는 불교적 不二論에 동의하게 된다.

4. 《靈山》의 공간배치와 卽非否定法

高行健의 소설에서 장의 구성, 인물, 공간, 시간, 사건 등 소설을 이루는 모든 것은 후자는 전자를 부정하고, 이로 인해 부정된 새로운 전자는 다시 후자를 부정하는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것은 $A < B < A' < B'$ 식의 무한궤도를 그리며 부정운동을 계속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공간의 배치를 통해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靈山》에서 중심이 되는 공간은 靈山이다. 그러나 그것은 실체가 없는 공간일 뿐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떻게 규정을 하든 그것은 다른 모습이 되어 빠져 나간다.

둘다리가 하나 있나요? 없어요? 계곡을 따라 올라갈까요? 그대로 큰 길을 따라가는게 낫나요? 큰 길을 따라가면 멀까요? 길을 좀 돌아 가면 분명히 알 수 있나요? 분명히 알면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중요한 것은 정성이랑요? 정성이 있으면 영험이 있을까요? 영험한지 어떤지는 오로지 운에 달렸으니 복이 있는 사람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쇠신발이 닳도록 다녀도 찾을 수 없더니 찾고 보니 힘쓸 필요가 전혀 없더라는 식이군요.²⁰⁾

번역하기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분위기의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위 예문에서 뒤의 문장은 항상 질문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앞의 문장을

20) 有一座石橋? 沒有石橋? 就順著溪澗進去? 還是走大路的好? 走大路就遠了? 繞點路心裡明白了? 心裡明白了一找就到? 要緊是心誠? 心誠就靈驗? 靈驗不靈驗全在運氣, 有福之人無須去找? 這就叫踏破鐵鞋無覓處, 尋來全不費功夫! 《靈山》, 92쪽.

부정하고 있다. 靈山, 혹은 그것과 유사한 靈岩에 가는 길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제시되면 그것이 바로 부정된다. 이를 통해 그곳은 적어도 어떤 정해진 방식이나 길을 따라가서는 도착할 수 없는 곳이 되고 만다. 결국 위의 예문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공간은 무수히 부정되어 靈山으로 가는 길에는 질문과 부정만이 남게 된다.

공간의 무한부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靈山》에서는 장이 바뀔 때마다 공간이 바뀐다. 나아가 그 공간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도록 처리되어 있다. 작가는 이로 통해 공간의 실재성을 부정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高行健은 왜 공간의 실재성을 부정하고자 하였을까? 대체적으로 한 곳이 자주 기술되면 그 공간은 현실성과 실재성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둘, 혹은 셋, 혹은 다수의 공간이 어떤 순서에 의해 연결되면 그것은 현실적 장력을 갖게 된다. 나아가 공간에 어떤 방향성이 생기게 되며, 이와 동시에 목적지가 세워지고, 시간이 생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목적지가 성립하는 순간 다른 모든 장소는 과정과 수단의 자리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공간의 소외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高行健은 여행의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공간의 평등화를 구현한다. 목적이 없으면서도 간절히 靈山을 찾는 이 여행은 그 자체가 스토리가 없는 소설 《靈山》을 이끄는 주된 동력이다. 여행의 목적지가 설정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어느 특정한 지점에 실재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을 계속하면서 그 여행이 지향하는 靈山이 어디 있는지 수시로 묻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목적없는 여행, 그러면서도 간절히 찾고 추구하는 여행을 계속함으로써 공간은 선으로 연결되는 대신 산발적인 점으로 흩어져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 점들은 전체를 이루는 하나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와 동등한 하나가 된다.²¹⁾

21) 불교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가 다수가 되고(一卽多), 다수가 하나가 되는(多卽一) 관계로 설명한다.

이렇게 목적지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가능해지는 평등성. 그것은 高行健의 정치적 체험에서 비롯된 철학임에 분명하다. 인간의 평등성이 무시되는 사회, 초인을 자처하는 개인으로 인해 인민들이 소외되는 사회! 그것은 바로 高行健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초인들이 인민의 영수, 국가의 원수, 민족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 모든 폭력적 수단을 아낌없이 동원하여 조성한 죄행들은 결코 극단적 자기애에 빠진 철학가의 미친 소리에 견줄 수 없는 것이었다.²²⁾

高行健은 모택동에 의한 정치적 폭력과 그 고통을 체험한 뒤 이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행한다. 그리고 모택동의 신권적 통치주의가 기독교의 유일신과 천년왕국, 니체의 超人, 맑스의 역사발전론과 공산주의 등과 같은 개념들과 친족적 관계에 있는 것이었음을 확인한다. 그것은 모든 주변적인 것들을 비본질적인 것, 극복해야 할 것, 무시해도 좋은 것으로 규정한다. 高行健은 또한 어떤 정치적 태도는 결국 어떤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 태도의 한 표현 형태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高行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색의 일환으로 종교적으로 불교, 철학적으로 노장, 그리고 문화적으로 소수민족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모색의 기록이 바로 《靈山》임은 채언의 여지가 없다.

특히 불교²³⁾는 모택동의 신권통치에 대한 악몽을 씻어줄 무엇을 가

22) 形形色色的超人,号称人民的领袖、国家的元首、民族的统帅,不惜动用一切暴力手段造成的罪行,绝非是一个极端自恋的哲学家那一番疯话可以比拟的.<文學的理由>《靈山》, 533쪽.

23) 高行健은 스톡홀름의 佛光山 강연에서 자신의 문학에 대한 불교의 영향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여 밝힌 바 있다. 그 중 다음과 같은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人們老說道教對我的影響, 實際上佛家對我影響很深, 我對禪宗尤其傾心. 자세한 것은 <我與宗教的因緣>(十二月九日上午在斯德哥爾摩市郊佛光山即興演講, 亞洲週刊王健民記錄, 未經高行健審閱, 摘於亞洲週刊第51期, 2000年12月24日)

지고 있다고 생각되었고, 그것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회고된다. 이와 관련하여 高行健은 《靈山》을 포함한 자신의 문학창작이 이와 같은 《金剛經》이나 禪門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저는 종교에 대해 심취되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그 때부터 저는 《金剛經》과 같은 불경을 두루 읽었습니다.……선종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의 창작에 대한 불교의 영향은 《靈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나중에 저는 선종의 서적을 자세히 읽게 되었는데 각종 판본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²⁴⁾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 공간의 무한부정과 그를 통한 실재성의 차단은 불교의 否定을 통한 智慧啓發法²⁵⁾, 혹은 卽非否定法²⁶⁾으로부터 내용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禪門에서는 四句百非²⁷⁾라 하는 부정적 사유방식이 자주

24) 對宗教應該是有一種傾心吧！那時起，我閱讀佛經，如金剛經等。……我對禪宗尤其傾心。佛教對我創作的影響可在《靈山》裡看到。……後來我細讀禪宗，包括各種版本的研究，最後發現收藏在巴黎圖書館的敦煌版，寫了個叫《八月雪》的戲，準備在台北上演，寫的是六祖慧能開悟到創立禪宗的過程及禪宗後來的轉變。高行健，〈我與宗教的因緣〉(十二月九日上午在斯德哥爾摩市郊佛光山即興演講，亞洲週刊王健民記錄，未經高行健審閱) 摘於亞洲週刊第51期，2000年12月24日)

25) 사물에 관해 부정에 부정을 거듭하여 그 사물에 본질적 실체가 있음을 부정하고, 본질적 실체가 없다는 생각마저 부정함으로써 지혜를 얻도록 하는 이 점을 주목하면 그것을 부정을 통한 정신계발법이라 부를 수 있으리라.

26) 《금강경》에서는 무엇이 제시되면 그것을 곧 부정하는 卽非라는 관용어가 20회 정도 출현하고 이와 같은 의미로 非, 卽是非, 卽爲非와 같은 구절이 흔하게 발견된다. 필자는 사물의 실체를 부정하는데 최소한의 머뭇거림도 없는 그 사유방식과 어법을 卽非否定法이라 이름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경구, 《高行健과 중국당대소설》(부산: 세종출판사, 2005), 72~77쪽 참조.

27) 四句百非, 혹은 百非四句는 중관학파에서 개발한 사유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一切法은 공간데 무엇이 有邊이고 無邊이며 有邊이면서 無邊이며, 非有邊이면서 非無邊이겠느냐?’하는 부정적 사유방식으로 有邊, 無邊, 亦有邊亦無邊, 非有邊非無邊의 四句가 한결같이 부정되는데

얘기되고, 또 같은 차원에서 《金剛經》에는 卽非否定法이 전체 경전의 중지를 이루고 있다. ‘여래가 설한 32상은 곧 상이 아니요(卽非), 그 이름이 32상’²⁸⁾이라든가, 또 ‘그 복덕은 곧 복덕의 본질이 아니니(卽非), 그래서 여래께서 복덕이 많다 하셨다’²⁹⁾든가 하는 문장에 나타난 것처럼 어떤 무엇이 제시되면 곧 부정하는(卽非) 사유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卽非否定法, 혹은 四句百非의 부정법은 현상(假)을 부정하고, 다시 그 부정(空)을 부정하여 결론적으로 어떠한 것에도 실체가 따로 없음을 밝히는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중도(中)이다.

공간의 실제성을 부정하기 위해 작가가 취한 또 하나의 방법은 배경 삭제와 지명을 뒤섞는 기법이다. 《靈山》에서 구체적 지명들이 종종 적시되지만 그것들은 배경이 삭제되어 있거나 가공의 지명과 뒤섞여 있다. 작가는 이 뒤섞임에 의한 상호부정을 감추지 않는다.

당신은 확실한 여행기를 본 적이 없다. 최신판 여행안내서에도 그런 이름이 없다. 물론 靈台, 靈丘, 靈岩은 물론 이 靈山이라는 지명까지도 성(省)별 지도책을 뒤지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³⁰⁾

위의 예문에 따르자면 靈山은 가본 사람이 없는 곳 같지만, 또 현실

사 비롯한다. 결국 이 문장에 보이는 것처럼 일체법이 공하므로 위의 四句는 모두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부정이 끝이 없으므로 百非라 하기도 한다. 결국 四句는 모든 사물이 불변의 자성을 지니고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는 점을 강조하는 논리의 산물이다. 高行健은 자신의 《八月雪》이 어떤 유형과도 같지 않다는 점에서 四不像(非京劇, 非戲劇, 非舞劇, 非歌劇)임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강경구, 《高行健과 중국당대소설》, 74쪽에서 살펴본 바 있다.

28) 如來說三十二相, 卽是非相, 是名三十二相. 《金剛般若波羅蜜經·第十三 如法受持分》

29) 何以故, 是福德, 卽非福德性, 是故如來說福德多. 《金剛般若波羅蜜經·第八 依法出生分》

30) 你沒有見到一則確鑿的遊記, 連最新出版的旅遊大全, 也沒有收進這樣的條目. 當然, 靈台, 靈丘, 靈岩, 乃至於靈山這類地名, 你翻閱分省地圖冊的時候, 並不難找到. 《靈山》, 5~6쪽.

적 지도책에 나와 있는 지명일 수도 있다. 실제로 독자들은 작가의 힌트에 따라 중국의 인터넷이나 지도책을 찾아볼 수 있을 것³¹⁾이고, 無錫의 靈山, 廣西의 靈山 등 여러 靈山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無錫의 불교성지 靈山이라면 어떨까? 高行健의 靈山은 이 無錫의 불교성지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 순간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기대는 부정된다. 작가가 우리에게 烏伊鎮과 尤江이라는 가공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靈山에 가려면 烏伊鎮에 도착하여 尤江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길을 안내³²⁾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靈山은 다시 지도책에서 사라지고 만다. 그렇다면 靈山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작가는 두 가지 결정론을 함께 부정한다. 원래 작가가 제시한 烏伊와 尤는 가공의 지명으로 없음(烏=無)과 있음(尤=有)을 드러내는 쌍관어이다. 그러니까 靈山이 있다 하면 그것은 烏伊鎮(無)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말로 부정되고, 그래서 없다 하면 그것은 尤江(有)으로 다시 부정되는 관계에 있다. 이를 통해 靈山은 갈 수 없는 곳이면서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高行健은 《靈山》의 공간들을 저기 어느 곳이 아닌 지금 이곳으로 안착³³⁾시키고 있는 것이다.

5. 《靈山》의 시간설정과 相卽別成의 시간

31) 이 책의 한국어번역본 교열자에 의하면 출판사의 주간이 찾아와 靈山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그것은 일반적 독자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질문일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종미, <영혼의 산, 마음으로 난 길> 《영혼의 산》(서울: 현대문학북스, 2001), 311쪽 참조.

32) 你並非愚鈍之輩，以你的敏慧，你得先找到那畫在香煙盒子上的烏伊小鎮，進入這個靈山必經的通道。《靈山》，6쪽.

33)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형상을 지어 나타난 것들은 시간, 공간, 피아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지금 이곳의 존재일 수 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분다(跡佛)와 본질로서의 분다(本佛)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冶父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송을 남기고 있다. 莫謂慈容難得見，不離祇園大道場。《金剛經五家解·法會因由分》

중국의 상고주의적 시간관이 극단적 과거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산주의의 역사발전론은 극단적 미래지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상고주의적 문화에 익숙한 중국인들이 그 역인 극단적 미래지향의 정치적 조류를 체험하였다는 점이다. 高行健은 그와 중국인들이 체험한 강요된 진보,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현재의 희생강요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유토피아는 구사회의 삭제로 전제로 한다. 이러한 사회혁명론은 동일한 방식으로 문학에 적용되어 창조의 동산이던 문학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렸다. 앞 사람은 타도되고, 문화전통은 짓밟혀졌으며, 모든 것은 0에서 시작하였고, 새로운 것일수록 좋은 것이었다. 문학 또한 끝없는 전복의 역사로 해석되었다.……자신을 미래를 위한 제물로 삼았던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희생하기를 요구하였다.³⁴⁾

高行健은 이러한 체험을 연옥, 혹은 지옥의 그것에 비유한다. 그렇다면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였을까? 사실 《靈山》을 살펴볼 때 분명히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지향성이 발견된다. 즉 나, 혹은 당신은 원시부족의 삶을 찾아다니고, 옛 무당에게 남은 정신문화의 흔적을 감상하고 채집하며,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지향한다.³⁵⁾

문제는 高行健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나 중국의 사회적 차원에 있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데 있다. 즉 원시부족의 삶은 박제화되고, 귀신을 호령하고 달래는 무당은 예복이 떨어지거나 육체가 쇠잔하

34) 對新世界的烏托邦以剷除舊世界作為前提，這種社會革命論也同樣施加於文學，把這本是創造的園地變為戰場，打倒前人，踐踏文化傳統，一切從零開始，唯新是好，文學的歷史也被詮釋為不斷的顛覆。……弄得自己為未來當了祭品且不說，也要別人跟著犧牲。高行健，〈文學的理由〉《沒有主義》，346쪽.

35) 我就不像在往前走路，而是用脚跟倒退回童年，仿佛我並沒有經歷過戰爭，也沒有經歷過革命，也沒有經過斗争再斗争，批判反批判和現今倒轉來又不完全倒轉來的改革，仿佛我父母也不曾死掉，我自己也未曾吃過苦頭，我壓根兒就不曾長大，讓我感動得有點兒想哭。《靈山》，133~134쪽.

여 다시는 그 신비한 세계를 재현하지 못한다. 어린 시절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어린 시절의 회상은 감격스러운 것이지만 그 순간 돈을 구걸하는 여자거나 명백하면서 차가운 인식작용에 의해 현실로 복귀한다. 결국 작가는 과거라 해도 현재가 투영된 과거이며, 현실이라 해도 과거가 재생되는 현실임을 알아차린다. 예컨대 제35장의 시간적 뒤섞임을 보자.

제35장에서 나는 꿈을 꾸다. 꿈속에서 나는 물에 갇히고 그 한가운데서 어린애가 된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나는 어린애가 된 나를 바라본다. 꿈속에서 어린애인 나는 나를 쳐다보는 아버지의 슬픈 눈을 본다. 그러나 꿈을 꾸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내가 동굴 속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현실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꿈속에는 어린애인 과거의 나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는 현실의 내가 뒤섞여 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른인 내가 어린애가 된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과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실이 투영된다. 마찬가지로 과거는 지금의 이 현실에 투영된다. 이러한 투영관계가 극단화되면 시간의 공존현상이 나타나기까지 한다. 예컨대 37장의 다음과 같은 묘사를 보자.

이 허물어진 담 뒤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가 모두들 식탁 앞에 앉아 식사를 하기 위해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미 물릴 만큼 돌아다녔으므로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해보지 못하였다. 나도 그 분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일들을 얘기하고 싶다.……그래서 나는 조심조심 그들에게 다가간다. 그렇지만 내가 담을 넘기만 하면 그들은 바로 몸을 일으켜 다른 무너진 벽 뒤로 조용히 사라진다. 나는 그들이 떠날 때의 자박자박하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심지어 그들이 남겨놓은 빈 식탁을 보기까지 한다.³⁶⁾

36) 这堵断墙背后, 我死去的父亲, 母亲和我外婆都坐在饭桌前, 就等我来吃饭. 我已经游荡够了, 很久没有同家人团聚, 我也想同他们坐在一张桌上, 谈点家常. ……我于是小心翼翼走向他们, 可我只要一越过断墙, 他们就起身, 悄然消失在

여기에서 과거는 꿈의 형식을 빌리지 않고도 바로 현재와 하나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무너진 벽 뒤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와 함께 공존하지만 내가 다가가면 그들은 다시 다른 벽의 뒤로 넘어가 현실과 뒤섞이지 않는다. 이 쯤에서 다음과 같은 <法性偈>의 시간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량없는 먼 시간이 바로 한 생각(無量遠劫卽一念),
 한 생각이 바로 무량한 시간(一念卽是無量劫),
 9세(世)와 10세(世)가 서로 붙어있으나(九世十世互相卽),
 여전히 어지럽게 뒤섞이지 않고 따로 이루어지네(仍不雜難隔別成).³⁷⁾

이렇게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무한한 시간과 한 순간의 시간은 지금 여기 한 순간의 시간이 된다. 마찬가지로 과거, 현재, 미래의 9가지 시간(九世)³⁸⁾이 있다고 설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한 생각(一念, 十世)과 구분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시간은 그 특징에 따라 무한히 나누어 구별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실체가 따로 없이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한 생각(一念)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실체가 없다고 하여 우리가 엄연하게 체험하고 있는 시간현상조차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각기 분명하게 구분되어 우리에게 인식된다. 그래서 '뒤섞이지 않고 따로 형성된다'고 한 것이다.

高行健의 소설에서 과거와 현재는 서로 구분할 수 없이 하나로 뒤섞여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있는 과거의 시간

另一堵残壁背后,我听得见他们离开的脚步声, 悉悉率率, 甚至看见他们留下的空桌子. 高行健, 《靈山》, 210~212쪽.

37) 義湘, <法性偈>

38)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고, 현재에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으며, 다시 미래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있어 이것을 합하면 九世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의 一念을 더하면 十世가 된다.

그대로 벽 너머의 저쪽에 있지만 그것은 현재의 나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다가가면 물리서기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르지 않지만 뒤섞여 있지 않고 구분되어 형성되어 있는 시간이요, 이른 바 相卽別成의 시간이다.

이를 통해 高行健은 과거를 실제로 여기던 전통적 사유와 미래를 실제로 여기던 맑시즘적 사유 사이에서 현재를 되살려낸다. 이를 통해 高行健은 도화원을 지금 이곳으로 불러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高行健의 의식세계에서 일어난 일일 뿐, 그 영혼의 도화원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이 드물다.

6. 이야기하기의 존재성과 禪門의 眞如 화법

48장에서 高行健은 왕권을 노리던 장군을 경계한 여승의 지피담을 소개한 뒤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이야기는 원래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론만 약간 바꾸면 그것을 탐욕과 음란을 경계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한다. 또한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불교로 귀의하도록 고무하는 종교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39)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포함하여 우리의 언어행위는 무엇인가 전달하기 위한 궁극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마치 통발이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고, 나룻배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인 이치와 마찬가지로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되기도 하였다. 바로

39) 原先這故事自然是一則政治訓戒.你說這故事換個結尾,也可以變成一則道德說教,警戒世人勿貪淫好色.這故事也還可以變為一則宗教教義,規勸世人,依皈佛門.這故事又還可以當作……《靈山》, 290쪽.

이러하므로 고기를 잡고 나면 통발이 잊혀지고, 의미를 전달하고 나면 말은 부차적인 차원의 것이 된다는 말이 성립한다.⁴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하나의 측면적 진리를 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연 누가 물을 건넜다고 나룻배를 버리며, 고기를 잡았다고 통발을 버리며, 뜻을 전달했다고 언어를 버리는가? 나룻배와 통발은 물론이거니와 언어는 오히려 의미 전달 이상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컨대 원시의 숲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나누었던 이야기는 혹 의미전달에 앞서 이야기 그 자체를 즐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高行健은 그러한 언어행위의 순수함을 동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高行健은 그저 이야기하는 그 일을 즐기고자 한다.

사실 언어, 혹은 이야기는 언제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메타포어인 동시에 존재 그 자체, 즉 實相이며, 즉 眞如이다. 언어는 우선 어떠한 원관념--위의 예문에서 高行健이 말한 바와 같이 정치적 교훈, 도적적 가르침, 종교적 가르침과 같은 의미들--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항상 메타포어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그것은 이러한 의미들을 뛰어넘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實相이며 眞如가 될 수 있다. 흔히 이야기의 주제의식이 시대적 힘을 상실한 뒤에도 그 이야기 자체는 살아남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야기가 實相이자 眞如인 존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高行健은 자신의 소설 창작을 통해 이야기의 實相적, 眞如적 존재성을 모색한다. 그리고 그것은 저 선사들의 존재적 언어유희와 철저히 닮아있다.

禪門에는 삶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절대적인 존재는 무엇인가? 를 묻기 위해 고안된 질문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불법의 바르고 큰 뜻은 무엇인가?(如何是佛法的大義)’,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어디에 있는가(如何是祖師西來意)’, ‘모든 현상은 하나

40) 荃者所以在魚，得魚而忘荃。蹄者所以在兔，得兔而忘蹄。言者所以在意，得意而忘言。吾安得夫忘言之人而與之言哉！《莊子·外物》

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萬法歸一一歸何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선사들이 언어형식을 통해 답변을 할 때 그것은 비유와 실상의 차원을 동시에 구현한다. 實相, 眞如적 화법이라 할 언어사용법이 그것이다. 예컨대 ‘차나 마시고 가라(喫茶去)’, ‘뜰 앞의 잣나무니라(庭前柏樹子)’, ‘삼이 세근이다(麻三斤)’, ‘개에게는 붓다의 본성이 없다(狗子無佛性)’ 등의 답변이 그것이다. 이 말들은 高行健이 지괴소설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메타포어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언어형식의 답변들은 해석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 존재로서 실상이며 진여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과 의미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언어행위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이곳에 미끄러지지 않고 안착하는 기적을 만날 수도 있다. 高行健은 소설창작을 통해 스스로는 지금 이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존재화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의미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高行健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주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미완성인 채 열어놓는 방법을 취한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다양한 방식을 취하는데 주로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을 짓지 않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이야기의 갑작스러운 시작과 돌연한 중단으로 주제의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이야기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靈山》 제7장의 경우를 보자. 우리는 제 7장에서 ‘당신(你)⁴¹⁾’이 들려주는 몇 가지 이야기를 듣는다. 먼저 산적들에게 납치되어 산적두목의 둘째 부인이 되었다는 한 여인의 일생이 얘기된다. 그러나 그 얘기는 그 진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이 마을 고등학교의 역사 선생인 우(禹) 선생의 이름을 얘기하는 계기가 하고, 다시 그것은 자

41) 高行健의 소설에서 당신(你)은 나(我)에게서 파생된 제 2의 나인 동시에, 독자 여러분을 뜻하는 말로 읽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하는 당신이 바로 이야기를 듣는 당신과 다르지 않게 되는 존재의 통합이 일어나게 된다. 사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창조하고 있지 않는가?

연스럽게 유서깊은 양반집안이었던 禹 선생의 문혁시기 고난과 그 조상 얘기로 이어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는 중간에서 끊어지고 장 발적의 반란 이야기로 넘어간다.⁴²⁾ 그리고 봉기한 농민들의 횃불 얘기는 불의 연상작용에 의해 龍燈祭 얘기로 바뀌고 중간에서 다시 끊어질 뻔하다가⁴³⁾ 다음과 같이 그 사실성을 감쇄시키는 작가의 말과 함께 갑자기 끝이 난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엉터리로 지어낸 얘기이지만, 이야기로 칠 수도 있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⁴⁴⁾

결과적으로 ‘당신’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관련없이 흩어져 있는 이야기의 파편이 된다. 이야기는 어떤 연상작용에 의해 갑자기 시작되어 돌연히 끝난다. 그것은 어떤 지형지물, 사람, 사물, 혹은 단어에 촉발되어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를 반복지만 그 이야기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의 열린 구조는 인물들 이름의 모호성과 시간과 공간의 혼란, 혹은 뒤섞임에 의해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이로 인해 각각의 인물들은 중요성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시간은 발전론, 혹은 尙古論에 의해 우열이 갈라지지 않으며, 이곳과 저곳의 공간은 평등하게 공존하여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게 된다.

7. 결론

이 고찰은 高行健의 《靈山》에 나타난 기교적, 형식적 특징들이 일

42) 不談這些。好，講長毛造反。《靈山》，44쪽.

43) 你不要說了，不，你還是說下去。《靈山》，45쪽.

44) 可也算是故事，也還可以再講下去。人不要聽。《靈山》，46쪽.

종의 문학실험에서 영혼의 실험으로 진화한 결과임을 밝혀보고자 한 것이다. 즉 이전까지 단순한 기교적 실험이었던 것이 《靈山》에 이르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불교적 시각과 적극 결합함으로써 이른 바 형식과 내용의 결합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그의 語言流적 글쓰기에 대한 실험이 불교의 無住無相적 사유방식과 만나 그 내용성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의식의 흐름 글쓰기와 유사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된다. 일반적으로 의식의 흐름을 따라갈 때 문법의 파괴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고행건의 개별적 문장들은 정연하고 섬세하며 맥락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인과관계에 조바심하지 않고서도 글 자체에 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靈山》의 소설적 배치가 병렬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그것이 慧能의 對法적 사유에 의해 내용성을 갖게 됨을 살펴보았다. 즉 《靈山》은 장의 배치, 시간과 공간, 인물과 사건의 배치에 있어서 독특한 병렬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체 소설을 하나로 만드는 연계성이 사라지고 만다. 여기에 慧能의 對法적 사유방식이 적용되어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각기 부분이면서 전체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셋째, 《靈山》의 공간배치가 상호 부정의 관계에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로 인해 공간의 이동은 우연적 사건이 된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독자들 역시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나아갈 필요도 없이 이곳이 바로 목적지가 되는 현실안착을 체험을 할 수 있다.

넷째, 《靈山》의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상호 뒤섞여 있기도 하고, 전도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삭제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은 한 생각과 영겁을 차별없이 보면서도 그 현상적 발현을 인정하고 있는 불교적 시간과 닮아있다. 그래서 이것을 《華嚴經》의 相即別成의 원리로 살펴 보았다.

다섯째, 이야기하기를 포함한 우리의 언어행위가 어떤 주체의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자체가 삶의 한 표현인가를 두고 고행건이 후자의 입장에서 소설창작에 임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말하

자면 이야기하기는 목적을 전달하면 버릴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숨쉬고, 밥먹는 것처럼⁴⁵⁾ 수단이며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선불교적 사유방식으로 高行健의 《靈山》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보았다. 그렇다고 그의 소설이 바로 선불교적 사유방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작가가 고백한 대로 선불교적 사유방식이 그의 문학적 실험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감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고행건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선불교적 사유방식에 비추어보는 일 또한 유효한 작업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가 불교의 어떤 뛰어난 점을 드러내기 위해 작품을 집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高行健의 지향은 아무런 주의도 없는(沒有主義) 자유로운 공간에서 생활하고 집필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參考文獻]

- 高行健, 《一個人的聖經》(臺北: 聯經出版社, 1999)
高行健, 《現代小說技巧初探》(北京: 花城出版社, 1981)
가오싱젠/박하정 옮김, 《나 혼자만의 성경》 1, 2(서울: 현대문학북스, 2002)
高行健, 《靈山》(臺北: 聯經出版社, 1990)
가오싱젠/이상해 옮김, 《영혼의 산》 1, 2(서울: 현대문학북스, 2001)
가오싱젠/오수경 옮김, 《버스정류장》(서울: 민음사, 2002)
高行健, 《沒有主義》(臺北: 聯經出版社, 2001)
高行健, 《八月雪》(臺北: 聯經出版社, 2000)
高行健, 《週末四重奏》(臺北: 聯經出版社, 2001)
高行健, 《高行健短篇小說集》(臺北: 聯合文學, 2001)

45) 누가 살기 위해 숨을 쉬고, 밥을 먹겠는가? 숨 쉬고 밥 먹는 행위는 그 자체로 수단인 동시에 목적인 관계에 있다.

- 高行健, 《彼岸》(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冥城》(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對話與反詰》(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夜遊身》(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逃亡》(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生死界》(臺北: 聯合文學, 2001)
高行健, 《山海經傳》(臺北: 聯合文學, 2001)
劉再復, 《高行健論》(臺北: 聯經出版公司, 2004)
周美惠, 《雪地禪思》(臺北: 聯經出版公司, 2002)
季默, 《依稀高行健》(臺北: 讀冊文化, 2003)
陳引馳, 《彼岸與此境》(濟南: 山東友誼出版社, 1997)
광덕 역주, 《육조단경》(서울: 불광출판부, 1975)
심재열 강의, 《육조단경강의》(하동: 쌍계사, 1975)
성철 역주, 《돈황본 육조단경》(서울: 장경각, 2004)
정성본 역주, 《돈황본 육조단경》(서울: 한국선문화연구원, 2003)
이은운, 《육조혜능평전》(서울: 동아시아, 2004)
王志躍 著, 김진무 등 역, 《분등선》(서울: 운주사, 2002)
柳田聖山 著, 楊氣峰 譯, 《초기선종사·I II》(서울: 김영사, 1990)
김태완, 《조사선의 실천과 사상》(서울: 장경각, 2001)

[中文摘要]

高行健一直追求技巧與形式的實驗，而他的《靈山》就是這種實驗的一個大飛躍，他在這作品中實現其技巧上的徹底實驗，而且他還運用禪佛教的思惟方法來實驗他自己的靈魂超越，結果他能達到形式與內容的和諧。

此文專門進行考察《靈山》的諸般技巧上特徵是與禪佛教的思惟方法有如何關係，其結果是如下。

一，他的所謂語言流的寫作實驗，借助於佛教的無住無相思惟方法，而得到一定的哲學內容。語言流與意識流寫作方法有點兒不一樣，高行健的小說

以完整美麗的文章著稱，這在意識流小說里不能發現的。

二，《靈山》採取了竝列結構，此方法與慧能的三十六對法有異轍同軌的關係。《靈山》里的各個回，時間與空間，人物與事件以竝列構造配置的。因此全體小說里沒有一定的前後因果性，但是就因為如此小說的各個因子與全體結構保持着平等關係。在這裡我們發現慧能對法的影子。

三，考察了《靈山》的空間配置，結果我們發現了前後空間之間有相互否定的關係，因此空間的變化或者移動成為純粹偶然的事件，因為沒有目的地。這種配置的效果可以用禪佛教的即非否定法來說明。

四，考察了《靈山》的空間配置，結果我們發現了作品里過去現在與未來的時間是不能分別的，或者相互雜居，或者顛倒配置，或者干脆消除。這可以用《華嚴經》相即別成的時間觀來說明。

五，人間的語言行為包括說故事，是不是專為傳達思想感情或主題意識？筆者在高行健的小說里發現純粹為說故事而說故事的態度，在這裡再想，我們吃飯，我們睡覺，到底其目的再哪里？與其有一定目的，寧可說其吃飯睡覺就是人間生活的手段與目的結合的狀態。

高行健《靈山》的特徵與禪佛教的思惟方法有這樣密切的關係，雖然如此他的小說絕對不是專門為表揚佛教而下筆的，我相信他一接觸禪佛教的思惟方法，就領悟到自己的文學技巧實驗有這樣跟深底固的佛教哲學，有不期相見不約而同的同質性或類似性。

關鍵詞：高行健的《靈山》，禪佛教的思惟，語言流與無住無相，竝列結構與對法，空間的配置與即非否定法，相即別成的時間觀

투고일: 2008. 10. 25.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영화 《인생(活着)》 : 중국현대사에 대한 준엄하고 따뜻한 통찰

김 언 하*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가족사로 풀어낸 중국민족의 현대사
- III. 아들과 딸을 차례로 앗아간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 IV. 그림자극을 통해 본 예술의 운명
- V. 영화 《인생》과 소설 《인생》
- VI. 나오며

I. 들어가며

세계의 이목을 중국 영화로 집중시키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중국 감독은 누구일까? 아마 누구나 장이머우(張藝謀)를 꼽는데 그다지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데뷔작인 《붉은 수수밭(紅高粱)》(1987)으로 1988년 베를린 영화제 그랑프리, 《귀주 이야기(秋菊打官司)》(1992)로 1992년 베니스 영화제 그랑프리, 마침내 《인생(活着)》(1994)으로 1994년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남우주연상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세계 3대 영화제를 석권하다시피 한 화려한 수상경력 때문에 우리는

* 동서대학교 외국어계열 중국어학과 조교수(haihuo@hanafos.com)

그를 천카이거(陳凱歌)와 더불어 이른바 중국 제5세대 감독의 대표주자라고 부른다.

영화 《인생(活着)》은 장이머우가 1994년에 찍은 영화이자, 그의 가장 뛰어난 영화이며, 당대의 저명한 작가 위화(余華)의 제목이 같은 소설을 각색한 것이다.¹⁾ 영화 《인생》은 중국현대사에 대한 준엄하고 따뜻한 통찰이 영상매체의 힘을 빌어 중국인의 심성에 썩 어울리는 방식으로 절묘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이머우의 대표작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²⁾ 물론 이런 통찰은 당사자인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영화가 일찍이 중국에서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고, 1999년 말 중문잡지 《아주주간(亞洲週刊)》에서 선정한 〈20세기 중국영화 100선〉 속에도 위의 두 작품과 달리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정보이다. 하지만 중국인, 중국문화 그리고 현대 중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놓쳐서는 안 될 문제작이라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영화 《인생》이 도달한 미덕을 ‘중국 현대사에 대한 준엄하고 따뜻한 통찰’이라는 측면과 이런 통찰이 ‘중국인의 심성에 썩 어울리는 방식’으로 절묘하게 표현되었다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중국인의 심성에 썩 어울리는 방식’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중국인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속에 담아서 던지시 암시하기를 좋아한다.

-
- 1) 《活着》是张艺谋1994年拍摄的电影，也是他最好的电影，改编自当代著名作家余华的同名小说。王际峰，〈人是命运的玩偶——电影《活着》中皮影意象解读〉，《电影评价》，2007年20期。
 - 2) 물론 영화 《인생》에 대한 평가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후지이 쇼조(藤井省三)는 《현대 중국, 영화로 가다》에서 장이머우의 많은 영화를 언급하면서도 《인생》에 대해서는 책 전체를 통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인홍(尹鴻)은 《붉은 수수밭》이나 《귀주 이야기》는 높게 평가한 반면, 《인생》에 대해서는 《상하이 트라이어드》와 마찬가지로 “연극성과 사실성 및 은유성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며 낮게 평가했다. 인홍(尹鴻)/ 이종희, 《중국 영상문화의 이해》(서울: 학고방, 2002), 254쪽 참조.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 또는 의도를 속에 담아서 던지시 전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듣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바로 우리가 중국인의 심성과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중국문화의 특성을 함축성, 다의성, 상징성으로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인의 심성에 썩 어울리는 방식’이란 간단히 말해서 루쉰이 일찍이 모든 문예의 보편적 표현법이라고 정의했던 ‘광의의 상징주의’³⁾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장이머우의 영화 《인생》은 위화의 소설 《인생》을 각색해서 만든 것이므로, 영화와 소설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형태 사이의 관계, 영화감독 장이머우와 소설가 위화 사이의 관계, 그 공통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II. 가족사로 풀어낸 중국민족의 현대사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의 머릿속을 맴돌았을 한 가지 의문은 주인공 푸구이(福貴: 거요우 분)의 가족사가 어찌 이리도 파란만장한가 하는 점이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 가족

3) 루쉰은 1924년 11월에 자신이 번역한 쿠리야가와 하쿠손(廣川白村)의 《고민의 상징(苦悶의象征)》 <이끄는 글(引言)>에서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문예관에 찬동을 표시했다. “생명력이 억압을 받아서 생겨난 고민과 번뇌가 바로 문예의 뿌리이고, 그 표현법이 다름 아닌 광의의 상징주의이다.” 하지만 “이른바 상징주의라는 것은 결코 세기 말 프랑스 시단의 일과가 표방했던 그런 주의가 아니다. 무릇 모든 문예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의미에서 상징주의의 표현법을 사용해왔다.” (<창작론> 제4장과 제6장) 《生命力受了壓抑而生的苦悶懊惱乃是文藝的根柢, 而其表現法乃是廣義的象征主義。》但是《所謂象征主義者, 決非單是前世紀末法蘭西詩壇的一派所曾經標榜的主義, 凡有一切文藝, 古往今來, 是無不在這樣的意義上, 用着象征主義的表現法的。》(創作論第四章及第六章) 魯迅, 《苦悶的象征·引言》, 《魯迅全集》 제13권(북경: 人民文學出版社, 1973), 18쪽. 김언하, <루쉰의 문학 세계와 광기 주제>(서울: 《중어중문학》 제35집, 2004), 491쪽.

의 역사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힘든 온갖 기구한 사건들이 압축된 화면 속에서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1940년대 지주의 아들로써 온갖 호사를 누리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푸구이는 도박(주사위 노름)에 미쳐 그토록 멋진 대저택을 하루아침에 노름빛으로 날려버리고, 아버지가 환병으로 돌아가시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빈민촌으로 나앉는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남편에게 절망해서 임신을 한 채 가출했던 아내 자진(家珍: 공리 분)이 함께 데려갔던 딸과 새로 난 아들을 데리고 돌아와 풍비박산이 나버린 가정을 가까스로 수습한다.

가산을 탕진한 푸구이는 이제 생계를 위해 예전에 오락으로 즐겼던 중국 전통의 그림자극(皮影戲) 단원이 되어 대륙 전역을 떠돈다. 40년대 후반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이른바 국공내전(國共內戰)이 일어나자, 그는 단원들과 함께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처음에는 국민당 군대의 오락을 위해, 나중에는 공산당 군대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그림자극을 공연한다. 1949년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귀착되고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중국이 수립되고 나서야 겨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병든 노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딸 평샤(鳳霞)는 안타깝게도 큰 열병의 후유증으로 병어리가 되어 있었다. 한편 노름으로 자신의 저택을 앗아갔던 룡얼(龍二)이 악질반동지주로 몰려 공개처형을 당하자, 푸구이는 겁에 질려 대낮에 바지에 오줌을 쌀 정도로 깊은 공포심을 경험한다.

부푼 꿈을 안고 1958년에 시작된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속에서는 하늘같은 아들 요우칭(有慶)이 피곤에 질어 학교 담벼락 뒤에서 자고 있다가 지프차가 후진하면서 잘못 들이받은 담벼락에 깔려 죽음을 당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낸 장본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하인이었다가 전쟁 통엔 생사를 같이한 전우로 지냈고, 지금은 공산당 간부가 되어 부임한 구장(區長) 춘성(春生)이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는다. 1966년부터 일어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無產階級文化大革命) 시기(1966-1976)에는 절름발이 노동자 완얼시(萬二喜)와 결혼한 병어리 딸 평샤가 아이를 낳다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으로 무

장하고 병원을 장악하고 있던 어린 홍위병 간호사들의 무지로 인해 과다출혈 끝에 숨지고 만다. 쓸쓸하고도 다행스러운 것은 외삼촌 요우칭을 닮아 펍 뜯뜯해 보이는 평사의 아들 만터우(饑頭)만은 저 참담한 문혁을 거치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사회주의의 새로운 시기(社會主義新時期)를 외할아버지 푸구이, 외할머니 자전의 못 다한 사랑과 희망의 시선 속에서 구김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과란만장하고 기막힌 일들이 하필이면 푸구이의 가족사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을 그저 푸구이 개인의 지독한 불운 탓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안이한 관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푸구이의 가족사는 단순한 한 개인의 가족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중국민족의 민족사를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⁴⁾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감독은 푸구이의 가족사를 그려내면서 중국민족의 민족사를 아울러 돌아보도록, 또 거꾸로 격동의 20세기를 헤쳐 왔던 중국민족의 역사를 한 가족의 역사를 통해서 생생하고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감독은 중국현대사의 비극을 영화로 그려내고 그것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해보고 싶었지만,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영상매체를 가지고 정면으로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기구한 운명에 의해서 빚어진 혈육의 비극으로 점철된 한 가족의 역사를 그려내면서, 그것이 동시에 과란만장한 정치적 운동에 의해서 빚어진 사회적 비극으로 충만한 중국민족의 현대사에 대한 서술로서도 읽혀

4) 이렇게 집(家: 가족)을 가지고 나라(國: 민족국가)를 암시하는 방법은 ‘구조의 동질성’에 기초한 광의의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국가(國家)라는 용어에서도 드러나듯이, 나라를 집의 확장판으로 또 집을 나라의 축소판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유가의 전통이 지배적이었던 중국에서는 나라에 대한 충성과 집에 대한 효도를 그 의미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원리로 간주했다. 장이머우의 많은 영화, 예를 들어 《붉은 수수밭》, 《국두》, 《홍등》과 같은 영화가 가족관계의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동시에 그것이 국가체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겠다.

질 수 있도록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점은 주인공 푸구이의 이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이 많고 귀하신 몸이라는 뜻의 푸구이(福貴)는 예로부터 중국민족의 보편적 이상이었다. 따라서 푸구이는 한 가장(家長)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중국인의 보편적 이상이라는 의미로 말미암아 어렵지 않게 전통적 중국민족에 대한 일종의 상징⁵⁾이 되는 것이다. 중국민족의 보편적 이상이었던 푸구이(福貴)는 예전에는 단순한 이상에 머물지 않고 중국민족의 전통이자 현실이기도 했던 아름다운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민족의 아름다운 전통은 영화 속의 푸구이 처럼 그 현실적 지위를 모조리 상실하고 헛된 이름만 남긴 채 연속되는 가난과 불운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던 것이다. 가족사로 민족사를 풀어내는 이런 상징적 방식, 즉 광의의 상징주의는 그야말로 중국인의 심성과 중국문화의 전통에 썩 어울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머우의 《인생》은 가장 현대적인 매체인 영화를 가지고 가장 중국적인 문화심리를 대표하는 푸구이 일가의 운명을 그토록 감동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이다.

Ⅲ. 아들과 딸을 차례로 앗아간 대약진과 문화대혁명

중국민족의 남성적 전통은 푸구이(福貴)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공내전을 겪으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사회주의 중국으로 간신히 그 명맥을 이어간다. 중국민족의 여성적 전통은 자전(家珍)에 의해

5) 중국민족의 보편적 이상을 대변하는 한 인물을 가지고 한 집단의 중국민족, 즉 전통적 중국민족을 암시하는 방법은 '권력의 대표성'에 기초한 광의의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가 문화를 가지고 중국의 전통 문화의 대표로 삼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유구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배적 문화, 즉 권력의 대표성을 가진 문화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고달픈 처지 속에서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되지만, 그 절반은 큰 열병의 후유증으로 병어리가 되어버린 그녀의 딸 평샤(鳳霞)의 처지를 통해 드러나듯이, 공산당의 지배라는 급격한 사회체제의 전환 속에서 목소리를 빼앗긴 세대가 되고 만다. 대낮에 바지에 오줌을 저릴 정도로 공포에 짓눌린 남성적 전통과 절반은 병어리가 되어버린 여성적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중국민족의 전통 또는 전통적 중국민족에게 가져다 준 부담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사실이다.⁶⁾ 하지만 이것은 이후에 전개될 보다 거대한 비극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못난 아버지 푸구이(福貴)와 달리 배짱이 좋고 의협심이 강한 총명한 어린 아들 요우칭(有慶)은 공산당의 지배 아래에서 기적처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민족의 남성적 전통을 대표하기에 충분하다. 요우칭은 병어리 누나 평샤(鳳霞)의 불행한 운명에 깊이 공감하고 누나의 불행을 놀림감으로 삼는 다른 집 아이들에 저항함으로써 중국민족의 남성적 전통과 여성적 전통의 새로운 차원의 결합을 기대해볼 수 있는 유망한 아들이었다. 이처럼 하늘같은 아들 요우칭은 1958년에 일어난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물론 그것은 사고사였다. 하지만 이 뜻밖의 사고를 낸 장본인이 하필이면 푸구이의 옛날 하인이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상전으로 뒤바뀐 공산당 간부 춘성(春生)이라는 사실은 주목을 필요로 하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감독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민족의 남성적

6) 이처럼 평샤가 병어리가 된 이유를 그 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것은 '시간의 계기성'에 기초한 광의의 상징주의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예는 대약진운동 시기에 요우칭이 사고사로 죽고, 문화대혁명시기에 평샤가 홍위병 간호사의 무지와 과다출혈로 숨지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각기 요우칭의 죽음은 대약진운동에, 평샤의 죽음은 문화대혁명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평샤가 병어리간 된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슈테판 크라머는 "인민과 예술가들이 '해방'된 후 침묵을 강요당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슈테판 크라머/ 황진자, 《중국영화사》(서울: 이산, 2000), 265쪽.

전통을 요절시킨 책임을 준엄하게 공산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 즉 공산당 간부 춘성의 서툰 '운전'--푸구이는 춘성에게 “차를 어떻게 몬 거야?(你開的什麼車呀?)”라며 책망한다--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공산당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아버지 푸구이의 맹목적 굴종--구장이 시찰을 나온다고 내려진 학생동원령을 전해 듣자, 잠이 부족한 아들을 깨워 “낙오되어서는 안 돼!(不能落後!)”라고 말하며 억지로 학교에 보낸 것--이 합작으로 빚어낸 이 참혹한 비극에 대한 준엄한 질책--“당신은 우리에게 목숨 하나를 빚겼어요!(你欠我們一條命!)--을 누그러뜨리는 힘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보여주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어머니 자전(家珍)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속 깊은 자책이다. 여기에 이 영화가 도달한 보기 드문 미덕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준엄한 고발을 방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 운명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화해도 아울러 보여주는 점일 것이다.

중국민족의 여성적 전통은 한 세대를 평샤(鳳霞)처럼 병어리로 살았다. 그녀에게 짝지워진 것은 비록 남성적 근대를 대표하는 절름발이 노동자 완얼시(萬二喜)였지만, 평샤 부부는 타고난 순박함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다. 완얼시가 한 다리가 성치 못해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라는 사실은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 시기(1966-1976)에 이른바 홍위병(紅衛兵)으로 대표되는 급진적 공산당의 지배 아래에서 제대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노동자의 처지에 대한 일

7) 차량 운전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암시하는 방법 역시 '구조의 동질성'에 기초한 광의의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다. 기계적 장치에 대한 조작과 정치적 체제에 대한 운영은 각기 다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동질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진다. 가장 비근한 예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배의 선장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춘성의 서툰 운전이 암시하고 있는 공산당의 잘못된 국정운영은 앞에서 분석했듯이 직접적으로는 1958년의 대약진운동을 가리킨다. 하지만 그것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민족의 남성적 전통을 요절시켰다는 점에서 이 해까지 지속되었던 반우파 투쟁도 년지시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58년이라는 시간 안에 대약진운동과 반우파투쟁이 공존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종의 비유이다.⁸⁾ 사회주의를 전복시켜 자본주의의 길로 나아가려는 주자파(走資派: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당내 실권파)를 타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문화대혁명이 중국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병어리로 살고 있던 평샤마저 끝내 죽음으로 내몬 것이었다. 평샤의 출산은 중국민족의 여성적 전통과 남성적 근대의 이질적 결합이 이루어낸 새로운 결실을 대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출산과정에서 평샤가 홍위병 간호사들의 무지와 과다출혈 끝에 숨지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문화대혁명이 반동--반동적인 학술적 권위자(反動學術權威)--으로 몰아서 타도했던 왕빈(王斌) 교수와 같은 유능한 인재의 부재 때문이었다.

남성적 근대를 대표하는 노동자 완열시의 기회주의적 속성--그는 상황에 따라 주자파 타도에 동조하여 의사인 왕빈 교수를 질책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출산을 앞두었을 때에는 또 주자파인 왕빈 교수를 이용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한다--은 남성적 전통을 대표하는 그의 장인 푸구이의 맹목적 굴종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푸구이는 총명한 아들을 잃었고, 완열시는 순박한 아내를 잃었다. 혁명도 출산처럼 새로운 사회를 낳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고통의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적 전통의 산모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혁명으로서의 문화대혁명에 대한 감독의 준엄한 고발은 산모인 평샤의 몸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피로 가득한 산실 화면으로, 또 불행한 인간 운명에 대한 고통스러운 공감은 어머니 자전의 처절한 울음으로 재연된다. 이제 중국민족의 남성적 전통과 여성적 전통을 대표하는 한 세대가 거짓말처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평샤가 처절하고 안타까운 희망처럼 두고 간 만터우(饅頭)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다.

8) 이처럼 생명현상을 가지고 사회현상을 암시하는 방법 역시 '구조의 동질성'에 기초한 광의의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던 병어리가 되어버린 평샤, 뒤에 나오는 과도한 출혈로 끝내 출산과정에서 숨을 거두는 평샤는 모두 사회현상에 대한 일종의 상징으로 볼 수 있겠다.

IV. 그림자극을 통해 본 예술의 운명

영화 《인생》에서 그림자극(皮影戲)이 차지하는 비중은 관객의 일반적인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영화를 본 관객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림자극은 주인공 푸구이(福貴)의 가족사를 관통하는 가장 인상적인 모티프 가운데 하나이다. 영화는 그림자극 공연과 이를 보면서 주사위 노름에 빠져있는 푸구이의 화면으로 시작해서, 침상 밑에서 먼지가 자욱하게 덮여 있는 그림자극 인형 상자를 끌어내 외손자 만터우(饅頭)에게 병아리집으로 내어주면서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푸구이의 화면으로 끝난다. 여기서 그림자극은 중국민족이 그로부터 육체적 한기와 목마름을 해소하였던 자전(家珍)의 급수차에 상당하는 푸구이의 정신적 급수차였다. 다시 말해서 그림자극은 중국민족이 예로부터 자신의 정신적 한기와 갈증을 그것을 통해 풀어왔던 일종의 전통 예술에 대한 상징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이 전통 예술은 종교보다 예술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던 중국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쉽사리 중국민족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 된다⁹⁾. 이렇게 보면 영화 속에서 그림자극이 끊임

9) 그림자극을 가지고 중국의 전통 예술, 나아가 전통 문화를 암시하는 방법은 '소속의 공통성'에 기초한 광의의 상징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림자극은 시, 산문, 서예, 회화, 음악, 건축, 경극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전통 예술에 속하며, 이런 전통 예술은 또 학술, 종교, 문학, 민속, 요리 등과 함께 중국의 전통 문화에 속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대 예술, 현대 문화와 함께 중국의 예술 문화 일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이 남성적 전통을 대표하는 푸구이가 연기하는 것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줄곧 정치적인 이유로 사상성을 의심받아 폐기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하고, 문화대혁명 시기에 마침내 "오래된 것일수록 더욱 반동이야"라는 선고와 함께 불태워진다는 점에서 주로 전통 문화, 전통 예술을 암시한다고 본다.

슈테판 크라머는 그림자극이 주로 중국 영화를 암시한다고 간주한다. "장제스 군대의 한 병사가 그림자극을 공연하는 은막을 대검으로 북 찢을 때 푸구이의 앞날과 더불어 중국 영화와 영화인들의 역사도 같이 예시된다. 그림자극이 중단된 것처럼 중국 영화는 자유로운 공간을 상실했고 장제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의해서도 하나의 정치적 도구로 전략하게 된

없이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¹⁰⁾

퇴락하고 있던 40년대의 푸구이는 그림자극을 도박장의 여흥을 돋구는 단순한 오락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완전히 몰락하고 난 다음에야 푸구이는 그것이 목숨만큼 소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된다. 생계가 막막해진 푸구이는 자신의 집과 재산을 앗아간 룽얼(龍二)에게서 빌려온 그림자극상자에 의지해 단원을 모으고 그림자

다. 이러한 사실은 장제스 군대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푸구이가 인민해방군에 투항하여 전통극 대신 영웅적인 병사의 이야기를 각색하여 그림자극으로 공연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눈 위에 떨어져 있는 영인을 인민해방군 병사가 대검으로 찢러 푸구이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지만 영인에 대한 이 같은 폭력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 영화와 예술의 운명을 암시한다.” 슈테판 크라머/ 황진자, 《중국영화사》(서울: 이산, 2000), 264쪽.

그림자극(皮影戲)이 중국 영화를 암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기 전통 예술과 현대 예술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중국 예술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1895년 파리에서 튀미에르 형제에 의해 세계 최초로 영화 상영이 이루어진 후, 그 이듬해 중국에 들어와 상하이의 서커스장에서 상영되기 시작한 영화가 그 당시에는 ‘서양 그림자극(西洋影戲)’이라 불렸기 때문이다. (후지이 쇼조/ 김양수, 《현대 중국, 영화로 가다》(서울: 지호, 2001) 9쪽 참조.

10) 흔히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는 것처럼, 그림자극(연극의 일종)의 등장 의미를 영화 《인생》의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도 가능하다. 「장이머우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다. 즉, 운명 앞에서 푸구이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그의 일생은 완전히 운명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고, 운명의 안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마치 그림자극 단원의 손아귀에 있는 그림자극 인형이 완전히 사람에게 조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넓혀서 말한다면 모든 인간의 운명 또한 어찌 이와 같지 않겠는가! 강력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사람은 그 손아귀 속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장이머우의 《인생》이 전달하고 하는 주제이다. 우리는 영화 속의 도구적 기호인 그림자극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很显然, 張藝謀是要表达这样一个意思: 在命运面前, 福贵是身不由己的, 他一生完全掌握在命运手中, 任由命运摆弄, 正像皮影艺人手中的皮影一样, 完全由人操纵. 广而言之, 整个人类命运又何尝不是如此! 在强大不可测的命运面前, 人只不过是其手中的玩偶而已! 这就是張藝謀的《活着》要表达的主题, 我们可以通过对影片中道具符号——皮影戏的解读来理解它。)」王际峰, <人是命运的玩偶——电影《活着》中皮影意象解读>, 《电影评价》, 2007年20期.

극을 연기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간다.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일종의 새로운 개안(開眼)이 이처럼 삶을 탕진한 대가로 주어진다 것은 참 쓸쓸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새로운 개안 때문에 푸구이는 국공내전 시기에 국민당 군대와 공산당 군대를 막론하고 총칼로 그림자극 단원을 몰아내고, 그림자극을 전쟁에 지친 군인들의 오락거리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난폭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술의 전당인 그림자극 상자를 목숨처럼 지켜낼 수 있었다.

대약진 운동 시기에는 강철 생산을 위해 하마터면 뜯겨버릴 뻔했던 그림자극 상자가 자전의 재치에 힘입어 대중동원을 위해 간신히 살아남았지만, 마침내 문화대혁명의 광포한 불길 속에서는 빈 상자만 남고 그림자극 인형들은 쟈더미가 되고 만다. 그림자극은 시대에 따라 유한계급의 여흥을 위해, 군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중동원의 오락을 위해 그 존재 가치를 각기 다르게 부여받았지만, 문화대혁명시기에 이르러서는 어떤 존재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다.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전통 예술, 전통 문화, 더 나아가 중국의 예술문화 일반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문화대혁명은 중국인이 중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에도 그림자극 상자를 채우고 있는 것은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그림자극 인형이 아니라 작고 귀엽긴 하지만 그림자극 상자로서는 낫설 수밖에 없는 병아리라는 점에서 중국의 예술문화적 전통의 운명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선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영화 《인생》과 소설 《인생》

지금까지는 장이머우(張藝謀)의 영화 《인생(活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전개해왔다. 이렇게 한 까닭은 영화는 우선 영화 자체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때문이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장

이머우의 영화 《인생》은 그보다 조금 먼저 탄생한 위화(余華)의 소설 《인생》을 각색해서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영화 자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영화와 소설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형태 사이의 관계, 그 공통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영화 《인생》과 소설 《인생》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연구의 여지가 많은 주제이지만 여기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감독 장이머우는 《인생》에서 소설가 위화에게 적지 않은 빛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영화 속의 주요 등장인물인 푸구이 일가, 즉 푸구이, 아내 자진, 아들 요우칭, 딸 평샤, 사위 완얼시(영화에서는 절름발이로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머리가 한쪽으로 삐딱하게 치우쳐진 편두로 나온다), 외손자 만터우(소설에서는 이름이 쿠건(苦根)으로 나온다)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소설 속에서 가져온 인물이다. 또 푸구이 일가의 운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 즉 노름으로 푸구이의 저택을 앗아간 룡얼, 아들 요우칭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공산당 간부 춘성(영화에서는 푸구이의 하인이었던 것으로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전쟁터에서 만난 전우로 나오고, 영화에서는 구장(區長)이지만 소설에서는 현장(縣長)으로 나온다) 또한 기본적으로 소설 속에 이미 있었던 인물이다. 물론 영화에는 소설에 없던 허구적 인물인 산부인과 의사 왕빈(王斌) 교수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사건 또는 줄거리, 즉 인물의 운명이다. 노름으로 인한 푸구이 일가의 파산, 아버지의 죽음, 푸구이가 전쟁터로 끌려감, 전쟁이 끝나고 구사일생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고 딸 평샤는 병어리가 되어 있었음, 공산정권이 수립되고 룡얼이 총살당함, 아들 요우칭의 죽음, 평샤와 완얼시의 결혼, 평샤의 출산과 죽음, 외손자 만터우의 탄생 등이다. 그러나 영화와 소설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아버지의 죽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푸구이가 전쟁터에 끌려가는 했지만 국민당 군대를 위해서 대포를 끌었을 뿐 공산당 군대를 위해서는 복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든지, 아들 요우칭

이 죽은 이유와 방식이라든지, 평사의 죽음의 원인이라든지, 아내 자전, 사위 완열시 그리고 외손자 만터우까지 소설에서는 남김없이 다 죽는다든지 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이처럼 영화와 소설은 주요 인물과 사건을 상당 정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인생》과 소설 《인생》이 이룩한 예술적 성취는 각기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점을 한 마디로 압축시켜 말하자면, 장이머우가 영화에서 부각시키고자 한 것은 불행한 중국민족의 현대사였고, 위화가 소설에서 그려내고자 한 것은 푸구이의 초월적 인생철학이었다. 장이머우는 불행한 중국민족의 현대사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위화의 소설에 대하여 두 가지 근본적 개조를 시도했다. 첫째, 전통적 중국민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푸구이 일가의 운명을 국공내전,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과 같은 비극적인 중국현대사의 진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려냈고, 둘째, 푸구이의 직업을 농민이 아니라 소설 속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전통적 중국예술을 암시하는 그림자극을 공연하는 민간예술가로 바꾸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화는 단순한 한 개인사적 운명의 통찰에서 벗어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통적 중국민족과 전통적 중국예술의 운명을 푸구이를 상징으로 삼아 중국인의 심성에 썩 어울리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었다.

영화 속의 푸구이는 시대와 역사의 중압 속에서 고통스러운 운명을 소박하게 견뎌내고 있지만, 그것이 운명에 대한 자각과 초월에서 나왔다가보다는 운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순응과 무력감의 표현인 것처럼 보인다. 장이머우가 영화 속에서 푸구이 일가의 운명을 소설과 달리 극단적으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던 이유도 소박한 소시민, 민간예술가로서 푸구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작가 위화는 소설 속에서 푸구이의 초월적 인생철학을 그려내기 위하여 푸구이 일가의 운명을 극단적으로 비참하게 몰고 갔다. 영화 속에서 살아남았던 아내 자전, 사위 완열시, 외손자 만터우까지도 소설 속에서는 남김없이 죽음을 맞이한다. 이런 극단적 불행의 밑그림 속에서 푸구이는 친지의 죽음과 운명의 가혹함이 오히려 자신의 살아 있음과 인

생의 가치를 증명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소설 속의 푸구이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준 늙은 소와 함께 소박한 농민, 인생철학자로서 즐겁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여기서 나온다고 하겠다.

한 인간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 나오며 겪는 고통스러운 운명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설과 영화가 서로 비슷하지만, 소설은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음을 얻은 소박하고도 초월적인 푸구이의 시선으로 자신의 극단적으로 불운한 일생을 가뿐하게 돌아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철학사상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영화는 가산을 탕진하고 몰락한 뒤 소박하고도 현실적인 소시민으로 변한 푸구이가 배경으로 설정된 기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운명을 비극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사회역사적 지향을 분명히 했다.

선원후이(沈文慧)는 영화와 소설이 갖는 이러한 차이를 <실존의 고민과 현실의 고통--위화와 장이머우의 두 가지 《인생》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장이머우의 영화 《인생》은 위화의 같은 제목의 소설에 근거하여 각색해서 만든 것이다. 그것들은 동일한 인물과 비슷한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양자의 정신적 지향과 내재적 의미는 이미 완전히 다르다. 위화의 소설 《인생》은 인간의 생명과정에 대한 예술적 해석이고, 구현하고 있는 것은 중국 민족 내지 전체 인류의 생명 상태에 대한 심각한 사색이며, 한 부의 시화(詩化)된 생명철학이다. 이 때문에 짙은 사색의 풍격을 갖추고 있다. 장이머우의 영화 《인생》은 전통적인 '통속 줄거리 극'의 형식으로, 한 보통 가정이 특정한 역사적 시공간에서 겪었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서술하고 있고, 부조리한 현실이 기층 민중에게 안겨준 깊고 무거운 고난을 드러내며,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나간 역사에 대한 반성과 절의이다. 이 때문에 영화는 강렬한 아이러니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만일 위화의 《인생》이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형이상학적인 실존의 고민이라고 한다면, 장이머우의 《인생》은 형이하학적인 현실의 고통을 들추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들은 이미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텍스트이다.¹¹⁾

VI. 나오며

이상에서 장이머우의 대표작인 영화 《인생》이 도달한 미덕을 ‘중국 현대사에 대한 준엄하고 따뜻한 통찰’이라는 측면과 이런 통찰이 ‘중국인의 심성에 썩 어울리는 방식’으로 절묘하게 표현되었다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필자는 ‘중국인의 심성에 썩 어울리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속에 담아서 던지시 암시하기”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루쉰이 일찍이 모든 문예의 보편적 표현법이라고 정의했던 ‘광의의 상징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 또는 의도를 속에 담아서 던지시 전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듣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바로 우리가 중국인의 심성과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화 《인생》이 지닌 상징적 성격에 대해서 언급한 연구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슈테판 크라머처럼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림자극의 운명을 “중국 영화와 예술의 운명을 암시한다”고 지적한다든지, 이옥연처럼 “『인생』은 주인공 푸꾸이의 인생을 통해 중국 현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푸꾸이 집안의 몰락은 봉건 중국의 종말이자 현대 중국의 시작이다.”¹²⁾라고 서술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하지

11) 张艺谋的电影《活着》是根据余华的同名小说改编而成，它们有相同的人物和类似的情节，但二者的精神旨趣，内涵意蕴已迥然相异。余华的小说《活着》是对人类生命过程的艺术阐释，体现的是对我们民族乃至整个人类生命状态的深沉思索，是一部诗化的生命哲学，因而具有浓郁的沉思风格。张艺谋的电影《活着》以传统的“通俗情节剧”形式，讲述一个普通家庭在特定历史时空的惨痛际遇，展示荒谬现实带给底层民众的深重苦难，追求的是对既往历史的反思与质疑，影片因此呈现出强烈的反讽意味。如果说余华的《活着》试图阐释的是形而上的存在之思，那么，张艺谋的《活着》则致力于揭示形而下的现实之痛。它们已然是两个完全不同的文本。沈文慧，〈存在之思与现实之痛——余华与张艺谋的两种《活着》〉，《电影评价》，2008年1期。

만 어떤 경우에도 영화가 지닌 상징적 성격을 중국 현대사에 비추어 전면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심지어 영화 《인생》이 지닌 구체적 특성을 무시하고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불분명한 표현”이라고 단정하는 연구자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인의 심성에 썩 어울리는 방식, 광의의 상징주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영화 《인생》은 기구한 운명에 의해서 빚어진 혈육의 비극으로 점철된 푸구이라는 한 가족의 역사를 그려낸 것이면서, 그것이 동시에 파란만장한 정치적 운동에 의해서 빚어진 사회적 비극으로 충만한 중국민족의 현대사에 대한 서술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이머우의 영화 《인생》은 위화의 소설 《인생》을 각색해서 만든 것이므로, 영화와 소설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형태 사이의 관계, 영화감독 장이머우와 소설가 위화 사이의 관계, 그 공통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 인간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 나오며 겪는 고통스러운 운명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설과 영화가 서로 비슷하지만, 소설은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음을 얻은 소박하고도 초월적인 푸구이의 시선으로 자신의 극단적으로 불운한 일생을 가뿐하게 돌아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철학사상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영화는 가산을 탕진하고 몰락한 뒤 소박하고도 현실적인 소시민으로 변한 푸구이가 배경으로 설정된 기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운명을 비극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사회역사적 지향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 余華, 《活着》(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2)
 위화(余華)/ 백원담, 《살아간다는 것》(서울: 푸른숲, 1997)
 슈테판 크라머/ 황진자, 《중국영화사》(서울: 이산, 2000)

12) 이옥연, 《중국이 내게 말을 걸다》(서울: 창비, 2008), 166쪽.

- 후지이 쇼조(藤井省三)/ 김양수, 《현대 중국, 영화로 가다》(서울: 지호, 2001).
- 인홍(尹鴻)/ 이종희, 《중국 영상문화의 이해》(서울: 학고방, 2002)
- 레이 초우/ 정재서, 《원시적 열정》(서울: 이산, 2004)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영화로 읽는 중국》(서울: 동녘, 2006)
- 이옥연, 《중국이 내게 말을 걸다》(서울: 창비, 2008)
-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엮음/ 임대근외 지음, 《중국영화의 이해》(서울: 동녘, 2008)
- 김언하, 〈루쉰의 문학 세계와 광기 주제〉, 《중어중문학》 35(2004.12)
- 沈文慧, 〈存在之思与现实之痛--余华与张艺谋的两种《活着》〉, 《电影评价》(2008.1)
- 王际峰, 〈人是命运的玩偶--电影《活着》中皮影意象解读〉, 《电影评价》(2007.20)

[Abstract]

This thesis studied Zhang Yi mou's representative movie *Life*(活着) focusing on two aspects. One of them is 'rigorous but sympathetic insight through modern Chinese history' and the other is 'description well matched to Chinese people's character'. 'Description well matched to Chinese people's character' means 'allusive remark instead of talking directly', and in other words this is what Luxun defined as general way of expression in all literature: 'symbolism in broad meaning'. The technique or art of communication expressing the idea by 'between the lines' and understanding what it really means nonetheless is one of the important keys to understand Chinese people's character and Chinese culture. At this point of view, the movie *Life* can be read as not only personal history of Fugui(福贵) who led rough

and tragic life in the middle of upheaval Chinese history, but the history of whole Chinese people who underwent modern Chinese history full of tragic incidents. It was discussed and analyzed how Zhang Yi mou used 'symbolism in broad meaning' in his movie *Life* and why.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movie *Life* directed by Zhang Yi mou and the novel *Life* written by Yuhua(余華) were also considered in this thesis. Both the novel and the movie described the fortune of a man who got through turbulent times. But the novel stressed Fugui's philosophical reflection about his life after suffering all the unfortunate things happened through his lifetime, the movie emphasized socio-historical experience of Chinese people represented by Fugui and his family amid fluctuation of Chinese history.

Key words : *Life(活着)*, rigorous but sympathetic insight through modern Chinese history, description well matched to Chinese people's character, symbolism in broad meaning

[국문요약]

이 논문은 장이머우의 대표작인 영화 《인생》이 도달한 미덕을 ‘중국 현대사에 대한 준엄하고 따뜻한 통찰’이라는 측면과, 이런 통찰이 ‘중국인의 심성에 썩 어울리는 방식’으로 절묘하게 표현되었다는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필자는 ‘중국인의 심성에 썩 어울리는 방식’이라는 표현을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속에 담아서 던지시 암시하기”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루쉰이 일찍이 모든 문예의 보편적 표현법이라고 정의했던

‘광의의 상징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영화 《인생》은 기구한 운명에 의해서 빚어진 혈육의 비극으로 점철된 푸구이라는 한 가족의 역사를 그려낸 것이면서, 그것이 동시에 파란만장한 정치적 운동에 의해서 빚어진 사회적 비극으로 충만한 중국민족의 현대사에 대한 서술이기도 하다. 장이모우가 그의 영화 ‘인생’에서 이러한 ‘광의의 상징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이 글에서 분석하고 논의해보았다.

또한 장이모우의 영화 《인생》과 위화의 소설 《인생》을 영화와 소설이라는 서로 다른 예술형태 사이의 관계, 영화감독 장이모우와 소설가 위화 사이의 관계, 그 공통성과 차별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 인간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 나오며 겪는 고통스러운 운명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영화가 서로 비슷하지만, 소설은 주인공 푸구이가 자신의 극단적으로 불운한 일생을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음을 얻은 소박하고도 초월적인 시선으로 가뿐하게 돌아보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그 철학·사상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영화는 배경으로 설정된 기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몰락한 푸구이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운명을 비극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중국 민족 전체의 운명을 은유하여 나름의 사회역사적 지향을 분명히 했다고 할 수 있겠다.

투고일: 2008. 10. 25.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양결합” 창작방법의 민족형식화 과정

김 자 은*

<목 차>

1. 서 론
2. ‘양결합’의 필요성
3. 사회주의 현실주의와의 관계
4. 민족형식이 된 ‘양결합’
5. 결 론

1. 서 론

창작방법은 창작주체가 형상을 현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창작방법은 창작주체에 의한 제약이 불가피하다. 또한 그것은 양식에 의한 제약을 고려해야만 한다. 창작 자체가 창작주체에 의하여 양식으로 표현되는 한, 창작방법 또한 양식을 뛰어넘거나 작가를 뛰어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의 당대문학사가 보여주는 창작방법의 권위는 문학예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작품창작의 원리와 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원칙에 창작주체의 지향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 논문은 창작방법의 이같은 성격을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革命現實主義와 革命浪漫主義

* 동아대학교 중국학부 강사(jincien@hanmail.net)

의 兩結合'(이하 '양결합') 창작방법을 대상으로 삼았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주의의 미래를 향한 실천의 길을 모색해야만 했던 1950년대 중반, 新民歌運動과 함께 제기된 '양결합' 창작방법은 그 방법이 창작주체와 신민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민가운동은 工農兵을 우파 지식인과 수정주의 지식인에 대립시키고 그들에게 유리한 신민가 양식 속에서 그 대립을 공농병 우위로 끌여가기 위해 추진한 운동이었으며, '양결합' 창작방법은 기존의 동서진영간 대립구도를 소련 수정주의를 포괄하는 대립구도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대한 민족형식의 우위를 통하여 黨性에 의한 미래의 이념화와 미래에 의한 현실 속의 박투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노선이었다. 이 같은 논의구조 아래 진행될 이 논문은 중국당대문학의 절대권위로 작용할 '양결합' 창작방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소련의 사회주의 현실주의와의 모순관계, 그리고 그것이 민족형식으로서의 의미를 확립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창작을 통하여 '운동'의 정치적 목적에 복무하고자 했던 黨과 文壇의 지속적 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의 진실을 벗어난 '과장풍'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大躍進 시기 '양결합'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2. '양결합'의 필요성

1958년 3월 毛澤東은 中央이 소집한 成都會議에서 “열의를 북돋아 더욱 높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힘쓰며, 많이 빨리 훌륭히 절약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자(鼓足干劲、力争上游、多快好省地建设社会主义)”면서 중국의 사회주의가 나아가야 할 기본관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같은 회의에서 중국 詩의 발전방향에 대해 거론하면서 중국의 新詩는 “형식은 민족의 형식, 내용은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신민가운동의 본격적인 전개와, 文革의 종결

에 이르기까지 중국문예의 기준으로 작용할 ‘양결합’ 창작방법 제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중국 시의 출로는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民歌, 또 하나는 古典이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배운다면 새로운 시가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의 신시는 형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주목을 끌지 못하는데 누가 그런 신시를 읽겠는가. 앞으로 고전과 민가 이 둘을 결혼시켜 제3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식은 민족의 형식, 내용은 마땅히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¹⁾

중국 사회주의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중국 시의 출로’가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느닷없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끊임없는 반우경과 급진주의에 대한 비판의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 소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주의 경제대국을 이룩해야만 했던 중국의 위기와 이 모든 모순과 위기를 인민의 역량으로 해결함으로써 중국을 선진공업화한다는 모택동의 신념이 합쳐진 결과였음을 상정한다면, ‘중국 시’에 관한 毛의 언급은 결코 충동적이거나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雙百’과 ‘反右’를 통하여 당내의 생산력주의자들을 위협한 바 있었던 모택동은, 중국사회주의의 문예원칙으로 고수해오던 소련의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극복할 만한 새로운 문예지침을 교시해야만 하는 시기적 필요성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모택동이 이처럼 언급한 이상 그의 방향성과 방법론 안에서 문예정책 전체가 철저히 조직화되고 나아가 시스템의 변화를 초래해야만 한다는 데 있었다. 지도자의 한 마디는 사회내적인 필요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시작이었고, 이것은 작가의 내면으로부터 작품 자체에 이르는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중국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1) 毛泽东, 〈성도회의에서의 연설 요약 在成都会议上的讲话提纲〉, 《建国以来毛泽东文稿》第7册(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2)

그 창작방법이 제시되면, 그 원칙을 세분화·구체화시킴으로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변화의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작가의 몫이었다. 이 같은 요구에 가장 먼저 발맞춘 사람은 역시 문예이론분야의 권위자였던 周揚이었다. 1958년 6월 1일 《红旗》의 창간호에 周揚의 다음 글이 실린 것은, 각급간부와 지식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한 결과였다.

모택동 동지는 우리의 문학이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가 결합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문학사 전체의 경험에 대한 과학적 개괄이자 지금 이 시대의 특징과 필요에 따라 나오게 된 매우 정확한 주장이므로, 우리 모든 문예종사자들이 함께 분투하는 방향이 되어야만 한다. 모택동 동지가 지은 수많은 詩詞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된다.²⁾

문학사적인 경험에 대한 개괄과 전망이 모택동으로부터 비롯되며 그의 작품이 경험과 방향이 된다는 것은, ‘양결합’이 아닌 창작방법은 모택동의 이론적 개괄과 창작의 실재를 반하는 것이라는 형식논리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문학의 올바른 창작방법은 ‘양결합’으로 제약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周揚은 계속해서 “우리는 사회주의 대혁명의 시대, 노동인민의 물질생산력과 정신생산력이 공전의 해방을 맞보고 공산주의 정신이 전에 없이 고조된 시대를 살고 있다. 인민군중은 혁명건설투쟁 속에서 실천의 정신과 위대한 이상을 결합시키기 시작했다. 고도의 혁명낭만주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의 시대, 우리의 인민, 우리의 노동자계급의 공산주의적 풍격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³⁾라고 주장한다. 토대해방의 공전의 수준에 따라 공산주의 정신이 전에 없이 고조된 시대이기 때문에 혁명건설투쟁 속에서 실천의 위대한 이상을 결

2) 周揚, <신민가는 시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新民歌开拓了诗歌的新道路>, 1958년6월1일 《红旗》创刊号

3) 上同

합시키기 시작했다는 그의 주장은 거꾸로 서 있는 관념이다. 현실은 공산주의에 진입한 것도 아니었고, 공산주의가 곧 노래하리라는 이상이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낭만주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현실 속의 공산주의적 풍격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周揚의 주장은 혁명낭만주의 정신으로 아직 노래하지 않은 공산주의의 노래를 믿음으로 노래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같은 해 7월, 高歌今도 이 같은 분위기에 합세하여 ‘양결합’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지 않았을 때에 현실주의는 자연주의로 후퇴하게 되고 작품은 열정과 이상을 잃게 됨으로써 사소한 삶의 현상을 드러내는 데에만 급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왜 지금 혁명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결합을 특별히 제창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주의 대혁명과 대건설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노동인민의 물질생산력과 정신생산력 모두 공전의 해방을 얻어 공산주의 정신이 크게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많은 인민은 엄숙하고 고되고 막중한 일상의 노동을 기세 높은 영웅기개와 웅대한 미래이상을 긴밀히 결합시키고 있다. 이 같은 시대와 인민의 생활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혁명낭만주의가 없으면 노동군중의 영웅기개와 미래에 대한 그들의 아름다운 환상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실주의는 곧바로 근시안적인 자연주의로 흐르기 쉽고, 작품은 열정과 이상을 잃어버린 채 독자에게 목전의 사소한 삶의 현상만을 보여줄 뿐이다. 사물이 발전해가는 위대한 전망을 보여줄 수도, 탐조등과 같이 사람들의 앞길을 비추어줄 수도 없다.⁴⁾

이 글은 현실을 공산주의에 가까운 미증유의 시대로 규정하고, 그곳에서의 희망과 투쟁을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결합이 아니고서는 재현해낼 수 없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高歌今이 주장하고 있는

4) 高歌今, <혁명적 현실주의와 낭만주의는 결합해야 한다 革命的现实主义和浪漫主义需要结合>, 《诗刊》(1958.7)

현실적 필요성은 ‘양결합’ 창작방법과 결코 필연적 인과관계에 놓여있지 않다. 대약진 시기의 현실이 실제로 물질생산력과 정신생산력의 해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산주의의 도래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혁명낭만주의 정신의 인위적인 고양은 크게 요구될 필요가 없게 된다. 반면, 직면한 현실이 자본주의나 수정주의 진영과의 경쟁에서 낙후된 상황이라면 혁명낭만주의 정신에 입각된 현실 속의 분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지속적인 발현을 위하여 토대와 상부구조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고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민은 노동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망하고 있고 환상을 품고 있다. 이것이 현실주의의 유무를 결정짓고, 또한 낭만주의의 유무를 결정짓는다. 인민의 노동과 투쟁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며, 희망과 환상 또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이고 혁명적인 낭만주의와 현실주의가 함께 어울려 그 시대의 현실생활을 독특한 방법으로 생생히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천리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주고 ‘한 층 더 높은 곳에 오르게’ 한다.”⁵⁾라는 贺敬之의 주장은 周揚보다는 현실에 입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그의 주장은 조악한 현실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투쟁과 환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現實’의 인식과 ‘理想’의 필요성은 ‘양결합’의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즉 사회주의적인 현실과 공산주의적인 이상이 결합하게 되면, 사회주의의 장래인 공산주의의 이상이 사회주의의 현실을 이끌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 사회의 장래가 현재를 규정하기 시작하면,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현재의 삶은 미래를 지향하는 사회역사적인 실천 속으로 수용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거나 무시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 현실(사회주의적 현

5) 贺敬之, <시의 혁명낭만주의를 말하다 漫谈诗的革命浪漫主义>, 《文艺报》 9(1958.5)

실)과 이상(공산주의적 이상)은 언제나 결합되어 있다”⁶⁾라는 華夫의 주장은 ‘양결합’의 근거를 미래와 현실 간의 지도관계에서 찾음으로써 ‘양결합’의 전개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식인들은 建國 이전 이미 문예대중화와 민족형식에 대한 논의를 거쳐 문학예술이 민중의 혁명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연안문예강화》의 전통을 그들 개인의 삶과 창작에 관철시켜야 했다. 이것은 계급적 인성을 가진 자아가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확장시켜 현실 속의 투쟁을 배가시키고 그것을 예술창작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따라서 혁명적일 뿐 아니라 毛澤東主義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현실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작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郭小川의 경우, 인민이 뜨거운 낭만주의의 걱정으로 미래를 향해 대담하게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생활의 표현을 위해서는 ‘양결합’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혁명적인 사람만이 혁명적인 문학작품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착실한 정신과 혁명이상을 지닌 사람만이 현실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 요소를 갖춘 작품을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몇 수의 민가가 다 최고의 시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인민의 생활 속에 낭만주의의 걱정이 충만하다는 것이다. 정말로 열정이 넘쳐난다! 대담하고도 성실하게 전진하면서 내일을 열렬히 기대하고 ‘삶이 점점 더 유쾌해지기를’ 기대한다. 이것이 인민의 목소리이다. 믿을 수 없는가? 둘째, 문학은 이 몇 수의 민가처럼 현실주의와 낭만주의 양결합의 방법으로 이런 생활을 표현해야만 진실한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⁷⁾

6) 華夫, <문예가 위성을 쏘아올리다 文艺放出卫星来>, 《文艺报》18(1958.9)

7) 郭小川, <우리는 최강음이 필요하다 我们需要最强音>, 《文艺报》9(1958.5)

이렇듯 현실을 인식하고 또 형상화하는 방법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결합’과 ‘생활의 진실’ 간의 격차가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이들의 논리가 지나치게 관념적이기 때문이다. 현실주의에 충실하고자 했던 시인 臧克家是 그 디테일을 채우고자 노력했던 것 같다. 國統區 출신으로서 모택동에 대해 가졌던 믿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詩刊》의 主編으로서 詩壇과 中宣部를 매개하는 자신의 특수한 지위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양결합’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사상적 기반과 문학적 소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창작이론으로서의 ‘양결합’의 정합성을 설명하고 있다.

양자가 결합된 것을 쓰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민의 투쟁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 2. 드높은 열정과 드높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있어야 한다. 열정이 드높아야 현실생활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며 미래를 대담하게 꿈꿀 수 있다. 사상이 드높아야 느낌도 깊어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새로운 사물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다. 3. 깊은 문학예술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깊이 있는 소양을 갖추지 못하면 느낌이 있어도 표현해낼 수 없다.⁸⁾

그러면서 臧克家是 노동자계급의 직접창작을 ‘양결합’의 우수한 성과로 격찬하면서 전업작가들이 배워야 할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약진 이래로 무수한 민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노동자 동지들이 써낸 많은 시들은 패기 있고 열정적이며 소박하고 명랑하며 신선하고 생동적이다. 대부분이 혁명낭만주의와 혁명현실주의가 결합된 우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작가인 노동인민들은 경천동지할 위대한 사업을 창조해내었기에 이처럼 자랑스럽고 열정적이며 격동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노래를 하니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투지를 고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시만 써온 사람들이지만 아직 그들만 못하다. 더욱 채찍질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의

8) 臧克家, <이상, 열정, 시의 理想, 热情, 诗意>, 《文艺报》9(1958.5)

식적으로 배워야만 한다.⁹⁾

신민가야말로 ‘양결합’이 가장 이상적으로 반영된 문학양식이라는 것, 그리고 공농병문학을 지식인문학의 우위에 올려놓고 지식인문학이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관점의 출현은 신민가운동의 기본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 우리는 臧克家가 ‘양결합’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깊은 문학예술소양’이란 작가가 갖추어야 할 어느 정도의 지적 교양의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주관을 배제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여 거기에 발맞추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십 년을 창작에만 종사해온 지식인작가가 공농병작가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없다. 따라서 ‘양결합’은 창작주체가 미리 결정된 후 제시된 창작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

1958년 5월에 발표된 袁水拍의 <민가의 낭만주의 정신을 배우자 向民歌学习浪漫主义精神>은 臧克家的 이 같은 관점에 동의하면서 “혁명낭만주의는 문학의 창작방법이자 작가의 세계관”이라고 말했다. “군중창작 속에 강렬한 혁명낭만주의의 색채가 담겨있는 것은 군중이 드높은 혁명객관주의 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¹⁰⁾이라며 혁명객관주의, 즉 현실주의야말로 혁명낭만주의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작가가 붙들어야 할 세계관과 창작방법은 혁명낭만주의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역사적 ‘현실’을 환상의 대상으로 주어진 미래의 ‘이상’이 압도해야만 하는 당시 중국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賀敬之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혁명낭만주의가 시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그의 주장은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비판의식을 요구해온 현실주의의 오랜 문학사적 사명을 부정하라는 것에 다름

9) 上同

10) 《诗刊》(1958.5)

아니었다.

혁명낭만주의가 시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이상을 가지고 무한한 미래를 향해 큰 걸음으로 전진해야 한다. 2. 공산주의자의 끝없이 광활한 가슴을 가져야 한다. 3. 집단적 영웅주의가 있어야 한다. 4. 이른바 “진실을 그리는” 데 그치면 안 된다. 군중의 색채와 더욱 우렁찬 목소리가 필요하다. “평범하지 않은” 구성과 과장, 상상, 환상을 더욱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¹¹⁾

‘양결합’ 창작방법의 조건은 미래의 이상으로 현실을 규정하고 개인이 아닌 집단의 목소리가 우선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택동주의자의 일원이 되어 현실비판으로 나아가지 말고 미래를 선취한 자의 과장과 상상, 환상을 더욱 많이 드러내야 한다는 賀敬之의 견해는 우여곡절 끝에 다다른 모택동주의자들과의 일치가 분명했다.

3. 사회주의 현실주의와의 관계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 낙관적인 점,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협력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는 점 등에서 기존의 리얼리즘과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주의 현실의 생활형태에 대한 형상적 인식을 역사적 구체성을 띠고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¹²⁾ 따라서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이론의 무모순성, 진실한 예술묘사,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을 초월하는 보편성의 통일을 지향한다.

그러나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의 양결합’은 현실에 대한 정확

11) 賀敬之, <시의 혁명낭만주의를 말하다 漫談詩的革命浪漫主義>, 《文艺报》9(1958.5)

12) 伊東勉 지음/이현석 옮김,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서울: 세계, 1987), 171-172쪽

한 인식과 역사적 구체성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일종의 매체운용의 수단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대약진과 신민가운동을 통하여 현실 속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필요에 따라 동원된 수단이었기 때문에, 창작방법으로서의 추상화나 보편화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약진 시기의 중국문단에 있어서 이미 경험했던 모든 문예사조에 대한 가치평가는 모두 ‘양결합’에 의존해야 했다. ‘양결합’의 수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자본주의와 수정주의에 대한 우위를 갖추는 길이었다.

일차적으로는 자연주의와 개인주의가 ‘양결합’과의 관계를 통하여 재평가되어야 했는데, 蔡天心的 경우 과거에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를 배척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던 까닭에 작품이 공식화와 개념화의 결점을 노출하고 자연주의 경향을 노정하였다고 진단한다.

과거에는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를 상호배척적이라고 보는 경향이 종종 있어서, 작품들이 무미건조하고 공식화·개념화의 결점을 지니기도 하고, 또 사소한 현상묘사에만 급급하여 자연주의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지금 제기하는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의 양결합은 공식주의와 개념화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일부 자연주의 경향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창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우리 문학활동이 대약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¹³⁾

개념화와 공식화는 사회과학적인 논의구조가 형상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작품 속에서 수용된 탓이다. 자연주의는 현실주의와는 달리 현실에 대한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현실 속의 문제를 독자가 판단하도록 하는 예술 사조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蔡天心的 이 같은 주장은 전반적으로 자연주의가 지닌 리얼리즘으로서의 동질성을 이해하지 못한 말이다. 모든 창작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양결합’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진실을 낭만의 이름으로 은폐하는 창작방법이

13) <좌담회 기록 座谈会纪录>, 《处女地》(1958.8)

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개념화되고 공식화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安旗는 <현실에서 출발하여 또한 현실보다 드높게 从现实出发, 而又高于现实>에서 우파분자로 분류되었던 작가 王愚의 “특수한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낭만주의는 자산계급 개인주의자의 미친 듯한 감정의 발설을 제창하였다고 했다. 또 “최근 1,2년 동안의 낭만주의에 대한 연구와 시도 중에는 아직도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청년시인들이 낭만주의의 명의를 빌려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개인주의적 감정을 마구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¹⁴⁾라고 비판하였다. 주류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시인들은 極左的 분위기 속에서 ‘집단적 영웅주의’에 반하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몰릴 수밖에 없었다. 이들 작품이 드러내고 있는 낭만적 성향과 이른바 대약진문학이 지향해야 하는 낭만주의는 노선과 관점에 있어서 그것이 작가 개인에게 속한 것인가 아니면 모택동주의자에게 속한 것인가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¹⁵⁾ 작품에 드러나는 감정이 동일한 현실인식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것의 관점과 노선에 따라 개인주의와 혁명낭만주의가 갈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형상의 정치적 지향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9세기 서구의 문학사가 빚어낸 초인지향—인류구원—의 이상을 지닌 개인형상은 사회주의의 노선과 결합되지 않으므로 개인주의적인 낭만주의로 평가되었다.

14) 《文艺报》13(1958.7)

15) 대약진 시기에 제기된 혁명낭만주의의 개념에 대해 성근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58년에 제기된 양결합과 혁명적 낭만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전의 경우와 다르게 확대되게 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혁명적 낭만주의’라는 말 속에 ‘수정주의적인 지식인의 방향’에 대한 반대라는 의미가 추가됨으로써, 기존의 ‘혁명적 낭만주의’, 혹은 ‘혁명적 이상주의’라는 말이 지니고 있던 내포와는 사뭇 다른 외연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성근제, <‘양결합’의 사회적 배경과 이론사적 위치>, 《중국어문학논집》 9(1997. 8)

19세기의 혁명낭만주의 문학 속에 나오는 영웅은 모두 超人式的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강렬한 개인주의 색채를 지닌 인물이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의 혁명낭만주의와 19세기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자신의 혁명낭만주의를 발양해야 하며, 19세기 서구의 혁명낭만주의를 모방해서는 안 된다.¹⁶⁾

그러나 사회주의 현실주의와 ‘양결합’의 관계는 가치평가의 과정 자체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 ‘양결합’을 제창해야 하는 많은 이론가와 시인들이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론과 창작을 실천해왔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양결합’과 사회주의 현실주의 사이에 모택동주의와 수정주의의 사상적·정치적 내용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에, 정확한 감각으로 자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즈다노프는 “우리 당과 노동자계급의 모든 생활 및 투쟁은 바로 가장 엄숙하고 냉정한 실제작업을 위대한 영웅기개와 웅대한 전망과 결합시키는 데 있다.”¹⁷⁾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진실과 목전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수단과 전망의 일치는, 黨性的 무조건적인 향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엄숙하고 냉철한 실제작업과 전망을 결합시켜가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실주의의 한계면에 관한 문제로서, 郭小川 역시도 “결코 우리 주관으로 결합할 것인지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객관적 규율이다. 문학창작은 이 위대한 현실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반영해야 하고 반드시 현실주의와 낭만주의가 결합되어야만 한다.”¹⁸⁾고 말한 바 있다.

郭小川이 ‘양결합’을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버금하는 객관적인 규율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있었다면, 周揚은 낭만주의가 없으면 현실주의 자체

16) 茅盾, <혁명낭만주의에 관하여 关于革命浪漫主义>, 《处女地》(1958.8)

17) 日丹诺夫, <제1차 전국소련작가대표대회에서의 연설 在第一次全苏作家代表大会上的讲演>, 《苏联文学艺术问题》(北京:人民文学出版社, 1959)

18) 郭小川, <우리는 최강음이 필요하다 我们需要最强音>, 《文艺报》9(1958.5)

가 자연주의로 전락하고 낭만주의가 현실주의와 결합하지 않으면 허장성세로 전락하기 쉽다면서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창작방법과 ‘양결합’을 동일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과거에 현실주의와 낭만주의를 서로 배격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곤 했다. 우리는 그것을 대립적이고도 통일적인 것으로 본다. 낭만주의가 없으면 현실주의는 근시안적인 자연주의로 흘러가기 쉽다. 자연주의는 현실주의에 대한 왜곡이자 비속화이며, 그것은 절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낭만주의가 현실주의와 결합하지 않는다면 허장성세한 혁명의 공허한 외침이나 지식인식의 비현실적인 것으로 변질되기 쉬울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창작방법에 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해에 기초를 둔 것이다.¹⁹⁾

周揚은 현실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낭만주의의 상호관계를 앞서 거론한 蔡天心과 유사한 관점으로 규정한다.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대립 통일적인 ‘양결합’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상응하는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혁명의 공허한 외침’과 ‘지식인풍’에 투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賀敬之는 “사회주의 현실주의야말로 가장 좋은 현실주의이듯이, 사회주의적 혁명낭만주의가 바로 가장 좋은 혁명낭만주의이다.”²⁰⁾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현실주의와 ‘양결합’의 수준을 대등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는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현실주의의 최고수준의 성과로, 혁명낭만주의는 그에 상응하는 중국의 낭만주의의 성과로 파악하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혁명낭만주의를 중국문학 고유의 민족 자존심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

19) 周揚, <신민가는 시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新民歌开拓了诗歌的新道路>, 《红旗》创刊号(1958.6)

20) 賀敬之, <시의 혁명낭만주의를 말하다 漫谈诗的革命浪漫主义>, 《文艺报》9(1958.5)

반면 郭沫若是 현실 속에서 혁명적이면 된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그가 낭만주의와 현실주의를 主情과 主智로 나누면서 상상과 과장을 수용할 것과 허구와 낭만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혁명의 수단이 되기 위한 것이다. 혁명낭만주의는 시에서, 혁명현실주의는 소설에서 이 같은 풍격이 훨씬 더 많이 발휘되리라는 것은,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혁명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작가이면서 이론가였던 그의 실천을 반영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문예의 낭만주의와 현실주의는 정신본질에 있어 구별하기 매우 힘든 때가 있다. 전자는 主情이고 후자는 主智라는 것이 기본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情智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활동이다. ……따라서 한 작가 혹은 일부 작품에 대해 화학의 정성분석과 정량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 또는 그것의 낭만주의 성분이 몇 퍼센트이고 현실주의 성분이 몇 퍼센트인지를 판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예가 현실생활의 반영과 비판이라고 본다면 문예활동의 본질은 마땅히 현실주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예활동은 형상사유로서 상상을 허용하고 또한 과장을 허용한다. 진정한 위대한 작가는 반드시 현실적 재료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창조를 가함으로써 전형환경 속의 전형인물을 창조해야 한다. 이 같은 창조의 과정이 허구라고 할 수 있으므로 문예활동의 본질은 또한 낭만주의가 되어야 한다.

…… 낭만주의이건 현실주의이건 혁명적이기만 하면 된다. 혁명적 낭만주의는 낭만주의를 기초로 하여 현실주의와 결합했기 때문에 시가 이 풍격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적 현실주의는 현실주의를 기초로 하여 낭만주의와 결합했기 때문에 소설이 이런 풍격을 더 잘 발휘할 것이다.²¹⁾

‘양결합’과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향은 ‘양결합’이 《연안문예강화》의 정신을 계승하는 개념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그 기초를 확보하게 된다. 袁水拍은 <诗歌中的现实主义和浪漫主义的结合>(《文艺报》1958年第9期)에서 인민을 단결과 투쟁으로 이끌고 자기

21) 郭沫若, <낭만주의와 현실주의 浪漫主义和现实主义>, 《红旗》3(1958.7)

개조의 환경을 실행하는 것이 《강화》의 핵심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강화》의 일부분을 인용하여 혁명낭만주의가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불가결한 한 부분임을 주장한 바 있다.

혁명적 문학예술은 실생활에 기초해 여러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대중이 역사를 전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흔히 있는 일로 보고 있다. 문학예술은 이러한 일상적인 현상에 집중해 그 속의 모순과 투쟁을 전형화하고 그것을 문학작품 또는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내어 인민대중이 각성하고 분발하며 자신들의 환경을 개조하기 위해 단결하고 투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문학예술이 없다면 이 임무는 달성될 수 없거나 최소한 신속히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²²⁾

袁水拍과 달리 贺敬之는 《강화》 이래의 성과가 혁명낭만주의를 제기하게 하였다면서 혁명낭만주의야말로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진일보 발전하게 하고 자산계급의 낭만주의를 폐기시킨 성과였다고 단정지음으로써 袁水拍으로부터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연안문예강화》 발표 이래 십 수 년 동안의 신시발전의 성취에 있어서도 혁명낭만주의를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 혁명낭만주의는 공농병 방향을 실천하고 시를 과거의 개인주의와 지식분자의 몽환과 감상 속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진일보한 발전을 이루게 하였다. 또 자산계급·소자산계급의 가련하고도 가증한 ‘낭만주의’를 버림과 동시에 혁명낭만주의를 표현하게 되었다.²³⁾

22) 毛澤東 지음/김승일 옮김, 〈연안 문예 좌담회에서의 강연〉, 《모택동 선집 3》(서울: 범우사, 2007) 93쪽

23) 贺敬之, 〈시의 혁명낭만주의를 말하다 漫谈诗的革命浪漫主义〉, 《文艺报》9(1958.5)

邵荃麟은 혁명낭만주의 표현의 근거에 공산주의 세계관과 풍격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毛澤東의 군중노선이야말로 혁명낭만주의의 관건이라 주장한다.

모름지기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이 같은 혁명낭만주의를 표현해 낼 줄 알아야 하는데, 우선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공산주의적 풍격을 이룩해야 한다. 의욕을 북돋우고 높은 목표를 지향하여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환상하고 과감히 창조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없으면 작품 속에서 혁명낭만주의의 분위기를 표현해 낼 수 없다. 기본적인 관건은 물론 모주석이 말했듯이 장기적·무조건적·성심성의껏 군중의 열렬한 투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과 자기의 사상을 해방시키는 것이다.²⁴⁾

邵荃麟의 이 같은 주장은 혁명낭만주의, 나아가 ‘양결합’의 본질이 문학예술의 창작과 방법에 국한된 것이 아닌 지도자의 정치적 의도에 부합하고자 하는 일종의 현실투쟁에 있어서의 방법과 태도에 훨씬 가까움을 보여준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는 과거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적극적인 요소들을 계승했으면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思基는 ‘양결합’의 사상사적인 계승관계에 대해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는 과거의 낭만주의와 현실주의와 구별된다. 우리가 말하는 혁명적 낭만주의와 혁명적 현실주의는 모두 맑스레닌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혁명낭만주의와 혁명현실주의는 결코 단순히 진보적인 경향과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노동자·농민·병사와 무산계급 지식분자가 자본주의·봉건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이

24) 邵荃麟, <홍기를 꽃고 백화를 피우다 插红旗, 放百花>, 《长江文艺》(1958.7)

상과 열정과 투쟁의 사상에 적극적으로 종사함을 가리킨다. 역사를 묘사한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분석하고 평가한다.”²⁵⁾고 주장하였다. ‘양결합’과 기존의 현실주의·낭만주의가 작품의 경향을 뛰어넘어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계급투쟁의 적극성과 사상투쟁의 진실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양결합’이 사회주의 현실주의와 맑스레닌주의의 세계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부동의 원칙으로 삼는 이들이 있었으니, 矛盾이 그 대표적인 예다.

사회주의 현실주의가 혁명낭만주의를 포괄한다는 점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현실주의의 창작방법에 혁명낭만주의 창작방법이 더해지면 사회주의 현실주의 창작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현실주의는 일종의 창작방법으로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옛 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는 모두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사상기초로 삼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혁명낭만주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해 낼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겠다. 맑스레닌주의 세계관을 갖춘 작가 혹은 예술가의 예술실천 가운데 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의 결합은 사회주의 현실주의로 가는 길이다.²⁶⁾

이 글은 ‘양결합’이 맑스레닌주의의 세계관을 사상기초로 삼고 있는 이상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양결합’이 뚜렷한 정치의도와 현실투쟁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邵荃麟 역시도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사회주의문학의 긍정할 수밖에 없는 기본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혁명낭만주의는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구성 부분으로 보고 있다.

25) <좌담회 기록 座谈会记录>, 《处女地》(1958.8)

26) 矛盾, <혁명낭만주의에 관하여 关于革命浪漫主义>, 《处女地》(1958.8)

우리의 시대에 현실과 이상은 서로 결합하며 발전한다. 이상은 현실의 기초 위에 세워져 현실을 인도하며 전진한다. 따라서 혁명적 현실주의자는 혁명적 이상주의자일 수밖에 없다. 문학에 있어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회주의 현실주의 방법 중에서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상호관계를 더욱 잘 연구토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주의 현실주의는 사회주의문학의 기본방법으로 반드시 긍정해야 한다. 이것은 고전문학의 모든 우수한 전통을 계승하고 혁신·창조한다. 따라서 혁명낭만주의는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구성부분이 되어야 함도 긍정해야 한다.²⁷⁾

흥미로운 사실은 1958년 7월 <홍기를 쫓고 백화를 피우다 插红旗, 放百花>에서 혁명낭만주의의 중국적 우월성을 외쳤던 邵荃麟이 두 달 뒤인 9월 <문학 10년의 역정 文学十年历程>을 정리하면서 다시 혁명낭만주의를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종속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강화》의 정신과 기본원칙을 수호하고자 했으면서도 사회주의 문예의 실천과 이론에 있어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던 그의 개인적 혼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양결합’과 사회주의 현실주의 사이에 모택동사상과 소련 수정주의의 대립이라는 코드를 숨겨놓았던 대약진 시기 모택동의 정향에 대한 오독임이 분명한 茅盾과 邵荃麟의 견해는 郭沫若에 있어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문예활동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는 낭만주의를 위해 이상을 제공했으며, 현실주의에게는 영혼을 부여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필요로 하는 혁명적 낭만주의와 혁명적 현실주의가 되었다. 어찌면 이 양자의 적절한 결합이 사회주의 현실주의일지도 모른다.”²⁸⁾고 하면서, ‘양결합’이 바로 사회주의 현실주의라고 주장함으로써 茅盾과 邵荃麟보다 ‘양결합’을 평가절상한다.

반면 艺军은 郭沫若의 견해를 지지하면서도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유기적 구성부분으로서의 혁명낭만주의를 강조하면서 郭沫若과 邵荃麟 사

27) 邵荃麟, <문학 10년의 역정 文学十年历程>, 《文艺报》18(1959.9)

28) 郭沫若, <낭만주의와 현실주의 浪漫主义和现实主义>, 《红旗》3(1958.7)

이에서 자신의 견해를 절충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주의 현실주의는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의 결합이다. 과거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혁명낭만주의가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유기적 구성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부차적인 구성부분인 것 같다. 또 혁명낭만주의에 대한 이해도 명확하지 않다. 창작실천 속에서 혁명낭만주의는 종종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으로 취급되어 버려지거나, 덧붙여진 것이 되어 가볍고 단순하게 표현되어진다.²⁹⁾

반면 刘芝明은 혁명낭만주의가 사회주의 현실주의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독립시키는 것이 창작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낭만주의와 현실주의를 연계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그는 낭만주의와 현실주의가 결합하는 것이 창작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창작방법에 있어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모든 것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방법으로 보는데, 이 점은 한번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혁명적 낭만주의를 사회주의 현실주의 안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창작방법으로써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은 창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낭만주의와 현실주의는 서로 관계는 있지만 하나의 방법은 아니다. 양자를 결합시키면 서로 배척하는 것보다 창작에 훨씬 더 유리하다.³⁰⁾

‘양결합’의 상대독립성에 대한 刘芝明의 주장은 다소 소심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가 사회주의 현실주의 안에 포함된다는 개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을 알

29) 艺军, <영화와 혁명적 낭만주의 电影与革命的浪漫主义>, 《中国电影》(1958.9)

30) 刘芝明, <전국예술과학연구좌담회에서의 종결발언 在全国艺术科学研究座谈会上的总结发言>, 《戏剧论丛》(1958.2)

수 있다. 이는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시대의 당위성으로부터 비롯된 자각이었을 것이다.

4. 민족형식이 된 ‘양결합’³¹⁾

‘양결합’과 사회주의 현실주의 간의 불균등은 井岩盾에 의하여 제기되는데, 그에 의하면 ‘양결합’은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핵심이며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제고시킨 결과이다.

혁명적 현실주의와 혁명적 낭만주의의 양결합과 ‘사회주의 현실주의’ 창작방법과의 관계는 …… 현실주의와는 서로 상대적인 낭만주의는 ‘사회주의 현실주의’ 창작방법의 두 측면 중 한 측면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문학운동의 새로운 형세 아래 모주석이 우리에게 내린 이 지시는 위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혁명적 현실주의와 혁명적 낭만주의의 양결합’은 ‘사회주의 현실주의’ 창작방법의 핵심부분이자 모든 문학역사경험의 과학적 개괄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명확히 밝혀준다. 모 주석의 지시는 ‘사회주의 현실주의’ 창작방법을 더욱 높이 제고시켰고, 이 창작방법을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시는 우리의 문학운동에 대한 촉진작용을 크게 일으킬 것이며, 자연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걸음 더 나아가 문학운동의 새로운 단계를 열 것이다.³²⁾

‘양결합’은 ‘모택동의 지시’로 일컬어지면서 모든 문학과 역사의 과학

31) 이 논문에서 거론한 ‘민족형식’이라는 것은 1930~40년대에 전개된 민족형식논쟁에서의 ‘민족형식’과 다른 개념으로서, ‘양결합’이 대약진 시기 이후 중국의 당대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정치적·사상적·이론적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필자 나름의 정의임을 밝혀둔다. ‘양결합’은 대약진 이후 문화대혁명 종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문학예술에 있어서의 창작방법으로서 뿐 아니라 작가의 정치적 입장, 나아가 중국의 인민 모두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방향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민족형식’의 역할을 자임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2) <좌담회 기록 座谈会记录>, 《处女地》(1958.8)

적 개괄이자 중국문학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목표로 밝혀지고 있다. 나아가 이 글은 문학운동으로 전개될 ‘양결합’의 긴 운명을 미리 예언하고 있기도 하다. 井岩盾의 관점을 모택동주의자들의 노선에 투영시킨 것은 華夫였다. 그는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모멸과 왜곡을 막기 위해 투쟁을 했고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의 문학예술은 그에 상응하는 창작방법을 요구한다. ‘혁명적 현실주의와 혁명적 낭만주의의 양결합’ 창작방법은 공산주의 문학예술창조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혁명적 현실주의와 혁명적 낭만주의의 양결합 방법은 우리가 현실상황을 깊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공산주의 이상이 비추는 현실, 그리고 현실 속의 공산주의 이상과 추세를 보고 쓸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혁명적 낭만주의를 단지 예술상의 과장과 환상의 수법으로만 보고 그것의 의미를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찬성했고, 지금도 여전히 찬성한다. 사회주의 현실주의가 수정주의분자로부터 모욕과 왜곡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련의 투쟁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생활은 우리에게 더욱 진일보한 요구를 하여,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³³⁾

華夫는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수정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더 발전된 창작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양결합’을 공산주의 문학의 주류로 극상시키고 있다.

대약진운동이 실패로 끝나가고 있던 1959년 말부터 시작하여, ‘양결합’ 창작방법,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정의와 수용범위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논쟁들은 사회주의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이른바 “寫真實”의 문제에 봉착하고 진실을 그리되 미래에 대한 환상을 매개로 할 것을 요구하게 되면서 사회주의 현실주의와 본격적인 모순을 낳게 되었다. 그리하

33) 華夫, <문예가 위성을 쏘아올리다 文艺放出卫星来>, 《文艺报》18 (1958.9)

여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충실한 이들은 수정주의로 몰리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양결합’은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면서 사회주의 현실주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혁명이 아닌 경제적 생존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했던 당시의 사회현실, 그리고 중소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가고 있던 정치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그리는 것’은 위기에 처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이며,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여전히 고집하는 것은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다. 문예는 수정주의 비판에 열을 올리게 되고, 현실을 은폐하는 현실주의와 과장으로 덧칠된 낭만주의를 강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60년 1월 《文艺报》第一期에 사설 <모택동 사상으로 무장하여 문예의 더 큰 수확을 위해 분투하자 用毛泽东思想武装起来, 为争取文艺的更大丰收而奋斗>와 林默涵의 <모택동 문예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 올리자 更高地举起毛泽东文艺思想的旗帜>가 게재되면서 중국문예계는 수정주의 문예사상에 대한 비판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文艺报》의 사설을 보자.

모택동 문예사상은 맑스레닌주의 미학이 새로운 역사조건 하에서 체계적으로 구현된 것이자 맑스레닌주의 미학의 새로운 발전이다. …… 문예의 수정주의는 정치적 철학적 수정주의가 문학예술에 반영되어 나온 것으로서, 그것은 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자산계급의 인도주의, 인성론, 인류애 등 부패한 관점을 선양하여 계급의 한계를 모호하게 하고 계급투쟁을 반대한다. 관념론을 선양하고 유물론을 반대한다. 개인주의를 선양하고 집단주의를 반대한다. ‘진실을 그린다’는 명목으로 문학예술의 교육효과를 부정한다. ‘예술은 바로 정치’라는 쉼번으로 문예는 정치를 위해 복무함을 반대한다. ‘창작의 자유’라는 틀에 박힌 말로 당과 국가의 문예사업 영도를 반대한다.

사설은 일단 모택동사상을 맑스레닌주의의 우위에 올려놓고, 인도주

의와 개인주의 등을 모두 수정주의에 귀속시키고 있다. 작가란 모택동 사상의 일원적 지시에 따라 정치를 위한 집단주의를 실천해야 하는 존재이고, 삶의 진실을 그려내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은 反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林默涵은 “레닌은 문학예술은 반드시 당의 사업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공농대중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진정한 당의 문학예술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공농대중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레닌이 미처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 문제들을 철저히 해결한 것은 모택동 동지의 위대한 공헌이다.”라고 하면서 사설에 힘을 실어주었다.

‘양결합’의 필수조건으로 맑스레닌주의의 세계관을 내세웠던 중국의 지식인들은 이제, 중국과 소련의 대립구도를 ‘사회주의 대 수정주의’ 구도로 재구성함으로써, 소련의 역사적·문화적 경험을 모두 부정하고 중국을 수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주의권의 대안으로 내세워야 했던 것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수정주의 비판의 관건이 소련의 문학예술경향에 대한 반대 보다는 모택동주의에 반하는 국내의 이견에 더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설과 林默涵의 글과 함께 발표된 李何林的 <10년 간의 문학기론과 비평에 있어서의 작은 문제 十年来文学理论和批评上的一个小问题>는 “사상성과 예술성은 일치한다. 사상성의 高低는 작품이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고, ‘생활의 진실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는 또한 그 예술성의 高低를 보여준다.”³⁴⁾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상당기간동안 크고 작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어야 했다.

張光年是 《文艺报》1960年 第3期에 <이하림 동지에 대한 반박 驳李何林同志>이라는 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귀납할 수 있다. 사상성=진실성=예술성. 이것은 마치 ‘정치는 곧 예술’이라는 교조주의적 공식과도 같다. 하지만 반대로, ‘무예술성=무진실성=무사상성’으로

34) 《文艺报》1(1960.1)

말할 수도 있다. 이 또한 예술성=진실성=사상성이다. 이것은 ‘예술은 곧 정치’라는 수정주의 공식이다.”라고 李何林을 비판하였다.

명제와 명제간의 동일성에 기초한 이 글은 비판을 위한 비판임이 분명하다. 사상성과 진실성, 예술성을 같은 수준에서 거론하고 있는 李何林의 견해는 확실히 진실과 예술에 대한 사상, 곧 정치의 우위를 관철해야만 대약진 시기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택동주의자들의 기본관점을 뒤집는 것이었다.

논리의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논쟁과정에서 상호존중이 사라져버린 수정주의 비판은 곧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는데, 巴人の <인정을 논하다 论人情>³⁵⁾은 바로 이 같은 분위기를 위한 좋은 미끼였다. 王淑明의 <인정과 인성을 논하다 论人情与人性>³⁶⁾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정과 인성은 계급성·정치성과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적 인성만 존재할 뿐 초계급적 인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택동의 견해에 근거하여 1957년에 이미 反右의 대상으로 비판받은 바 있었지만, 1960년 1월 姚文元의 <巴人の “인성론” 비판 批判巴人的“人性论”>³⁷⁾라는 글이 발표되면서 巴人は 다시 한번 자산계급 인성론의 일인자로 낙인찍히게 된다. 1960년 6월 王淑明은 《文学评论》1960年 第3期에 <인성문제에 관한 필기 关于人性问题的笔记>를 발표하여 <인정과 인성을 논하다 论人情与人性>의 人性의 해석에 관한 보충설명을 가했지만 기본적인 관점에는 변화가 없었다. 사실 人性論의 관한 巴人이나 王淑明의 주장은 객관적인 사료에 입각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약진 시기의 매체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와는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대립적인 내용이었다.

인성론과 계급론의 대립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자산계급 문학이론을 비판하고, 수정주의문학과 모택동사상에 입각한 문학의 차이를 사회주의

35) 《新港》1(1957.1)
 36) 《新港》1(1957.1)
 37) 《文艺报》2(1960.1)

현실주의에 대한 ‘양결합’의 우월성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이 시기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反右 이전의 소재를 ‘양결합’의 문학사적인 당위를 위해 다시 동원하고 있는 중국문단의 노력은 二元對立을 실천함으로써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는 의도의 다른 이름이었다.

1960년 7월에 열린 中国文学艺术工作者第三次代表大会에서 周揚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길 我国社会主义文学艺术的道路>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대회주제보고를 하였다.

문예가 우리의 시대를 더욱 잘 반영하고, 광대한 노동인민을 위해 더욱 힘 있게 봉사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위대한 사업을 위해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 양결합의 예술방법을 제창한다. 이 예술방법의 제창은 맑스주의 문예이론에 대한 모택동 동지의 커다란 공헌이다. ……그는 혁명기개와 실사구시의 정신의 양결합 원칙을 문학예술에 적용하고, 문학예술 속의 현실주의와 낭만주의 이 두 예술방법을 변증법적으로 통일시켜, 우리 오늘날의 시대를 더욱 잘 표현하고, 문학예술유산의 모든 우수한 전통을 전면적으로 흡수하며, 작가 및 예술가 각자의 개성과 풍격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문학예술은 광활한 자유의 세상을 열게 되었다.³⁸⁾

더 이상의 극찬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양결합’ 창작방법의 지위를 격상시키고 있는 이 보고가 자연재해와 기아로 전국이 신음하던 1960년에 발표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대약진은 처참한 실패로 끝이 났지만, 그것과 함께 시작되었던 ‘양결합’은 그 공허한 현실 속을 눈먼 낭만주의로 버텨야만 한다는 비장함과 절실함이 묻어난다.

5. 결 론

38) 《人民日报》1960年 9月 4日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의 양결합’은 급진적인 사회주의화를 통한 정치적 결속과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처해 있던 1950년대 말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창작방법이다. 신민가운동과 동시에 제기된 ‘양결합’은 모든 문예종사자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으며 문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양결합’은 무엇보다 소련의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대체할 민족형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이것은 문학창작방법으로 일컬어졌지만, 실상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시대의 대안이었다. 작가로부터 평론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 독자들까지 현재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재평가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희망으로 은폐하며, 공산주의의 환상으로 미래를 꿈꾸어야 했던 ‘양결합’의 강제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주의의 제 기능을 상실한 혁명현실주의는 ‘양결합’에서 그 존재감을 처음부터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당대중국의 혁명현실주의란 현실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나 실천을 위한 방법모색이 전혀 없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공산주의의 맹아를 부풀려 현실 자체를 이미 성취된 미래로 판단하는 것이었으며, 혁명낭만주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먼 미래의 희망을 과장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지금의 현실로 끌고 들어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중국의 당대시단을 좌지우지한 ‘양결합’의 이념적 성격은 혁명낭만주의에 모든 방점이 찍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다음 과제는 80년대 이전까지의 중국당대시가사를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과장과 환상의 낭만주의적 성격, 나아가 지금의 중국을 규정하는 혁명낭만의 현재적 성격 등이 될 것이다.

[參考文獻]

- 毛泽东, 〈성도회의에서의 연설 요약 在成都会议上的讲话提纲〉, 《建国以来毛泽东文稿》第7册(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2)
- 日丹诺夫, 《苏联文学艺术问题》(北京: 人民文学出版社, 1959)

- 周扬, <신민가는 시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新民歌开拓了诗歌的新道路>, 《红旗》创刊号(1958.6)
- 郭沫若, <낭만주의와 현실주의 浪漫主义和现实主义>, 《红旗》3(1958.7)
- 袁水拍, <민가의 낭만주의 정신을 배우자 向民歌学习浪漫主义精神>, 《诗刊》(1958.5)
- 高歌今, <혁명적 현실주의와 낭만주의는 결합해야 한다 革命的现实主义和浪漫主义需要结合>, 《诗刊》(1958.7)
- 贺敬之, <시의 혁명낭만주의를 말하다 漫谈诗的革命浪漫主义>, 《文艺报》9(1958.5)
- 郭小川, <우리는 최강음이 필요하다 我们需要最强音>, 《文艺报》9(1958.5)
- 臧克家, <이상, 열정, 시의 理想, 热情, 诗意>, 《文艺报》9(1958.5)
- 安旗, <현실에서 출발하여 또한 현실보다 드높게 从现实出发而又高于现实>, 《文艺报》13(1958.7)
- 华夫, <문예가 위성을 쏘아올리다 文艺放出卫星来>, 《文艺报》18(1958.9)
- 邵荃麟, <文学十年历程>, 《文艺报》18(1958.9)
- 社论, <모택동 사상으로 무장하여 문예의 더 큰 수확을 위해 분투하자 用毛泽东思想武装起来, 为争取文艺的更大丰收而奋斗!>, 《文艺报》1(1960.1)
- 林默涵, <모택동 문예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 올리자 更高地举起毛泽东文艺思想的旗帜!(在一个学习会上的发言)>, 《文艺报》1(1960.1)
- 李何林, <10년 간의 문학기론과 비평에 있어서의 작은 문제 十年来文学理论和批评上的一个小问题>, 《文艺报》1(1960.1)
- 張光年, <이하림 동지에 대한 반박 驳李何林同志>, 《文艺报》3(1960.2)
- 姚文元, <巴人的 “인성론” 비판 批判巴人的“人性论”>, 《文艺报》2(1960.1)

- 巴人, <인정을 논하다 论人情>, 《新港》1(1957.1)
王淑明, <인정과 인성을 논하다 论人情与人性>, 《新港》1(1957.1)
王淑明, <인성문제에 관한 필기 关于人性问题的笔记>, 《文学评论》
3(1960.6)
邵荃麟, <홍기를 꽂고 백화를 피우다 插红旗, 放百花>, 《长江文艺》
(1958.7)
<座谈会纪录>, 《处女地》(1958.8)
茅盾, <혁명낭만주의에 관하여 关于革命浪漫主义>, 《处女地》(1958.8)
周揚, <우리나라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길 我国社会主义文学艺术的道路>,
《人民日报》1960年 9月 4日
毛澤東 지음/김승일 옮김, <연안 문예 좌담회에서의 강연>, 《모택동 선
집 3》(서울: 범우사, 2007)
伊東勉 지음/이현석 옮김,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서울: 세계, 1987)
성근제, <'양결합'의 사회적 배경과 이론사적 위치>, 《중국어문학논집》
9(1997. 8)

[中文摘要]

理想建立在客观、历史地考察现实的基础之上, 而创作方法必须把过去、现在、未来连接成一个紧密的整体, 把实践的必要性和可能性有机地统合在一起。根据现实需要, 重新整理过去到现在的过渡进程, 判断未来的发展走向, 这严重破坏了创作方法的主体性。根据现实需要重新评价过去, 是必不可少的一环。用现在的眼光来看, 过去被误读的部分当然是多不胜数。判断理想是否有可能实现, 同样必须取决于当前形势的需要。但是, 根据现实需要重新评价过去, 极易丧失过去的本来面目; 根据现实需要判断未来, 也极易催生出可能性压倒必然性的浪漫。在这种状况下, 创作方法发挥了帮助可能性战胜客观实际的作用。“两结合”也不例外, 之所以认为它更重要, 是因为它能证明在创作方法现实主义史上的优势, 以及在创作中的适宜性。正因为如此, 在重新评价中国文学史时, 浪漫主义和现实主义两结合的创作

方法雀屏中选, 而新民歌所取得的历史成果也被视作是在两结合中更重视革命浪漫主义的结果。

[한글요약]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의 양결합”은 급진적인 사회주의화를 통한 정치적 결속과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처해 있던 1950년대 말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창작방법이다. 신민가운동과 동시에 제기된 ‘양결합’은 모든 문예종사자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으며 문학의 수준을 가늠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양결합’은 무엇보다 소련의 사회주의 현실주의를 대체할 민족형식으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문학창작방법으로 일컬어졌지만, 실상은 어떤 안경을 쓰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시대의 대안이었다. 작가로부터 평론가,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 독자들까지 현재의 필요에 따라 과거를 재평가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희망으로 은폐하며, 공산주의의 환상으로 미래를 꿈꾸어야 했던 ‘양결합’의 강제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혁명현실주의와 혁명낭만주의의 결합은 기존의 동서진영간 대립구도를 소련 수정주의를 포괄하는 대립구도로 전환시키고, 사회주의 현실주의에 대한 민족형식의 우위를 통하여 黨性에 의한 미래의 이념화와 미래에 의한 현실 속의 박투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노선이었다.

關鍵詞 : 两结合, 创作方法, 革命浪漫主义, 社会主义现实主义, 民族形式

투고일: 2008. 10. 28.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중국의 IT산업 발전현황과 성장잠재력 연구*

서 창 배**

— <목 차> —

1. 序: 산업구조 고도화와 IT산업
2. 중국 IT산업의 발전 현황
3. 중국 IT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분석
4. 중국 IT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5. 結: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序: 산업구조 고도화와 IT산업

중국정부는 전반적인 기술력과 국내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 강국(Made by China)으로 도약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2007년 GDP 세계4위의 경제대국(經濟大國)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세계의 공장, 세계의 생산기지 등의 이미지에 머물러 있어 '중국산제품(Made in China) = 저가, 저기술 상품'으로 분류됨으로써 수출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중국정부는 현재 기술개발과 산업역량 증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IT산업을

* 본 논문은 대한중국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회(10.25. 진주산업대학교)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신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교수(rainmaker@silla.ac.kr)

중심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IT산업¹⁾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제품의 생산과 판매 규모가 이미 세계 선두권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관련 기초산업들에 대한 중요성 부각과 함께 발전 속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Haier(海爾), Lenovo(聯想), 창홍(長虹) 등 중국기업들의 국제적인 브랜드 이미지도 더욱 제고되어 <세계 500대 브랜드>²⁾ 조사에서 순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Lenovo는 IBM PC부문 인수와 더불어 국제적인 이미지를 크게 강화하였다.

중국과학원 컴퓨터연구소 리칭궈(李慶國) 소장도 2005년 5월 개최된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전략 포럼>에서 “향후 15년은 중국의 IT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이유로 리 소장은 “지난 1980~90년대는 후진국이 선진국의 수준을 뛰어넘기 어려웠으나, IT산업이 안정기에 진입한 지금은 중국이 후발주자로서의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다³⁾.

그러나, 중국 IT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서 볼 때 크게 낙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주요 IT 제품의 생산, 수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기술 확보 측면에서 볼 때, 이들 대부분을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 IT산업의 발전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들의 중요성도 매우 큰 상태이다.

1) 중국 IT산업은 크게 IT 제조업(H/W)부문과 소프트웨어(S/W)부문으로 구분된다. 그 중, IT 제조업은 통신설비, TV·라디오설비, 컴퓨터, 가정용 시청각설비, 전자기계 및 부품, 전자계측기, 전자공업전문설비 등을 포함하며, S/W부문은 S/W 개발과 서비스 업종을 포함하고 있음. 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 《2007中国工业发展报告》(北京: 经济管理出版社, 2007), p.304.

2) 노벨경제학상(1999) 수상자인 Robert Mundell이 대표로 있는 글로벌브랜드 연구실이 브랜드 시장개척, 시장점유율 및 이윤창출능력 등을 중심으로 <세계 500대 브랜드>의 순위를 평가하고 있음.

3) <新華網>(2005.5.24).

이에 중국정부는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하 '11.5 계획', 2006~10년)에서 소프트웨어, 집적회로 등 IT산업의 기술정책 개선과 첨단기술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과학기술인프라 구축과 산업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것임을 밝힌 바 있다. '11.5 계획'에서 중국정부는 특히 IT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인터넷 보급 확대,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을 IT산업의 주요 발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2006년부터 IT산업의 연평균 성장율을 20%로 유지하여 2010년 IT산업의 부가가치액을 2조 2,600억 위안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2억 명의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인터넷 보급율을 15%대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셋째, IT제품 제조업의 매출액과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업 규모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8~2010년 기간 동안 각각 40.16%~45%와 7.83%~10%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이다.

중국의 IT산업의 성장에 따라, 일본은 중국산제품의 수출 증가에 따른 일본수출시장의 잠식, 일본기업의 중국 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첨단기술부문의 경쟁력 상실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2년 이래 대중(對中) 투자의 증가와 함께 기업들의 중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에서 산업공동화와 함께 중국으로의 핵심기술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IT산업에 대한 평가는 외형적인 성장에 불과할 뿐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시각과 가까운 미래의 위협적인 요인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시각이 양분되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 IT산업에 대한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의 분석을 통해 현재의 발전현황과 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중국 IT산업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 등을 전망함으로써 그것이 한국경제 및 IT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중국 IT산업의 발전 현황

중국의 IT산업은 전체 공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IT산업이 중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중국 공업의 중심산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의 주요 IT제품들은 생산 및 매출 측면에서 세계 선두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전 세계 IT·전자제품의 총 생산 가치는 1조 2,760억 달러에 달하였는바, 그 중 중국은 전 세계 전자제품 생산량의 13.9%를 담당함으로써 미국, 일본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중국 신식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휴대폰 생산량은 전년 대비 58.2% 증가한 4.8억 대를 기록하였다. 소형컴퓨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9,336만 대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노트북 컴퓨터가 5,912만 대를 차지하였다. 집적회로는 336억 개를 생산하여 전년대비 26.3% 증가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현재 다수 IT 및 전자제품의 생산기지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미 자동제어(程控)교환기, 휴대폰, 컬러 TV, 컬러 모니터 등의 생산량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린터, CD-ROM 드라이버 등의 생산량은 세계 선두권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니터는 전 세계 총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휴대폰은 31%, 컬러 TV는 43%, DVD 플레이어 80%, 노트북컴퓨터는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IT산업의 전반적인 경제적 효율성은 아직까지 낙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노동생산성이 전체 공업평균 수준을 상회할 뿐 공업증가치율, 총자산기여율, 원가대비 이윤율 등은 모두 전체 공업 평균 수준보다 낮기 때문이다. 주요 업종 중에서는 통신설비제조업과 S/W산업의 경제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컴퓨터제조업과 IC

회로 제조업이 이제 겨우 이윤을 기록하거나 호전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전 세계 IT 산업구조에서 중국의 IT산업은 전반적으로 중, 저급 단계에 처해 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많은 전자제품은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고 자본집약형의 제품 또는 저기술의 노동집약형 제품이기 때문에 IT산업의 경제적 효과성은 아직까지 전통적인 산업보다 낮은 상태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중국 IT 제조업은 노동생산성이 전체 공업평균을 초과하는 외에 기타 지표에서는 전체 공업평균에 근접(자산대비 부채율, 유동자산회전율, 생산대비 매출비율)했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공업증가치 증가율, 총자산기여율, 원가대비 이윤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총자산기여율과 원가대비 이윤율은 2005년 전체 공업평균이 2000년과 비교하여 상승하였으나, 중국 IT 제조업의 이윤창출 역량은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표-1> 중국의 전체 공업과 IT 제조업부문간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IT 제조업		전체 공업	
	2000	2005	2000	2005
공업증가치 증가율 (%)	24.16	21.20↓	29.64	28.69↓
총자산기여도 비율 (%)	10.15	7.42↓	9.00	11.82↑
자산대비 부채 비율 (%)	59.75	62.72↑	60.81	57.81↓
유동자산 회전율 (次/年)	1.75	2.42↑	1.62	2.35↑
원가비용대비 이윤율 (%)	7.16	3.43↓	5.56	6.42↑
노동생산성 (위안/인·年)	92,931.63	130,156↑	45,679.39	104,680↑
생산대비 매출비율 (%)	97.82	97.81↓	97.67	98.14↑

주: 1. 2000년 대비 2005년 지표의 상승은 ↑, 하락은 ↓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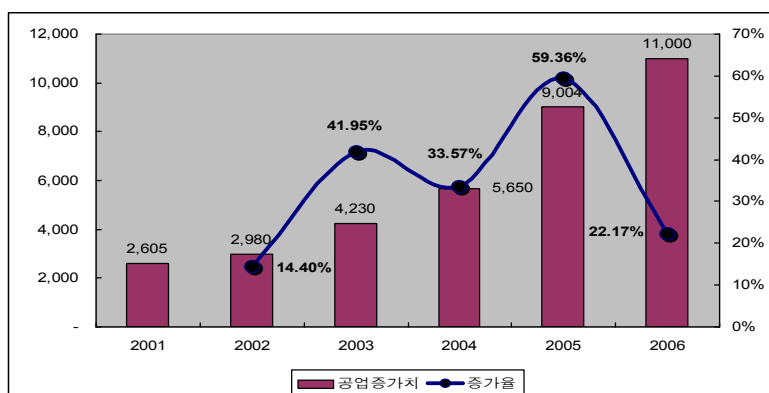
2. IT관련 지표는 전체 IT산업이 아닌 IT 제조업부문만을 의미함.

자료: 《中國統計年鑑》(2001; 2006).

중국의 IT산업의 발전추세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IT산업의 공업증가치(부가가치)는 2000년⁴⁾ 1,422억 위안에서 2006년 11,000억 위안으로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40.6%의 성장률을 기

특하였다. 규모이상⁵⁾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져 2000년 7.18%로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에는 7.93%를 기록하여 비철금속제련 및 압연가공업(8%)보다 다소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1 참조).

<그림-1> 중국 IT산업의 공업증가치 증가 추이 (2001~2006)
(단위: 억위안, %)



주 : <그림-1>의 IT 공업증가치 증가율은 IT 제조업(H/W)부문과 소프트웨어산업(S/W) 부문 모두를 합한 것으로서, IT 제조업부문만의 공업증가치를 의미하는 <표-1>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 《中國IT產業地圖 2007-2008》, p.11.

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59%에서 2006년 5.25%로 더욱 커졌다. IT산업의 공업증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⁶⁾~2002년 각각 1.59%, 2.72%, 2.84%로 2%대에 불과하였다.

4) 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 《2007中国工业发展报告: 工业发展效益现状与分析》(北京: 经济管理出版社, 2007), p.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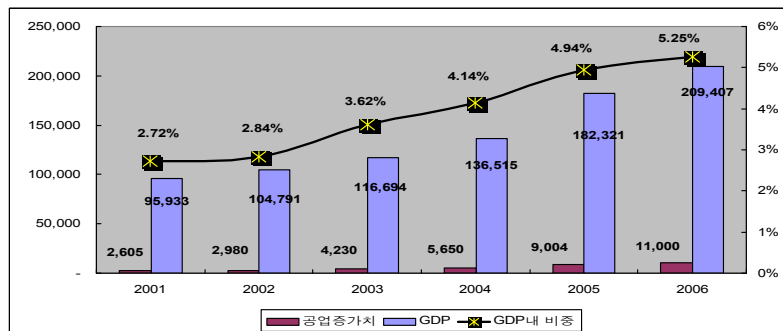
5)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규모이상 기업을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을 의미함.

6) 《2007中国工业发展报告: 工业发展效益现状与分析》, p.304.

그러나,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둬 2004년 4.14%의 비중을 차지해 4%대를 넘어선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2006년에는 5.25%를 차지하였다(그림-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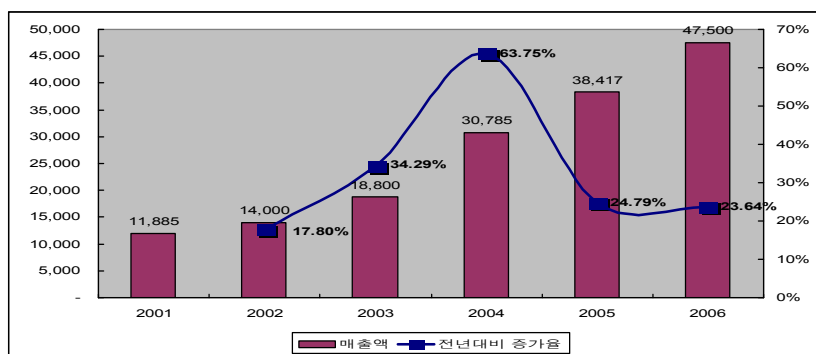
IT제품의 매출액도 크게 증가하였는바, 2000년 6,041억 위안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2006년에는 47,500억 위안으로 성장함으로써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표-2, 그림-3 참조). 그러나 매출액 증가율 측면에서는 2004년 전년대비 63.75%를 기록한 이후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6년에는 전년대비 23.64% 증가에 그쳤다.

<그림-2> 중국 I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이 (2001~2006)
(단위: 억 위안, %)



자료: 《中國IT產業地圖 2007-2008》,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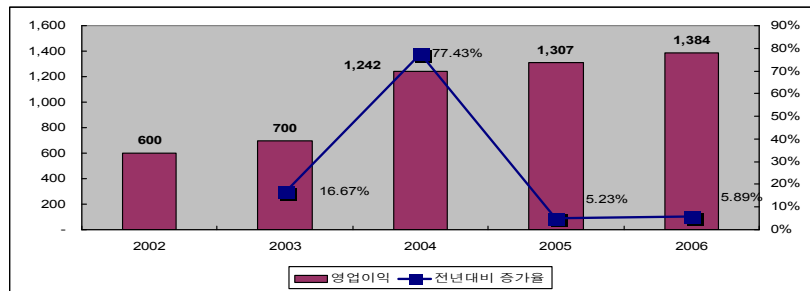
<그림-3> 중국 IT산업의 매출액 추이(2001~2006)
(단위: 억 위안, %)



자료: 《中國IT產業地圖 2007-2008》,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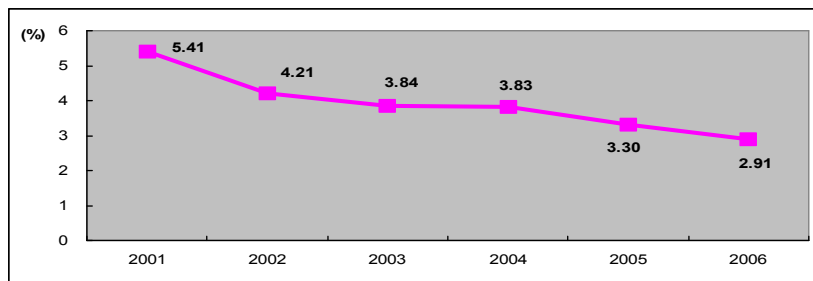
이러한 매출액 증가율 하락은 영업이익의 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IT산업은 2004년 1,242억 위안의 영업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전년대비 77.43% 증가하였으나, 이후 영업이익은 2005년 1,307억 위안, 2006년 1,384억 위안을 실현하는데 그쳐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하여 5.23%와 5.89% 증가하는데 그쳤다(그림-4 참조). 특히 최근 들어 영업이익운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바, 이윤율은 2001년 5.41%를 시작으로 2002년 4.21%, 2003년 3.84%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급기야 2006년에는 2.91% 대로 급격히 하락하였다(그림-5 참조).

<그림-4> 중국 IT산업의 영업이익 추이(2002~2006)
(단위: 억 위안)



자료: 《中國IT產業地圖 2007-2008》,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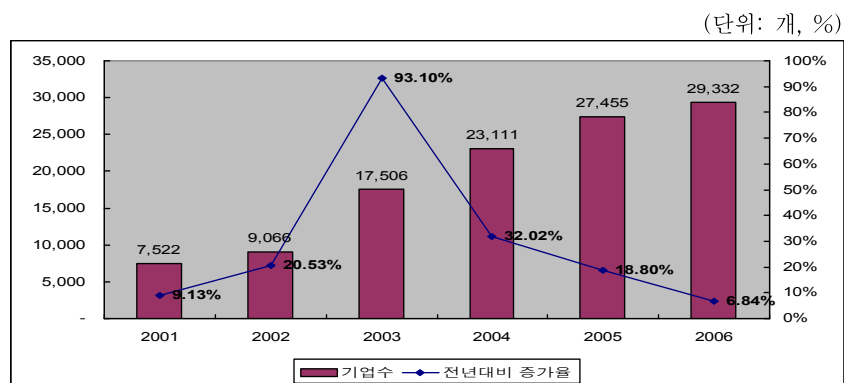
<그림-5> 중국 IT산업의 이윤율 추이(2001~2006)



자료: 《中國IT產業地圖 2007-2008》, p.11.

중국의 IT산업내 기업의 수는 2006년 현재 29,332개로 나타나 전년 대비 1,877개 기업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중, IT 제조업 기업의 수는 16,958개 사로 57.8%를 차지하였고, S/W 기업의 수는 12,374개 사로 42.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IT 관련 기업의 수가 2003년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2년 9,066개 기업에서 2003년 17,506개 기업으로 전년대비 93.1% 증가한 이후로 그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6년에는 전년대비 6.84%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그림-6 참조).

<그림-6> 중국의 규모이상 IT 기업의 수 추이(2001~2006)



자료: 《中國IT產業地圖 2007-2008》, p.12.

2006년 기준, 기업형태별 공업증가치 분포에서는 대기업 54%, 중기업 32%, 소기업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06년 적자기업들의 분포는 대기업 2%(40개), 중기업 17%(366개), 소기업 81%(1,723개)인 것으로 드러나, 중국 IT 대기업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IT기업들이 생산한 주요 품목으로는 2006년 기준으로 핸드폰 48,013.8만대를 비롯하여 소형컴퓨터 9,336.4만대, 컬러모니터 9,173.6만대, 디지털 카메라 6,695.1만대, 반도체 부품 2,224.7억개, IC회로 335.7억 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표-3> 2006년 중국의 IT 주요 제품 생산량

제품명	생산량	제품명	생산량
핸드폰	48,013.8만대	디지털카메라	6,695.1만대
소형 컴퓨터	9,336.4만대	전자부품	5,207.1억개
컬러모니터	9,173.6만대	프린터	4,640.3만대
컬러 TV	8,375.4만대	반도체부품	2,224.7억개
자동제어교환기	7,404.6만선	IC회로	335.7억개

자료: 《中國IT產業地圖 2007-2008》, p.10.

그러한 가운데,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높은 중국 국내기업들의 출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매출액 규모가 100억 위안 이상의 중국 국내 IT업체는 12개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20개로 증가하였다. 특히 하이얼(海爾), 화웨이(華爲), 중싱(中興) 등은 규모나 효율성 등에서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되었다. 하이얼은 2001년 602억 위안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 1,016억 위안을 기록함으로써 2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였다. 화웨이의 매출액은 2001년 162억 위안에서 2005년 315억 위안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중국의 전반적인 IT 시장이 동 기간 동안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기술력 우위를 통해 영업이익을 대폭 상승시킬 수 있었다. 화웨이와 중싱은 2001년 영업이익이 각각 26.5억 위안, 8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에는 각각 50.2억 위안과 14.2억 위안을 기록함으로써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IT산업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외자기업들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IT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그리고 수출 등 전 부분에 걸쳐 외자기업들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의 IT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이 아닌 외자기업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발전과정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IT산업 자체가 국제적인 산업 전이효과의 배경 하에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어찌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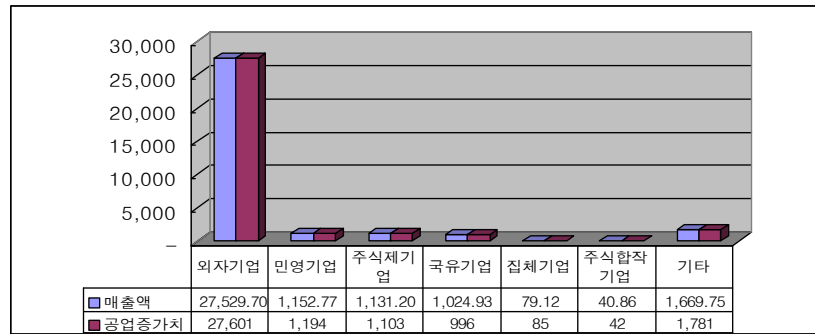
현재 세계 500대 다국적 IT기업들은 모두 중국에 투자한 상태이다. 특히 전 세계 100대 IT기업들 중 90%의 기업이 중국에 직접투자하고 있다. 이제 외자기업들은 중국 IT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제지표에서 기본적으로 7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중국 IT제조업의 전체 매출액은 3조 2,628.3억 위안이었는데, 그 중 국내기업의 비중은 15.6%에 불과했으며 외자기업이 84.4% (홍콩, 마카오, 대만기업 포함)를 차지함으로써 외자기업들에 대한 의존

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그림-7 참조). 이는 2005년과 비교하여 국내기업(22.5%)은 6.9% 포인트 감소한 것인 반면 외자기업(77.5%)은 6.9%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서, 외자기업 의존도가 더욱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른 이윤 총액 규모에서도 국내기업의 비중은 17.8%에 불과한 반면 외자기업은 82.2%를 차지하고 있다. 외자기업의 이윤도 갈수록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그림-8 참조). 공업증가치에 있어서도 외자기업의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 공업증가치 중 84.1%를 외자기업들이 차지한 반면 국내기업은 1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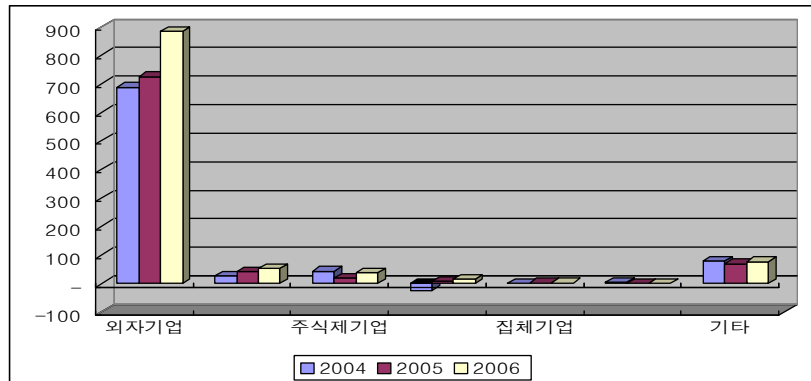
한편, 중국의 소프트웨어(S/W)산업은 IT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S/W산업은 뒤늦게 시작되었고 규모가 비교적 작아 현재 중국 IT산업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치고 있다. S/W관련 매출액은 2000년부터 연평균 43% 증가하여 2006년에는 4,800억 위안을 달성함으로써 IT 전체 매출액의 10.1%를 차지하였다. 2006년의 매출액 규모는 2000년과 비교하여 8.57배 증가한 것이다. 그 중, 국내 매출액은 3,60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1.4% 증가하였다.

<그림-7> 2006년 중국 IT 산업의 기업유형별 공업증가치 및 매출액 비교
(단위: 억 위안)



자료: 《中國IT產業地圖 2007-2008》, p.16.

<그림-8> 2006년 중국 IT산업의 기업유형별 이윤 총액 비교
(단위: 억 위안)



자료: 《中國IT產業地圖 2007-2008》, p.17.

그러나, 최근 S/W산업은 중국정부로부터 크게 중요시되고 있어 향후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2000년 이후 IC 회로와 S/W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S/W산업과 IC회로산업 발전 장려 정책》(2008), 《S/W산업 진흥 행동 강요(2002~2005)》(2002)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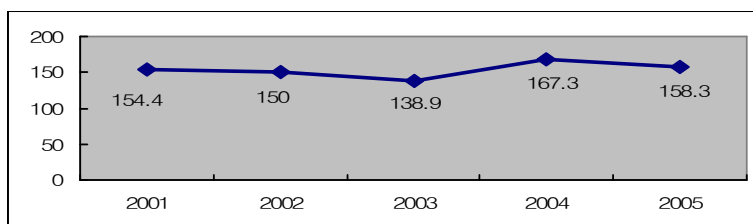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IT 산업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환발해(環渤海)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이미 세계적인 IT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으며, IT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1년 이들 3개 지역의 IT산업과 관련한 공업증가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전체 산업 비중에서 82.3%, 78% 및 62.9%를 각각 차지하였다. 2004년에는 이러한 수치들이 더욱 증가하여 각각 86.7%, 89.3% 및 88.7%를 기록하였다.

3. 중국 IT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분석

먼저, 중국 IT산업의 종합경제효율성지수이다. 2002~2004년까지 중국 IT산업 종합경제효율성지수는 3년 연속 하락하였다. 2001년 IT산업의 종합경제효율성지수는 154.4이었으나, 2002년과 2003년 각각 150과 138.9로 감소하였다. 2004년 들어, 종합경제효율성지수는 그동안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01년 수준을 넘어서는 167.3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5년 다시 158.3으로 하락하였는바, 특히 순수 국내 기업들의 지수는 148.7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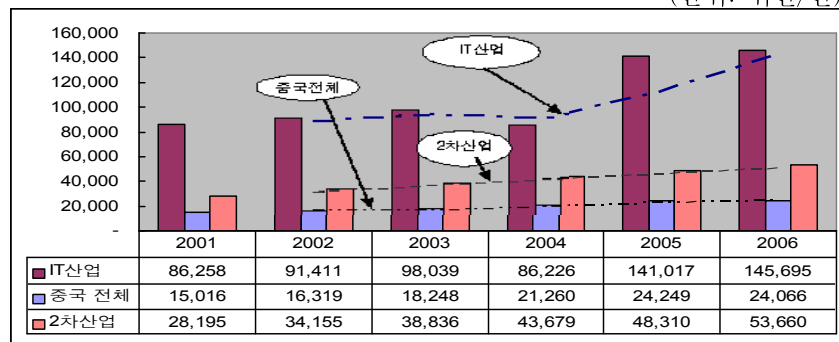
<그림-9> 중국 IT산업의 종합경제효율성지수 변화 추이



자료: 《中國信息產業年鑒: 電子卷》(2001~2007)

둘째, 중국 IT산업의 노동생산성⁷⁾이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 IT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반적으로는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며, 중국 전체 및 2차산업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큰 폭의 개선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완만한 상태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2001~2003년까지 매우 완만한 증가추세를 기록하던 중국 IT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04년에는 86,226위안/인에 그쳐, 전년대비 -12.0%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2005년 141,017위안/인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63.5% 증가하였으나, 2006년 들어 3.3% 증가에 그쳐 IT산업의 노동생산성이 큰 폭의 개선을 이루기까지는 아직까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그림-10,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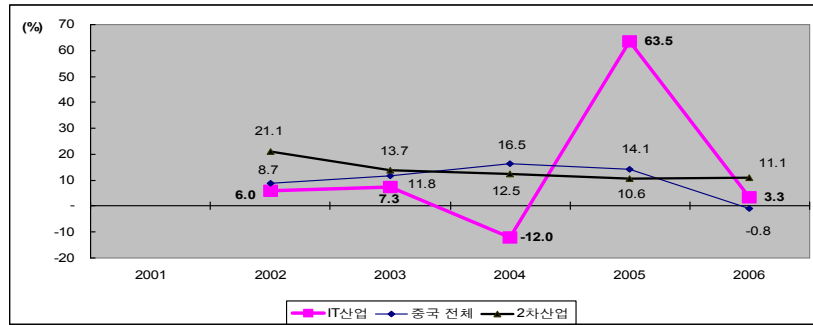
<그림-10> 중국의 전체 및 2차산업과 IT산업간의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위안/인)



주: 동 수치는 《中國統計年鑑》(2005~2007)과 《中國信息產業年鑒: 電子卷》(2005~2007)의 통계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직접 계산하여 작성한 것임(이하 <연구자> 작성으로 표기).

7) 동 연구에서는 중국 IT산업의 노동생산성을 직접 계산하였는바, 동 노동생산성은 V_i/L_i 로 정의되며, V_i 는 i 업종의 부가가치합계, L_i 는 i 업종의 노동투입량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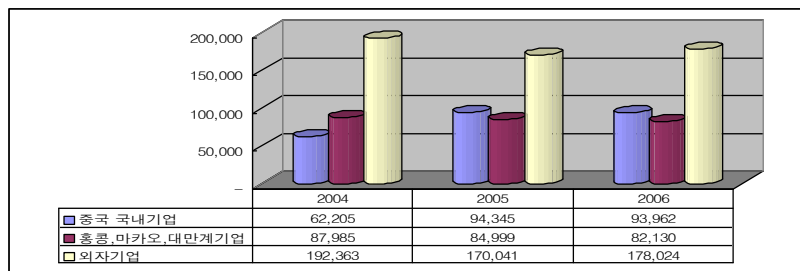
<표-11> 중국의 전체 및 2차산업과 IT산업간의 노동생산성증가를 비교



주: <연구자> 작성.

중국 IT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형태별 노동생산성에서는 홍콩, 마카오, 대만계 기업을 제외한 외자기업의 절대적인 노동생산성이 계속해서 국내기업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12 참조). 그러나, 2004~2006년 기간동안 외자기업의 노동생산성은 하락과 소폭의 상승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들은 2004년 62,205위안/인에서 2005년 94,345위안/인, 2006년 93,962위안/인을 나타냈음으로써 지속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내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홍콩, 마카오, 대만계기업들을 추월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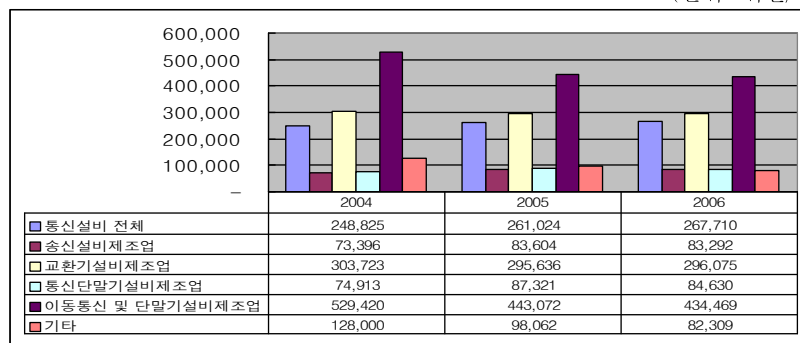
<그림-12> 2005년 중국 IT 기업형태별 노동생산성 비교



주: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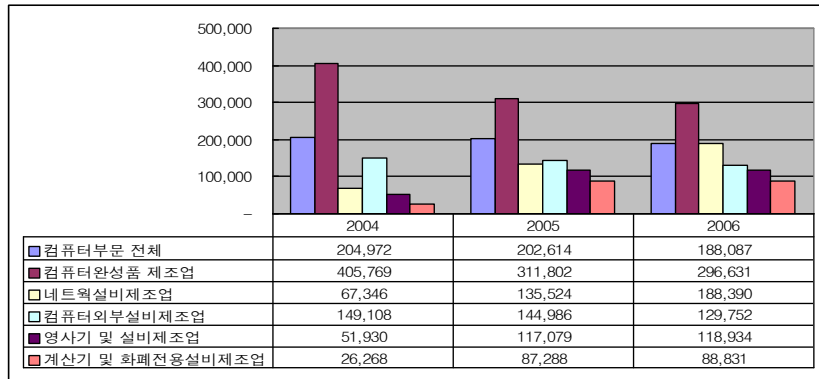
한편, IT 제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는 분야는 이동통신 및 단말기설비제조업으로서 다른 여타 분야보다도 매우 높은 43만 위안/인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등 통신설비제조업 분야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노동생산성을 기록하고 있다(그림-13 참조). 그러나, 2004년 529,420위안/인을 기록하던 이동통신 및 단말기설비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2005년과 2006년 각각 443,072위안/인과 434,469위안/인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설비제조업의 여타분야도 거의 비슷한 상태로 2004년이후 동일한 수준을 보이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있으며, 제조업체들의 생산 과잉상태에 따른 재고누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컴퓨터제조업 분야에서는 컴퓨터 완성품제조업 분야가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 분야에서도 네트워크설비제조업분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노동생산성이 감소하는 추세이다(그림-14 참조). 주요 전자부품제조업 분야에서도 노동생산성은 큰 증가추세 없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거나 동일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그림-15 참조).

<그림-13> 2005년 중국 통신설비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위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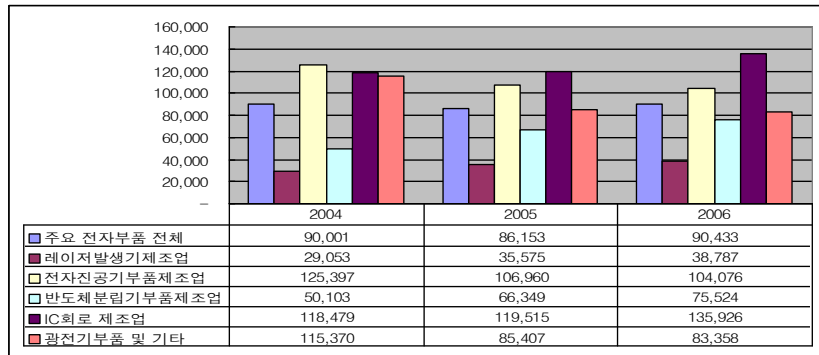
주: <연구자> 작성.

<그림-14> 2005년 컴퓨터 제조업부문의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위안/인)



주: <연구자> 작성.

<그림-15> 2005년 중국 주요 전자부품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
(단위: 위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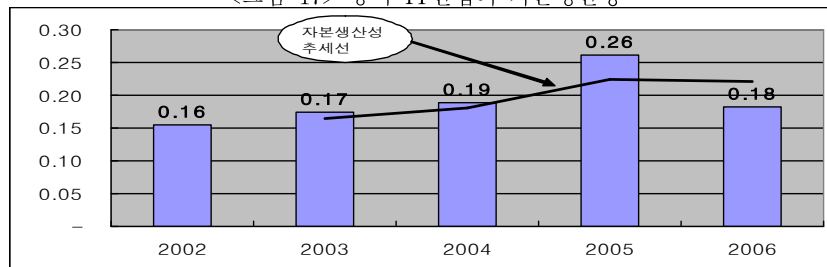
주: <연구자> 작성.

셋째, IT산업의 자본생산성이다⁸⁾. 중국 IT산업의 자본생산성은 전반

8) 동 연구에서는 중국 IT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자본생산성을 직접 계산하였음. 동 자본생산성은 $V/(A+L)$ 로 정의되며, V는 업종의 부가가치합계, A는 자산총액, L는 부채총액을 의미함. 다만, 보다 심

적으로 볼 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17 참조). 이를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동생산성과 마찬가지로 외자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04~2005년까지 0.22로 변화가 없던 IT 외자기업들의 자본생산성은 2006년 0.25로 크게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외자기업들의 자본생산성은 IT산업 전체의 자본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17> 중국 IT산업의 자본생산성



주: 단, 2006년은 1~11월까지임.

자료: 1. 《中國信息產業年鑑: 電子卷》(2005~2007)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한 것임(이하 <연구자> 작성으로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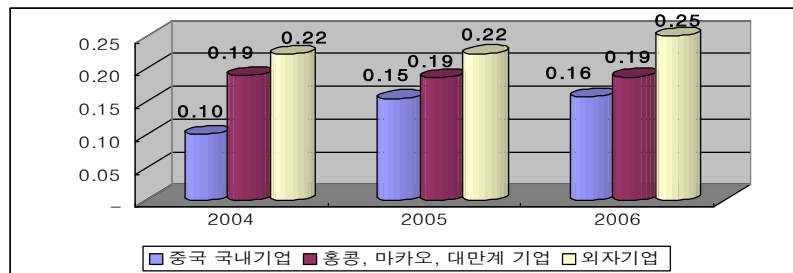
2. 단, 동 그림의 2006년은 중국신식산업부 웹사이트를 참조

또한, 중국 국내기업들도 서서히 상승을 시작해 2004년 0.10에 불과했던 자본생산성이 2005년 0.15로 급격히 상승했고, 2006년에는 0.16을 기록함으로써 홍콩, 마카오, 대만계 기업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어 조만간 그들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인에는 기술력 제고를 위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그에 따른 설비투자가 많이 향상된 것, 그리고 화웨이, 창홍 등 기술력 제고를 위한 업계 스스로의 노력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업계 전체

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총요소생산성(TFP) 등을 통해 다양한 요소들을 투입해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게 좋겠으나 IT산업의 범위가 중국내에서 명확하지 않고, 중국내 통계의 문제점 등으로 다소 한계가 있음을 밝힘.

의 자본생산성과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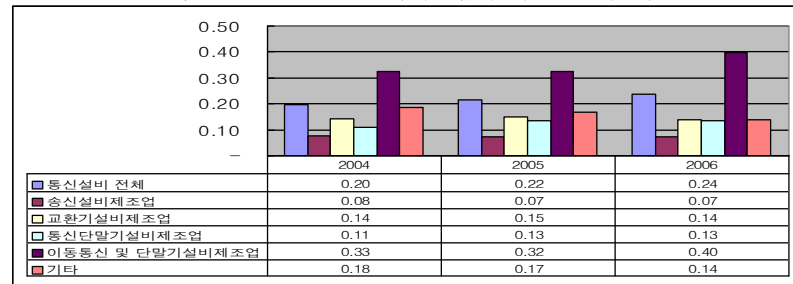
<그림-18> 중국 IT산업의 기업유형별 부가가치 자본생산성



주: <연구자> 작성.

IT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신설비제조업 분야가 노동생산성과 마찬가지로 자본생산성도 여타 IT산업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생산성 면에서도 업계 1위를 차지했던 이동통신 및 단말기설비제조업분야가 자본생산성에서도 2006년 0.40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동통신 및 단말기설비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이 업계평균은 물론이고 통신설비제조업분야의 평균적인 자본생산성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그림-1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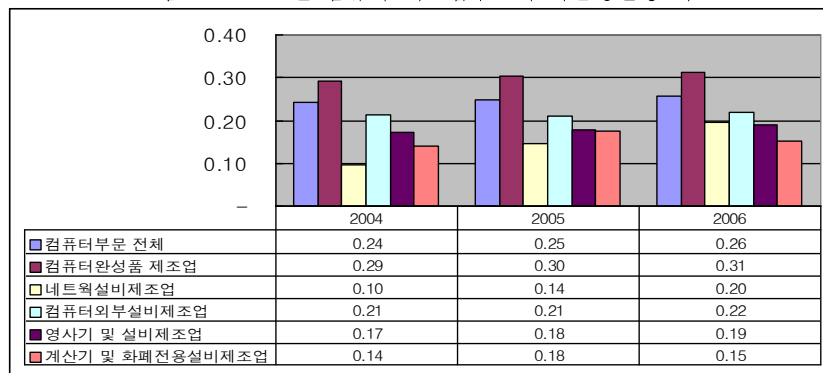
<그림-19> 중국 통신설비제조업의 자본생산성 비교



주: <연구자> 작성.

또한, 컴퓨터제조업 분야에서는 컴퓨터완성품제조업이 2006년 0.31을 기록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생산성에서 컴퓨터제조업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여주었던 네트워크설비제조업은 2004년 이후 급격한 자본생산성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컴퓨터제조업분야는 전체 IT산업보다도 대부분 높게 나오고 있고, 동 분야 평균과 대부분 근접해 있어 자본생산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림-2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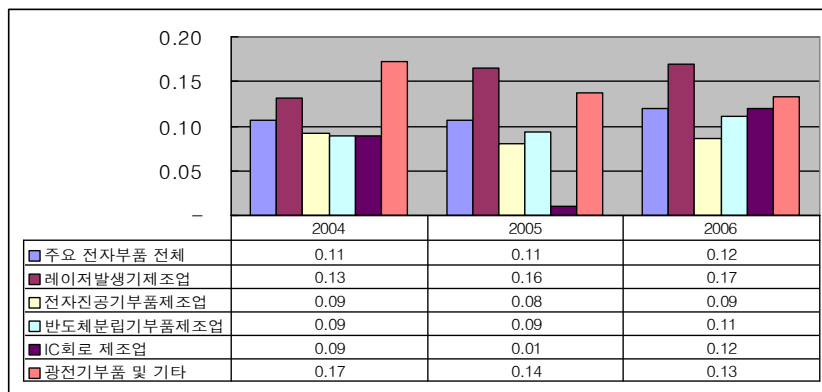
<그림-20> 2005년 컴퓨터 제조업부문의 자본생산성 비교



주: <연구자> 작성.

한편, 주요 전자부품제조업분야의 자본생산성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동 분야 평균(0.12)도 업계 전체 평균(0.18)보다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2005년에는 업계 전체 평균의 1/2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역특화지수에서 보았듯이 아직까지 중국 IT산업의 주요 부품분야는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도체, IC집적회로와 같은 핵심부품의 자본생산성은 매우 열악하게 나타났다(그림-21 참조).

<그림-21> 2005년 중국 주요 전자부품제조업의 자본생산성 비교



주: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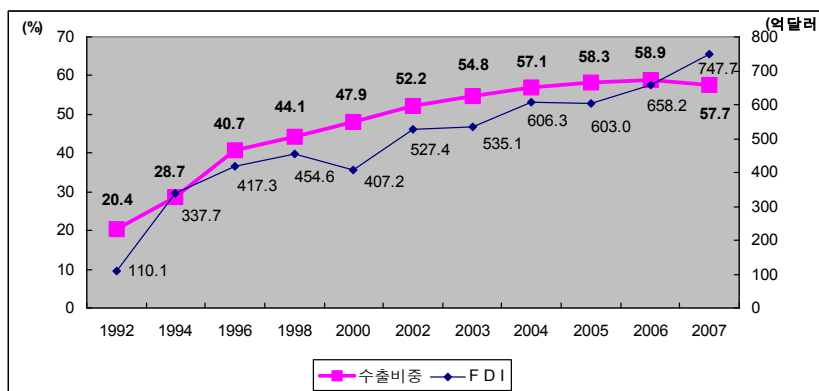
4. 중국 IT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잠재력

4.1. 수출경쟁력 비교

중국의 수출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은 외자기업의 비중이 중국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무역구조가 지닌 가장 두드러진 특징도 수출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외자기업이 중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28.7%에서 2002년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선 이후로 2005년 58.3%, 2006년 58.9%까지 크게 증가하였다⁹⁾(그림-23 참조). 특히 중국의 수출고도화를 선도하는 IT제품을 비롯한 첨단제품의 경우, 외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2003년 89.1%를 차지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¹⁰⁾.

9) 이는 1970년대에 비슷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었던 대만(20%)·한국(2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임.

<그림-23> 중국의 FDI와 외자기업의 수출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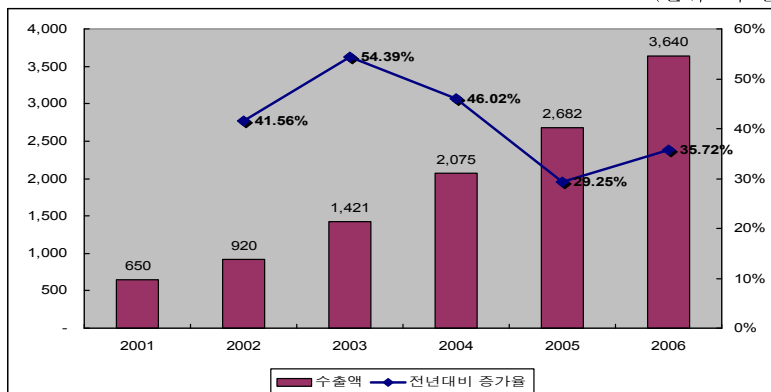
자료: 중국 상무부 Website 통계자료.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산 IT제품의 수출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0년 650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산 IT제품의 수출은 2003년 1,421억 달러로 처음으로 천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 후, 2004년 2,075억 달러, 2005년 2,682억 달러를 달성했고, 2006년에는 3,64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IT 수출 3,000억 달러 시대를 열게 되었다(그림-24 참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수출액이 연평균 25% 전후로 증가하였음과 비교할 때, IT제품의 수출이 연평균 37% 증가하였다는 것은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0년 22.1% 불과했던 IT제품 수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5%를 기록하였고, 2006년에는 37.6%로 더욱 높아졌으며 그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S/W의 수출규모는 2006년 36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28.6% 증가하여 전체 IT산업 수출에서 1.3%를 차지하였다. 2005년 중국 S/W 매출액이 전 세계 S/W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를 차지하였다.

10) 첨단산업의 생산에서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3.1%임.

<그림-24> 중국 IT산업의 수출 추이 (2001~2006)
(단위: 억 달러)



자료: 《中國IT產業地圖 2007-2008》, p.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IT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아직까지도 '저기술, 저가' 제품 등 부가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수출 방식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중국산 IT제품들은 그동안 대부분 가공무역방식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2002년 원료수입가공과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되는 IT제품은 전체 수출의 89.8%를 차지한 반면 일반무역방식으로 수출된 것은 겨우 7.7%에 불과했다. 2005년 들어서는 가공무역방식의 비중이 89.2%, 일반무역방식이 7.8%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가공무역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IT제품의 수출액이 2005년 2,682억 달러를 기록하며 산업별 수출 실적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는 하나, 관련 제품의 기술력이 매우 낮고 질적인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음은 중국 IT산업이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더욱이 그 대부분도 순수 국내기업보다는 외자기업들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 IT수출의 한계점을 알 수 있다. 2005년 중국의 IT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도 외자기업들의 비중은 더욱 커 무려 93.1%(홍콩, 마카오, 대만기업 포함)를 차지한 반면, 국내기업의 비중은 6.91%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났다¹¹⁾.

또한, IT산업의 핵심적인 기초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집적회로, 소프트웨어와 핵심부품 등에서의 국내기업들의 역량은 더욱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80%의 집적회로와 대다수 관련 부품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제어 S/W와 관련제품의 대부분이 모두 수입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의 생산역량과 생산량이 매우 큰 전자제품의 대다수는 부가가치와 기술 함량이 낮은 제품으로서, 중국은 전 세계 IT제품 가치구조에서 여전히 중·저급 위치에 머물러 있다. 비록 제품의 매출규모는 크다고 하나, 매출에 따른 이익은 매출액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IT산업은 최종재에서는 수출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핵심부품은 여전히 수입대체기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산업에서 중국의 수입대체가 빨라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업종별로는 컴퓨터 완성품의 수출산업화가 가속화하고 있으며, 컴퓨터 부품도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반도체와 전자통신기기부품 등 하이테크부품의 경우 아직까지 저조한 중국내 자금도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외자기업, 가공무역방식 및 수입 원·부자재에 크게 의존한 수출전략은 국내기업, 특히 국유기업의 기술개발(R&D) 투자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와 기술개발보다는 선진제품의 단순한 수입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이후 지난 20여년간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외국인직접투자(FDI)¹²⁾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세

11) 한편, 증치세(부가가치세) 납부에서는 외자기업들은 대부분 세수우대정책을 받고 있어 국내기업보다 훨씬 낮은 세수부담을 안고 있음. 2005년 중국 IT제조업의 증치세 총액은 331.7억 위안이었으며, 그 중 국내기업이 55.39%를 차지하여 외자기업의 44.61%(홍콩, 마카오, 대만기업의 14.7% 포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6년 2월말 8,537억 달러를 기록,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8년 9월말 현재 1조 9,056억 달

계의 공장”으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전략은 국내기업들의 기술개발 저해, 브랜드 창출능력 약화, 주도적 경제운용에 대한 장애요인 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도 「2005년 중국내 다국적기업 보고」를 통해 ‘FDI의 대량 유입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기업들의 기술 수준의 질적 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함으로써 FDI를 통한 기술획득 전략이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산업발전단계 중 성숙기에 진입한 업종에 대해 가공무역을 제한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2006년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전년대비 10.0% 포인트 감소한 16.9%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가공무역방식의 수입도 전년대비 8.2% 포인트 감소한 15.4% 증가에 그쳤다. 더욱이, 2004년 3/4분기 이후 중국의 부품·소재 수입증가율이 최종재 수출 증가율을 하회하는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중국 수출의 수입의존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부품·소재 자급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2. 생산성 경쟁력 비교

중국 IT산업에서 비교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이동통신장비, 이동통신 단말기(GSM/CDMA) 등 주요 IT제품의 경쟁력을 생산성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¹³⁾.

먼저, 이동통신장비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통신설비제조업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이 평균적으로 우수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선진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이전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저임금 노동력과 대량생산체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력

리를 기록하고 있음.

13) 본고는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한국전자부품연구원(2006)이 발표한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중국과 IT선진국 및 한국간의 IT산업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힘.

제고보다는 생산위주의 산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취약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생산력측면에서의 경쟁력에서는 이미 미국, 한국과 대등한 경쟁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4 참조).

<표-4> 이동통신장비의 산업경쟁력 비교

	선진국 (미국)	한국			중국		
		2005	2007	2010	2005	2007	2010
가격경쟁력	100	101	101	101	104	103	102
품질경쟁력	100	98	99	100	97	98	100
생산경쟁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설비경쟁력	100	100	100	100	100	100	102
조직경쟁력	100	98	99	100	96	98	100
서비스경쟁력	100	98	99	100	98	99	100
종합	100	99	100	100	99	100	101

주: 2점에 1년 차이의 격차로 평가(이하 동일).

자료: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2006.

둘째, GSM/CDMA 등 이동통신단말기이다. 이 분야는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 모두에서 전체 IT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분야로서, 중국이 비교적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저임금 노동력과 대량생산체제의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13억 5천만명에 이르는 대량 소비시장 등을 보유하였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경제의 급성장에 따른 구매력도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국가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산위주의 산업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반면 기술개발 역량이 낮아 대부분 원천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측면 등이 경쟁력 제고를 어렵게 만든다고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급격한 임금 상승 혹은 숙련공이나 중/고급 기술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점들은 향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생산력 측면에서 중국은 GSM분야에서 한국과 2년 정도의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며, 오는 2010년이 되면 거의 대등한 상태로 진입할 것

으로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관련제품의 선진국인 핀란드와는 2.5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DMA분야는 생산력 측면에서 이미 우리와 대등한 관계로 올라섰으며, GSM의 경우에도 오는 2010년이 되면 한국과는 격차가 크게 줄어 1년 미만의 경쟁력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표-5, 표-6 참조).

<표-5> GSM 단말기 분야 선진국, 한국, 중국의 산업경쟁력 비교

산업경쟁력	선진국 (핀란드)	한 국			중 국		
		2005	2007	2010	2005	2007	2010
가격경쟁력	100	100	100	100	99	99	100
품질경쟁력	100	99	99	100	94	99	100
생산경쟁력	100	98	99	99	94	95	97
기계설치경쟁력	100	100	100	100	95	99	100
조직 및 인력수준	100	99	99	99	94	95	96
중합	100	99	99	100	96	97	98

자료: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2006.

<표-6> CDMA 단말기 분야 선진국, 한국, 중국의 산업경쟁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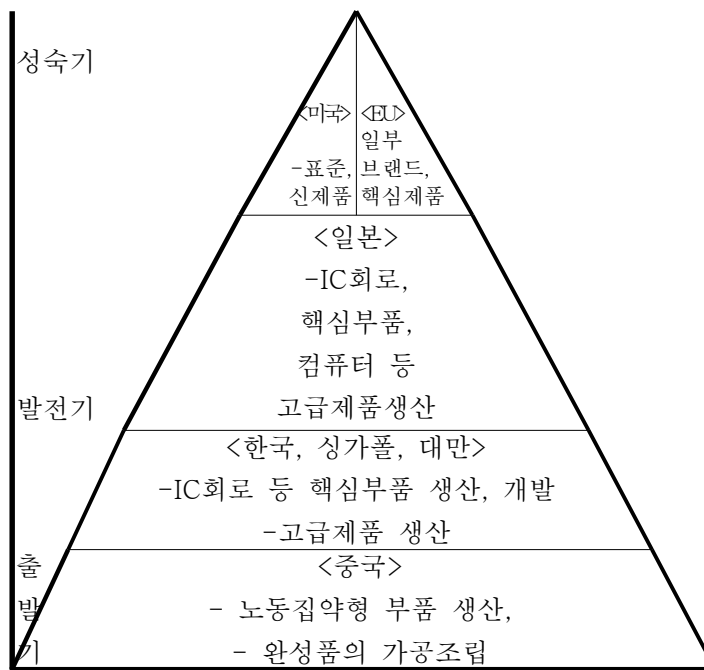
산업경쟁력	선진국 (미국)	한 국			중 국		
		2005	2007	2010	2005	2007	2010
가격경쟁력	100	100	99	100	101	100	100
품질경쟁력	100	100	101	101	97	99	99
생산경쟁력	100	100	100	100	98	99	100
기계설치경쟁력	100	99	100	100	98	99	100
인적경쟁력	100	101	101	101	97	99	99
중합	100	100	100	101	98	99	100

자료: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2006.

4.3. 성장잠재력¹⁴⁾

14) 본고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은 중국의 IT산업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장가능성을 의미함. 즉, 자본과 노동력 외에 최근 중국정부가 저우추취(走出去)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인수·합병(M&A), R&D비용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어 첨단기술력 확보 및 IT산업의 기술진보 속도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IT산업의 성장잠재력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IT산업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성숙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에서도 그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고 있고, 커다란 증가나 성장세보다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현재까지 IT 선진국에 비해 핵심기술력,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 많은 부분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의 다수 IT산업에 위치해 있는 점들도 국내기업들의 위상을 크게 위축시키는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중국내 업계의 반응이다.



<그림-25> 전세계 IT제조업분야에서의 중국의 경쟁력과 위상
 자료: 《中國IT産業地圖2007~2008》,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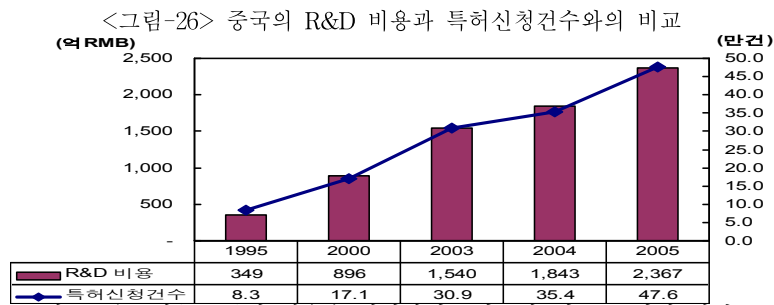
그러나,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화웨이, 하이얼, 창홍 등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11.5 계획'이 마무리되는 2010년 이후에는 중국 IT산업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어 IT 선진국들과 대등한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중국정부가 향후 R&D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 M&A 등 적극적인 해외투자(走出去)를 통한 선진기술의 중국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향후 R&D부문의 재정지출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등 중장기 과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아직까지 R&D 비용에 대한 투자가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긴 하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중국내 특허(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 포함) 신청건수의 증가로도 이어져, 2005년 특허신청건수는 총 476,264건으로 전년대비 34.6% 증가, 사상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도표-2 참조). 또한, 2006년 2월 발표된 《국가 중장기과학기술발전계획 강요 2006~2020》(國家中長期科技和技術開發規劃綱要 2006-2020年)에 따르면, 향후 R&D 촉진을 위해 2010년 3,600억 RMB, 2020년 9,000억 RMB를 투입함으로써 2004년 1.35%에 불과했던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을 각각 2%, 2.5%까지 높일 계획이다¹⁵⁾. 더욱이 중국정부는 국방관련 연구의 민간연구기관 위탁, 군 조달사업에 대한 민간연구기관 및 기업의 참여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미국식 민·군 결합을 통한 국방과학체계의 변혁은 선진과학기술로의 도약¹⁶⁾은 물론이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04년 현재 15개에 불과한

15) 은종학, <중국의 기술추격전략 변화: 배경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7호(2006.3.17, [Online] <http://www.kiep.go.kr>), p.4.

16) 중국은 2003년 세계 3번째로 유인우주선(선저우(神舟) 5호) 발사에 성공하였고 2005년 5차례의 위성발사 성공,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6호의 성공적인 발사, 독자기술의 자기부상열차 개발 등 일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

세계 500대 기업에 진입한 중국기업의 수를 2015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M&A 등 적극적인 해외투자정책 추진을 통한 선진기술의 중국화(走出去)로 인해 중국의 IT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FDI를 통한 선진기술의 중국으로의 이전계획(引進來)이 실패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해외투자정책(走出去)을 추진, 중국기업의 체질 개선 및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해외 M&A방식이 중국기업의 새로운 해외투자방식으로 등장하였는데, UNCTAD에 따르면 2003년 중국기업의 M&A는 16.5억 달러로서 2002년(10.5억 달러) 대비 57.3% 증가하였다. 2003년 M&A 투자액은 중국의 총 해외투자(18억 달러)¹⁷⁾에서 91.5%를 차지함으로써, M&A 투자방식에 대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중국기업의 주요 M&A 대상기업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는 이들 기업을 인수하여 단기간내에 선진국 시장을 개척하고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중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17) 2004년 중국의 해외투자액은 37.1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1998년에 비해 14배 성장함.

〈표-7〉 중국기업의 주요 M&A 사례 (2002~2005)

시기	인수 내용
2002.01	CNOOC사, 인니 Repsol-YTF 인수 ; 6억불
2002.09	TCL사, 독일 슈레이더(Schneider Electronics AG) 인수 ; 820만 유로
2003.02	BOE(京东方)사, 한국 Hydis인수(TFT-LCD분야) ; 1.5억불
2003.06	더롱(得龙国际战略投资有限公司,D'Long)사, 독일 Fairchild-Dornier의 728형 신형 여객기 제조 프로젝트 인수(중국의 제조기술 15년 축소)
2003.07	싼지우(三九)그룹-일본 동아제약 인수 ; 싘지우는 동아제약의 기존 유통채널을 사용하여 일본의 의약시장을 공략할 예정
2003.11	TCL사, 톰슨사 지분인수 ; TCL사와 톰슨사는 컬러TV와 DVD 자산 및 업무를 합병하여 자산가치 4.5억 유로화에 달하는 합자회사 설립 (TCL은 신규 합자회사 지분 67%, Thomson사는 33% 소유)
2003.11	더롱사, 미국 Murray그룹 인수 ; 3년간 8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 100% 인수에 대한 비준 획득 (세계 원예기계 제3대 브랜드)
2004.04	TCL사, 알카텔 휴대폰 업무 인수 ; 휴대폰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생산·마케팅 합자회사 설립. 동 합자회사는 알카텔 브랜드의 휴대폰을 전세계에 독점 마케팅, 유통
2004.08	중국항유(中国航油), 싱가포르 석유공사 20.6% 지분 인수 ; 싱가포르 석유공사의 2대 주주가 됨
2004.10	상하이기차 그룹, 쌍용자동차 인수 : 쌍용 주식 48.9%를 인수(총가치 5억 달러 초과)하여 쌍용자동차의 최대 주주가 됨. 중국 자동차업계에서 최대 해외인수 프로젝트로 평가
2004.12	레노보사, IBM PC 인수 ; 레노보는 6.5억달러와 6억달러의 달러주식으로 Think 브랜드를 포함한 PC부문 인수. IBM은 18.5%의 레노보 주식을 보유하고 레노보는 IBM그룹의 45%의 지분보유. 레노보는 5년내 IBM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 이로써 레노보는 델, HP 다음의 제3대 PC 제조기업으로 등극
2004.12	上海盛大, 한국 엑토즈 소프트사 인수 ;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盛大는 9,170만 달러로 한국 엑토즈 소프트사 주식의 29%를 인수
2005.06	중국 SBSG그룹, Durkopp Adler 지분 94.9% 인수
-	하이얼그룹의 미국 가전업체 Maytag(13억불), CNOOC의 미국 석유회사 Unocal(185억불), SINOPEC의 캐나다 석유회사 페트로카즈(시가총액 25억불), 中信資源의 태국 석유회사 TPI(9억불) 인수 등 추진중

자료: 《中國并購報告 2004》, 언론 및 인터넷 자료(www.online-ma.com) 종합; 주중한국대사관 Website(http://www.koreaemb.org.cn)에서 재인용.

최근 중국기업이 체결한 주요 M&A 사례로는 2003년 BOE(京東方)의 Hydis 인수, TCL(Today China Lion)사의 톰슨사 지분인수, D'Long사의 독일 Fairchild-Dornier의 프로젝트 인수, 2004년 상해기차(上海汽車)의 쌍용자동차 인수, Lenovo(聯想)사의 IBM PC부문 인수 등이 있다(표-7 참조). 특히 중국은 D'Long사의 독일 Fairchild-Dornier의 728형 신형 여객기제조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의 여객기 제조기술을 15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낳았고, Lenovo사는 IBM PC부문 인수로 세계 3대 PC 제조업체가 되었다. 이처럼 중국은 해외 M&A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선진화된 기술, 경영기법 및 인력 등을 확보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앞당기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기간내 브랜드 확보와 시장개척이라는 무형의 자산도 배가시키고 있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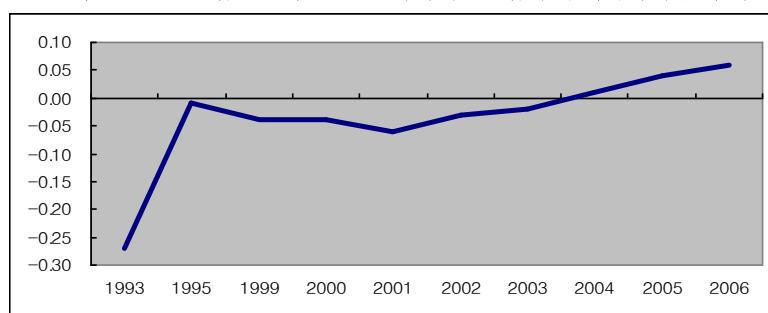
또한, 중국 첨단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최근 들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중국 IT산업의 성장가능성을 크게 평가할 수 있다. 기술수준별¹⁹⁾ 무역특화지수의 경우, IT 제품군은 하이테크산업으로 분류되어 중국의 IT산업은 2004년부터 수입대체기를 벗어나 수출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였다(그림-27 참조). 업종별 무역특화지수의 경우에 있어서도 컴퓨터부품, 가전 등은 1990년대 중반부터 수출산업으로 전환된 이후 수출특화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부품도 2003년 이후 수출기로 전환되었다. 또한, 반도체를 제외한 기타 전자부품은 수입대체 말

18)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이 글로벌 경영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실제로 TCL의 Alcatel 인수 실패(2005.5), 아태지역 PC판매 1위를 고수하던 Lenovo(聯想)의 IBM PC부문 인수후 시장점유율 하락 등 대형 외국기업을 M&A한 중국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음.

19) 기술수준별 산업 분류에서는 OECD의 분류기준을 따름. OECD는 22개 제조업을 제품군별로 기술집약도지수(R&D 지출/부가가치)에 따라 제품군을 저위기술(low tech), 중저위기술(medium low tech), 중고위기술(medium high tech), 고위기술(high tech)의 4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그 중, 고위기술 산업에는 항공, 우주,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통신, 의약품이 포함됨. 양평섭,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27호(2007.6.15), p.6에서 재인용.

기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수입대체 초기에 위치해 있으나, 반도체를 제외한 전자부품의 경우는 수입대체 말기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놓고 볼 때,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수입대체 속도가 빨라지고 수출산업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11> IT산업을 포함한 중국하이테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추이



자료: 양평섭(2007), p.6.

5. 結: 향후 전망 및 시사점

IT산업은 이미 중국의 중심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동안의 급성장을 통해 이미 매우 큰 규모의 산업이 된 것이다. 기술의 진보와 시장경쟁은 끊임없는 제품의 가격 인하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각 분야별 정보화가 더욱 낮은 가격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반 소비자들도 더욱 낮은 가격으로 IT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IT산업이 전세계 산업연관구조에서 처한 중하위의 위상과 낮은 산업부가가치로 인해 경제적 효과성은 그 규모의 확대와 같이 동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IT 산업의 건강한 발달과 질적인

성장,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 중국 IT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점일 것이다. 이에 중국정부도 '11.5규획' 기간 동안 IT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이 IT산업에서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우위를 확고히 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자기업이 주도하는 중국의 경제구조 및 IT산업구조가 대내적인 고용 창출, 중국산제품의 세계시장점유율 제고 및 수출제품의 고도화를 촉진하였다. 반면에 중국경제를 노동집약적 가공기지로 전략시켜 중국 국내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육성에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의 리우루이(劉瑞) 교수도 중국이 향후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낙후된 기술문제의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리우 교수는 중국이 자체적인 기술축적에 실패할 경우, 생산기술부문에서 다른 기술대국들의 그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M&A를 통한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 R&D 투자비용의 빠른 증가,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증가율,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 등은 중국의 IT 기술역량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중국에 대한 지나친 과소평가도 금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의 위협요인이라기보다는 미래의 위협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 서창배, <중국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성장잠재력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국제세미나(중국 북경) 논문집》(2007.7.26)
 양평섭, <무역특화지수로 본 중국의 산업발전단계 변화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27호(2007.6.15)
 은종학, <중국의 기술추격전략 변화: 배경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

- 계경제》 제06-07호(2006.3.17), [Online] <http://www.kiep.go.kr>
- 지만수 외,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기업성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 위협의 재평가》(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한국전자부품연구원(KETI), <중국 산업 및 산업기술경쟁력 정보구축: 이동통신 산업 분야>(2006.3.2)
- _____, <중국 산업 및 산업기술경쟁력 정보구축: 이동통신장비>(2006.3.2)
- 홍유수,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현황과 향후 전략: 지식연계를 중심으로》(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Displaybank, <중국 TFT-LCD 산업 경쟁력 분석>(2006.3.4)
- 国务院信息化工作办公室政策规划组 编, 《国家信息化发展战略: 学习读本》(北京: 电子工业出版社, 2007)
- 发改委高技术产业司 外 编著, 《中国高技术产业化进展报告2005-2006》(北京: 化学工业出版社, 2006)
- 全球并购研究中心 编著, 《中国产业地图》(北京: 中国经济出版社, 2007)
- 中国企业联合会, 《中国企业发展报告》(北京: 企业管理出版社, 2007)
- 中国信息产业部 Website [Online] <http://www.mii.gov.cn>
- 中国统计局 Website [Online] <http://www.stats.gov.cn>
- 中国社会科学院工业经济研究所, 《2006中国工业发展报告: 工业发展效益现状与分析》(北京: 经济管理出版社, 2006)
- _____, 《2007中国工业发展报告: 工业发展效益现状与分析》(北京: 经济管理出版社, 2007)
- 中国产业地图编委会外 编, 《中国产业地图 2005-2006》(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5)
- _____, 《中国IT产业地图 2006-2007》(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 _____, 《中国IT产业地图 2007-2008》(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7)
- 中国高新技术产业发展年鉴编辑会 编, 《2006中国高新技术产业发展年

鉴》(北京: 北京理工大学出版社, 2006)

国家统计局人口和就业统计司·劳动和社会保障部规划财务司 编. 《中国劳动统计年鉴》(北京:中国统计出版社. 2005; 2006; 2007)

中国信息产业部 编, 《中国信息产业年鉴: 电子卷》(北京: 中国年鉴网, 2005; 2006; 2007)

中国国家统计局 编, 《中国统计年鉴》(北京: 中国统计出版社, 2005; 2006; 2007)

中国国家统计局 编, 《中国统计摘要》(北京: 中国统计出版社, 2005; 2006; 2007)

[中文摘要]

目前IT产业已逐渐成为中国的中心产业。通过近几年的急速增长, 已经成为颇具规模的产业。产业技术的进步以及激烈的市场竞争导致IT产业的价格下降, 因此实现了各部门以更低的成本来实现信息化, 普通消费者也可以更低的价钱来购买IT产品。

但是在全球产业价值链中, 中国的电子信息产业总体上处于中低端, 而且中国生产的很多电子产品都是附加值较低的产品, 因此经济效益没有出现其规模的扩大相匹配的增长。因此, 电子信息产业的健全的发展和质的增长、以及提高经济效益成为中国电子信息产业面临的最迫切的问题。为此, 中国政府也在“十一五规划”期间, 努力做好电子信息产业的质的增长。

尽管如此, 总体上来看中国的电子信息产业实现产业结构升级和提高竞争优势还需要一段时间。外资企业在中国电子信息产业中所占主导地位以及电子信息产业实现的大量就业人口, 提高了中国电子产品在世界市场中所占的份额以及促进了出口产品的产业升级。另一方面, 也使中国成为劳动密集型的加工基地, 不利于中国国内企业培育长期的发展潜力。

中国人民大学的刘瑞教授曾经指出, 中国今后为了实现年均7%以上的经济发展速度, 就必须解决落后的技术问题。并且强调, 如果中国自身没有

自己的技术积累, 中国将永远不能逃脱生产技术部门的其他技术强国的控制。

但通过合并来引进国外先进技术、研发投资的急速增加、中国国内企业获得国内外专利申请的增加、培育理工专业的优秀人才等意味着中国的电子信息产业技术力量正在快速提高, 因此, 不能过低的评价中国电子信息产业。从这一点上, 中国目前还不是我们的威胁, 但也有可能会成为未来的威胁。

關鍵詞: IT产业, 劳动生产率, 资本生产率, 竞争力, R&D

투고일: 2008. 10. 30.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조직문화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유형에 관한 실증연구

-중국인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이수진* · 방호열** · 공희숙***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가설
4. 실증분석 및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1. 서론

오늘날 중국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경제개혁 의지아래 해마다 10% 내외의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적인 성장동력은 해외로부터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에 있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 개방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은 거대한 수요 잠

*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국제학부 국제경영전공 박사과정 수료
(soojinlee05@paran.com)

**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국제학부 교수

***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교수

재력을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이기도 하다.

최근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진출하는 현지시장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글로벌 통합전략보다 현지적응 전략, 즉 현지화에 비중을 두어야 성과가 높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Fryxell, Butler, and Choi, 2004). 이러한 현지적응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해외자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Bartlett and Ghoshal 1989; Jarillo and Martinez, 1990; Taggart, 1997), 여러 자회사들 중에서도 본사의 궁극적인 전략을 실현시키고 이질적이고 역동적인 현지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리더(strategic leaders)로서의 해외자회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전사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현지에서 본사의 전략을 능동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동일한 현지시장에 진출해 있는 다른 자회사들에게 또 다른 리더가 되어 전체적인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는 해외자회사라는 조직에 근무하는 관리자들의 리더십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므로 현지의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Wong and Law 1999).

현실적으로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중간관리자는 본사에서 파견한 관리자와 현지에서 발탁된 관리자로 구성되는데, 각 각 본사의 전략 수행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지의 상황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야 말로 현지 자회사를 전략적 리더로 키워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며 어떠한 역량을 보유한 중간관리자를 선발하고 적소에 배치하여 성과를 이끌어 낼 것인가는 의사결정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에 따라 해당 조직에서 근무하는 조직원, 특히 전략실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관리자의 행태, 즉 리더십 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중간관리자의 조직 내 기여도에 비해 그 연구가 너무나 미비한 실정이고(King et al. 2001), 특히나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본사가 아닌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자회사 수준에서의 조직문화와 현지에서 고용한 중국인 중간관리자에 초점을 맞추어 소수의 최고경영자나 최고경영층(TMT)이 아닌 실무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 중국인의 중간관리자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영환경이 불확실한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시장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사의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에 적합한 중국인 실무자를 선발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진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문화와 리더십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왔지만 전환경제국인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더욱이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된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중국에 진출하여 일정부분 중국인 관리자를 고용하고 경영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가 유형분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만큼 조직문화와 리더의 유형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검증한 대표적인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을 주요 토대로 하였다. 조직문화의 유형적 접근에서 경쟁가치 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이미 검증되어 많은 학자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Erdogan et al. 2006).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검증하고자 하는 주제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중국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를 조사하여 기존의 유형과 차이가 나는지 검토하고 둘째, 해외자회사에 종사하는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기존의 분류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에 따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에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현지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데서 오는 이점을 강조하는 시각처럼(Wong and Law 1999), 본 연구의 결과가 중국진출

기업의 조직문화에 적합한 현지 중간관리자를 선발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조직문화 유형과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

오늘날 조직의 종류와 적응해야하는 상황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조직에 관한 이론을 적절하고 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형분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수많은 관련 이론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분류기준을 세우고 적용하는 유형화 노력이 복잡한 현상을 파악하고 정리하여 더 깊고 폭넓은 연구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여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직에 관한 최근의 시각이 조직이란 시간에 따라 변화·발전할 수 있고 해당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러한 동태성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조직의 핵심인물이나 소수 집단, 즉 최고경영자나 최고경영자층(TMT)과 같은 리더에 중점을 두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관계를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중 하나가 Schein(1985)이다. 그는 문화란 하나의 동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조직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집단이론이나 리더십 이론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위하여 기업가, 조직창설자, 그리고 조직의 중요한 변천과정을 관리하는 리더의 역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chein(1985)은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관계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보고 어느 한쪽만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균형적인 견지

를 고수 하였다. 그는 조직문화가 리더들에 의해 창출되는 것이며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중의 하나가 조직의 문화를 창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문화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리더십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문화의 관리기능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조직문화와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복잡한 현상을 단순한 몇 가지 형태로 포괄하여 함축해줄 수 있는 유형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조직문화 유형(Deal and Kennedy, 1982; Ouchi, 1981; Quinn, 1985)과 리더십 유형(Bass, 1990)을 제시하고 있다.

Quinn(1988)의 연구는 내부지향-외부지향과 유연성-통제 차원에서 조직문화를 혁신적 문화, 집단적 문화, 위계적 문화, 그리고 합리적 문화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Quinn(1988)은 조직문화에 대한 경쟁가치 모형을 적용하여 유연성(flexibility)과 통제(control)를 수직축에 두고 내적(internal) 지향성과 외적(external) 지향성을 수평축에 두어 4가지 차원의 조직문화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내었다. 더 나아가 그는 각 각의 조직문화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리더의 유형과 역할을 찾아내어 분류하는 성과도 보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 각각의 조직문화의 특성을 정리해 보자면, 먼저 혁신적 문화에서는 통찰력, 발명, 혁신 등의 직관적 정보과정이 외부지원, 자원획득, 성장 등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시도와 개발, 독창성과 혁신을 강조한다.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조직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자원의 획득, 구성원들의 혁신적인 화동이 중심 가치이다(Sashittal and Jassawalla 2002).

합리적 문화에서는 능률과 실적, 목표와 효율성을 강조하며, 효율성, 생산성, 이윤의 향상 등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 명확화, 논리적 판단, 결단성 등과 같은 개인적 정보과정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결국 혁신적 문화와 합리적 문화는 모두 외부지향적인 문화인 셈이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지배적인 조직은 목표달성, 계획, 능률성, 성과보상의 가치를 강조한다(Zammuto and Krakower 1991).

인간적 분위기와 상호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집단적 문화에서는 토론, 참여, 합의의 집단적 정보과정이 분위기, 사기, 팀워크 등이 응집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는 조직은 구성원들의 신뢰, 팀워크를 통한 참여, 충성, 사기 등의 가치를 중요시하여(Parker and Bradley 2000) 조직내 가족적인 인간관계 유지에 최대한 역점을 두는 특징을 보인다.

위계적 문화에서는 문서화, 계산, 평가 등의 공식적 정보과정이 안정성, 통제, 조화 등과 같은 지속성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기존절차와 관행, 그리고 목표 추진력, 생산·과업 달성이 증시된다. 이러한 문화를 보유한 조직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조직 내부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공식적 명령과 규칙, 집권적 통제와 안전지향성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특징을 보이는 조직문화이다(Zammuto and Krakower 1991).

Parker와 Bradley(2000)는 이러한 조직문화의 특성별 유형에 따라 각 각의 조직문화에 대응하는 리더십 스타일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창의적·위험 수용적, 관여적·지원적, 보수적·신중한 스타일, 그리고 지시적·목표지향적 스타일로 나누어 역할과 연계하여 제시하였다.

Bass(1990)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리더십 유형에 접근하여 이상적 원동력형(ideal prime mover), 실재적 팀구축형(existential team builder), 경험적 전문가형(empirical expert), 그리고 합리적 성취가형(rational achiever)으로 명명하고 분류하였다.

2.2 해외자회사의 중간관리자 유형에 관한 연구

국제경영 관점에서는 본사에서 파견되어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간관리자와 필요에 의해 현지에서 고용된 현지인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사에서 파견된 중간관리자는 전사적인 차원에서 본사의 전략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환경이 복잡하고 변동요인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와 갈등 수위가 증가하여 성과의 고저 폭이 큰 편이다.

이는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 역량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며, 실질적인 차원에서 중간관리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본사의 명령이나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관리자가 아니라 역동적인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또 다른 리더로 간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간관리자의 정의를 학자별로 간단히 살펴보자면, Felman(1980)은 상급자와 부하 사이의 갈등적 기대와 요구 사이에 낀 중간 위치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Havassy(1990)는 (1)직접적인 서비스의 전달과는 접촉이 거의 없는 조직 상위자에게 보고하는 자, (2)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행하는 현장 근로자나 라인 감독자를 관리하는 자, (3)서비스의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일하는 자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Havassy(1990)는 이들이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현장관료(street-level bureaucrats : Lipsky, 1980)와는 달리 중간계층관료(second-story bureaucrats)라 할 수 있으며, 상위나 현장 수준은 아니지만 관료주의가 작동되도록 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행하는 계층이라고 보았다.

Stahle와 Schirmer(1992)는 그들 아래 적어도 2개의 위계 수준을 가진 피고용자 혹은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는 모든 스태프로 중간관리자를 정의하면서, 최고경영자의 의도와 일선감독자의 매일 매일의 일상 업무를 통합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비록 이러한 정의들이 조직이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나(Brubank and Wilkinson, 1996), 공통적으로 현장감독자의 바로 위의 사람들로 최고경영층과 이사 수준의 바로 아래의 경영 관리자로 여겨진다.

중간관리자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중간관리자의 유형은 중간관리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따른 접근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에 관한 연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최고경영자로서의 개인적인 특성이 리더십을 결정한다는 다양한 연구와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중간관리자는 권력이 적으면서도 긴장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Kanter, 1982). Astley와 Van de Ven(1983)의 경우에는 중간관리자를 최고경영자와 일선 감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연계하는 자로 간주하였고, 중간관리자는 최고경영층의 의사결정을 하위에 전달하고 예외적인 현상을 상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특히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중간관리자는 본사의 최고경영층이 의도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현지 시장 상황에 맞게 실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이중적 역할(bilingual role)이 요구되는데, 최고경영층의 다소 추상적인 전략적 목표를 해석하여 구성원들이 확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침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역량을 발견해 내고 개발, 수행해 내는 촉매제(catalysts)로서 중간관리자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King 등, 2001)도 이루어졌다.

Floyd와 Wooldridge(1992)는 ‘중간으로부터의 전략(strategy from the middle-out)’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중간관리자의 행동적 측면(상향적/하향적 정도)과 인지적 측면(분산적/통합적 정도)을 양대 축으로 하여 전략에 관여하는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중간관리자는 행동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의 조합으로 인하여 대안주도 역할(championing alternatives), 수용조장 역할(facilitating adaptability), 정보종합 역할(synthesizing information), 그리고 의도한 전략실행 역할(implementing deliberate strategy)로 나누어질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중간관리자가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의사결정의 개선과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일치를 가능하게 하여 조직의 성과에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간관리자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유형을 분류하는데 기여한 또 다른 연구자로는 Bass(1990)가 있다. Bass(1990)는 상황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특성을 하위차원으로 하는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카리스마, 지적인 자극, 개별적 고려 특성을 하위차원으로 하는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을 분류하였다. 최근에는 조직내 신뢰구축과 관련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Spears(1995)는 이를 반영하여 경청, 공감, 비점의 제시, 공동체 형성 등의 특성을 보이는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추가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조직에 관한 요인을 조직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으며, 조직의 문화적인 측면은 집단적 문화, 혁신적 문화, 위계적 문화, 그리고 합리적 문화로 분류한 Quinn(1988)의 조직문화 유형분류를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한 조직의 문화와 그러한 조직에 근무하는 관리자 간에는 상호간에 상당부분의 영향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하고 복잡한 시장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에 의해 채용된 중국 현지인 중간관리자의 유형을 파악해 보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그 이유로는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의 자회사에 채용된 현지의 중국인 관리자는 본사와 자회사의 조직문화에 따라 기대되는 적합한 행동에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중국인 관리자들은 현지 노동자들과 본사에서 파견되어 온 해외파견 관리자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적절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조직 내의 암묵적인 압력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가 요

구되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 측면이 진출한 중국 현지에서 채용한 중간관리자의 유형과 상당 부분 관계가 있을 것이라 보고 선행 연구들이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해 보고자 한다.

Quinn(1988)의 조직문화 유형분류는 경쟁가치 모형(competing values model)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형은 기업의 조직문화를 유연성과 통제, 내부지향성과 외부지향성의 두 축으로 결합하여 네 가지 문화인 혁신적 문화, 집단적 문화, 위계적 문화, 그리고 합리적 문화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기업의 내·외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립적인 조직문화의 가치들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Quinn과 Rohrbaugh(1981, 1983), 그리고 Quinn(1988) 등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해당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리더십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관계를 적합관계 유형과 부적합 관계 유형으로 정리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유형 분류의 공통적인 근거는 경쟁가치 모형이며, 조직문화는 집단문화, 혁신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로, 리더십은 실존주의에 입각한 '실재적 팀설계형', 이상주의에 경도된 '이상적 혁신추구형', 경험주의에 근거한 '경험적 전문형', 합리주의에 편향된 '합리적 성취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1> 조직문화와 리더십 유형의 적합·부적합 관계

적합관계		부적합관계	
조직문화 유형	리더십 유형	조직문화 유형	리더십 유형
집단문화	실제적 팀구축형(배려)	집단문화	합리적 성취형(거래적)
혁신문화	혁신추구형(변혁적)	혁신문화	경험적 전문형(구조주도)
위계문화	경험적 전문형(구조주도)	위계문화	혁신추구형(변혁적)
합리문화	합리적 성취형(거래적)	합리문화	실제적 팀구축형(배려)

기타의 연구자로 Cameron과 Freeman(1991)가 있는데, 그들은 집단 문화의 리더를 스승, 촉진자, 부모 같은 인물로 묘사하였고, 혁신문화의 리더는 기업가, 쉐인가, 위험감수자로, 위계문화에서는 조정자, 조직가, 행정가로, 합리문화는 생산지향적, 과업지향적 상사를 리더의 전형으로 간주하였다. Cameron과 Quinn(1999) 역시 조직문화와 리더십이 이와 같이 결합할 때 가장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자동차 제조 기업과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중국인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문화 유형이나 리더십 유형과는 다른 유형이 확인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진다. 왜냐하면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이 아무리 강한 조직문화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제조업과 같이 현지 인력을 다수 활용하는 경우에는 현지인의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방식이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Hofstede 2001). 특히 현지인을 중간관리자로 발탁하여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진출한 기업의 조직문화와 조화되는 정도가 현지 경영에서 매우 중요해진다.

한국기업이라도 중국에 진출한 이상 중국적인 특색이 어느 정도 가미된 조직문화가 새로이 창출되어 질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실증을 통해

기존의 조직문화 유형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중국으로 진출할 기업들에게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사에서 충분한 관리자들과 파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국 현지에서 해당 기업의 조직문화에 적합한 리더십을 보유한 중국인 중간관리자를 선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의 가설 1과 2는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조직문화가 기존의 전통적인 유형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에서도 독특한 측면이 있는지 검증해 보기 위해 제시되었다. 또한 조직문화에 적합한 리더십이 발휘될 때 직원들의 직무몰입과 만족도가 증가하여 생산성 등의 기업성과가 향상되므로(Johnson and Johnson 2000; Lombert et al. 2001; Show et al. 2000) 본 연구에서도 조직문화에 따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가설 3을 제시하였다. 간단하게 연구가설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1>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 유형은 기존의 조직문화 유형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2>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은 기존의 리더십 유형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3>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에 따라 해당 해외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다를 것이다.

4. 실증분석 및 결과

4.1 변수의 조작화와 표본의 특성

전술한 연구과제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조작화하고 모든 항목을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먼저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에 관한 항목들은 Denison(1984, 1990)과 Quinn과 McGrath(1985), 그리고 Quinn(1988)이 사용한 조직문화 변수 측정을 위한 항목을 토대로 하여, 중복이 된다고 판단되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여 적절히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각 각 5개의 위계적, 합리적, 그리고 혁신적 문화 항목과 6개의 집단적 문화 항목으로 총 21개의 항목을 개발하여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에 관련한 항목은 Quinn(1988)이 사용한 리더십 유형을 참조하여 항목들을 개발하였는데, 참여적(6개 항목), 혁신지향적(5개 항목), 지시적(4개 항목) 및 지원적(5개 항목) 리더로 분류하여 총 20개 항목을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발된 설문지는 중국에서 국제 경영을 전공하고 현재 상해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조선족 2명에게 의뢰하여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한국에서 국제경영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 한족에게 보여 의미가 잘 전달되었는지 점검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기업 자료는 상해한국상회에서 확보하였는데, 상해 한국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원 기업 중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 상해 및 상해 근교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에 종사하는 5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기업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중국인 관리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에 한해 중국인 중간관리자가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 기업 당 10부씩, 총 500부의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과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약 4주간의 조사기간 동안 우편과 메일로 도착한 설문지는 총 160부(32%)였고 응답이 불충분하거나 한 개의 기업 당 5개미만의 응답을 한

기업의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152부(30.4%)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토대로 표본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50개 기업 중 17개 기업(34%)이 응답하였고 한 개의 기업 당 평균 8.94개의 설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중간관리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었다. <표 2>와 <표 3>은 응답기업의 규모와 설문에 응답한 중간관리자의 연령분포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 응답기업의 규모

종업원 수	300명 미만	300명 이상 ~ 500명 미만	500명 이상	합계
해당 기업 수	4개	7개	6개	17개
비중	23.5%	41.2%	35.3%	100%

<표 3> 중간관리자의 연령 분포

연령	20대	30대	40대 이상	합계
응답자 수	51명	74명	27명	152명
비중	33.6%	48.7%	17.7%	100%

4.2 실증분석 및 결과

4.2.1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가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다항목적도의 신뢰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Cronbach 알파계수를 SPSS 14.0을 이용해 확인해보았다. 알파계수를 통한 내적일관성을 진단해 보는 것 외에도 다항목적도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된 항목들 중에서

요인 적재치(factor loading)가 0.5 이상인 경우만 선택하여 각 요인의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들은 이후에 실시될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요인과 변수간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각회전(VARIMAX) 방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표4>과 <표5>에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고,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단계의 신뢰성 검증 결과에서는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모두 Cronbach 알파 계수가 0.6이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각 요인에 대해서는 해당 요인 변수들의 속성을 고려하여 요인1은 합리적 조직문화, 요인2는 집단적 조직문화, 요인3는 위계적 조직문화, 그리고 요인4은 혁신적 조직문화로 명명하고 이후의 분석 결과에서 사용하였다.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 또한 요인별로 그 특성을 감안하여 요인5는 성취지향적 리더십, 요인6은 집단적 리더십, 요인 7은 위계적 리더십, 그리고 요인 8은 혁신적 리더십으로 명명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 조직문화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결과

조직문화 변수(항목번호)	요인 1 합리적	요인 2 집단적	요인 3 위계적	요인 4 혁신적	Cronbach -α
상호경쟁 강조(7)	.808	.013	.109	.038	0.852
업무개선활동 장려(9)	.806	.163	.078	.071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보상(8)	.797	.141	-.139	.115	
목표설정 참여 권장(10)	.752	.182	-.008	.177	
개별 직무수행 능력 강조(6)	.706	.047	.160	.105	
상호신뢰 중시(13)	.107	.782	.018	.033	0.819
업무수행 과정 중시(14)	-.090	.769	.122	-.021	
조직에 대한 소속감 강조(12)	.159	.729	.051	.119	
인간적인 배려(15)	.005	.669	-.002	.247	
조직전체 성과 달성 강조(11)	.197	.655	.085	.020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 장려(16)	.234	.639	-.027	.223	

업무처리의 표준적 절차와 지침 수립(1)	-.116	.001	.871	.046	0.825
목표나 내용 수정시 수정절차 준수(2)	.209	.104	.853	.093	
업무 수행시 규칙준수 강조(3)	.101	.096	.825	.052	
창의적 개선활동 허용(19)	-.017	.169	.027	.807	0.700
업무의 목표 설정에 적극적 참여 권장(18)	.184	.092	.099	.765	
개인적 적응능력 강조(20)	.232	.121	.062	.707	
eigenvalue	3.295	3.174	2.270	1.939	
누적분산비율(%)					62.806 %

4.2.2 분산분석 및 결과

다음 단계로 요인분석에서 도출된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요인별 두드러지는 속성을 토대로 별도의 변수로 명명한 후, 조직문화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을 군집분석하고 집단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진행하였다. 군집분석은 계층적 군집방법 중 Ward 방법을 이용하였다.

<표 6>은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에 대한 군집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인데, 군집1은 64개의 자료가 소속되었고 집단적 속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반면 혁신적 속성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군집2는 29개의 자료가 해당되었는데 혁신적 속성은 높게 나타났지만 집단적 속성과 위계적 속성은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3은 59개의 자료가 소속되었고 위계적 속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조직문화의 군집분석에서는 기존의 조직문화 유형 분류와는 달리 합리적 속성을 가지는 군집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군집의 특성을 감안하여 군집1은 강한 집단적 문화지향 군집, 군집2는 강한 혁신적 문화 지향 군집, 그리고 군집3은 강한 위계적 문화 지향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 유형이 기존의 분류와 다를 것이라는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고 합리적 문화를 지향하는 군집

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6>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군집 1 (n=64)	군집 2 (n=29)	군집 3 (n=39)
합리적 속성	-.487	.312	.357
집단적 속성	.488	-.445	-.587
위계적 속성	.385	-.457	.504
혁신적 속성	-.514	.407	-.603

<표 7>는 중국인 중간관리자에 대한 군집분석의 결과인데, 군집1은 지시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군집2는 참여적 성향이, 그리고 군집3은 성취지향적 성향이 가장 많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 6>에서 나타난 군집별 속성을 감안하여 군집1은 지시적 성향이 강한 군집, 군집2는 참여적 성향이 강한 군집, 그리고 군집3은 성취지향적 성향이 강한 군집으로 새롭게 명명하였다.

이 결과 역시 Quinn(1988)의 분류와는 달리 리더십의 유형이 4가지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연구가설 2도 지지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원적인 성향의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드러난 집단을 도출하는데 실패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조직원 개개인의 과업을 달성하고 조직에 몰입하도록 도와주는 중간관리자급의 리더가 아직은 중국에서 확고한 하나의 유형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해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7〉 해외자회사의 중간관리자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군집 1 (n=32)	군집 2 (n=23)	군집 3 (n=97)
성취지향적 성향	-.018	-1.813	.436
지원적 성향	-.870	.003	.286
참여적 성향	-1.251	.417	.314
지시적 성향	.213	-.365	.016

마지막으로 분류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국인 중간관리자 군집과 조직문화 유형 차원 간의 차이를 분산분석과 던칸 검증(Duncan's test)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표 8>에 제시하였는데 위계적인 조직문화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리더십 군집이 합리적, 집단적, 그리고 혁신적 조직문화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취지향성이 강한 군집3의 경우에는 모든 조직문화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8>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와 중간관리자에 대한 분산분석

	군집1 지시적 성향이 강한 군집 (n=32)	군집2 참여적 성향이 강한 군집 (n=23)	군집3 성취지향성향이 강한 군집 (n=97)	F값 (p값)
합리적 문화	4.594	4.104	5.149	8.184*** (.000)
Duncan 검증	군집1=군집2, 군집1=군집3, 군집2≠군집3(평균차=-1.044, 유의확률=.001.)			
집단적 문화	4.615	4.877	5.438	9.450*** (.000)
Duncan 검증	군집1=군집2, 군집2=군집3, 군집1≠군집3(평균차=-.824, 유의확률=.000)			
위계적 문화	4.198	4.261	4.581	1.768 (.174)
Duncan 검증	군집1=군집2=군집3			
혁신적 문화	4.688	4.565	5.643	15.528*** (.000)
Duncan 검증	군집1=군집2, 군집1≠군집3(평균차=-.955, 유의확률=.000.) 군집2≠군집3(평균차=-1.077, 유의확률=.000.)			

5. 결론 및 시사점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 공통적인 유교주의 문화에 속하기는 하지만 (Hofstede 2001), 중국에 진출한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상당수가 오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시장개방 정책을 수용하고 있는 중국 특유의 문화로 인해 현지에서의 경영에 고전하고 있다. 다수의 중국 현지인을 활용해야 하는 기업인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현지 노동자들이 언어나 공통된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중국인 매니저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Law et al. 2004). 이는 조직의 문화와 적합한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상해와 인근지역에서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조직문화와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서구에서 진행되고 분류된 유형과 차이가 있는지 군집분석과 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중국에 진출한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가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유형화되어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군집분석의 결과에서 합리적 문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인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 역시 기존의 연구와 같이 4가지로 나타나지 않고 성취지향적, 참여적, 지시적 성향의 리더십 유형만 관측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조직문화의 유형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분산분석에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위계적인 조직문화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이라는 사회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상하관계가 분명한 조직이라도 중국외부에서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직 구성원들 간의 평등사상이 팽배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조직문화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 간의 분산분석의 결과에서 중국인 중간관리자들은 대체로 조직문화에 관계없이 강한 성취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고루 드러난 성취지향적 성향은 중국인 중간관리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연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기업이 국가 발전수준이 낮다고 현지인을 차별대우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시스템과 공정한 인사제도를 통해 현지의 고급관리자를 관리한다면 한국의 본사문화와 이질적일지라도 높은 성과를 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자유경쟁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성과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통해 중국인 중간관리자를 독려하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각 유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해당 유형 간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이라는 현지시장의 동질성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본사의 국가문화의 영향이나 글로벌 인사경영 차원의 차이를 섬세하게 구별하질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유형간의 구체적인 인과관계까지 확인해 봄으로써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이 현지에서 중국인 중간관리자를 고용할 때 바람직한 참조가 되는 연구로 발전시키는 부분은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 Astley, W. G. and Van de Van, A.H.(1983), "Central Perspectives and Debates in Organization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8(2), pp. 245-273.
- Bartlett, C. A. and Ghoshal, S.(1989), *Managing Across Borders: The Transnational Solution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
- Bass B. M.(1990), *Bass & Stogdill's handbook of leadership: Theory, research, and managerial applications*(3rd ed.), NY: Free Press.
- Brubank, B. and Willkinson, A.(1996), "Changing roles of middle management? A case study of bank branch management",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3(3), pp. 163-174.
- Cameron, Kim and Freeman, Sarah J.(1991), "Cultural Congruence, Strength, and Type: Relationships to Effectiveness", *Research in Organizational Change and Development* 5: 23-58.
- Cameron, Kim and Quinn, Robert E.,(1999), *Diagnosing and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New York: Addison Wesley Inc.
- Deal, T. E. and Kennedy, A. A.(1982), *Corporate Cultures*, Reading

Mass.:Addison-Wesley Publishing.

Denison, D. R.(1984), "Bringing Corporate Culture to the Bottom Line", *Organizational Dynamics*, Autumn, pp. 5-22.

------(1990), *Corporate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N.Y.:John Wiley & Sons.

Doz, Y. and C. K. Parahalad(1981), "Headquarter's Influence and Strategic Control in MNCs", *Sloan Management Review*, Fall, pp. 15-29.

Erdogan, G. R., Liden C., and Kraimer, M. L.(2006), "Justice and Leader-member exchanging: The moderating role of organization cultur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9(2), pp. 396-406.

Felman, S.(1980), "The middle management muddle", *Administration in Mental Health*, 8(1), pp. 3-11.

Floyd S. W. and Wooldridge(1992), "Middle Management Involvement in strategy and its Association with Strategic Type :A Research Not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3, pp. 154-172.

Fryxell, G. E., J. Butler and A. Choi(2004), "Successful Localization Programs in China: An Important Element in Strategy Implementation", *Journal of World Business*, 39, pp. 268-282.

Havassy, H. M.(1990), "Effective second-story bureaucrats: Mastering the paradox of diversity", *Social Work*, 35(2), pp.103-109.

Hofstede, Geert(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Jarillo, C. J. and J.I. Martinez(1990), "Different Roles for Subsidiaries: The Cas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Spai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 pp. 501-512.

- Johnson and Johanson(2000), "Perceived Overqualification,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Satisfaction with work",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5(2), pp. 167-85.
- Kanter, R. M.(1982), "The middle manager as innovator", *Harvard Business Review*, 60(4), pp. 95-105.
- King A. W., Fowler S. W., and Zeithaml C. P.(2001), "Managing organizational competencies for competitive advantage: The middle-management edg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5, No. 2, pp. 95-106.
- Law Kenneth S., Chi-Sum Wong, and Kevin D. Wang(2004), "An Empirical test of the model on managing the localization of human resourc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15:4, June/15:5 August, pp. 635-648.
- Lipsky, M.(1980), *Street-level bureaucracy*,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Lombert, J. H., Hogan, N. L. and Barton, S. M.(2001), "The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nternet: A test of a Structural Management Model using a national sample of workers", *Social Science Journal*, 38, pp. 233-250.
- Ouchi W.(1981), *Theory Z*, Reading Mass.:Addison-Wesley Publishing.
- Parker, R. and Bradley, L.(2000), "Organization culture in public sector: Evidence from six organiz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13(2), pp. 125-141.
- Quinn, R. E.(1988), *Beyond Rational Management: Mastering the Paradoxes and Competing Demands of High Performance*, San francisco: Jossey-Bass

- and M. R. McGrath(1985), "The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al Cultures: A Competing Values Perspective", in P. Frost, L. Moore, M. Louis, C. Lundburg & J. Martins(eds.), *Organizational Culture*, Beverly Hills, Calif.: Sage.
- and J. Rohrbaugh(1981), "A Competing Values Approach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Public Productivity Review*, 5, pp. 122-140.
- (1983), "A Spatial Model of Effectiveness Criteria: Towards a competing values approach to organizational analysis", *Management Science*, Vol. 29, No. 3, March, pp. 363-377.
- Sashittal, H C. and Jassawalla, A. R.(2002), "Culture that support product-innovation proces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6(3), pp. 42-54.
- Schein, E. H.(1985),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San Francisco: Joseey-Bass.
- Shaw, J. D., Duff, M. K. Abdulla, and Sinḡ, R.(2000), "The moderating role of positive affectivity: Empirical evidence for bank employee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Journal of Management*, 26(1), pp. 139-155.
- Spears, L. C.(1995), *Insight on leadership: service, stewardship, spirit, and servant leadership*,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Staehle, W. and Schirmer, F.(1992), "Low level and middle level managers as the recipient and actor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22(1), pp. 67-89.
- Taggart, J. H.(1997a), "An Evaluation of the Integration-Responsiveness Framework: MNC Manufacturing Subsidiaries in

the UK", *Management International Review*, 37, pp. 295-318.

------(1997b), "Autonomy and Procedural Justice: A Framework for Evaluating Subsidiary Strateg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Summer, pp. 51-76.

Wong Chi-Sum and Kenneth S. Law(1999), "Managing Localization of Human Resources in the PRC: A Practical Model", *Journal of World Business*, 34(1), pp. 26-40.

Zammuto, R. F. and Krakower, J. Y.(1991),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tudies of organizational culture", *Research in Organization Change and Development*, 5, pp. 83-114.

<인터넷 사이트>

상해한국상회 <http://kochamsh.com>

[국문요약]

지금까지 조직문화에 관한 연구들은 선진국에만 초점이 주로 맞추어져 있었고 중국에서의 경우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강력하고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소수의 CEO나 최고경영자층은 주목을 받아왔지만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현지의 중간관리자를 발굴하고 선발하기 위하여 자사의 조직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한국기업들에게 귀중하고 실질적인 경영상의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 번째 가설은 중국에 있는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 유형을 조사하고 기존의 유형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가설은 중국의 중간관리자 층의 리더십 유형과 서구의 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마지막 가설은 조직문화와 중간관리자 층의 리더십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표본자료는 중국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수집되

었다. 약 4주 동안 152개의 설문자료가 가설 검증을 위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그리고 분산분석이 제시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경쟁가치모형에 입각하여 진행된 본 연구는 중국 해외자회사의 조직문화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구별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지만, 합리적 조직문화와 지원적 리더십 유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가설은 지지되었다. 또한 각 각의 조직문화 유형과 중간관리자 리더십 유형 간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키워드: 조직문화, 중국인 중간관리자, 리더십 유형

[Abstract]

To date, most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the subjects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cultures i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seldom investigated the ones in China. A small number of CEOs or TMT with strong and distinctive leadership have also been highlighted, but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middle management's. In the case of Korean firms operating in China, they need to know what their organizational cultures are in order to find and select right local middle managers who can conduct their strategy.

This paper aims to provide some valuable and practical managerial implications to Korean firms by focusing on the followings. The first hypothesis is related to investigate the types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s in foreign subsidiaries in China and compare them with the existing ones. The second is about checking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adership types of the Chinese middle managers and the western-styled ones.

The last i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ny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cultures and the leadership of the middle management.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gathered from middle managers working in foreign subsidiaries in China. For about 4 weeks, 152 survey data were finally chosen to test hypotheses provided. The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were applied to test the provided hypotheses.

Based on the Competing Values Model, this study verified each type of the subsidiary's organizational cultures and the middle-management leadership, but the rational organizational culture and supportive leadership type weren't shown here. Therefore, the first and second hypothesis were supported respectively. And, the differences between each type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s and the corresponding one of the middle-management leadership types were found to support the last hypothesis in part.

Key words: organizational culture, Chinese middle managers, leadership type

투고일: 2008. 10. 31.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동북공정논쟁 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한 비교연구

조 윤 경*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동북공정에 대한 평가
- III. 동북공정논쟁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한 비교
- IV. 동북공정이후 진행중인 또 다른 역사공정
-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2002년 2월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진행한 동북공정, 즉 ‘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연구 과제 중 우리 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사회는 동요했다.¹⁾

이후, 2004년 8월 중국 외교부 부부장 武大偉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 강사(ggamjjice@hanmail.net)

1) 중국의 고대사 왜곡문제를 다룬 각종 보도 기획들이 등장하고 일반 시민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아시아 평화와 역사교육연대’나 ‘고구려 지키기 범시민연대’ 등의 수많은 단체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그 중에서도 ‘고구려연구재단’이 2004년 3월 1일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대응’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의 주석 賈慶林의 방한을 통해 한국정부와의 5개 항의 구두합의로, 양국이 고구려사 문제를 더 이상 정치 외교 사안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우리 정부측의 외교적 대응은 소극적인 형태로 전환됐고, 국민들의 열기도 가라앉아 고구려사 문제는 학술적 문제로 남게 되었다.²⁾

이처럼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오로지 학술적 대응에만 집중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2004년 동북공정과 관련한 한중 양국이 합의한 양해 조항에서도 오직 학술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후 중국의 수차례에 걸친 역사 왜곡 행태가 나타났지만, 한국은 여전히 학술적으로 해결한다는 주된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외교마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가 낡은 산물이라 하겠다.

한국의 대응이 학술적 연구에만 그치는 동안 중국 정부의 목인아래 중국의 동북공정논리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한국은 여전히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제 3국이나 민간을 통한 우회적인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관계로 한국에서의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이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본고에서 동북공정논쟁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 주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 자료는 아주 많으나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에 대한 의도나 목적 등에 초점을 맞춘 자료가 대부분이고 한국측 역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나 해결점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하겠다.³⁾

이에 필자는 동북공정 이후에도 또 다른 기타 정책을 진행 중인 중국

2) 안병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동북공정〉, 《국제정치연구》 7 : 2(2004), 46쪽

3) 김위현, <동북공정 이후 우리학계의 과제>, 《동양학》 42(2007)
강준영, 〈中國의 東北工程 再論〉, 《中國研究》 38(2006)
최광식, 〈'東北工程'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고구려사 연구동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33(2004)
안병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동북공정〉, 《국제정치연구》 7-2(2004) 등 외 다수

입장과 점점 망각해가고 있는 우리의 인식태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조금이나마 각성의 여지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도로 이전 자료들과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II장에서는 동북공정의 내용 및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동북공정논쟁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해 비교해 본 다음, IV장에서는 동북공정이후 진행중인 또 다른 역사공정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동북공정에 대한 평가

1. 동북공정의 내용

'동북공정'(東北邊疆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中國邊疆史研究中心이 동북변강지역의 역사와 현실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2002년 2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국가 비준 프로젝트로, 5년간의 사업기간을 거쳐 지난 2007년 1월에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난 2002년부터 중국 정부의 국책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의 주도하에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는 이미 1988년 8월 中國邊疆史研究中心의 <當代中國邊疆系列調查研究> 課題組가 작성한 <한반도 정세 변화가 동북지역 안정에 미치는 충격(朝鮮半島形勢的變化對東北地區穩定的衝擊)>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99년과 2001년 연차보고서 성격의 동북지방과 한반도 정세를 연결하는 두 건의 보고서가 작성되면서 중앙 차원의 연구과제로 추진된 것이다.⁴⁾

이렇게 북한 위기와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동북지역의 안정 문제로 시작된 동북지역 변강문제 연구는 공식적인 프로젝트로 출발하면서 새로운 의도를 내포하게 된다. 특히 동북공정 영도소조 소장인 王洛林

4) 강준영, <中國의 東北工程 再論>, 《中國研究》 38(2006), 2쪽

은 동북지역의 역사가 북한과 한국의 학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북지역 연구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고구려, 발해 등 중국 동북지방의 속국 정권을 조선의 독립국가라고 하면서, 현재의 중국 동북변강이 역사적으로 고대 조선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간도 문제 즉 길림 연변 지역의 근대 이민문제를 邊界문제로 제기하면서 영토적 요구를 제기한다고 비판하였다.⁵⁾ 동북공정 연구책임자인 馬大正도 동북지역의 역사연구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논점을 제시하였으며, 부조장인 全哲洙 역시 동북의 변강문제는 학술 문제이면서 영토 강역 주권과 관련된 정치문제, 국가 안정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⁶⁾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데 관련된 5대 의식으로는 정치의식·全局의식·책임의식·精品의식·성실의식으로, 정치의식의 측면에서 국가의 장기적 안정과 통일, 민족단결, 변강 안정이 동북공정의 목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동북공정의 정치성과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동북공정의 내용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포함한 연구부분, 관련 외국서적을 번역하는 부분, 관련 당면자료의 수집과 정리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초연구란 역사적 학문적 이론연구를 의미하며, 응용연구란 기초연구를 토대로 현실의 국제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역사·문화적 방면에서 특정지구의 귀속권 문제와 그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국경 영토분쟁, 외교관계, 관광전략 등)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

5) 王洛林, 〈加强東北邊疆研究, 促進學科建設〉, 《中國東北邊疆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고구려연구재단 번역, 《중국의 동북변강연구》: (2004), 18-19쪽
6) 全哲洙, 〈開展東北邊疆問題研究的幾個問題〉, 《中國東北邊疆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고구려연구재단 번역, 《중국의 동북변강연구》: (2004), 24-25쪽

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논리 개발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⁷⁾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에는 고대중국의 변경에 대한 연구, 동북지방사 연구, 동북민속사 연구, 고조선, 고구려, 발해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고구려를 구성하였던 민족과 고구려에 대한 연구, 한반도의 민족과 국가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연구, 말갈, 발해와 동북 여러 나라 및 여러 민족의 관계사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동북공정의 연구 과제 107개 중 절반 이상인 56개가 한국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역대 한중관계를 제외한 51개 연구과제 중 고구려(48%)와 발해(26%) 관련 과제가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아래 표-1은 동북공정 민족관련 선정과제 목록이다.

(표-1) 동북공정 민족관련 선정과제 목록⁹⁾

제1차 민족 관련 연구과제	1. 20세기 중국 동북 변경 문화 연구 2. 기자와 기자 조선 연구 3. 중국 동북 고민족 발전사 4. 중한 상관 성씨 족원 고증 연구 5. 동북민족 구역 설치 연구 6. 백두산 지역 역사와 문화 및 그 귀속 문제 연구 7. 동북 漢族 인구사 연구 8. 동북 변경 다민족 문화 교류와 융합
제2차 민족 관련 연구과제	1. 고구려 민족과 국가의 연원 2. 청말 동북 변경 조선족 이민과 간도 문제 연구 3. 조선반도 민족, 국가의 기원과 발전 4. 말갈, 발해와 동북아 각국, 각족 관계사 연구 5. 고구려의 족원과 강역 6. 연변 지역 국제 혼인 문제 연구

7) 윤휘탁, <현대 중국의 변경·민족의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65(2003), 193쪽

8) 공봉진, <중국 신(新)중화주의에 관한 연구-동북공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논총》 4-2:(2007,6), 15쪽

9) 위 논문, 16쪽

위와 같은 연구 내용 및 과제를 토대로 한 동북공정의 주요 일지¹⁰⁾를 도식화 시키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중국 동북공정의 주요 일지 내용

시기(년도/월/일)	주요 일지 내용
1983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에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설립
1998년 6월 26일 ~28일	중국 길림성 통화시범대학 고구려연구소 '고구려 학술토론회'를 개최. 이후 중국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 고구려사 연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을 지시
1998년	'조선반도(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지역 안정에 가하는 충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고, 이 보고서에는 향후 추진해야 할 주요 연구 항목으로 기자조선·위만조선·고구려·발해 등의 역사 귀속 문제 등을 제시
2000년	후진타오 당시 국가 부주석이 중국사회과학원의 '동북공정' 연구계획을 비준·승인
2002년 2월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과 라오닝·지린·헤이룽장 등 3성이 공동으로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상 연구 공정(동북공정)' 출범
2004년 6월	동북공정 사무처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 내용 중 일부를 공개
2004년 8월 24일	한·중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를 정치쟁점화 하지 않고 학술 연구에 맡기는 내용 등에 대해 '구두합의'했다고 발표
2006년 9월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에 18개 연구 주제의 요약문이 공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북공정'이 다시 쟁점화
2006년 10월	한중 정상은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동북공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고대역사 문제'라는 문구로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를 협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 고구려사를 학술적 해결하기로 한 2004년 합의를 준수할 것을 약속

이러한 내용 및 연구 과제·주요 일지 등으로 봤을 때 그들의 동북공정에 대한 참된 의도가 궁금해진다. 왜 동아시아의 역사는 하나다라고 묶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요소들을 진행, 연구했을까?

10) <http://www.donga.com/fbin/output?f=jcs&n=200701260140&main=1>(검색일 : 2008년 10월 17일)

2. 동북공정의 목적

이렇듯 장기간 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중국이 진행한 동북공정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정치 사회적 안정을 기한다. 공산당의 1당 독재체제 하에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를 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이나 생활이 민주주의적으로 변화해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국민적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취해야 함을 감지한 것이다.

둘째, 동북지역 장악 및 역사적 명분을 축적한다. 동북 3성은 漢族이 아닌 기타 소수민족이 전통적으로 통치해 왔고, 특히 조선족은 중국과는 긴박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모국이 있어,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 상실을 우려해 그 지역은 漢族의 속복 하에 있었던 지역이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조선족 통제 및 韓民族 의식을 제거한다.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조선족은 기타 소수 민족에 비해 민족언어 사용 및 전통 문화 보존이 우수하고, 단결력이 강하며 모국에 대한 동경심과 선호의식이 강해 최악의 경우 연방분리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이들의 통제 및 민족의식을 제거하려 노력한다.

넷째, 소수 민족의 분열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중국내 55개 소수민족의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면 쉽게 분리 독립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독립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임을 볼 수 있다.

다섯째, 다민족 통일국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중국은 한족을 포함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 이를 보존·유지하고 다민족 통일국가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중국의 서부지역과 남부 국경지대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동북부 지역의 확고한 영토화를 공고

히 하기 위하여 동북공정을 진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도 영유권 분쟁 차단을 위함이다. 한반도 통일 후,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 외, 올해 8월에 개최된 2008년 올림픽을 겨냥하여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동북지역의 고구려 유적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경제적 목적도 있다.

총괄적으로 정리하자면, 그들이 정치적 의도인 영토 및 다민족통일국가론을 목적으로 동북공정을 진행했음은 위 여러 사례들로 미뤄 봤을 때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이다.

Ⅲ. 동북공정논쟁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한 비교

1. 중국

동북공정 이후, 한국의 여러 학계를 중심으로 중국의 의도 및 목적을 다양한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중국의 현재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 태도를 대내외적 분야로 분리해 서술하고자 한다.

1) 대외적-패권주의 발현

여러 학계·인론계는 동북공정이 학술적 성격을 띠는 중국측 입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들의 동북공정은 현재의 동북아 질서, 나아가 세계 질서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공격적 프로젝트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중국의 입장을 봐도 단지 학술 차원의 연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동북공정의 추진 이유로 동북지방의 안정과 역사가 도전을 받고 있

다는 점을 들었다.¹¹⁾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창출하는데 그 의도가 있음으로 파악하고 있고, 중국은 21세기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 즉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초강대국을 꿈꾸고 있다.¹²⁾

대 한국 측면에서도 동북공정은 단지 고구려사 빼앗기에 그치지 않고, 역사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사 전체를 왜곡할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는 한반도의 정세 변화 특히 북한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하여 만주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관리와 국경문제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고 있다.¹³⁾ 더 나아가 북한이 불시에 붕괴될 때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견해는 동북공정에 관련된 공개 자료들 특히 邊疆史地研究中心에 나타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여 얻은 것이다.¹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한 결과 경제는 성장했지만, 그것이 낳은 폐단 역시 대단히 크다. 계급간의 빈부 격차와 사회주의 정권이 비대해진 경제구조를 통제할 수 없게 되어 가는 현실, 가치관의 혼란, 지역간의 격차 등이 두드러진 모순으로 등장했다.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고 하지만, 결국 자본주의의 이입·확산 현상으로 인해 체제의 이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국민을 통합시킬 요구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지방에는 조선족이 200만이나 거주하고 있고, 이들은 한국이라는 강력한 모국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는 점이 중국으로서는 큰 관심이 아닐 수 없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11) 안병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동북공정〉, 《국제정치연구》 7-2(2004), 56쪽

12) 소치형, 〈중국의 동북공정과 정치적 의도〉, 《중국연구》 23(2004), 8쪽

13) 안병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동북공정〉, 《국제정치연구》 7-2(2004), 56쪽

14) 양지영,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학계의 대응〉,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0쪽

에 없는 현실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¹⁵⁾

또 다른 관점을 보이는 윤명철에 따르면 중국은 동아시아의 패권자가 되려는 은밀한 목적으로, 동아시아의 종주국 노릇할 근거를 미리 만들기 위해 주변 민족의 역사를 변병의 역사로 흡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100년 전 일본의 침략과 역사 왜곡을 병행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20여 년간 연평균 9%가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고,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비중은 급속하게 성장되어 왔다. 이런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정책은 안정적 중점에서 점차 외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중국이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통해 지역질서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가장 우선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은 동북아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¹⁶⁾

또한 북한정권의 붕괴시 한반도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중국의 입장에서 고려해 보면, 그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한다는 보기는 어렵다. 한반도의 통일은 곧 중국이 북한을 잃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토분쟁의 소지를 가진 강력한 통일국가와 인접하게 되는 심각한 주변상황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통일 이후 베트남과 영토분쟁으로 무력충동을 경험한 바 중국은 한반도 통일 이후 그와 유사한 상황의 재현을 우려하고 있을지도 모른다.¹⁷⁾

이러한 사실들로 볼 때 중국의 동북공정은 학술적 목적을 명분으로

15) 소치형, 〈중국의 동북공정과 정치적 의도〉, 《중국연구》 23((2004), 56쪽

16) 김우준·김예경, 〈중국의 대외 전략과 동북공정: 현황과 우리의 대응〉, 《세계지역연구 논총》 22:(2004), 200쪽

17) 양지영,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학계의 대응〉,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11쪽

한 정치적 목적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따른 조선족의 동향이나 국경 문제, 북한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미리 동북공정을 진행한 바, 이는 순수 학문 차원을 넘어 역사를 그들의 정치적 의도인 국민통합에 이용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형적인 패권주의 발현이라 하겠다.

이상의 중국의 동북공정의 패권주의 발현이라는 측면을 정리하자면, 전세계적 패권국으로의 부상, 동아시아의 맹주로의 추구, 북한정권 붕괴 후 한반도까지의 영향력 행사 등을 들 수 있겠다.

2) 대내적-통일적 다민족국가론

동북공정은 중국의 패권국으로서의 부상·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 외, 중국내 내부적 측면에서 볼 때는 동북지방의 새로운 상황 변화에 다른 국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어적 태도로, 중국 내부의 불안정 요소의 제거나 현 국제질서의 유지 등을 지향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구의 92%의 漢族과, 기타 藏族·莊族·蒙古族·回族·滿族·苗族 등의 55개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를 점하고 있다. 그 중 우리의 재중 동포인 조선족은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중국 소수민족의 2.6%를 점하며, 소수민족 중에서는 13번째로 인구가 많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소수민족을 정책상으로 우대 정책을 취해 그들의 독립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독립 문제는 현재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함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요소이다. 특히,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티벳 분리 독립 운동이나 신장내몽고 지역 등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받는 소중한 요소들이라 중국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수민족 독립 문제가 중국 정부에 있어 큰 고민거리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동북지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이 지

역을 주요 집거지로 생활하고 있는 조선족은 한국이라는 강력한 모국을 배경으로 업고 있어 내부적으로 영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불안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조선족이나 기타 독립 가능성이 있는 소수민족의 민족 정체성 혼란을 예방하고 중화민족 논리를 강화·재확립해 중국민으로서의 역사인식을 정립, 소수민족의 독립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상 동북공정의 중국내 내부적 인식 태도는 국경 지역 영토 확보 및 다민족 국가인 중국민의 정서적 분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중국의 역사왜곡 의도가 중국정부 및 학계 측면에서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동북공정에 적극성을 보였음에 반해 우리는 미온적으로 대응을 해온 바, 동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한국

1) 한국인의 고구려사 역사인식 환기

중국의 동북공정의 연구과제 중 한국고대사에 대한 연구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발해에 걸쳐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고구려로서 이를 전문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부 지방 민족정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¹⁸⁾

과거 고구려정권의 귀속에 대해 중국 학계의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동북공정'을 통하여 고구려 역사의 수많은 의견을 대다수의 학자들이 공인·정리하여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단정하여 공식적 견해로 확정 시켜 버린 것이다.

18) 최광식,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고구려사 연구동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33(2004.3), 9쪽

중국의 주장대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하면, 과거 우리의 삼국 시대는 이(二)국 혹은 양국시대로 불러야 할 것인가? 이승휴의 『帝王韻紀』나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 동명왕편 등을 통하여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임은 더욱 분명히 드러나 있고, 이러한 사서를 통하여 우리는 고구려를 신라, 백제와 함께 삼국으로 인식하고 삼국시대라고 칭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민족 침입 방책이었던 만리장성과 같이 우리의 고구려에도 고구려와 당나라의 경계를 위한 천리장성이 존재했었다. 이는 광개토태왕과 장수왕대 고구려가 영락과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고구려가 중원의 조공국이 아니라 중원왕조에 대응하는 동방의 패자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¹⁹⁾

동북공정의 고구려사를 중국역사로 단정시킨 역사왜곡은 몇 년 전 우리사회가 분개했던 일본역사왜곡 교과서 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역사왜곡사건은 단지 일개 검인정 교과서 중에 하나인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된 것이지만, 중국의 역사왜곡은 중국의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훨씬 크다. 고구려사 뿐만 아니라 발해사와 고조선사까지 왜곡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2,000년 밖에 되지 않으며, 공간적으로 한강 이남으로 국한 되게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비교해 보자면,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사건은 일본의 폭넓은 시민사회가 일본교과서 문제에 대응할 때 여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정부와 학계가 동북공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 없다. 그러기에 한중간의 역사분쟁에 대한 해결의 통로는 정부차원으로, 혹은 학술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은 별 관심 없이 묻혀 있던 우리 고구려사를 우리 국민들 눈앞에 소환해왔고, 새삼스레 고구려 역사인식이 또

19) 위 논문, 14쪽

겹게 환기·확장되기는 했다. 고구려는 이제 우리에게 단지 삼국시대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한차례 전사회적 차원에서 민족적 정서와 결합하게 한 매개체가 되어 이러한 기억을 쉽게 버리지 않는 것일 것이다. 일례로 동북공정 후 정부와 학계가 주도하여 학술연구기구인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했듯, 이 과장 효과로 동북공정은 고구려사, 나아가 우리 역사 지키기로 환원되어 우리의 민족의식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유용한 매개체가 된 것이다.

2) 민족주의 및 탈민족주의·동아시아론 등장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국·북한·일본·중국은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다. 2001년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문제로 한국과 중국사회가 크게 동요했고,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으로 인해 2003년에는 한국의 전사회적인 규모의 반발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후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채택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자 한국 및 일본의 시민단체 등이 활발하게 활동·대응해 일단은 일본 극우 세력의 의도를 좌절시킨 성과를 거두기도 해 2005년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교과서 분쟁이 또 한번 재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 전쟁'이라 불리울 만한 두 사건에 한국은 모두 당사자가 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상대국의 일방적인 목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당사국들 간의 충돌은 향후 동아시아의 역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한국 사회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먼저 일방적인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비판의 여론으로 등장한 것이 민족주의 강화론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온 바, 중국이나 일본이 자국의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적 역사관을 주장·강화시키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논의의 수준으

로 발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역사인식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상황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탈민족주의론이나 동아시아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민족과 국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는 역사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로서 한국·중국·일본 등 당사국의 개개 역사가 아니라 이를 모두 합해 동아시아의 역사로 재구성하자는 주장으로, 서양사, 동양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주가 되어 제기한 주장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를 비판하는 논리로, 한국의 국수주의나 중국의 애국주의를 모두 비판하면서 동아시아의 화해를 강조한다. 물론, 고유한 자국의 역사가 존재하는데도 덮어놓고 화해론을 강조하는 것도 여러 비난의 여지가 있겠지만, 한중 역사분쟁이 갖는 위험성을 주지한다면 설득력이 없잖아 존재한다.

위 두 논리는 모두 구체적인 역사인식의 방법론이 아니라, 한국 입장의 일시적인 우발적인 대응이나 대안 혹은 하나의 담론에 불과해 실증적 연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론적 근거를 둔 실질적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한국 사회, 학계에 불러일으킨 파장은 적지 않으며, 이런 논의들이 한국 역사학에 대한 반성의 재고 계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는 향후 한국 역사인식 확대에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정치적 문제로의 인식 전환 필요

동북공정의 배경이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연구 방향이 학술적 차원을 넘어 한중 관계 영향이나,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에 대비하는 정치적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단순히 역사학계를 위주로 한 학술적 문제로의 인식을 넘어, 정치적 문제로 확대·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공정과 관련해서는 또한 근래 중국정부가 국가주의 고양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역사 프로젝트인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과 '중국고대문명탐원공정(中國古代文明 혹은 中華文明 探源

工程)' 등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다. 이들 프로젝트의 이념적 배경에는 전근대적인 중화주의를 근대의 중화민족주의로 변용시키려는 중국 역사학계의 동향이 깔려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²⁰⁾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 정부와 학계는 학술연구기구로서의 고구려연구재단 등을 설립하고, 전반적인 학술연구 등으로 대응적 태도를 취해 왔지만, 중국의 동북공정은 역사연구의 외피를 쓰고 내면적으로는 현실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 이미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측 대응의 범주와 수준은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의 귀속문제, 즉 역사분쟁 운운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외교적 차원보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앞서 말했듯, 이러한 동북공정은 단지 고구려사를 비롯한 과거에 대한 학술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중국 내부의 사회변화 및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 정치문제로 실시된 바, 학술적 공작이라는 외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 채 그 이면은 철저한 현실 전략적 정치문제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여 보다 나은 미래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IV. 동북공정이후 진행 중인 또 다른 역사공정

동북공정이 완료된 후, 고대사를 자국에 유리하도록 조작하여 또 다른 공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련 연구물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필자가 검색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청사공정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청나라 역사를 집대성하는 국가청사찬수공정(國家淸史纂修工程)으로 일명 '청사공정'이라는 국책사업으로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동북공정 핵심인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현대 중국의 판도를 만들어냈던 청대의 영역 속에 포함된

20) 임기환, 〈중국이 동북공정이 남긴 것〉, 《역사와 현실》 62(2006), 6쪽

모든 민족과 그 지역을 중국사의 범위로 확정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서북, 서남, 동북 공정을 차례로 진행시켜 그 성과물들이 모아진 시점에서 숙원사업이었던 청사공정을 본격화 시켰다. 뿐만 아니라 동북공정 당시에는 학술연구일 뿐이라고 변명하던 중국 정부가 청사공정의 경우에는 국책 사업이라고 밝히는 등 과거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²¹⁾

다음으로, 시조공정(始祖工程)이 있는데, 이는 신화속 炎帝(염제)·黃帝(황제)를 역사속 인물로 내세워, 이들이 중화민족의 시조라며 고위관료들이 제사를 지내는 등 '중화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시조공정'이라 칭한다.

예부터 중국의 조상으로 여겨져 온 염제는 중국 신화학계의 거두인 위안커(袁珂·91)가 1986년에 쓴 '중국 신화사'에 상세히 기술돼 있는 신화상 인물이다. 염제는 우리 전설상의 인물 蚩尤 천왕과도 관련이 깊다. 중국인들은 염제가 치우 천왕을 전쟁에서 물리쳤다고 그를 黃帝와 함께 중화민족의 조상으로 믿고 있다. 위안커에 따르면 염제는 고대의 모계사회가 끝나고 씨족사회가 시작될 때 나타난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씨족의 이름이었다. 염제족이 東夷族인 치우를 누르고 후에 황제족에게 복속됨으로써 중화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위안커가 내린 결론은 염제와 황제가 역사상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 인물이라는 것이다.

현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그런 염제를 마치 실제 역사 인물인 양 본격적으로 '제사 대상'으로 삼아 중국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주최로 진행되기도 한다.²²⁾

이렇듯 중국은 우리에게 커다란 숙제거리로 남은 동북공정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시조까지 재편성, 조작하는 '역사왜곡'이나 '진실왜곡'을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하며 사실화 시키려 현재에도 노력하고 있다.

21) <http://blog.naver.com/leehk0079?Redirect=Log&logNo=140035168010>
(검색일 : 2008년 10월 13일)

22) <http://blog.daum.net/rayrong0597/6249364> (검색일 : 2008년 10월 13일)

V. 나가는 말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크게 동요했으나, 현 시점에서 점점 망각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중국에서는 또 다른 자기중심적인 그들 식의 공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들의 참된 의도와 목적을 되짚어 보고, 그에 대해 인식 전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공정논쟁 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를 해봤는데, 이에 대해 우리 한국 사회가 향후 취해할 태도에 대해 잠깐 언급하며 본고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방적인 자국의 여러 목적으로 동북공정을 진행한 중국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며 대결의식으로 감정적으로 응하기 보다는 동북공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역사관 역시 반성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단적인 예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있어 우리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정책적·학술적 요소보다 그들의 주장에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감정적 이론의 글이 많았다.

동북공정과 같은 일방적인 범국가적 공정은 현재에도 앞서 언급한 청사공정이나 시조공정 등과 같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대내적으로는 범국민적 제대로 된 역사인식 교육에 힘쓰고, 아울러 소중한 고대사에 대한 지각 있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역사 분쟁을 위해 상호 공인·공유할 수 있는 역사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강준영, 〈中國의 東北工程 再論〉, 《中國研究》 38(2006)
공봉진, 〈중국 신(新)중화주의에 관한 연구-동북공정을 중심으로-〉,

《국제지역논총》 4-2(2007)

김우준·김예경, 〈중국의 대외 전략과 동북공정: 현황과 우리의 대응〉, 《세계지역연구 논총》 22(2004)

김위현, 〈동북공정 이후 우리학계의 과제〉, 《동양학》 42(2007)

소치형, 〈중국의 동북공정과 정치적 의도〉, 《중국연구》 23(2004)

안병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동북공정〉, 《국제정치연구》 7-2(2004)

양지영,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학계의 대응〉,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여운건·오재성, 《동북공정과 고대사 왜곡의 대응방안》(서울: 한국우리민족사연구회, 2006)

윤휘탁, 〈현대 중국의 변장·민족의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 65(2003)

임기환, 〈중국의 동북공정이 남긴 것〉, 《역사와 현실》 62(2006)

최광식, 〈'東北工程'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고구려사 연구동향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33(2004)

全哲洙, 〈開展東北邊疆問題研究的幾個問題〉, 《中國東北邊疆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고구려연구재단 번역, 《중국의 동북변강연구》:(2004)

王洛林, 〈加強東北邊疆研究, 促進學科建設〉, 《中國東北邊疆研究(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고구려연구재단번역, 《중국의 동북변강연구》:(2004)

<http://blog.naver.com/leehk0079?Redirect=Log&logNo=1400351680>
10

<http://blog.daum.net/rayrong0597/6249364>

<http://www.donga.com/fbin/output?f=jcs&n=200701260140&main=1>

[국문요약]

2002년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이래, 우리는 초기 감정적인 동요 분위기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진화돼 계속 학술적 대응 태도를 고수해 오고 있다. 한국의 대응이 학술적 연구에만 그치는 동안 중국 정부의 목인아래 중국의 동북공정논리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관계로 한국에서의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이 점점 소멸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필자는 본고에서 동북공정논쟁이후의 한중 양국의 인식차이에 대한 비교를 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인식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외적으로 패권주의 발현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의 패권주의 발현이라는 측면을 정리하자면, 전세계적 패권국으로의 부상, 동아시아의 맹주로의 추구, 북한정권 붕괴 후 한반도까지의 영향력 행사 등까지 계획 중이다. 둘째, 중국내 내부적 인식 태도는 국경 지역 영토 확보 및 다민족 국가인 중국민의 정서적 분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한국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인의 고구려사 역사인식에 대한 환기이다. 동북공정의 결과가 어떠하든, 한국사회는 반드시 고구려역사를 환기하고,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둘째, 민족주의 혹은 탈민족주의 및 동아시아론 등의 이론 등장이다. 다민족·다국가가 함께 생존하는 지구상에서 제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 혹은 탈민족주의 및 동아시아론이 함께 등장·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는 학술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은 동북공정을 학술적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그들의 동북공정의 진정한 목적·그에 대한 대응책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내적으로는 범국민적 제대로 된 역사인식 교육에 힘쓰고, 아울러 소중한 고대사에 대한 지각 있는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동북공정, 고구려사환기, 민족주의, 탈민족주의, 동아시아론, 패권주의, 다민족통일국가론

[中文摘要]

2002年中国开始推进东北工程以来, 我们一直坚持了学术的对付态度。中国的东北工程逐渐扩大起来, 韩中两国应该重新认识东北工程。首先中国的立场如下。

第一, 对外, 他们内心向往霸权主义。第二, 对内, 他们力争多民族统一国家论。

反正, 中国希望不只是在中国国内的少数民族统一问题上而且在全世界上出现霸权主义。韩国对东北工程的认识如下。

第一, 韩国应唤起对高句丽的历史认识。无论东北工程结果如何, 韩国社会一定要唤起对高句丽历史, 并重新做考察。第二, 出现了民族主义、脱民族主义、东亚细亚论等的理论。在多民族、多国家一起生存的世界上, 强调自民族的优秀性的就是民族主义或脱民族主义及东亚细亚论等一起在主场。第三, 需要国民觉悟到此问题不是学术问题, 而是政治问题。从开始直到现在韩国认为东北工程是学术问题, 但现在正确分析和把握东北工程的真正的目的, 并要采取相应的对策。对此, 我们致力于开展正确的历史教育, 同时也在历史方面上互相承认、互相协作。

關鍵詞 : 东北工程, 高句丽史唤起, 民族主义, 脱民族主义, 东亚细亚论, 霸权主义, 多民族统一国家论

투고일: 2008. 10. 30.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1990년대 신장위구르족의 민족분리주의 운동과 중국의 민족정책연구

허종국*

1. 서론

4개 현대화의 실현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제기된 국가발전의 목표이며, 21세기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는 안정된 주변 환경이며, 그들의 현대화의 과정이 내부나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는 것이다.¹⁾

장구한 역사를 통해 분열과 통합의 역사를 되풀이해 온 중국으로서는 국내외의 안정된 정치 경제적 환경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고 있다. John King Fairbank는 “‘통합’을 통해 강력한 중앙정권을 형성하는 것은 중국인의 이상이 되었다. 아울러 중국의 지형 특성상 지방 분립할거의 형성에 유리하며, 주나라 말기에는 심지어 100여개의 분립 국가가 나타났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²⁾ 이처럼 어떻게 안정되게 국가

* 영산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학과 교수(hurjk@ysu.ac.kr)

1) 阎学通, 《中国国家利益分析》, (北京: 天津人民出版社, 1996), p.154-161. 阎에 의하면, 1949년 이후 중국은 6차례의 전쟁이나 군사충돌을 겪었다. 한국전쟁(1950-1953), 金门, 马祖(1958), 中印邊境戰爭(1962), 中 소 국 경 충돌(1969), 西沙海戰(1974), 中越邊境戰爭(1979)이 그것이다. 1949-1979년까지 30년 동안 평균 5년에 1번씩 군사충돌을 경험한 셈이다.

의 통합을 유지하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중국지도자들의 지대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990년대 중국의 서부 변경으로부터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했으며, 그중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에서의 도전은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 이런 도전과 사회적 불안은 중국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했다. 과거 서역으로 알려진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중국에게 정치, 경제 및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신장은 유라시아대륙의 요충지로 과거 영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권쟁탈을 위해 첨예한 각축을 벌였던 곳이며, 중국의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교두보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곳에서의 분규나 도전은 과거 세상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1990년대 이후 이곳에서의 분리와 독립요구는 과격한 폭력양상을 띠면서 중앙정부의 권위를 크게 위협했다. 또한 이런 분규는 외부의 '원조'에 힘입어 중앙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이런 분규가 티베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며, 심지어 국가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소수민족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민족간의 단결'없이 안정된 국정도 없으며, 민족지구의 발전없이 안정된 경제발전도 없다고 여겨왔다. 민족관계 혹은 민족정책을 중시하는 중앙지도자들의 인식은 이미 1950년대 중반 마오쩌둥이 발표한 '십대관계론(论十大关系)'³⁾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사실에 기인하여, 신중국 건설이후 중앙정부는 민족정책을 중요한 국가

2) Jonh K. Fairbank, "The reunification of China", by RODERICK MacFARQUHAR and Jonh K. Fairbank,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4: The People's Republic, Part I: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17-23.

3) 毛泽东, 〈论十大关系〉, 《毛泽东选集》第5卷, (北京:人民出版社, 1977), pp.267-288.

정책의 하나로 간주하며 소수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민족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화민족과 신장의 위구르족간에는 민족아이덴티티에서 서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 가지고 있으며, 이런 ‘모순’은 때론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의해 갈등이 크게 증폭되기도 한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국가통합과 안정된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발생한 민족분리주의운동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곳에 대한 중앙정부의 민족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쉽게 풀리지 않는 여러 모순은 과연 어디서 왔으며, 중국공산당은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왔는가?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 어떤 딜레마들이 존재하는가? 본고는 주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장지역에 대한 연구는 과거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다.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떨어져 있는 신장은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복잡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 민족문제는 장기간 ‘금지구역’으로 간주되어 중국 국내에서조차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구려 및 발해 문제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학계에서 중국의 민족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추진과 함께 기업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곳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⁴⁾ 그러나 한국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정보수집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래 중국 국내에서는 9.11 테러이후 세계적인 반테러정서와 이와 수반된 반 이슬람정서에 호소하며 신장위구르족의 극단적인 테러행위를 세계에 공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4) 김동하,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중국연구》 제27호(2001), pp.487-508.

않고 있다는 점은 과거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런 상황의 변화는 신장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사실과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 일부 학자들에 의한 연구 성과가 있으며, 서방에서도 90년대 신장에서의 민족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물들이 다소 출판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이런 자료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민족정책내용이 무엇이며,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와 딜레마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장 위구르족의 민족정체성

신장의 위구르족은 그들의 민족 아이덴티티를 ‘중화민족’과 공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1930년대에 최소 3번에 걸쳐 주권국가건립을 도모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장의 위구르족은 자신들은 하나의 주권국가라고 여긴다.⁵⁾ 그들의 이러한 민족정체성은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5) 1933년 영 제국주의의 힘을 빌어 마호메트 에민(伊敏)은 허티엔(和田)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했으며, 1939년 싸비티다모라(薩比提大毛拉)는 카스(喀什)에서 ‘동 투르크스탄 이슬람 공화국’ 성립을 선언했으며, 1937년에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힘을 빌어 이슬람교 국가의 ‘독립’을 선언하기도 했으나 모두 성공을 하지 못했다. 紀大椿, <泛伊斯兰主义, 泛突厥主义对新疆的危害>, 《事實求是》, 1992年 第3期, p29-33. 《동투르크스탄 역사》의 저자 마호메트 에민은 일찍이 1933년과 1934년에 신장에서 3번에 걸쳐 분열할거 정권과 동투르크스탄 이슬람공화국 건립을 시도했으며, 실패하자 해외로 망명하여 《동투르크스탄 역사》를 저술하였다. 그는 여기서 “돌궐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래의, 가장 문명화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동투르크스탄(신장을 말함)은 돌궐민족의 조국이며, 자고이래로 독립된 국가였다.”라고 주장한다. 钱伯泉, <穆罕默德, 伊敏《东突厥斯坦历史》选段批注>, 《喀什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1年第3期, pp.48-68.

1) 신장 위구르족의 역사적 정체성

신장위구르자치구는 총인구 1,775만(1999년) 가운데 이슬람을 신봉하는 위구르족이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다.⁶⁾ 신장 위구르족은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동투르키스탄’에 두고 있으며, 중국어로 ‘동투’(东突)로 표현되고 있다.

위구르는 중국의 서북에 위치한 이슬람지역을 일컫는다. 이들은 사막이 많은 내륙에 위치해있으며, 이슬람권과 정신적 공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 지역을 그들은 스스로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른다. 위구르족은 중국의 신장위구르자치구를 중심으로 후난성의 타오위엔,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 흩어져 있다.

위구르는(Uyger: 回紇, 迴紇, 回鶻) 중앙아시아 초원에 넓게 퍼져 유목 생활을 하는 투르크계 부족의 일원으로 남북조(南北朝)시대때부터 독자적 움직임이 중국에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독자세력화를 도모하고 초원을 지배했던 유연(柔然) 또는 돌궐(突厥)에 복속되었다가 630년 동돌궐(東突厥, 突厥第一帝國, 552-630)의 붕괴이후 설연타(薛延陀)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데 646년 설연타마저 당조(唐朝)에 무너지고 유목민을 상대로 한 중국의 기미지배(羈縻支配)가 본격화되자 당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었다.

이후 돌궐(突厥第二帝國, 682-745)이 다시 부흥하자 위구르는 그들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740년대 중반 돌궐의 약화를 틈타 바스밀(Basmil), 카를룩(Qarluq)등과 반란을 일으켰다. 그 결과 일시 바스밀이 세력을 차지하나 위구르는 여타 세력을 제압하고 몽골초원을 차지했다.

6) 중국의 《민족통계연감:2000》은 1999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구가 1,775.72만 명이며, 그중 소수민족인구는 1,087만명(61.28%)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제4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1990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전체인구수는 1,498,72만 명이며, 그중 위구르족은 47.97%를 차지했다. 허중국,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한족인구의 증가원인 및 동화정책과의 관련성 연구: 1949년 이후>, 《중국학》 제19집, (2002.12), pp.323-370.

이후 위구르는 안사(安史)의 난(755-765)때 당조를 도운 것을 기회로 경제적 지원을 받아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9세기 전반까지 발전을 구가하던 위구르는 840년 키르기즈(Qiryiz)의 공격을 받아 제국이 붕괴된 이후, 몽골초원을 떠나 주변으로 흩어졌다. 그중 일부는 간쑤성(甘肅省)과 신장성(新疆省, 동투르키스탄)지역으로 분산되어 내려왔다.

새로운 제국인 몽골제국을 세우면서 위구르인의 소왕국들은 몽골제국으로 흡수되었다. 이후 1578년까지 몽골제국(차카타이 칸국, 야르칸드 칸국, 서몽골)의 직간접적인 지배하에 있다가 1700년대 중엽부터 중국에서 새롭게 팽창하고 있던 만주제국(청국)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위구르인이 살고 있던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청과 러시아의 세력다툼에서 승리한 청나라가 1884년 新疆省을 설치함으로써, 몽고족 지배이후 또 한번 만주족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1911년 청조의 붕괴이후에는 군벌의 손에 들어갔고, 국민당을 거쳐 1949년 공산당의 지배를 받게 되기까지 중국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독립국가를 이루려고 몇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1955년 중국 공산당은 이 지역에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를 설치함으로써 위구르족은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⁷⁾

중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고대 위구르족은 일찍이 그들만의 정권을 여러 번 세웠으며, 이런 정권은 중원왕조와 종속성질의 때론 병렬성질의 관계를 가졌다. 아울러 신장은 전한때 부터 중국의 한 구성부분이었다. 중국의 역사학자 뤼전위(呂振羽)는, “믿을 수 있는 문헌(즉 『漢書·西域傳』을 말함)과 출토된 유물에 의하면, 신장이 정식으로 조국의 한 조성부분이 된 것은, 前漢의 武帝때(기원전 140-8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朝貢등과 같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

7) 위구르족 역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재훈, 《위구르족 유목제국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김호동,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서울: 사계절, 1999년).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서울: PUFs, 1998년) 참고.

권력의 행사를 의미한다.” 즉 前漢이후, 兩漢정부는 모두 지금의 신장에 통치기구를 설치했는데, 소위 西域 36國 혹은 56國의 군사·행정기구를 설치했다--都護府 및 그 所屬의 戊己校尉등.”⁸⁾

그러나 위구르제국이 중국과 선린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구르제국은 사실 평등관계에 있었으며, 도리어 중국 조정이 어려울 때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위구르제국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말해 757년, 당조가 안록산의 난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위구르군이 수도 장안까지 진군하여 당조를 구해주기도 하였다. 흉노, 돌궐, 위구르 등의 유목민족이 중국과 ‘화친’이나 ‘조공’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반드시 정치적 복속관계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문자를 확보하려는 그들의 실리적 접근전략이었을 뿐 정치적 복속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정재훈은 당나라 중반이후 투르키스탄이라는 민족성이 형성되었고, 이는 중국과 완전히 다른 문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당 중반이후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크게 후퇴하고 위구르가 그곳에 확산 정착하면서 이른바 투르크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는 ‘투르키스탄(Turkistan)’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그중 일부가 현재 중국령임에도 기존의 이란계 주민들과 이주한 위구르가 융합하면서 독특한 투르크,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해 중국 문화와는 완전히 격절되었다.⁹⁾

신장의 위구르족은 당나라 조정이 629년에 위구르의 독립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서방의 일부 학자들은 새로운 영토라는 의미를 가진 신장(新疆)이라는 글자가 사용되었다는데 대해 의문을

8) 呂振羽, 《新疆与祖国的历史关系》, 国家民族事务委员会政策研究室编, 《中国民族关系史论文集:上集》北京:民族出版社, 1982), p308-309. 歷聲에 의하면, “중국 중원의 西漢중앙왕조는 서역도호부를 건립했으며, 이리(伊犁)를 포함한 모든 서역지구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었다.” 歷聲, 《中俄伊犁交涉》, (北京:新疆人民出版社, 1995), p.6. 楊策主编, 《新疆纵横》, (北京:中央民族学院出版社, 1991), p.4 참고.

9) 정재훈, 《위구르 유목제국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pp.19-21.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근대이후 수차례에 걸쳐 독립을 시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민족정체성을 중국과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2) 신장위구르족의 문화적 정체성

스탈린은 일찍이 피와 역사, 언어, 종교, 공통의 경제생활 등과 같은 요소들은 한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신장 위구르족의 분리주의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이 크게 두 가지 요소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하나는 범 이슬람주의(pan-Islamism)이며, 다른 하나는 범 투르크주의(pan-Tukism)다.¹⁰⁾

범이슬람주의(이슬람민족주의)는 19세기 60년대 70년대에 생겨났으며, 정치적 분열은 이슬람교가 쇠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로 인해 전세계의 이슬람을 믿는 모든 이는 공동의 역사문화전통과 공동의 이익의 요구하에 ‘할리파’가 영도하는 이슬람대제국을 건립해서 서방의 식민주의의 통치에 대항하고 민족독립을 쟁취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범이슬람주의는 초기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전 세계 무슬림이 연합해서 할리파가 통일적으로 영도하는 이슬람제국의 건립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주로 이슬람국가가 공통의 종교 신앙의 기초위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방면의 협력과 교류를 하며, 통일된 이슬람의 율법을 공동으로 준수하는 기초위에 세계 무슬림의 단결과 통일을 주장한다. 범이슬람주의는 형식과 내용에서 다소 변화가 있었지만, 이슬람교를 진흥시키고, 이슬람교를 부흥시키며, 이슬람의 영향력을 확

10) 이 두 사상에 대하여 김선호,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 투르크민족주의와 이슬람공동체>, 《지중해지역연구》 제3집(2001.1), p19-30. 金鑫主编, 《从世界的角度观照中国: 世界问题报告》,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p 28-31, 및 David Wang, "East Tukestan Movement in Xinjiang",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Summer 98, Vol.1 Issue1, pp.1-18참고.

대해서 ‘세계무슬림공동체’를 건립해야 한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 중국은 다른 민족주의와 비교해서 범이슬람주의는 강력한 정치색채를 띠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구르족은 보편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는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어얼훈허(鄂尔浑河)시대에는 살만교와 마니교를 믿었으며, 9세기에는 배화교, 경교(景教), 불교등을 신봉하기도 했다. 이슬람교는 10세기 말에 지금의 아랍에서 신장으로 들어와 먼저 남부신장(南疆)일대에 전파되었으며, 15세기에 이르러 이슬람교가 통치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고 위구르족 전민의 종교가 되었다. 위구르족 대부분은 이슬람교의 정통파로 알려진 수니파를 믿고 있다. 위구르족의 종교조직은 매우 엄밀하며, 각지에 여러개의 教區로 나뉘어져 있다. 위구르족의 사회는 비록 완전한 ‘정교합일’의 사회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종교가 위구르족 인민의 정치, 경제 및 사회생활의 많은 영역에 큰 영향을 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위구르족 역사에서 모든 중대한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종교와 관련이 있으며, 이로써 볼 때, 이슬람교가 위구르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¹¹⁾

범투르크주의는 19세기 80년대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창시자 푸린스(普林斯)는 ‘범투르크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러시아 범 투르크 운동을 한 사상가이다. 그는 러시아의 투르크어를 하는 모든 민족은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먼저 공통의 규범화된 언어와 문화를 수립하고, 그후 통일된 정치조직으로 사상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연합해서 제정러시아의 전체정치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상은 최초 크리미아와 불가해 연안, 아제르바이잔 타타르인(鞑靼人)에서 발생했으며, 후에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크, 투르크메니아 인과 카자흐인, 키르기즈인과 기타 투르크어를 하는 제 민족으로 확대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터기 국내에서 광범위한 지지자들을 만났다. 터키는 범 투르크주의의 중심이

11) 丁文楼, 〈略论伊斯兰教对维吾尔文化的影响〉, 《民族研究》, (1991年 第3期), pp.11-19.

되었다. 범 투르크주의는 ‘투르크민족지상주의’를 선전하며, 민족과 언어를 앞세워 투르크민족의 대제국건설을 주장한다.

80년대와 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고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어를 하는 각 국가들이 독립하자, 범투르크주의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유리아 대륙에 걸쳐져 있는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의 6개국 및 러시아의 체첸, 타타르스탄 및 중국의 신장지역에도 이런 사상은 범람했다.

3. 신장분리주의 운동의 전개과정 및 중국공산당의 대처

1) 1990년대 분리주의 운동전개 과정

(1) 90년대 전반의 분리주의 운동전개 과정

신장에서 중앙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비록 과거에도 존재해왔지만,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그들의 활동은 더욱 ‘공개적’이며, 각 조직들은 외부세력의 원조를 받아 독립을 요구하며 더욱 ‘조직화’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했다.

David wang에 의하면, 1950년부터 1981년까지의 31년 동안 신장에서는 19번의 반혁명무장반란사건이 발생했으며, 194번에 걸친 분리주의와 관련된 반혁명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950년부터 1990년대까지 신장에서 3단계의 범투르크스탄 운동이 발생했다.¹²⁾

첫 번째 단계는 1950년 중국공산당의 신장통치 초기에 일어났다. 이 기간 남부신장(南疆)에서 수차례에 걸친 반혁명 폭동사건이 발생했다.

12) David Wang, "East Turkestan Movement in Xinjiang",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Summer 1998, Vol.4 Issue 4, pp.4-6.

그중 주요한 사건은 1954년 호탄(Hotan)에서 발생했으며, ‘이슬람 공화 프로그램’을 만든 Abdul Imet이 리더였다. 이 시기 신장의 새로운 한족 통치자는 범이슬람주의나 범투르크주의가 있는지에 대해 잘 몰랐다.

두 번째 단계는 1960년대 초 중소관계가 악화됨으로 인해 나타났다. 1959-1961년 대약진운동의 실패는 인민들 사이에 불평을 야기했다. 1962년 4월, 이리(Yili)와 타칭(Tacheng)의 무슬림들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소련으로 망명했다. 중앙정부가 이를 저지하려하자 화난 무슬림들이 이닝 소재 중국공산당 본부를 습격했다. 이후 문화대혁명이 발생한 이후인 1968년 동투르크스탄 인민 혁명당은 두 번째 삼구혁명으로 동투르크스탄 공화국을 건립하려 했다. 1969년 초까지, 동투르크스탄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신장에 78개의 지부를 설립하는데 성공하였다. 1949년 이후 신장의 역사에서 이러한 ‘반혁명적인 조직’은 일찍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중앙정부는 신장에서의 이런 사태를 사회적 혼란을 틈탄 소련의 검은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세 번째 단계는 바로 1990년에 무장한 위구르인들이 동투르크스탄 독립을 요구하며 일으킨 반혁명은 바렌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들의 요구는 유혈로 진압되었다. 이때 중국 당국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슬람 그룹을 비난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바렌에서 동투르크스탄 운동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의 이런 활동이 중국의 근본적인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했다.

1990년대의 신장에서 발생한 민족분리운동은 무엇보다 세계적인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¹³⁾ 그리고 중국정부의 각종 우대정책과는 무관

13) 1980년대 말부터 각 민족들의 정치적인 아이덴티티, 자치와 이탈을 추구하며, 세계각지로 만연된 민족영토수복주의와 폭발적인 종족충돌등의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만연되었다. 타민족배타(xenophobic)란 이런 현상은 인도, 코카서스, 발칸반도와 아프리카 남부등지에서 유혈충돌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캐나다, 영국,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비교적 부유한 나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 Anthony D. Smith, *Nation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Cambridge: Polity Press, 1995), pp.1-2.

하게 신장 위구르족의 독립에 대한 생각은 오랜 기간 잠재되어 있는 듯 했다.

1985년 12월에 1천여 명의 학생들이 우루무치에서 핵실험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체계의 붕괴와 천안문사건과 같은 대내외적 사건들은 이곳에서의 반발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만들었으며, 1989년 천안문 항의 운동(新疆에서 온 2000-3000명의 학생이 있었다)때 다시 일어났다. 시위는 소수민족들의 성 관습에 관한 책을 둘러싸고 시작되었는데, 그 책은 회교도를 조잡하게 모독하는 내용이었다. 1989년 5월 12일 북경에서 2천여 명의 시위대가 그 책의 판매금지를 요구하면서 항의 시위를 했다. 다음날 란저우(蘭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 시위를 했으며 폭동도 발생했다. 정부의 응답은 신속했으며, 이런 책들은 관리들에 의해 회수되어 소각되었으며 판매 금지되었다.

1990년 4월 5일, 60-200명의 시위 군중들은 아커타오현(阿克陶县)의 바렌향(巴仁乡)에서 더 큰 종교적 자유를 요구했다. 숫자가 2000명 정도로 증가되었을 때, 안전요원들이 경계하기 시작했다. 1000명이 넘는 안전요원들이 4월 초 바렌에 배치되었다. 700명의 인민무장경찰(PAP)과 인민해방군(PLA) 및 신장건설병단(XPCC, the 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이 그 속에 포함되었다. 바렌에서 충돌이 있는 후, 아커쑤(阿克蘇), 아투스(阿圖什), 호탄(Hotan), 카스(喀什), 그리고 우루무치 등 신장 도처에서 폭동이 일어났다.¹⁴⁾

신장에는 달라이라마와 같은 대표적인 지도자는 없지만, 90년대 구소련의 해체로 독립을 요구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다. 독립을 회구하는 주도세력은 해외에 있는 위구르족이며,¹⁵⁾ 그러나 신장내에서도 독립세

14) Felix K. Chang, "Fresh Perspectives on East Asia's Future: China's Central Asian Power and Problems", *Orbis*, summer 1997, p 409. 1990년 4월 5일, 중국은 이 사건으로 중국의 무장경찰과 민병 등 8명이 사망했으며, 7명이 중상을 입었다. 金鑫主编, 《从世界的角度观照中国: 世界问题报告》,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력은 다양하게 있으나 군소난립의 형태로 커다란 통일된 조직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1992년 12월 신장 독립세력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의 자금을 원조받아 이스탄불의 '동투르키스탄 민족대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중앙아시아, 미국, 호주, 파키스탄,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스위스 등으로부터 30여개의 신장 독립조직의 대표자들이 회의에 참가 '동투르키스탄 국제민족연합위원'을 발족시켰다. 이 회의에서 '동투르키스탄국'을 국명으로 정하고, 국가, 국기, 국가를 대표하는 휘장의 디자인을 결정했다.

다음해인 1993년 4월 5일, 미국, 독일, 프랑스,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및 중앙아시아의 17개국 위구르인 대표들이 터키에서 다시 국제회의를 열고, 터키계 위구르인 모하메드 리자 빈킨을 정부수뇌로 하여 독립선언을 발표했다. 더욱 UN과 국제인권단체, 이슬람단체에 대하여 중국에 압력을 가하도록 요청하는 등 중국의 민주화운동이나 달라이라마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와도 연대를 강화하도록 호소했다. 이후 신장의 독립세력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저항운동을 급격히 진행하였다.¹⁶⁾

다른 한편, 소련 연방의 해체와 더불어 신장과 접해져 있는 중앙아시아 5개 회교국가, 즉 타지크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독립은 신장 분리주의자들을 더욱 고무시켰다.¹⁷⁾

15) 1960년대에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구소련으로 대량 도망간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해외에 거주하는 위구르인은 많다. 그 대부분은 터키계가 주요민족인 카자흐스탄이나 터키 등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 어느 통계에는 터키에 10만명, 카자흐스탄에 30만명, 그밖의 중앙아시아나 독일에도 많은 위구르인이 이주하고 있다고 한다. 莫邦富, 〈과격, 확대되는 신장 독립운동〉, 《민족연구》 제9호, (2002), P77-81. 이 외에 David Wang은 카자흐스탄에 18만명의 위구르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 David Wang, "East Turkestan Movement in Xinjiang",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Summer 1998, Vol.4 Issue 4, pp.3-16.

16) 莫邦富, 〈과격, 확대되는 신장 독립운동〉, 《민족연구》 제9호, (2002), pp.77-81.

17) 《中國時報》(대만), 1991.12.23 & 1992.12.24.

신장의 독립 조직들은 마침내 더 큰 자유요구를 철회하고 독립을 유구하며 평화적 분리요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1992년 2월, '이슬람 개혁자 당'은 우루무치에서 버스 폭탄테러를 감행해서 3명이 사망했으며,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1993년 6-9월, '동투르키스탄 민주 이슬람 당'은 남부신장(南疆)에서 일련의 폭탄테러를 감행해서 4명이 죽었고 30여명이 부상당했다.

1995년 7월 7일, 테러분자들이 허티엔(和田)시에서 허티엔 지방위원회, 관공서, 보안기관에 대한 소란사건을 일으켰다.

1996년에는 북경정부에 동조하는 인사들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월 22일에는 신허현(新和县)에서 북경정부에 동조하는 종교인사 아커무스디커아지(阿克木司地克阿吉)가 암살당했으며, 5월 12일에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인 아롱한아지(阿荣汗阿吉)가 암살당했으며, 일부 경찰이 신장 북쪽과 우루무치에서 암살당했다. 96년 7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정의당'에 의한 샤야현(沙雅县)의 감옥습격 사건이 발생하여 15명이 사망하였다.¹⁸⁾

1996년 봄부터, 북경 당국은 범죄자에 대한 그리고 분리주의 활동에 대한 '엄타'(嚴打, Strike Hard)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방법을 강구했다. 신장에서는 중국의 안전원들이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동정자들로부터 획득한 무기로 무장한 무슬림들과 충돌을 일으켰다. 1990년 카스(喀什)에서의 폭동 이후, 인민해방군의 여러 전투대대가 아커쑤(阿克蘇)로 돌진했다. 또한 우루무치에서의 무질서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이 또한 필요했다. 이 작은 충돌은 5일간 벌어졌으며, 1700여명의 용의자가 체포된 이후 끝이 났다.

1996년 초, 중국의 권위적인 서적인 『사회백서』는 중국 사회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민족소란과 분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지역의 소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는 점을 감추지

18) 金鑫主编, 《从世界的角度观照中国: 世界问题报告》,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pp.27-28.

못했다.¹⁹⁾

(2) 90년대 후반의 분리주의 운동전개 과정

중국은 1990년 4월, 아커타오현(阿克陶县) 바렌향(巴仁乡)에서 무장 폭동사건이후 신장의 분리주의 추구세력은 폭력화, 공개화, 확대화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²⁰⁾ 그러나 덩샤오핑의 사망과 위구르족의 대외적인 결의로 90년대 후반의 신장에서의 분리독립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1997년, 중앙아시아의 신장 독립세력은 새롭게 회의를 열어 독립운동을 지도해온 원로급의 지도자 아이샤 유스프 알프테킨(Isa Yusuf Alptekin)이 제창하는 ‘비폭력투쟁’을 40년 세월을 허송시키게 한 것‘으로 이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런 논조에 따라 신장내에서의 저항활동은 일반 테러사건에서 도시지역의 버스폭파, 경찰서에의 직접습격 등과 같은 도발형, 무차별적 테러사건으로 확대되어갔다.²¹⁾

97년 2월 5일부터 이틀간 우루무치에서 서쪽으로 500km떨어진 이닝(伊寧)시에서는 1천명 시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7명이 죽고 200여명이 부상당했다.²²⁾

1997년 등소평의 사망은 신장에서의 테러활동을 더욱 격화시켰다. 덩샤오핑의 추모대회가 열린 97년 2월 25일에는 ‘동투르키스탄 민족단

19) 杨荆楚, <1995-1996年民族地区经济社会形势>, 江流主编, 《社会蓝皮书: 1995-1996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6), pp.212-214.

20) 아울러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신장경내에서 최소 200여 차례의 테러폭력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일반백성과 간부 및 종교계 인사를 포함해서 모두 162명이 사망했고 44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金鑫, 徐晓萍著, 《新世纪中国面临的严峻挑战: 中国问题报告》,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pp.59-61.

21) 莫邦富, <과격, 확대되는 신장 독립운동>, 《민족연구》 제9호, (2002), pp.77-81.

22) 중앙일보에서는 10명의 한족이 사망했으며, 10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전함. 《중앙일보》, 97.2.11).

결연맹'이 우루무치에서 폭탄테러를 감행해서 버스 3대가 연쇄 폭발했으며, 9명이 사망했으며, 74명이 부상당했다.²³⁾ 그리고 이 지역은 일시적으로 봉쇄되었다.

“민족단결과 사회안정의 유지, 그리고 신장에서 더욱 개선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부총리 리란칭(李嵐清)이 특사로 파견되어 단결을 강조했다. 폭탄 테러사건이 있는 지 이틀 후, 신장의 자치구 지도자인 왕리취엔(Wang Lequan)은 더 많은 안전원들의 배치로 정세는 마침내 안정되었다고 발표했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런 테러에 대한 소식은 계속 보도되었는데, 97년 4월, 알마아타에 본부를 둔 망명 위구르 분리주의자들이 4월 초순 마나스 강에 있는 수력발전소를 파괴했으며, 이로 인해 신장서부 지역 대홍수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다.²⁵⁾ 97년 4월 24일에는 이닝(伊寧)에서의 주동자 선거공판이 열렸으며, 사형수 3명과 무기형 등 중형을 선고받은 27명을 구하기 위해 충돌이 일어났다.²⁶⁾

이 시기, 북경에서도 이런 소란은 일어났다. 97년 3월 7일 북경에서 버스 폭탄테러가 발생했으며, 2명이 죽고 30명이 부상당했다.

1998년 1월 30일과 2월 18일, 테러주의자들에 의해 카스(喀什)시에서 23번에 걸쳐 독극물투척사건이 발생해서 4명이 중독되었고, 1명이 사망했으며, 많은 짐승이 죽었다. ²⁷⁾

1998년 2월 22일과 3월 30일, 테러분자들은 예칭현(叶城县)에서 6 곳에 걸쳐 폭탄테러를 감행했으며, 3명이 부상당했으며, 천연가스관이

23) 金鑫主编, 《从世界的角度观照中国: 世界问题报告》,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p.27. 《조선일보》, 1997년 2월 27일. (조선일보는 7명사망에 26명 부상이라함)

24) Felix K. Chang, "Fresh Perspectives on East Asia's Future: China's Central Asian Power and Problems", Orbis, summer 1997, p.411.

25) 《조선일보》, 97년 4월 14일

26) 《조선일보》, 97년 4월 28일).

27) 金鑫主编, 《从世界的角度观照中国: 世界问题报告》,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p.27.

폭파되었다.

1998년 3월, ‘동투르키스탄 민족센터’의 테러에 의해 주 이스탄불 중국 총영사관에 폭탄테러를 감행했다.

2000년 1월 25일, 마스현(马什县)의 두 한족가정에 대한 습격사건이 발생했다. 한곳은 7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당했으며, 가장 어린 아이는 2살이었다. 1월 26일, 신허현(新和县)에서 60세 한족 노인이 살해당했다.

2000년 5월, ‘위구르해방조직은 비스카이커(比什凯克)중국 상품시장에 대한 방화사건을 일으켰으며, 이 안전을 처리 조사하던 중국인 1명을 살해했다.

2000년 9월 28일, ‘위구르해방조직’의 조정에 의해 아라무투(阿拉木图)에서 2명의 카자흐스탄 경찰이 살해당했다.

1999년 12월, 18개국 40개 이상의 독립조직을 대표하는 300명 전후의 관계자가 이스탄불에 모여 무력으로 건국한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10년 이내에 1만 명 이상의 정규군을 창립하여 신장에서의 테러작전 이외에 게릴라전 내지 정규전을 행한다는 공통의 인식에 도달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신장 독립조직이 많은 회원들을 아프가니스탄, 체첸, 카슈미르 등의 전장에 파견하여 실전훈련을 받게 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의 지구와 국가에 20곳 이상의 군사훈련기지를 만들어 1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신장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테러사건을 일으켰다.

신장위구르족과의 모순과 갈등으로 인한 대립은 21세기 들어서도 그치지 않았다. 2001년 8월 7일, 인기 관광지 쿠차에서 무장한 신장 독립그룹과 총격전이 벌어져 그곳의 공안국장이 사망하기도 했다.²⁸⁾

신장에 대한 북경당국의 안전유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민족분규는 90년대 중국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의 신장의 민족운동의 특징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들에

28) 莫邦富, 〈과격, 확대되는 신장 독립운동〉, 《민족연구》 제9호, (2002), pp.77-81.

게 보다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이로 인해 ‘분리’와 ‘독립’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폭력적인 테러현상도 동시에 나타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현상의 지속적인 유지는 북경당국으로 하여금 지역안전뿐 아니라 ‘민족평등’과 ‘민족단결’을 주장하는 그들의 민족정책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게 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2) 신장의 도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대처

21세기 접어들어 신장위구르족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들이 전해진다. ‘9.11’테러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인 2001년 10월 어느 날, 중국의 대중매체에서는 ‘동투’(东突, 동투르키스탄)라는 중국인에게 매우 낮은 용어 하나가 테러주의라는 면모로 처음으로 전해졌다. 또한 외교부 대변인 주방짜오(朱邦造)는 2001년 10월 19일 거행한 기자회견에서 일부 민족분리세력들이 폭력수단을 동원해 신장을 중국에서 분리 독립시켜 소위 ‘동투르키스탄’(동투(東突))을 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방짜오 및 신장 위구르자치구 정부는 각각 2001년 11월 14일과 12월 9일에 뉴스상으로 ‘동투르키스탄’테러분자들이 야기한 일련의 유혈테러 상황을 소개했다.²⁹⁾

또한 중국에서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분리세력에 의한 ‘테러활동’을 소개한 책자가 출판되었다. 민족문제를 금지구역으로 간주하고 있던 중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적이 출판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필자가 구입한 두 서적³⁰⁾ 들은 신장위구르족의 분리독립에 대한

29) 金鑫主编, 《从世界的角度观照中国: 世界问题报告》,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pp.1-43.

30) 金鑫主编, 《从世界的角度观照中国: 世界问题报告》,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과 金鑫, 徐晓萍著, 《新世纪中国面临的严峻挑战: 中国问题报告》,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을 말함, 당시의 테러발생상황을 소개하는 자료는 매우 많은데, 영문자료로는 Chang의 문장은 90년대 신장지역에 대한 민족분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다. Felix K. Chang, "Fresh Perspectives on East Asia's Future: China's Central Asian

기본내용과 더불어 유혈사태 및 각종 '테러'발생상황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다.

그러나 '9.11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중국 중앙정부의 신장에 대한 정책은 이렇게 공개적이지 않았다. 90년대 신장 위구르족의 분리주의에 대해 '반테러'와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1) 엄타(Strike Hard)정책의 실시.

분리주의 세력에 의한 파괴적인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1996년부터 엄타정책을 실시했으며, 오늘날에도 이런 행위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국가안전과 사회안정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동투르키스탄 분리주의자들의 테러에 대해서는 그 근원부터 잘라 없애야 한다고 여기며, 조직이 드러나기만 하면 타격하는 전략(이른바 '露头就打')을 사용한다.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도 동시에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변경과 항구 세관의 안전검사를 철저히 해서 테러분자들의 입국을 차단하며, 외국의 주 중국 기관과 사절 및 기타 중국을 찾는 귀빈의 보호를 강화하며, 테러습격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반테러 정보수집과 대책을 연구하기도 한다. 반테러활동을 주요 임무로 하는 특종 경찰부대를 건립했으며, 각종 반테러 연습도 진행하고 있다. 각종 범죄집단과 폭력집단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서 이들이 테러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반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유관법안과 메카니즘을 조절하기도 한다.³¹⁾

신장의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통제는 또한 군인이나 신장의 건설병단

Power and Problems", Orbis, summer 1997. 또한 중문자료는 莫邦富, <과격, 확대되는 신장 독립운동>, 《민족연구》 제9호, (2002), pp.77-81의 자료가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다.

31) 金鑫, 徐晓萍著, 《新世纪中国面临的严峻挑战:中国问题报告》,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pp.73-74.

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인민해방군의 란저우 군구(蘭州軍區)의 21군과 47군은 신장의 질서유지를 맡고 있으며, 이 외에 닝샤(寧夏)· 산시(陝西)·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난닝(南寧)에서도 이곳을 경계하고 있다. 란저우 군구(蘭州軍區)는 2개의 집단군(集團軍)이 있는데, 1개 장갑 사단과 12개 보병사단으로 형성되어 있다.³²⁾ 90년대 분규가 발생했을 때, 신장의 건설 병단과 인민무력경찰부대가 이들을 감시했다.

신장 건설병단은 신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병단은 1954년 12월 5일에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신장건설병단은 1990년대 말에 230만 명이 넘는 방대한 조직으로 발전하였고, 병단의 90%가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단에는 한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회족, 몽골족 등 37개 민족이 있고, 종교도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이 약 25만 명 정도에 불과하여 비록 병단의 민족구성에 변화가 있어도 여전히 절대다수가 한족이다.

이 병단은 전국 총 12개의 병단중에 70년대에 전체적으로 폐지되었다가 1981년에 신장생산건설병단만 부활하여 현재까지 유일한 병단으로 남아 있다. 1960년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신장이 서북지역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지위가 갈수록 높아졌는데, 1962년 '伊塔사건'으로 수만의 변민이 도망가 사회적 혼란과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을 통해 당 중앙은 병단이 신장사회의 안정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민족분열을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변경지대에 병단으로 변경농장을 건립케 하여 방위와 생산을 강화시켰다.³³⁾

32) Felix K, Chang, "Fresh Perspectives on East Asia's Future: China's Central Asian Power and Problems", Orbis, summer 1997, p 418, 《中國時報》, 91.12.12. (Military Balance 1996/97, pp.179-80.)

33) 신장건설병단은 중국과 인도 변경분쟁 때 후방지원임무를 맡아 물자공급을 하기도 했다. 또한 1962년 변경민 도망사건 발생후에는 간부, 노동자, 차량 및 농기구들을 동원하여 농작물과 토지 및 목축을 관리하는 일도 하였다. 또한 신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소요중 1962년 '伊塔사건', 1990년 '巴仁乡사건' 과 1997년 '2.5伊梨사건' 등 여러 돌발사건에서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적극적

9.11 테러가 발생하기전 중앙정부의 신장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통제는 그렇게 공개적이지 못했다.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전세계적인 반테러와 반이슬람 정서에 편승하면서 중미간에 반테러 협력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런 변화는 신장에 대한 통제에서 중앙정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면을 맞이하게 했다. 중국은 9.11테러사건을 단순한 국내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신속히 공조를 표명하였다는 것은 대의명분에 대한 순응이상의 중국의 국내사정과 국제적 역학관계가 나름대로 분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⁴⁾ 미국은 대 아프가니스탄 공격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데도 중국이 이를 용인하고 신속히 협력한 것은 신장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산된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또한 21세기 들어 국내적으로 대대적으로 서부대개발 정책을 추진하던 중앙정부로서는 서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외부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이를 통해 동부에 필요한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의 안정된 통제는 대량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다.³⁶⁾

으로 개입하여 처리한 경험이 있다. 박선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판도형성과 신장>, 《중국사연구》 제44집(2006.10), pp.419-425.

34)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가치와 미국, 중국,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관계에 대해 중국학자가 쓴 문장은 张文本, <美国的石油地缘战略与中国西藏新疆地区安全>, 《战略与管理》, (1998年, 总第27期), p.p100-104). 9.11테러와 중국과의 관계는 이동률, <9.11 테러와 중국의 갈등과 선택>, 《당대비평》 통권 17호(2001.12), p203-213. 그 외 테러리즘에 대해 소개해놓은 문장은 서정민, <테러리즘과 알카에다: 국제테러의 구조적 배경>,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8호 2호(2008), pp.89-111 및 박기범, 강민완, 전용태,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동지역 테러리즘의 이해>, 《경호경비연구》 제12호(2006), pp.149-175.

35) 9.11테러와 중국의 반응과 인식에 대해서는 이동률, <9.11 테러사건에 대한 중국의 반응, 인식 그리고 전략>, 《중국학연구》, 제23집 제1기(2002), p1-26참고. 장진용, <9.11테러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반응>, 《신아시아》 제9권 제1호(2002년 봄), pp.74-89.

중국의 이런 신속한 행동은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적 이익앞에 강대국과 서방의 대중국 인권비난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혀 지곤 한다.³⁷⁾ 이런 사실들로 인해 신장의 분리주의자들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2) 국내 분리주의 세력과 인접 국가 테러조직과의 연계 차단 정책의 실시

신장의 테러주의와 분열세력에 대해 중앙정부는 엄타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국내와 국외의 근본과 결가지를 동시에 치료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표본겸치’(标本兼治) 전략도 동시에 추진한다.

현재 중국 경내에는 4개의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 즉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동투르키스탄 해방운동’, ‘세계 위구르 청년 대표대회’, ‘동투르키스탄 소식 센터’가 그것이다.³⁸⁾ 중국 경내의 모두를 포함하면 위구르조직은 약 5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중요한 조직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2002년 9월 11일에 UN으로부터 테러조직으로 지목받았다. 그 외에 ‘세계 위구르 청년 대표대회’, ‘동투르키스탄 소식 센터’(东突信息中心),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알라당(真主黨)’, ‘동투르키스탄 이슬람당’,

36) 한 연구에 의하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지난 50년간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이권추구라는 불변적인 요인이 지속되었다. 냉전시기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무자헤딘이라는 저항단체를 지원해왔고, 송유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탈레반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한다. 유달승, 〈아프가니스탄 분쟁〉, 《중동연구》 제20호(2001), pp.179-199.

37) 기 소르망은 서방은 천안문사건과 같은 대형인권유린사건이 발생하면 중국에 대한 무기판매금지조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혹은 경제적 이익앞에 이런 인권에 대한 비난도 매수당하고 만다고 비난하고 있다. 기 소르망, 《중국이라는 거짓말》, (서울: 문학세계사, 2006), pp.33-70.

38) 王雷鳴, 沈路濤, 〈反恐: 中国锁定首批目标〉, 《环球军事》第4期(2008), pp.4-5.

‘동투르키스탄 반대당’, ‘동투르키스탄 해방조직’, ‘동투르키스탄 성화당(星火黨)’, ‘동투르키스탄 청년당’ 등이 있다.³⁹⁾

중국경내의 조직들은 정도가 다르게 국외로부터 자금을 포함한 각종 지원을 받는다. 동시에 국제테러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떤 경우는 국제조직의 하부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남아시아에서 활동하는 ‘동투르키스탄’ 테러조직은 빈 라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또한 빈 라덴의 중요 골간 역할을 한다. 중국 경내의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은 빈 라덴의 지지로 수립되었고 또한 그의 지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 조직은 또한 성립된 이래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테러조직들과 긴밀하게 왕래하고 있으며, ‘동투르키스탄’ 테러조직이 신장에서 성전을 진행해서 신장에 ‘이슬람’의 정교합일의 국가를 세우도록 도와준다.

빈 라덴이 이끄는 테러조직은 ‘동투르키스탄’ 독립 세력을 위해 대량의 활동경비와 물자를 원조해준다. 1999년 초, 빈 라덴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의 지도자를 만나 자금원조를 약속하는 동시에, 모든 행동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해방운동’과 탈레반과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2001년 2월, 빈 라덴의 테러조직은 탈레반 고위인사와 칸다하(坎大哈)에서 ‘동투르키스탄’의 독립운동을 돕는 일에 협상을 했으며, 또한 이들의 훈련을 돕기 위한 거액의 자금을 모으는 일에도 결정했다.

빈 라덴은 신장의 분리주의자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칸다하(坎大哈) 등 여러 훈련장에 인원을 파견해서 훈련을 시킨다. 훈련을 받은 후 이들의 일부는 신장으로 암암리에 들어와 신장의 테러조직을 발전시키거나 혹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무장부대에 참여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체첸공화국의 테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중앙아시아의 테러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1999년 8월, ‘동투르키스탄’ 테러주의자들은 키르기스스탄 남부 침입에

39) 金鑫, 徐晓萍著, 《新世纪中国面临的严峻挑战:中国问题报告》,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pp.60-61.

참여하여, 4명의 일본인 과학자에 대한 인질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2000년 8월 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남부산악지역에 침입하여 현지 정부군을 습격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⁴⁰⁾

북경당국은 특히 중앙아시아의 소위 ‘3대 세력’과의 연계성을 크게 경계하며 대처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주체민족들은 신장의 소수민족들과 민족성이 같으며, 언어와 종교 및 문화적인 전통을 같이하며, 피차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이슬람을 믿는 지역으로, 무슬림인구는 전체인구의 73%를 차지한다. 북경당국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공백이 생겼으며, 동시에 이곳에서의 이데올로기의 공백을 이슬람이 채우게 되었다고 여긴다. 신장에서의 분리주의자들의 파괴적인 테러행위는 바로 중앙아시아의 ‘3대 세력’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3대 세력’에 대한 척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앙아시아에서의 이 3대 세력의 근원은 크게 2가지에서 생긴다고 여긴다. 하나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며, 다른 하나는 ‘우즈베키스탄 이슬람부흥운동’이다. 북경당국에 의하면, 많은 신장에서의 ‘동투르키스탄’ 분리주의자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을 받기도 한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신장 침투를 위한 교두보이며, 신장으로 무기와 탄약, 인원잠입, 폭탄테러활동 등을 하며, 중국의 변경지구에 무장습격을 하기도 하며, 신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신장 경내의 민족분리주의자들은 국외의 분리조직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다. 이들은 민족분리조직의 힘을 확대하기 위해 횡적 연합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들은 국제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티베트 독립운동’과 ‘내몽고 독립운동’과 같은 연합체와도 연계를 하고 있다. 1993년 ‘동투르키스탄과 티베트, 내몽고 인민위원회’가 독일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경내외의 위구르족, 티베족, 몽고족 연합행동을 호소하고, 한족의 통치를 전복시켜야 하며, 또한 “중국의 신장에서의 핵

40) 金鑫主编,《从世界的角度观照中国: 世界问题报告》,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pp.60-61.

실험 및 대규모의 이민정책이 중앙아시아 국가 및 인도차이나 대륙의 안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과 위협을 준다.”고 발표했다.⁴¹⁾

상해협력기구(SCO)의 창설과 운영은 신장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또 다른 가장 핵심적인 조치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경당국은 신장에서의 테러활동은 중앙아시아의 인접국가들에 존재하는 ‘3대세력’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테러척결과 분리주의를 차단하려고 한다. 2001년 6월 15일에 탄생한 상해협력기구(SCO)는 중국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은 회원국이며,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은 준회원국이다.

상해협력기구의 탄생과 ‘반테러’활동으로 중앙정부의 신장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통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2000년 4월, 5국의 안전 책임자들이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거쳐 반테러와 관련된 논의를 거쳤으며, 7월에 ‘상해5국’ 지도자들은 타지크스탄 수도 두상베에서 제5차 회의를 거행했으며, 지도자들은 “지역의 안전, 안정과 발전에 주요 위협이 되는 민족분열주의, 국제테러주의와 종교극단주의 및 불법무기판매, 마약과 불법 이민등의 현상에 대해 공동으로 타격한다.”는 것을 다시 선언했다.

2001년 6월 15일, 상해협력기구가 성립되는 날,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크스탄, 그리고 새로 가입한 우즈베키스탄의 6개국 원수들은 《테러주의, 분열주의와 극단주의 타격을 위한 상해 공약》에 서명했다. 이런 조약들과 이후 체결된 여러 협의들을 통해 각 국가들은 본국영토내에서 테러분자들의 훈련을 금지하며, 테러활동에 물자를 제공하지 않으며, 테러분자들에게 보호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들에 대해 협의를 거쳤다.⁴²⁾

41) 金鑫主编, 《世界问题报告》,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2), 30-31.

42) 보다 자세한 내용은 邢广程等著, 《上海合作组织研究》, 北京:长春出版社, 2007, pp.73-83과 李敏伦, 《中国“新安全感”与上海合作组织研究》,

이와 더불어 상해협력기구를 통한 대규모 군사훈련은 신장의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2001년 8월, 중국은 신장에서 50,000명의 군인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⁴³⁾

이 외에 중국은 여러 가지 반테러와 관련된 국제조직과 기구에 가입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반테러활동도 동시에 수행한다. 예를 들면, 2001년 《테러주의 폭발을 제지하는 국제공약》에 가입했으며, 중국은 이미 12개의 반테러관련 국제조직중에서 11개의 국제조직에 가입하고 있다.⁴⁴⁾

상해협력기구의 설립취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그중 신장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는 중요한 취지의 하나로 간주된다. 즉 상해협력기구를 통한 분리주의 세력의 척결이 중국에게 있어서 가장 수위의 국가이익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앙아시아의 '3대 세력'의 척결과 에너지 안전의 확보,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중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국가적 이익에 속한다.⁴⁵⁾

중앙정부의 이런 다양한 정책의 실시로 신장에서 문제해결과 안정으로 도모하고 있다. 국가주석 후진타오도 2004년 6월 17일, 상해협력기구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3대 세력에 대한 척결을 강조한바 있듯이, 중앙정부의 반테러활동에 대한 통제는 계속될 것이며, 신장의 분리추구세력들의 활동무대와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北京:人民出版社, 2007), pp.76-103.

43) Elizabeth Van Wie Davis, "Uyghur Muslim Ethnic Separatism in Xinjiang, China", Asian Affairs, (2008), pp.15-21.

44) 金鑫, 徐晓萍著, 《新世纪中国面临的严峻挑战: 中国问题报告》,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p.73.

45) 邢广程等著, 《上海合作组织研究》, (北京: 长春出版社, 2007), pp.148-158.

(3) 민족정책상의 각종 우대정책의 실시

신장위구르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민족정책은 이런 업타와 같은 강경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신장위구르자치구를 포함한 중국의 민족정책은 건국초기부터 나름대로 매우 온건하고 신중한 정책을 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과 배려도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흐름과 시대환경의 변화속에서 이런 정책들도 때론 왜곡과 파행의 길을 걷기도 했다.

건국초기 전국의 민족정책과 마찬가지로 신장에서도 민족구역자치제도가 가장 중요한 민족정책으로 추진되었다. 1955년 9월에 중국은 新疆省에 대한 建制를 취소하고, 10월 1일에 정식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가 성립되었다.⁴⁶⁾ 신장위구르자치구는 건국 후 처음 개설된 자치구라는 의의가 있으며, 이후 신장의 지역과 민족분포⁴⁷⁾를 고려하여 자치구와 자치주도 건설되었다. 현재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5개의 自治州와 6개의 자치현, 그리고 42개의 자치향이 건설되어 있다.⁴⁸⁾

1950년대는 소수민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함께 각종 법적 제도적

46) 马雍州, 〈新疆人民民主政权建设浅析〉, 《新疆社科论坛》, 1991年 第3期, pp.23-26.

47)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가지는 민족분포는 어떤 지역은 大集居, 小雜居, 어떤 지역은 大雜居·小集居라는 2종류의 분포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이곳에서는 위구르족과 한족을 포함하여 47개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다. 그중 만명 이상의 민족은 모두 10개가 있다.(『民族知識手冊』, 1990, 140) 즉, 漢族 및 위구르족 외에 카자흐족·회족·키르키즈족·蒙古족·錫伯족(Xibe)·타지크족·만주족·우즈베크족들이 있다(『中國民族指南』, 1990, 196).

48) 인민정부는 민족단결과 평등 및 공동번영발전이란 민족정책의 기본 원칙에 의거해서 소수민족인구가 비교적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방에 바인귀룽(巴音郭楞)몽고 자치주, 창지(昌吉)회족자치주, 커쯔러쑤(克孜勒蘇)키르키즈 자치주, 버얼다라(博尔塔拉)몽고 자치주, 이리(伊犁)카자흐 자치주 등 5개 자치주(自治州)와 다스쿠얼간(塔什库尔干)키르키스탄 자치현을 포함한 6개 자치현을 설립하였다. 또한 산거(散居)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은 그곳에 비교적 다수가 거주하는 인구수에 근거해서 42개의 민족향(民族鄉)을 건립했다. (『中國民族指南』, 1990, 196).

정비가 함께 이루어졌던 시기다. 중앙 당의 정책(慎重穩進)에 근거하여 모든 민족 업무는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비록 장기간 누적되어온 민족감정으로 인해, 혹은 대 한족주의에 의한 소수민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파행적인 정책, 현지의 민족업무 종사자의 획일적인 정책시행들로 인해 소수민족지역에서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50년대는 중국 민족정책의 황금기로 불릴 정도로 전반적으로 소수민족에게 정책상 지대한 관심을 보인 시기였다.

그러나 50년대 후반이후 중국의 민족정책은 파행으로 치달으며, 모든 민족정책들도 좌경사상과 계급논리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런 ‘좌’경 사조의 확산은 신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58-1959년 대약진으로 인해 신장에서 소란이 발생했으며, 1962년에 강압통치와 빈곤으로 인해 소련으로 6만여 명의 인구 유출이 있었다. 극좌노선에 의한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중국 국내에 큰 긴장 불러 일으켰다. 민족에 대한 모든 정책은 실종되었으며, 민족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계급논리에 의해 인식되고 처리되고 있었다. 모스크(회교사원)는 강제로 폐쇄되었고 기도가 금지되었다. 이때 더 많은 위구르인들이 아커쑤(阿克蘇)부근에서 중소국경으로 달아났다.

1970년대에 이르러, 국내적 국제적인 사건들은 이 지역에서 이들이 새로운 이슬람 아이덴티티를 일으킬 조건을 제공했다. 70년대 말 80년대 초, 전 세계의 이슬람 국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중동지역에서 세계를 진동시키는 일련의 중대사건들이 발생했다.⁴⁹⁾ 이 시기 중앙아시아

49) 1979년 2월, 이란의 수백만 무슬림들은 종교지도자 호메이니의 영도하에, 세계를 진동시킨 “이슬람혁명”을 추진시켰으며, 당시 “세계 제5대 군사강국”으로 칭해졌던 이란의 팔레비 국왕정권을 전복시키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건립했다. 1979년 11월에는 이슬람의 성지로 알려진 “메카”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이들은 스스로 “구세주”로 칭하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실정부의 전복을 선언하기도 했다. 1979년 12월, 구 소련 10만 군사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으며, 이곳의 무슬림 유격대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그들은 이슬람 “성전”의 기치하에, 소련군과 10여 년에 걸친 전쟁을 수행했으며,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肖選, 1994, 52-57과 80-91).

아와 북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이슬람근본주의의 발흥은 신장 뿐 아니라 소련의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덩샤오핑의 복권으로 중국의 민족정책도 비로소 제 모습을 찾게 되었지만, 오랜 기간의 극좌노선과 파괴적인 행위는 소수민족들에게 큰 피해의식으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민족정책은 법적 제도적 장치 아래 다방면에 걸쳐 착실히 시행되고 있다. 그중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수민족에 대해 많은 우대와 배려를 해 주고 있다.⁵⁰⁾

소수민족지역의 경제개혁과 경제발전 방안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⁵¹⁾ 첫째, 특수한 조치 및 우대조치를 들 수 있다. 과거 중국정부는 50년대부터 소수민족에 대한 저금리 정책 등 다양한 재정상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또한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수방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해왔다. 둘째, 소수민족지역은 자연환경이 열악하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교통도 불리한 지역이다. 농촌에 대한 세금혜택을 제공하거나, 민족지역공업에 대한 많은 권한을 부여해오고 있다. 셋째, 빈곤퇴치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기금 조성 혹은 자원기금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소수민족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해 국제조직과 협력하기도 하고, 동부의 성과 시에서 소수민족지역의 빈곤퇴치를 위해 연합해서 돕는 일을 하기도 한다. 넷째, 소수민족지역과 내륙과 횡적경제 연합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동부지역의 기술과 자금 그리고 소수민족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지원한다. 또한 성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지의 省과 市가 조직적으로 내지의 성과 시를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신장지역은 상해시가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지역은 육지변경선이

50) 중국의 학자들은 서방인들은 중앙과 소수민족과의 역사적, 정치적 관계에만 집중할 뿐,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이 어떠한지는 잘 모른다고 비판한다. 马戎, 《西藏的人口与社会》, (北京:同心出版社, 1996)참고.

51) 허종국, “덩샤오핑시기 중국 민족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1978-1989)”, 《영산논총》, 제10집, 2002년, pp.1-28.

19,000km로 12개 국가와 접해져있다. 80년대 이후 중앙정부는 일련의 우대정책을 취해서 대외개방정책을 취해 오고 있으며, 변경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외환관리에 대한 우대정책을 취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티베트는 유입된 외화를 100% 남겨두며, 신장을 포함한 다른 4개의 자치구는 외환을 50% 남겨두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1993년에 전국 변경무역총액은 5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⁵²⁾, 1992년에는 중국은 다시 13개 변경도시를 개방하여 전방위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신장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에 있다고 여긴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에서 발간한 《중국민족발전보고》란 백서에 의하면,⁵³⁾ 중앙정부는 민족평등, 민족단결, 화해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치구는 지속적으로 민족단결교육, ‘반 분열투쟁 재교육’과 마르크스주의 五觀(조국관, 민족관, 종교관, 역사관, 문화관)교육을 실시하며,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도로에 대한 4개의 아이덴티티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이 백서는 경제부분을 포함한 몇 가지 내용의 항목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째, 서부대개발의 진행과 더불어 최근 중앙의 신장의 경제건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중앙의 신장에 대한 누계투자액은 17,222,465억 위안으로 중앙에서 투자한 액수가 신장에 대한 전체 투자액의 35.71%를 차지했다.

둘째, 소수민족간부배양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민족간부는 민족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의미외에 자치권한의 귀속여부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의 소수민족대표는 건국 초기 15%정도 되었다가 1960년대와 1970년대는 10% 이하까지도 하락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집권 이후 비율은 많이 높아져서 대략 14-15%에 이른다.⁵⁴⁾

52) 国务委员, 国家民委主任司马义艾买提, <在改革开放中促进民族地区经济更快地发展>, 《中国民族统计年鉴:1995》(北京:民族出版社, 1995), p19-24.

53) 李建生, <新疆民族发展报告(2000-2005)>, 《民族问题研究》, 2006年12期, 36-42.

54) 《인민일보》, 1993년 2월 20일, 3월 11일. 郝时远, 《中国的民族与民族

아울러 현재 자치구 인민정부의 정, 부주석의 60%는 소수민족이 간부를 맡고 있다. 현재 자치구내 14개 地區(州, 市)의 주요 책임자는 모두 소수민족간부들이 맡고 있으며, 99개 縣(市, 區)長중에 소수민족간부는 82명이며 전체의 82.8%를 차지한다. 이 외에 신장위구르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지방성 법규로 114건이 시행되고 있는데, 55) 이는 민족평등정책의 실현으로 간주된다.

셋째, 종교 신앙에 대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신장지구에는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및 동정교 등 6종류의 종교가 있으며, 각 종교 활동 장소도 24,050곳에 이른다. 중앙정부는 2001년 중앙의 종교 공작회의에 이어 자치구 당위원회와 정부는 민족종교공작을 신장통치와 안정을 위한 업무의 중점으로 삼고 당의 민족과 종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각종 정식 회의나 문건에서 여러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소수민족 언어문자와 풍속습관에 대한 정책을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

4. 민족정책 실천과정에서의 여러 딜레마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때론 물리력을 동원한 강한 통제수단에 의해 혹은 경제적 혜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대정책과 배려라는 수단을 통해 혹은 외교수단까지 동원해서 이곳에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역사과정에서 증명하고 있듯이 중앙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난제와 딜레마를 안고 있다. 90년대 중앙정부가 고민했던 문제들과 또 향후 장기적으로 딜레마로 남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问题》, (北京:江西人民出版社, 1996), p.147.

55) 张遇良主编, 《中国西部: 新疆》, 北京:五洲传播出版社, 2001), 14.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중화민족’의 아이덴티티와 중앙정부의 통치이념의 약화

덩샤오핑의 집권이래로 그리고 확실하게는 구소련의 붕괴이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중국 사회에서 많이 느슨해졌다. 1990년대 초에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주장했으며, 국가경제발전을 더욱 자극하기 위한 시장 경제로 향한 실용주의의 주장은 공산주의에 대한 호소력을 더욱 잠식시켰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인가된 그러나 다른 것이 희석된 공산주의 형태는 중국에서의 공산주의의 경험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신장지역의 분리독립운동의 추구는 중국 공산당의 권위의 합법성 및 통치 이데올로기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했다.

신장의 분리주의 운동을 분석하고 있는 한 문장에서 장(Felix Chang)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즉 만약 공산주의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면, 혹은 만약 더 큰 자치나 분리를 요구하는 위구르와 같은 민족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분리주장이나 테러활동을 한다면 어떻게 중국당국 혹은 중국공산당(CCP)은 합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중국공산당으로서는 권력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 분리주의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새로운 합법적이고 근본적인 원리가 필요했다. 90년대 이 문제는 중국공산당에게는 확실히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中國의 民族主義와 經濟的 繁榮은 이런 문제의 첫 번째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피할 수 없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 장쩌민은 공산당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조했다. 普遍的 民族主義를 더 한층 고무시키기 위해, 북경은 때때로 과거 중국이 제국주의자들에게 당한 굴욕적인 역사적 사실을 종종 들추어내며 愛國主義⁵⁶⁾를 강조하기도 했다.

56)민족주의와 애국주의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중국의 학계에서는 민족주의 정

그러나 이런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80년대 말 90년대 초, 중국의 여러 학자들은 사회 문화적 규범의 상실⁵⁷⁾ 을 지적하는 일들이 많았으며 (문제의 성질은 비록 분리주의 문제와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권위의 합법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학계의 주요 논제로 등장했으며, 중화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상징적인 ‘부호’를 찾는데 고심했다. 90년대 초에 나타난 급진 서구화(西化)현상에 대한 再 思考와 함께 나타난 중국학자들의 관점은, 소련과 동구의 붕괴는 결코 사회주의 자체의 결함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며, 구체적인 역사과정중의 착오, 예를 들면, 소련의 붕괴는 고르바초프 개인의 잘못이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결점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며,⁵⁸⁾ 동구의 붕괴는 때론 外債등으

서 크게 호소하려 하지 않는다. 이유는 민족주의는 무엇보다 자민족을 우선하는 속성이 있고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지닌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으로서는 자민족만을 중시하는 대한족주의나 지방민족주의보다는 중국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보편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아울러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57) 예를 들면, 상해사범대학의 蕭功秦 교수는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세속화의 역사추세는 기존의 구체제가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중의 평균주의와 계급투쟁이라는 이론이 이미 사회 정치생활에서 호감을 갖지 못하며 통합작용을 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신시대의 신 상황에서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권위 있고 합법적인 내원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蕭功秦, <民族主义与中国转型时期的意识形态>, 《战略与管理》, 1997年 第3期), p21-25)

58) 예를 들면, 중앙사회주의 학원의 吾江은 소련의 붕괴는 고르바초프의 실책이 주요 원인이이며, 또한 중국이 소련과 같은 점(同)과 다른 점(異)이 동시에 있다고 본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同이란 중소양국이 일찍이 교조주의와 ‘좌’경 공산주의의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며, 정도와 채택방식은 차이가 있다. 중국의 고도로 집중화된 계획경제는 50년대 소련에서 이식해 온 것이다(처음엔 적극적인 작용을 했다). 중국은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있어서 시간을 앞당겨 진입케 했는데, 이도 소련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국이 개혁단계에 접어든 이후인 1983년, 어떤 이들은 공공연하게 중국이 이미 공산주의사회의 제1단계에 진입했다고 선포했다: 초급단계란 이것도 바로 소련의 것을 모방한 것이며, 특히 스탈린을 모방한 것이다. 식량의 전매·전국시장의 폐쇄·‘대약진’의 발동·‘인민공사’와 ‘문화대혁명’ 등은 중국이 창조한 것이다. 同이란 ‘좌’경 공산주의를 말하는데, 그러나 형식과 구체적 상황은 다르다. 중국은 직접 ‘좌’경 공산주의의 피해를 입었으며, 시간은 20여년이나 된다. 아울러 ‘대약진’과 ‘문화대혁명’은 여러 가지 일들을 극단으로 몰고 갔

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상해사범대학의 샤오푹친(蕭功秦)은 개혁과 경제발전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실효(Performance)는 의심할 바 없이 권위의 합법성을 증가시키는 중요 來源이라고 본다. 그러나 실효합법성의 기초는 ‘발전제일주의’를 추구해서, 이것이 추구하는 발전의 방향·목표에 대해, 사회성원간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을 실현하는가에 대해, 집단과 개인간·국가와 사회간의 권력 의무 등에 대해 혹은 부족한 자원의 분배·정신생활과 이상의 추구 등에 대해, 모두 충분한 구속력과 규정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본다.⁵⁹⁾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후이(汪暉)와 북경청년보의 장텐웨이(張天蔚)는 중국의 현대화는 시작 때부터 ‘현대화’자체를 사회 기본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화자체가 사회의 기본목표가 되고, 이보다 높은 다른 기본목표는 도리어 하락하는 것이 오늘날 중국이 직면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⁶⁰⁾

따라서 학자들은 이런 해답을 좀더 멀고 근원적인 곳에서 구하려 하고 있다. 그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통문화(유가)중의 가치와 지위 등에 대한 재 고려였다. 샤오푹친(蕭功秦)의 관점은 특히

으며, 이런 국단적인 방법들은 필연적으로 반발을 가져오기 되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중국은 먼저 70년대 말기에 개혁을 시작했다. 소련은 중국의 개혁에 대해 또 다른 ‘민족공산주의’라는 표현으로 공격했다. 후에 자기들도 부득불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중소양국 개혁의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또한 같지 않다: 하나는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개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소란스러운 가운데의 개혁은 모든 사회로 하여금 돌발적으로 억제력을 상실했다. 이는 또한 중소 양국의 뜻다. 그는 또한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사회주의의 좌절과 실패는 단지 잠시순간일 뿐이며, 약간의 사람들로부터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회주의는 중국을 비롯해서 여전히 세계를 맴돌고 있다고 강조한다(吾江, <社会主义自我批判>, 《中国社会科学季刊》第2卷(香港), (1993年5月), pp.19-22).

59) 蕭功秦, <民族主义与中国转型时期的意识形态>, 《战略与管理》, 1997年第3期), p.21-25.

60) 汪暉, 張天蔚, <文化批评理论与当代中国民族主义问题>, 《战略与管理》, (1997年第4期), p.20.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의 문화를 주류문화와 주변성 문화(비 주류 문화)로 나누고, 주변성 문화요인을 기초로 하는, 전통적인 주류문화와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愛國主義는, ‘國性’과 같은 심오하고 풍부한 역사적 자원이 부족하며, 이런 애국주의의 전통적 모델은 역시 민족의 응집력을 모으는데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새로운 조건하에서 새로운 권위의 합법성의 자원을 찾고, 전형기중에 사회인심을 통합하고 응집을 실현하는 것은 오늘날 중국 현대화가 직면한 중대한 문제라고 여긴다. 그는 중국의 전통적 주류문화는 바로 儒家文化이며, 이것이 바로 민족을 응집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 주장한다.⁶¹⁾

유가사상이란 주류문화를 기초로 한 민족주의는 90년대 후반 중국의 학계에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매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다.⁶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확실한 ‘부호’를 찾는 데는 여전히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듯 했다. 특히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56개 다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서 ‘중화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개념을 찾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한때 타도의 대상이었던 유교가 다시 통치이념으로 마르크스 사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이 데올로기를 세심히 관찰한 한 서방 인사는 후진타오의 연설에서 “젊은

61) 蕭功秦, <民族主义与中国转型时期的意识形态>, 《战略与管理》, 1997年第3期), p.21-25.

62) 90년대 후반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儒家의 전통으로 중국민족주의의 근본으로 삼자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1992년 12월 21일-23일간 홍콩 중문대학 문화연구소에서 주최한 『민족주의와 현대중국』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어떤 학자들은 무엇이 과연 건강한 민족주의냐에 관한 토론에서, 孫國棟은 민족문화는 바로 민족주의의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현대의 중국에서 수차례 민족주의 색채를 지닌 운동과정중의 공통적인 약점은 모두 민족문화를 벗어난 것이다; 蔣慶更은 현대중국의 민족주의는 뿌리가 없으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道는 유가전통으로 민족주의의 근본을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蔣慶更, <‘民族主义与现代中国’国际研讨会记录>, 《21世纪》, (1993年 2月)(总第15期), p.73-74.

이들은 윤리(이는 유교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교육과 이데올로기(이것은 마르크스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한 연설내용에 대해 마치 유교와 마르크스주의가 상호보완적인 것처럼 들린다.⁶³⁾라고 혹평을 마다하지 않는다.

하여튼 마르크스주의나 유교가 하나의 통치이념으로서 ‘중화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신장에서의 도전은 중국공산당의 통치이념에 지속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이런 도전과 독립을 추구하는 일부 족군의 이데올로기와의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해서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21세기 중국 이데올로기가 안고 갈 큰 과제일 수밖에 없다.

2) 신장의 안정과 경제적 관계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안정과 경제적인 부분과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2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신장이 동부 및 중국정체의 경제발전에서 가지는 중요성이며, 다른 하나는 신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중에 경제적 발전이 가지는 의미와 효율성과 관련된 것이다.

신장은 중국 서부에 위치해있으면서, 몽고,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크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변경의 길이는 5600km로 중국 육지변경 총 길이의 1/4을 차지한다. 자치구 총면적은 1600만 km²로 중국 총면적의 1/6을 차지한다. 신장은 유라시아대륙의 중심에 위치해서 일찍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었으며, 제국주의 시대 때 러시아, 영국, 일본 등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참여한 각축과 대립을 벌이기도 했다. 오늘날 신장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들은 신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보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⁶⁴⁾

63) 기 소르망, 《중국이라는 거짓말》, 문학세계사, p.126.

서부지구는 과거부터 중국인에게 지대박물⁶⁵⁾로 비유될 정도로 신장은 풍부한 각종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부대개발 관련서적에 의하면, “중국의 에너지자원의 분포는 불균형적이며 주로 서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중 수력자원의 72%는 서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 개발하지 못한 3억 입방와트 중에 절대다수는 서남과 서북의 황하 증상류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석탄자원의 대부분은 서북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신장의 매장량은 전국 1위이며, 전국 매탄 저장량의 70%는 ‘三西’(陝西, 山西, 蒙西)에 집중되어 있으며, 천연가스도 주로 서부지구에 집중되어 있다.”⁶⁶⁾ 서부대개발 관련 다른 서적을 보면, “신장은 석유와 천연가스 저장량이 매우 풍부하며, 개발 잠재력은 거대하다. 신장은 208.6억톤의 석유자원과 10.3만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전국 육지유기(油氣)자원총량의 30%와 34%를 차지하는데, 지질전문가에 의해 중국 석유공업의 ‘희망의 바다’로 불렸다.” “여러 해에 걸친 지질탐사를 통해 南疆의 다리무(塔里木)분지, 北疆의 준가얼(准噶尔)분지와 東疆의 투하(吐哈: 吐魯番盆地와 哈密盆地)분지에는 경제성이 높은 유기층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신장의 석탄은 저장량이 1.82만억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국 석탄 저장량의 40%를 차지한다.⁶⁷⁾

64) Felix K. Chang에 의하면, 오늘날 신장에는 매년 대량의 석탄을 채굴하고 있으며, 이 외에 대량의 화석연료가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Felix K. Chang, IBID,p412-425. 경제적 측면에서 신장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은 Yueyao Zhao, "Pivot or Periphery? Xinjiang's Regional Development", Asian Ethnicity, Vol 2, No 2, September 2001, p197-225. Maxim POTAPOV, "China's Gas Market and Prospects for Russian-Chinese Cooperation", Far Eastern Affairs, Vol 30, No 2(2002), pp.77-99.

65) 마오쩌둥은 “우리는 중국이 지대물박(地大物博)하며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실제로 한족의 인구가 많으며, 소수민족지역은 지대물박임을 의미하는데, 최소한 지하자원은 소수민족지역에서 풍부할 것이다.” 모택동 선집, 제5권, 277쪽.

66) 王洛林, 魏后凯主编, 《中国西部大开发政策》(北京: 经济管理出版社, 2003), p.151.

날로 급성장하고 있는 동부로서는 자원부족현상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중국은 지난 1993년부터 원유수입국으로 전락하면서 에너지 자원의 공급원과 수송로의 다양화와 다원화를 강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오늘날 이미 에너지 자원쟁탈전에 돌입했으며,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자원확보를 위해 전방위외교를 펼치고 있다.⁶⁸⁾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현재와 같은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면 원유수요량이 현재 하루에 350만 배럴에서 830만 배럴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⁶⁹⁾

90년대 초, 에너지 자원의 부족현상은 북경당국으로 하여금 걱정스럽게 했다. 다리무(塔里木) 분지는 국제오일 회사로부터 많은 유혹을 끌었는데, 1993년 북경은 외국 회사의 허티엔(和田)과 튀장(若羌)사이의 분지의 동남 5개 지역에 대한 외국 회사의 에너지 탐사를 허용했다. 이 지역은 여러 분지 중에서 가장 전망이 적고 신장 중심지로 향하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68개에 이르는 회사가 이 활동에 등록을 했다.

1998년 1월의 《인민일보》는 신장에서 많은 유전이 발견되고 개발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1997년 12월 30일 까지 신장지구에서 총 3억 5천만 톤의 새로운 유전을 발견했으며, 원유생산은 1580만 톤으로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을 나타낸 수치다. 1997년 중국의 석유 천연가스 총 공사는 새로운 자원 탐색을 위한 ‘범 세기적 탐색작업’을 진행한 끝에 큰 성과를 올렸다고 보도했다. 준가얼(准噶爾) 분지 북부의 石南지구 주라시(侏羅系)에서 한 구(口)의 억 톤급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으며, 동남 사구(沙邱) 남쪽에 4구의 공업 유기류(油氣流:유전과 가스)가 발견되었으며 저장량은 1억 톤 이상이라 한다. 투하(吐哈: 吐魯番

67) 张遇良主编, 《中国西部: 新疆》, 北京:五洲传播出版社, 2001), 22-25.

68) 장기윤, <친디아의 에너지 자원쟁탈전>, 《친디아저널》 2006년 9월호, 제 11-13쪽.

69) 주재우,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변화>, 《현대중국연구》 제4집 제2호(2002), 202.

盆地와 哈密盆地)분지에서 억 톤급의 유전이 발견되었다. 다리무(塔里木)분지의 유전 가스 탐색도 1993년 이후 또 한차례 많은 유전이 발견되었으며, 수십口的 탐색에서 유전과 가스의 존재가능성이 확인되었고, 13군데에서 이미 유기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4600만 톤을 생산했고, 약 2.69억 톤의 저장을 예측하고 있다.』⁷⁰⁾ 이 삼대 유전은 원유생산량에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다리무(塔里木) 유전은 1996년에 비해 원래 생산량 임무 110억 톤을 초과했으며, 유전생산량 성장이 제일 큰 유전이라고 한다.

21세기 들어 중국은 대대적인 서부대개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부의 자원은 이미 동부의 중요한 에너지원 공급처가 되고 있다. 익혀 알고 있는 것 처럼 ‘서기동수’(西气东输)⁷¹⁾와 ‘서전동송’(西电东送)⁷²⁾공정으로 동부는 서부의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⁷³⁾

중국의 한 학자는 서부가 동부의 발전에 서부의 에너지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측에 근거해보면, 미래 동부지구 60%의 원자재는 서부의 공급에 의존해야 하며, 50%이 에너지는 서부의 수송에 의지해야 하며,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여부는 서부지구의 자원 개발에 크게 달렸다.”⁷⁴⁾

70) 『인민일보』, 98.1.12.

71) ‘서기동수’공정은 서부대개발 전략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중국 석유천연가스 주식회사가 기획했으며, 新疆, 四川, 长庆유전 등 서부지구의 천연에너지자원을 동쪽 华东지구로 보내는 작업이다. 이 공정의 주 파이프는 서쪽 新疆의 塔里木분지에서 동으로 库尔勒, 吐鲁番, 都鄯, 哈密, 柳园, 张掖, 武威, 兰州, 定西, 礼泉, 洛阳, 信阳, 合肥, 南京과 常州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해에 이르는 4212km에 이른다.

72) ‘西电东送’은 贵州, 云南, 广西, 四川, 内蒙古, 山西, 陕西등 서부지역의 전력자원을 개발하여 이를 전력자원이 필요한 广东, 上海, 江苏, 浙江과 北京, 天津, 唐姑로 보내는 것이다. 이 ‘西电东送’은 세 방면의 루터를 통해 동부로 전달되는데, 즉 광둥广东으로 향하는 南部通道와 华东지구로 향하는 中部通道 및 북경, 천진, 탕꾸로 향하는 北部通道가 그것이다.

73) 王洛林, 魏后凯主编, 《中国西部大开发政策》(北京: 经济管理出版社, 2003), p146-157.

74) 螺捷, 2003, 60.

상해협력기구도 신장과 더불어 중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자원확보 선점이라는 시각이 매우 지배적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 및 목표의 초점은 미국과 비슷한 영역으로 이전 되게 되었으며, 다시 말해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의 핵심이 지역에너지원에 대한 선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환되었다.⁷⁵⁾

둘째, 신장을 비롯한 서부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정부는 경제적 발전과 혜택등을 크게 강조한다.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민족충돌의 근원은 경제적인 것에 있으며, 중국의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관건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다고 주장한다. 전 국가주석이었던 장쩌민(江泽民)은 “만약 동서부간 지역격차와 개인간의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중시하지 않고, 조치가 미흡해서 차이가 과도하게 커지면, 경제문제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따라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⁷⁶⁾ 또한 여러 학자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후안강(胡安钢)박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간의 격차문제는 이미 중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와 정치문제가 되었으며, 소수민족지역의 장기간의 상대적인 낙후감을 낳게 하고, 아울러 이런 빈곤낙후와 상대적인 소외감은 민족충돌을 일으키는 근원이라 여긴다.⁷⁷⁾

서부개발정책을 논하고 있는 한 서적은 이 정책이 동부에 주는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기동수’공정은 매년 120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3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며, 이는 동부인민의 기업에 있어서 복음과 같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상해의 매탄가스로 인한 오염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⁷⁸⁾ 그러나 이

75) 주재우,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변화>, 《현대중국연구》 제4집 제2호(2002), 202.

76) 李东辉, <对缩小东西差距问题的几点认识>, 《战略与管理》, 第4期(1995), 43.

77) 胡安钢, 《中国下一步》, 北京:四川人民'出版社, 1995), 126-139.

78) 王洛林, 魏后凯主编, 《中国西部大开发政策》(北京: 经济管理出版社, 2003), p146.

와 동시에 서부대개발의 추진하는 여러 공정들은 동부뿐 아니라 서부도 함께 원원할 수 있는 중요공정이라고 소개한다. 예를 들면, 이 공정으로 인하여 신장 한 지역만 해도 매년 10억 인민폐의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소수민족들은 그들에게 오는 철길이나 도로를 자신들의 경제개발을 위해 오는 길이 아니며, 한족의 세력확대 그 이상은 아니라고 여기며,⁷⁹⁾ 여러 계획의 실시에 대해 실력으로 저지할 것을 경고한다. 이로 인해 한족이 건설한 중요한 건설물은 테러활동의 표적이 되곤 한다. 1997년 3월 11일, 미국의 위구르 해방 전선(Urghur Liberation Front) 지부의 지도자인 파타(Gulamenttin Papta)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하는 ‘육지교량’건설에 대해 중국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로 당연히 파괴되어야 한다. “그들은 철길을 건설하지만, 그러나 인민은 이 철길을 반대하며, 그래서 파괴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인이 캘리포니아 역사를 변화시킨 것과 유사하다. 인디언이 그랬던 것처럼, 똑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건설하고 있는 동 투르키스탄으로 오는 모든 철길은 마땅히 정지되어야 한다.”⁸⁰⁾

신장 위구르족은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에 대해 크게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는 듯 하다. 신장지역에서 행한 한 사회조사에서 한족이 자원을 캐 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문구의 존재는 공개적으로 쉽게 말할 수 없는 위구르족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대변해준다.⁸¹⁾ 때론 그들

79) 莫邦富, 〈과격, 확대되는 신장 독립운동〉, 《민족연구》 제9호, (2002), p80.

80) (Josep Brewda, 1997, 59) “많은 티베트인들도 자신들로 향하는 길을 번영을 가져올 통로로 생각지 않으며, 한족이 자신들을 통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내는 길이라 여긴다.” (미) 璦·托爾費爾·德雷爾, “티벳30년”, 張植榮 주편, 『국의장학연구역문집』 (第10輯), 티벳인민출판사, 1993년 제329쪽. 새로 신장에 건설되는 12개의 새로운 고속도로망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과 파키스탄으로 연결되고 있다. 가장 긴 길은 1680km로, 시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를 거쳐 최종적으로 유럽에 이르는 길이며, 2010년에 완성될 계획이다. Elizabeth Van Wie Davis, "Uyghur Muslim Ethnic Separatism in Xinjiang, China", Asian Affairs, (2008), p18.

의 이런 생각이 현실로 나타나기도 한다. 1998년 2월 22일과 3월 30일, 신장의 분리주의자들은 예청현(叶城县)에서 6곳에 걸쳐 폭탄테러를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천연가스관이 폭파되기도 하였다.

중앙정부로서는 신장이나 티베트지역에서 독립이나 고도자치에 대한 요구조건을 수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중앙정부가 부여할 수 있는 최고의 우대정책이나 혜택은 어쩌면 경제적인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실제로 일부 극단적인 테러를 감행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많은 위구르인들은 더 좋은 직장과 더 나은 돈벌이를 위해 중국어를 배우려고 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많은 이들은 독립보다는 현재상태 유지를 희망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생각들의 근거에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고려가 깔려있다. 그러나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을 경제적인 것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효과와 한계점은 어디까지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3)외부 세력 및 강대국의 개입에 대한 견제와 대처.

중앙정부는 신장분리주의자들은 외부 세력의 도움이 없는 한 비록 분규는 존재하나 국가를 붕괴의 지경까지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과거 신장에서의 분리독립에 대한 여러 차례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90년대와 같은 외부환경의 조성파 더불어 '민주', '인권'등을 기치로 한 서방의 중국에 대한 개입은 중앙정부의 통치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는 외부세력을 크게 경계하며 강하게 비판한다. 중국이 경계하는 외부세력은 크게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강대국과 인권단체등의 외부세력의 중국 국내문제에 대한 개입

81) 중국은 97년 석유탐사가 진행되고 있는 다리무분지 부근의 두 현에 대해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질문내용에 한족이 자원을 캐 간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续西发, <关于新疆分裂主义问题的社会学思考>, 《新疆大学学报:哲学版》, 1992年2月, 12-19页。

과 비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3월, 《EIR 전략연구》(EIR Strategic Studies)란 독일의 한 정보잡지는 영국의 분노를 실은 한 문장을 게재했다.⁸²⁾ 문장은 영국이 중국과 미국에 강한 비난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국에 대한 비정규진 침략까지 생각하는 정도의 심각한 것이었다. 문제의 발생은 중국의 소위 ‘유라시아 육지교량’(Eurasian Land-Bridge program), 혹은 ‘뉴 실크로드’(New Silk Road)의 건설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 계획은 고속 철도, 도로, 항구, 그리고 농업과 관련 산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중앙아시아를 거쳐, 러시아, 인도 亞大陸(Indian Subcontinent), 중동 그리고 유럽의 대서양 해안까지 연결하는, 즉 모든 유라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장기계획이었다.

유라시아 육지교량의 핵심부분은 철로망의 건설이며, 우루무치와 아라산커우(阿拉山口)의 460km의 카자흐스탄으로 향하는 北疆鐵路와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南疆鐵路의 존재는 중국의 유럽과 중앙아시아 및 인도대륙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로 이어진다. 100여년이 넘게 영국은 어떻게든 이 계획의 실시를 저저하려 했다.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영국과 미국간에 유지되어 왔던 ‘특수한 관계’는 경제적인 이익 앞에 다소 변화되었다.

카자흐로 통하는 육지교량의 건설은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힘을 실어줄 것이며, 중앙아시아의 자원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사실 이 계획은 신장 분리주의 운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자신들의 분노를 민족문제와 연관지어 표출했다. 1996년 5월 7일 북경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영국의 브리탄(Leon Brittan)경은 만약 중국이 이 계획을 계속 진행할 경우, 런던은 중국을 분할해서 미니 국가(micro-states)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중국의 지도자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했다. 《EIR전략연구》는 이런 사실들과 아울러 분할된 중국을 담은 4편의 지도까지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강대국은 때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활용

82) Josep Brewda, 1997.59.

해서 자신의 이익확보를 위해 민족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중국으로서는 소수민족의 민족문제가 강대국과의 이익 앞에 언제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서방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인권’, ‘민주’ 등에 대한 비난과 견제도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90년대 서방의 적지 않은 문장에서는 중국 중앙정부의 소수민족지역에 대한 산악제한정책과 동화정책(혹은 인구이주정책)의 실시로 주체민족의 인구구성비율을 하락시키고 민족주의 색채를 묽게 만든다고 강한 비난을 했다. 이런 비난 중에 신장 지역을 겨냥한 문장도 적지 않다. 상술한 《EIR전략연구》에서는 “비록 1949년에, 신장의 인구는 대략 95%가 위구르인이었다. 오늘날 1600백만 전체 자치구 인구의 약 절반은 중국 한족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⁸³⁾ 또한 미국의 중앙아시아와 소련 문제를 연구하는 한 연구원인 싱글레톤(William D. Shingleton)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신장지역의 위구르인들을 同化하기 위해, 북경은 종교자유·집회와 언론의 자유를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하게 억압했다. 오늘날 신장에서 대량의 인구변화는 억압적인 중국의 정책의 결과다. 게다가 산악제한정책으로 인해 위구르여인들의 불임화현상을 초래했다.”⁸⁴⁾

중앙정부는 신장에서의 분열주의자가 존재하는 것은 서방의 신장분열주의자들에 대한 지지와 중국에 대한 반화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강하게 비난한다.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2001년 10월 17일, 유럽의회는 중국의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투르키스탄’분자들에게 의회에서 ‘동투르키스탄’연구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허용해서, 이들이 반화활동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중국외교부는 신장의 분리주의자들이 인권, 민주, 소수민족의 권리보호를 도구로 중국을 분열시키고자 한다고 비난한다.⁸⁵⁾ 이처럼 중국은 서방의 이런 비난에 대해

83) Josep Brewda, 1997, 59.

84) William D. Shingleton, 1997.

85) 金鑫, 徐晓萍著, 《新世纪中国面临的严峻挑战: 中国问题报告》,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p.67.

내정불간섭원칙을 내세우고 서방의 비난을 일축한다. 하지만 ‘민주, 혹은 ‘인권’에 기초한 서방의 중국에 대한 비난은 확실히 북경당국으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틀림없으며, 중앙정부로서는 서방의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처리는 장기적인 숙제이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다.

둘째, 범 이슬람주의와 범 투르크주의와의 연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국내 민족들(신장, 티베트, 내몽고)간의 횡적연계는 중앙정부가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중국에서 국제테러주의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영향, 특히 흔히 범 이슬람주의와 범투르크주의에 의한 ‘쌍범’(双凡)으로 불리는 이런 정치사조는 신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유효한 통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구소련 자치공화국에서 1991년 독립한 5개국 인구의 무슬림 비율은 우즈베키스탄 88%, 카자흐스탄 47%, 키르기스스탄 75%, 타지키스탄 85%, 투르크메니스탄 89%를 차지한다. 하지만 신장의 분리주의자들이 이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들 국가들은 각자 자국내에서 이슬람의 정치세력화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 중 그 어느 국가도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한 국가는 없다.⁸⁶⁾ 1991년 12월 21일 Almaty에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가 소련연방에서 독립과 이들 국가간의 역사적인 형제관계를 바탕으로 협력을 선언하기도 했다(Almaty Declaration, 알마티선언). 이처럼 이슬람의 부흥은 구소련시대에 비해 매우 활발하며, 이러한 부흥은 이슬람의 현실참여보다는 문화적 부흥현상으로 나타난다. 물론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도 상당부분 무슬림을 대표하는 정치세력들이 나타나지만, 기존의 정치세력에 의해 이들의 정치세력화는 쉽지 않다. 특히 이들은 주변 이슬람원리주의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오히

86) 김선호,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 투르크민족주의와 이슬람공동체”, 《지중해지역연구》 제3집(2001.1), p.19.

려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스트라는 지적을 받아 더욱 부담을 안게 되기도 한다.⁸⁷⁾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현실적인 이익을 앞세워 신장의 분리주의자에 대한 지원도 한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면 1995년 2월 15일, 카자흐스탄에서 장기집권을 하고 있던 대통령(Nursultan Nazarbayev)은 그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두연설에서 중동 이슬람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내용에서 이스라엘과 무역 등의 경제협력도 강조하여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세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강하게 부정하였다. 신장과 이웃해 있는 카자흐스탄은 대외정책에서도 이슬람의 정치참여를 민족주의와 경제 부흥을 이용하여 저지하는 정책을 쓴다. 그는 또 다른 연설에서 카자흐스탄은 유럽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중국과의 각종 실질적인 협력관계 설립을 연속적으로 강조하여 결국 민족의 경제발전이 이슬람보다 훨씬 우선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했다.⁸⁸⁾

위구르인의 가장 어려운 도전은 조직과 합작이다.⁸⁹⁾ 유목생활에 습관화되어 있는 이들로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그 수치가 많지 않으며, 90년대의 각종 분류와 테러사건에도 불구하고 위구르인들은 독립에 관한 지지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동원하지 못했다. 지역 위구르 연합(the Regional Uyghur Association); 위구르해방조직(the Organization for the Liberation of Uygurstan); 동 투르케스탄 민족구원회(the East Turkestan National Salvation Committee); 동 투르케스탄 연합혁명전선(the United Revolutionary Front of East Turkestan); 투르케스탄 연합민족전선(the United National Front of Turkestan)등 국내에 있

87) 김선호, 상갈서, 23쪽

88) 김선호, 상갈서, 27쪽.

89) Erkin Alptekin에 의하면, '분열'(Disunity)은 동투르키스탄 인민들의 역사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며, 만약 우리가 인민들을 연합시킬 수 있다면 오늘날 한족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라고 말한다. Colin Mackerras, "Xinjiang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e causes of separatism", Central Asian Survey(2001) Vol 20, No3, p 294.

는 위구르인들의 조직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런 분규들은 북경당국으로부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위구르인들은 과거 1930년대 ‘동투르케스탄 공화국’을 건립했던 것처럼, 제국주의가 지지했던 것 같은 강력한 외부의 지지 세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⁹⁰⁾에 위구르 해방전선(Urghur Liberation Front)이 있으며, 비대표 위구르 민족과 인민조직(Unrepresented Nations and People's Organization)의 지부를 영국과 네델란드에 지부를 두고 있다. 위구르 분리주의자들은 이런 소규모의 조직들로부터 정보와 자금을 조달받기도 한다. 1962년 성립한 이슬람 세계연맹은 당대 최대의 이슬람 조직이며, 범 이슬람주의를 추진시키는 중요한 도구중의 하나다. 이 조직은 신장에 독립의지를 고취시키는 동시에 물질적인 지지도 보내고 있다.⁹¹⁾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무자히딘(Mujahidin) 조직 등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른 조직들로부터 무기와 자금을 조달받기도 한다. 하여튼, 북경은 군사력과 경제적 번영에 기초한 개혁과 외국자본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로 위구르인들의 반감을 중국에게로 향하여 완화시킬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도 중국과의 국경문제 등 때론 현실적 이익앞에 신장

90) 1983년 11월 미국 뉴욕에서 ‘투르케스탄 미국협회’를 설립되었으며, 이 협회는 1984년 7월 15일 일부분의 인사들이 뉴욕에서 시위를 했다. 구호는 “러시아인들은 서 투르케스탄에서 꺼져라!”, “한족들은 동 투르케스탄에서 꺼져라!”, “동 투르케스탄의 명칭은 신장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1985년, 장·몽·만·위구르족중의 민족분리주의자들과 연합해서 스위스에서 《동투르케스탄·몽골·만주 및 티베트 인민 동맹 위원회》를 세웠다. 이들이 내세운 의의는 “독립을 위해서, 연합해서 투쟁하고, 한족의 통치를 전복시키는 것이다.”(續西發, 1992, 13-19).

91) 1980년 이 이사회는 신장 침투에 관한 문제를 결정했다: 신장에서의 무슬림들로 하여금 더 큰 종교자유를 획득하게 해야 한다; 이슬람 대표단들을 부단히 신장으로 파견하여 관계를 강화시켜야 하며, 신장의 이슬람 신앙 및 문화지식들이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슬람 문화·교육·사회기구 등을 설립하도록 해야 한다; 신장에 이슬람 인쇄품들을 부쳐야 한다 등. 통계에 의하면, 근래,喀什지구에서 국외 이슬람 연맹 혹은 개인 명의로 예배사의 증설수리 명의로 증여된 금액이 백만 위안에 이른다. 續西發, 1992.13-19.

위구르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한다. 1997년 2월 22일, 북경에서 유라시아 철로와 에너지 문제에 관한 토론이 열렸을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Nursultan Nazarbayev)은 분리론에 대한 견해를 말했는데, “소위 소수민족들은 내몽고, 신장, 티베트와 중국의 남부 및 기타 약간의 지역에 거주한다. 민족자결에 대한 희망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을 환영할 수는 없다. 오늘날 6,000개 좌우의 민족과 인간 공동체가 어느 날 정말로 이들이 전부 독립을 선언한다면, 그러면 이 지구상에 매우 많은 소국들이 탄생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기존의 강대국들과 경쟁이 불가피한데, 이는 간단히 말해 혼란과 영원한 전쟁과 무한한 분규를 의미한다.” 그의 외교부장인 토카예브(Kasymzhomart Tokaev)도 분리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신장분리주의자들의 입지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외부의 지원도 부족하며 자금도 충분하지 못하다. 내부는 달라이라마처럼 강력한 지도자도 존재하지 않으며⁹²⁾, 중앙정부는 독립과 관련된 그 어떤 대화도 고려하지 않는다. 신장에서의 테러소식은 북경 올림픽때에도 들렸지만, 중앙정부의 조치는 단호했다.⁹³⁾

(4) 신장지역 민족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상의 여러 난제들

중앙정부는 신장에서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위구르족은 극소수이며, 아울러 중국이 신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신장의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방법은 신장 인민들의 인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여긴다.⁹⁴⁾ 중국은 건국이후부터 여러

92) 에이자 유스프 알푸테킨은 신장의 달라이라마로 일컬어졌다. 그는 1995년 사망하기 전에 비폭력운동으로 신장의 독립을 강조한 사람이다.

93) 2008년 북경올림픽을 맞이하여 티베트와 신장의 분리주의 테러활동과 북경의 대응에 대해서는 纪硕鸣, <奥运保卫战拉开序幕>, 《亚洲周刊》2008년 제22권 제10기(2008.3.16), pp.28-29.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정책의 실천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들도 발생했다. 또한 이런 난제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민족과 종교문제는 가장 특별하며, 장기간 신장에서 존재하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문화 등 여러 문제와 모순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간주한다. 반면 외부환경은 단지 이런 문제를 촉발시키는 요인에 불과하다고 여긴다.

첫째, 사회문제.

사회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요인들은 때론 이것이 단순한 사회문제이면서 민족이란 요인과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민족문제로 크게 확대되곤 한다. 이는 민족지역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신장에서도 개혁과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직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이와 동시에 근래 신장의 인구성장이 비교적 빨라 구직인원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취업경쟁은 날로 격해지고 있으며 모순도 날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이익추구를 가장 중요한 목표에 두고 있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많은 영역에서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수민족들이 구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일부 소수민족들은 이런 사회적 전환기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때론 한족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뺏아간다고 여기기도 한다. 또한 어떤 지방의 부패문제도 소수민족이 아닌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패문제로 그치지만, 소수민족지구에서의 한족간부의 부패현상은 종종 민족문제로 확대되어 한족이 위구르족을 억압한다고 여기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최근 변경무역의 활성화 등 글

94) 金鑫, 徐晓萍著, 《新世纪中国面临的严峻挑战: 中国问题报告》,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65-77.

로별화에 보다 노출된 북쪽 신장지역보다 남쪽의 신장에서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곤 한다.⁹⁵⁾

둘째, 경제문제.

개혁개방이후 신장은 경제개발에서 빠르게 발전했지만, 그러나 중국의 내지와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서부대개발 정책의 실시로 정부에서 서부에 대량의 투자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신장의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신장 자체의 발전에는 크게 공헌하지 못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장의 공업관련 기업은 80%이상이 국유기업이며, 경제적 효율은 낮은 편이다. 1999년 하반기 신장의 국유대형기업의 64.3%가 적자를 면치 못했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2000년까지 신장의 누계 재정적자는 23억 위안에 이른다. 특히 남부신장지구의 경제사정은 더욱 좋지 못하며, 신장의 25개 국가급 빈곤현과 5개의 자치구급 빈곤현이 남부신장에 대량으로 남아 있다. 수십만 명은 온포문제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인 낙후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견을 가지게 하기 쉬우며, 내지와는 발전격차와 차이는 소외감을 낳게 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발전이 늦은 것은 한족 때문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공산당은 한족들만 잘살게 하고, 소수민족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여기기도 한다. 이런 불만정서는 한족에 대한 적대시와 공산당 정부에 불만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위구르족과 한족과의 관계는 늘 장애가 존재한다.

셋째, 정책문제.

중국중앙정부의 신장에 대한 민족정책은 오랜 기간동안 추진되었으며, 이런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현지의 상황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러

95) 金鑫, 徐晓萍著, 《新世纪中国面临的严峻挑战: 中国问题报告》,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p.69.

나 일부 정책들의 추진과정은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도 많다. 예를 들면 일부기업에 의한 자원개발과정에서 ‘자원국유’와 ‘직속’관계를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자신들의 부처와 업무부서의 이익만 과도하게 배분하고 현지에 대한 이익의 배분을 적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 백성들은 반공개적으로 다리무유전의 석유파이프를 통해 석유를 절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지방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눈감고 넘어가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는 국가가 민족자치지방에 부여하는 자치권리가 너무 적으며, 민족지구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대단히 불만은 표출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중국에서 민족자치지방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종교에서는 어떤 간부들은 종교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 이로 인해 실제 업무진행과정에서는 억압적이고 경직되게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 민족과 종교적인 감정을 해치기도 한다. 중앙정부는 이런 일들은 원래는 사회문제에 속하는 단순한 문제이지만 민족지구에서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민족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고 여긴다. 중앙정부는 신장에 대한 문제를 매우 주의 깊게 다루고 있으며, 신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신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지속하며, 이곳에서의 민족과 종교 등과 관련된 여러문제에 대해 과도한 악화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넷째, 간부문제.

민족간부를 배양하는 것은 중국 민족정책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간주된다. 현재 신장의 소수민족간부는 34만 명으로 해방초기 3000여명에 비해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한 민족에서 민족간부의 존재는 이 민족의 실제적인 참정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자, 평등한 정치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곤 한다. 그래서 신장에서 민족간부의 수량과 직위의 높고 낮음은 소수민족들이 관심을 가지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비록 민족간부의 임용비율은 민족인구와 비례해서 채용한다고는 하

지만 이런 비율을 반드시 맞출 수도 없거니와 또한 그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 혹은 됃됨이와 같은 채용기준에 의해 채용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종종 신장에서 공산당은 소수민족을 믿지 못한다. 혹은 소수민족은 신장에서 위치가 없다는 등의 말로 확대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신장에서 생활하는 한족간부로 말하자면 이들도 심리적 낙후감이 대단하다. 신장 전체사회의 반 한족감정도 존재해서 안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개혁개방이후 내지와의 임금차가 벌어져 신장에서의 업무를 희망하지 않는다. 또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에서도 이들은 피해감에 젖어 산다. 많은 한족간부들은 내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장에서 잠시 돈을 많이 벌어서 내지도 돌아오겠다고 다짐하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실제로 1979년부터 1999년까지 신장에서 이탈한 간부는 4만여 명에 달하며, 만약 기술자와 목공까지 포함하면 20여만 명에 이른다. 이런 유출인원중에 한족간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신장에서 간부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간부들이 단결하지 못하면 다른 군중들의 단결도 바라볼 수 없다. 현재 신장의 일부 한족간부들은 현지의 소수민족 생활 속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군중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생활을 한다. 이로 인해 일부 소수민족간부들의 작용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소수민족간부들은 중대한 정치문제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일들의 존재는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을 견실히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다섯째, 문화문제.

문화요소는 주로 언어와 풍속습관, 종교등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민족전통과 민족간의 심리차이를 나타내는 결정적인 것으로 한 민족의 유대관계를 결속하는 중요한 것이며, 민족간의 충돌을 야기하는 근원이 되기도 한다. 신장에서 종교는 민족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다. 신장에는 10개의 이슬람을 믿는 민족들이 있으며,

이들사이에도 약간의 마찰과 분규는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간의 마찰은 주로 정치권력의 대소나 경제발전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한족과 소수민족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비해 정도나 빈도에서 훨씬 적다. 신장의 한족은 무슬림과는 명확한 문화상의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쉽게 민족마찰과 분규가 일어나기도 한다. 한족과는 이질적인 문화전통과 습관들, 그리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 한족과의 적은 교류는 중화민족에 대한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5. 결론

중앙정부로서는 독립을 요구하며 과격 테러를 불사하는 신장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민족간의 단결을 도모해서 안정된 체제유지와 국정을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21세기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중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종교와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달리하는 분리를 주장하는 신장 위구르족의 과격한 테러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 개혁개방이후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경제적 성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함께 향유할 수 있는가는 21세기 중국 민족정책이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장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향방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국은 민족구역자치제를 그들의 주요 민족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채택할 것이다. 중국은 건국이전 이미 연방제와 단일제와 같은 국가체제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에 단일체의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가졌다. 아울러 민족구역자치제도를 민족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분리독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정부가 서방의 다원주의에 입각한 민족정책을 채택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앙정부로서는 티베트나 신장에서의 독립은 절대 허용하

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주장하는 홍콩과 같은 고도의 자치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고 독립을 추구하는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엄타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외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대국의 중국 내정에의 개입은 신장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신장 분리주의자들의 외부에 대한 연계와 활동에 대한 견제를 여전히 강화할 것이며, 아울러 강대국의 민주, 인권등에 대한 비판도 내정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반대할 것이다. 아울러 반테러를 위한 국제조직과의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신장에 대한 테러척결의 강도를 늦추지 않으려 할 것이다. 강대국과의 관계악화는 강대국의 중국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에 대한 지원으로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강대국과의 관계악화를 원치 않을 것이며, 특히 신장위구르족과 정서를 같이하는 중앙아시아 제 국가와의 관계도모에 많은 신경을 쓸 것이다.

그러나 대외의 내정불간섭원칙 혹은 엄타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이 많다. 그들은 비록 민족정책상 여러 가지 우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점차 글로벌화되어가고 국가의 능력이 부족해져가는 상황에서 단순한 우대정책이나 재정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 많다. 특히 민족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측불허의 사건들은 종종 민족문제로 확대되어 중앙정부의 정책이 비난을 받게 한다.

중국공산당 당중앙과 자치구 및 인민정부는 이른바 ‘온강홍강, 부민고변(穩疆興疆, 富民固邊)’의 전략방침아래 여러 정책적인 문제점들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주변환경의 안정과 신장의 경제발전에 의해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신장에는 고도의 자치를 주장하는 온건파가 있는가 하면, 독립을 주장하는 과격파가 있다. 독립이나 고도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수용 불가침은 확고한 듯 하다. 모순은 여전히 존재하며, 아직은 해결의 실마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3대 세력’에 대한 엄타정책을 고수할 것을 천명하

고 있으며,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와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상해협력기구의 존재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실적 이익과의 관계는 신장의 분리세력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구르족의 독립추구와 이를 저지하려는 엄타정책이 고수되는 한 신장에서의 긴장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듯 싶다. 이와 더불어 ‘중화민족’과 ‘신장 민족주의’와의 모순과 갈등도 단시일내에 해소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민족구역자치제와 서부대개발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하는 21세기형 민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부대개발의 정책과 더불어 한족의 서부로의 점진적인 이동은 이곳의 문화적 특성을 퇴색시킬 가능성이 많으며, 이로 인해 긴장이 더욱 자주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서부에서의 개발이 동부의 발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서부의 주민들도 골고루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신장지역에 대한 배려와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 정재훈, 《위구르족 유목제국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김호동, 《근대 중앙아시아의 혁명과 좌절》, (서울: 사계절, 1999년)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서울: PUFs, 1998)
 기 소르망, 《중국이라는 거짓말》, (서울: 문학세계사, 2006)
 김동하,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이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 《중국연구》 제27호(2001)
 이동률, 〈중국 신장의 분리주의 운동: 현황과 영향력〉,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박선령, 〈중화인민공화국의 판도형성과 신장〉, 《중국사연구》 제44집 (2006.10).
 허종국,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한족인구의 증가원인 및 동화정책과의 관련성 연구: 1949년 이후〉, 《중국학》 제19집 (2002)
 허종국, 〈덩샤오핑시기 중국 민족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1978-1989)〉,

《영산논총》 제10집(2002)

유달승, 〈아프가니스탄 분쟁〉, 《중동연구》 제20호(2001)

김선호,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이슬람의 정치적 역할: 투르크민족주의와 이슬람공동체〉, 《지중해지역연구》 제3집(2001.1)

이동률, 〈9.11 테러사건에 대한 중국의 반응, 인식 그리고 전략〉, 《중국학연구》 제23집 제1기(2002).

이동률, 〈9.11 테러와 중국의 갈등과 선택〉, 《당대비평》 통권 17호(2001.12),.

장진용, 〈9.11테러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반응〉, 《신아시아》 제9권 제1호(2002년 봄),

서정민, 〈테러리즘미증과 알카에다증: 국제테러의 구조적 배경〉, 《한국중동학회논총》 제28호 2호(2008),

박기범, 강민완, 전용태,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동지역 테러리즘의 이해〉, 《경호경비연구》 제12호(2006),

장기윤, 〈친디아의 에너지 자원쟁탈전〉, 《친디아저널》 2006년 9월호(2006)

주재우,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변화〉, 《현대중국연구》 제4집 제2호(2002)

莫邦富, 〈과격, 확대되는 신장 독립운동〉, 《민족연구》 제9호, (2002)

阎学通, 《中国国家利益分析》, (北京: 天津人民出版社, 1996)

《毛泽东选集》第5卷, (北京:人民出版社, 1977)

邢广程等著, 《上海合作组织研究》, (北京:长春出版社, 2007)

李敏伦, 《中国“新安全感”与上海合作组织研究》, (北京:人民出版社, 2007)

《民族知识手册》编辑组, 《民族知识手册》, (北京:民族出版社, 1990)

歷聲, 《中俄伊犁交涉》, (北京:新疆人民出版社, 1995)

楊策主编, 《新疆纵横》, (北京: 中央民族学院出版社, 1991)

张遇良主编, 《中国西部: 新疆》, (北京:五洲传播出版社, 2001),

金鑫主编, 《从世界的角度观照中国: 世界问题报告》, (北京:中国社会科学

出版社, 2002)

金鑫, 徐晓萍著, 《新世纪中国面临的严峻挑战: 中国问题报告》,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4)

赵常庆等著, 《苏联民族问题研究》(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6)

《邓小平文选》第三卷, (北京: 民族出版社, 1993)

马戎, 《西藏的人口与社会》, (北京: 同心出版社, 1996)

郝时远, 《中国的民族与民族问题》, (北京: 江西人民出版社, 1996)

王洛林, 魏后凯主编, 《中国西部大开发政策》(北京: 经济管理出版社, 2003)

胡安钢, 《中国下一步》, (北京: 四川人民'出版社, 1995)

《维吾尔族简史》编辑组, 《维吾尔族简史》(北京: 新疆人民出版社, 1991)

国家民委政法司编著, 《中国民族指南》, (北京: 海洋出版社, 1990)

胡文康, 《新疆手册》, (北京: 新疆人民出版社, 2000)

钱伯泉, 〈穆罕默德, 伊敏《东突厥斯坦历史》选段批注〉, 《喀什师范学院报(哲学社会科学版)》, 1991年第3期(1991)

吕振羽, 〈新疆与祖国的历史关系〉, 国家民族事务委员会政策研究室编, 《中国民族关系史论文集: 上集》北京: 民族出版社, 1982)

(续四发, 2001, 14)

丁文楼, 〈略论伊斯兰教对维吾尔文化的影响〉, 《民族研究》1991年 第3期(1991)

苏瑞海, 〈近代新疆的分裂和反分裂斗争〉, 《实事求是》1990年 第6期(1990)

马雍州, 〈新疆人民民主政权建设浅析〉, 《新疆社科论坛》, 1991年 第3期(1991)

国务委员, 国家民委主任司马义艾买提, 〈在改革开放中促进民族地区经济更快地发展〉, 《中国民族统计年鉴: 1995》(北京: 民族出版社, 1995),

杨荆楚, 〈1995-1996年民族地区经济社会形势〉, 江流主编, 《社会蓝皮

- 书:1995-1996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6)
- 班吉蘇·齊文禮,〈民族传统与民族人口〉,《民族与经济》,1996年 第1期。
- 国务委员,国家民委主任司马义艾买提,〈在改革开放中促进民族地区经济更快地发展〉,《中国民族统计年鉴:1995》(北京:民族出版社,1995)
- 李建生,〈新疆民族发展报告(2000-2005)〉,《民族问题研究》,2006年12期。
- 紀大椿,〈泛伊斯兰主义,泛突厥主义对新疆的危害〉,《事实求是》,1992年 第3期。
- 蔣慶更,〈‘民族主义与现代中国’国际研讨会记录〉,《21世纪》,(1993年2月)(总第15期)
- (四)璁·托爾費爾·德雷爾,〈西藏30年〉,張植榮主编,《国外藏学研究译文集》,(北京:西藏人民出版社,1993)
- 续西发,〈关于新疆分裂主义问题的社会学思考〉,《新疆大学学报:哲学版》,(1992年2月)
- 蕭功秦,〈民族主义与中国转型时期的意识形态〉,《战略与管理》,1997年 第3期)
- 吾江,〈社会主义自我批判〉,《中国社会科学季刊》第2卷(香港),(1993,5)
- 汪晦,张天蔚,〈文化批评理论与当代中国民族主义问题〉,《战略与管理》,(1997年 第4期)
- 马雍州,〈新疆人民民主政权建设浅析〉,《新疆社科论坛》,1991年 第3期,
- 李东辉,〈对缩小东西差距问题的几点认识〉,《战略与管理》,第4期(1995)。
- 纪硕鸣,〈奥运保卫战拉开序幕〉,《亚洲周刊》2008年 第22卷 第10期(2008.3.16),
- 王雷鸣,沈路涛,〈反恐: 中国锁定首批目标〉,《环球军事》第4期

(2008), p4-5.

张文本, 〈美国的石油地缘战略与中国西藏新疆地区安全〉, 《战略与管理》, (1998年, 总第27期),

《人民日报》

Jonh K. Fairbank, "The reunification of China", by RODERICK MacFARQUHAR and Jonh K. Fairbank,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4: The People's Republic, Part I: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David Wang, "East Turkestan Movement in Xinjiang",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Summer 1998, Vol.4 Issue 4.

Colin Mackerras, "Xinjiang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e causes of separatism", *Central Asian Survey*(2001), Vol.20 No.3.

Yueyao Zhao, "Pivot or Periphery? Xinjiang's Regional Development", *Asian Ethnicity*, Vol 2, No 2, September 2001.

Maxim POTAPOV, "China's Gas Market and Prospects for Russian-Chinese Cooperation", *Far Eastern Affairs*, Vol 30, No 2(2002).

Stephen Van Evera, "Hypotheses on Nationalism an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8, No 4(Spring 1994).

Josep Brewda, "Uighur 'card' used to break up China", *EIR Strategic Studies*, March 28(1997).

Felix K, Chang, "Fresh Perspectives on East Asia's Future: China's Central Asian Power and Problems", *Orbis*, summer 1997.

Shingleton, William D, "In Xinjiang China's Consolidation isn't Solid", *Christian Science Monitor*, Arg 27(1997)

Anthony D. Smith, *Nation and Nationalism in a global era*(Cambridge: Polity Press, 1995),

Anthony D. Smith, *Nation and Nationalism in a globalism*

Era(Cambridge Polity press, 1995),
Colin Mackerras, "Xinjiang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e causes of
separatism", *Central Asian Survey*(2001) Vol 20, No3.
Elizabeth Van Wie Davis, "Uyghur Muslim Ethnic Separatism in
Xinjiang, China", *Asian Affairs*, (2008).

[中文提要]

本论文研究1990年代中国新疆维吾尔族的民族分离运动与中国的民族政策的主要内容和特征。新疆维吾尔族具有与汉族不同的民族认同感，而这些民族认同感主要来自于维吾尔族的历史和文化因素。受到冷战体系的崩溃和一些中亚伊斯兰国家独立，新疆维吾尔族也要求分离和独立，因而在中国境内发生了很多恐怖事件。为了控制新疆的形势，中国政府采取了多种方法，如在国内采取‘严打’政策；阻止与海外维吾尔族以及伊斯兰势力的联系；对新疆地区实施包括经济方面的各种优待政策。

今天的新疆在中央政府的多种政策和努力之下，基本上维持着安定的局面，但在解决新疆问题上还存在一时难以解决的各种矛盾。第一，‘中华民族’的认同感和中央政府统治思想的弱化。第二，新疆的安定与经济之间的关系和矛盾。第三，对于外部势力和强大国对中国内政介入的对策。

对中央政府来说，来自西部的何种‘高度’自治或独立要求也不会接受，而一旦存在新疆维吾尔族继续要求分离和独立，那‘中华民族’与新疆的民族认同感之间的矛盾也无法一时解决。

투고일: 2008. 10. 30.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중국박사학위 신고 및 인증 시스템 고찰*

朱 星 一**

〈목 차〉

1. 서언
2. 중국의 고등교육 및 학위 제도
3. 중국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 및 학위 제도
4. 학력증서 및 학위증서
5. 중국박사학위 신고 시스템 개선안

1. 서언

금세기에 접어들어 국가와 국가 사이의 시·공간적인 거리가 더욱 좁혀지면서 세계화를 향한 각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외국 학위 취득자의 숫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학위 시스템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즉, 우리 사회 풍토가 외국의 학위를 선호하고 우대하며 그것에 대한 관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상응하여 외국의 학위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인증하여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 본고는 2008년 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과제 《중국의 교육·학위제도 조사연구》에서 연구책임자인 본인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 명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zhuxy@mju.ac.kr)

비록 1983년부터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¹⁾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은 상당히 제고되었지만, 여전히 학위 취득자의 주로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검증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단순한 절차에 따른 신고를 통해 취득하게 되는 “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에 대해 일반인들은 물론 관련 기관에서까지도 이를 국가기관의 정식 인증인 것으로 여기고 있어 부적격 학위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외국학위관리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국가별로 상이한 학위 제도와 학문 간의 이질성을 고려할 때, 학위논문을 비롯한 학위과정의 획일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국가별 교육제도와 학위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신고제도 및 신고 절차에 반영하여 부적격 학위에 대한 최선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성장함에 따라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뒤부터는 중국과의 학술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994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중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학술진흥재단에 학위신고를 마친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이다.

<연도별 중국 박사학위 취득자 추이>

년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인원	1	3	27	42	56	62	62	81	79	95	92	78	72	76	827
남성	1	2	24	29	42	47	37	52	50	63	65	45	46	55	558
여성		1	3	13	14	15	25	29	29	33	27	33	26	21	269

자료출처: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krf.or.kr>

1) 한국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국한 날(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학위논문 또는 학위논문이 게재된 출판물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 2항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박사학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학위 취득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육제도와 학위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은 현행 외국 박사학위 신고의 허점들과 맞물려 여전히 부적절한 학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교육 및 학위 체계를 갖는 중국의 교육제도를 심층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 취득한 석사 및 박사 학위 신고과정에서의 적절한 검증 시스템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중국의 고등교육 및 학위 제도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이하 《교육법》으로 약칭)에 따르면 중국의 교육제도는 크게 학교교육제도와 직업교육제도 및 성인교육제도로 분류된다.²⁾ 학교교육이란 취학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일반적인 진학과정을 의미하며 직업교육이나 성인교육은 일반적인 진학과정을 이수하지 못했거나 또는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직업 및 평생교육의 개념으로서 이수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교육제도 중 고등교육은 다시 전문대학(專科)교육, 일반대학(本科)교육, 대학원(研究生)교육으로 분류 된다. 학교 교육제도에 속한 모든 교육은 학제 시스템을 기초로 國務院 또는 國務院이 위임한 교육행정부문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등 및 중등 이하 교육은 국무원의 지도하에 지방 인민정부가 관리하고 고등교육은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한다”³⁾.

2) 《교육법》 제17조 및 제19조 참조.

3) 《교육법》 제14조: “中等及中等以下教育在國務院領導下, 由地方人民政府管理。高等教育由國務院和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管理。”

각 층위별 고등교육 과정과 담당 교육기관 그리고 학력증서 발급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專科) 교육의 기본 수업 연한은 2~3년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문대학(高等專科學校)에서 담당하며, 전과교육기관의 설립은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이 비준하거나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가 비준한다. 전과교육기관은 학생의 수업 연한, 학업성적 등에 따라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학력증서(學歷證書)—졸업증서(畢業證書)⁴⁾, 수료증서(結業證書)⁵⁾, 재학경력증서(肄業證書)⁶⁾—를 수여한다. 하지만 과정을 모두 마치더라도 학위증서(學位證書)는 수여되지 않는다.

일반대학(本科) 교육의 기본 수업 연한은 4년에서 5년이다. 일반적으로는 4년 학제를 채택하지만 소수의 이공계열 교육기관에서는 5년을 채택하며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5년 학제와 7년 학제 두 종류의 학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일반대학 교육은 일반적으로 종합대학(大學)과 단과대학(學院)에서 담당하며, 본과교육기관의 설립은 국무원의 교육행정부문이 비준한다. 본과교육에서는 전과교육과는 달리 학력증서와 함께 학위증서도 발급된다. 졸업증서와 수료증서의 양식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괄 제작하고 해당학교에서 증서 양식의 공란을 채워 수여하며, 재학경력증서는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쇄 제작하여 수여한다.

대학원(研究生) 교육은 일반적으로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그리고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의 허가를 받은 과학연구기관(科學研究機構)⁷⁾에서 담당

-
- 4) 졸업증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계획규정에 따른 전 과정을 모두 수료하고 시험성적이 일정기준에 도달한 학적보유자에게 수여된다.
 - 5) 수료증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계획규정에 따른 전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유급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한 과목이상 기준미달의 재시험 과목이 있거나 또는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한 학적보유자에게 수여된다.
 - 6) 재학경력증서는 만 1년 이상 교육계획규정에 따른 과정에 참여했으나 과정을 모두 마치진 못한 학적 중퇴자에게(강제 퇴학 등 학적 말소자 제외) 수여된다.
 - 7) 과학연구기관은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

한다. 연구생교육에서는 본과교육과 마찬가지로 학력증서와 함께 학위증서도 발급된다. 단, 연구생교육기관 중에서 국무원의 비준여부에 따라서 교육과정만 개설할 수 있을 뿐 학력증서나 학위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증서수여가능 교육기관에 해당년도 졸업대상자들에 대한 증서발급 의뢰를 할 수 있다. 이 때 졸업 대상자들은 증서수여가능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하고 논문심사도 받아야 한다.

연구생 교육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구분된다. 석사연구생 교육의 기본 수업연한은 2년에서 3년이고 박사연구생 교육의 기본 수업연한은 3년에서 4년이다. 전일제 교육을 받지 않는 연구생, 즉 재직 연구생일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 조정된다. 수업연한 조정은 고등교육기관의 실제적인 수요와 주관 교육행정부문의 기준을 얻어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中華人民共和國高等教育法)》(이하 《고등교육법》으로 약칭)와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中華人民共和國學位條例)》(이하 《학위조례》으로 약칭),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임시시행세칙(中華人民共和國學位條例暫行實施辦法)》(이하 《학위조례 임시시행세칙》으로 약칭)등에 따르면, 중국의 고등교육은 국무원에서 일괄 지도, 관리된다. 국무원은 전국의 학위수여 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학위위원회(國務院學位委員會)를 설립하는데, 학위위원회는 국무원의 임면에 의해 주임위원 1명, 약간 명의 부주임 위원과 기타 위원으로 구성된다.⁸⁾ 학위수여는 국무원으로부터 학위수여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며,⁹⁾ 해당 학위수여기관에서는 매년 학사학위 수여인원 수,

院), ‘중국공정원(中國工程院)’ 등과 같이 주로 ‘~원(院)’으로 지칭되며, 학문 연구와 연구생 교육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어 전/본과 과정은 개설하지 않는다.

8) 《학위조례》 제7조: “國務院設立學位委員會，負責領導全國學位授予工作。學位委員會設主任委員一人，副主任委員和委員若干人。主任委員、副主任委員和委員由國務院任免。”

9)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및 두 기관 내에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과명단은 국무원 학위위원회가 제출하고 국무원이 비

석·박사학위 수여자 명단 및 관련 자료를 주관부문(해당 대학의 학위평가위원회 등)과 국무원 학위위원회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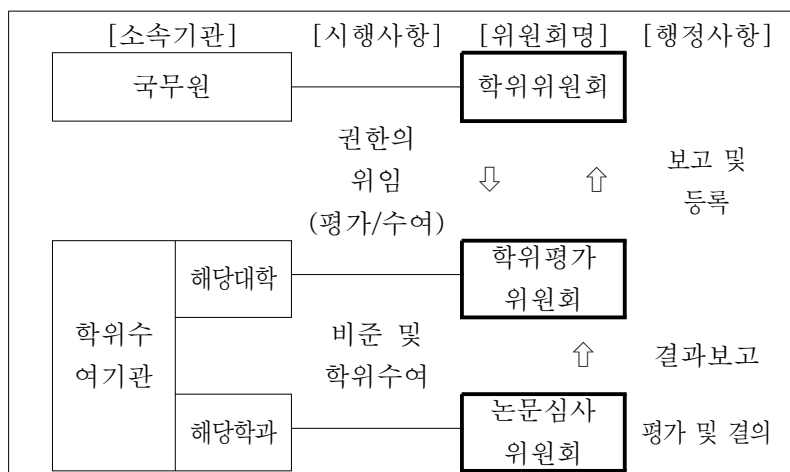
이들 학위수여기관은 국무원이 비준한 학위수여 권한에 따라 직책을 이행할 학위평가위원회(學位評定委員會)를 구성하고 관련학과의 학위논문심사위원회(學位論文答辯委員會)를 조직한다.¹⁰⁾ 학위평가위원회는 학위신청인 명단을 접수, 심사, 통과시키며 학위신청과 관련한 시험과 시험관, 논문심사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비준한다. 또 학사학위 취득자 명단을 통과시키고 석·박사 학위의 수여결과와 규정위반자에 대한 취소결정을 하며 교과시험 면제를 신청한 박사학위 신청인의 명단을 심사, 비준하는 것은 물론 명예박사학위 수여자 명단도 심사·비준한다.¹¹⁾ 학위논문심사위원회¹²⁾에는 석·박사를 불문하고 외부기관의 관련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결정되며, 통과된 명단은 학위평가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의 학위위원회에 보고된다.¹³⁾

이상을 토대로 중국의 학위수여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준한다.

- 10) 《학위조례》 제9조: “學位授予單位, 應當設立學位評定委員會, 并組織有關學科的學位論文答辯委員會。”
- 11) 《학위조례》 제14조: “對於國內外卓越的學者或著名的社會活動家, 經學位授予單位提名, 國務院學位委員會批准, 可以授予名譽博士學位。”
- 12) 학사학위는 학위논문심사위원회를 따로 조직하고 않고 학위평가위원회가 책임지고 심사, 통과시킨다.
- 13) 《학위조례》 제10조: “學位論文答辯委員會負責審查碩士和博士學位論文、組織答辯, 就是否授予碩士學位或博士學位作出決議。決議以不記名投票方式, 經全體成員三分之二以上通過, 報學位評定委員會。”

<중국의 학위수여 행정절차>



3. 중국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교육 및 학위 제도

3.1. 외국인 유학생 교육 제도¹⁴⁾

중국의 일반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외국 유학생에게 실시하는 교육은 학력(學歷)교육과 비학력교육으로 나뉜다. 학력교육은 유형별로 전과생, 본과생, 석사연구생, 박사연구생으로 나뉘며 비학력교육은 유형별로 진수생과 연구학자로 나뉜다.

외국 유학생에 대한 교과과정은 중국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유학생들의 심리적 특징과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여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14) 《중국 외국유학 연구생모집규정(接受外國來華留學研究生施行辦法)》(1992.6.22) 및 《일반대학의 외국인 모집 관리규정(普通高等學校接受外國留學生管理規程)》(2000.1.31.) 참조.

에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필수과목으로서 막스 레닌 사상과목을 들어야 하는 중국 학생들과 다르게 외국 유학생은 《중국개황》이라고 하는 중국 전반에 대한 개론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필수과목으로서의 외국어 과목은 중국어(漢語)과목으로 대체한다. 수업의 주요언어는 중국어이며 상황에 따라 영어강의 과목도 개설가능하다. 그러나 학력교육과정의 외국유학생이라면 졸업논문 제요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외국인의 석·박사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3.1.1. 외국인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 및 선발과정

외국유학생을 받도록 국가교육위원회, 국무원부위원회(部委)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비준한 대학 중에서 박사, 석사학위 수여권을 갖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 개방 가능한 학과와 전공은 모두 외국유학 박사연구생 또는 석사연구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유학연구생 모집 시행방안(接受外國來華留學研究生施行辦法)》에는 외국인 유학연구생의 수업연한을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¹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석사는 2년에서 3년, 박사는 3년에서 4년 정도가 소요된다.

입학신청 방법은 두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정부계획 내 유학연구생(政府計劃內的來華留學研究生)’(이하 ‘계획내연구생’으로 약칭)으로서 중국 정부장학생 신분으로 유학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둘째, ‘정부계획 외 유학연구생(政府計劃外的來華留學研究生)’(이하 ‘계획외연구생’으로 약칭)으로서 두 학교간이나 두 국가 간 교류에 의해 또는 자비로 유학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학교 간 또는 양국의 기타 부문 간 교류계획에 따라 연구생 입학 허가를 받으면 체결된 협의에 준해 신청수속을 밟는다. 그 외에도, 유학연구생 자격에 부합한다면 자비 연구생학위자로서 해당

15) 六、学习期限：“来华留学研究生专业学习期限一般为二至三年。”

학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① 외국유학생 재중학습 신청서; ② 외국인 체격 조사기록; ③ 공증을 받은 학위증서 및 최종학력 학업증서, 전 교과과정 및 성적표(사본); ④ 부교수(또는 상당하는 직책)급 이상 전문가나 학자의 추천서 2부. 이들 자료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 하나이거나 공증을 거친 번역본이어야 한다.

중국의 외국유학 연구생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에서 신청한 '계획내연구생'의 경우, 중국 국가교육위원회가 신청인의 희망사항과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와 일괄 상의한다. 해당 학교는 신청인의 자료 등을 근거로 선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심사를 통해 비준한다. 둘째, 중국 국내에서 신청한 '계획내연구생'과 '계획외연구생'의 경우, 중국인들이 통일적으로 보는 입학시험에 응시하거나 해당 학교가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에 참가해야 한다. 1차 시험(初試)은 석사연구생인 경우 3과목의 전공시험을 봐야 하고 박사연구생인 경우 중국학생들과 동일한 수의 전공과목 시험을 본다. 각 과목마다 시험시간은 3시간이며 1차 시험(初試)에 합격하면 면접시험에도 응해야 한다. 합격은 학교에서 결정한다. 셋째, 중국내에서 유학하고 있는 해당년도 본과 졸업생이 추천에 의해 석사연구생 시험면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해당 학교는 '추천에 의한 시험 면제 시행안'에 준해 선발한다. 각 교육기관에서 선발하는 외국인의 학생 수는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당 교육기관은 모두 규정된 기간 내에 규정된 격식에 맞춰 합격자 명단을 국가교육위원회와 상급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합격된 후의 수속은 아래와 같다. 외국에서 신청하는 '계획내연구생'일 경우,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는 7월 31일 전까지 주한중국대사관과 해당학교에 합격자 명단을 통지한다. 그리고 해당국가의 중국대사관은 중국 유학비자(X비자¹⁶⁾)와 합격통지서를 유학 신청자에게 발송한다. 중국

16) 'X비자'에서 'X'는 '학습, 공부'를 의미하는 '學習'이란 단어의 중국어 발음

에서 신청하는 ‘계획내연구생’일 경우, 해당 학교가 합격통지서를 직접 유학생 본인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중국내의 해당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발송한다. ‘계획외연구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합격통지서와 JW202표(외국인 유학자 중국비자 신청표)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해주면¹⁷⁾ 이를 통해 해당국가의 중국대사관에서 X비자 수속을 밟는다.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학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에는 학교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받는데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입학자격이 취소된다.¹⁸⁾ 또 특수한 상황으로 학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외에 등록기간을 넘겼다면 자동적으로 포기처리 된다.

3.1.2. 교육경력

연구생 교육기관은 외국 유학생의 수업 연한, 학업성적 등 교육이수 과정에 따라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학력증서-졸업증서(毕业证书), 수료증서(结业证书), 재학경력증서(肄业证书)-를 발급한다. 또한 학위취득 조건을 갖춘 외국 유학생에게는 상응하는 학위증서를 발급한다. 이 때 연구생 교육기관은 필요에 따라 외국어(영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학력증서 또는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인 ‘xuexi’의 이니셜이다. ‘F비자’에서의 ‘F’는 ‘방문’을 의미하는 ‘訪問’이란 단어의 중국어 발음인 ‘fangwen’의 이니셜이다. ‘X비자’는 유학을 목적으로 한 장기체류(6개월 이상)를 허가할 때 발급하며 ‘F비자’는 유학입에도 장기체류가 아닐 경우(6개월 미만)에 발급한다.

- 17) 중국 유학비자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합격통지서, 외국인 체격검사 기록, JW202(또는 201)표를 갖추어야 한다. 6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X비자를, 6개월 미만 체류 시에는 F비자를 받는데, 학력 교육인 학사·석사·박사 유학일 경우에는 해당학교에서 X비자를 위한 JW202표를, 비학력 교육인 진수생 이나 방문학자 과정으로 방문할 때에는 F비자를 위한 JW202표를 작성, 발송해준다.
- 18)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유학생의 경우 중국 입국 후 규정된 기한 내에 위생검역부문에 가서 《외국인 체격검사 기록》에 대한 확인수속을 밟아야 한다.

3.1.3. 외국유학생을 받은 대학

중국 교육부가 전국의 일반대학(普通高等學校)에 하달한 《일반대학 외국유학 신입생 학적과 외국유학생 학력증서 전자등록 시행에 관한 통지(《普通高等學校外國留學生新生學籍和外國留學生學歷證書電子注册的通知》)》(이하 《전자등록 시행안》으로 약칭)에 따르면, 전국의 일반대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중국에서 유학하는 신입생 학적과 외국 유학생의 학력증서를 교육부의 학적학력 정보관리시스템(學籍學歷信息管理系統)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각 대학은 《전자등록 시행안》에 따라 《교육부 학적학력 정보관리 등록명단 신청표》를 작성하여 교육부 유학기금위원회 국가유학 사무부(國家留學基金委來華事務部)에 제출하고 네트워크 이용을 위한 ID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아야 한다. 각 대학이 교육부로부터 ID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곧 해당대학이 외국인에게 전공(專科) 이상의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그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갖추어 놓았다는 것을 뜻한다.

3.2. 외국인 유학생 학위 제도¹⁹⁾

외국 유학생의 학위 역시 학사·석사·박사 세 등급으로 나뉘며, 그 시행 방법도 중국 학생들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다만 《일반대학의 외국 유학생의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령(关于普通高等学校授予来华留学生我国学位试行办法)》(이하 《외국인학위수여시행령》으로 약칭)에는 해당 교육기관 및 학과와 전공으로 하여금 원활한 학위수여업무를 위해 시행령에 근거한 업무세칙을 둘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는 유학생이라는

19) 중국 국무원 《일반대학의 외국유학생의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령(关于普通高等学校授予来华留学生我国学位试行办法)》(1991.10.24) 참조.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행안의 적용정도에 완급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 유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및 학과, 전공은 반드시 국무원 학위위원회로부터 학위수여권을 획득한 보통고등교육기관(普通高等學校) 및 학과, 전공이어야 한다. 이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데, 외국 유학생에게는 '보통' 교육기관의 학위교육만 허용될 뿐 성인교육이나 기타 독학시험, 방송통신 교육 등의 경로를 통해서도 학위(특히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²⁰⁾

박사학위 수여는 과목학습과 학위논문이 모두 반드시 《외국인학위수여시행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석사학위 수여는, 과목 학습은 《외국인학위수여시행령》을 따르지만 논문은 각 학교마다의 자체 교육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진행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사학위 수여는 《외국인학위수여시행령》의 관련규정을 따르지 않고 학교의 자체 관련규정을 만들어 유학생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학사학위는 《학위조례》와 《학위조례 임시시행세칙》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학교가 유학생들을 상대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위신청 전에 모든 유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중국어 교과목과 《중국개황(中國概況)》²¹⁾ 과목을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학위논문도 중국어로 집필하여야 한다.²²⁾

20) 독학시험은 '전과'와 '본과'에만 해당된다. 석사와 박사는 독학시험으로 취득할 수 없다.

21) 《중국개황》은 유학생 국가와의 사상적,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여 중국학생들의 필수과목인 마르크스 레닌사상 관련 교과목을 대체한 것이다.

22) 철학, 경제학, 법학, 교육학, 문학, 역사학 및 예술, 중의, 임상의학 등 전공의 학위 과정생은 중국어(漢語)로 논문도 쓰고 논문심사도 중국어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타 학과와 전공의 학위자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집필도 하고 논문심사도 받을 수 있다.

3.2.1. 학사학위

(1) 수여조건

유학생에 대한 학사학위 수여조건은 중국학생들과 같이 《학위조례》에 준한다. 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학술수준은 ‘해당 학과의 기초이론, 전문지식, 기본기능에 비교적 정통하고’, ‘과학연구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기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전공에서 규정한 기초 이론과목과 전공핵심(主幹)과목, 선택과목 시험을 통과한다.
- ② 초보적인 중국어 능력을 갖춘다. 생활용어를 사용하고 해당 전공의 중국어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초보적인 능력을 갖춘다. 《중국개황》은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요구된다.
- ③ 규정에 따른 본과 졸업논문을 완성한다.

(2) 수여과정

학위평가 분과위원회는 유학기간동안 중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위 수여조건 규정에 부합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합격자에 한해 학교의 학위평가위원회에 그 명단을 올린다. 학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상응하는 학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3.2.2. 석사학위

(1) 수여조건

석사학위 수여조건은 기본적으로 석사학위 과목 시험과 논문심사를 통과하고 성적이 기준 이상(合格)이어야 한다. 학술수준은 ‘견실한 기초이론과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파악하고’, ‘과학연구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기술 업무를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도이어야

한다. 석사 학위를 신청하는 유학생은 해당 전공에서 규정한 학위과정(課程)시험 및 기타 필수, 선택과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초이론과목과 3~4개의 전공과목이 학위과정으로 배정, 요구된다.

②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생활용어를 사용하고 해당전공의 중국어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중국 외에서 학사학위 학술수준에 상응하는 학력증서를 취득한 자는 생활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초보적 능력이 요구된다. 《중국개황》은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요구된다.

③ 각 학과와 전공은 외국인 석사학위 과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이를 이수해야 한다.²³⁾

④ 학위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주제보고 포함)을 써야 한다. 해당 학교 및 그 학과, 전공은 교육계획에 따라 논문에 대해 각기 다른 요구를 할 수 있다. 논문은 학술연구나 과학기술보고일 수도 있고 전문주제 조사연구, 공학설계, 판례분석 등의 보고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 기초이론과 전문지식을 종합, 운용하여 실제문제를 해결한 능력은 반영해야 한다.

외국인 석사연구생은 원칙적으로 전일제 교육 대상이다. 따라서 모든 과정은 중국에서 끝나쳐야 한다. 논문집필 역시 그러하지만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동의하에 반년 이하의 기간 동안은 논문을 귀국하여 논문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논문심사는 반드시 중국에서 진행해야 한다.²⁴⁾

23) 이상 ①·②·③의 요구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 1년 내에 관련과목을 보강 또는 재수강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논문심사에 참가할 수 없다.

24) 《외국인학위수여시행령》 제11조:“確因因要、经指导教师同意, 來华留学硕士生可以利用部分时间回国撰写论文, 但在我国进行论文工作的时间不得少于半年; 來华留学硕士生的论文答辩工作必须在我国进行。”

(2) 과정이수의 면제

기타 국가에서 이미 상응하는 학과의 과정이나 전문직업 석사학위(專業碩士學位)²⁵⁾ 과정을 이수한 유학생이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신청할 경우, 보통 교육기관 및 그 학과와 전공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과정의 명칭, 성적표 및 2명의 전문가(부교수급 이상)의 추천서 등에 근거하여 3~5명의 동일분야 전문가(부교수급 이상)팀을 조직하여 신청인이 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에 대해 심사, 심의, 시험을 실시한다. 전문가팀의 인정을 받은 과목은 과정 이수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과목들을 처음부터 다시 이수해야 한다.

(3) 수여과정

교육기관 및 학과와 전공은 위 (1)과 (2)의 조건에 근거하여 학위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한다. 합격자는 논문심사에 참가할 수 있으나 불합격자는 참가할 수 없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가 제출한 청구논문에 대해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의 심사를 진행한다. 논문이 통과되면 논문심사위원회는 주석이 서명한 명단을 학위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해당 교육기관은 학위평가위원회의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상응하는 학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년 내에 논문을 수정한 후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3.2.3. 박사학위

외국인 박사연구생 교육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전일제 교육(脫產培養)으로 모든 과정을 중국에서는 이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25) '전문직업학위(專業學位)'에서 '專業'란 '전공'을 의미하나 '학위'라는 말과 함께 쓰이면 중국에서 실제 현장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수여되는 학위의 일종인 '전문직업학위'라는 전문용어로 사용된다.

하나는 재직자 교육(在職培養)²⁶⁾으로 과정 학습과 논문 집필을 중국에서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동안 본국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재직자 교육과정의 박사연구생이 본국에서 과정 학습을 하더라도 과정시험은 중국에서 치러야 하며, 논문 집필을 본국에서 하더라도 논문심사는 반드시 중국에서 받아야 한다. 또한 본국에서 학습과 논문을 진행하더라도 중국에서의 과정 학습과 과학연구 작업시간이 도합 1년 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²⁷⁾ 이는 학위과정을 3년에서 4년으로 볼 경우 최소 학위과정의 반 또는 1/3 이상의 시간은 중국에 체류해야 함을 의미한다.

(1) 수여조건

박사학위 수여조건은 기본적으로 박사학위 과목 시험과 논문심사를 통과하고 성적이 기준 이상(合格)이어야 한다. 박사학위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기초이론 과목과 전공과목. 해당 학과는 견실하면서도 폭넓은 기초이론과 체계적이고 심도 깊은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② 중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생활용어를 사용하고 해당전공의 중국어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중국 외에서 석사학위 학술수준에 상응하는 학력증서를 취득한 자는 생활용어를 사용하고 해당전공의 중국어 자료를 읽을 수 있는 초보적 능력이 요구된다. 《중국개황》은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요구된다.

③ 외국어(모어와 중국어를 제외한 언어) 1과목. 선택과목으로서 해당 전공자료를 읽을 수 있는 초보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26) 재직 연구생(在職研究生)이란 국가계획의 범위 내에서 선발된, 직장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 연구생을 가리킨다. 직장인 신분이기 때문에 일부 시간은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일부 시간은 학교에서 연구한다. 등록, 시험에 대한 요구 및 선발 방법 등이 전일제 학생과 동일하며 선발과정을 거친 정식 연구생이기 때문에 학력(졸업증서)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27) 《외국인학위수여시행령》 제16조: “在職培養的來華留學博士生, 在我國進行課程學習和科學研究工作時間累計不得少於一年半。”

위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고 규정에 의한 이수과정을 마치고 논문 집필을 끝내면 논문심사에 참가할 수 있다.

(2) 수여과정

교육기관 및 학과와 전공에서는 논문심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가 제출한 청구논문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다. 논문이 통과되면 논문심사위원회는 주석이 서명한 명단을 학위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학위평가위원회의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상응하는 학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논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년 내에 논문을 수정한 후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3.2.4. 석사학위 동등학력 소지자의 처리²⁸⁾

석사학위 동등학력 소지자란 석사학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일정 분야의 '교습, 과학연구, 전문기술, 관리 등의 방면에서 성과를 올려 석사연구생 졸업 예정자와 동등한 학력(學歷)이 인정되며 학술수준이나 전문기술 수준이 학위수여의 기준에 이른 자'를 가리킨다. 동등학력 소지자에 대한 학위는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기준을 거친 석사학위 수여기관이 수여한다. 흔히 동등학력 소지자라면 일종의 편법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으나 아래의 자격요건과 논문답변 절차를 보면 재학생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신청자격

석사학위 동등학력 소지자의 학위신청 자격은, 이미 학사 학위를 취득했어야 하며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고 학위신청 전공이나 유사전공에서 성과를 이룬 자에 한한다. 신청인은 학위

28) 《석·박사 학위 수여에 관한 국무원 규정(國務院關於授予碩博學位的規定)》 제7조 참조.

수여기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학사학위증명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이미 발표했거나 출판한 학위 신청 전공과 관련된 학술논문이나 전문저서 또는 기타 성과물; ④ 신청인 소속기관이 학위수여 기관에 제공하는 신청인의 약력, 정치사상, 업무성적, 과학연구 성과, 업무능력, 이론기초, 전문지식, 외국어 수준 등에 관련한 자료(날인 밀봉). 상기 자료를 접수한 학위수여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인에 한해 아래와 같은 동등학력 수준 인증 절차를 진행시킨다.

(2) 동등학력 수준인증 절차

자격요건을 갖춘 동등학력 학위신청자에 대해 석사학위수여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 걸쳐 동등학력 수준 여부를 인증한다.

① 신청자가 교습, 과학연구, 전문기술, 관리 등 방면에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검증

② 신청자의 전공지식과 수준에 대한 인증 시험: 신청자는 자격심사가 통과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수여기관이 조직한 교과시험²⁹⁾과 국가에서 조직한 수준측정시험³⁰⁾ 등 교과시험과 수준측정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신청은 무효가 된다.

③ 학위논문 수준의 인증: 신청자는 위의 시험을 통과한 후 1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답변은 논문제출 후 6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29) 자격 심사에 합격한 신청자에 대해 석사연구생 교육 방안에 규정된 교과에 준해 시험을 실시하고 학위수여기관의 전공에 재학 중인 연구생과 동등한 시험요건과 시험답안 채점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30) 신청자는 일반 학력과정 재학생이 석사학위 신청 시 치러야 하는 외국어수준 전국통일고사(外国語水平全國統一考試)와 학문분야 별 전국통일고사(學科綜合水平全國統一考試)를 통과해야 한다. 성적표는 모두 시험주관부문에서 직접 발부한다.

3.2.5. 박사학위 동등학력 소지자의 처리³¹⁾

박사학위 동등학력 소지자란 박사학위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일정 분야의 '교습, 과학연구, 전문기술, 관리 등의 방면에서 성과를 올려 박사연구생 졸업과 동등한 학력(學歷)이 인정되며 학술수준이나 전문기술 수준이 학위수여의 기준에 이른 자'를 가리킨다. 동등학력 소지자에 대한 학위는 국무원 학위위원회의 비준을 거친 박사 학위 수여기관이 수여한다.

(1) 신청자격

박사학위 동등학력 소지자의 학위신청 자격은,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했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신청인은 교습, 과학연구, 전문기술 분야에서 성적이 우수하며 학위를 신청한 학과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을 단독으로 발표한 적이 있거나 전문저서를 출판한 적이 있고 그 과학연구 성과가 국가급 또는 성이나 부(部)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학위수여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다음과 같은 신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석사학위증명서; ② 최종학력증명서; ③ 박사 학위 신청을 위해 준비한 학위논문; ④ 공개 발표된 관련 학술논문, 출판된 전문저서 및 과학연구 성과로 상을 받았던 증명자료; ⑤ 신청인 소개기관이 학위수여 기관에 제공하는 신청인의 약력, 정치사상, 업무성적, 과학연구 성과, 업무능력, 이론기초, 전문지식, 외국어 수준 등에 관련한 자료(날인 밀봉). ⑥ 2명의 교수 또는 상당하는 전문기술직 전문가의 추천장(날인 밀봉), 그 중 최소 1명은 박사연구생 지도교수. 상기 자료를 접수한 학위수여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인에 한해 아래와 같은 동등학력 수준 인증 절차

31) 《석·박사 학위 수여에 관한 국무원 규정(國務院關於授予碩博學位的規定)》 제10조 참조.

를 진행시킨다.

(2) 동등학력 수준인증 절차

동등학력 학위신청자에 대해 학위수여기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면에 걸쳐 동등학력 수준 여부를 인증해야 한다.

① 신청자가 본직 업무를 완수하고, 교습, 과학연구, 전문기술 등의 방면에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검증

② 신청자의 전공이론 기초, 지식 구조 및 수준에 대한 인증 시험: 자격심사를 통과한 신청인에 대해 학위수여기관의 학위 및 연구생 교육 기구에서는 규정된 교과과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자격시험이 통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모든 교과시험을 완료하고 성적이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신청은 무효가 된다. 예외도 있는데, 신청인이 과학 또는 전문기술에서 중요한 저서 혹은 발명이나 주요 발견이 있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추천과 학위수여기관의 승인을 얻으면 일부 또는 모든 교과 시험을 면제받고 곧바로 박사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위논문 수준의 인증: 신청자는 위의 인증시험을 통과한 후 1년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마쳐야 한다.

4. 학력증서 및 학위증서

앞에서 언급한대로 중국에서는 재학경력증서를 제외한 학력증서, 즉 졸업증서와 수료증서를 비롯하여 학사·석사·박사 학위증서를 국가 기관에서 일괄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각 증서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학위증서 상의 일련번호에서 각 단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된다면 추후 중국의 석사 및 박사 학위자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4.1. 학력증서

학력증서는 원래 책과 같은 형식의 접이식(開本式)이었으나 2008년부터는 단면식(單頁式)으로 바뀌었다.

(1) 졸업증서³²⁾: ① 졸업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습 시작년월과 종료년월; ② 교육연한(學制), 전공(專業), 학습과정분류(박사연구생·석사연구생·본과·전과로 구분), “졸업”; ③ 학교의 철인이 찍힌 증명 사진; ④ 학교명칭 및 인장, 교(원)장의 사인; ⑤ 증서 수여일 및 증서 일련번호.

<일반고등교육 졸업증서 양식>(2008년 이후)

(2) 수료증서: ① 수료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습 시작년월과 종료년월; ② 학제, 전공, 학습과정분류(박사연구생·석사연구생·본과·전과로 구

32) 본 항목 상의 일련번호는 아래 예시된 증서 상의 번호와 대응된다.

분), “수료”; ③ 학교의 철인이 찍힌 증명 사진; ④ 학교명칭 및 인장, 교(원)장의 사인; ⑤ 증서 수여일 및 증서 일련번호.

<일반고등교육 수료증서 양식>(2008년 이후)

(3) 재학경력증서³³⁾: ① 재학경력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습 시작년월과 종료년월; ② 학제, 전공, 학습과정분류(박사연구생·석사연구생·본과·전과로 구분), “재학경력”; ③ 학교의 철인이 찍힌 증명 사진; ④ 학교명칭 및 인장, 교(원)장의 사인; ⑤ 증서 수여일 및 증서 일련번호.

4.2. 학위증서

(1) 주관부서

1981년 5월 20일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학위조례 임시시행세칙》

33) 재학경력증서는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인쇄 제작하여 수여하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그 형식에 대하여는 해당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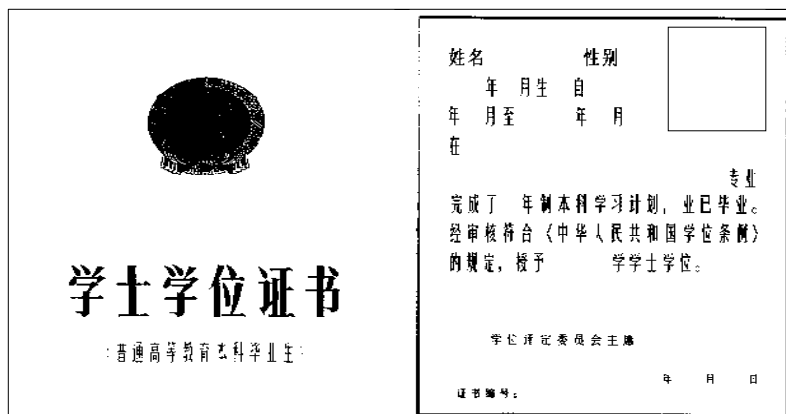
에는 “학사학위 증서의 양식은 교육부가 제정하며, 석사학위와 박사학위 증서의 양식은 국무원의 학위위원회가 제정한다”³⁴⁾고 하여 학위별 증서 양식의 주관부서가 이원체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학위증서의 제작은 국무원 학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일원화 되어 있다. 학위 수여는 해당 학위수여 교육기관이 맡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무원 학위위원회가 설립과 시범운영을 비준한 각급 전문직업학위(專業學位) 증서는 국무원 학위위원회에서 제작과 수여를 비롯하여 감독, 조사까지 일괄 담당한다.

(2) 학위증서의 양식과 내용

학위증서는 학력증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책자와 같은 형식의 접이식(開本式)이었으나 2008년 졸업자부터는 단면식(單頁式)으로 바뀌었다. 학사학위증서는 접이식의 경우 왼쪽 면 중앙에 국가 휘장이 찍혀있고 그 밑에 “학사학위증서(學士學位證書)”라고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일반고등교육본과졸업생(普通高等教育本科畢業生)”, “성인고등교육본과졸업생(成人高等教育本科畢業生)”, “외국인유학본과졸업생(來華留學本科畢業生)” 등의 구분이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면 상단에는 학위수여자의 증명사진이 있고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각각 성명, 성별, 출생년월, 학습기간, 학과명과 전공명, 학제연한, 수여학위의 학문분야, 수여일시, 수여기관 및 수여인(經辦人), 학위증서 일련번호가 기재된다.

34) 제22조: “学士学位的证书格式, 由教育部制定。硕士学位和博士学位的证书格式, 由国务院学位委员会制定。”

〈일반고등교육본과졸업생 학위증서 양식〉 (2008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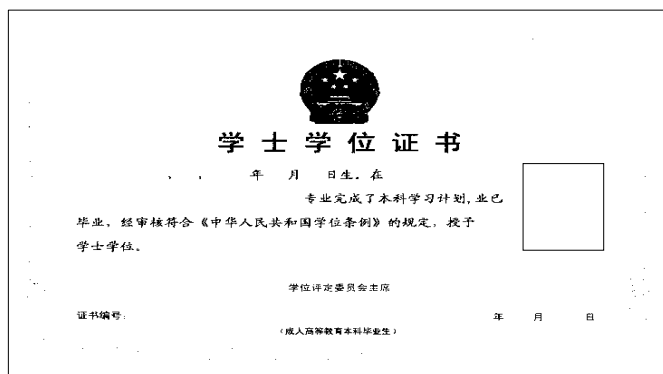
전문직업학사학위증서(學士專業學位證書)에는 “건축학학사학위증서(建築學學士學位證書)”가 있으며, 왼쪽 면의 “學士學位證書” 앞에 “건축학(建築學)”이라는 학문분야 명이 추가되어, 일반 학사학위와 구별된다.

석·박사 학위증서는 접이식의 경우 왼쪽 면 중앙에 국가 휘장이 찍혀 있고 그 밑에 “석사학위증서(碩士學位證書)” 또는 “박사학위증서(博士學位證書)”라고 인쇄되어 있다. 그리고 오른쪽 면에는 상단에 학위수여자의 탈모사진이 있고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각각 성명, 본적(籍貫), 출생년월, 전공명, 수여학위의 학문분야, 수여일시, 수여기관 및 수여인(经办人), 학위증서 일련번호가 기재된다.

전문직업석사학위증서(碩士專業學位證書)와 전문직업박사학위증서(博士專業學位證書)는 왼쪽 면의 “碩士(博士)學位證書” 앞에 학문분야 명이 추가된다. 전문직업석사학위증서로는 각각 “工商管理碩士學位證書”, “建築學碩士學位證書”, “法律碩士學位證書”, “教育碩士學位證書”, “工程碩士學位證書”, “臨床醫學碩士學位證書”가 있으며, 전문직업박사학위증서에는 단지 “臨床醫學博士學位證書” 한 종류가 있을 뿐이다.

2008년도 졸업생부터 부여되는 새 학위증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학사학위증서 양식〉 (2008년 이후)



기재 내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증서의 일련번호이다. 일련번호는 원래 12자리였다가 2006년부터는 16자리로, 2008년부터는 18자리로 점점 늘어났다.³⁵⁾

일련번호 16자리와 18자리를 기준으로 번호체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證 書 編 號
16자리: 1028422007100011

위 증서 일련번호 앞의 다섯 자리는 학위수여기관에 부여된 고유코

35) 2007년 11월 22일 중국 교육부에서 공정한 《전자등록 시행안》에 따르면, 2008년 3월 1일부로 일련번호가 18자리로 교체되어야 하지만, 2008년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실제 박사학위에서는 2008년 이전의 16자리와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증서도 있어, 시행령의 철저한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³⁶⁾로서 위 일련번호에 명기된 ‘10284’는 남경대학교(南京大學)를 의미한다. 그 바로 뒤의 여섯째 자리 수는 학위종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박사학위는 2, 석사학위는 3, 학사학위는 4로 표시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그림 상의 일련번호가 박사학위증서 상의 일련번호임을 알 수 있다. 또 그 다음 네 자리는 학위수여 연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 그림 상의 ‘2007’은 2007년도에 학위를 취득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자리는 학위수여기관에서 학위취득자에게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다. 상술한 설명을 종합하여 위의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본 학위증서의 소유자는 남경대학의 2007년도 100011호 박사이다”. 2006년도 이전에 발행된 학위증서 일련번호는 12자리인데 이는 학위수여연도와 취득자에게 부여하는 학위수여기관의 일련번호에서 각각 2자리가 부족하다.

《전자등록 시행안》에는 졸업증서와 학위증서에 나타나는 18자리의 일련번호 상의 체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을 예로 취득한 증서에 나타난 번호체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證 書 編 號
18자리: 100019200801000004

왼쪽에서부터 시작하여 1번째 자리부터 5번째 자리까지는 학위수여기관에 부여된 고유코드로서 위 일련번호에 명기된 ‘10001’은 북경대학교(北京大學)를 의미한다. 6번째 숫자 ‘9’는 외국유학생임을 뜻한다. 7번째 자리부터 10번째 자리까지는 졸업년도³⁷⁾를 가리키며 11번째 자리

36) 중국 각 고등교육기관의 고유코드 번호에 관하여는 주성일, 《중국의 교육·학위제도 조사연구》(2008, pp.105~112)를 참조할 수 있다.

37) 《전자등록 시행안》에는 “졸업년도(畢業年分)”가 아닌 “입학년도(入學年分)”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에 취득한 실제 학위증서와 졸업증서에는 7번째 자리부터 10번째 자리까지는 입학년도가 아닌 학위수여 및

부터 12번째 자리까지는 유학과정의 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06은 전과생을, 05는 본과생을, 02는 석사연구생을, 01은 박사연구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머지 13번째 숫자부터 18번째 숫자는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다.³⁸⁾

상술한 설명을 종합해보면 위의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본 학위증서의 소유자는 북경대학의 2008년도 000004호 박사이다”.

2008년 이후 달라진 증서 상의 일련번호만 잘 활용하더라도 중국에서의 학위 취득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위증서 일련번호의 맨 앞부분에는 알파벳이 부가될 수 있다. 동등학력 소지자가 취득한 학위증서에는 영문대문자 ‘T’를, 전문직업학위증서에는 영문대문자 ‘Z’를 부가한다.³⁹⁾ 전문직업학위증서에는 두 개의 알파벳이 기입되는데 하나는 일련번호의 맨 앞에 붙는 ‘Z’이고 또 하나는 학위수여기관이 학위취득자에게 부여하는 마지막 6자리 중에서 첫 번째 숫자를 대체하는 ‘L, S, F, Y, J, C’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문직업학위증서 중 臨床醫學·碩士學位證書에는 ‘L’을, 工商管理碩士學位證書에는 ‘S’를, 法律碩士學位證書에는 ‘F’를, 教育碩士學位證書에는 ‘Y’를, 建築學·碩士學位證書에는 ‘J’를, 工程碩士學位證書에는 ‘C’로 첫 번째 숫자를 대체한다.

학술진흥재단에서 내놓은 통계자료의 출처가 대부분 신고자의 신고내

졸업년도를 표시하고 있어, 시행령에 기록된 “입학년도(入學年分)”는 “졸업년도(畢業年分)”의 오기로 보인다.

38) 하지만,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일부 2008년 학위 취득자의 실제 학위증명서에는 여전히 2008년 이전의 일련번호 양식 체계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아직 중국의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일련번호체계를 따르고 있지는 않음을 볼 수 있다. 중국 행정 체계 집행의 전말을 파악하기 전에는 2008년 이후 학위취득자 학위증서의 일련번호가 2008년 이전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학위의 진위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39) ‘T’는 2000년도 학위증서부터, ‘Z’는 1999년도 학위증서부터 기입되었다.

용에 근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위증서 일련번호를 이용한 통계 자료 추출은 좀 더 객관적으로, 그러면서도 좀 더 간편하게 중국학위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5. 중국박사학위 신고 시스템 개선안

5.1. 현행 외국박사학위 신고 절차 및 중국학위 인증 대행 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현행 외국 박사학위 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온라인 신고
- 2단계: 서류구비 후 제출
- 3단계: 재단에서 신고서류 검토 후, 보류 또는 승인 사항을 통보
-본인의 승인과 보류 여부확인은 학위신고현황에서 확인 가능
- 4단계:
 - 승인이 된 경우: 서류내용과 신고사항 확인
 - 보류가 된 경우: 재단 내부적으로 조사 후 조사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 5단계:
 - 승인이 된 경우 : 신고필증은 신고사항과 서류 검토 과정을 통해, 5일~7일(공휴일 포함) 후 우편으로 수령 가능
 - 보류가 된 경우 : 결정사항은 학위신고현황을 통해 통지

온라인상 입력이 완료된 신고자는 3주 이내에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위증사본1부 (원본제시)
- 박사학위 논문 또는 게재된 논문출판본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발행)

○ 성적증명서 1부(학위이수과정이 없는 대학은 수학·등록사실확인서를 제출함)

○ 논문이용 동의 시 논문이용 동의서 원본 1부 제출(양식 받기→ 한글, MS-WORD)(선택서류)

논문이용에 동의한 경우 논문원문을 무료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제출한 논문원문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

-외국박사학위기관(대학)이 재단에 신규로 등록하는 학위신고서, 재단에 이미 등록된 기관이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위 신고 시 또는 대학 등 수요기관으로부터 재단에 조사확인 요청시 서류

(추가서류)

○ 학위취득기관의 설립인가 근거서류

○ 학위과정커리큘럼 및 수여학위종류

○ 학위수여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대사관, 영사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기타 해당기관 총장 또는 학장의 관련서류

신고자가 온라인으로 입력한 내용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재단 또는 재단 조사위원회의 확인조사과정을 거쳐 적합한 경우 박사학위신고필증을 발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학위 인증관련 업무는 줄곧 주한중국대사관 산하 교육처에서 담당했었다. 그러나 그 업무는 2007년 8월 1일부로 공자아카데미(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⁴⁰⁾로 이관되었다. 공자 아카데

40) 공자아카데미(Confucius Institute)는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서 중국교육부(中國教育部) 및 중국국가대외한어교학지도반(中国国家对外汉语教学领导小组)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총 본부인 “공자학원총부孔子学院总部”는 중국 北京에 있으며, 2004년 11월 21일 한국에 처음으로 공자아카데미(한국지부)를 설립하였다.

미에서 소개하는 중국학력 및 학위 인증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학력 및 학위 인증업무 관련사항 일람표>

학력/학위 인증범위	중국경내 (홍콩, 마카오, 타이완 제외) 에서 취득한 고등교육에 대한 졸업증서, 학위증서, 학습성적표, 재학증명 및 수료에 합격한 고등학교 졸업증서에 대한 인증			
인증내용	전문대학교(大專) 대학교(大學) 이상 학력인증 및 성적인증	학위 인증	재학증명인증 (대학)	성적인증 (대학)
제출서류	*졸업증서(중문) 사본 2부	*학위증서 사본 2부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원본 1부	*중문 성적표 원본 및 사본 각1부
	*성적인증 신청서 성적표(중문) 사본 2부 (성적인증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재학기간 또는 휴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영문 성적표 원본 및 사본 각1부
	*신분증 사본 1부		*재학중의 성적표 사본 2부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학생증 사본 2부	★ 대리인 신청시 반드시 위임장 제출.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제출.	
인증서 사용언어	중문(해당인증서는 영문발급이 안됩니다.)			
인증서 발급기간	* 학력인증: 30일 이내 * 성적인증: 30일 이상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우에 따라 기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학력인증 심사신청 수수료: W49,500 (1부) *성적인증 심사신청 수수료: W60,500 (1부) *한글번역 수수료: W11,000 (1부) *우편수령비: W3,000	*심사신청 수수료: W99,000 (1부) (학위인증, 고등학교 학력인증, 재학증명인증, 성적인증) *한글번역 수수료: W11,000 (1부) *우편수령비: W3,000		
업무개시일	2007년 08월 01일		2008년 01월 01일	
인증서 발급기관	중국교육부 “전국 고등교육기관 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 (中國教育部“全國高等學校信息諮詢與就業指導中心”)		중국교육부 “학위 및 연구생교육발전센터” (中國教育部“學位與研究生教育發展中心”)	

자료출처: 공자아카데미 <http://www.gongja.or.kr>

위의 표를 보면, 중국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서 발급기관’은 두 곳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관련 학교와 부서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중국의 학력 증서와 학위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인이나 한국인에게 위 두 기관에서 발급한 “중국고등교육 학력인증 보고서”와 “중국학위인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중국 고등교육 학력인증보고서 견본>

教育部公告(教学[2004]25号):“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网址: <http://www.chsi.com.cn>)是我国高等教育学历证书查询的唯一网站,“全国高等学校学生信息咨询与就业指导中心”是教育部授权开展高等教育学历认证工作的专门机构。

中国高等教育学历认证报告

报告编号: _____
报告日期: _____

姓名: _____ 性别: _____, 于 _____ 年 _____ 月 _____ 日取得 _____ 省 _____ 大学, _____ 专业 高等教育学历文凭考试 毕业证书, 身份证号码: _____, 证书编号: _____
(报告编号: _____)

全国高等学校学生信息咨询与就业指导中心

报告说明:

1. 报告持有人可以凭报告编号在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 (<http://www.chsi.com.cn>) “学历认证”频道上核实报告的真实性。
2. 报告中如出现“****”, 是未经核实的内容。
3. 核实报告内容最后部分机打报告编号与印刷的报告编号是否一致, 如不一致, 请与受理机构联系。

자료출처: 전국고등교육기관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http://www.chsi.com.cn>)

이 두 곳 모두 중국교육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한 곳은 “전국고등교육 기관 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全國高等學校信息諮詢與就業指導中心)”

이고 나머지 한 곳은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센터(學位與研究生教育發展中心)”이다. 그 가운데 “전국 고등교육기관 정보자문 및 취업지도 센터(<http://www.chsi.com.cn>)”는 학력증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센터(<http://www.cdgdc.edu.cn>)”는 학위증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결국, 현행 국내에서 중국학위를 정식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사단법인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 즉 “공자아카데미” 한 곳 뿐인 셈이 된다. 물론 “한중문화협력연구원”이 중국교육부(中國教育部)로부터 중국 취득 학위의 인증 수속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위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공공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공자아카데미”를 통해 발급 받은 인증확인서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신력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이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리라고 판단된다.

5.2. 체계적인 중국박사학위 신고를 위한 제언

5.2.1. 부적격학위에 대한 방어

‘부적격 학위’라 함은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학위를 중심으로 그것을 수여하는 기관의 자격 문제를 거론할 수 있고, 둘째는 학위를 수여받는 이의 자격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중국에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은 국무원이 따로 정하고 코드명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학위증서에 나타난 증서의 일련번호(처음 다섯 자리)를 통해 1차적으로 수여받은 학위가 적격, 또는 부적격 학위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학위를 수여받는 이의 자격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석·박사 학위수여에 관한 국무원 규정》과 《외국인학위수여시행령》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박사학위를 예로 들어 학위의 신청 및 수여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격 심사와 관련한 내용이다. 석사학위를 소유한 자가 전일제로 소정의 박사과정을 마쳤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지만, 만약 동등학력의 인증을 통해 취득한 박사학위(일련번호에 “T”로 명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논의한 동등학력 인증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각 학위과정별로 중국에서의 실제 체류기간에 대한 확인과정 역시 신고과정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석사연구생은 원칙적으로 전일제로 운영되며, 모든 과정은 중국에서 끝나야 한다. 논문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집필해야 하지만, 《외국인학위수여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지도교수의 동의하에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은 귀국하여 논문을 쓸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박사연구생 교육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전일제(脫産) 교육으로 모든 과정을 중국에서는 이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직자(在職) 교육으로 과정 학습과 논문 집필을 중국과 본국에서 하는 것이다. 《외국인학위수여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전일제가 아닌 재직자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의 논문 집필을 포함한 과정 학습과 과학연구 작업시간이 도합 1년 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술진흥재단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기재된 실제 중국체류 기간과 학위증서에 학제로 명시한 기간을 대조하여 중국법률에 위배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일제의 학생으로 고등교육 기관에 입학할 경우 중국의 해당 학교는 합격자에게 합격통지서와 함께 X비자를 받기 위한 JW202표(외국인 유학자 중국비자 신청표)를 발송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권에 명기된 X비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X비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해당학교를 통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8년 8월에 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중국 모 대학의 중의학박사 학위⁴¹⁾는 이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학위과정 중 해당국 체류기간을 ‘9개월’이라고 적고 있는 바,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학위과정

중 중국에 체류해야 하는 의무 기간에 훨씬 못 미친다. 더구나 첨부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검토해보면 실제 체류기간은 모두 합쳐 3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도 어긋나는 부적격 학위에 해당되므로, 해당학교를 통한 사유서 등 제반 추가 증빙 서류들이 필요한 것이다.

5.2.2. On-line 신고 항목 보완

외국박사 학위신고와 관련한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상의 신고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각각 ①, ②, ③, ④ 번호가 부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④번 “신고등록”을 “나라별 신고등록”으로 좀더 세분화 시킬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①번~③번까지의 과정은 어느 나라에서 학위과정을 마쳤든 지에 상관없이 모든 학위취득자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신고등록” 상의 요건은 각 나라마다 중시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등록 요건인 “학위번호”를 예로 들어보자. 중국에서는 “학위번호”를 국가적 차원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위번호 상의 각 자리 수는 규정에 근거한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과 다르게 사립대학이 대학의 주류인 이유로 “학위번호”의 각 자리 수에 부여된 의미는 각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어떠한 종류의 학위과정을 거쳤는지를, 중국의 학위번호를 통해서만 유추되지만 한국의 학위번호를 통해서만 짐작하기 힘들 수 있다. 종합하면 부정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로서 각 신고요

41) 학술진흥재단 제공,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건들은 그 효력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신고등록” 시 각 나라별 “필수 기입 항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외국인 박사학위 과정은 전일제 방식과 재직자 방식 두 방식 면에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동등학력 학위취득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학위취득자 등록 시스템 구축 시 기존의 시스템에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는 ④번 과정인 “신고등록” 상의 신고 항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뒤 부가적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앞서 제 2장과 제 3장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해보고자 한다.

<학술진흥재단의 현행 외국박사학위 신고 관련 웹페이지>

① 학위신고

→ → →

* 는 필수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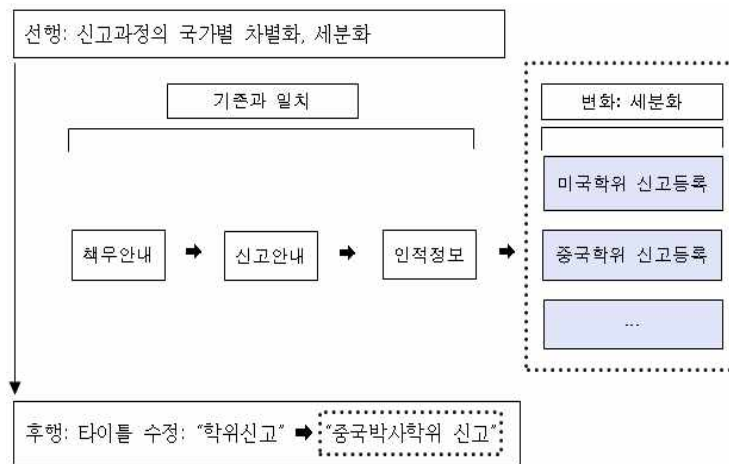
* 전공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전공"/>	②
* 세부 전공	<input type="text"/>		
* 학위종별	<input type="text"/> <small>* 학위기에 있는 원명을 그대로 입력(예: Doctor of Philosophy, 博士(文學) 등)</small>		
* 학위수여교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 수여교 주소	<input type="text"/> (번지까지 정확하게 작성)		
* 입학일자 (박사학위 기간에 해당)	<input type="text"/> (YYYY.MM.DD)	* 학위수여일자	<input type="text"/> (YYYY.MM.DD)
* 박사학위과정 동안(중국체류기간)	<input type="text"/> (개월로 영기)	④	* 학위번호
			<input type="text"/> ⑤
* 논문지도교수	<input type="text"/>		
* 학위논문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이수학기	<input type="checkbox"/> 학기
* 수업방법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input type="button" value="v"/> ⑥		
논문 명	* 원명 영문명	<input type="text"/>	
	* 한글번역	<input type="text"/>	

위의 그림 상에 표시된 ①②③④⑤⑥ 등의 숫자는 수정 보완을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일련번호의 순서대로 학위신고 웹페이지상의 신고 항목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타이틀의 수정문제이다. “학위신고”를 “중국박사 학위신고”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이는 단순한 타이틀의 개정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타이틀의 개정을 위해서는 앞서 논한 “신고등록” 상의 국가별 차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각 국가의 학위제도와 그에 관련된 최소한의 요

구조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다.

<학위신고 타이틀의 수정>



“국가별 차별화, 세분화”라는 전제는 이하 제기되는 제언들과 모두 연관된다.

② 전공명 및 학위종별의 입력문제이다. 현재 외국학위박사의 전공입력은 학술진흥재단의 전공분류표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전공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의 국가별 세분화를 전제로 학술진흥재단의 분류 항목에 포함될 수 없는 “세부전공”은 신고자가 자체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하거나 또는 중국의 《석사·박사 학위수여와 연구생 교육에 관한 학과 및 전공 목록》상의 전공 분류표를 기준으로 일정한 대조표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③ 수여교 주소의 기입문제이다. “수여교 주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더구나 ‘필수항목’으로 넣을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학교에 대한 주소 관련 데이터는 학술진흥재단에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 리스트화하고 학위수여교를 선택하면 수여교의 주소가 자동적으로 하위공란에 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학위수여 학교의 주소’보다는 ‘그 학교가 학위수여가능 기관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④ 박사학위과정 동안의 해당국 체류기간의 기입문제이다. 박사학위과정동안의 체류기간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체류기간이 정해진 학제보다 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짧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보통고등학교 외국 유학생 학위 수여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한다면 외국인의 박사 연구생 교육에 있어서 전일제 교육방식은 물론이요, 재직자 양성 교육방식의 박사 연구생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과정학습과 과학 연구 작업시간이 도합 18개월 이상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류기간” 항목 기입 시 18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를 경유한 사유서를 비롯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공지해야 한다. 또한 On-line 신고에서 18개월 이상으로 기입한 신고자 역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여권 사본’ 상의 비자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8개월 이상 체류했었다고 웹상에 신고하고서 실제로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⑤ 학위번호의 기입문제이다. 학위증서 상의 일련번호는 학위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번호 속에는 학위수여교, 학위과정 유형(전일제, 전문직업, 동등학력), 학위취득년도, 학위종류(학사, 석사, 박사) 등 많은 정보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위번호”항목은 “*”가 부여되는 필수항목으로 수정하고 항목의 제목은 “학위증서번호”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졸업증서번호”항목을 신설하여 필수항목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⁴²⁾

42) 졸업증서번호는 일반 박사학위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등학력 인증을 통해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졸업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졸업증서번호에 “T”로 표시하는 기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⑥ 수업방법의 선택문제이다. 《보통고등학교 외국 유학생 학위 수여 시행령》 제16조에는 외국인 박사 연구생 교육을 전일제와 재직자 양성 교육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part-time’ 등과 같은 선택 항목은, 그것이 비록 ‘과정 학습과 논문 집필을 중국과 본국에서’라는 말과 일정 정도 대응된다고 해도, 중국의 수업방법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는 ④번 제안에서 언급했던 “18개월 이상의 체류기간”을 ‘part-time’이란 말이 수용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중국박사학위 신고”라는 세분화된 학위신고 제도를 채택한다면 “수업방법” 역시 중국의 상황이 고려된 선택항을 배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위조례》, 《학위 조례 임시시행령》, 《보통고등학교 외국 유학생 학위 수여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업방법”항목에 “전일제”, “재직자”, “동등학력”이라는 3가지 선택항목의 도입을 제안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수업방법 선택항목의 추가 및 수정>

현행:

*수업방법	선택	▼
-------	----	---



개정: 중국의 상황에 맞는 선택항 채택

*수업방법	(클릭하면 아래 내용이 나온다) ▼
	전일제 재직자 동등학력

위에서 제기된 제안들은 앞서 밝혔듯이 국가별 세분화를 전제로 한 것들이다. 그것을 전제로 각 제안들을 현행 신고 시스템에 부가할 경우 좀 더 구체화된 인재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부적격 학위신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5.2.3. Off-line 제출 서류 보완

현재 한술진흥재단에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 학위증 사본 1부; ② 박사학위 논문 또는 게재된 논문출판본 1부 또는 hwp, pdf, zip, doc으로 파일 탑재; ③ 출입국사실 증명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학위이수 과정이 없는 대학은 수학, 등록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⑤ 논문이용 동의 시 논문이용 동의서 원본 1부가 있다. 위의 다섯 가지 제출 서류 중 ⑤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학과정의 흔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직접자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 외에 3부의 자료를 더 요구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석사학위증서 사본이다. 석사학위과정은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로 진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석사학위 취득은 박사학위로 진학하는 데 필요한 “최종학력”인 셈이다. 물론 《학위조례》와 《학위조례 임시시행령》에 따르면,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고도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로를 통한 박사학위 취득은 더욱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이 어렵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박사학위의 신고에 있어서 석사학위증서 사본 제시는 요구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여권 사본이다. 역시 원본대조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해당 교육기관에서는 학위과정 입학이 허가된 학생에게 합격통지서와 함께 JW202 표를 함께 발급하게 된다. JW202란 ‘외국인 유학자 중국비자 신청표’로서 중국대사관에 유학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서류이다. JW202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X비자를 위한 것과 F비자를 위한 것이 그것이다. 6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X비자’ 즉, 학생비자를, 6개월 미만 체류 시에는 ‘F비자’ 즉 방문비자를 받는데, 학력 및 학위 교육인 학사, 석사, 박사 유학일 경우에는

해당학교에서 'X비자'를 위한 JW202표를 발급하므로 소정의 학력 및 학위과정 입학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을 경우 해당 유학기간동안 장기 체류를 보장하는 X비자 기록이 여권 상에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신고절차에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는 중국에 체류하는 시간도 1년 반 이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충실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현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더불어 여권의 비자기록을 보조 자료로 채택한다면 학위 검증에 위한 더욱 합리적인 신고절차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졸업증서 사본 1부이다. 이는 '학력'과 '학위'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에서 기인한다. 한국에서 학위증서는 졸업증서를 겸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학위증서는 졸업증서와 등가로 놓이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학위증서와 함께 졸업증서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학력과 학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위증서 사본의 제출과 더불어 졸업증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제출서류의 보완에 관한 제안>

현행	제안
1. 학위증사본 1부(원본제시)	1. 학위증사본 1부(원본제시, 증서일련번호 우선 입력) 1-1. 석사학위증사본 1부(원본제시, 박사학위과정 입학 전 최종학력 증명용; 단, 동등학력 학위취득자의 경우는 제외)
2. 박사학위 논문 또는 화일	2. 박사학위 논문 또는 화일
3.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3.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3-1. 여권사본 1부(학위과정동안 받은 역대 비자 인쇄면)
4. 성적증명서 1부	4. 성적증명서 1부 4-1. 졸업증사본 1부(원본제시, 일련번호 선 입력)
5. 논문이용 동의서 1부	5. 논문이용 동의서 1부

이상에서 논의한대로 각국의 상이한 학위 교육과정의 올바른 이해는 학술진흥재단의 현행 외국박사학위 신고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중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의 신고 절차에 있어서도 국가별 세분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상당 부분 개선이 요구되는 것도 양국의 상이한 학위제도에 기인한다.

물론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개선안을 통해 모든 부적격 학위를 근절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신고절차의 허점을 노린 과립치한 행위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향후 보다 철저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 내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가 요구된다. 《전자등록 시행안》과 이에 따라 중국 교육부가 각 고등교육기관에 하달한 《외국 유학생 학적 및 학력증서 전자등록 업무 활성화에 관한 통지》(2008.2.19)에 따르면, 2008년도부터 3월부터는 모든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학적과 학력을 교육부 전산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관계 기관 간의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중국에서 취득한 학위의 인증은 물론이요 학위의 질에 대한 검증도 일정 부분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參考文獻]

-국외-

- 《中華人民共和國教育法》(1995.3.18)
- 《中華人民共和國高等教育法》(1998.8.29)
- 《國務院關於授予碩博學位的規定》(北京: 中國 國務院, 2004.8.5.)
- 《中華人民共和國學位條例》(北京: 中國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1981.1.1)
- 《中華人民共和國學位條例暫行實施辦法》(北京: 中國 國務院, 1981.5.20)

- 《普通高等教育學歷證書管理暫行規定》(北京: 中國 教育部, 1993.12.29)
- 《普通高等學校接受外國留學生管理規程》(北京: 中國 教育部, 2000.1.31.)
- 《接受外國來華留學研究生施行辦法》(北京: 中國 國家教育委員會, 1992.6.22)
- 《關於普通高等學校授予來華留學生我國學位試行辦法》(北京: 中國 國務院, 1991.10.24)
- 《普通高等學校外國留學生新生學籍和外國留學生學歷證書電子注冊的通知》(北京: 中國 教育部, 2007.11.22)
- 《關於做好外國留學生學歷教育新生學籍和外國留學生學歷證書電子注冊工作的通知》(北京: 中國 教育部, 2008.2.19)
- 王秀卿, 《研究生教育概論》(北京: 北京理工大學出版社, 2001)
- 徐希元, 《當代中國博士生教育研究》, (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06)
- 周洪宇, 《學位與研究生教育史》,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4)
- 謝桂華, 《學位與研究生教育研究新進展》,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6)
- 王忠烈, 《學位與研究生教育比較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9)
- 국내-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8988호)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09.18 대통령령 제21006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 우제창, 《외국박사학위제도의 분석을 통한 외국박사학위 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서울: 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과제, 2005)
- 주성일, 《중국의 교육제도·학위제도 조사연구》(서울: 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과제, 2008)
- 이경자, 〈중국 대학교육 개혁의 동향〉, 《비교교육연구》16:2(2006)
- 신현석, 〈외국박사학위 인증관련 제도개선 방안연구〉, 《교육행정학연구》21:4(2003)

-웹사이트 자료-

<http://www.krf.or.kr>

<http://www.moe.edu.cn>

<http://www.csc.edu.cn>

<http://www.chsi.com.cn>

<http://www.cdgdc.edu.cn>

<http://www.zjol.com.cn>

[Abstract]

Since the reform and openness of China, the global position of China has been promoted and the amity between Korea and China finally came true in 1992. Since then, academic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expanded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For all that, the lack of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Chinese educational system together with the weakness inherent in the report system of the foreign doctorate has caused the mass production of false doctors, and this problem will continue if appropriate measures should not be applied to that.

Considering the increasingly close ti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doctoral degree holders, the comprehensive research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academic degrees of China should be performed from the national dimension.

This study purports to give the foundation for the verification system and rational report procedure for master's and doctor's degrees issued in China through the profound analysis of the system of education and academic degrees in China and problems in the report system of Korea Research Foundation.

[국문요약]

중국의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급성장함에 따라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뒤부터는 중국과의 학술 및 학술교류는 날로 그 범위와 내용이 눈에 띄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교육제도와 학위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의 부족은 현행 외국박사학위 신고상의 허점들과 맞물려 여전히 부적절한 학위의 양산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실정이다.

점점 긴밀해지는 한중 학술교류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중국에서의 학위취득자 수를 감안할 때, 중국의 교육 및 학위제도에 대한 종합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교육제도와 학위제도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중국에서 취득한 석사 및 박사 학위의 신고 절차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에 대한 적절한 검증시스템 구축과 합리적인 신고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

주제어: 중국의 교육, 중국의 학위, 외국박사학위, 학위인증시스템, 외국학위신고

투고일: 2008. 10. 27. 심사일: 2008. 11. 10. ~ 2008. 11. 24. 게재 확정일: 2008. 11. 25.

[書評]

中國詩學研究的一部新穎厚重之作

王 今 暉*

賦、比、興是中國古代文論中非常重要的一組概念，它不僅在創作、閱讀和批評等多個層面與中國詩歌(包括詞、曲)密切相關，也對諸如音樂、書法及繪畫等其他藝術理論產生了重要的影響。然而，一方面二十世紀以來的中國詩學研究，一直存在著套用西方理論概念和模式，對中國詩學自身特點卻反而重視不夠的偏失；另一方面，前人雖然已經清醒地認識到賦、比、興“詩學之正源，法度之準則”(元人楊載語)的獨特地位，但是由於先秦文獻的缺失，從漢代至今的兩千多年裏賦、比、興一直是中國傳統的學術難題，且始終未能達成比較一致的共識。直到現代，朱自清先生仍有“越說越糊塗”的感慨。這大大影響了中國詩學研究的深入。

劉懷榮教授的《賦比興與中國詩學研究》(人民出版社，2007年7月)能夠另闢蹊徑，從發生學和民族思維發展的角度出發，充分利用古文字學、考古學、民俗學和巫術宗教學等方面的資料，在大量吸收前人研究成果的基礎上，對賦、比、興的發生源頭作出初步的探索，認為賦的感性源頭為早期貢賦制、比的感性源頭為原始舞蹈，興本為祭祀名稱，三者與原始宗教祭祀儀式之間均有密不可分的關係，是原始時代感性的宗教祭祀活動的重要組成部分，後來在歷史的發展中逐步抽象、昇華為民族藝術思維的三種基本方式。這一探索在朱自清《詩言志辨》和趙沛霖《興的源起》的研究基礎上，又有全新的推進。

* 青島大學文學院副教授，慶尙大學校中語中文學科 交換教授(2007~2008)
(wangjinhui69@163.com)

與以往的學者僅注意“興”或者“比興”，及僅從後代詩學理論的發展探求、梳理中國詩學體系的做法不同，作者認為賦、比、興從發生階段就是一組不可隨意分割的概念，書中首次是把賦、比、興作為中國詩學最基本的三種思維方式和最核心的概念，把它們與中國詩學發展的全部歷史作為一個整體，並放在當代國際學術視野中來研究，對賦、比、興在漢以後詩學史上的發展、演變、理論特點，以及它所衍生出來的一系列詩學範疇，也做了細緻的分析探討。這樣的研究思路非常新穎，既是以往研究者關注較少的，也為書中關於賦、比、興發生源頭的結論提供了發展過程方面的證據。

由於有探本的研究作基礎，故書中對賦、比、興之流變及與中國詩學之關係的研究也多有新的創獲。如作者把賦比興、詩教、詩言志看作是中國詩學的三大原生概念，認為三者不僅在發生源頭上有著密切的聯繫，而且在漢代以後也是中國詩學發展的三條主線，並構成了中國詩學最基本的原生體系。與近年來不少學者對中國詩學體系的種種探討相比，作者的這一看法是更為符合實際的。作者還通過對一批中國詩學概念的深入剖析，從多方面論證了賦、比、興在中國詩學史上極為獨特的核心地位，使這一新觀點更具說服力。又如通過對言意問題發生源頭與發展軌跡的梳理，作者發現了“言意之辨”的理論成果在齊梁以後與“興”的匯流，以及這一匯流在中國詩學史上所產生的重大影響。這一重要的變化不僅成為中國詩學理論建構的重要資源，也與上述三大原生概念共同決定了中國詩學獨特的民族品格，這也是以往的論者未曾正面論及的。

此外，該成果還對中國詩學史上諸如“詩教”、“跡熄詩亡說”、“《毛傳》標興說”、“香草美人說”、“物感說”、“興象說”、“境界說”等一系列重要問題，尤其是它們與賦、比、興的關聯，都進行了追本溯源、突破前人舊說，或自成一家之說的分析、闡述。這些觀點皆能闡微顯幽，發前人之未發，具有重要的理論價值。

該成果在方法論上也有兩個值得肯定的特點：一是把對民族文化早期萌芽狀態的潛在詩學的研究，作為討論詩學問題的出發點，這是以往學者關注不夠，但卻是中國詩學研究中的關鍵問題。因為一個民族文化在發生期的某些特點往往決定著該民族文化的發展方式和定型以後的特點；二是把傳統的考

據學作為詩學發生學研究的基本方法，但是在材料的使用上，除以往學者使用過的傳統文獻材料外，還使用了原始岩畫、陶文及考古學、神話學、古文字學、民俗學等方面的新材料。這也是作者能夠取得顯著成績的一個重要原因。

總的來看，本書把賦、比、興這一組詩學概念置於中國詩學和民族藝術思維的視野中，不僅對它們的發生源頭作了初步的破解，也在將賦比興作為中國古代最基本的三種藝術思維方式的前提下，對不同歷史階段歧義紛呈的賦、比、興及與之相關的一系列詩學問題作出了重新的解讀，從而使賦、比、興作為中國詩學原生體系和基本構架的事實得到較為清晰的呈現。對於走出兩千多年來賦、比、興研究的困境，具有積極的學術意義。

當然，由於史料的嚴重缺失，本書在對賦、比、興如何從上古祭祀儀式經先秦禮樂文化，特別是以《詩經》為核心的先秦實用詩學，而逐漸轉化為詩學概念這一環節上，還有一定的推測成分，需要作進一步深入的考察研究。對於以《詩經》為代表的先秦詩歌與祭祀儀式的關係，未能進行更詳細的探究，而對新發現的《孔子詩論》及其相關研究成果的關注，則明顯不夠。我們期待著作者在下一步的研究中，能夠高度重視這些問題，加強相應工作，取得新的成績。

《中國學》 발행 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영문 명칭은 “Chinese Studies”, 한글 명칭은 “중국학”, 한자 명칭은 “中國學”으로 한다.

제2조 (발행처)

학술지의 발행처는 대한중국학회이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년 2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본 학회지의 발행은 1년간 2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 1) 학술지 발행 시기: 학술지는 매년 8월 30일과 12월 20일, 2회 발간한다.
- 2) 원고 마감 시기: 8월 30일 발행 학술지의 원고는 당해 년 6월 30일, 12월 20일 발행 학술지의 원고는 당해 년 10월 30일을 기해 접수를 마감한다. 단 우송된 원고는 우송일자 소인을 기준으로 위의 기준을 적용한다.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일정은 다음 표와 같다.

※ 심사 절차 및 일정표

발행일	8월	12월
원고마감	6월30일	10월 31일
편집위원회 개최 심사위원 선정 논문 및 심사표 발송 평가 의뢰	7월 10일	11월 10일
논문심사	7월 20일	11월 20일
논문심사 결과 취합 및 게재 여부 결정	7월 31일	11월 25일
결과 통보(게재여부 및 수정지시 통보)	8월 10일	12월 1일
원고 수정 및 반송	8월 17일	12월 7일
수정 원고 재심사	8월 20일	12월 10일
《중국학》 편집 및 인쇄	8월 27일	12월 17일
《중국학》 발간	8월 30일	12월 20일

제5조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의 표기)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표기한다.

제6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와 게재 여부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하기 전의 규정되지 않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7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시 3만원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2. 논문의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료 15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학회는 출판 후 논문 1권과 별쇄본 20부를 저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단, 별쇄본의 추가 인쇄 및 35쪽 시 저자가 부담한다.
3.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大韓中國學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1條

本會는 大韓中國學會라 稱한다. 以下 本會라 稱함.

第2條

本會의 本部는 會長所屬校內에 둔다.

第3條

本會는 中國學 관련 분야를 研究함으로써 韓國의 學術문화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4條

本會는 第3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活動을 한다.

- 1) 國內·國際學術會議 및 學術講演會 開催
- 2) 會誌 및 其他 出版物 發刊
- 3) 國內外 學術團體와의 學術 및 文化交流
- 4) 其他 必要한 事業

第2章 會 員

第5條

本會의 會員은 正會員·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으로 한다.

第6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資格을 가지고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자로서 正會員 2명 以上の 推薦으로 任員會의 承認을 얻어 정한다.

- 1) 正會員 : 大學 및 이와 同等한 教育機關에서 中國學 관련 講義를 맡고 있는 講師 以上の 사람, 또는 이와 同等한 資格을 갖춘 사람.
- 2) 準會員 : 大學院에서 中國學 관련 분야를 專攻하는 사람.
- 3) 名譽會員 : 本會의 目的에 贊同하고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사람.
- 4) 團體會員 :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단체.

第7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 1) 正會員은 總會에서의 議決權과 任員의 選舉權 및 被選舉權을 가지며 本會의 活動을 위한 會費納付 및 會則을 遵守할 義務를 가진다.
- 2) 準會員·名譽會員·團體會員은 本會가 主催하는 各種 行事に 參與할 수 있으며 準會員은 總會의 議決에 따른 所定の 會費納付 義務를 가진다.

第8條

本會에 加入한 會員은 本人의 事情에 따라 任意로 脫退할 수 있다.

第3章 任 員

第9條

本會는 會長·副會長·運營委員·幹事·監事 등의 任員을 두고, 顧問·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第10條

任員의 任期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단, 顧問과 名譽會長의 임기는 예외로 한다.

第11條

會長 1명·副會長 若干명·運營委員 若干명·監事 2인은 總會에서 選出하며 幹事 若干명은 任員會의 認准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顧問·名譽會長의 경우는 會長이 추천하고 總會에서 추대한다.

第12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本會의 諸般業務를 統轄하고 總會 및 任員會의 議長이 된다.

第13條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에는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理한다.

第14條

運營委員은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이나 其他 重要な 會務를 協議하고 處理한다.

第15條

幹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總務·學術·編輯·出版·研究·涉外·企劃 등 本會의 會務를 分擔하여 擔當한다.

第16條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 監査한다.

第4章 會議

第17條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臨時總會·任員會·編輯委員會·研究倫理委員會로 하고 構成會員 1/3 以上の 出席으로 成立된다.

第18條

本會의 會議는 다음과 같은 경우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 1) 定期總會: 每年 8월중
- 2) 臨時總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正會員 3분의 1 이상이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3) 任員會: 會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任員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 任員會 任員은 會長·副會長·運營委員·幹事に 한 하며 顧問·名譽會長 및 監事는 除外된다.

第19條

本會의 議決은 出席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한다.

第20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會長·副會長·運營委員·監事의 選出 및 顧問·名譽會長 추대
- 2) 豫算 및 決算
- 3) 會則改正
- 4) 事業計劃의 議決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1條

任員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

- 1) 總會에서 委任받은 本會의 運營 및 事業의 執行에 관한 事項
- 2) 會則改正案
- 3) 事業計劃案과 豫算決算案
- 4) 新入會員 審査 및 幹事의 認准
- 5) 其他 必要한 事項

第22條

編輯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의 編輯을 주관하고 論文審査委員會를 委囑한다.

- 1) 編輯委員會는 會長이 任命한 中國學 關聯分野의 專門家 10명 전후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2) 編輯理事는 編輯委員會에서 선임하고 委員會의 當務를 主宰한다.
- 3) 編輯委員會에서 委囑하는 論文審査委員의 構成과 論文審査에 관한 細則은 別途로 定한다.

第23條

研究倫理委員會는 本會의 論文集 및 기타 刊行物の 연구윤리 관련 사항을 주관하고 필요시 調査委員會를 구성한다.

- 1) 研究倫理委員會는 編輯理事, 學術理事를 포함, 5인 이상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2) 委員長은 會長이 임명하며, 幹事는 委員會에서 호선한다.
- 3) 委員은 會長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기타 자세한 事項은 별도로 제정된 研究倫理 규정에 따른다.

第5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 經費는 入會金·會費·贊助金 및 其他 收入金으로 充當한다. 단, 入會金과 會費는 定期總會에서 決定한다.

第25條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9월 1일부터 翌年 8월말일까지로 한다.

第6章 附 則

第25條

本會則의 改正은 總會에서 正會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贊成이 있어야 한다.

第26條

本會則의 施行上 必要한 細則은 總會와 任員會에서 別途로 정한

다.

第27條

本會는 本會則 第4條의 事業을 위하여 必要에 따라서 약간의 分科를 둘 수 있다.

第28條

本會則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第29條

本會則은 通過日로부터 그 效力을 發生한다.

제정 1984년 10월 23일

개정 2000년 2월 26일

개정 2001년 8월 20일

개정 2007년 11월 24일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의 구성

회칙 제4장 제22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中國學》의 편집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위원의 선정 기준

가. 전국 각 대학 전임강사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나. 연구 활동이 왕성하고 학문적 성취가 탁월한 자

4) 위원의 선정 절차

가. 편집위원은 임원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선정한다.
나. 전공,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상의 인원을 추천받아 최종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정 위촉한다.
다. 최종 선정 위촉된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5) 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개최

가.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가 주재한다. 단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학술이사와 협조하여 당무를 주재한다.
나. 매호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는 8월 30일 발행분

은 7월 10일에, 12월 20일 발행분은 11월 10일에 개최한다.
다. 이후의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행 준비에 따라 편집이사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횟수로 소집 개최한다.

논문심사 규정

1) 심사의 취지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내외의 중국학 학술발전을 촉진한다.

2) 심사 시기

매년 8월 30일 발행분은 7월 10일 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7월 31일에 심사를 마감하고, 12월 20일 발행분은 11월 10일 회의를 거쳐 심사를 의뢰하여 11월 25일에 심사를 마감한다.

3) 심사위원의 자격

- 가. 전국 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학 전공자
- 나. 투고된 원고와 같은 분야에 관한 저서나 논문을 발표한 자가 있는 자

4) 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

- 가. 선정 시기: 심사위원은 매호 학회지 발간을 위한 제1차 편집위원회에서 위 3)의 '심사위원 자격'에 의거 선정한다.
- 나. 심사위원의 수: 투고된 논문의 1편 당 심사위원 수는 3명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심사위원의 위촉: 선정된 심사위원에 대해서 편집이사는 지체없이 일정한 양식의 심사의뢰서와 심사서 양식 및 해당 논문의 사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5)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편집이사는 심사논문 발송 전 당해 논문의 저자를 인지할 수 있는 각 항목, 예컨대 필자 성명, 소속, 그리고 각주 및 참고문헌 중 '줄고' 등으로 표기된 부분을 제거하여 필자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6) 심사의 항목 및 배점

가. 심사항목은 '체제의 적합성', '논리전개의 명확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 '학문적 기여도'의 5항목으로 한다.

나. 항목 당 배점은 20점으로 한다.

다.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심사항목을 변경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라. 심사항목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7) 심사결과의 처리

가. 3명의 심사위원 2명에게 80점 이상을 획득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문서를 통해 투고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라. 심사결과 심사위원의 의견제시와 편집위원의 판단에 의해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바. 투고자가 수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개진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할 수 있다.

8) 표절 및 중복게재 금지

- 가. 심사과정, 혹은 게재이후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혐의가 있는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통보된 논문의 혐의점을 심사하여야 한다.
- 다. 표절이나 중복게재가 확인되면 학회에서는 본인의 소명절차를 거쳐 게재불가 혹은 게재취소의 판정을 내린 뒤 최소 3년 이상 논문발표 및 게재를 금지한다.
- 라. 본 학회지에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9) 심사의 면제

학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저명 학자의 강연 원고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외국인 초청학자의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10) 심사일정 게재

게재가 확정된 개별논문에 대해 심사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해 논문의 투고일, 심사개시일, 1차 수정일, 2차 수정일, 게재확정일 등 심사단계를 기재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된 <대한중국학회 논문심사세칙>에 따른다.

논문심사세칙

대한중국학회 학술지 《中國學》의 논문심사 규정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중국학 전반과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1) 체재의 적합성(20%)
 - (2) 논리 전개의 명확성(20%)
 - (3) 내용의 독창성(20%)
 - (4) 논문제목의 적합성과 논문의 완성도(20%)
 - (5)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20%)
- 3) 심사 결과는 (1) 게재 가, (2) 수정 후 게재, (3) 게재 유보, (4) 게재 불가 등으로 나눈다.
- 4) 상기 3)항의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의거,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3)에 해당되는 논문은 차기 논문집의 심사 대상에 우선 포함되고, (2)에 해당되는 논문은 심사평가서에 근거해 투고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여 반영 후 게재한다.
- 5) 편집위원회는 학계의 분야별·전공별로 학술 업적이 뛰어난 자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구성한다.

- 6)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7)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의 논문심사위원회를 둔다.
- 8) 논문심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두되, 3인 이상의 홀수 인원으로 구성한다.
- 9)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교수는 반드시 피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각 분야의 권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10) 논문심사위원회에는 외국의 학자도 참여할 수 있다.
- 11)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12)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 13)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원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4) 편집위원회 혹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투고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5) 본 학회에서 개최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공개토론을 거친 완성된 논문은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16) 원고 작성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필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 17) 원고 작성 요령은 별도의 투고규정을 참조한다.
- 18)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 19) 이상의 심사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논문투고규정

1) 원고의 내용

중국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과 번역, 서평 및 학술활동 보고서, 그리고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이 중 논문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 내용과 학술논문의 체재를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하고, 번역은 중국학에 대한 고전적 저술 중 학술적 역주를 갖춘 글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사용언어

우리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타의 외국어로 된 원고도 게재할 수 있다.

3) 인용문

원전을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의 인용문은 우리말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인용문에도 주석을 가한다.

4) 분량

논문은 당 학회의 원고작성요령을 준수하여 매 편 편집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한 별도의 조판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5) 게재료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회에서는 해당 학회지 약간 부와 추인본 약간 부를 증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사이버 논문 공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원고는 학회에서 개설한 홈페이지 혹은 관

런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초록

논문은 중국어 또는 영어 초록(반쪽 분량)과 주제어(4개~10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심사절차 및 일정

- 가. 원고마감: 8월 30일 발행분은 6월 30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0월 30일로 한다.
- 나. 심사의뢰: 8월 30일 발행분은 7월 10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1월 10일 이전에 완료한다.
- 다. 심사기간: 8월 30일 발행분은 7월 20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1월 20일 이전에 완료한다.
- 라. 게재결정: 8월 30일 발행분은 7월 31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1월 25일로 한다.
- 마. 결과통보(수정지시):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10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2월 1일로 한다.
- 바. 수정원고마감: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17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2월 7일로 한다.
- 사. 게재최종결정: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20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2월 10일로 한다.
- 아. 편집인쇄: 8월 30일 발행분은 8월 27일, 12월 20일 발행분은 12월 17일 이전에 완료한다.
- 자. 발간: 8월 30일, 12월 20일 2회 발간한다.

9) 기타

저자명과 논문 제목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기타 원고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원고작성요령'에 따른다.

원고작성 요령

학회지의 원활한 편집과 출판을 위해서 투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꼭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글 워드는 한글 프로그램(2004 이상 권장)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중문 워드나 낮은 버전의 한글을 사용한 파일은 편집자 임의로 코드를 변환합니다. 이에 따르는 출력사고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중문으로 작성한 원고의 경우 번체자 또는 간체자 출력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일률적으로 간체자 출력을 합니다.
3. 논문의 작성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여백(F7)

위쪽 60		머리말 10	
왼쪽 50			오른쪽 50
제본 0			
아래쪽 60		꼬리말 0	

스타일(F6)

		본문	인용문	각주
문단 Alt+T	왼쪽여백	0	0	0
	오른쪽여백	0	2	0
	들여쓰기	10pt(韓) 20pt(中)	27pt	18pt
	줄간격	150	140	120
글자 Alt+L	대표한자	바탕	바탕	바탕
	장평	SimSun	SimSun	SimSun
	자간	-1	-1	-1
	글자크기	10	9	9

4. 전체제목, 장 제목, 절 제목, 이름 및 참고문헌 등 3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의 양식은 편집부에서 일괄 조정합니다.

5. 논문 제출 시 논문의 영문제목과 본인의 영문이름,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한글에서 지원하지 않는 벽자나 기호, 사진 등은 본인이 직접 스캔하여 파일 안에 첨부하여 주시고 출력본 1부에 해당 부분을 붉은색 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7. 각주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의 배열순서: 저자 및 역자명, 《서명》(출판지, 출판사, 출판연월), 인용 쪽수. 예) 胡雲翼 著,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5쪽.
 - ② 논문의 배열순서: 논자명, 〈논문명〉, 《논문집명》 권수: 호수(출판연월), 인용쪽수. (예)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 23:4(2001.7), 44쪽.
8. 참고문헌의 처리는 각주와 동일하게 처리하되 쪽수는 표기하지 않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단행본: 胡雲翼 著, 장기근 역, 《중국문학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4)
 - ② 논문: 楊尙梅, 〈節操意識〉, 《三峽大學學報》 23:4(2001.7)
9. 초록은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한글원고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중국어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0. 논문 제출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심사료 3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조판비 15만원, 그 외에는 7만원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11. 논문 등재자가 받을 수 있는 별쇄본은 10부이며, 추가로 필요시 별도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2. 서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6, 3417), 논제, 작품명 및 편명은 〈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14, 3415), 중간점은 ·(HNC 문자표 전각기호 일반: 3404)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부 ▷

대한중국어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 09. 01

대한중국어학회의 회원은 일체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다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 (표절의 금지)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독창적인 연구 결과나 의견을 자신의 것인 듯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의견을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용부호나 인용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출처를 명시하거나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 기술해야 한다.
3. 연속된 20음절 이상의 내용을 인용 표현 없이 사용할 경우 표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절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제2조 (자기 복제의 금지)

1. 자기 복제라 함은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했던 연구의 결과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출판했던 연구 결과와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다시 출판, 혹은 투고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논문을 축약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논문을 투고할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논문은 자기 복제로 규정한다.
4. 연구 결과를 표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연구자는 주석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5. 연구자가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다시 자신의 단행본에 수록할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에도 해당 연구 결과가 이미 연구 논문으로 출판된 적이 있음을 밝힐 것을 권장한다.

6. 연구자가 국문으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7. 연구자가 외국어로 작성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혹은 투고하는 경우,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연구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프로시딩에 게재하였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초고 형태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는 자기 복제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연구 자료의 변형, 조작 등 금지)

1. 연구자는 자신이 입수한 객관적 형태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조작하거나 가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부득이 연구 자료를 변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 연구자의 표기)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연구 수행에 참여하고 연구 결과의 도출에 기여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2.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이를 요구

해서는 아니 된다.

3. 연구 결과에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도출에 있어 기여가 클수록 해당 연구자의 성명을 앞에 배열한다. 기여의 정도가 동일할 경우에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배열하되 가운뎃 점(·)으로 각 연구자를 구별한다.

4.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원회) 연구윤리 위원회는 본 대한중국어학회의 학술지 『中國學』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 학술이사를 포함,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되 전체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제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 ②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한다.
 - ③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50%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20% 이상을 본 학회 외부의 인원으로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시 기피신청된 위원은 배제된다.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조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라고 판정한 경우, 위원회는 재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에 대한 처리를 의결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반드시 해당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3회 이상의 소명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원회는 대상 논문의 학술지 수록·출판을 막론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7.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학회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제14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제1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 조사위원, 혹은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중 혹은 조사 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 본 연구윤리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半年刊 **中國學** 第 31 輯

2008년 12월 10일 인쇄
2008년 12월 20일 발행

編輯人：大韓中國學會

會 長：金 泰 寬

發行處：釜山市 釜山鎮區 伽倻洞 (☎ 614-714)

東義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內

TEL : (051) 890-1252

H.P. : 016-644-4815

E-mail : kkkang@deu.ac.kr

印刷處：中文出版社 (053) 424-9977
